차 례

开 幕 词 1
개 회 사 3
환 영 사 6
축 사 8
축 사 9
축 사 11

-- 기조강연 --

1.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13
2.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44
3.유럽 (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55

-- 언어학과 언어교육--

1.한국어 교육과 훈민정음 교육 79
2.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발음 오류 연구 동향 분석..... 89
3.‘올림픽체육용어대조사전’ 편찬에 대하여..... 105
4.한국어 단어 ‘날다’의 의미 분석..... 128
5.남북한 순화어에 나타난 의미 표상 방식 고찰..... 139
6.中・日・韓 新漢語의 造語와 그의 交流 163
7.서술절은 없다..... 186
8.부사절의 문법적 의미와 형성 방법에 대한 고찰 212
9.명사파생접미사 '-이'에 대한 고찰 230
10.조선인 김소지(金少芝)의 『일원시고(逸園詩稿)』 수사학 240
11.문법 문식성에 기반한 사회과 텍스트 분석 연구 246
12.다문화 화용론 시각으로 본 한국어 칭찬화행에 대한 연구..... 255
13.한국어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에 대한 고찰 269
14.재외조선족의 언어사용과 의식..... 280
15.단일 동화(单一同化)에서 유한 다원 (有限多元) 으로 294
16.“조선어 동의적사용어휘 편람 (APP) ”개발과 연구..... 307
17.구문 문법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 “-게 되다”의 교수 방법 312
18.1950-60 년대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 기술 양상 연구..... 323

19.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사용 양상 연구.....352
20.방위명사의 의미와 단어 형성 참여 양상.....365
21.국어 피동사의 함축 의미와 상(相)적 특성 연구.....376
22.한국 수어사전에 등재된 한자어 수어의 도상적 양상.....387
23.한국어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399
24.한•중 불교어휘 연구.....411
25.한국어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 연구.....424

-- 번역교육과 언어대조 --

1.韩汉翻译中语篇不连贯偏误分析.....439
2.중국 대학 한국어 번역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449
3.통역의 방향성이 도착어 비유창성에 미친 영향.....467
4.중한-한중 번역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480
5.李氏王朝的汉学政策.....497
6.한중대조언어학의 두 가지 목표 ……500
7.중국어 담화표지 유형 및 중한 대조 분석.....512
8.한·중 대조분석 연구 소고…… 524
9.한·중 "발" 동작 동사 용법 대조 연구 …… 533
10.한중 이중목적어문 구문유형과 의미표현 대비.....546
11.중•한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556
12.번역을 통한 문화융합 현상 고찰.....564

-- 박사생 논단 --

1.'인간관계'의 개념화 양상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573
2.인지구조학습이론 아래 마이크로 수업과 위챗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 거꾸로 교실의 탐구.....574
3.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위로화행 연구.....581
4.이중 피동 표현에서 '-어지다'의 양태 연구.....592
5.품사분류에 대한 역사적 고찰.....604
6.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실험 연구.....616
7.개념적 혼성 리론에 기초한 합성명사의 의미 구성 연구.....631
8.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 내용 연구.....638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2018年国际学术大会

开 幕 词

姜宝有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尊敬的延边大学金雄校长，
韩国国际交流财团姜荣必副理事长，
国语国文学会朴昌远会长，
国际高丽学会延哉勋会长，
国语教育学会徐赫会长，
中国朝鲜-韩国文化研究学会蔡美花会长，
中国朝鲜语学会金光洙会长，
尊敬的国内外来宾，各位会员朋友们，大家好！

我谨代表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对2018年度国际学术大会在这山清水秀，民风淳朴的延吉，尤其是在坐落于卧龙山的学术殿堂-延边大学顺利召开表示衷心的祝贺！

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以及学会共同举办的本次2018年度国际学术大会，离不开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的大力支持。 还要感谢韩国国际交流财团北京办事处李仁赫处长、延边大学朝鲜-韩国学学院金哲俊院长的鼎力支持，以及韩国语系张英美和朱松姬系主任带领的延边大学朝鲜语文学系和韩国语系全体成员的辛勤付出。在此，我对你们致以诚挚的谢意。

中国的韩国语教育自国立东方语文专科学校在重庆和南京开设朝鲜语讲座以来，已有73年的历史。1992年中韩两国建交以来，中韩两国在政治、经济和文化等方面的交流日益频繁、不断发展，中国的韩国语教育无论是质、还是量，都得到了迅猛发展。目前，中国国内已有280多所大学开设了韩国语专业。在外语专业中，韩国语系的数量和招生人数可以跻身前四、五位。

当今世界已经超越了基于互联网的第三次工业革命，进入了以大数据为基础的第四次工业革命，是人工智能的时代。传统的教育方式跟不上新时代的教育发展。面对人工智能时代和大数据时代，科学地重新设定韩国语教育是我们的使命。

在同时经历外语教育的环境变化和理念变化的当今，本年度国际学术大会以“融合与沟通：韩国语教育和人文科学的发展方向”为主体，探索新时代、新环境下的韩国语教育的发展方向。希望大家踊跃参与讨论。为了提高韩国语教育者和研究者的专门素养，本次学术活动中，年度国际学术大会将和青年教师进修和研究生论文竞赛同时举行。

今天，有来自中国、韩国、英国、日本等国家的66所大学的180余名教授和专家学者前来参会。有来自29个大学的四十多名教师参加教师培训，12所大学的19名研究生参加论文竞赛。规模盛大。

尊敬的各位会员，各位来宾：

在延边大学举办的本次学术活动具有多项深远意义。拥有70年历史的延边大学是中国韩国学发展的引领者。延边大学早在1949年就开设了朝鲜语言文学系，从而开展朝鲜语教育。又在1972年开设针对外语教育的韩国学系。延边大学一直坚持开展朝鲜语（韩国语）教育，其朝鲜语（韩国语）系也被选为国内唯一的国家重点学科。延边大学在国内的韩国语教育中发挥着先锋作用。国内大学的韩国语系的教授们有60-80%毕业于延边大学，或者与延边大学有着密切联系。由于地理上、文化上和学术上的优势，延边大学将会一直在中韩文化交流和韩国语世界化过程中发挥引领作用。

在这里，衷心感谢进行主旨演讲的延边大学金柄珉教授、首尔大学宋喆仪教授、伦敦大学延哉勋教授；和做青年教师培训讲座的首尔大学尹汝卓教授、延边大学金永寿教授、高丽大学李宽珪教授、北京大学王丹教授；以及参与论文发表和讨论的所有与会者。此外，我还要对负责研究生论文竞赛审查的复旦大学姜银国教授、延边大学金虎雄教授、梨花女子大学朴昌远教授、汉阳大学李三炯教授、釜山外国语大学宋享根 教授，上海商学院的张延镐教授表示衷心的感谢。

今天，世界韩国语教育界的元老--首尔大学名誉教授朴甲洙，为了激励年轻一代的学术研究，不远万里跨海来到了这里。对朴教授的到来表达最深深的谢意。

最后，再次向大力支持本次学术活动的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朝鲜-韩国学学院全体老师同学表示衷心的感谢！

预祝本次学术活动取得圆满成功！并祝愿在座的各位身体健康、心情愉快！

祝各位在延吉、在延边大学度过一段美好的时光！

谢谢大家！

2018年 7月 21日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姜宝有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개 회 사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존경하는 연변대학교 김웅 총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 강영필 부이사장님
국어국문학회 박창원 회장님
국제고려학회 연재훈 회장님
국어교육학회 서혁 회장님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채미화 회장님
중국조선어학회 김광수 회장님

존경하는 국내외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를 대표하여 2018년 연례국제학술대회가 산 좋고 물 맑고 인정 많은 연길에서, 특히 와룡산(卧龙山)에 자리한 학문의 전당- 연변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그리고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2018 연례국제학술대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 북경사무소 이인혁 소장님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김철준 원장님, 그리고 장영미 교수와 주송희 한국어학과장을 비롯한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과와 한국어학과 전 가족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 올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립동방전문학교가 중경과 남경에서 개설한 조선어강좌를 시작으로 이미 73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2년 중한 수교를 계기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심화, 발전,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중국 내 대학 한국어학과는 이미 280개에 달하여 학과 수와 학생모집 수가 4,5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에서 더 발전하여 빅데이터(Big Date, 大數据)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통교육 방식으로는 신시대 교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어교육을 과학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워진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어교육의 환경 변화와 이념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례국제학술대회는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시대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오니 열띤 토론을 부탁 드립니다.

본 학술행사에서는 연례국제학술대회와 함께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청년교사연수와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 한국, 영국, 일본 등 나라의 66 개 대학에서 교수와 전문가 180 여 명이 오셨습니다. 교사연수에는 29 개 대학의 40 여명 교수가 지원하였고 논문경시에는 12 개 대학의 19 명 대학원생들이 지원함으로써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본 학술행사가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변대학교는 중국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지구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변대학교는 일찍 1949년에 조선어문학과를 세워 모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하던 데로부터 1972년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조선어(한국어)교육을 오늘날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연변대학교 조선어(한국어)학과는 중국 내 유일의 국가중점학과로 성장하였습니다. 연변대학은 또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의 60-80%는 연변대학을 졸업했거나 연변대학과 깊은 학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 우세로 연변대학교가 중한 문화교류와 한국어세계화를 선도함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부언하고 싶은 것은, 기조강연을 해주실 연변대학교 김병민 선생님, 서울대학교 송철의 선생님, 런던대학교 연재훈 선생님과, 연수강의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윤여탁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영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이관규 선생님, 북경대학교 왕단 선생님, 그리고 연구발표와 토론을 맡아하시는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 심사위원을 맡으실 이화여자대학교 박창원 선생님, 한양대학교 이삼형 선생님, 부산외국어대학교 송향근 선생님, 복단대학교 강은국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호웅 선생님, 상해상학원 장연호 선생님에게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세계 한국어교육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이신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젊은 세대들의 학문을 격려하고자 바다 건너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전가족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학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연길에서 그리고 연변대학에 계시는 동안 마냥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환 영 사

강영필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존경하는

- 강보유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회장님,
- 김웅 연변대학교 총장님,
- 서혁 국어교육학회 회장님,
-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중국 전역과 한국 및 해외 각국에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강영필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공동주최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에 KF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중 양국관계와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국내 한국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가 이끌어준 중국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발전적인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 이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 문화예술 소개, 해외 인사 초청 및 국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는 학회 설립 초기인 2002년부터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한국어 진흥사업은 지난 27년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 해외 150여 개 대학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제공했던 것에 비해, 2018년 현재 전 세계 105개국 1,340여 개 대학에서 한국학/한국어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3천여 명의 교수진이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는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본격 확대되어 온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재단과 학회의 협력관계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각각 개최되어 오던 여러 행사와 회의를 통합하여 총회 성격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중국 내 한국 관련 연구와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연변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모쪼록 이 학술대회를 통해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학회와 연변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대회 강의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을 비롯하여 중국내 한국어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강영필

<참고 -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설립: 2001년

▮회장: 강보유 5대 회장(상해 복단대 중한언어문화교육연구중심 교수/임기2년)

▮구성: 부회장 4명, 연구이사 12명, 선전이사 7명, 지역이사 6명 등

(회원400여명 회비 운영)

▮성격: 중국내 30개 주요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한국어교육/연구 학술단체

▮KF 지원: 2002년 이후 약 30만불 지원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노영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대독)

안녕하십니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노영민 대사입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연변대학교에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중국 전역과 한국, 해외 각국에서 참석하신 250여명의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들이 이곳 중국에서 “융합과 소통 – 한국어 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정세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사적 대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평화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 동북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동북아 지역내 주요국간 대화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저는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연구결과의 확산은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이해 및 역내 안정과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F가 2018년 1월 발간한 ‘해외한국학 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은 10년간 2배가 늘어 1,300곳이 넘습니다.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교수진 3,000명, 학생수는 30,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내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관련 인사들간의 통합과 단결이 더욱 공고해 지는 회의가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국국제교류재단, 연변대학교, 중국한국어교육과 연구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노영민(대독)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서혁

국어교육학회장

존경하는 중국한국(조선)어학회 강보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김웅 총장님, 김병민 전 총장님, 송철의 원장님, 민현식 전원장님, 강영필 부이사장님, 채미화 회장님, 김광수 회장님, 박창원 회장님, 연재훈 회장님, 강은국 교수님, 이인혁 소장님, 김철준 원장님, 장영미 교수님, 주송희 학과장님, 왕단교수님, 김영수 교수님, 박갑수 고문님, 송향근 이사장님, 윤여탁 전회장님, 이삼형 전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국어교육학회 15 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서혁입니다. 오늘 유서 깊은 연변대학교에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가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청년교사연수,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어교육학회는 1991 년에 창설되어, 현재 한국 전역에서 1,000 여 명의 전문가와 회원들이 활동하며, 연 3 회의 학술대회와 매년 5 권의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 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국어교육학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갑수 교수님께서 고문으로 도와주시고, 이삼형 전임 회장님과 이관규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저희 국어교육학회는 재작년에는 대련외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 년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8 년 2 월에는 동경에서 “자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국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어교육의 연구와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11 월말에는 “리터러시(literacy)와 교육격차”라는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이화여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국어교육학회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인 지난 주말에 이화여대에서 한국의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말교육현장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미디어)교육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사들의 국제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변대학교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조선어, 한국어 학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초청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국어교육학회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국어교육학회 회장 서혁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외국문학연구회 조선-한국문학연구분회를 대표하여 중국 한국어교육연구학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2018년 연례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는 거의 20년동안 학회지 <한국(조선)어교육연구>의 간행과 한국어교육 국제연례학술대회의 개최, 그리고 한국어교육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자 연수과정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에 커다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연례학술대회는 중국 한국학의 모태이자 국제일류의 외국언어문학학과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연변대학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써 더욱 중대한 의미와 영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조선-한국문학연구학회는 중국 한국어학과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이라는 공통한 과업을 담당하면서 상호 소통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학회는 조선한국언어문학고급인재의 양성 및 새시기 한국어학과에서의 문화교육문제를 둘러싸고 함께 토의,연구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의 발전을 추진할데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목전 중국에서의 조선-한국언어문화교육은 엄중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세하에서 우리는 학과발전의 출구와 도약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용적인 인재양성과 국제적인 경쟁능력을 가진 고급인재양성을 동시에 실행할수 있는 교육내용을 창조하고 학과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개발에 동참하면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교육방법을 탐색해나간다면 한국어학과발전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 그리고 중국 한국어학과의 청년교원들이 함께 동참한 성대한 학술모임입니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의 자세와 수준을 진단하고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금후 중국의 한국어학과 발전전략에 대해 사고하는 좋은 장으로 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이 학술대회가 중국 조선-한국언어교육의 새로운 활기를 찾는데서 큰 힘으로 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대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채미화

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김 병 민

(연변대학교, 산동대학교 석좌교수)

<차례>

1. 들어가는 말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3. 결사의 선택: 의열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7.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국은 특수한 공간이었다. 중국은 비단 식민지 한국 이민들의 생활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독립투쟁의 정치공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 근대문학, 특히는 항일문학의 발전공간이었다. 중국체험서사로 특징되는 항일문학은 한국 망명지사들에 의하여 중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된 상황으로 곽미선의 『김택영의 문학연구』(2013), 김동훈의「예관 신규식과 그의 문학」(1998), 김병민의『신채호문학연구』(1988), 황재민의「박은식 '안중근전'의 문학사적 성격과 영향력」(2016), 강창민의『이육사의 문학연구』(국학자료원, 2002) 등은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연구에서는 개별 문인들의 문학 활동, 창작특징, 의식세계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천명하였다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총체적 조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시각으로서의 망명문학의 성격, 특징, 가치, 위상 등에 대한 연구는 진일보 전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기되는 망명지사란 본토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생존적 어려움으로 정치활동 공간을 중국으로 옮겨온 후 장기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문필활동과 항일구국운동을 한 문인-지사들을 가리킨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다수가 계몽문화운동의 세례를 거친 지식인으로 항일문인인 동시에 항일지사로 그들은 망명문학의 주역들이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중국에 와서 중국문단에 진출하여 중국문인들과 상호교류를 전개하였고 중국매체들에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신문 잡지의 간행과 도서 출판, 창작활동, 사회-문학단체 활동을 통하여 망명문단을 구축해 가기도 했다. 망명문단의 형성과 발전에서 활약한 대표적 인물로는 김택영,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조소양, 류자명, 김규광, 장지락, 이두산 등을 거론할 수가 있으며 주요한 간행물로는 『독립신문』(1919),『신대한』(1919), 『진단』(1920), 『천고』(1921), 『동방전우』(1939), 『조선민족전선』(1938), 『조선의용대통신』(1938), 『한국청년』(1939),『한민』(1940)등을 들 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망명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한 전기(前期) 작업으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특징, 그리고 그 의식세계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구체적으로는 중국혁명서사, 의사폭력투쟁서사, 항일무장투쟁서사, 망향애환서사 등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망명서사로서의 공동서사와 혼종성 등 독특성을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그 체험의 깊이와 사상의 심각성으로 하여 한국 근대 항일문학사 내지는 중한 문학교류사에서 특수한 위상과 가치가 있다.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또한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은 그들의 중국혁명서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20 세기 한국인들의 세계인식과 근대 가치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궤적과 특징을 살펴 볼 수도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는 신해혁명서사와 대혁명[1]서사, 항일혁명서사[2]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은 신해혁명서사를 통해 근대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 주었다. 망명지사 신규식[3]의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손중산에게」, 「황극강에게」, 「민립보 사원 서혈아에게」, 「고우 혈아군을 애도하여」, 「천구 대계도에게 드리노라」, 「송교인에게」, 「황극강을 애도하여」,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인형영사의 영전에」,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도야공에게」 등 일련의 시편들은 대표적 의의를 가진다.

신규식은 1911 년 중국으로 망명한 즉시로 동맹회에 가입했고 직접 무창봉기에도 참

[1] 대혁명은 중국의 1924-1927년 사이의 국공합작으로 전개된 국내 혁명전쟁을 지칭하는데. 북양군벌통치를 반대한 전쟁 혹은 정치운동이라고도 한다.
[2] 항일혁명서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항일투쟁서사를 다루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3] 신규식, 호는 예관, 별명으로 '청구한인' 등을 썼다. 1911년 중국에 망명하여 동맹회에 참가했고 무창봉기에도 참가했으며 남사에 가입했고 중국 혁명당인들과 합작하여 신아동 제사를 건립했다. 임시정부 외무총장, 국무총리 역임. 1920년 『진단』 창간, 주요 저서로 시집 『아목루』 등이 있음.

가했다. 그의 신해혁명 체험은 그로 하여금 봉건 전제체제의 필연적 멸망과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의 도래를 인식하였던 것이다.

共和新日月, 공화국 새 세상 만들어 내여,
重劈舊乾坤。 낡은 세상 새로이 돌려 세우니.
四海群生樂, 사해의 만백성 기뻐들하며,
中山萬世尊。 손중산 우러러 받들어 모시네.
-「祝孫總統中山」 -「손중산대통령을 축하하며」[4]

荆天荆地一身轻 촉수오산의 길 평탄치 않아도
楚水吴山路不平 그대는 가시덤불 헤쳐 왔어라.
铁血疆场当日愿 피어린 싸움으로 키워 온 포부
数千万口是同声。 만백성 모두다 그대를 환호하네.
-「赠孙中山」 -「손중산을 축하하여」

신규식은 위 시에서 청왕조를 뒤엎고 중화민국을 이룩한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을 노래했다. 여기에는 그의 근대적 민족국가, 즉 공화제 근대국가에 대한 동경이 잘 보여진다. 신규식의 중국체험을 논할 때 가장 값진 부분은 바로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하여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과 그 필연적 추세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하고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신규식은 1921 년 손중산을 만난 자리에서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의, 호법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중양국의 혁명은 동일하게 중요하여 중국혁명의 성공의 날은 즉 한국 독립해방의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했고 “중국의 통일은 유망하고 동아의 서광은 이미 열리었습니다. ”[5]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그는 투철한 정치안목으로 중국, 내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분석했는 바 망명인으로서의 특수한 시각이 돋보인다. 근대에 접어들어 중화주의 천화관의 붕괴와 함께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한국은 대 강대국관계에서 주체성 없이 좌왕우왕하다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한국은 대 중국관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척화파, 친화파 등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제국담론에 휘말려 중국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중국의 근대혁명인식에서도 투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면은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지사들의 중국망명이 현실화 되면서 극복되기 시작했으나 중국의 현실, 특히는 신해혁명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양하였던 것이다.[6]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규식은 중국의 혁명에 투신하여 신해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

[4] 신규식,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신규식 시문집』(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189쪽.
[5] 민필호, 『한중외교시화』(일명 『중국호법정부방문기』), 『석림 민필호전』(김준엽 편, 나남출판, 1995, 235쪽
[6] 신규식의 경우에는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 정면으로 긍정했었나 유린석 같은 의병장은 재래

을 얻었던 것이다. 그의 시가에서 보여지는 신해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대로 한국 근대사상사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재발견인 동시에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 계몽사상가들의 경우 근대적 민족국가를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봉건정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민주국가를 세워야 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규식의 중국체험에서 얻어진 근대 국가인식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규식의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은 북양군벌정부를 부정하고 호법투쟁을 전개하는 신해혁명 당인들의 민주주의 혁명정신과 가치관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왜냐하면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의 진두에 서서 싸우는 혁명자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은 그대로 근대중국의 정신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신규식은 주변에서 중심부에 왔었으나 타자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타자화 하지도 않았으며 이중주체적 시각에서 역사현장과 그 인물들을 바라본 것이다.

시 「황극강을 애도하며」, 「인형 영사의 영전에」 등은 혁명당인들을 찬미한 대표적 작품으로 시문에서 시인은 신해혁명의 영도자 손중산을 보필하여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을 지휘한 황극강[7]과 진기미[8]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보여준다.

繼漁父英士血流黃歇,　　어부, 영사의 뒤를 이어 상해에서 피흘렸으니,
義烈千秋,　　의로움은 천추에 빛나고,
淚灑難幹,　　눈물은 마를 길이 없는데,
舊雨凋零悲故我。　　옛 친구 숨지어 슬프기만 하네.
同逸仙宋卿志在共和,　　손일선, 송교인과 더불어 공화제에 뜻을 두고,
名齊一世,　　함께 명성을 떨쳤으나,
功成不競,　　영예를 다루지 않았으니,
中原寥落哭斯人　　중원에 표박하는 자는 울기만 하네.
-「挽黃克強（黃興)」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9]

시문에서는 황극강이 근대적 지향을 품고 신해혁명에 투신함과 혁명직후에 손중산만을 추대하는 대공무사한 정신, 그리고 민족국가 창출과 수호를 위한 호법투쟁에서의 변함없는 민족정신과 기개를 예찬하고 있다.

전통사상으로 하여 공화제를 지향한 신해혁명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보이지 못하였다.

[7] 황흥은 손중산의 지기로 자산계급혁명의 지도자이다. 그는 황화강 봉기의 주요한 지휘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창봉기를 직접 지휘한 영수로 신해혁명 승리 후 남경 임시정부의 대원수로 추대되어(후에 부원수으로 되었다.) 남경 임시정부 구성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 뒤 손중산이 귀국하자 그는 손중산을 대원수로 추대했고 자신은 육군총장을 단임했다. 신해혁명이 실패한 뒤 그는 원세개를 토벌하는 호법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 뒤 그는 일에 지치어 병들었는데 1916년 상해에서 별세했다.

[8] 진기미는 호는 영사로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1913년 호법투쟁에서 강소 호법군 사령원으로 나섰다. 그 뒤 1916년 원세개의 정부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9] 신규식,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 『신규식시문집』(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222쪽.

시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維公岐嶷, 공은 슬기로웠고,
天挺英姿, 자태가 영매했으며,
一身所系, 대국의 안위를,
大局安危, 한몸에 지녔어라.
過從**既**久, 오래 사귀노라니,
希望無涯, 희망이 끝없었고,
同心協力, 일심으로 협력하여,
濟困扶衰, 난국을 이겨냈다네.
何圖蒼昊, 야먕을 품은 자가,
驕子是恣, 분별없이 날뛰니
公嬰國難, 공은 난국앞에서,
改革乘時, 개혁을 실행했어라.
-「**陈**先生英士**诔**」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10]

시인은 신해혁명 지도자의 한 사람인 진기미[11]의 혁명정신과 업적에 대해 찬미하면서 공화제 실현의 간고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신규식은 황흥, 진기미 등 혁명당인들을 통해서 민족국가, 민주주의, 민족정신 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했고 한국독립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 중국의 근대정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12] 이외에도 신규식은 송교인, 서혈아, 대계도, 도야공 등 혁명당인에 대한 시편들을 통해 근대 중국의 혁명정신 즉 반봉건 민주주의 지향, 투철한 혁명정신, 민족적인 기개 등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은 혁명세력의 선천적인 한계성과 군벌통치자들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온갖 곡절과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 신해혁명의 승리는 봉건군벌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고 손중산을 위주로 하는 혁명당인들은 호법운동을 벌리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신규식은 자신의 시문에서 원세개를 위수로 한 군벌통치세력

[10] 신규식, 「영사 진기미선생을 위한 제문」, 위의 책, 226쪽.
[11] 진기미는 호는 영사라 했고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그는 호법투쟁의 앞장에 나섰는데 상소 호법군 사령으로 호법군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1916년 원세개 정부 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신규식과 진기미는 생사지우였는데 신규식은 진기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공의 댁으로 달려가 고인을 안고 통곡했고 "장퇘하도다, 살아서 영웅이오, 죽어서 신령이 되었으니 당중에 영사같은 자가 거의 없도다."라고 외웠다고 한다. 진기미도 신규식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생활자금을 밖에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던지고는 갔다고 한다. 신규식은 선후로 위시와 함께 시 「인형 영사의 영전에」, 산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등을 발표했다.
[12] 신규식의 근대적 지향은 시 「조카를 학생군단에 보내며」, 「청사를 전송하여」에서도 잘 보여지는데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자유와 민권이 보장되는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파하고 있다.

의 혁명당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13] 손중산을 위수로 한 황흥, 진기미 등의 영도아래 전개된 호법투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대적 지향의 투철성을 증명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대혁명서사는 국공합작에 의하여 전개된 북벌혁명의 가치의 정당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공합작의 파열에 따른 중국 근대혁명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1927 년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한 청당운동으로 국공합작은 파열되고 진보적인 공산당과 민중은 무참한 압제와 학살을 당해야 했고 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뒤 남창기의, 광주기의가 일어나 공산당과 국민당은 대결상태에 있었다. 대혁명시기 중국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그리고 부패한 군벌통치와 복잡한 현실에 대해 한국 망명지사들은 민감하게 파악했고 글로서 자신들의 시국인식과 정치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혁명시기 시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보여준 주요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수필들과 기행문「태항산기」,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 「광주를 떠나면서」,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 등을 들 수가 있다.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1927. 4. 26), 「광주를 떠나면서」(1927.5)14등은 북벌혁명의 좌절과 그에 따른 시국인식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각별히 주목된다. 작자는 상기 글에서 손중산의 영도 밑에 전개된 북벌혁명에 대하여 전면 긍정한 전제하에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행문 「적색의 비통」에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감행된 '4.15 광주참안'을 구체적인 묘사, 예리한 분석, 치렬한 정서로 비판하고 있다.

작자는 우선 혁명세력에 대한 국민당 우익세력의 세기말적 탄압과 무참한 살해를 구체적인 사례 이를테면 계엄령의 반포, 계엄사령관과 공안국장의 포고,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각종 포고와 표어, 공산당원과 그 영향을 받은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는 장면들, 그에 반대한 혁명세력의 표어 등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 한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인(피살된 한 장면, 필자)의 희생자 중에는 18 세의 소녀와 19 세의 소녀가 있었다. ……수십 명의 군대는 범인을 압송해 묶어 세워 질풍같이 몰고 가서는 진흙 가운데로 몰아넣고 총탄을 '탕! 탕!' 쏘아, 그 뇌 속 혹은 가슴 속에 박아 넣었다. 한 소녀는 통곡을 하면서 최후에도 '장개석을 타도하자'를 외치며 죽었다." 이러한 묘사에는 작자의 지대한 분노와 저주, 그리고 예리한 비판이 안받침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 역행성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혁명세력이 정당으로 분할될 때 혁명 그것은 좌절되고 정권을 잃은 정당은 구세력

[13] 신규식은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남사에 드림」 등 시에서 혁명당인들에 대한 봉건군벌들의 탄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14] 류자명의 기행문은 작자가 광주에서 직접 '4.15 광주참안'을 목격하고 쓴 것으로 「적색의 비통」은 1927년 4월 26일 탈고하여 5월 1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고 ,「광주를 떠나면서」는 역시 류자명이 광주를 떠나기 전인(5월 4일 광주를 떠남)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탈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은 6월 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아래에서보다도 더욱 참화를 당하는 것은 역사가 가르치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하여 공산당 혁명세력에 대한 장개석의 피비린 탄압의 본질은 정쟁(政爭) 즉 정치권력탈취에 있음을 투철히 분석하였다. 작자는 또한 이러한 세기말적 탄압은 국민당 우익세력의 반 삼민주의 행동이라 지적하면서 국민당 당원들의 불순결성을 비판했다. 작자는 특히 국민당우익세력들은 삼민주의와 당의 정강 등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도자의 열에 있는 자까지도 혁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민중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실제로는 민중과 혁명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시키려는 자가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작자는 "장개석 일파의 손에서 연출된 모든 현상은 실로 혁명자로서는 타기할 만한 일일 뿐이다"라고 명백히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작자는 장개석과 일본과의 상호 이용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음모책략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통찰한 점이다. 작자는 "중국의 우경적 세력과 우의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일본의 득책(得策)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개석은 일본의 "이 최후 정책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 바 투사, 문인으로서의 역사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류자명은 상기 기행문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행문 「광주를 떠나면서」에서도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과 황포정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역행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 서사는 자신의 체험과 세계인식에 근거한 객관적 시각과 투철한 시국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상의식 저변에는 정의와 비정의, 진보와 반동, 강권과 민중, 정치와 혁명 등에 대한 깊은 사고와 분석이 설득력있게 전개되어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에서 보여준 중국인식 내지는 시국판단은 같은 시기에 국민당 당국과 국민군의 요직에 있은 곽말약의 산문 「오늘의 장개석을 보라」란 글과 혁명세력을 진압한 국민당의 노선을 반대한 노신 선생의 연설, 편지, 일기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4.15 광주참안'을 진실하고 적시적으로 그리고 예리한 안목으로 보여준 글은 중국문인들의 글에서도 찾기 쉽지 않다. 류자명의 기행문은 당대 한국 망명지사들의 정치적 지향과 문화적 자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류자명의 대혁명서사가 북벌혁명에 대한 전면적 긍정과 북벌혁명의 본래 취지를 배반한 장개석의 반동적인 시대역행성을 비판했다면 김산, 님웨일즈 공동작으로 되는『아리랑』[15]에서는 장개석의 반동적 구테타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서 공산당의 진보세력에 의해 격렬한 투쟁을 벌인 광주기의, 해륙풍에서의 공산정권의 건립, 그리고 국민당 우익세력의 피비린 탄압 등에 대하여 쓰고 있다. 특히 엽정, 장태뢰 등에 의하여 전개된 광주기의, 그리고 해륙풍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한 서사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15 『아리랑』은 1937년 미국기자 님 웨일즈(헬렌)가 항일투사 김산의 구술에 근거하여 쓴 김산의 자서전적인 실기문학작품으로 1941년 영문으로 출판되었다. 그 뒤 1941년대 『아리랑 노래』란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한국어로는 1984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문으로 1980년대에 출판되었고 중문으로는 1992년에 출판되었다.

대단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신규식 등의 신해혁명과 손중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한국의 애국지사들과 열혈청년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였는 바 한국의 열혈청년들은 구국의 염원에 불타 올라서 광주에 달려가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고 북벌혁명에 투신했다.[16]또한 장개석의 테러가 있은 뒤 대부분 한국 열혈청년들은 국민군에서 탈퇴하여 남창봉기,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중국혁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피의대가를 치렀는 바 좌우익 분열의 수난을 겪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와 시국판단은 역시 역사격변기의 한국 혁명청년들의 중국인식, 중국 혁명역량과의 제휴, 한국의 미래인식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환언하면 신규식, 류자명 등의 중국혁명서사는 한국인의 근대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결사의 선택: 의열17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한국의 망국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의사들은 망국의 설음을 못 이겨내 자결-순국으로 일제침략에 항거했다. 이러한 의사들중에는 애국적인 군인, 관원, 문인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민영환, 홍범식, 황현, 박승환, 이준 등을 비롯하여 수십 명에 달한다. 또한 일제침략자와 매국노에 대한 지대한 분노를 지니고 거사에 나선 의사들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인물로 의병장 안중근을 비롯하여 조선의열단(1919) 단원들인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오성륜, 나석주 등, 한인 애국단(1931)의 이봉창, 윤봉길 등을 들 수가 있다. 안중근, 윤봉길을 비롯한 한국 열혈지사들의 영웅적 거사는 전세계를 진감했다. 또한 중국내에서 조선무정부주의 연맹단체를 조직하고 폭력투쟁에 나선 지사들로는 신채호, 정화암, 유수인 등이 있다. 조선의열단, 한인 애국단, 조선무정부주의 연맹 등 민족운동단체 의사들은 항일투쟁을 위한 폭력투쟁에서 서로 합류해 갔다. 이처럼 한민족의 의사들의 항일투쟁은 나라가 망하기 전후 지사들의 장열한 순국투쟁으로부터 민족주의 투사들의 영웅적인 거사, 나아가서 무정부주의의 민중혁명폭력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가열처절한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한민족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기개를 전 세계에 알리었다. 의열투쟁서사는 일제식민지시기 지사들의 자결과 거사를 소재로 한 텍스트를 가리킨다. 의열투쟁서사는 이해의 편의상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 의사폭력투쟁서사, 민중혁명 폭력투쟁서사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나라가 망하기 전후 죽음으로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보여준 순국의사들의 전기를 가리킨다. 주요한 작품으로 김택영의 「홍범식전」[18], 조소앙

[16] 김산의 회억에 의하면 1927년 당시 광주에 온 한국인 진보적 청년 800여 명나 되었으며 400여 명 독립군 출신자가 의용병으로 왔다고 한다.(김산, 님 웨일즈, 『아리랑』,1984.3, 203쪽)

[17] 필자는 의사투쟁서사 범위에 망국전야에 자결을 선택한 의사들의 투쟁, 식민지시대 거사에 나선 의사들의 투쟁, 또한 무정부주의 민중폭력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포함시켰다.

[18] 김택영, **『소호당문집· □정본』, 권10**

[19]의 「홍범식전」, 「황현전」, 「전해산전」,「박승환전」, 「조병세전」, 「민영환전」 등이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물론 순국지사들의 유교사상에 기초한 충군 애국사상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식과 영웅의식 등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준, 민영환 등에 대한 전기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항일구국투쟁에 나선 의사들의 영웅적 거사를 통해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을 찬양하였고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 주었다. 주요한 작품들로서는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쓴 박은식의 『안중근』, 김택영의 「안중근전」, 신규식의 「안중근전」, 이범석의 「안중근전」, 김구의「이봉창 의사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조소앙의 「김상옥전」[20],「이봉창전」, 「윤봉길전」 등 80여 명 의사들의 전기를 묶은 조소앙의 『유방집』[21], 신규식의 한시로 「旅顺就义」, 「哈尔滨即事」, 「挽锦山郡守」, 「弘岩先生追悼文」등이 있으며 소설로 류자명의 「조선혁명일사」[22], 김산의 「기괴한 무기」[23]등이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의 경우 안중근을 비롯하여 김익상[24], 오성륜[25], 김상옥[26], 이봉창[27], 윤봉길[28] 등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투철한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소유한 민족영웅들로서 거사를 준비하거나 순국하는 순간까지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일제침략자와의 결사적인 저항, 그리고 일제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하고 있다.

민족정신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신념으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해 훼멸하는 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한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특유의 민족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중근전」에서의 안중근은 이또히로부미를 격사한 후 러시아검사의 심문

---

[19] 조소앙(1887-1958)메이지대학 졸업, 대한 임시정부 비서장, 국무위원, 대한 임시정부 외교부장, 한국독립당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문원』,『유방집』,『소앙집』등이 있다.

[20] 『김상옥전』은 1925년 간행되였는데 서문,'김상옥전','발해경','한 살림요령' 등으로 구성되였다. 저자 겸 발행인은 '한 살림'으로 되었다. '한 살림'은 조소앙에 의해 조직된 무정부주의 단체이다. 「김상옥전」서문은 중국인 黃介民과 張秋白의 썼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전'은 『유방집』에 수록되였다.

[21] 조소앙의 『유방집』은 식민지시대 민영환, 이준, 이상설, 김익상,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 80여 명 지사들의 소전을 수록한 인물 전기집으로 1932년 중국 대동학회에서 출판하였고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인 이제민, 황개민 등 40여 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주어 의사들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22] 위 적품은 1938년 『朝鲜民族战线』제5기에 발표.

[23] 위 작품은 1930년 『新东方』第一卷에 발표됨.

[24] 김익상은 1921년 조선총독부 폭파사건을 주도한 인물, 또한 1922년 오성륜과 함께 상해 황푸탄 다나까 기이치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주도했으나 실패함. 그 뒤 체포되어 사형선고 받음.

[25] 오성륜(1900-1947), 1922년 김익상, 이종옥 등과 거사에 참여. 탈옥후 구소련에서 교육받고 다시 중국에 와서 항일운동에 투신. 그뒤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위원을 역임. 1940년 변절하여 일제에 투항했다고 전한다.

[26] 김상옥(1890-1923), 의열단 단원.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일경 수백명과 홀로 대치하면서 20여 일 싸움. 일경 수십명을 사살하고 마지막 자결함. 김상옥이 사살한 일경가운데는 경찰서장 田中长七와 경장 栗田清을 비롯한 경찰 수십명을 사살하였다.

[27] 이봉창(李奉昌), 이봉창 의거는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죽이고자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을 가리킨다. 일명 사쿠라다문 사건이라고도 한다.

[28] 윤봉길(1908-1932), 윤봉길 의거는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1932년 4월 29일 천황의 생일 겸 상해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상해 홍구공원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百川义则)와 일본 거류민단 단장 가와바타(河端)를 즉사한 사건을 가리킨다.

에 항변하여 “나는 대한국인이다. 이등이란 자는 우리 독립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살육하였다. 나의 이번 행동은 우리 나라 독립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며 철천지 원수를 복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사형을 받기 직전에도 안변호사에게 “내가 죽은 후 좋은 소식으로 나의 영혼을 위안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동포들 뿐입니다. 선생님은 진심전력으로 우리 동포들을 권고하기 바랍니다. 국가독립을 회복하였다는 소식이 천국에 전해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오직 교육을 진흥하고 실력을 배양하며 여러 사람들의 뜻을 단합하여 독립을 회복하는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안중근은 전 근대 사회에서의 충군애국 사상을 가진 영웅인물, 더우기는 모종의 이익과 복수를 위한 햅객이 아니라 근대 의미에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사적인 선택을 한 민족주의자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정신은 김익상, 오성륜,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조선혁명일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의 김익상은 총독부폭발에 나선 열혈지사로서 1921 년 9 월 의열단 회의에서 일제의 중추기관을 분쇄할 결의가 있자 자진하여 맡아 나섰다. 그는 국경을 넘어서 먼저 집으로 찾아와 큰아버지, 형제, 아내를 만나서 자기의 거사의향을 전달한다. 그리고 거사에 나서서 성공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일제와의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며 가정도 사랑도 버릴 수 있는 인물로 형상되었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소설 「기괴한 무기」[29]의 주인공인 오성륜도 마찬가지이다. 작자는 상해탄에서 일본육군 대신 다나까 기이치를 처단하려 나선 오성륜, 김익상, 이종옥 등의 거사에 앞서 그들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와 자매, 친척과 벗들, 연인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천여 년의 역사를 위한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 또한 체포된 후의 그들의 심경을 작자는 “다나까의 죽음은 조국회복의 징조이며 조국을 위한 복수의 첫 번째 성공이다……이제 사형을 당한다 해도 조국과 동포에게 볼 낯이 있지 않는가. 더구나 장래에 조국이 다시 서는 날이면 온 나라가 우리를 기념해 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의 주인공의 민족정신은 이봉창, 윤봉길 등 형상에서도 잘 구현된다. 김구를 만나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이봉창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 년 육신으로는 인생쾌락을 대강 맛 보았으니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상해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김구 앞에서 임무수행을 선서하는 윤봉길은 “ 나는 한인 애국단원임을 선서한다. 중국을 침범한 원수인 군사두목을 처단하여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이루고저 한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달갑게 받쳐가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아’의 투쟁승리를 이루고 ‘아’에 있어서는 구각적인 ‘소아’

[29] 작가는 작품에서 “상해에 있는 조선인 청년을 다 모아 한국 의열단을 조직했다. 이 단체가 성립되고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복수를 위한 무기라고 했다”라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의열단의 폭력투쟁은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를 버리고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체현하고 있다. 의사들의 거사정신과 생사관은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주체적인 한국 근대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즉 일제와의 혈전에서 "구각적인 소아"는 사멸될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대아"는 영원하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30]

다음으로 의사거사폭력투쟁서사는 작품주인공들의 영웅적 기백과 슬기, 영웅적 담량과 지혜 등을 통해 의사들의 영웅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김익상의 형상창조에서 보면 김익상은 국경을 무사히 넘기 위해 두 개 폭탄을 하나는 허벅지 사이에 꽉 붙히고 나머지는 허리 띠 안에 숨겼다. 이에 작자는 "위험하면 쉽게 던질 수 있어 상당한 대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념이었다고 한다. 또한 소설 「기괴한 무기」에서의 오성륜은 민족인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로 충만된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그는 옥중에서 사과 깎는 칼로 족쇄를 풀어내고 가짜 권총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죄인들을 위협해 순종하게 함으로서 슬기롭게 탈옥하게 된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영웅인물로 형상되었다. 종로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한 후 뛰어 나온 그는 일경의 감시를 받았는데 선후 20일동안 일경과 싸웠다. 그는 백발백중의 "쌍총 명사수"(双枪神枪手)로 혈혈단신으로 400여 명 일경과 대결,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일제경찰을 쓰러 눕히고 총알이 다 떨어져 한발만 남자 드디어 자결, 순국한다. 김상옥의 사건은 국내외에서 크게 영향력을 일으켰는 바 상해의 한국 지성인들은 조소앙의 「김상옥전」이 탈고되자 천부나 찍어 발행했고 중국인 황개민[31]은 친히 「김상옥전」에 서문을 써 주었고 또한 5 천부나 찍어 발행하기도 했다. 일본신문에서조차도 김상옥을 가리켜 "一骑当千之勇士"라고 했고 중국인 董育华는 친히 "万马军中奔虎勇, 叱咤一声天地宽"라는 만사를 써서 기념했다.[32] 김상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민족영웅의 화신으로 형상되었는데 전기에서는 그가 자결한 후 일경도 감히 그의 사체부근에 다가오지를 못했다고 한다.

박은식의 「안중근」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을 다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바 어린 시절 말 타고 나는 새 쏘아 떨구었다는 이야기, 15 세에 총들고 동학당에 따라나섰다는 이야기, 서울거리에 한인이 탄 말을 빼앗으려는 일본놈을 혼빵 낸 이야기, 그리고 의병장이 되어 의병투쟁에 나선 이야기, 거사하기 전야의 그와 우덕순과 시를 주고받는 의기 충천하는 장면 등을 통해 부각되거니와 특히는 할빈역에서 이또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영웅적 기개와 옥중에서 태연자약하게 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더욱 생동하게 부각되고 있다. 옥중에서 그가 일제의 죄행을 13 조목으로 단죄하고 「안응칠역사」, 수만자의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인도 그를 흠모하여 필적을 구했다고 쓰고 있다. 또

[30]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 제174호, 2016.3
[31] 황개민(1883-1956), 신해혁명에 참가한 선구자로 구국일보 편집, 국민당 강서성 감찰위원, 국민혁명군 제14군 참의 등을 역임, 해방전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해방후 강서성 감찰청 부청장 등을 역임
[32] 조소앙, 「김상옥전」, 『유방집』, 대동학회, 1932.

한 시를 써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했는데 그 한구절을 보면 “남아가 비록 죽어도 마음은 철같고 열사가 죽게 되니 기가 구름 같도다.”라고 했다. 또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라는 구절로서 자신을 반성했다고 한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그의 영웅적 거사는 동아시아의 평화, 내지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로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영웅적 성격은 역시 근대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기초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영웅적 담략과 지혜, 영웅적 기백과 슬기는 한민족 특유의 영웅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사들의 영웅주의는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입각함은 물론이지만 한민족의 일제에 대한 불굴의 항일의식과 필승의 신념을 만방에 알리고 진보적인 모든 진보적 역량을 규합하여 가열처절한 항일혈전에로 궐기시킴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는 의사들의 생사관, 가정관, 의리관 등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거사에 출전하기 전 윤봉길과 김구의 마지막 대화는 주인공의 생사관, 의리관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어 심히 감동적이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6 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 원짜리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한 시간 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윤봉길은 거사를 떠나면서 김구와 시계를 바꾸었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전 남은 돈을 김구에게 쥐어 준다. 김구의 물음에 “아닙니다. 차비 내고도 5-6 원은 남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33] 이러한 장면은 윤봉길 의사의 인간성의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민족주의 사상이 주도적이면서도 무정부주의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기괴한 무기」에서 보면 작자가 주인공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하고 오직 저 ‘피에 굶주린’ 포악한 민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없애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세계는 평온해진다.” 이러한 표현속에는 역시 “행동주의 선전”을 통해 모든 강권을 소멸하려는 지향세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주의적 사상도 혼재되어 있는데 주인공들의 폭력투쟁은 신의 의지를 받아 나선 것으로 묘사하는 등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비록 대중적인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민족국가에 대한 사회지향이 아직 명확하지 못한 한계성이 없지 않으나 특수한 역사시기 한민족의 결사적인 선택—영웅적 거사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 의사들의 영웅적 형상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했고 한민족의 결사항일의 민족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만방에 알리었다. 중국의 저명한 국민혁명 선구자 이제심은 의열지사들을 높이 평가하여 “열사의 피는 자유의 꽃이다”라고 했고 진정치는 의사들을 가리켜 “동아시아의 선각”이라 했으며 방정여는 의사들은 “철혈영웅”이라고 했으니 당시 한국의 의열지사들의 항일구국을 위한 영웅적 거사는 실로 그 영향력이

[33] 김구, 「윤봉길의 의거」, 『백범일지』, 나남, 2002, 324-346쪽.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안중근」[34]의 출판에 102 명의 중한 문인들이 동참했다든가, 조소앙의 『유방집』출판에 40 여 명의 중국 진보적 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한국의사들의 폭력투쟁이 당시의 중국과 한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일으켰음을 반증하기도 한다.[35]

민중혁명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무정부주의 조직의 항일투쟁을 환상적 형식을 빌어 소설화한 작품으로 무정부주의 사상이념인 민중 직접혁명론을 선양하고 민중폭력투쟁과 민중의 승리를 제시하고 민중적 사회이상을 고양한 작품들이다. 의사폭력투쟁서사와의 차이점은 의사폭력투쟁서사가 민족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면 후자는 무정부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무정부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교차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채호의 정론 「조선혁명선언」, 유고 작품으로 「선언」, 「조선의지사」, 「대흑호일석담」 등과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을 들 수가 있다. 신채호의 작품들은 일제에 대한 민중적 폭력투쟁, 민중혁명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고취하고 있다.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은 1920 년대 동아시아를 풍미한 무정부주의 운동과 투쟁을 형상화한 환상적 소설로서 1928 년 초에 창작된 유고 작품이다.[36]작품은 환상적인 구조속에서 중국 경내에서 벌어진 무정부주의 항일투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소설은 일제침략자의 원흉의 상징적 형상-천국의 시위대장 미리와 지국의 무산민중의 상징적 형상 드레곤의 치열한 격전을 주요 갈등선으로 하며 천국에서 사는 상제와 예수, 황제며, 재산가, 대지주, 기타 순사 등의 철저한 박멸과 드레곤과 민중의 승리를 확인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민중들은 침략자들의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력의 강권을 부정하며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폭력적 수단” 즉 “행동에 의한 선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실천의 승리를 옹호한다. 드레곤의 형상은 “민중의 선봉”, “선각한 민중”으로 민중혁명의 선구자를 지칭한다. 작품에서는 드레곤은 정체가 불투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단 천국이 박멸된 이후에는 “정체적 진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 혁명의 주체로 보고 “행동에 의한 선전”-폭력투쟁을 인정하는 무정부주의 사상이 구현되고 있다. 신채호는 대체로 1920 년대 초에 무정부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1927 년부터는 본격으로 무정부주의 활동에 전격 참여했고 1928 년에는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에 참여했고 결사의 선택으로 직접 폭력투쟁을 위한 자금준비로 나섰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특히 그는 크로뽀트낀 등의 집산주의에 의한 상부상조사상,“행동에 의한 선전”,(소란, 암살, 폭동)등 사상을 수용했다. 신채호의 상기 작품은 바로 자신의 무정부주의 운동체험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한 점에서 특

[34] 『안중근』은 1912년 『대동위인총서』에 간행된 바 있고 또한 1914년 상해의 대동편집국에서 출간했는데 「안중근」(沧海老坊室稿)이란 책자에는 「안중근전」과 함께 근대 중국의 저명한 문인들인 장태염의 「안군비」를 비롯하여 「제사」, 「도화」, 「서문」, 「선록」,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중국의 저명한 문인 양계초, 황계강 등과 한국의 김택영, 신규식 등 102명이 「제사」, 「서문」, 「부록」, 「선록」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

[35] 조소앙, 「김상옥전」,『유방집』, 대동학회, 1932

[36] 김병민 편, 『신채호 문학유고 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히 주목된다.

작품에서 작자가 지국이 사는 민중사회를 온통 감옥이라고 한 점, 제국담론의 상징기호로 작용하는 상제가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쥐구멍에 살아졌다고 풍자한 점 등은 탈근대적, 탈식민주의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은 작가의 무정부주의 사상에 의하여 기획되는 미래상상—세계상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더 한층 주목된다. 작품의 저자는 "연시몽인"으로 밝혀져 있는 바 북경의 꿈꾸는 사람으로 해석될 것이다. 작품은 지극히 환상적이어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백일몽" 즉 자아의 무의식의 작동이 보여지는 바 주체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민이 시대적, 역사적, 민족적 고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상상이 되고 상징이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자크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라 했고 타자에 의해 주체는 상징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임을 지적했다. 대타자—"상징계"에서 주체는 "오독"과 "변형", "환유"와 "은유" 등으로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한다. 소설에서는 주체의 "욕망"은 실제계에서 얻어진 상상과 상징을 통하여 무산민중주체의 동아시아 내지는 세계 상상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중국에서의 무정부주의 활동과 반일투쟁, 그리고 사회지향을 환상적 구조속에서 표현한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의 독립투쟁은 중국으로 옮겨오게 되었는 바 1910 년대의 의병투쟁, 1920 년대 초반에 있은 독립군의 투쟁 즉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는 그 전형적인 항일무장투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이후 한국독립군 무장투쟁은 기본상 결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뒤 1930 년대 동북지역에는 한국인 항일유격대가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나중에 이 항일유격대는 1936 년 항일연군에 편입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1938 년 국민군 소속으로 조선의용대, 1940 년 한국광복군, 1942 년 팔로군 소속으로 조선의용군 등이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은 국민군, 팔로군, 항일연군과의 연관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열처절한 항일투쟁은 다양한 서사양식에 반영되었다.

항일무장투쟁서사는 독립군항일투쟁서사,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서사, 조선유격대 항일투쟁서사, 민중항일 투쟁서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910 년대 한국의 항일독립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중편소설 「꿈하늘」(1916)[37]과 유작시편[38],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1920 년대 초기 한국인 중국경내 연변지역 독립군 항일투쟁

[37] 「꿈하늘」은 신채호의 유고작품으로 독립투쟁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한놈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정신, 민족의 문화정신, 그리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소설은 환상소설로 되어 있다.(김병민,「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근대상상」,『국어국문학』, 제 174호, 2016)

[38] 유인석의 시작들은 중국 요녕성 관전 부근에서 전개된 항일의병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 문인인 유린석은 항일에 있어서는 견결했으나 근대적 지향에 있어서는 아직 보수적이었다.

(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1930 년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조선유격대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연극 「혈해지창」(까마귀, 1938 년), 「밀림은 싸운다」(작가미상, 1937 년) 등이 있으며 1930 년대 중국 관내지역에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무장투쟁을 보여준 작품으로 실기문학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1939.9) 등과 다수의 실기, 이두산, 한유한 등의 시와 수필 등 작품들이 있다. 민중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김창만, 1939), 「두만강변」(작가미상, 1939」, 가극「아리랑」(김창만, 1939), 그리고 한국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한유한, 1940) 등이 있다.

상기 부동한 항일무장서사 작품들은 물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중한연대, 민중항쟁 등을 보였다는데 공동점이 있으면서도 의식경향, 형식 등 면에서 일정한 부동점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의용대서사는 사회주의 경향이 없지 않으나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며 조선 항일유격대서사는 민족주의 경향이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향이 주도적이며 민중항일서사는 역시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지만 사회주의 영향도 없지 않다. 또한 조선항일유격대서사는 역시 민중항일투쟁서사의 성격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부동한 항일무장투쟁서사의 의식내용과 형식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독립군항일투쟁서사는 1910 년대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리킨다. 신채호의 중편소설「꿈하늘」(1916) 과 신채호의 유작시편들,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1920 년대 초기 한국인 연변지역 독립군항일투쟁(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한국의 분노」는 일제에 대한 독립군의 불굴의 투쟁과 그 승리를 보여준다. 작품은 독립군의 주요한 지휘자인 홍범도 장군의 업적에 대해 비하하는 점도 없지 않아 역사사실에 어긋나는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신채호의 환상소설 「꿈하늘」은 독립운동의 복잡성과 곡절성을 보여주면서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독립군 항일투쟁서사는 민족주의사상에 기초한 애국주의, 영웅주의 등을 고취하고 있으며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서의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전투적 위훈을 보여주면서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 중한협동작전, 그리고 민중에 대한 교육 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제의 동아시아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중한연대의식이 전 편에 관통되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 작품으로『조선의용대 제 1 구대 혈전실기』(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9), 『전장에서의 조선의용대』(왕계현 편역, 1940), 「전방에서의 제 1 구대 」(박효삼, 1939), 윤세주의 「화평촌 통신」(1939), 양민산의 「접적행군기」(1940), 한지성의 「전호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의용대」(1939), 이달의 「‘3.1’ 운동기념 감언」(1939) 등 50 여 편의 실기문학이 있으며 그 외 이두산, 이달, 문명철, 약희, 김유 등의 산문과 시편들이 있다.

장편실기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1939.9)는 조선의용대 각 구대 선전원들이 집필하고 중국인 조선의용대 대원인 유금용이 번역한 실기문학 작품집으로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의용대에서 출간하였다. 한국문으로 된 원본이 있었겠으나 아직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의용대가 국민당 군사위위원의 지시에 따라 제 1 전구, 제 5 전구, 제 9 전구에 여러 개 분대로 나뉘어 국민군 및 게릴라부대와 협동하여 항일전쟁의 최전선에서 대적 무장선전, 협동작전, 민중교육 등 면에서 이룩한 영웅적 업적을 서사화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사료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당시 조선의용대에서 꾸렸던 『조선의용대통신』에 「조선의용대 제 1 구대 혈전실기」란 제목으로 연재됨) 작품은 당시 중한독자들과 사회각계에 광범한 반향을 일으키었다. 작품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 1 구대와 제 2 구대의 항일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첫 부분은 4 장, 두 번째 부분은 5 장으로 구성되었고 각장에서는 「민중이 사랑하는 게릴라부대」, 「진지에서의 연설전」, 「전장은 우리학교」 등의 소제목을 붙이고 있다. 문체는 수필, 르포, 편지, 대담, 의론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작품은 대형 실기문학집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과 수사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은 항일담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는데 적진뿐만 아니라 적 점령구의 민중생활구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대적 무장선전은 선전삐라와 표어의 산포, 적진에서의 대적 함화, 일본어 강습반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항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적들의 전투사기를 와해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문인들은 조선의용대의 대적 선전을 가리켜 “혁명의 씨앗을 적군 내부에 뿌렸다”고 했고 “많은 휘황한 업적을 쌓았다”고 했다.[39] 따라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담론은 혁명성, 저항성, 연대성 등을 키워드로 하여 일제의 제국주의 담론의 반동성, 허위성, 침략성을 폭로하고 배격한 대항 담론이었다. 따라서 그 담론의 취지는 “항일구국, 전민항전”깃발아래 항일투쟁에 총 궐기하여 일제를 소멸하고 전면승리를 이룩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과 게릴라부대를 협력하여 대적 선전을 하는 한편 국민군을 배합하여 여러 차례 적과의 혈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았다. 작품에서는 통성 공격전투, 철주 항공격전투, 석산 공격전투, 잠산 공격전투 등에 대한 서사를 통하여 국민군과 조선의용대의 영웅적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영웅담론은 민족·민중영웅주의로 임전무퇴의 기개, 침략자와의 결사항전, 민족과 민중을 위한 희생정신 등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석산공격전에 대한 묘사는 아주 감동적이다. 석산 공격전을 위하여 결사대에 나서는 용사들의 영웅적 모습과 공격전에서 국민군과 생사를 함께 한 조선의용대의 숭고한 정신도 보여 준다. 22 명의 결사대원들은 수류탄을 가득 메고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일 것이다. 석산을 수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다. 서사화

[39] 마의 편, 『조선의용대의 승리적인 4년』, 국제출판사, 1942

자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중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강철같이 견고해졌다고 토로했고"이 장면을 보고 이국 사람들인 우리는 흥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몸속의 뜨거운 피가 이미 끓어 올라 22 명의 민족 영웅들과 친절히 악수하였다."(「결사대」, 74~75 쪽)고 기록하고 있다.

실기에서는 계속하여 결사대 대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 그리고 6 명의 결사대원들이 장렬하게 희생된 사실과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국민군 부상병을 구원한 사연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국민군 88 연대 제 3 대대 제 8 중대 중대장 유운서(柳運瑞)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5 겹이나 되는 적의 철조망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3 겹까지 파괴하고 결국 적의 파편에 다리를 상하게 되었다. 조선의용대 선전대원 3 명은 그를 구원하게 된다. 실기에서는 "우리는 유중대장을 업고 이 자그마한 '명예전리품'들을 들고 우리의 주둔지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유중대장을 업은 G 동무의 옷이 비록 피에 젖고 또한 영광스러운 피가 살결에도 물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받았으며 유쾌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게릴라 선전조 제 2 대의 진한중(陳漢中), 관건(關健), 이동호(李東浩) 등은 국민군과 배합하여 석산을 공격했고 적의 군영과 탄약창고를 불살랐으며 아울러 작전 진지에서 중상을 입은 유중대장을 구원한 戰功으로 하여 군단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조선의용대는 상금을 받기도 했다.

작품은 또한 주체의 이중성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질을 구현하고 있다. 물론 조선의용대의 정체성에서 주도적인 것은 단연 자기 민족국가·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다. 아울러 그들의 중국인식을 분석해 보면 중국 국민군에 소속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내비친다. 이들의 이중주체성과 민족정체성, 군인 정체성은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한 연대를 이룩할 수 있게 된 전제이기도 하다. 조선의용대의 민족정체성은 주체의 자아인식 즉 민족의 독립과 자유, 조국의 해방과 미래에 대한 강렬한 요구, 민족문화에 대한 집요한 추구 등을 통해서 보아낼 수가 있으며 군인정체성은 중국의 항전에 대한 굳은 신념, 민중에 대한 항전교육, 민중학교의 운영 등에서 잘 체현된다. 이중주체와 그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징은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중한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수많은 "정착신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의 출간은 중한 양 민족의 연합항일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의가 있는 문화전략이었고 제국주의침략과 문화패권을 전복한 20 세기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적 유산으로 높이 평가된다.

조선항일유격대 항일서사는 주요하게 항일유격대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항일가요[40]와 항일연극을 들 수가 있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연극 「혈애지창」(1938)과 「밀림은 싸운다」(1938)를 들 수가 있다.[41] 항일유격대 연극은 공산주의사상 이념에 기초한 항

[40] 항일가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최옥화, 『해방전 중국 조선족 가요연구』, 국학자료원, 2016년

[41] 항일유격대가 창작한 작품으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꽃파는 처녀」, 「성황당」, 「한 자위단의 운명」, 「경축대회」 등 다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 텍스트가 확인 되지 않아 본 논문에

일유격대의 투쟁생활과 그 혁명적 영웅주의를 반영하면서 중한연대 특히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중한민중들의 지지와 성원, 나아가서 군민이 공동으로 일제와의 혈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두 연극작품은 작자가 까마귀로 되어 있다.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 했던 작품으로 항일유격대의 집체창작으로 볼 수도 있다.[42] 따라서 작품에는 곽복회와 김대장에 대한 대사가 나오는 바 김일성이 거느리는 유격대에서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은 모두 항일유격대의 영웅적 형상과 항일투쟁을 지지하는 민중들의 항전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사상 영향이 큰 작품이다.

「혈애지창」은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장백산지역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항일유격대 정찰원 뻐꾹새가 민중 속에 들어가 계급교양과 항일교육을 전개하고 민중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투쟁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싸우는 밀림」은 유격대군수부장 박민 등이 헤샤즈꺼우(黑瞎子) 밀영을 포위하고 동기 대토벌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과의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은 극적 소재와 내용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격대 항일투쟁과 민중들의 각성을 반영하고 일제에 대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항일전쟁의 필연적 승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유격대 항일서사로서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군인형상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이념과 항일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혈해지창」[43]에서의 정찰원 뻐꾹새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민중속에 들어가 계급교육과 항일교육을 하는 혁명군인으로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다. 그는 “우리는 칭칭 감긴 이 철쇄를 짓부시고 자유와 행복의 꽃동산을 꾸려야 합니다. 여러 분들도 땅 파던 괭이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북간도의 피바다에 붉은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잠자는 사자는 깨어났습니다. 승리하는 날까지 싸워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민중을 무장시키고 민중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항일유격대 투사이다. 특히 그는 유격대를 이끌고 적진에서 일제 헌병 오장을 비롯한 일경과 그 앞잡이들을 일망타진한다. 또한「싸우는 밀림」[44]에서의 유격대 군수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을 지닌 혁명군인으로 해산을 앞둔 아내 계순에게 혁명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며 도깨비골에 내려가 왕로인 등을 혁명사상으로 각성시키고 일본포로에 대한 교양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게끔 한다. 박민은 “무산자들에게는 국경이 없소. 우리 무산자의 신앙은 곧 인류 무산혁명을 실현하는데 있소. 공산사회-이것은 절대적 진리요.” “공산주의 정신이란 전 인류의 산 영혼이란 걸 알아야 하오”라고 말하거니와 자신의 모든 투쟁실천을 공산주의 이념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정찰원 뻐꾹새와 군수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으로 민중을 교양하여 항일투쟁에 나서게 하며 자신들은 직

서는 잠시 다루지 않는다.

[42] 두 작품은 1959년 연변대학교 조문학부 권철 등 선생들에 의하여 길림성 화룡현에서 발굴되었다. 따라서 작품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창작 공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3] 「혈해지창(血海之唱)」, 즉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땅 위에서도 자유의 노래 소리 들린다는 의미임.

[44] 항일 유격대가 밀림에서 일제와 영용하게 싸운다는 의미임.

접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적과 영용하게 싸워 승리하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형상으로 당시 항일유격대의 정신세계와 투쟁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미학적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중한 민중의 각성과 중한연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예하면 「혈애지창」에서의 왕핑의 가정은 항일투쟁에서 영용하게 싸운 중국인 혁명가정이다. 왕핑, 왕핑의 아버지, 왕핑의 어머니 쑹마마는 항일혁명사상의 영향을 받아 날로 각성되었고 끝내는 항일유격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용하게 희생하는 민중영웅의 형상이다. 왕핑의 아버지는 유격대를 숨겨둔 죄로 일경 오장에게 무참히 살해 되었고 왕핑의 어머니 쑹마마는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진보적 여성으로 유격대 정찰원 뻐꾹새를 자기 집 움에 숨겨두고 보호한다. 그는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초지를 지켜 싸우다가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왕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유격대의 항일투쟁의 영향을 받아 유격대 정찰원 뻐꾹새가 맡긴 임무수행에 나섰다가 체포된다. 그는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역시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그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중조 두 민족은 다 같은 형제이니 같이 싸워야 합니다. 무산자는 모두가 같은 처지이니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자신의 이념과 이상을 피력한다. 작품에서는 항일유격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쑹마마 일가의 민중적 영웅형상을 통하여 항일투쟁에서 형성된 중한연대의식이 중국 민중속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제시한 동시에 항일투쟁에서의 중국인들의 각성과 영웅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항일유격대 투쟁서사에서는 민중들의 각성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바 「싸우는 밀림」에서의 계순은 남편 박민이 주는 임무 즉 분산된 민중을 일제와의 싸움에 나서게끔 조직 동원하는 임무수행을 위해 나섰다가 적에게 체포되고 혹형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 더더욱 참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는 적들의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며 갓 난 어린애를 남겨두고 비장하게 희생된다. 그는 항일혁명가의 아내로서 무산계급사상으로 무장된 여성혁명가의 형상이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 나오는 왕로인은 항일유격대의 영향밑에서 각성되어 적과의 싸움에서 몸바쳐 간 민중의 형상이기도 하다.

작품들에서는 당시 항일투쟁에서의 일본군포로에 대한 대적 선전사상도 보여 주어 주목된다. 「싸우는 밀림」에서의 연락병 일본군병사는 박민의 교양하게 전향하게 된다. 연락병은 항일유격대가 가지고 있던 진보적 사상 즉 포로를 학대하지 않고 교육을 선행한다는 이념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일본 연락병 형상을 통해 항일유격대에서의 일본군 포로교육은 조선의용대에서의 대적 선전 특히는 일본군 포로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일유격대 서사에서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의 복합적 특질도 잘 보여준다. “싸우는 밀림이어, 네가 낳은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 중화민족에게는 영원히 적수가 없으리라. 우리 천만년 백두산은 중화민족과 함께 살아있다” 이는 「싸우는 밀림」의 결말에 부친 작가-화자의 독백이자 역시 주인공-항일 유격대의 지향이기도 하

다. “우리 다시 싸워 이겨 돌아 올 때 온 중국 어머니들께 영원한 웃음을 안겨 줄 것이다.” 이는 「혈해지창」에서 왕핑의 죽음을 두고 쑹마마를 위안하는 정찰원 뻐꾹새의 말이다. “우리의 북간도는 이런 피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화민족의 영웅적 노래는 끝없이 중국벌판에 퍼질 것입니다.” 뻐꾹새는 왕핑 등의 시체우에 붉은 기를 덮어주며 이같이 말하고 있다. 상기 표현속에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이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항일연군 소속으로서의 항일유격대의 군인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또한 한국인 이민들의 정체성의 변화양상도 보여주어 주목된다. 『밀림은 싸운다』에서 왕로인, 김로인, 박로인 등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고 받는다. “우리 만주에 와서 손에 피고름이 맺히도록 나무를 찍어다 기둥을 세운 뒤 밭을 옥답으로 만들어 겨우 이뤄 놓은 이 터전을 우리는 목숨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수다” “오늘은 이 땅에서 내 피를 뿌려 씨앗을 가꾸었으니 예가 내 고향이우”“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지킵시다” 이와 같이 작품을 통해 중국으로 온 한국인들의 이민과 정착과정, 새로운 고향의식과 이중적 정체성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중국의 항전승리와 한국의 독립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인식하고 중국의 항일투쟁에 참가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항일투사들의 국내진출, 나아가서 한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싸워 나선 한국 민중의 민족적 각성과 헌신적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주로 연극, 가극의 형식을 취했는데 조선의용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항일유격대 등 항일부대에 의해 창작 공연되었으며 중한 민중들에게 “항일구국, 전면항전” 사상과 중한연대 의식을 고취하려는 데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때문에 연극, 가극 등은 상당한 선전 선동성과 대중성을 가지었다. 따라서 무장부대 군인들에 의해 창작된 연극, 가극들은 중한 공동배역 ,공동공연, 이중언어 대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합작과 공동서사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주요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에서 창작공연한 연극「도문강변」(1939),「조선의 딸」(김창만, 1939), 가극「아리랑 」(김창만, 1939)[45], 한국 전지공작대에서 창작 공연한 가극「아리랑」(한유한, 1940)[46], 연극 「국경의 밤」(1939, 한국 전지공작대 집체창작), 「한국의 한 용사」(한유한, 박동운, 1940)[47],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한 「꽃파는 처녀」, 「성황당」 등이 있다.

우선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민족의 이민과 정착,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를 폭

[45] 가극은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여 싸우기 위해 항일유격대 지휘 밑에 아리랑 고개를 넘나들며 적과 싸우고 나중에는 희생되는 비장한 장면을 가극으로 한 작품이다.

[46] 1940년 1월 서안에서 전지공작대에 의해 총 타이틀을「아리랑」으로 한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작품으로 가극 「아리랑」과 연극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 등이 있었다. 「아리랑」공연은 당시 중국인들속에서 광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국경의 밤」,「한국의 한 용사」는 중국어로 공연되었다.「국경의 밤」은 압록강변에서 중국 의용군과 한국 혁명군이 함께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중조 두 나라 군대가 적의 방어선을 폭파하고 싸우다가 끝내 실패하여 희생하게 된다. 「한국의 한 용사」는 **1941년 1월** 일본 헌병대의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군의 말과 무기를 가지고 적진을 탈출하여 전지공작대로 입대한 실제 사실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47] 「국경의 밤」은 1939년 10월 중경에서 공연된 바 있다. 「국경의 밤」과 「한국의 한 용사」는 서안에서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넓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족적 각성을 이룩한 민중들은 직접 항일무장대오에 참가하거나 항일투쟁을 지지, 성원한다. 조선의용대에서 창작 공연한 연극 「도문강변」은 일제와의 진공전에서 부상을 입고 희생된 오빠의 손에서 총을 받아 쥔 누이동생과 수많은 동지들이 도문강변에 누워있는 투사의 시체를 넘어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민중적 형상을 통해 천백만 민중들의 각성과 투쟁을 보여준다. 또한 김창만이 창작한 가극 「아리랑」에서는 아리랑고개라는 특정된 이미지를 통해 죽음의 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와서 항일투쟁에 참가하는 한민족의 항일혁명 투쟁노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해 보이고 있다. 일제의 세기말적인 수탈에 못이겨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남부여대하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으로 가야했다. 물론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의 앞장에는 항일구국의 뜻을 지닌 항일 애국투사들이 서 있었다. 아리랑 고개는 바로 국경에 자리 잡은 산으로 햇빛을 볼 수 없고 음산한 추운 바람이 부는 지옥같은 곳이다. 이 아리랑고개에는 수많은 민족영웅들과 전사들의 시체가 묻혀야만 했다. 가극에 등장하는 농민과 그의 딸은 유랑의 아픔을 안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바로 이 순간 한 청년이 권총을 들고 나타나 “당신들은 아리랑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넘어간다면 나는 이 총으로 당신들을 죽이겠어요. 지금 아리랑은 조선인 망명의 죽음의 종착점이니 조국에서 죽어야 해요”라고 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가극에서는 새로운 아리랑 이야기와 아리랑 민요형식을 빌어 남부여대하고 조국을 떠나는 망국노의 처참한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아리랑 산에서 희생된 무수한 혁명자들의 형상을 빌어 일제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리랑 고개-죽음의 산은 혁명승리를 약속하는 혁명의 산으로 될 수 있음을 암시, 상징하기도 한다. 한유한이 창작한 가극「아리랑」도 역시 목동과 시골처녀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아리랑 고개를 넘어 혁명군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는 이야기를 통해 진보적 항일혁명투사의 성장과정과 그 비극적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들의 육신은 죽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아리랑 산에 한국 국기가 휘날리며 미래의 승리를 전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점은 아리랑 고개는 “고난과 눈물과 설음의 고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 투쟁의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48]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기 두 작품은 항일투쟁에 궐기하는 한국의 민중들의 시대적 각성, 그리고 항일혁명 군인들의 성장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징성이 부여된 아리랑 이미지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한 점은 예술적 창조이기도 하다. 한국인 혁명가 김산은 미국기자 님 웨일즈와의 취재에 임한 자리에서 “만주벌판 어디에서나 조선인 의용병이건 중국인이건 모두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고 회억했고 또한 “아리랑 고개에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 뿐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아리랑 고개에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수많은 죽음 가운데 승리가 태여 날 수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한 바 있다. 아리랑 고개는 민족의

[48] 정우택,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 공연과 그 의의 」,『한국민요학』, 제21집, 한국민요학회, 2007.12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는 “죽음의 고개”인 동시에 “희망의 고개”로서 “탈출의 공간”인 동시에 “귀환의 공간”이다. 상기 두 작품에서의 아리랑의 상징적 의미는 민족의 현실과 정서, 이상과 신념을 민족의식의 심층에로 확장, 육박해 가는데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두 부의 가극「아리랑」은 한민족의 항일정신과 민족성을 중국에 선양하고 중한연대를 형성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중투쟁서사 작품들은 역시 중한연대로 특징되는 항일투쟁의 한 측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연극 「국경의 밤」은 중한 열혈청년들로 조직된 동북의용군과 한국혁명군이 눈 내리는 겨울밤, 압록강 국경선에서 공동의 적인 일제와 영용하게 싸우다가 희생되는 비장한 사실을 통해 중한 군민들의 항일투쟁에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며 「한국의 한 용사」는 1941 년 일본헌병대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 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들의 문건과 무기, 말 3 필을 가지고 헌병대를 탈출하여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원이 된 사실을 통해 항일투쟁에 있어서 중한 두 나라는 운명의 공동체임을 제시해 보였다. 상기 작품들은 1930 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어 항일구국, 전민항전의 기치 밑에 항일투쟁이 고조되고 따라서 반파시스트 다국 동맹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조선의용대, 항일유격대, 한국 전지공작대 등이 중국의 항전에 투입하여 중국 군민과 협동작전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치었던 역사현실에 대한 예술적 재현이기도 한다.

또한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국의 항일무장대오와 한국 국내 민중의 연합작전과 그 승리를 보여주어 특히 주목된다.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조선민중의 시대적 각성과 유격대의 국내진출에 따른 항전투쟁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가 있다. 연극『조선의 딸』은 3.1 운동 20 주년을 기념하여 가극『아리랑』과 함께 중국 계림에서 공연한 작품으로 중국에서 단막극『도문강변』을 공연한데 이어 두 번째로 되는 공연된 연극작품이다.『조선의 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려 한다.

『조선의 딸』은 2 막으로 된 연극으로 주제가 선명하고 인물형상이 생동하며 서사성이 강한 것으로 특징된다. 극본이 없어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작품의 구성을 복원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제의 약탈과 한국인의 봉기. 여주인공 애련의 각성과 카페생활, 애련의 혁명활동과 항일투사의 국내잠입, 애련의 장렬한 죽음과 일본놈 처단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에서의 애련, 애련의 할아버지, 애련이의 오빠 광호, 그리고 순삼이는 긍정적 인물계열로 부각되었다. 할아버지는 민족적 양심과 항일의식을 소유한 인물로 형상되었고 광호와 순삼이는 중국으로 망명한 항일투사로 형상되었다. 연극의 여주인공 애련이는 할아버지와 광호의 영향으로 각성하여 혁명적인 대열에 들어선 인물로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애련이의 성격은 할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이해, 혁명활동에 나서려하는 오빠 광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의 용감성과 슬기,

헌신적 정신 등을 통해 생동하게 창조되었다. 애련의 형상은 항일투쟁에서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조선의 수많은 여성혁명가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극에서의 숙부는 일제의 주구로 타카하시사 단장 및 나까무라 경찰서장과 함께 민중의 적으로 온갖 만행을 감행하지만 결국 혁명세력에 의해 처단되는 것이다.

연극은 주제의식이 선명하고 극적 갈등이 첨예하며 슈제트가 복선적이며 인물형상의 성격창조가 일정한 깊이를 보여준다. 연극은 생동한 인물형상으로 식민지시대 조선민중의 운명과 각성, 항일구국을 위한 자아희생정신, 일제의 약탈과 패배 등 항일투쟁의 제반 역사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상기 작품은 계림에서 연속 세 차례나 공연하여 당시 관중들에게서 절찬을 받았고 조선의용대의 사회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계림에서의 공연이 끝난 뒤 중국 문인들은 조선의용대의 공연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바 연극 『조선의 딸』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용하게 희생하는 조선 아들딸을 묘사한 역사극"[49]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선의용대 정치조 조장으로 있던 김규광도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의의」[50]란 문장을 발표하여 공연이 가지는 혁명적 의의를 천명했다.[51]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연극 『조선의 딸』은 사상내용의 진보성과 예술형식의 참신성 등으로 하여 비단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전문예운동사 나아가서 중한 문예교류사에서도 중요한 위치가 있다. 여기서 한마디 부언한다면 중국의 무대에서 중국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중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는 점은 상기 작품이 조선민족의 불요불굴의 항일정신을 생동한 예술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주류사회로 진출하여 항일담론을 만들어 내려는 조선의용대의 그 집요한 문화정신을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중적인 문화정체성과 문화적인 혼종성이 가지는 특이한 문화적 힘도 가늠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20 세기 전반기 일제침략과 문화패권에 맞서 싸우는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철한 민족의식, 그리고 중한연대의식, 민중의 각성과 투쟁 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민군에 소속된 한국 의용대와 항일연군에 소속된 항일유격대의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비록 이념의 차이를 갖고 있으나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민족독립과 자유를 위한 지향, 그리고 항일전쟁에서 형성된 중한 연대의식 등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

[49] 전심, 『「조선의 딸」과 「아리랑」』, 『동방전우』, 제4기, 1939.4.1

[50] 김규광,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적 의의」 (『조선의용대통신』, 제 6기, 1939.3)

[51] 김규광은 연극의 혁명적 의의는 우선 3.1운동을 진실하게 재현한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연극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봉기는 바로 3·1운동(봉기)을 재현한 것으로 일제의 침략에 의한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했고 또한 일제와 맞서 싸우는 조선 사람들의 혁명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조선민족의 희곡이 처음 중국 계림에서 신기록을 남기었으며 따라서 각계 사회 인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제적 및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동상)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가열처절한 항일투쟁의 나날에 고향과 조국, 그리고 가족과 벗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이러한 고뇌와 아픔의 정서를 보여준 작품들을 망명애환서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망향애환서사에서 민족의 망향을 보여준 작품으로 신채호의 시 「너의 것」, 「새벽의 별」, 「무궁화의 노래」, 「고국」[52] 등과 시 「인제 철아에게 영락정시를 드리노라」, 「이충무공 한산도 기념」, 「나의 신려를 사랑하노라」, 이두산의 시 「어머니의 비석」, 문명철의 시 「금강산에 가고파」 등을 들 수가 있다. 민족의 애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신규식의 시 「오랜 동지이며 인제인 조완구에게 전하노라」, 「북경, 천진의 동지들이 체포되었다」, 「라공 홍암 선생을 추도하여」, 「홍암 선생을 위한 추도문」, 「추도사」, 신채호의 「도제 4 언문」[53], 조선의용대 김창만의 가극 「아리랑」과 한국 청년전지대의 가극 「아리랑」을 들 수가 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의 공통한 특징은 망명인 특유의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에 대한 우월감 혹은 귀속감으로 특징된다. 정체성이란 "스스로 새롭게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체성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가장하는 주체 변형의 생산물이다"[54] 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체성문제는 그 무엇보다 첨예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일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하여 이른바 "내선일체" "동족동근"을 떠벌리면서 창씨개명 시책을 자행했고 나아가서 민족문화 말살책으로 민족역사교육과 민족언어 문자사용을 제한하였다. 바로 일제의 강권진압과 문화패권으로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었다. 이른 바 일제의 "황민화운동" 의 선두자로 나선 문인들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가령 식민지시대 민족정체성을 두고 이야기 할 때 망명지사들은 가장 확고하게 정체성을 가진 민족 군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체험서사, 특히는 망향애환서사를 통하여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실로 그들은 민족문화, 민족정신의 수호신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신채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시 「너의 것」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목된다.

너의 눈은 해가 되어/여기저기비치우고 지고/님나라 발가아지게//너의 눈은 꽃아 되어/여기저기 피고지고/님나라 고와지게//너의 숨은 바람되어 /여기적 불고지고/님나라 깨

[52]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채호의 시문은 박정규 편역 『단재 신채호 시선집』(기별미디어, 2013)에 준함.
[53]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규식의 시문은 김동훈 외 편역 『신규식 시문집』(민족출판사, 1998)에 준함.
[54] 호미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이론』, 소명출판, 2002, 424-425쪽

끗하게//너의 말은 불이 되어/여기저기 타고지고 /님나라 더워지게//살은 썩어 흙이 되고/뼈는 굳어 돌 되어러/님나라 보태지게//

시에서 시인은 님나라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뜨거운 지향을 생동한 비유와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율조에 담아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그처럼 귀중한 존재인 눈과 피, 숨과 말을 그대로 님나라—조국으로 하여금 더욱 밝아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더워지게 하는 해와 꽃, 바람과 불이 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인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님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과 뼈는 돌과 흙이 되어 님나라에 보태질 것을 희망한다. 시편에는 민족 내지 조국에 대한 귀속감이 시적 정서의 율조를 타고 전해진다. 또한 시 「새벽의 별」에서도 시인은 새벽의 별이란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조국의 미래한 대한 지향과 민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새벽을 지켜 나선 별은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일거나 눈이나 비가 오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며 그것은 정녕 조국과 민족의 광명을 에워 오려는 빛이다. 새벽의 지향, 그것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염원이었으며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깨끗한 희망이었다. 신채호의 상기 작품들은 그가 기타 중국체험 서사에서 자주 이야기된 담론 즉 “국가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내라”,“애국자가 나라 밖에 다른 사랑이 있어도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정체성 담론의 시적 승화로서 “노화순정”(炉火纯青)의 심리회귀이고 영혼의 불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는 이외에도 망향시 「1 월 28 일」, 「고국」등에서 고향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생동하에 표현했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은 또한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잘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매개 민족에게는 집단무의식이 있거니와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흔히 문화무의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는 신규식의 「홍암선생을 위한 추도문」은 주목된다. 작품은 대종교 교주인 나홍암의 죽음을 슬피 여겨 쓴 애환서사로서 시인의 문화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나홍암을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예찬하고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나홍암은 민족정기를 타고난 전설적인 인물로 형상하고 있는 바 시인은 그의 출현을 두고 “태백은 아아하고 신조는 장중한데/폭풍뢰를 이끌고 세상에 내렸어라// 서울은 여럿이고 겨레는 수두룩한데/천부를 잡았으니 권위가 당당하도다”라고 한다. 시인은 나홍암을 태초 때부터 내려온 민족역사와 민족영웅과 연결된 인물로 보면서 겨레들은 그의 주위에 뭉쳐 싸운다고 한다. 또한 그의 위용을 두고 “유유한 이 세상에 오는 이는 그 누구뇨/아아한 삼위는 신광에 휩싸였구나//천경은 정초되고 신명은 발붙혔으니/기린타고 상조하면 백신이 받든다네”라고 한다. 문화무의식은 한 개 민족의 신화에 대한 당대 담론으로 기억의 복술이며 그러한 복술은 민족적, 심리적 고뇌가 무의식으로 작동될 때만 가능하여 보인다. 상기 시인의 민족의식의 심층에는 문화무의식이 작동함으로서 불굴의 항일정신과 민족적 기백은 용암처럼 솟구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 망명인들의 망명애환서사는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의 미적정서를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항쟁의 울림은 민족의 한의 정서와 유착되어 있다. 한민족의 문학에 있어서의 한의 정서는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원인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동아시아 미학사에 있어서 한국인의 “한”과 중국인의 “원”, 일본인의 “애”는 물론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차이점으로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문학에서의 한의 정서는 신라향가, 고려가요, 그리고 이조 가사와 시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현대에 있서는 본토시인들인 김소월, 박팔양 등 시에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망명지사들의 망향애환서사에서도 나타났던 바 그것이 항일투쟁정신과 결합되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한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으로서는 신규식, 신채호 이두석 등 작품들에서 잘 보여진다. 망명지사들의 민족체험-특히는 망국노로서의 이역체험이 한으로 이어졌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특히 신채호는 자기의 필명을 무애생으로 했고 신규식은 자신의 필명을 청구한인으로 했거니와 필명에서조차도 한의 정서가 한결 두드려져 있다. 주요한 작품으로 신규식의 시 「태루를 돌아보며—겸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잔을 기울리며」,「강서에서 배를 타고 청도로 가다—철아, 소창, 예봉이 나를 바래주다」, 신채호의 시 「1 월 28 일」, 「고향이 그리워」, 「임술년 가을 밤에」등을 들 수가 있다. 신규식 시의 한의 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 잎은 지고 기러기는 울어대는데
루각의 뜨내기는 가을 철이 서글프도다
간밤에는 기러기 생각에 눈물 흘렸거니
이역 땅에선 망명의 설음 가실 길이 없네
삽시에 풍운이 일어 세상이 변하는데
하늘 땅을 휘잡을 자는 그 누구더냐
늙은 이는 정정하고 현자들은 훌륭한데
피안의 횡류에 우리 배를 띄워 보자
--신규식,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시를 짓노라」

일제의 치하에서 망국노가 된 설음을 토로하면서 그러한 험악한 현실을 돌려 세우지 못하는 민족적 한을 토로하고 있다. 시「태루를 돌아보면서—겸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읊는다」는 시인이 꿈결에도 망명지사인 박은식, 홍명희 등을 그려보며 애환을 달랜 시이다. “때로는 행로에 놓인 잔도가 근심인데, 그대 그리며 꿈결에 어양을 찾았어라”라고 하면서 뜻을 같이 한 망명동인들의 어려움을 근심한다. “원수를 족치지 못함은 나의 한이여니, 교만한 자의 간섭과 광분이 오래 못가리. 누각은 아늑하고 실바람이 불어오는데, 한가로이 글재주를 부림이 부끄럽도다’”라고 하면서 일제를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 한

스러움을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신채호의 망향애환시들도 한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외로운 등잔불 바득거리며 내수심을 돋우네
안타까운 일편단심 다 태워 버리고저
외로운 창을 들어 나라 운명 못 돌리고
모지라진 붓을 가져 역사를 끄적이네
이역방랑 무릇 십 년에 서리발 수염에 흩날고
병석 신음 밤은 삼경에 달빛이 루에 드네
고향의 룽어회맛 하도 좋다 말을 말아
지금은 땅 없거니 어선을 어따매리
-「임술년 가을 밤에」

시에서는 나라 잃은 망명인의 수심과 단심이 한의 정서속에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망향애환서사의 특징을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은 고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교차는 망명인들의 민족의식과 정감표현의 시대적, 민족적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중국체험서사는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문화혼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중, 다중언어 창작으로 중국, 한국 독자들의 요구에 따랐고 특히 주류사회 진출과 중국 진보적 인사들과의 공동담론과 상호 인지를 보여주었다. 창작에 있어서의 근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현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그리고 일본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언어의 창작 등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신채호는 고한문 창작과 국어의 창작을 병행시켰는데 중한 연대형성과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하여 근대 한문으로 정론과 시문을 발표했고 국내독자를 고려해서 국문으로 수필과 시문을 창작했다. 또한 류자명의 경우에도 광주기행문 같은 것은 국문으로 써서 국내에 발표했는데 목적은 국내 독자들에게 급변하는 중국시국을 알리려는 데 있었고 소설 「조선혁명일사」, 그리고 다수의 정론은 중국독자를 고려하여 현대한어로 창작 발표했던 것이다. 특히 이두산[55]의 경우는 국문, 현대한어,

[55] 이두산은 한국어로 가사를 창작했고 중국어로 정론, 수필, 사론을 발표했으며 영어로 단평을 발표했고, 일본어로 반일선전 방송연설했으며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동방전우』, 『조선의용대통신』 등을 참조)

일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다중 언어로 창작했던 바 사회영향과 독자층을 면밀하게 고려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가사는 한국인에게 불리워져야 하는 만큼 국문으로 창작했고 기타 시가, 수필, 정론 등은 현대 한문으로 창작했던 바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했으며 일부 단평은 영어, 일어, 에스페란토어로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 같다. 부동한 언어는 부동한 세계를 해석, 획득한다고 할 때 한국 망명문인들의 이중 언어, 내지는 다중 언어 창작은 이중 주체신분으로 중국의 혁명에 뛰여 들었던 문화적 신분과 관련되며 특히는 근대, 현대 한문창작은 중국의 주류사회에 뛰어들어 중국 지성인들과의 교류를 가지고 주류담론을 형성해 가며 그 사회적 영향을 획득하려는 망명인들 특유의 선택이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학창작과 번역, 출간에 있어서 공동합작, 공동공연 등 새로운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범석과 푸나이푸의 공동서사 「한국의 분노(청산리 혈전실기)」는 독립운동가와 중국 작가와의 합작이고, 김산과 미국 님웨일즈의 공동서사 「아리랑」은 한국 독립운동가와 미국기자와의 합작이다. 상기 합작서사는 물론 이야기의 구술자와 문인의 합작이지만 특수한 전쟁의 년대의 투사와 진보적 문인사이의 공동지향과 상호 인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망명지사들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번역합작이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의 진보적 문인들을 크게 감동시켰고 번역 출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조선의용대의 항일서사의 중요한 작품인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작품 외 다수 작품들은 조선의용대의 중국인 대원들의 번역을 통해 출간되었다. 그 주요한 번역자로 중국인 유금용, 왕계현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중한 연대로 이어진 중한 항일투쟁은 문학적 서사영역에까지 연대성을 체현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인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출판되었는 바 박은식의 「안중근전」의 출간을 위해 중국의 100여명 문인들이 동참하여 서문, 비문, 독후감 등을 써 주었고『유방집』에는 중국인 40여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 주었다. 이는 전대미문의 문단거사로서 근대 중국문단의 “일대사변”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이와 함께 한국망명자들의 가극 연극 등을 무대화 시킴에 있어서 중국 예술기관과 예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협조를 받았는 바 조선의용대의 가극「아리랑」, 연극 「조선의 딸」, 그리고 전지공작대가 서안에서 공연한 「아리랑」도 중국 예술인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무대화 시켰다. 따라서 중한 예술인들의 공동배역, 공동무대 설계, 공동음악 반주 등이 있었기에 그 공연이 크게 성공하였고 따라서 사회 각계 인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확장할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서사주체의 다양성과 중국체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체험서사의 경우 서사주체는 전문적인 문인군체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사건과 내용의 직접적인 체험자들이다. 예하면 신규식은 신해혁명에 참가했고 류자명은 의열단 폭력투쟁의 조직자이며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활동의 참가자이다. 이외 의용대 항일서사의 주체들인 의용대 선전원, 그리고 주요 작자들인 김창만, 이두산은 의용대의 골간인물이며 아리랑 창작의 한유한

역시 한국 청년공작대의 중견 예술인이며 조선유격대 항일서사의 주체는 역시 항일유격대 대원들이다. 타국 문인들과의 공동저자로 된 이범석 등도 독립투쟁, 항일투쟁의 체험자이며, 김산도 조선의열단 등 단체에 참가했고 중국공산당 지하활동의 인물이다. 이러한 서사주체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중국체험은 인물형상창조와 사상, 정서의 전달에 진실성, 생동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보면 무정부주의에 대한 투철한 이해, 그라고 형상창조를 통한 무의식의 표현 등 작자의 사상과 영혼 및 심리의 문학적 승화를 잘 보여준다. 김산, 이두산의 관련 작품도 시대와 혁명에 대한 이해 등에서도 투철성과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서사양식의 변천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서사양식에 있어서 인물전기로부터 시가, 소설, 산문, 희곡(가극 ,연극) 등 쟝르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예하면 가령 망국 전후의 의사투쟁은 전기로 되었다면 의사폭력서사와 무정부주의 투쟁사사는 소설형식으로 되었다. 이러한 점은 문학적 상상력이 상당히 제고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항일투쟁서사에서의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를 보면 주로는 전선에서 보낸 르포(보고문학)의 형식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도 수필, 일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한 면으로는 전시문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선의 상황을 알릴 것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극, 연극의 새로운 형식이 성숙되었는데 항전문예를 통해 중국 국민에 대한 선전, 선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서방의 무대예술의 영향과도 관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언어의 다중성, 공동서사와 번역합작 등 혼종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상기한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제로서의 서사주체, 서사양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혼종성의 특징은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이상을 위한 문학적 실천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 망명인들의 문학이 문화적인 혼종을 거쳐 주류담론에로의 진출과 새로운 민족문화창출을 동시에 완성한 좋은 예증이기도 하다.

7. 나오는 말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망명문학의 성격과 특징 등을 잘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문화패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반제 반식민지 저항문학이라는 데 그 성격적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담론을 통한 근대성, 항일담론을 통한 저항성, 민족담론을 통한 정체성, 평화담론을 통한 연대성, 탈경계 서사를 통한 문화혼종성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혁명서사는 중국인식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상상을 보여주며 의사투쟁서사는 중국 경내에서 벌어졌던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구국투쟁의 역사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을 중국에 전파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안중근전」의 영향은 문학텍스트의 역할을 넘어선 전대미문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 등 항일투쟁서사 작품은 중국 국민군과 조선 의용대의 영웅적 항전 모습을 보여준 귀중한 텍스트이며 「혈애지창」 등 작품들은 사회주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한국인 항일무장대오의 성장과정과 항일투쟁정신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비록 부동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을 구현하고는 있지만 조선의용대서사와 항일유격대서사가 보여주는 중한 연대의식은 근대 동아시아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평가된다. 망명애환서사는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표출로 민족성을 잘 보여 준다. 이와 함께 탈경계 체험과 서사적 책략을 통해 얻어진 문화혼종성은 다중언어 서사, 공동서사(공동합작 창작, 공동합작 번역, 공동합작 공연) 등으로 특징된다. 서사의 문화혼종성은 망명지사들의 문학으로 하여금 주류사회와 문단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 서사는 한국의 항일문학사 내지는 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을 뿐더러 중한 근현대 문학교류사 특히는 상호 탈경계서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발굴과 비교문학적 연구가 깊이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훈 이선한 편, 『신규식 시문집』, 민족출판사, 1998
2.『류자명자료집』, 독립운동편,충주시 충주 mbc, 2006
3. 조소앙, 『유방집』, 대동학회, 1932
4. 김구, 『백범일지』, 나남, 2002
5.『우등불』,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백산서당, 1940
6. 염광(장지락),「기괴한 무기」
7. 님웨일즈, 김산,『아리랑』, 동녘, 1984
8.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9. 최봉춘 편역,『朝鲜义勇队血战实记』, 밀양문화원, 2006
10.『혈애지창』, 까마귀, 1938
11.『밀림은 싸운다』, 까마귀, 1938
12. 김병민, 이춘광 주필, 『중국현대문학과 '한국'자료지총서』, 연변대학출판사, 2013
13.『진단』, 진단보사, 1920
14. 최광식 역주, 『단재 신채호의 '천고'』, 아연출판부, 2004
15.『조선의용대 통신』, 조선의용대 간행, 1939.1.21-1942.5『조선의용대통신』은 제 34 기부터『조선의용대』로 이름 고치였다.
16.『조선민족전선』,제 1 기-제 6 기, 조선민족 전선동맹 기관지, 류자명, 김규광 주필, 1938.4-1938.
17.『동방전우』, 동방전우사, 이두산 주필, 제 1 기-42 기, 1939.1-1942.4
18.『한국청년』, 제 1 기- 5 기, 한국 전지공작대, 1940
19. 김병민,「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제 174 호, 2016.3.
20. 김병민, 「저항과 상상: 망명공간과 중국체험서사—류자명의 산문의 경우」,『한국문학과 예술』 제 21 집, 2017.3
21. 김병민, 「조선의용대 관련 항일서사에 대한 문화적 고찰」,『통일인문학』, 제 72 집, 2017.12
22. 김병민,「중국 망명시기 예관 신규식의 의식세계와 문학상상」,『호서문화』, 제 5 집, 2017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송 철 의

(서울대 명예교수)

1. 머리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는 대체로 매우 점진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편 어문규범이란[1]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해 놓은 규정"인데, 이 어문규범은 어문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 로 개정하지 않는 한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실 언어에 비해서는 고정적이다. 그래서 흔히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현실 언어는 변하는데,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므로, 어문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시간 이 많이 흐르면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의 괴리는 한국어 교육자들에게도 고민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체언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2. 현행 한글 맞춤법과 역사적 표기

현행 한글 맞춤법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소소한 수정이 있었고, 1988년에 재정비 되면서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표기법의 근간은 여전히 그 대로 유지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는 현실 언어와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표기(다른 말로는 '관습적 표기')는 배제하고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표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바뀐 것은 바뀐 발음대로 표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긔챠'로 표기하던 것을 '기차'로, '셔울'로 표기

[1] 한국어 어문규범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하던 것을 ‘서울’로, ‘녀름’으로 표기하던 것을 ‘여름’으 로, ‘됴션’으로 표기하던 것을 ‘조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역사적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표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역사적 표기의 예로서는 [ㄷ]로 소리나는 것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2](덧저고리, 무릇, 얼핏)과 소위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짓고, 긋고)을 들 수 있다. ‘덧저고리’의 ‘덧’이나 ‘무릇, 얼핏’에서의 ‘ㅅ’ 받침은 늘 [ㄷ]로만 발음되기 때문에 ‘ㅅ’으로 적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들을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은 [ㄷ]로 발음되는 받침을 ‘ㅅ’으로 표기해 온 표기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현을 빌리자면 ‘在來의 버릇을 따라’[3]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8, 19세기의 한글 표기법에서는 받침 ‘ㄷ’을 ‘ㅅ’으로 적는 강한 경향이 있었다. ‘받고, 듣고, 믿고’를 ‘밧고, 듯고, 밋고’로 표기했던 것이다.

ㅅ-불규칙 활용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될 당시에 ‘짓다’는 [짇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발음되었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바탕으로 표기를 하였다면 ‘짓다’의 활용형 표기는 ‘짇고, 짇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짓고, 짓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은 표기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문법서들에서는 ‘짓다’류를 ㅅ-불규칙이라고 명명하였다. ㅅ-불규칙 용언들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여기서도 표기의 전통, 혹은 표기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용언의 어간말음은 현대한국어에서 어떤 경우에도 [ㅅ]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용언어간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한 것은 이들 용언어간 말음의 받침을 늘 ‘ㅅ’으로 표기해 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ㄷ’으로 표기하게 되면 한국어에 ㄷ-불규칙 활용이 두 가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ㅅ’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발음대로 ‘짓다’를 ‘짇다’로 표기하게 된다면 ‘짇다’도 ㄷ-불규칙이 되는데, ‘듣다’와 같은 기왕의 ㄷ-불규칙과는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다르므로 이 둘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1) 듣다 : 듣고 듣는 들으니 들어 들었다 (ㄷ-불규칙 1)
짇다 : 짇고 짇는 지으니 지어 지었다 (ㄷ-불규칙 2)
믿다 : 믿고 믿는 믿으니 믿어 믿었다 (규칙 활용)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전통적인 표기법과는 달리 현실 발음을 대폭 반영한 표기법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말 표기를 현실 발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바

[2]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1장 제4절, 한글 맞춤법 제7항
[3] 한글맞춤법통일안 제6항 참조.

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우리말을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되, 문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혹은 표기법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물론 매우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맞춤법 규정을 만들 때에는 부분적으로 현실 발음을 따르지 않고 역사적 표기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3.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란 거리의 하나였다.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불규칙 활용의 경우 조차도 본음을 밝혀 어간을 고정시켜 표기하려 하였다. '추워, 지어, 우는, 흘러'를 '춥어, 짓어, 울는, 흐르어'로 표기하려 하였던 것이다.

(2) 추워→ 춥어, 지어→ 짓어, 우는→ 울는, 흘러→흐르어

그리고서는 '춥-'의 'ㅂ', '짓-'의 'ㅅ', '울-'의 'ㄹ'은 실제로는 발음되지 않으니 까 그 'ㅂ, ㅅ, ㄹ'에 사선을 그어 이 'ㅂ, ㅅ,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맞춤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최현배도 최현배(1930)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현배(1934)에서 한국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서 불규칙 활용을 11가 지로[4]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8가지 만 언급하였다.

(3) 제3장 제4절 변칙 용언

① 어간의 끝 ㄹ이 ㄴ ㅂ 과 'ㅇ' 우에서 주는 말 ('ㄹ'불규칙)[5]

②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질 적 ('ㅅ'불규칙)

③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ㅎ'불규칙)

④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 적 ('ㄷ'불규칙)

⑤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 적('ㅂ'불규칙)

⑥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 적('여'불규칙)

⑦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 적('러'불규칙)

[4] 이때까지는 우-불규칙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5] 불규칙 명칭은 필자가 써 넣은 것임.

⑧ 어간의 끝 음절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 적에 ㅡ가 줄고 ㄹ이 ㄹㄹ로 날 적(‘르’불규칙)

소위 으-불규칙 활용은 제5장 ‘略語’[6] 부분에서 다루었다. ‘크-+-어→커, 크-+-었다→컸다’를 준말 형성으로 본 것이다. 거라-불규칙 활용과 너라-불규칙 활용은 하나의 활용형(해라체 명령형)에서만 문제가 되는 아주 특수한 것들이어서 맞춤법 규정 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우-불규칙 활용을 처음 언급한 것은 박창해(1946)이었다(고영근 1983:69). ‘푸다’ 한 단어에 해당되는 불규칙 활용이라서 불규칙 활용 논의에서 간과되어 오다가 박창해(1946)에 이르러 발견이 된 듯하다. 최현배(1934)에서 11가지로 정리되었던 한국어 불규칙 활용에 우-불규칙이 추가됨으로써 불규칙 활용이 12가지로 늘어났다. 우-불규칙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글 맞춤법’으로 명칭도 개정하면 서 그 내용도 수정 보완한 1988년에 이르러서야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었다. 맞춤법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가 아닌가 한다. ‘한글 맞춤법’에선 종래 ‘준말’항에서 다루었던 으-불규칙 활용도 불규칙을 다루는 조항으로 가져 왔다. 그리고 으-불규칙과 우-불규칙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4)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4’ 어간의 끝 ‘ㅜ, ㅡ’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펐다, 끄다 : 꺼 껐다, 크다 : 커 컸다

한글 맞춤법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그러다’류 동사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서들에서 불규칙의 종류는 대개 12가지라고 기술되어 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현배(1934)에서 제시된 11가지에 박창해(1946)에서 새로이 제시한 우-불규칙이 추가된 숫자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한국어에 또 하나의 불규칙 활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다’류 동사들의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규칙 동사인 ‘서다, 건너다’와 ‘그러 다’의 활용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서다 : 서고 서는 서니 서면 서 서서 섰다
건너다 : 건너고 건너는 건너니 건너면 건너 건너서 건넜다
그러다 : 그러고 그러는 그러니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랬다

‘서다, 건너다, 그러다’는 모두 어간이 모음 ‘ㅓ’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위의 (5)에서 볼

[6] 略語(약어) = 준말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될 때 '서다, 건너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그러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규 칙 활용을 하는 동사라면, 그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은 '그러, 그러 서, 그렀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다'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 이 '그러다'류를 무슨 불규칙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어간말음 'ㅓ'가 'ㅐ'로 바뀐다고 보고서 송철의(2004)에서 이들을 어-불규칙이라고 명명 하였다.[7]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다'류는 '그렇다'류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독자적인 단어들이다. '그렇다'류가 '그러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라면, '그러다'류는 '그리 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다. 다만, '그렇다'류의 발달과정은 어렵지 않게 규명되 는데, '그러다'류의 발달과정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하다는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러다'류는 분명 독자적인 단어들이고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서들에서도 이 어-불규칙에 대한 언급은 최근까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아마도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동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도수희(1965)이다. 도수희(1965)에서는 '그렇다'류를 대형용사(代形容詞)로, '그러 다'류를 대동사(代動詞)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동사 로서의 활용을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이후 한국어의 대용 언(代用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용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배주채(1995)에서 '그러다'류의 활용 양상 및 사전적 처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항목으로 등재되고 이들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사실이 발음 항목에서 제시되었다[8]. 그러니까 '그러다'류는 1990년대에 와서야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종류의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 사정 이러했으니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어-불규칙이 반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어-불규칙도 '한글 맞춤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불규칙을 맞춤법 규정에 반영한다면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6) 어간의 끝 'ㅓ'가 'ㅐ'로 바뀔 적
그러다 : 그래, 그랬다
이러다 : 이래, 이랬다

[7] '그러다'류가 '어'불규칙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것은 일본에서 1993년에 간행된 ≪朝鮮語辭典≫(油谷幸利 外 編)이었다. 배주채(2003)에서도 '그러다'류를 '어'불규칙으로 설명하였다.
[8] '그러다' 항목의 발음정보 난에 '[그래, 그러니]'와 같은 활용형이 제시되었다.

저러다 : 저래, 저랬다

4.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와 표준 발음법

현재 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이 단순화되는 변화의 큰 흐름이 있다. 즉, 어간말의 자음군(子音群)은 단자음(單子音)으로, 격음(거센소리)은 평음(예사소리) 으로 단순화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단어에 따라서는 변화가 완료된 듯한 경우도 있다.

먼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7) ㄺ : 닭, 흙, 칡
ㄾ : 여덟
ㅄ : 값

이들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고, 자음조사가 결합되면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8) 흙 : 흙이[흘기], 흙을[흘글] / 흙과[흑꽈], 흙도[흑또]
닭 : 닭이[달기], 닭을[달글] / 닭과[닥꽈], 닭도[닥또]
여덟 :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 여덟과[여덜과], 여덟도[여덜도]
값 : 값이[갑씨], 값을[갑쓸] / 값과[갑꽈], 값도[갑또]

서울말에서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자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모음조사가 올 때에도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흙이'를 [흘기]로 발음해야 하는데 [흐기]로 발음한다든가, '닭을'을 [달글]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글]로 발음하는 예들이 많은 것이다.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속의 발음).

(9) 흙 : 흙이[흐기], 흙을[흐글]
닭 : 닭이[다기], 닭을[다글]
여덟 : 여덟이[여더리], 여덟을[여더를]
넋 : 넋이[너기], 넋을[너글]
값 : 값이[가비], 값을[가블]

위의 (9)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어간들이 단자음을 가지

는 어간으로 변화(재구조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0) 닭>닥, 흙>흑, 여덟>여덜, 넋>넉, 값>갑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는 어간말음이 격음인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ㅋ'은 'ㄱ'으로, 'ㅍ'은 'ㅂ'으로, 'ㅊ, ㅌ'은 'ㅅ'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예들을 몇 개씩 들어 보면 다음 과 같다.

(11) ㅋ : 부엌
ㅌ : 겉, 밑, 밭, 솥, 팥
ㅍ : 무릎, 숲, 앞, 옆, 오지랖, 잎, 헝겊
ㅊ : 꽃, 낯, 돛, 몇, 빛, 숯, 윷

이들 체언어간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표준발음이다.

(12) 부엌 :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솥 : 솥이[소치], 솥을[소틀]
무릎 :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꽃 : 꽃이[꼬치], 꽃을[꼬츨]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경우에도 자음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발음상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 (12)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인데,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 부엌 :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솥 : 솥이[소시], 솥을[소슬]
무릎 :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 : 꽃이[꼬시], 꽃을[꼬슬]

위의 (13)과 같이 발음하는 것은 '부엌, 솥, 무릎, 꽃'이 각각 '부억, 솟, 무릅, 꼿' 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4) 부엌>부억, 솥>솟, 무릎>무릅, 꽃>꼿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들의 변화와 같은 성격의 변화이다.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격음이 평음으로 변하는 것은 다 같이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변하는 변화(단순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들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어간말음을 가진 단어들이라도 단어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다르다. 예컨대 어간말음이 'ㅍ'인 '무릎, 오지랖, 앞, 옆'의 경우 '무릎'과 '오지랖'은 '무릅', '오지랍'으로의 변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만, '앞, 옆'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2004년도의 조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무릎 : 무릎이[무르비] 58.4%, 무릎에[무르베] 63.1%
오지랖 : 오지랖이[오지리비] 74.7%, 오지랖에[오지라베] 65.25%
앞 : 앞이[아비] 5.6% 앞에서[아베서] 5.4%
옆 : 옆이[여비] 7.15% 옆에서[여베서] 5.35%

'앞, 옆'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 보고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서울말에서는 '앞이'를 [아비]로 발음하거나 '옆이'를 [여비]로 발음하는 경우가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과 '옆'은 거의 변화를 입지 않은 것이다.

한국어의 체언어간은 근대한국어 시기(17세기-19세기)에 이미 어간말 'ㄷ'이 모두 'ㅅ'으로 변하는('ㄷ'말음 어간이 'ㅅ'말음 어간으로 변화되는) 큰 변화를 겪은 바 있다.

(16) 몯(釘)>못, 붇(筆)>붓, 벋(友)>벗, 곧(處)>곳

이러한 변화는 'ㄷ' 받침을 갖는 체언의 모든 단어에서 예외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어에는 체언으로서 어간말음이 'ㄷ'인 단어가 없다. 그래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도 어간말음이 'd, t'인 단어를 음차(音借)하여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d, t'를 'ㄷ'이나 '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robot'을 '로볻'이나 '로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봇'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이다. 로봇이[로보시], 로봇을[로보슬]

근대한국어 시기에 어간말 'ㄷ>ㅅ' 변화를 겪은 한국어 체언은 현대한국어 시기에 와서는 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체언어간에서만 나타나고[9] 용언어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인 체언어간과 비자립형식인 용언어간은 역사적인 변화에서도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9] 'ㄷ>ㅅ' 변화는 부사 '몯'에서도 일어났다. 몯>못

5.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정책

앞에서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변화 몇 가지와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한국어가 현대에 들어 와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한국의 어문규범이 제정된 뒤에 나타난 변화들이어서 어문규범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이들 변화 중에 어떤 것은(예컨대 어-불규칙이 새로 생겨난 것) 어문규범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그 변화가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같은 경우,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므로, 이 동사가 모음계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아직은 맞춤법 규정 속에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 동사의 모음계어미 활용형을 '그래, 그래라, 그랬다'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규범에 따른 표기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언젠가 어문규범(한글 맞춤법)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어문생활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어문규범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언중들이 암묵적으로 현실 언어 상태를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체언어간 말음이 단순화되어 가는 변화는 어문규범에 받아 들이기가 어려워서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표준발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언중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변화까지를 어문규범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현실을 받아들여 '닭, 흙'을 '닥, 흑'으로 표기하기로 하고 '부엌, 무릎, 솥, 꽃'을 '부엌, 무릅, 솟, 꼿'으로 표기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어문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10].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

6. 언어 변화와 한국어 교육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언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표준어를 가르친다. 표

[10] 예외적으로 이러한 변화(체언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를 발음상으로는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한 가지 있다. 'ㅊ,ㅋ,ㅌ,ㅍ'의 자모 이름에 모음 조사가 결합될 때 다음과 같이 발음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치읓이[치으시], 키읔이[키으기], 티읕이[티으시], 피읖이[피으비]

준어는 온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면서, 인위적으로 잘 다듬어진 언어이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외국어의 표준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표준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준어란 규범에 맞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한국어의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고,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도록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어 교육에서 표준 발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흔히 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다음의 (17ㄱ)이나 (18ㄱ)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17ㄴ)이나 (18ㄴ)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자신은 표준발음법대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입에 익은 평소의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다. 필자가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17ㄱ) 흙이[흘기], 흙을[흘글]　　(17ㄴ) 흙이[흐기], 흙을[흐글]
　　닭이[달기], 닭을[달글]　　닭이[다기], 닭을[다글]

(18ㄱ)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18ㄴ)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이[꼬치],　꽃을[꼬츨]　　꽃이[꼬시],　꽃을[꼬슬]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발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말과 발음도 스스로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 현실 한국어(자연스러운 일상의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인지, 주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준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주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어떤 분의 회고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닭이, 닭을', '무릎이, 무릎을', '꽃이, 꽃을'의 발음을 열심히 '[달기], [달글]', '[무르피], [무르플]', '[꼬치], 꼬츨]'로 가르쳤는데, 서울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더니 '[다기], [다글]', '[무르비], [무르블]', '[꼬시], 꼬슬]'로 발음하면서 서울에 갔더니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발음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4),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국립국어원(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도수희(1965), {그러나,그러고…/그러니,그러면…} 等 語辭攷, ≪한국언어문학≫ 3, 한국언어 문학회.

박창해(1946), ≪쉬운조선말본≫, 계문사. (역대한국문법대계 1-65)

배주채(1995),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남학 이종철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송철의(1996), 우리말 발음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한글사랑≫ 창간호, 한글.

송철의(2004), 'ㅎ'불규칙과 '어'불규칙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조선어연구≫ 2, 조선어 연구회(일본).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희승(1959),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수정판), 신구문화사.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선어학회(1933), 한글마춤법통일안, 한성도서주식회사. (한국역대문법대계 3-20)

최명옥(1988), 불규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li-, lə-, ɛ(jə)-, h- 불규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 문과연구집 제 1 집), 연희전문학교출판부. (한국역대문법대계 1-44)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동광당서점.(한국역대문법대계 1-43)

최현배(1937), ≪우리말본≫ (초판), 연희전문학교출판부.

최현배(1955), ≪우리말본≫ (깁고 고친 판), 정음사.

한수정(2014),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油谷行利 外 編(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유럽 (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연재훈 (Yeon, Jaehoon) (jy1@soas.ac.uk)
런던대학교 소아스
(SOAS, University of London)

1. 들어가기

- 언어를 배우는 목적 (Cook 2008: 209ff)

- 외국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 언어 자체의 이해 (Understanding language itself)
- 인지적 훈련 (Cognitive training)
- 일반 교육적 가치 (General education values)
- 학문으로서의 외국어 학습 (Learning the foreign language as an academic subject)

- 교사는 언어 교수와 학습 목적 숙지해야.
-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 언어교육에 대한 기본적 가정 (Cook 2008: 4ff)

(1) 전제 1: 교육의 기본은 글말이 아니라 **입말**이다.
(2) 전제 2: 교사와 학생은 교실에서 제1언어(모어)가 아닌 **목표어**를 사용해야 한다.
(3) 전제 3: 교사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은 피해야** 한다.
(4) 전제 4: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를 **원어민화자**처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전제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 의사소통교육 vs. 문법교육

- 명시적 문법 교육도 1970-80년대 '의사소통 교육'의 위세에 눌려 변방으로 밀려 났다가 1990년대 '**형태중심교육**' (focus on form)이란 이름으로 부활.
- '문법'이란 용어는 아직도 **금기어**처럼 취급받고 있고 문법을 가르치더라도 문맥 속에서 가르치든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암묵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명시적 문법** 교육도 대학의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 또 외국인 학습자가 **원어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 국어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a) 한국어문법은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형, 문형, 덩어리**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어/아)서 :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는 통에; -려고 하다, -(으)ㄹ 수 있다, 등등)

(b) 한국어 문법은 형태 중심의 문법이 아니라 **의미/기능 중심**의 문법이 될 수 있다.
(기능중심의 한국어문법 체계 (한송화 2006))

(c) 한국어 문법은 분석적인 문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법**이 될 수 있다.
(예: 관형형 어미 -ㄴ, -ㄹ : -는, -(으)ㄴ, -(으)ㄹ, -던;
보조동사: -을까 보다; 연어: -을 위해, -에 대해(서))

(d) 한국어 문법은 세부적인 면에서 **단순화된 문법**이 될 수 있다.
(예; 1.'-게 하다' 구성: 보조동사 or 복합문 동사
2. 종속절이냐 부사절이냐의구별,
3. 내포문의 종류와 구분 등 중요하지 않다!)

2. (유럽) 대학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 유럽의 한국어 교육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전공과정**으로서 개설되어 왔고 그 역사도 아주 길다.

- **학문 목적**으로 개설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실용적 한국어 교육 과정과는 다른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 언어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언어 교육의 목적.
- 한국학 전공 연구를 위한 도구 기능이나 통/번역 등이 학과의 특성상 중요시된다면 이에 따라 교육 방법과 중점이 달라질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언어는 **체계, 행위, 문화**의 3가지 측면이 어우러져 이루어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2) 언어 교육의 요소: 구조적 지식 (문법)도 필요한가?

-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는 구조적 지식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지만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구조적 지식 필요**.
- **정확성과 숙달도** 달성을 위해 문법 교육 필요. 다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하다. 외국어로서의 문법은 간결하고 학습자의 교육 배경과 학습 능력을 고려해야.
- 문법 설명은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
- 문법 교육은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이 효과적이다.

(3) 교실 학습에서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주어/목적어, 자동사/타동사, copula, 관계절 등등)

대상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가 **성인**일수록, 또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어 학습에서 문법용어를 사용한 문법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법용어를 사용한 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일수록 문법용어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rg 1999: 99).

(4) 교실에서 학습자의 모어 사용 문제

외국어 교실에서는 목표어만을 사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문법이나 개념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5) 유형 연습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가?

유형연습은 구두-청각식 교육방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지지만, 교실 언어 수업에서 여전히 유용하고 필수적인 연습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연습 방법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6) **번역** 연습은 필요한가?

번역 연습도 의사소통 방법론에서는 보통 기피하는 연습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인지 능력이 발달한 성인 학습자에게 번역 연습은 축지법적인 효과.

(7) **암기**는 언어 학습에 효과가 있는가?

- "주입식이나 공식적으로 '배워진' 지식은 '습득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암기는 모든 언어 학습의 기초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승자 2016 등).

(8) 학습자의 **실수**와 **오류**는 바로 고쳐 주어야 하는가?

- 여기에도 정답은 없다. 오류 수정의 방법이나 빈도는 학습자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9) **교과과정**(syllabus)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문법 위주의 교과 과정에서는 단계별 지식 축적식의 방법이 이용되고, 행위나 과제 중심 교과 과정에서는 문법 소개의 단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교수법에 따라서 교재의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

(10) 한국어 **표준발음**을 얼마나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혹은 바람직한가? (Cf. English RP)

- 미세한 발음의 차이나 음운의 변별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맥에서 예측 가능하다. 특별히 어려운 발음의 음운 변별쌍을 가지고 모어 화자 같은 발음 연습을 강요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이지 않다. (예; 불:풀:뿔 등의 최소변별쌍)

- 학생들에게 개별적 음소에 대해서 발음을 가르치고 교정해 주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쿡(2008:81)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11) **어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이션 Nation 2001: 16)

- 직접 학습법(설명, 정의, 사전 찾기 등)과 간접학습법(문맥, 활동을 통한 습득) 등 다양한 방법.

==========

*어휘학습과 관련된 근거없는 믿음 (myth) (Folse 2004)

신화 1: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신화 2: **의미장**(semantic sets)으로 단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

신화 3: **단어 번역** 학습은 지양해야 한다.

신화 4: **문맥 추론** 방식이 효과적이다.

신화 5: **단일어사전** (monolingual) 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 결과는 이러한 믿음들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cf. Iwasaki (in press))

(12) 언어 교실에서 **문화 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강현주 2014, 배재원 2011, 박정미 2015, 최준식 2012 등 참고)

- 문화교육은 언어 교육을 통해서 **암묵적/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
- 문화 내용 전달에 치중하여 언어 교육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언어교육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점에 주의.
- **객관적이고 문화 보편적** 자세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문화 민족주의나 근거 없는 문화 우월주의, 혹은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전통 한국 문화를 과도하게 많이 소개하는 것은 거부감 유발.
- 문화교육을 위해 **문화 교수요목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 기술하는 방법도 얼마나 논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깊이 있는 문화 수업은 언어 수업과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1. 효과적인 언어교육 (Littlewood 2013)

1. **절충**적 방식
2. 의사소통적 방식과 기술을 전통적 방식에 **통합**
3. **목표어**를 많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의미/기능**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시
5. 학습자의 **자연적** 학습기회 중시
6. 학습자의 **무의식적**/자동적 학습뿐만 아니라 **의식적** 지식도 중시
7. 학습자의 **개인적** 차이도 중시
8. 규칙뿐만 아니라 **숙어 표현** 등도 중시
9. 학습자의 **모어**를 교실에서 학습의 자원으로 사용

- 결론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학습 방법으로는 문법 설명과 번역, 묻고 답하기를 통한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을 통한 언어습관 형성, 행위나 과제 수행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습득 등 다양한 방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보통 대학 전공 과정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학문 목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학습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절충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교수법과 교재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적절한 교재 선택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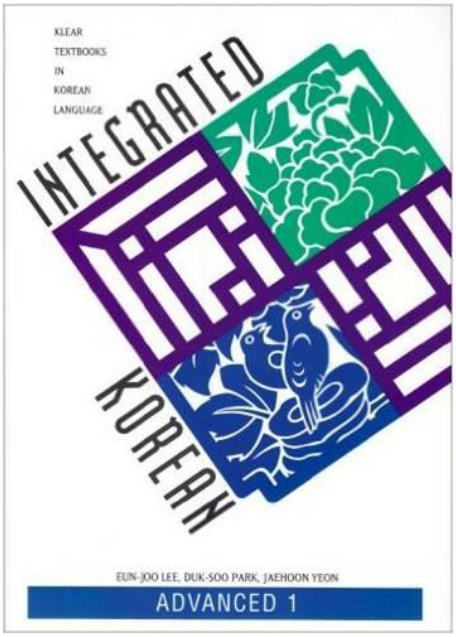
1. 충분한 문법 구조 설명 부족
2. 현지어 교재 부족
3. 다양한 목적을 위한 교재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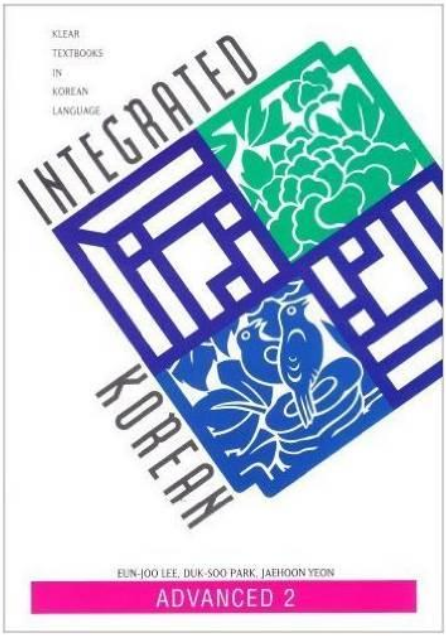
- 완벽한 교재는 없다.
- 학생의 수용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 보충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

3.1. 필자가 집필한 영어권 한국어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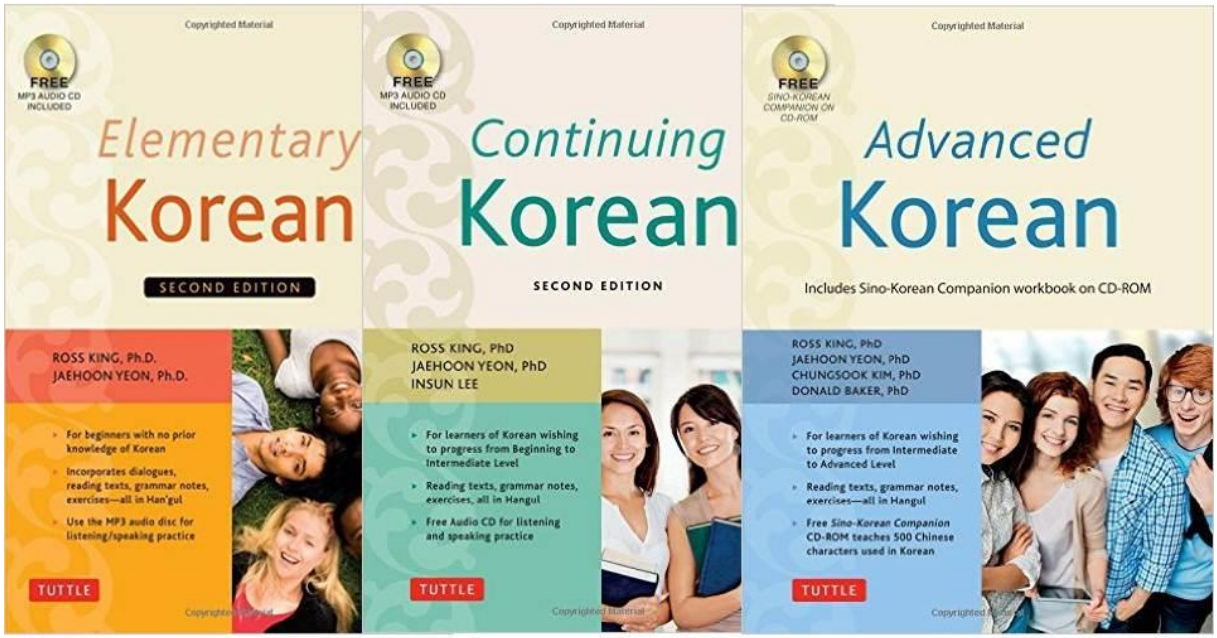
-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Lee, Park and Yeon) 2005. (UHP)
- **Elementary Korean, Continuing Korean, Advanced Korean** (King & Yeon et. al) 2000/2002/2015. (Tuttle)
- **Complete Korean** (Vincent & Yeon). 1997/2014. (TY series)
- **Get Started in Korean** (Yeon, J). 2014. (TY series)
-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Yeon & Brown) 2011. (Routledge)
-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Yeon, Kiaer, & Brown). 2013. (Routledge)
-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Brown & Yeon). 2016. (Routledge)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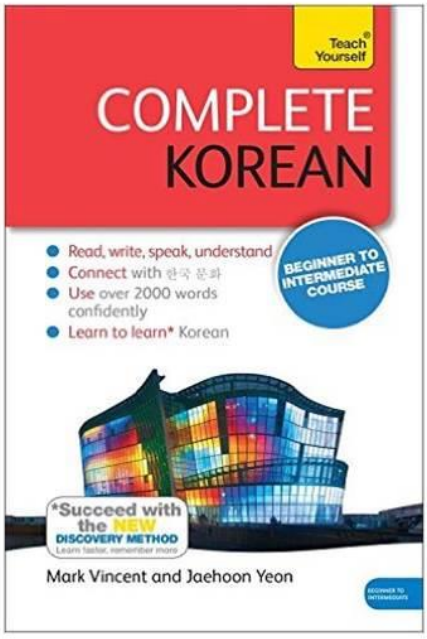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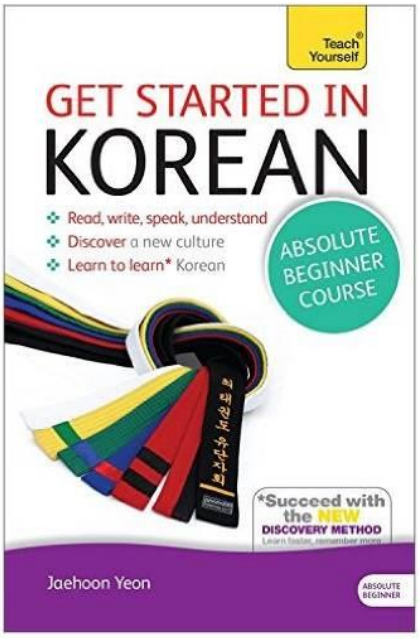


Elementary/Continuing/Advanced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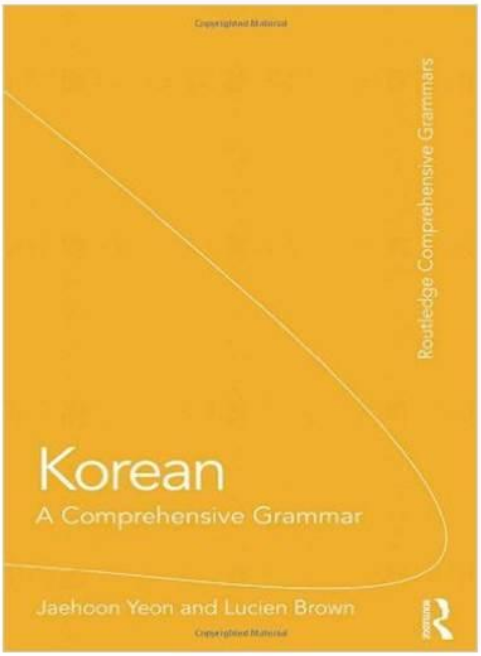


Complete Korean/ Get Started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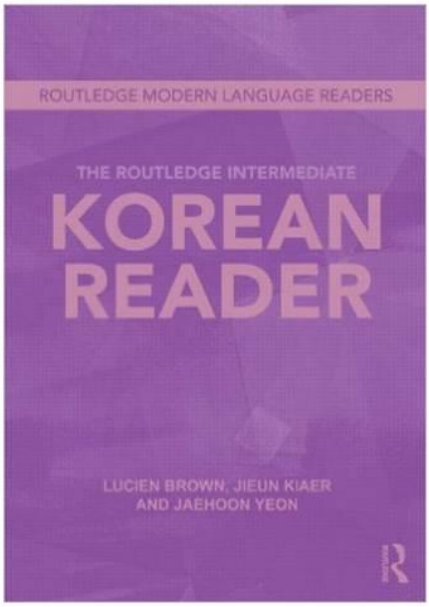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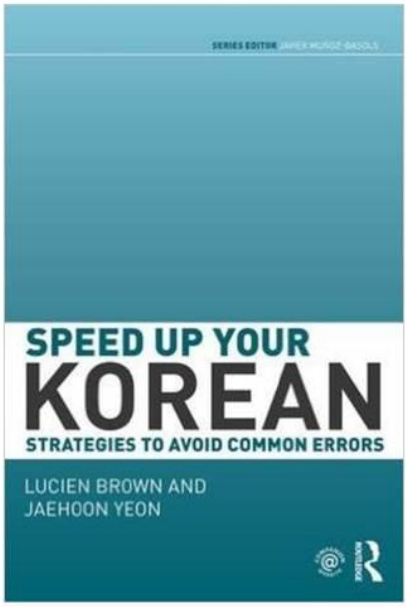
Korean: A Comprehensive Korean



The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3.2. 교재를 만들면서 고려할 사항들

1.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사용할 교재인가?
2. 언어 교육이 목적인가, **문화 교육**도 포함시킬 것인가?
3.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4. 대화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인가, 체계적인 **구조 문법** 중심인가? 혹은 **과제 중심**인가?
5.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6.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칠 것인가?

7. **단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8. **순서** 및 **배열**의 문제:
    8.1 빈도수
    8.2. 축약형(입말)과 원형(글말)
    8.3. 격식(합니다)체와 비격식(해요)체
    8.4. 반말의 도입
    8.5. '이다' 동사와 일반 동사
9. 동사의 소개와 **불규칙 동사**의 접근 방법
10.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문제
11.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한 의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서", "-니까",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한국어 교재에서 존대발/반말 사용의 문제 (Brown 2010)

1. 제한된 사회적 문맥만 제시: 대화의 60% 이상이 친구 사이의 대화. 다양한 상하관계의 대화 환경 부족.
2. 교재 대화는 대부분 존대말 (87.6%): 해요체 (59.3%), 합니다체 (28.4%) → 실제상황과 괴리
3. 반말체 부족: 대부분 중급 단계에서 도입, 한두과에서 소개.

4.1. 유럽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개관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유럽 대학교> (2016년 현재): 약 25개국, 60여개 대학

독일(9), 프랑스(8), 영국(5), 이태리(3), 스페인(3), 폴란드(3), 터키(3), 체코(2), 헝가리(2), 핀란드(2), 오스트리아 (2), 루마니아(2), 아르메니아 (1), 아제르바이잔(1), 벨기에(1), 불가리아(1), 덴마크(1), 조지아(1), 아일랜드(1), 리투아니아(1), 마케도이나(1), 네델란드(1), 슬로베니아(1), 스웨덴(1), 우크라이나(1),

4.2. 영국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 검토

- 영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북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비해서 개설 대학의 숫자나 수강 학생의 숫자에 있어서는 적지만, 한국학이 단독 **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런던대학 **소아스**, **셰필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학사, 석/박사 학위가 주어지고, **센트럴 랑카셔** 대학에서는 학사 학위,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4개 대학 중, 런던, 셰필드, 센트럴 랑카셔 대학 등 3개 대학이 학위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1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의 언어 실습 과정을 요구.

- 영국은 한국 이민의 역사가 북미 대륙만큼 오래지 않은 관계로, 영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북미에서와 같이 학생의 다양성이나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계승어 학습자와 비계승어 학습자 사이의 수준 차이 문제는 없다**. 영국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영국 및 유럽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성에서 오는 문제는 없다.

1. 영국 내 **표준 교육과정**이 있는가?

- 영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의 관여나 **국가주도의 표준 교육과정 제정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
-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재, 교육 방법 등은 학생과 교육 현장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현장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 **교수학습 원리**

-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한 구두 청각 교수법과 다양한 교수법을 통합한 '**절충적 통합 교수법**'
- 필자가 아는 한 온전한 의사소통중심/과제 중심 교수요목에 근거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나 교재 개발은 아직 없다.
- 런던대학의 한국어 교과과정은 문법 교육 없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

4.3. 유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정리

- 유럽 지역 대학들의 한국어/학 교육의 **역사**는 매우 길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2000년 개설)이나, 이태리,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유럽 주요국가들의 한국학 역사는 1960년대 길게는 1940년대까지.
-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에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깊이 있는 교육.
- 한국 대학과의 **교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다.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국학 전공을 위한 문법-독해 중심의 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대학의 교환과정이나 한국인 파견 교수의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식 교육 방법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법 구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초급 과정의 **교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재와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를 병용하는 대학들이 많고, 중급 이상의 과정에서는 각 대학 별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의 교과서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한국어 **교수진**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한국인이 많지만, 독일과 동유럽 등 그 외 유럽 지역은 현지인 교수의 책임 아래 한국인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사진의 전공은, 언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역사나 문학, 정치 등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5.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

- 1990년대 이후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라는 슬로건 등장
- 한국어 사용인구: 12-13위,
-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의 순위??
- 지난 10년 사이 TOPIK 응시인원 증가: 비자 취득의 필수 조건. 서양의 응시 인구는 아직도 소수.
- 서양 대학에서 한국어: 아직도 **one of less widely taught languages**

The ten most used internet languages today (C. Kim 2015:66):

1) **English: 55.7%**
2) **Russian: 6%**
3) **German: 6%**
4) **Japanese: 5%**
5) **Spanish: 4.6%**
6) **French: 4%**
7) **Chinese: 3.3%**
8) **Portuguese: 2.3%**
9) **Italian: 1.8%**
10) **Polish: 1.7%**

……..

18) Korean (Hangul): 0.4%

5.1. 한글의 세계화?

- 찌아찌아 사람들(인도네시아 부탄섬)의 한글 사용?
- 왜 로마자가 아니라 한글인가?
- 한글은 외국어를 표기하기에 완벽한 글자인가?
- 한글로 표시할 수 없는 영어의 소리:
  /p/ : /f/ : /v/ -- pan : fan : van
  /s/ : /z/ -- seal : zeal
  /θ/ : /th/ -- thank : this
  /l/ : /r/ -- light : right etc.
- 한글세계화의 윤리적 문제 (김진우 2015)

한국어는 국제어나 세계어는 아니지만 외국어로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The top languages studied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2013

	Language	Enrollments	Change since 2009
1)	Spanish	790,756	-8.2%
2)	French	197,757	-8.1%
3)	American Sign Language	109,577	+19.0%
4)	German	86,700	-9.3%
5)	Italian	71,285	-11.3%
6)	**Japanese**	**66,740**	**-7.8%**
7)	**Chinese**	**61,055**	**+2.0%**
8)	Arabic	32,286	-7.5%
9)	Latin	27,192	-16.2%
10)	Russian	21,962	-17.9%
11)	Greek, Ancient	12,170	-35.5%
12)	Hebrew, Biblical	12,551	-8.7%
13)	Portuguese	12,450	+10.1%
14)	**Korean**	**12,229**	**+44.7%**
15)	Hebrew, Modern	6,698	-19.4%
16)	Other languages	40,059	-2.6%
	Total	1,562,179	-6.7%

5.2.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한 요인들

1) 한국문화의 인기 (한류, 케이팝 등)
2) 동북아시아와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3) 한국정부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지원
4)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장려 정책
5) 한국인의 역동성

5.3. 문제점과 제안

(1) 한국 정부의 지원은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
(2) 세종학당 예산 부족
(3) 한류, 케이팝 보급 등 문화 교육/전파는 중립적이고 젊잖게: 국가홍보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4) 애국주의를 넘어서야: 대학의 한국학과는 한국 홍보 단체가 아니다.
(5) '한국어 세계화' 등 비현실적 구호보다는 꾸준한 연구와 교육, 지원 필요.
(6) 의사소통방식, 과제중심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지만 정확성을 위한 문법교육에 오면 내실있는 교육이 부족한 듯: 문법구조 교육도 필요.

6. 당면 과제

(1) **한국어 연구와 교육의 차세대 양성 문제**

-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차세대 유럽 현지인 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 (응용) 언어학 분야의 박사 연구생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어학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전임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 교수직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 현재 한국어학 교수 자리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고 언어교육은 강의 전담 교수들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유럽 현지인 연구자를 위한 조교수직 설치와 현지 대학의 지원을 당분간 확대해야 한다. 한국어학 교수직이 개설되었을 때 그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이나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연구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

(3) 한국학 내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치 문제 및 언어교육자의 지위 문제

- 한국학 안에서 한국어학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학 전임 교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강의 전담 교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석/박사 과정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언어 교육자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독자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 증가

- 한국학 연구의 기반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어 학습만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대학 내에서 한국어 디플로마 코스 등 개설, 세종학당이나 한국문화원에서 집중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

(5) 한국어 교재 문제: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의 부족

-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현지 한국어 교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지만,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를 제외한 다른 유럽 학습자들을 위한 현지어 교재들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지어로 된 한국학 및 한국어 교재를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한국학 분야별 연구자의 질적-양적 성장의 문제

- 연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정인원' (critical mass) 확보 문제를 고민할 단계. 물론 과거에 비해 한국학 연구자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지만, 중국학, 일본학과 더불어 동아시아학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한국학의 양적 질적 수준은 아직도 현격한 차이. 중국학, 일본학에 견줄 수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7) **한국학 분야별 균형의 문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인문학 내에서 역사 및 문학 및 어학, 전근대 및 근대 역사/문학/언어, 고전문학 대 현대문학의 균형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국학의 분야별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북미 한국학과 유럽 한국학의 전통이나 현황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유럽은 북미에 비해서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수효가 부족하고, 반면 전근대 역사 전문 연구자들이 북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8)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이론과의 갈등**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은 보통 지역학으로 개설되어 있고, 가끔 사회과학, 언어학 등 이론 학문과 방법론 등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학과 이론 학문의 긴장 관계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유지하면서 한국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9) **학부 과정 전공 학생 수의 문제**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 전공 학생들의 숫자가 충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학문적인 접근과 노력뿐만 아니라 한류나 케이팝 등 대중문화의 인기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학의 관심을 유지하고 선도해 나갈 필요.

(10) **한국 문화 교육과 전파의 문제**: 점잖고 문화 중립적 태도 유지. 한국학과는 한국 문화 홍보 학과가 아니다.

References

Brown, Lucien. 2010. Questions of appropriateness and authenticity in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honorifics in textbooks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Culture & Curriculum* 23/1: 35-50.

Choi, Seungja. 2016. A New Paradigm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2, No.1.

Cook, Vivian 2008.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Fourth Edition). London: Hodder.

Folse, Keith S. 2004. Vocabulary myths: Applying second language research to classroom teaching.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Iwasaki, Noriko. In press. L2 Vocabulary Teaching: Debunking Pervasive Myths.

Kim, Chin W. 2015. Three notes on globalisation of hangul. Proceedings of 12th ISKS Conference.

Kim, Minju. 2000. What you did not learn in the classroom but what you will hear frequently in real conversations.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5: 317-329.

Kim, Suhee. 2005.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America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King, Ross. 2005.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Anglophone learners.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2. Seoul: Hankwuk Munhwasa.

-------. 2007.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language: Preliminary thoughts. ms.

Littlewood, W. 2013. Communication-oriented language teaching: Which way ahead? http://www.eltchina.org/wzw/kindeditor/attached/file/20130725/20130725112633_3073.pdf

Nation, I.S.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UP.

Sohn, Homin. 2005. Tasks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Worldw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Wang, Hye-sook. 1999. Speech Act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Representation and Authenticity.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1: 195-220

Yeon, Jaehoon. 2008. Issu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uropean universities [in Korean] EAKLE website: http://www.eurokorean.org

Yeon, Jaehoon and Lucien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강현주(2014). "해외 거주 한국어 초급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7: 1-24

박정미(2015). 다문화 소통 맥락 중심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재훈 (2015). "유럽 한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 제1권 2호: 1-32.

최준식 (2012)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What Is Teaching Culture? "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1호: 271-285

한송화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 형식 문법에서 기능문법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과 훈민정음 교육

권 재 일

(한국 서울대학교)

1. 머리말

올해 2018 년은 세종대왕(世宗大王)이 조선 제 4 대 왕으로 즉위한 지 600 돌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 저는 이를 기념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창제 원리, 창제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를 살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한국언어학 강의'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 [2]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의'에서 한국 문화의 정수로서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인 '융합과 소통: 한국어 교육과 인문학의 발전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옛 조상들이 처음으로 언어에 대한 창의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표기법 문제였습니다. 표기법에 대한 관심은 삼국시대에 이미 비롯하였으며, 오랜 시일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결과, 궁극적으로는 훈민정음이라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창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는 한국의 언어학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언어학사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체계적인 음운 이론을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 그리고 운소까지 갖춘, 더 나아가 모음조화라는 음운 체계를 반영한, 새로운 음소문자를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토마스가 2011 년에 "언어와 언어학을 빛낸 50 인의 사상가"라는 저서를 펴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대인도의 파니니, 고대로마의 바로, 그리고 훔볼트, 그림, 보프, 소쉬르, 사피어, 블룸필드, 야콥슨, 촘스키 등을 비롯하여 동양과 서양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념비적인 언어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 인 중에는 한국의 세종대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 언어학, 한국 언어학의 탁월한 성과를 한마디로 대변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2. 문자와 문자의 유형

세계에는 수천 가지의 언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가

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문자를 다른 언어에서 쓰는 것을 빌려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고유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민족과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문자란 사람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입니다. 입과 귀에 의존하는 말, 즉 음성 언어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인류는 일찍부터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다른 수단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음성 언어가 지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어는 뜻과 소리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발생도 이 두 요소와 관련을 맺는데, 이에 따라 문자의 종류를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로 나눕니다. 표의문자는 언어의 두 요소 가운데 뜻을 기준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글자 모습에 의미가 드러나 있는 문자입니다. 이 표의문자는 기본적으로 상형문자에서 발생했는데, 사물의 형상이나 의미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는 문자의 수도 역시 무한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가 대표적인 표의문자인데, 한자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한자의 수는 수십만 자에 이르고 있어서 문자 자체를 익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표음문자는 언어의 두 요소 가운데 소리를 기준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사물의 수가 무한한 것과는 달리,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는 유한합니다. 표음문자는 소리가 글자 모습에 드러나 있는 문자이므로, 글자를 보면 그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이 바로 표음문자입니다.

표음문자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소리의 단위가 음절인 문자를 음절문자라 하고, 소리의 단위가 음소인 문자를 음소문자라 합니다. 일본의 가나가 음절문자의 예이며, 로마자가 음소문자의 예입니다.

3.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동기

옛날 기록에 따르면 한국인 조상들이 독특한 문자를 쓰고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학술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국어를 적기 위하여 가장 먼저 사용했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일찍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가 들어왔고, 한국인 조상들은 이것을 한국어를 적는 데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구조와 전혀 다른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제대로 된 문자 생활을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응용해서 한국어를 적으려는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대체로 한자의 뜻을 빌려 쓰기도 하고,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쓰기도 하였습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향가 <處容歌>의 한 구절 ‘夜入伊遊行如可’의 예를

들어 보면, “밤 드리 노니다가” 정도로 해독됩니다. ‘밤’은 ‘夜’, ‘드리’의 ‘들-’은 ‘入’, ‘노니다가’의 ‘노니-’는 ‘遊行’과 같이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적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의 문법 형태는 주로 한자의 소리를 이용했습니다. ‘드리’(=들-이)의 ‘이’는 ‘伊’로, ‘노니다가’의 ‘-다가’는 ‘如可’로 표기했는데, 이 때 ‘伊, 如可’가 가진 본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데, 모두 소리를 빌려 적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문법 형태를 적기 위해 한자의 형태를 줄여서 匕=니(尼), 夕=다(多) 등과 같은 새로운 줄임 문자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줄임 문자가 되면,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음절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나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일본어의 경우 음절수가 적어 이러한 음절문자가 정착할 수 있었으나, 음절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음절 구조가 복잡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음절문자 표기가 정착할 수 없어, 한국어의 일반화된 표기법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자 사용의 어려움에다, 음절문자가 실패함으로써 한국어를 적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소문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훈민정음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자학적인 배경과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건국과 함께 민족에 대한 자의식을 높일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나라의 부강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는 백성들에게 지식을 보급하는 것이 선행조건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들 생활에 큰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성격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말소리는 중국과 달라서 중국어를 적는 글자인 한자로써는 우리말을 적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은 말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발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이 세종대왕의 민족 자주 정신과 민본 정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한국말은 중국말과 달라 중국 문자로써는 문자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으므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강한 민족 자주 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든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간 문자 생활을 누리지 못해 사람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한 강한 민본 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4.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세종 25 년(1443 년) 음력 12 월에 창제하였

습니다. 이어서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해례(풀이와 보기)를 짓게 하여 세종 28 년(1446 년) 음력 9 월 상순에 반포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이제 그 창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각 글자의 기본적인 제자 원리는 상형(象形)의 원리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으며, 모음은 이 세상의 중요한 세 가지 즉, 하늘, 땅, 사람[천(天), 지(地), 인(人)]을 삼재(三才)로 잡고 세 기본 글자 'ㆍ ㅡ ㅣ'를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창제하였습니다. 먼저 자음의 제자 원리입니다.

"아음(牙音, 어금닛소리)인 ㄱ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습을 본떴으며, 설음(舌音, 혓소리)인 ㄴ는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습을 본떴으며, 순음(脣音, 입술소리)인 ㅁ는 입의 모습을 본떴으며, 치음(齒音, 잇소리)인 ㅅ는 이의 모습을 본떴으며, 후음(喉音, 목소리)인 ㅇ는 목구멍 모습을 본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자음을 만든 첫째 원리는 발음기관을 본뜬, 상형의 원리입니다. 이리하여 'ㄱ, ㄴ, ㅁ, ㅅ, ㅇ'의 기본 글자 다섯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음을 만든 둘째 원리는 가획(可劃)의 원리입니다. 'ㄱ, ㄴ, ㅁ, ㅅ, ㅇ' 다섯 글자를 기본 글자로 하여, 획을 하나씩 더하여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ㆆ ㅎ'의 아홉 글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ㅋ은 ㄱ에 비해 소리남이 세다. 그러므로 획을 더한다. 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서 ㅍ, ㅅ에서 ㅈ, ㅈ에서 ㅊ, ㅇ에서 ㆆ, ㆆ에서 ㅎ을 만드는데, 그 소리에 의해서 획을 더하는 뜻은 한가지다."

즉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소리의 다섯 소리에 각각 기본 글자 하나씩을 만들고, 각 소리에 속한 소리들을 이 다섯 글자를 토대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한글은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을 비슷한 모양의 글자로 체계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게 되어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탁월한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음 17 자 중 나머지 세 글자, 'ㅇ, ㄹ, ㅿ' 등은 예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ㅇ은 ㅇ에, ㄹ은 ㄴ에, ㅿ은 ㅅ에 각각 획을 더한 모양으로 만들었으나, 이것은 단순히 'ㅇ, ㄴ, ㅅ'과 그 꼴을 달리했을 뿐이지, 소리의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모음은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의 열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ㆍ는 '呑' 글자 가운뎃소리와 같다."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음은 그 성격상 조음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발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지만, 모음은 그 조음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음을 만드는 원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구하였습니다.

"ㆍ는 하늘이라 하고, ㅗ는 ㆍ와 같되 입을 오므리고(ㅗ與ㆍ同而口蹙), ㅏ는ㆍ와 같되 입을 편다(ㅏ與ㆍ同而口張). ㅡ는 땅이라 하고, ㅜ는 ㅡ와 같되 입을 오므리고(ㅜ與ㅡ同而口蹙), ㅓ는 ㅡ와 같되, 입을 편다(ㅓ與ㅡ同而口張). ㅗ와 ㅏ는 모두ㆍ와 같고, ㅜ와 ㅓ는 ㅡ와 같다."

이와 같은 설명은 ㆍ ㅗ ㅏ가 한 부류이고, ㅡ ㅜ ㅓ가 한 부류임을 분명히 인식한 증거입니다. ㅣ는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도 넣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것과 독립된 자리에 있음을 인식한 증거입니다.

5. 훈민정음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

잘 알다시피 훈민정음(=한글)은 창제한 사람, 창제한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창제한 원리를 적은 기록이 전해 오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 기록인 "훈민정음해례"는 한국의 국보이며, 1997 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15 세기에 당시의 한국어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직접 창안하였습니다.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되, 당시 중국 성운학에 없던 새로운 음운 개념을 창안하여 전혀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를 몇몇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훈민정음은 문자 발달의 최고 단계인 '자질문자'입니다. 영국 리스대학의 샘슨(Geoffrey Sampson) 교수는 인류가 사용해 온 각종 문자 체계를 분류해 기술하면서 훈민정음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문자이지만 다른 알파벳 문자와 한 부류로 묶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은 'ㄷ-ㅌ-ㄸ'처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음소 자질을 체계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다른 문자 체계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샘슨 교수는 훈민정음을 따로 자질 체계(feature system)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둘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자음을 만들면서는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고 그 기본 글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여, 즉 가획하여 같은 무리의 소리를 모두 창제하였습니다. 모음을 만들면서는 하늘, 땅, 사람을 삼재로 잡고 세 기본 글자 'ㆍ ㅡ ㅣ'를 만들고 이를 조합하여 모든 모음을 창제하였습니다.

셋째,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을 처음부터 따로 만든 문자입니다. 상형문자에서 발달한 문자는 자음 글자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페니키아문자도 자음 글자만 있었으며 현재 아랍문자도 자음글자만 있고, 영어를 비롯하여 현재 여러 언어의 문자로 쓰이는 로마자에서 보는 모음 글자는 페니키아문자에서 그리스문자로 정착될 때 비로소 추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자음과 모음 글자를 분

리하여 분명한 원리에 의해서 창제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구별하여 만든 문자는 세계 문자학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넷째, 훈민정음은 초성-중성-종성의 음절 삼분법을 창안하였습니다. 중국의 말소리 표기법을 보면 하나의 음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즉 한 글자(음절)의 음을 성모와 운모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이란 음절을 'ㄷ'과 '옹'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동(東)=ㄷ(德)+ 옹(洪). 그런데 훈민정음은 이러한 성운학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한 음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동'을 'ㄷ', 'ㅗ', 'ㅇ'으로 나누는 즉, 하나의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분법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운학에서는 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다섯째, 훈민정음은 모음조화 현상을 이해하고 문자에 반영하였습니다. 모음의 기본 글자 ·, ㅡ , ㅣ를 바탕으로 한 부류의 모음은 ·를 각각 ㅡ와 ㅣ의 위쪽과 오른쪽에 두었으며(ㅗ, ㅏ) 다른 한 부류의 모음은 ·를 각각 ㅡ와 ㅣ의 아래쪽과 왼쪽에 두었습니다(ㅜ, ㅓ). 모음 글자끼리 어울릴 때도 '과, 거'처럼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을 설축, 설소축, 설불축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설축(舌縮)이라는 개념의 정확성과 적절성은 1960 년대에 이르러 현대 언어학에서 증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음조화가 있는 알타이언어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언어에서 혀뿌리의 전진과 후축 여부에 의해서 모음조화의 모음류가 변별된다는 점을 이미 500 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 밝혔습니다.

여섯째, 훈민정음의 또 하나의 언어학적으로 주요한 사실은 당시 언어인 중세 한국어 음운의 운율 실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표기에 반영한 점입니다. 중세 한국어 소리의 높낮이(성조[聲調])를 기술하고 방점(傍點)으로 표기한 것인데, 이처럼 소리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표기한 문자 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훈민정음은 현대 언어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모두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의 뛰어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훈민정음을 보는 눈

6.1. 그간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훈민정음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저서로 최현배 선생의 "한글갈"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40 년에 정음사에서 초판을 발행하였으며 1976 년에 "고친 한글갈"을 발행하였습니다.

초판의 머리말에서 이 책의 성격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訓民正音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작고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들어내며, 그 어두운 것을 밝히며, 그 어지러운 것을 간추리어, 써 정연한 체계의 한글갈(正音學)을 세워, 우로는 申景濬, 柳僖의 유업을 잇고, 아

래론 周時經 스승의 가르침의 유지를 이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밝히고 기리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짜임이 가장 과학스럽고도 그 자형이 정연하고 아름다우며, 그 글자수가 약소하고도 그 소리가 풍부하며, 그 학습이 쉽고도 그 응용이 광대하여, 글자로서의 모든 이상적 조건을 거의 다 갖추었다 할 만하니, 이 글자를 지어낸 세종 대왕 한 사람 당대의 밝은 슬기가 능히 천고만인의 슬기를 초월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2. 1890 년 발행된 한글로 쓴 최초의 교과서인 '선비와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책'이란 뜻의 "사민필지"(士民必知)를 지은 헐버트(Homer Hulbert) 박사는 '단순함과 음성을 표기하는 능력에 있어 세계에서 한글을 당할 글자가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archives.hangeul.go.kr/ (원래, 국립국어원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에 소개하고 있는 훈민정음에 대한 외국학자들의 평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국제 학계가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960 년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출판된 라이샤워(E. O. Reischauer)와 페어뱅크(J. K. Fairbank)의 공저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의 제 10 장은 한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샤워 교수는 15 세기 한국 문화에 대하여 논하면서 한글이 오늘날 사용되는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 년 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포스(Frits Vos) 교수는 미국에서 열린 중국, 일본, 한국의 언어와 문자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문자: 이두와 한글'에서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고 감탄하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예찬은 시카고대학의 맥콜리(J. D. McCawley) 교수가 1966 년 미국 언어학회지 "언어"에 실은 서평으로 이어졌습니다. 맥콜리 교수는 동양 3 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논문 모음집에 대한 평을 하는 가운데 포스 교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글이 조음음성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파벳이며 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시각화하는 데 있어 우수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언어학개론서의 문자론에서 한글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 리스대학의 샘슨 교수는 인류가 사용해 온 각종 문자 체계를 분류해 기술하면서 한글을 따로 자질체계문자로 분류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사세(Werner Sasse) 교수는 '서양이 20 세기에 들어서 완성한 음운 이론을 세종대왕은 그보다 5 세기나 앞서 체계화했고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체계적임을 명시한 학자가 또 있습니다. 과학 잡지 "디스커버"(*Discover*) 제 15 권 제 6 호'(1994 년 6 월호)에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글자인지를 밝힌, 우리에게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의 저자로 알

려진,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교수의 '표기법의 힘'(Writing Right)이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글자가 한 눈에 구별되며 모음은 점과 수직선, 수평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정확히 본뜬 기하학적 기호로 이루어진다. 이들 자음과 모음은 사각의 공간 안에 잘 조합되어 한 음절을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28 개의 글자만 기억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글이 세종대왕의 의지로 창제되었다는 데 감탄하였습니다.

6.3. 최근 두 학자를 더 소개합니다. 먼저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램지(Robert S. Ramsey) 교수입니다. 김영기 교수가 편찬한 "세종대왕"이라는 책에 실린 '한글'과 국제 문자학 전문지 "스크립타"(*SCRIPTA*) 제 2 권(2010 년)에 실린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라는 글에서 한글을 창제한 이와 창제 배경, 창제 원리, 언어학적 의의 등을 국내외 어느 학자 못지않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훈민정음은 21 세기에 인류 보편적인 문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의 탄생 – <문자>라는 기적 –"(2011 년)을 쓴 일본의 노마 히데키 교수(전 동경외국어대학)입니다. 지은이는 민족주의의 맥락이 아닌 보편적인 관점에서 한글의 구조를 통찰하여 '소리가 글자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찾아내고, 하나의 글자 체계를 뛰어넘은, '말과 소리와 글자'가 함께하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한글을 그려 냈습니다. 노마 교수는 한글의 탄생은 앎과 글쓰기생활의 새로운 혁명이며 또한 새로운 미를 만들어 내는 형태의 혁명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안다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태어난 한 가지 독특한 문자 체계를 아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음音, 즉 소리로 성립된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문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글이 태어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 신비로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7. 맺음말 –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저는 세종대왕 즉위 600 돌을 기념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창제 원리, 창제의 학문적인 주요 성과를 살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언어학 강의'에서 한국언어학과 문자학의 지식으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의'에서 한국 문화의 정수로서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어 연구자,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어떻게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제안 드리면서도 제 생각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고서 연구하거나 학습자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교수자나 학습자가 한글이 그저 훌륭하고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 말하는 예를 자주 봅니다. 이제는 무엇이 왜 훌륭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언어학 강의'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강의'에서, 두 경우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동기. 둘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셋째, 훈민정음의 학술적인 주요 성과. 넷째, 훈민정음을 풀이한 책인 "훈민정음해례". 그리고 한국언어학 강의에서는 "훈민정음언해"의 강독.

참고로, 국립한글박물관 2017,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에서는 (1) 훈민정음이란 무엇인가, (2)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3) 훈민정음의 자모 순서, (4) 훈민정음의 자모 명칭의 순서로 훈민정음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만든 목적과 배경, 훈민정음을 해석한 책(훈민정음해례본, 훈민정음언해본)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역시 훈민정음 강의에 포함할 내용일 것입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 돌을 맞이하는 올해, 이러한 저의 제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참고문헌>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 (원래, 국립국어원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archives.hangeul.go.kr/hangeul/future/view/120?cId=25

국립한글박물관 2017, “훈민정음 표준 해설서”, 국립한글박물관. = *A guide to Hunminjeongeum*, National Hangeul Museum.

권재일 2012, 세종 학문의 국어학사적 이해, “615 돌 세종의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논문집 (주제: 세종대왕 다시 보기)”, 한글학회.

권재일 2018, 한국어 교육과 훈민정음의 이해, “한인교육연구” 33,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김슬옹 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김주원 2008, 훈민정음 소개와 그 의미: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국립국어원.

김주원 2013, “훈민정음,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노마 히데키 2011, “한글의 탄생, – <문자>라는 기적”, 돌베개. (옮긴이: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원서: “ハングルの誕生” 2010, 동경: 평범사.

박창원 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박창원 2011, “한글 박물관”, 책문.

안병희 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최현배 1940, “한글갈”, 정음사. 1976, “고친판 한글갈”, 정음사.

허 웅 1999, 우리 말글을 보아 온/보는 두 가지 눈, “한힌샘 주 시경 연구” 제 12 호, 한글학회.

홍윤표 2013, “한글 이야기”: 1. 한글의 역사, 2. 한글과 문화, 태학사.

Ramsey, S. Robert 1992, The Korean Alphabet, in Kim-Renauld, Young-Key (ed.) 1992, *King Sejong the Great: The Light of Fifteenth Century Korea*,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Ramsey, S. Robert 2010,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World of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Writing Systems SCRIPTA* vol. 2, 1-13, The Hunmin jeongeum Society.

Thomas, Margaret 2011, *Fifty Key Think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Routledge.

이름: 권재일
소속: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주소: 한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우편번호: 08826
전화번호: + 82-10-6218-0981
전자우편: kwonjil@snu.ac.kr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발음 오류 연구 동향 분석

이정희· 남기탁

(경희대학교·강원대학교)

1. 머리말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언어의 발음을 배우는 것이다. 다행히 발음은 문법을 비롯한 다른 영역과 달리, 학습자의 인지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발음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도 하다.[1] 발음이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고, 또 가장 일찍 굳어진다는 점에서 올바른 발음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오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 유학생은 2016 년 기준 전체 유학생의 57.7%를 차지[2]할 정도로 절대적인 수가 많다.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보였다가 그 수가 잠시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2014 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두 나라의 오랜 역사적 관계와 지리적 인접성과 다르게 한국어와 중국어는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더 두드러진다. 특히 음운적으로 대조해 볼 때 두 언어는 음절 구조가 다르고, 음운 체계상 차이가 있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발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및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공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를 양산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연구가 어떠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다양한 변인을 아우를 수 있도록 얼마나 균형 있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련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대상으로 하는 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교육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동향 분석에서 드러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연구의 성과와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까지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1] 허용·김선정(2006:15)

[2] 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통계

2.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연구 동향 분석

2.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과제는 2003 년부터 2017 년까지 중국인의 발음 오류를 다루고 있는 논문 66 편을 동향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제공하는 논문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하였다. '오류', '중국', '발음'과 같은 검색어로 1 차 목록을 추출하였고, 상위 범주인 '중국인 발음'으로 검색하여 누락되는 논문의 수를 최소화하였다. '중국인 발음'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는 학위 논문이 377 편, 학술지 논문이 142편이었다. 2차 목록은 1차 목록에서 학술대회 발표 자료,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발음을 주제로 한 논문,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다루나 발음 오류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 등을 제외하였다. 제목에서 오류 분석이나 그 연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연구물의 목차와 초록을 검토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학술지 논문 55 편과 박사학위 논문 11 편[3]이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4]

2.2. 연구 시기에 따른 동향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는 2003 년에 발표된 9 편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연도별 논문 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연구 수

연도	학술지	박사학위	총 연구 수
2003	9		9
2004	1		1
2005	1		1
2006	1		1
2007	3		3
2008	3	1	4

[3] 석사 논문을 배제한 이유는 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에 비해 연구 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고, 석사학위 논문 내에서 비슷한 주제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동일 연구자의 동일한 내용의 연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본 과제에서는 석사 학위논문을 배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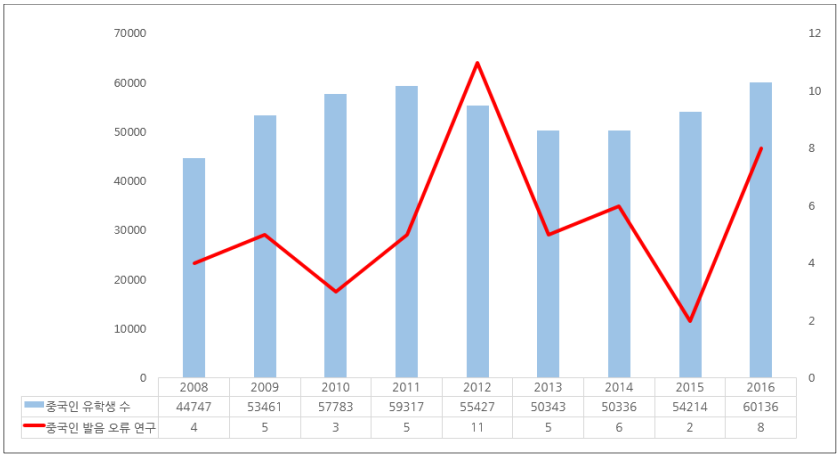
[4] RISS에서는 목차와 초록 읽는 것이 가능하나 연결된 사이트인 'DBpia'에서 유료로 공개된 학술지 논문 6편, 파일이 다운로드 되나 열리지 않는 학술지 논문 2편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박사학위 논문 1편이 최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분석하지 못한 논문의 목록은 마지막에 제시한다.

2009	5		5
2010	2	1	3
2011	5		5
2012	9	2	11
2013	5		5
2014	4	2	6
2015	2		2
2016	3	5	8
2017	2		2
합계	55	11	66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에 비해 5 년 늦게 첫 연구가 김길동(2008)으로 시작되었다. 경희대학교(3 편), 중남대학교(2 편)을 제외하고는 한 학교에서 1 편씩 나타난다. 또한 학술지 논문과 다르게 2 년마다 박사학위 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술지 논문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2012 년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 후로는 하향 곡선을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이러한 곡선은 중국인 유학생 현황과 밀접하게 나타난다.

<그림 1> 중국인 유학생 및 중국인 대상 발음 오류 연구 수 변화



그래프가 중국인 유학생의 수, 꺾은선 그래프가 중국인의 발음 오류 연구 논문의 수를 나타낸다.[5] 2011 년에 중국인 유학생이 최대수를 기록하고, 2012 년에 연구 또한 가장 많

[5] 꺾은선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에 비해 변동의 폭이 잦고 커보이나, 이는 꺾은선 그래프의 수치 평균이 작기

은 성과를 보였고, 그 후 주춤했던 두 수치가 다시 상승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연구하는 논문 또한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발음 교육 방법 등의 주제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동한 만큼[6], 증가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03 년의 학술지 논문 9 편이 특기할 만한데, 신호철(2003), 유춘희(2003)을 제외하면 7 편이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에 실린 것이다. 모두 제 1 권에서 발표된 것이므로 해당 학술지의 주제가 '발음' 내지는 '발음 오류'가 아니었을까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를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을 단위로 기간별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기간별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연구 수

연도	학술지	박사학위	총 연구 수
2005 이전	11		11
2006-2010	14	2	16
2011-2015	25	4	29
2016 이후	5	5	10

기간으로 구분하면 연구 수의 증가 곡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이훈호(201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5 년 주기로 2 배가량의 성장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7]는 명제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연구한 논문에도 적용된다. 이는 이정희·미키 다카시(2015)에서 다른 언어권의 오류 분석 연구는 증가한 데 반해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연구가 감소했다는 분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2.3. 연구 대상에 따른 동향

2.3.1. 학습자 수준별

각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습자의 수준을 8 가지 범주[8]로 분류하여 집계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학습자 수준에 따른 연구 수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초급	전체	확인

때문에 막대 그래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 변화에도 거친 상승과 하락을 보이기 때문이다.

[6] 이정희·미키 다카시(2015:240)

[7] 이훈호(215:118)

[8] 분류는 이정희·미키 다카시(2015)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확인 불가'는 연구 내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중급	고급	고급		불가
학술지	8		1	5	2	1	10	28
박사학위		1	1		2		3	4
합계	**8**	**1**	**2**	**5**	**4**	**1**	**13**	**32**

전체 66 편 중 절반에 육박하는 32 편의 논문에서 발음 오류를 보인 중국인 학습자의 수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장향실(2009)와 같이 실험을 설계하지 않고 중국인 학습자의 일반적인 발음 오류를 연구 주제로 하거나, 신호철(2003)과 같이 학습자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19.7%를 차지한 모든 급을 다룬 연구이다. 모든 수준의 학습자 발음 오류를 조사한다면 시간에 따른 발음의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나, 종적 연구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9]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급'과 '초급·고급'을 다룬 연구가 전체 중 한 편씩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쉬운 점이다. 중급은 학습자가 초급에서 배운 난이도 있는 발음을 잊어버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학습량에 의해 오히려 초급에 비해 높은 오류의 빈도를 보이는 단계이다. 따라서 '겹받침 발음'이나 '음운 변동'의 주제는 중급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류를 더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초급·고급'은 시간에 따른 발음 습득의 정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에 더 다양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2.3.2. 학습자 거주 지역별

중국인 학습자는 목표어인 한국어 환경에 노출된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 학습자 거주 지역에 따른 연구 수

	한국 거주	중국 거주	한국/중국 비교	확인 불가
학술지	31	8		15
박사학위	5	2	1	4
합계	**27**	**7**	**1**	**20**

[9] 이정희·미키 다카시(2015:241)

‘확인 불가’를 제외한다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학습자가 연구에서 더 많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로 실험군을 선정하는 것이 모집에 있어 더 용이하고, 한국어 수준 등을 더 선명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경우 Leng Lina(2014)와 같이 한국에 전혀 가지 않은 학습자만으로 실험 집단을 구성하여 방언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Yu Wenjing(2014)처럼 학습 지역에 따른 학습자 발음 차이를 드러낸 연구가 한 편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에 대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해당 분야 역시 활발하게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2.3.3. 기타 학습자 요인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측정할 때 실험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크기는 논문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32 편의 논문에서 실험 대상을 선정했는데 그 집단은 적게는 4 명부터 100 명에 육박했다. 발음 오류가 모국어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류를 분석할 때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은 개인적 특성을 가지겠지만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균 36.6 명을 기록하는 학술지 논문의 실험 집단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반면, 박사학위 논문의 실험자 대상은 학술지 논문에 비해 신뢰도가 높았다. 81.8%에 해당하는 9 편에서 실험 집단의 규모를 밝혔고, 그 수는 12 명부터 150 명으로 평균 44.9 명에 해당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는 가장 적은 실험 집단 규모를 보인 김길동(2008)은 다양한 학습자 변인[10]을 통제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김길동(2008)과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은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시도를 한 박사학위 논문은 3 편[11], 학술지 논문은 4 편[12]밖에 되지 않으며 그 마저도 성별과 방언, 민족 등에서 그치고 있다. 가장 통제되어야 할 것은 학습자 방언인데, 방언에 따라 모국어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언이 다른 학습자를 모두 ‘중국인’으로 묶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4. 연구 방법 및 목적에 따른 동향

[10] 김길동(200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현재 사는 지역, 나이, 성별, 처음 한국어를 배운 곳, 민족, 방언을 통일시켰다.
[11] Yu Wenjing(2014)는 민족, 수준, 방언, 처음 한국어를 배운 곳, 성별을 모두 통제하였고, 강반(2016)은 소재지, 직업, 성별, 민족을 통제하였다. 박정은(2016)에서는 성별, 나이, 수준, 출신 지역 및 방언을 통제하였다.
[12] 란효하(2012), 정효주·김영주(2012), 위원징·홍미주(2013), 이효인(2016)

2.4.1. 연구 방법별

오류 연구 방법을 오류 원인과 판정의 관점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다.[13] 오류의 원인과 그 판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연구가 28.8%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방법들과 격차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오류의 원인만을 파악하는 정성적 연구가 가장 수가 적었다. 정량적 연구의 경우 이경·박동호(2011), 장향실(2016)과 같이 음성향적 장비를 도입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정량적 연구가 한 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박사학위 논문의 특성 상 음성향적 산출만으로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타는 원인이나 판정으로 특정할 수 없는 논문으로, 교육 방안 제시에 목적을 둔 대부분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표 5> 오류 연구 방법 분류에 따른 연구 수

	정성적 연구	정량적 연구	종합적 연구	기타	합계
학술지	13	12	16	14	55
박사학위	3	1	3	4	11
합계	**16**	**13**	**19**	**18**	**66**

2.4.2. 연구 목적별

'양상 규명'과 '결과 적용' 두 분야를 두고 어느 쪽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는가를 살피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오류 연구 목적 분류에 따른 연구 수

	양상 규명	결과 적용	양상 규명 및 결과 적용	합계
학술지	11	28	16	55
박사학위	5		6	11
합계	**16**	**28**	**22**	**66**

본 분류는 이훈호(2015)를 참고하였으나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이훈호(2015:123)에서는 합계 207편의 학위 논문 중 결과 적용을 0편으로 분석하고, '양상 규명 > 양상 규

[13] 이정희(2003). 이훈호(2015:129) 재인용.

명 및 결과 적용 > 불분명'순으로 연구 동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경우 55 편 중 50.9%에 육박하는 28 편이 '결과 적용'을 다루고 있었다. 흥미로운 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과제에서는 연구자 국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 아래 <표 7>와 같이 연구자 국적 정보를 분석하였으나 가설을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다.

<표 7> 연구자 국적에 따른 연구 수

	한국	중국	한국-중국	불분명	합계
학술지	24	18	10	3	55
박사학위	4	7			11
합계	**28**	**25**	**10**	**3**	**66**

학위 논문에서는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여 논문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학위 논문에 비해 분량의 제한이 있는 학술지 논문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술지 논문에서는 오광근·김경훤(2016)과 같이 해당 한국어교육 기관의 학습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라고 설명하거나 기존 논의의 분류를 따르고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분석과 달리 결과적용의 목적을 가진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연구 내용에 따른 동향

2.5.1. 언어 층위별

<표 8> 언어 층위에 따른 연구 수

	형태소	단어	문장	전체	합계
학술지	19	21	6	9	55
박사학위	5	3	1	2	11
합계	**24**	**24**	**7**	**11**	**66**

언어 층위에 따른 분류는 오류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학습자가 어떤 단위를 발화하게 했는가와 관련 있다. 가장 많은 연구가 '단어' 발화에서 오류를 추출함을 알 수 있다. '전체'는 형태소와 단어, 문장을 분류하지 않고 모두 제시한 실험 및 오류 분석이고 기타는 성조와 같이 비분절음운을 일컫는다. 사실 중국어의 성조가 한국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심을 두거나 김병운(2003)과 같이 장단음의 구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해당된다. 형태소를 발화하게 하는 연구에서는 발화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녹음, 전사 등의 방식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반면 문장 단위의 발화를 나타낼 때는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오류라고 바로 판단하거나, 여러 명의 의견 교환 없이 집필자 한 명에 의해 오류로 규정지어지고, 한 번의 발화로 판정하는 등의 서술이 있었는데, 이는 오류 분석에서 기피해야 하는 방식으로, 문장 단위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발음 오류 측정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없다.

2.5.2. 오류 유형별

연구들은 모두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발화와 함께 단어를 보고 예상되는 발음을 쓴 자료로 오류 판정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박시균·최경복(2014)의 겹받침이나 정효주·김영주(2012)의 유음화와 같은 음운변동 등에서 사용되었다.

<표 9> 오류 유형에 따른 연구 수

	초성	중성	종성	기타	합계
학술지	11	4	16	24	55
박사학위	1	1	2	7	11
합계	**12**	**5**	**18**	**31**	**66**

'기타'로 분류한 것은 초성과 종성에 나타나는 오류를 모두 다룬 것으로 기존에 '자음'으로 따로 분류하였던 것을 초성과 종성으로 구분하고 기타로 다시 묶은 것이다. 학술지의 경우 기타의 24 편에는 '비분절음운'을 다룬 4 편이 포함되어 있다.

종성 발음 오류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 총 5 편으로 전체 중에서 7.6% 밖에 되지 않는다. 공통적인 발음 오류 내용을 살피면 그 마저도 '/ㅗ/'와 '/ㅓ/' 구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모음 구조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제의 편중은 당연할 수 있으나,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국적 학습자 모두가 어려워하는 오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모음 오류에 대한 시각이 제시되어야겠다. 또한 이

중모음에 대한 오류 분석이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종성 발음 오류에 대한 관심도 두 언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다. 종성에서는 '/ㄴ/', '/ㅇ/'과 같은 비음이 뜨거운 감자로, 장찌엔(2017)에서는 기존에 중국어 음절 말 자리에서 나타날 수 없는 종성 'ㄱ, ㄷ, ㅂ, ㄹ, ㅁ'이 포함된 음절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ㄴ, ㅇ'으로 집중이 옮겨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종성 오류의 다양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기존에 많이 분석된 7 종성 관련 발음 오류에 비음 등의 새로운 오류 양상에 대한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가 가능할 것이다.

2.6. 교재에서의 기술 사례 분석

이상의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가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를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서 찾아보았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다국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에 대한 주의를 더 명시적으로 표시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가 명확하고 유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예를 찾을 수 없었다. 중국의 한국어학과에서는 한국어 문법, 읽기, 통번역, 문화, 문학 작품 읽기 등과 같은 수업이 진행된다. 발음 오류를 제시할 법한 과목은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한국어 회화'이나 이때 학습자의 오류는 대부분 현장에서 원어민 교사에 의해 수정된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정확한 한국어 발음만을 제시하며, 중국인 학습자가 쉽게 범하는 오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될 필요성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사용하는 교재 대부분이 한국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출판된 교재를 그대로 표절하거나 번역판을 사용한다는 점도 교재에 오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

3. 맺음말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는 음절 구조에서 기인한 몇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가 중복되는 소재나 결과가 많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본 과제에서 분석한 66 편의 논문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고, 기존의 오류 양상이나 분류를 더욱 탄탄하게 하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아쉬운 점으로는 발음 오류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방식에 있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독창적인 오류 연구 동향 분류 방식으로 한 가지만을 시도했을 뿐 기존 오류 연구 동향 분석의 분류 방식의 틀에

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아쉽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교육을 위한 연구의 방향성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실제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한다. 현재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거나, 개인적 오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수의 적은 대상의 오류를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다양한 민족과 방언 등이 혼재된 만큼,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오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 중에는 학습자 변인을 통제하였더라도 결론을 '중국인 전체'의 발음 오류로 귀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또한 다양한 시도로 보완되어야겠다. 오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또한 다각도로 고안되어야 한다. 발음 오류를 주제로 하며 녹음을 하지 않거나 한 명의 연구자가 독단적으로 학습자의 발화를 오류로 판단하는 점 등을 보완하는 연구가 후속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이정희·미키 다카시(2015),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 동향 분석」, 『어문논집』, 74-267 쪽.

이훈호(2015), 「한국어 오류 분석 연구의 동향 분석 연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107-135 쪽.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도서출판 박이정.

安炳浩·張敏·權今淑(2012), 《標準韓國語》, 北京大學出版社.

牛林杰 [韓]崔博光, 《大學韓國語》, 北京大學出版社

韓國首爾大學語言教育院, 《韓國語》,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분석 목록>

Liu Si Yang, 김영주(2012), 「중국어 상성이 중국인의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분이형동의어를 중심으로」, 『말소리와 음성과학(한국음성학회)』 제 4 권 2 호, 21-31 쪽.

권기양(2007), 「중국어권 KFL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발음교육 방안」, 『코기토(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61 호, 7-30 쪽.

권성미(2012), 「L1-L2 간 발음 규칙의 상이성에 따른 한국어 종성비음 습득 양상 연구」,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제 42 권, 63-90 쪽.

김경숙(2003), 「한국어 교수에서의 발음지도에 대하여」,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1 권, 139-154 쪽.

김경화(2013), 「고급단계 한국어학습자의 오류연구」,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제 188 권, 33-41 쪽.

김병운(2003), 「발음교육에서 대립쌍장단음의 변별적 기능훈련」,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1 권, 197-212 쪽.

김신자(2012), 「한국어 자음과 받침의 발음지도방안」,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제 181 권, 46-52 쪽.

김옥란(2003), 「한국어 발음훈련의 몇 가지 체험」,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1 권, 183-195 쪽.

김종태(2003),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발음과 그의 해결 대책」,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1 권, 155-168 쪽.

김지형(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발달 단계 연구 -단모음의 발음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3 권 4 호, 91-115 쪽.

김태경, 백경미(2015), 「중국인 한국어학습자의 음운규칙 적용 양상 연구」, 『우리말 글(우리말글학회)』 제 64 권, 117-151 쪽.

란효하(2012), 「중국 북방방언권 학생들의 조선어종성 발음교육을 위한 오류분석 연구」,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제 177 권, 60-65 쪽.

란효하(2009), 「방언권별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종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6 권, 279-293 쪽.

문영자(2003), 「발음교육에서의 장단음(長短音) 구별에 관하여」,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1 권, 169-182 쪽.

박시균(2011), 「교수법을 활용한 한국어 장애음 교육 : 중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한국언어문학회)』 제 77 권, 325-353 쪽.

박시균, 최경복(2014), 「중국인 학습자의 겹받침 발음 오류 분석: 겹받침 앞,뒤 자음 선택의 오류를 중심으로」, 『언어학(대한언어학회)』 제 22 권 4 호, 317-338 쪽.

박초롱, 김태경(2014),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회)』 제 55 권, 5-34 쪽.

방향옥(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종성 /ㅇ/의 발음 교육 방안」, 『인문학연구(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제 37 권, 389-410 쪽.

백소영(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지도방법」, 『외국어교육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제 22 권 1 호, 77-88 쪽.

백열추(2017),「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 -」, 『한국어와 문화(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제 21 권, 77-105 쪽.

백옥란(2010), 「한국어학습자들의 발음오류현상과 그 교육방안 : 분절음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제 165 권, 29-35 쪽.

비강강(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겹받침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남어문학(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제 34,35 권, 199-225 쪽.

송윤경, 김윤신, 이동은(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과 억양 연구」, 『언어학(한국언어학회)』 제 62 권, 145-171 쪽.

신호철(2003), 「한국어 유음(流音)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 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제 16 권, 253-272 쪽.

심민희(2012),「최적성 이론에 의한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오류 분석」,『어문학(한국어문학회)』 제 115 권, 55-77 쪽.

양순임(2006),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 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7 권 3 호, 163-183 쪽.

양순임(2007), 「연음규칙 적용에 따른 오류 분석 -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대상으로 -」,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8 권 3 호, 123-144 쪽.

오광근, 김경훤(2016),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음절말 비음 교체와 간섭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ISC 과정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인문과학(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제 60 권, 339-372 쪽.

위국봉(2014), 「중국인 학습자의 /-ㄴ, -ㅇ/ 종성 발음 오류 분석 및 교정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제 41 권, 143-169 쪽.

위원징, 홍미주(2013), 「중국인 학습자의 청취,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4 권 4 호, 155-191 쪽.

유춘희(2003), 「중국인 학습자들의 음절발음오류에 대한 약간한 분석」, 『중국조선어문(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제 125 권, 17-21 쪽.

유춘희(2003), 「한국어 음절발음교육에 대하여」,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1 권, 83-96 쪽.

유효려(2009),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의 발음 오류에 대한 분석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6 권, 262-278 쪽.

윤영해(2007), 「중국어, 일본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지배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제 39 권, 114-131 쪽.

윤영해(2008),「중간언어 음운연구를 바탕으로 한 발음교육의 효과 연구 -중국인 화자들의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9 권 2 호, 1-18 쪽.

윤은미, 김현기(2013), 「학습자 수준과 평가자 변인에 따른 단어 명료도 측정 연구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4 권 2 호, 233-258 쪽.

윤정기(2012),「음운규칙 적용에 따른 중간언어 연구 :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발음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제 27 권, 539-561 쪽.

이경, 박동호(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발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ㅗ/"와 "/ㅓ/"를 중심으로-」,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 28 권, 177-199 쪽.

이향(2003),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 방안」,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1 권, 97-188 쪽.

이효인(2016),「전남지역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연구 - 평파열음 뒤 경음화 오류를 중심으로 -」, 『호남문화연구(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제 60 권, 227-248 쪽.

임칠성, 곽일성(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장 오류 연구 - 상해 지역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제 49 권 3 호, 304-324 쪽.

장가문(2013),「중국어 성조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한남어문학(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제 37 권, 179-200 쪽.

장우혁, 김길동(2009), 「중국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언어연구(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제 26 권 3 호, 91-109 쪽.

장찌엔(2017), 「중국인 학습자 비음 종성 /ㄴ/, /ㅇ/ 음절의 발음 오류 재고 -한·중 음절 유형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8 권 1 호, 251-268 쪽.

장향실(2009),「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절 오류와 교육 방안」,『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제 34 권, 349-371 쪽.

장향실(2016), 「중국어와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음절 종성 산출 차이 연구」,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제 55 권, 555-579 쪽.

장향실(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규칙 습득 연구」,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제 46 권, 367-390 쪽.

전영근(200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교육에 관한 연구 - 자, 모음과 받침 발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제 3 권, 321-337 쪽.

정효주, 김영주(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 발음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제 47 권, 165-187 쪽.

정효주, 김영주(2012), 「중국인 학습자의 유음화 발음 오류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 31 권, 283-307 쪽.

조문우(200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순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중국어문학회)』 제 21 권, 365-387 쪽.

주림결, 김영주(2013), 「중국인 KFL 학습자의 학습기간에 따른 파찰음 발음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 32 권, 339-362 쪽.

진루, 김영주(2015),「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ㄴ/음 첨가에 대한 지식과 실현 연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제 42 권, 359-389 쪽.

최금단(2010), 「중국어의 자음을 역으로 활용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의 발음 교정 방법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 6 권 3 호, 259-287 쪽.

최금단(2004),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한 중국어 장애음의 한글표음 문제 재검토」, 『중국언어연구(한국중국언어학회)』 제 18 권, 321-339 쪽.

한성우(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우리말 글(우리말글학회)』 제 44 권, 165-194 쪽.

Leng, Lina(2014),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음 발음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Yu, Wenjing(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음 교육 연구 : 중성 및 종성과 관련된 음운변동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강반(2016), 중국인 화자의 파열음 발음과 파열음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김길동(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김아름(2016),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발달 연구 : 국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김은경(2012), 중국인의 한국어 모음 습득 연구, 충남대학교.

박정은(2016), 중국인과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파열음 산출에서 나타나는 음향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백경미(2012), 제 1 언어와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발음과 형태 습득 비교, 한양대학교.

범류(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ㄹ' 발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선진(201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오류에 대한 교사 피드백과 학습자의 피드백 수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창성난(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 운율단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유료 논문 목록 8편>

김용렬, 여정화(2010), 한국어 자음동화 교육 연구 : 중국어, 일본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김은경(2010), 중국인 남성 화자의 한국어 단모음 [어]와 [오]의 발음 오류 분석, 한글.
범류(2008),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ㄴ` 발음의 길이와 F1 값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장향실(2015), 음소결합제약을 통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ㄴ/, /ㅇ/ 종성 오류 예측, 한국어학.
조가(2008), 한국어 경구개 자음의 발음교육 연구 : 중국어권 학습자 대상으로, 고황논집.
양순임(2006),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 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한국어 교육.
오발(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올림픽체육용어대조사전’ 편찬에 대하여

유은종

(연변대학교)

교재의 도구로서의 언어는 인간의 문화생활에서 핵을 이룬다. 언어는 민족의 성쇄와도 맥을 같이하며 올바른 언어문화생활을 영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체육은 우리 문화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문화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을 망라하여 체육용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올림픽은 누구나 즐겨 보지만 지역에 따라 해외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남북의 올림픽 체육용어마저도 통일되지 않아 모두가 제마끔 사용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먼저 남에서 사용되는 올림픽용어나마 정리하여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과 대조하여 앞으로 통일언어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자그마한 힘이라도 이바지 하기 위해 이 올림픽체육용어 대조사전을 정리하여 내놓는다.

1. 편찬경위

2001 년 말부터 송창수, 유은종 등이 체육용어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2 년 초에 연변대학 체육학부 남민호, 방인권 등 교수와 의논하여 체육용어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변대학 체육학부 남민호가 전국 체육대학과 북경상해 등 여러 지역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제공을 많이 하였다.

2 월에 하계올림픽올림말원칙을 제정하고 연변대학 체육학부 올림픽관련 종목 책임 자와 편찬자를 정하고 분공하였다.

2 개월이 지났는데도 올림픽 항목선정도 되지 않았다.

3 월에 축구, 배구, 육상, 농구, 기계체조 분야로 줄이어 다시 책임자를 내오고 추진 하였으나 의연히 편찬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복선이 맡은 축구항목 만은 진척이 빨랐다. 하반년부터 주로 유은종이 책임지고 양복선, 유은종이 맡아 체육용어 수집을 폭넓게 하였다.

2003 년 유은종, 양복선이 퇴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체육용어사전 편집에 투입되었다. 2008 년 제 29 회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준비로 주로 남북의 언어소통에 이바지 하려는 취지로 체육용어사전 편찬을 다그쳤다. 먼저 체육용어 교과서에서의 사용 상황을 전면조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기구, 역대 올림픽대회, 올림픽 관련 용어 들을 수집편찬한 기초에서 송천식 주필 체육용어사전(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91.8), 김창환 외 편저 체육

학 종합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2), 체육사전편찬위원회 편 체육사전(상해사전출판사 한어판 1984.1), 체육진흥연구원 편 스포츠용어사전 (기연사 1991.1) 등 자료와 신문 출판물들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4 년 1 월에 한국 상명대 최기호 교수가 한국국립국어원 언어순화자료를 제공 받아 앞으로 언어통일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용어자료수집 방안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

2005 년 2 월 22 일 유은종 송창수는 조선에 가서 조선어사정위원회 학자들과 체육용어 편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3000 개 체육용어올림말을 심의정리 하였다.

2005 년 12 월 한국국어정보학회, 중국조선어정보학회, 조선교육성 리수락 조성어사정위원회 서기장 심병호 등이 모인자리에서 유은종의 체육용어사전 편집안을 의논하였다. 논문발표후 조선 체육대학의 오창복 부총장, 조선어사정위원회 서기장 심병호, 한국 상명대 교수 국어정보학회 최기호와의 합의하에 중국 유은종이 제공한 자료를 공유하고 체육용사사전 공동심의에 합의하였다.

2005 년 8 월 9 일에 하얼빈 다국어처리 국제학술회의에서 '체육용어통일사전 편찬 합의사항(첨부)에 합의하고 조선국어사정위원회 심병호, 남한의 국어정보학회 최기호교수, 연변대학 유은종이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체육용어사전은 남북이 자료를 제공하고 유은종이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편집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체육용어사전편찬 협의사항과 용어처리 1 차합의사항을 제정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협의사항

1) 제 1 단계로 중국의 북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육용어 통일사업에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다.

2) 체육용어 표준화의 대상은 ISO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내놓은 표준체육용어자료를 기초로 하고 남북의 자료들에서 부충해야 할 부분을 다시 선정하여 올림말로 가려잡고 그것을 표준화대상으로 잡는다.

3) 북과 남의 체육용어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은 제때에 통보제공하며 원고작성은 중국의 유은종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4) 올림말은 우리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순으로 하며 복수올림말은 괄호안에 밝혀준다.

5)용어해설은 개념을 알 수 있는 정도로 간명하게 한다.

6) 이번에 중국에서 작성된 자료를 북에 전부 넘기어 교열한 다음 2006 년 1 월 중순에 중국학자들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며 남에서는 중국에서 만든 자료를 심사하여 전자우편으로 12 월까지 중국에 넘겨주어야 하며 중국에서는 토론 자료를 작성하고 남북의 만남의 자료를 2006 년 2 월전로 연길에서 마련한다.

7) 평가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것은 다음 만남의 자리에서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다.

8) 2006 년 8 월과 2007 년 1 월에 남과 북의 편집인원들은 중국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 용어토론을 하며 최종심의는 2007 년 8 월까지 하여 출판에 넘기 도록 한다.

9) 연구진은 중국 유은종, 양복선, 송창수; 한국 최기호, 김슬옹; 조선 심병호, 오창복과 기타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1.2 용어처리 제 1 차 합의사항

1) 용어통일은 남과 북의 통일된 의견에 따른다.

2) 우리말, 한자말, 외래어 등도 체육용어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중국의 우리말 표준은 따로 내세우지 않는다.

4) 체육용어의 올림말은 ISO 기준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내놓은 자료를 기초로 하고 남북의 자료들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을 다시 선정하여 올림말로 가려잡는다.

5) 남과 북은 체육용어의 격차를 줄이어 우리 민족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용어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3 용어처리 협의회의

2006 년 8 월 11 일부터 17 일까지 제 1 차 심의 회의가 연길라경호텔에서 진행되었다. 북에서는 심병호, 량윤도, 조사금 등. 남에서는 최기호, 최용기 부장, 이장협과장, 이대로 사무총장 중국에서는 유은종, 최윤갑, 양복선, 송창수, 문창덕 등이 체육용어 심의에 참석하였다. 유은종이 제공한 용어 자료를 심의 토론하였다. 회의는 유은종의 사회하에 진행되었다.

2007 년 2 월 7 일부터 14 일까지 연길백산호텔에서 체육용어 최종심의회의가 진행되었다. 개회사는 상명대교수, 국어단체연합회 회장 최기호 교수가 하고 축사는 연변대 명예교수 최윤갑이 하였다. 사회자는 유은종. 발제강연 심병호 서기장, 논문발표는 오창복, 유은종, 송창수, 이서행, 김도균 등이 하였다. 북에서는 심병호, 량윤도, 오창복, 조사금, 전태환, 민금성, 서철민 등 7 명. 남에서는 최기호, 최용기 부장, 이대로 사무총장, 이준석, 김도균, 노호성, 이서행 등 7 명. 중국에서는 유은종, 최윤갑, 송창수, 량복선, 문창덕, 박수호, 방인권, 김상춘, 김영수, 김덕모 등 10 명이 체육용어 심의에 참석하였다. 유은종이 제공한 용어 자료를 심의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출판을 책임진 나라에서 총책임자가 나오기로 하고 출판되면 조선에 일정한 출판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사이 유은종은 남북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남에서는 주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김도균, 노호성 등, 북에서는 조선체육대학 오창복, 량윤도 등이 제공한 자료를 참작하여 편찬하였는데 북의 자료에는 서면자료가 부족하여 다듬은 올림말이 적지 않았으며

문자적 근거가 희박하여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를 대조하기가 힘들었다. 남에서는 외래어 표기 기준에 따라 외래어사용이 기본을 이루었다.

그러나 유은종 양복선의 공급한 자료에서 큰 진정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의 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유은종, 양복선에 대한 수고료가 해결되지 않아 새로운 보충자료도 수집하지 않았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하계올림픽 체육용어는 일정한 시기를 두고 유은종 양복선에 의하여 수정 보충되어 총 5220 개로 하계올림픽 용어올림말이 잠정적으로 완성되었고 네개 나라 어종별 올림말수도 20000 여개로 늘리었다. 후에 다시 유은종과 양복선에 의하여 6660 개의 올림말수를 보충 수정하였다. 동기 올림픽은 방치되었다.

2016 년부터 시작하여 평창올림픽을 위한 동계올림픽 자료준비와 편찬사업이 한국정보학회에서 진용옥 교수 등이 편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2016 년부터 중국에서 유은종, 양복선에 의하여 동계올림픽체육용어가 초보적으로 편찬되었다.

2017 년 한국동계올림픽용어 제공을 위해 보충수정하였다.

2018 년 동계올림픽이 끝난후 한차례 또 수정보충하였다.

이때까지 남북에서 올림픽 체육용어가 수저보충을 위한 자료가 오가는 사이에 보충도 되지 않고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내어 흑룡강 출판사의 임영만 사장과의 협의 사항과 요구에 의하여 새롭게 편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전 편찬에서 존재한 문제

2.1 사전편찬에서 북측의 수고료는 그때그때 해결되었으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수고한 유은종과 양복선의 수고료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2.2 중국에서 출판하기로 한 출판비용도 해결할 수 없었다.

2.3 출판비용과 수고료 때문에 최후심사 정리부분이 방치되었으며 최후 자료도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4 유은종, 양복선은 15 년 남짓이 노력한 결과가 헛 수고 되어 한국과 출판문제를 교섭하다가 볕을 보지 못하고 다시 중국 상무인서관, 흑룡강조선족 출판사와 연계중에 흑룡강조선족출판사에서 수고료와 출판비용을 해결하기로 계약하고 하계와 동계 올림픽 용어사전을 다시 정리하기로 하였다.

2.5 사전 편찬동안 2008 년 중국올림픽으로 부터 벌써 3 번이나 진행되었고 올림픽 항목도 일부는 들쑹날쑹*하는 바람에 조절하기도 어려웠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

2.6 흑룡강조선족출판사와 협의하에 올림픽용어로 쓰이지 않는 다듬은 말과 만들어낸 용어들은 일률로 빼버리고 한국에서 올림픽에 실제 사용되는 용어들을 찾아 표제어로 사

용하기로 하였다.

2.7 북에서 제공한 체육용어들은 그것이 다듬은 용어인지 만들어진 것인지 다시 정리된 것인지는 문자적 근거가 희박하고 신빙성이 떨어져 채용하지 않았다

2.8 이러한 원칙에서 이때까지 모아 처리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자고 보니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아니라고 할수 없을 정도였다. 새롭게 편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새로운 체계와 요구원칙에 의해 새로 나온 수많은 자료(이전에 찾지 못한 자료 포함)를 다시 수집 정리하였다.

2.9 이번에 처리된 영어나 일본어는 중국에서 가려잡은 용어에 기준하였고 없는 것은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에 의한 처리기준을 따랐다. 영어는 강문화, 일본어는 유성림이 책임지고 대조, 심사하였다.

***2008 년 29 회 베이징올림픽 종목에서는 하계 총 28 종목:**

야구, 권투, 근대 5 종, 농구, 철인 3 종,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체조,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소프트볼, 펜싱, 하키, 핸드볼

2012 년 30 회 런던올림픽 부터는 야구와 소프트볼이 빠져서 총 26 종목이었으며

2016 년 **31 회** 리우 올림픽 부터는 야구와 소프트볼이 빠진 상태에서 골프와 럭비가 추가 되어 총 28 종목이었다.

2020 년 32 회 도쿄올림픽 종목은 새로 7 종목 추가되어 총 35 종목이 된다.

새로 추가된 7 종목:

가라테, 서핑, 소프트볼, 스케이트보드, 스포츠클라이밍, 야구, 3X3 농구

28 종목:

야구, 권투, 근대 5 종, 농구,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체조,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철인 3 종), 펜싱, 필드하키, 핸드볼 / **총 28+ 7=35 종목**

들쑹날쑹한 종목:

야구, 소프트볼: 29 회 있음, 30 회, 31 회 없음, **32 회 있음**

골프, 럭비: 29 회, 30 회 없음, 31 회, **32 회 있음**

2018 년 평창 동계 올림픽 종목 15 개 종목.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등 15 개 종목이 있다

2022 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종목 역시 15 개 종목. 변함이 없음.

3. 남북의 체육용어 차이

남북의 학술용어중 체육용어차이를 남북의 교과서에 이용된 국립국어원의 일부 자료를 참조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3.1 축구용어: 78 개

교과서에 이용된 축구용어 총 78 개중 같은 것이 겨우 5 개(6,4%)

경고, 골, 골든골, 심판, 축구

그가운데 **'도움'**은 남북이 공동으로 쓰기도 하고 남에서는 '도움'보다 **어시스트 (assist)**를 **더 사용(1.2%)**하기도 한다.

같은 한자어나 고유어 또는 외래어를 섞어 사용하되 좀 달리 쓰이는 용어는 7 개 (8.9%)

결승경기/결승전, 보조주심/부심, 방어/수비, 문어구/인골지역, 꼴/골인

직접 벌 차기/직접 프리 킥, 공 다루기/허벅다리 트래핑

북에서는 고유어나 한자어를 사용하는데 남에서는 왜래어를 사용한 것 65 개(83%)

가슴멈추기/트래핑, 문차기/골킥, 공/볼, 머리뒤로 넘겨차기/오버해드킥, 발등안쪽몰기/인사이드 드리볼, 대각연결/크로스패스, 연결/패스

3.2 농구용어: 52 개

농구용어 52 개중 같은것 7 개(13%), 한자어두음법칙에 의해 다른것 1 개(1.9%)

농구/롱구, 바이얼레이션/바이얼레이션, 바스캣카운드/바스캣카운드, 엔드라인/엔드라인, 포스트 플레이/포스트 플레이, 피리어드/피리어드, 이하 프라인 바이얼레이션/이하 프라인 바이얼레이션

같은 외래어로 이루어졌지만 표기 다른 것 1 개

피벗 플레이/피봇 플레이

외래어는 같지만 일부 한자어로 이루어져 달라진 것 2 개(3.8%)

3 점 라인/ 스리 포인트 라인, 팀 반칙/ 팀 파울

같은 한자어로 이루어졌지만 서로 다른 것 2 개(3.8%)

호상반칙/동시반칙, 느린 공격/지공

이외에는 북에서는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농구용어를 쓰고 남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여 달라진 용어 40 개(76.9%)

꽂아 넣기/덩크 슛, 아무도 잡지 않은 공/루스볼, 튕겨 보내기/바운드 패스, 막기/스크린 플레이, 구석차기/ 코너 킥, 올림 공/점프 볼, 중앙선/센터 라인

3.3 사격용어: 17 개

교과서에 이용된 사격용어 총 17 개중 같은 것 2 개(11.7%)

격발, 구경,

외래어 표기가 다르거나 단어조성 요소가 다른 것 2 개(11.7%)

스탠더드 권총/스탠더그 권총, 스키드 사격/스키드 슈팅

이외에는 북에서는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농구용어를 쓰고 남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여 달라진 용어 13 개(76.4%)

가늠쇠/프론트 사이트, 무릎쏴/닐링, 가늠자/리어 사이트,

공기 권총/에이 피스돌, 속사/래피드 파이어

이상 축구(79), 농구(52), 사격(17) 체육용어의 교과서 쓰임의 비교를 간단히 보더라도 달라진 용어 축구(65 개/83%), 농구(40 개/76.9%), 사격(13 개/76.4%)로 표시되었고 완전히 같은 용어는 축구에서 5 개(6,4%), 농구에서 7 개(13%), 사격에서 2 개(11.7%) 그 대부분 용어(76%)이상이 쓰임에서 다르고 같은 것은 많아야 11%(사격) 내지 13%(농구)라는 결과가 나왔다. 축구에서는 6.4%가 겨우 같은 용어 사용율로 표시되었다. 이런 체육용어 사용에서 차이는 너무나 심각하여 앞으로의 용어통일 사업에 커다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자료는 부록(1)으로 보인다.

3,4 태권도 용어사용 상황

3.1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종주국은 조선과 한국이라 할수 있다. 모든 용어의 산생이나 사용은 남북의 용어를 기준으로 한다. 태권도 관련 남북의 용어대조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지금까지 북에서 정리된 자료는 태권도용어가 모두 187 개, 우리가 정리한 태권도용어(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합 250 개, 남북이 공동히 사용하는 용어는 39 개 밖에 안된다.

그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위치기, 걸어치기, 경례, 나란히 서기, 눌러막기,곰손, 그만, 기권승, 기본서기, 도복, 돌려지르기, 돌려차기, 뒤꿈치, 무릎올려치기, 밀어차기, 밀팔목, 바깥막기, 바깥팔목, 반달차기, 반대돌려차기, 발등, 발부위, 손기술, 손끝, 준비, 준비서기, 집게손, 태권도, 팔굽, 팔목, 띠, 때리기, 안막기, 안팔목, 앞차기, 옆막기, 올려막기, 인지주먹

3.2 전홍열 올림픽스포츠사전과의 비교

전홍렬(2006.9) 중영한올림픽 스포츠사전의 전체 올림말수는 5000 여개 그가운데 태권도 관련 표제어가 총 171 개, 남북의 공동태권도 용어를 수록한 것은 모두 11 개 용어밖

에 안된다.

기권승, 돌려차기, 밀어차기, 반달차기, 반대돌려차기, 손기술, 준비, 준비서기, 태권도, 옆막기,인지주먹

우리가 편찬한 체육용어사전에서 축구, 농구, 사격 부분 총 표제어수와 같은 용어사용 상황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부록 2)

3.3 우리가 편찬하는 사전의 올림픽 종목

2008 년 29 회 베이징올림픽 총 28 종목 소개와 2012 년 30 회 런던올림픽(야구와 소프트볼이 빠져서) 총 26 종목, 2016 년 31 회 리우 올림픽(야구와 소프트볼이 빠진 상태에서 골프와 럭비가 추가) 총 28 종목, 하계 종목소개에서도 차이를 보였지만 들쑹날쑹한 용어목록들에 들어가는 수많은 용어들도 새롭게 작성하여 이번 사전에 수록하였고 2018 년 평창 동계 올림픽 종목 15 개, 2022 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갈 15 개 종목(변함이 없음)으로 확정된 바를 재 확인하여 되도록 동계올림픽 관련 자료로 새롭게 추가정리 하였다.

4. 올림픽체육용어사전 편찬원칙

4.1 체육용어사전 편찬에서 용어처리는 남북체육용어 협의사항과 용어처리 제 1 차 합의사항에 준하되 출판사의 출판요구사항을 따랐으며 용어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를 가려잡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4.2 체육용어대조언어는 한국어 영어 한어를 기본으로 하고 일본어는 참고로 제공한다.

4.3 한국어를 올림말로 잡고 그 뒤에 영어와 한어, 일본어 대역용어를 달아준다. 부록에서는 영어와 한어용어를 각각 올림말로 표시하고 원문의 페이지수를 밝혀준다.

4.4 사전의 올림말은 올림픽 운동종목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가려잡았다.

4.5 다국어 어휘의 격식과 언어기호문제, 체육전문용어의 기본이론과 관련된 개념 및 그 분류, 개념의 특징과 사물의 속성, 관계를 해명함에 있어어는 국제 표준화기구 ISO/TC37 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국제신조어 체육전문용어의 대역 에서도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공유하도록 한다.

4.6 체육용어의 올림말은 크게 세개 부류, 하계올림픽운동종목과 동계올림픽 종목으로 갈라 처리하고 자세한 운동종목들은 해당 부류에 귀속시켜 올림말로 가려 잡는다.

4,7 경기종목에 해당한 기술과 관련된 올림말은 그 종목안에서 ㄱ,ㄴ,ㄷ순으로 배렬한다. 뜻풀이는 해당 용어 뒤에 한다.

4.8 이 사전의 뜻풀이는 간명하고 개념을 알기 쉽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9 한 올림말에 여러개의 필요한 경우에는 뜻단위를 갈라서 번호를 달아주고 해당한 뜻풀이를 한다.

4.10 뜻이 똑같은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 뜻풀이를 하고 그와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앞에 동의 표식을 준 다음 그 뒤에 해당단어를 달아준다.

4.11 준말은 본디말에로 보라는 표식을 주고 본디발에서만 뜻풀이를 하고 올림말은 동의 표식을 달아 가려잡는다.

4.12 외래어는 올림말 다음에 괄호안에다 래원을 밝힌다.

4.13 하계올림말수는 7000 개, 동계올림말수는 3000 개, 전체 올림말수는 대략 1 만개 좌우를 다루고자 한다. 총글자수는 150 만 좌우로 예산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체육용어 사전편찬을 위한 경위, 편찬과정에서의 남북의 합의사항과 용어처리 원칙에 대한 의견교환, 사전편찬에서의 존재한 문제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존재한 문제의 처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남북의 체육용어차이를 교과서에서 이용된 국립국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축구, 농구, 사격 등 용어상황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태권도 종주국에서 용어사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용어사용에서의 님북의 차이와 전홍렬 “올림픽스포츠 사전”과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찬하는 사전의 올림픽용어종목을 보여주고 이번 새올림픽체육용어사전 올림말 용어처리 원칙을 정리하여 보여주었다.

6. 편찬계획

2018.3-2018.4 동계올림픽용어 편찬

2018.5-2018.12 하계올림픽용어 편찬

2019.4 월말 원고교부

부록 1

사진자료 략

한국 교과서에서 사용된 축구, 농구, 사격 체육용어 사용상황 략

부록 2

1) 조선 태권도 [跆拳道]용어 187 개

가운데공격

명치로부터 그우에 있는 급소를 공격하는 손과 발동작.

가운데막기
명치로부터 그우에 있는 급소를 공격하는 상대자의 손이나 발을 막는 손과 발동작.
가위차기
상대자의 몸 혹은 다리를 두다리사이에 끼여서 넘어뜨리는 발동작.
감점
맞서기경기에서 선수가 주심으로부터 3 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 주는 주심의 구령.
걷는서기
사람이 걸어가는것과 같이 선 자세. 공격과 방어를 위한 자세.
걸쳐막기
다른 막기와 달리 공격해 오는 팔이나 다리우에 슬쩍 놓음으로써 다른 손이나 두발을 즉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손동작.
걸어차기
무릎을 굽혀 옆으로 다리를 사선방향으로 펴면서 뒤축을 뒤방향으로 힘껏 당기면서 발뒤꿈치와 발바닥으로 타격하는 동작.
결합차기
여러가지 발동작으로 상대자를 공격하는 수법.
결합치기
여러가지 주먹, 손동작으로 상대자를 공격하는 수법.
경례
선수, 심판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주심의 구령.
고정서기
ㄴ자서기와 같으나 두엄지발가락거리가 어깨너비의 2 배이며 체중을 두다리에 골고루 실리게 한 자세.
곡갱이차기
발을 직선으로 들었다가 발뒤축, 앞꿈치 부위로 상대자의 대신문, 쇄골, 가슴과 안면을 공격하는 동작.
곰손
다섯손가락을 굽힌 손바닥부위.
공격부위
공격할 때 공격자가 사용하는 손과 발의 부위.
교차서기
한발을 앞, 뒤로 옮겨 교차시킨 자세.
구부려서기
한쪽발바닥을 다른쪽다리의 무릎에 가볍게 놓고 지지다리의 무릎을 약간 구부려 선 자세

구부려서기 A
구부려서기에서 팔목대비막기를 한 자세.
구부려서기 B
구부려서기에서 팔목낮은데 헤쳐막기를 한 자세.
굿기
손가락, 손끝으로 상대자의 얼굴과 눈을 공격하는 동작.
그만
틀, 맞서기경기나 기본훈련을 끝마칠 때 주는 구령.
기권승
상대방선수가 경기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것.
기본서기
준비서기와 달리 공격과 방어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서기.
긴주먹
손을 펴 손가락의 둘째와 셋째마디를 굽힌 둘째마디의 앞부분.
계백틀
태권도 1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계속
맞서기경기에서 중지시켰던 경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주심의 구령
광계틀
태권도 1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ㄴ－자서기
우리말 “ㄴ”자와 비슷하게 선 자세.
나란히서기
두발사이가 어깨너비만큼 벌려선 자세.
나란히막기
두팔목으로 높은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두 상대를 동시에 막는 동작.
낮은데공격
아래복부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급소를 공격하는 손과 발동작.
낮은데막기
아래복부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급소를 공격하는 상대방의 발과 손을 막는 손과 발동작.
높은데공격
목으로부터 그 우에 있는 급소를 공격하는 공격동작.
높은데막기
목으로부터 그 우에 있는 급소를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손 혹은 발을 막는 손발동작.

눌러막기
낮은데를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발을 막는데 쓰이는 손동작.
눌러차기
발칼로 상대자의 무릎관절이나 발목을 부러뜨리는데 쓰이는 동작.
내려막기
명치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급소를 공격해오는 손아나 발을 막는 손동작.
내려지르기
앞주먹으로 낮은데 부위를 수직으로 내려 공격하는 동작.
ㄷ－자지르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에게 머리카락을 잡혔을 때 두 주먹으로 앞면과 명치를 동시에 공격하는 동작.
단군틀
태권도 8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단급제도
태권도선수, 사범들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급수제도.
도로차기
낮은데 부위를 공격해오는 상대자의 발을 차단하는데 쓰이는 발동작.
도복
태권도수련이나 경기를 할 때 입는 옷.
도산틀
태권도 7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돌려지르기
앞주먹으로 몸중심높이의 목표를 타격하는 동작.
돌려차기
발앞꿈치, 발등, 발끝으로 옆앞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 동작.
두손가락
주먹을 쥐고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을 편것.
들어가며차기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상대자에게 접근하면서 차는 동작.
들어가며치기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상대자에게 접근하면서 치는 동작.
들어막기
낮은데를 공격해오는 발을 손바닥으로 들어올림으로써 상대방의 균형을 파괴시키는 동작.
등주먹

주먹을 쥐였을 때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의 첫째관절의 웃부위.
등팔목
손목의 손등웃부위.
뒤발서기
몸중심을 뒤발에 놓고 한발의 앞꿈치를 바닥에 놓으며 선 자세.
뒤짚은 손끝
손을 펴 손바닥이 우로 향하게 한 손가락끝부위.
뒤차기
발뒤꿈치, 발끝으로 뒤에 있는 상대자를 공격하는 동작.
뒤축
발의 뒤부분의 두드러진 부위.
뒤꿈치
발바닥의 뒤에 두드러져 나온 부위.
련속차기
같은 발로 두번이상 련이어 차는 동작.
련속치기
같은 손으로 두번이상 련이어 치는 동작.
틀곡틀
태권도 5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막기부위
상대자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물리치는 발과 손의 부위.
맞받아차기
상대자가 치는것을 방어하면서 반공격하는 차기수법.
맞받아치기
상대자가 치는것을 방어하면서 반공격하는 치기수법.
맞서기
틀이나 기본련습에서 습득한 공격과 방어동작들을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실지 움직이는 상대자와 맞서 써먹는것.
맞서기경기
몸무게가 같은 두 선수가 규정된 맞서기장갑을 끼고 제정된 시간과 구역안에서 공격하여 얻은 점수에 따라 이기고 짐을 가르는 경기.
멈춰막기
명치와 그 우에 있는 급소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손이나 발을 막는 손동작
모범맞서기
시범자의 민첩성과 기술 그리고 매개 동작을 상대자에게 적용하는 수법들을 보여주는것.

모아준비서기
두발을 붙이고 무릎을 펴 몸통을 앞으로 향하게 하며 선 자세.
모아준비서기 A
오른 앞주먹이 우로 향하게 하고 왼손바닥을 오른 앞 주먹우에 올려놓으며 인중앞에 놓은 자세.
모아준비서기 B
두 손의 자세는 A 와 같으나 두 주먹을 띠의 앞에 놓은 자세.
모아준비서기 C
두 손을 펴고 오른손등우에 왼손바닥을 놓고 아래로 편 자세.
모아준비서기 D
두주먹을 옆, 앞으로 약간 든 자세.
무릎올려차기
무릎을 들어 급소부위를 공격하는 동작.
무사준비서기
나란히 서기에서 오른 주먹을 세워 왼손가락바닥을 오른 주먹에 붙이고 한쪽옆 허리부위에 가져간 자세.
문무틀
태권도 4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밀어막기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균형을 파괴시키는 동작.
밀어차기
발끝, 발바닥으로 상대자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몸의 중심을 파괴시키는 동작.
밑팔목
손목의 손바닥웃부위.
바로
틀경기나 기본훈련을 끝마칠 때 주는 구령.
바깥막기
공격해오는 상대자의 손이나 발의 바깥부분을 막는 손과 발동작.
바깥팔목
손목의 새끼손가락 웃부위.
반달손
손을 편 상태에서 네 손가락을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벌려 손가락들을 약간 구부린것.
반달차기
발안쪽이나 발바깥쪽면으로 가슴아래의 급소부위를 공격해오는 상대자의 손 혹은 발을 휘돌려 차단하는 동작.

반대돌려차기
발뒤축이나 앞꿈치, 발바닥으로 뒤로 돌아가면서 목표를 공격하는 동작.
반자유맞서기
자유맞서기의 기초기술을 련습하기 위하여 련결된 공격이나 방어동작들을 중단함이 없이 잠간사이에 수행하는 맞서기.
발걸기
발로 상대자의 중심을 파괴시켜 넘어뜨리는 동작.
발기술
발을 리용하여 상대자를 타격하거나 상대자의 공격을 물리치는 위력한 기술수법
발등
발목과 발가락을 아래로 바싹 폈을 때 발의 웃부위.
발맞서기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로 공격과 방어기술을 더욱 숙련시키기 위하여 진행하는 맞서기.
발부위
발로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하여 쓰이는 부위.
발칼
발뒤축을 내밀고 발끝을 우로 바싹 들었을 때 뒤축과 새끼발가락사이의 3 분의 1 뒤부위.
발끝
발가락의 끝부위.
부시기
주먹과 발로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동작.
부심
주심의 다음가는 심판원. 경기에서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붙잡고 차기
한 사람을 한손 또는 두손으로 붙잡고 한발이나 두발로 다른 사람을 차는 동작.
비틀어차기
발끝이나 발앞꿈치로 밖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목표를 공격하는 동작.
배심
경기탁전면에 위치하여 주심이 제시하는 채점표에 의하여 승부를 판정 하는 심판위원회 성원.
산막기
손칼과 손칼등, 팔목으로 인중 또는 그 우에 있는 급소에 대해 공격해오는 상대자의 손이나 발을 차단하는 동작.
삼일틀
태권도 3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서기
동작을 수행할 때 두발의 놓임새
서기판
서기의 정확성을 련습하기 위하여 넓은 판자우에 태권도의 여러가지 서기의 모형을 붙인 판.
서산틀
태권도 5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선손끝
손가락을 펴 손바닥을 수직으로 세운 손가락의 끝부위.
손가락주먹
개별적인 손가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면의 주먹.
손기술
공격과 방어에서 적용되는 손동작수행의 합리적인 형태나 그 수행방법. 엄지주먹, 인지주먹, 중지주먹 등이 있다.
손등
엄지손가락을 두번째손가락에 붙이고 자연스럽게 편 손의 등부위.
손목등
손목을 아래로 구부렸을 때에 형성되는 부분.
손바닥
손의 바닥으로서 오든 손가락들을 약간 구부려야 힘을 손바닥에 모을수 있다.
손칼
네 손가락을 붙이고 엄지의 두번째관절을 구부려 손을 폈을 때 손목과 다섯번째손가락의 첫관절까지의 옆부위.
손칼등
네 손가락을 붙이고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쪽으로 구부렸을 때의 부위.
손끝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끝부위. 옆손끝, 선손끝, 뒤짚은손끝, 호미손끝 등이 있다.
손을 편 부위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편 부위.
수직서기
두다리가 수직이 되게 곧추 선 자세.
수평때리기
옆주먹이나 손칼로 옆, 뒤로부터 오는 상대자를 공격하는 동작.
시범
실자동작을 통하여 태권도의 기술과 위력을 보여주는것.

시작
틀 및 맞서기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주심의 구령.
실격
맞서기경기에서 선수의 경기자격을 박탈할 때 주는 주심의 구령.
세종틀
태권도 5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세워지르기
앞주먹을 세우고 복부나 얼굴의 볼부위를 공격하는 동작.
쉬엿
틀, 맞서기경기나 기본훈련을 끝마칠 때 선수의 정신 및 육체적 긴장상태를 풀도록 하게 하는 구령.
자유맞서기
사용부위나 방법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사전에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마음대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실전에 가까운 맞서기.
주심
심판사업에 대하여 총책임을 지고 경기를 집행하는 심판원.
주체틀
태권도 2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주의
맞서기경기에서 선수가 반칙동작을 하였을 때 주는 주심의 구령.
준비
틀과 맞서기경기나 기본훈련을 시작하기전에 주는 구령.
준비서기
동작시작전에 취하는 서기. 차렷자세, 나란히 준비서기, 나란히 서서, 하늘손, 무사준비서기 등이다.
중근틀
태권도 4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중지주먹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가운데손가락을 굽혀 중지의 둘째 관절을 내밀어 이루어진 부위.
집게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편 끝부위.
차렷서기
주의를 집중하거나 례의를 표시할 때 취하는 서기.
차멈추기
차기때와는 달리 찬 다음 그 발을 목표에 잠간 멈춰세우는 동작.

차밟기
뒤꿈치 또는 옆발바닥으로 앞 혹은 뒤에서 끌어안거나 앞에서 접근해오는 상대자의 발등 또는 누워있는 상대자를 공격하는 동작.
차올리기
상대자의 손이나 발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근육단련을 위하여 쓰이는 동작. 앞차올리기와 옆차올리기가 있다.
천지틀
태권도 9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추겨막기
머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손이나 발 혹은 무기를 막는 손동작.
충무틀
태권도 1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충장틀
태권도 2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최영틀
태권도 3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통작.
통일틀
태권도 6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특기
조약하여 공간에서 여러가지 동작들을 재치있게 수행할수 있는 높은 기술 또는 재간으로서 태권도의 경기종목의 하나.
특기경기
뛰며차기로 누가 더 높은 상태와 멀리 있는 송판을 쪼개는가에 따라 이기고짐을 겨루는 경기.
틀
다양한 방어와 공격동작, 옮겨디디기와 돌기, 뛰기 등 태권도의 기본기술동작들과 기본요소들을 일정한 리치와 뜻을 가지고 정해진 자리길을 따라 변화되는 정황에서 가상적인 상대에 대하여 수행할수 있도록 묶어놓은 동작.
틀경기
틀을 진행하여 얻은 점수로 이기고짐을 겨루는 경기.
태권도
몸에 아무런 무기를 가짐이 없이 발과 손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무술종목.
태권도경기장

태권도경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장소. 넓이는 사방 9m 의 정방형이며 바닥은 깔개 또는 마루여야 한다.

태권도 몸무게급

맞서기경기에서 개별적인 선수들의 몸무게에 따라 구별되는 급.

태권도전당

태권도기술과 정신을 수련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은 태권도의 중심기지.

퇴계틀

태권도 3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판정승

태권도경기에서 점수에 의한 승부결정으로 이기는것.

팔굽

팔을 구부렸을 때 나타나는 팔굽관절의 돌출부위.

팔목

손목과 팔굽사이의 3 분의 1 부위.

포은틀

태권도 1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한손가락

주먹을 쥐고 두 번째 손가락을 편 끝부위

헤쳐막기

상대자가 두 손으로 머리, 목, 어깨를 붙잡으려고 공격해 오는것을 막는 손동작.

화랑틀

태권도 2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뚫기

손끝이나 발끝으로 급소부위를 째고 들어가는것.

띠

도복저고리를 매는 끈. 선수의 단급에 따라 흰색,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으로 구분된다.

때리기

주먹과 손, 팔굽으로 급소의 근육 혹은 뼈를 타격하는 동작.

뛰며차기

조약하여 발로 상대자의 높은 부위를 공격하는 동작.

뛰며치기

조약하여 손으로 상대자의 높은 부위를 공격하는 동작.

뛰여 쌍발차기

조약하여 두발로 목표를 타격하는 동작.

쌍발차기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두 상대자를 공격하는 발동작.
쓸어차기
발바닥안쪽 혹은 뒤축으로 상대자의 발목을 쳐 몸중심을 파괴시키는 동작.
안막기
공격해오는 상대자의 손이나 발의 안쪽부분을 막는 손과 발동작.
안팔목
손목의 엄지손가락 웃부위.
앉는서기
두발의 엄지발가락사이의 거리가 어깨너비의 1.5 배되게 벌리고 두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 앉는 자세.
앞주먹
주먹을 쥐였을 때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의 두드러진 앞부위.
앞차기
발로 앞에 있는 상대자를 공격하는 동작.
앞꿈치
발가락을 우로 당겼을 때 형성되는 발바닥의 앞에 도드라져 나온 부위.
약속맞서기
두 사람이 서로 수행하는 동작회수와 목표, 방법과 사용부위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진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맞서기.
엄지손가락
앞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편 끝부위.
엎은손끝
손을 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손가락의 끝부위.
연개틀
태권도 4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옆막기
막는 순간 목표를 향하여 반몸 혹은 옆몸이 되였을 때의 손동작.
옆주먹
주먹을 쥐였을 때 새끼손가락이 있는쪽 즉 주먹의 옆부위.
옆지르기
몸이 앞을 향한 상태에서 측면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는 손과 발동작.
옆차기
발칼로 옆에 있는 상대자를 공격하는 발동작.
올려막기

명치로부터 우에 있는 급소를 공격해오는 손이나 발을 튕겨올리는 손동작.

유신틀

태권도 3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을지틀

태권도 4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인지주먹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인지의 둘째관절을 내밀어 이루어진 부위.

외발서기

한 다리를 굽히고 한 다리로 선 자세.

위력

주먹, 손칼, 발칼, 발뒤축, 발 앞꿈치 등으로 대상물들을 깨는 능력.

위력경기

송판을 타격하였을 때 쪼개진 송판수에 의하여 이기고 짐을 겨루는 태권도경기종목.

의암틀

태권도 2 단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원호틀

태권도 6 급에서 수행해야 할 틀동작.

2) 우리가 편찬한 태권도용어 250 개 략

<참고문헌>

북한의 언어정책, 김민수 /아시아연구 1972.15-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김일성 /문화어 학습 1968.2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김일성 /1968.3

북한 언어정책연구, 김희숙 /어문논총(청주대)1984.3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사회과학출판사(평양)1986

북한 언어정책의 특징과 실태 파악, 유수현 /국토통일원 1973.

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해설, 이은정 /대제각 1988

북한의 언어정책과 이질화 극복방향, 이현복 /북한 1985.166 호

현대조선말사전과 북한언어정책, 최기호 /북한의 조선어학(한신문화사)1990

정보통신분야 표준화교류 및 협력방안, 문상규 /Korean 정보처리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1

남북한 국어정책 변천사연구, 최용기 /국문학논집(단국대)2002

전문용어정리와 표준화 추진방향, 김진용 김태주 이병희 /한국 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03

남북한 전문용어비교연구, 김광수 /역락 2004

남북 체육용어통일을 위한 방안연구, 최기호 /남북체육용어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론문집, 국립국어원 2007.3

북과 남이 통일적인 체육용어를 만드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심병호 /남북체 용어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론문집, 국립국어원 2007.3

체육용어를 통일하기위한 원칙적 방도에 대하여 오창복 /남북 체육용어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론문집, 국립국어원 2007.3

남북 체육용어사전편찬경위와 표준화 송창수 유은종 /남북 체육용어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론문집, 국립국어원 2007.3

남북 학술용어 비교사전 개발현황 이서행 /남북 체육용어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론문집, 국립국어원 2007.3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남북 체육용어사전, 김도균 노호성 /남북 체육용어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연구론문집, 국립국어원 2007.3

[사전류참고]

奥林匹克词汇大全, 卜纯英主编 、河海大学出版社 1988

英汉体育词典, 杨柳 , 湖南人民出版社 1998

奥林匹克运动百科全书, 卜纯英主编 (英汉对照分项解图)、台北, 桂冠图书馆公司 1989

汉英体育词汇大全, 魏中明主编, 人民体育出版社 1999

体育科学词典, 中国体育科学学会, 香港体育学院, 高等教育出版社 2000

奥运竞赛项目汉英知识手册, 赵佳 刘朕, 天津大学出版社 2002

汉英体育词典， 刘振凯编，外文出版社 2004
汉英英汉体育搭配词典，陈玉玲主编，化学工业出版社 2006
现代英汉汉英体育体育大词典，田慧主编，人民体育出版社 2008.7
体育词典，体育词典编辑委员会，上海辞书出版社 1984
汉英体育分类词典，陈乃新等， 复旦大学出版社 2004
体育百科大辞典，대한체육회 감수，한국사전연구사 1993.3
스포츠도해룰대사전，체육사전편찬위원회편 /한국사전연구사 1996.5
체육학종합대사전，김창환 외 /한국사전연구사 1998.1
체육용어사전，송천식 주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1.8
중영한올림픽스포츠사전，전홍렬 주필 민족출판사 2007.4

한국어 단어 ‘날다’의 의미 분석

최호철

(한국 고려대학교)

1. 언어 요소와 언어 단위

- 언어는 소리(sound)와 뜻(meaning)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리와 뜻은 언어 성립의 필수 요소이다.
- 소리와 뜻이 결합한 언어의 최소 단위는 형태소(形態素, morpheme)이므로 음소(音素, phoneme)나 의소(義素, sememe)는 단독으로 언어의 단위가 되지 못한다.

담문(談文, text)

↑

문장(文章, sentence)

↑

구절(句節, phrase)

↑

단어(單語, word)

↑

{나무}

형태소(形態素, morpheme) ↑ ‘언어’ ○

----------↗----------↖----------

[나, 무] | 《나무》 ↓ ‘언어’ ×

음절(音節, syllable) | **의소(義素, sememe)**

/ㄴ, ㅏ, ㅁ, ㅜ/ | □----□------□

음소(音素, phoneme) | ‘뜻’

□------□------□ |

‘소리’

2. 언어의 최소 단위와 언어 요소의 최소 단위

	언어의 최소 단위	언어 요소의 최소 단위		
개별적:	형태(形態, morph)	음성(音聲, phone)	의미(義味, seme)	
집합적:	형태소(形態素, morpheme)	음소(音素, phoneme)	의소(義素, sememe)	
개별적:	이형태(異形態, allomorph)	이음(異音, allophone)	이의(異義, alloseme)	

3. 형태 분석

- 언어 요소의 일차적인 음성에 대하여 표기 문자는 이차적인 것으로서 음성과 표기가 반드시 일대일 대응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태 분석의 대상은 음성이어야 한다.
- [날개 업씨 날 쑤 이써요? 벼테서는 불근새기 잘 나라요.]
- / 날 / 개 / 업ㅆ / ㅣ / 나 / ㄹ / 쑤 / 이ㅆ / ㅓ / 요 / 벼ㅌ / ㅔ서 / 는 / 불ㄱ / ㅡㄴ / 새ㄱ / ㅣ / 잘 / 나ㄹ / ㅏ / 요 /

4. 형태소와 이형태

- 형태소(形態素, morpheme)는 하나의 같은 의미가 형태 실현 환경의 상보적 분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여러 형태(形態, morph)의 집합이며, 이형태(異形態, allomorph)는 한 형태소 안에 있는 여러 형태(形態, morph)이다.
- 형태소 표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 / 안에 모든 이형태를 나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 안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 대표 이형태는 한 언어에서 분포가 넓고 다른 이형태의 도출이 자연스러운 이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형태소와 표기

/ **이형태**(상보적 환경)/ {**대표 이형태**} '**표기**'

<飞> /**날**(←날고), **나**(←나니)/ ={**날**} '**날**'

<接辞> /**개**(←찌개), **깨**(←덮개)/ ={**개**} '**개**'

<没有> /**업ㅆ**(←없어), **업**(←없고), **엄**(←없네)/ ={**업ㅆ**} '**없**'

<接辞> /**ㅣ**(←많이)/ ={**ㅣ**} '**이**'

<語尾> /**ㄹ**(←할 일), **ㅡㄹ**(←먹을 것)/ ={**ㅡㄹ**} '**을/ㄹ**'

<方法> /**쑤**(←할 수), **수**(←하는 수)/ ={**수**} '**수**'

<有> /**이ㅆ**(←있으니), **읻**(←있지만), **인**(←있네요)/ ={**이ㅆ**} '**있**'

<語尾> /ㅓ(←먹어), ㅏ(←막아), **여**(←하여)/ ={ㅓ} '**어/아/여**'

<助詞> /**요**(←어서요), **뇨**(←하면요)/ ={**요**} '**요**'

<阳光> /**벼ㅌ**(←볕에), **변**(←볕도), **변**(←볕만),
벼ㅊ(←볕이), **뼈ㅌ**(←햇볕에), **뻔**(←햇볕도),
뻔(←햇볕만), **뼈ㅊ**(←햇볕이)/ ={**벼ㅌ**} '**볕**'

<助詞> /**네서**(←집에서)/ ={**네서**} '**에서**'

<助詞> /**는**(←학교는), **ㅡㄴ**(←집은), **ㄴ**(←난 몰라)/ ={**는**} '**는/은/ㄴ**'

<红> /**불ㄱ**(←붉어), **북**(←붉다), **불**(←붉고),
붕(←붉네), **뿔ㄱ**(←짙붉어), **뿍**(←짙붉다),
뿔(←짙붉고), **뿡**(←짙붉네)/ ={**불ㄱ**} '**붉**'

<語尾> / **ㅡㄴ**(←맑은), **ㄴ**(←예쁜)/ ={ **ㅡㄴ**} '**은/ㄴ**'

<色> /**새ㄱ**(←색이), **생**(←색만),
쌕(←혈색이), **쌩**(←혈색만)/ ={**새ㄱ**} '**색**'

<助詞> /ㅣ(←밥이), **가**(←나무가)/ ={ㅣ} '**이/가**'

<容易> /**잘**(←잘한다), **짤**(←곧잘)/ ={**잘**} '**잘**'

<退落> /**나ㄹ**(←날고), **나**(←나니)/ ={**나ㄹ**} '**날**'

6. '날(다)'은 다른 형태소?

- 위 5 의 첫줄과 끝줄에 있는 '날(다)<飞>'과 '날(다)<退落>'을 사전(「표준」)에서는 다른 형태소로 기술하였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날개 없이 날<飞> 수 있어요? 볕에서는 붉은색이 잘 날<退落>아요.

7. '날다'의 의미 평정

'날다'가 사전(「표준」)에는 3 개의 동형어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의 의미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날다[1] ①【…에】【…으로】【…을】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 ¶ 하늘에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난다. / 거리에 흙먼지가 나니 눈을 뜰 수가 없다. / 사람들은 빌딩 오른쪽에 이상한 물체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정체를 궁금해했다. ‖ 폭탄이 터지자 폭음이 울리고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다. ‖ 비행기 덕분에 인간이 쉽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 잠자리가 물 위를 날고 있다. / 지금쯤 그 녀석은 태평양 상공을 날겠지. ② 어떤 물체가 매우 빨리 움직이다. ¶ 도둑은 휙 날아서 담장을 넘었다. / 총알택시를 타고 날면 30 분도 안 걸린다. / 몽둥이와 쇠 파이프가 날고, 자전거의 체인과 굵은 쇠사슬이 비정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갈랐다.≪이문열, 영웅시대≫ ③ 【…에서】【…으로】‘달아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지금 이곳에서 날지 않으면 경찰에게 잡힐 것이다. ‖ 범인은 눈치를 채고 벌써 다른 곳으로 날았다.

날다[2] ① 빛깔이 바래다. ¶ 색이 날다 / 붉은색은 날기 쉽다. / 아직도 광채가 날지 않고 번들거리는 테이블 위에는 벼룻집을 한 귀로 모두가 반듯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김정한, 낙일홍≫ ② 냄새가 흩어져 없어지다. ¶ 향수가 날다. ③ 액체가 기체로 되어 줄거나 없어지다. ¶ 휘발유가 날다 / 알코올이 다 날아 빈 병만 남았다.

날다[3]【…을】① 명주, 베, 무명 따위를 짜기 위해 샛수에 맞춰 실을 길게 늘이다. ¶ 무명을 날다. ② 베, 돗자리, 가마니 따위를 짜려고 베틀에 날을 걸다. ¶ 가마니 날을 날다.

날다[1] ①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 ¶ 하늘에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난다. / 거리에 흙먼지가 나니 눈을 뜰 수가 없다. / 사람들은 빌딩 오른쪽에 이상한 물체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정체를 궁금해했다. ‖ 폭탄이 터지자 폭음이 울리고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다. ‖ 비행기 덕분에 인간이 쉽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 잠자리가 물 위를 날고 있다. / 지금쯤 그 녀석은 태평양 상공을 날겠지.

- 뜻풀이의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라는 이동의 의미는 아래에서 보듯이 ‘날아’의 뒤에서 구체적인 다른 단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날다’ 자체에는 이동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

날아-가다 [1]【…에/에게】【…으로】 「1」【…을】공중으로 날면서 가다. 「2」몹시 빠르게 움직여 가다. [2](비유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붙어 있던 것이 허망하게 없어지거나 떨어지다. [3]『북한어』시집을 가거나 다른 데로 움직여 가다. 【< 라가다 <석상>← -+-아+가-】

날아-내리다 높은 데서 날아서 아래로 내려오다.

날아-놓다 【…을】 여러 사람이 낼 돈의 액수를 정하다.

날아-다니다 【…에】【…으로】【…을】 날아서 이리저리 다니다. 【< 라 니다<월석>← -+-아+ -+니-】

날아-돌다 【…을】 날면서 돌다.

날아-들다 [1]【…에/에게】【…으로】 「1」날아서 안으로 들다. 「2」뜻밖에 들이닥치다. [2]『북한어』어떤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다.

날아-예다 '날아가다'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날아-오다 【…에/에게】【…으로】 「1」【…을】공중으로 날면서 오다. 「2」몹시 빠르게 움직여 오다. 「3」(비유적으로) 뜻하지 아니하게 나타나거나 우연히 들어오다. 【< 라오다<석상>← -+-아+오-】

날아-오르다 【…으로】【…을】 날아서 공중으로 오르다. 【< 라오르다<훈몽>← -+-아+오르-】

- '날다①' 자체의 의미에는 이동의 의미를 특별히 드러내지 않는 <움직이다>라는 의미로 한정하여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로 기술할 수 있다.
- '날다' 구문에서 파악되는 이동의 의미는 '날다'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맥락에서 해석되는 의미이다.

날다 [1] ② 어떤 물체가 매우 빨리 움직이다. ¶ 도둑은 휙 날아서 담장을 넘었다. / 총알택시를 타고 날면 30분도 안 걸린다. / 몽둥이와 쇠 파이프가 날고, 자전거의 체인과 굵은 쇠사슬이 비정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갈랐다.≪이문열, 영웅시대≫

- 뜻풀이의 <어떤 물체가>는 '날다'와 공기하는 주체이어서 '날다'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날다 [1]②'의 의미는 '날다'라는 동작에 수반되는 빠른 속도에 주목한 <매우 빨리 움직이다>로 기술된다.
- 예시문 '총알택시를 타고 날면 30분도 안 걸린다'가 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예시문은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날다 [1]①'의 예시문에 포함된다.

날다 [1] ③【…에서】【…으로】'달아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지금 이곳에서 날지 않으면 경찰에게 잡힐 것이다. ‖ 범인은 눈치를 채고 벌써 다른 곳으로 날았다.

- 뜻풀이의 <달아나다> 역시 '날다'라는 동작에 수반되는 빠른 속도에 주목한 기술이다.

✍ <달아나다>라는 의미는 '날다 [1]②'의 <매우 빨리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주어진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이므로 '날다 [1]③'은 <매우 빨리 움직이다>에 포함된다.

* 종합하면 '날다 [1]'의 의미는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와 <매우 빨리 움직이다>로 압축되는데, 예시문 '도둑은 휙 날아서 담장을 넘었다 / 몽둥이와 쇠 파이프가 날고, 자전거의 체인과 굵은 쇠사슬이 비정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갈랐다'는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의 예시문에 해당하고, '지금 이곳에서 날지 않으면 경찰에게 잡힐 것이다 / 범인은 눈치를 채고 벌써 다른 곳으로 날았다'는 '총알택시를 타고 날면 30 분도 안 걸린다'와 함께 <매우 빨리 움직이다>의 예시문에 해당한다. <매우 빨리 움직이다>는 실제로 공중에 뜨지 않은 주체에 대하여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빠른 속도에 주목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날다 [1] ①【…에】【…으로】【…을】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 하늘에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난다. / 거리에 흙먼지가 나니 눈을 뜰 수가 없다. / 사람들은 빌딩 오른쪽에 이상한 물체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정체를 궁금해했다. ‖ 폭탄이 터지자 폭음이 울리고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다. ‖ 비행기 덕분에 인간이 쉽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 잠자리가 물 위를 날고 있다. / 지금쯤 그 녀석은 태평양 상공을 날겠지. / 도둑은 휙 날아서 담장을 넘었다. / 몽둥이와 쇠 파이프가 날고, 자전거의 체인과 굵은 쇠사슬이 비정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갈랐다.≪이문열, 영웅시대≫ ②【…에서】【…으로】(비유적으로) 매우 빨리 움직이다. ¶ 총알택시를 타고 날면 30 분도 안 걸린다. / 지금 이곳에서 날지 않으면 경찰에게 잡힐 것이다. ‖ 범인은 눈치를 채고 벌써 다른 곳으로 날았다.

날다 [2] ① 빛깔이 바래다. ¶ 색이 날다 / 붉은색은 날기 쉽다. / 아직도 광채가 날지 않고 번들거리는 테이블 위에는 벼룻집을 한 귀로 모두가 반듯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김정한, 낙일홍≫

- <빛깔이>는 '날다'와 공기하는 주체이어서 '날다' 자체의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날다 [2]①'의 의미는 <바래다>로 귀결된다.

날다 [2] ② 냄새가 흩어져 없어지다. ¶ 향수가 날다.

- <냄새가>는 '날다'와 공기하는 주체이고, <흩어져>는 주체가 '냄새'이어서 그것이 없

어지는 양상을 기술한 것이므로 ‘날다’ 자체의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날다[2]②’의 의미는 <없어지다>로 귀결된다.

날다[2] ③ 액체가 기체로 되어 줄거나 없어지다. ¶ 휘발유가 날다 / 알코올이 다 날아 빈 병만 남았다.

- <액체가>는 ‘날다’와 공기하는 주체이고, <기체로 되어>는 주체가 ‘액체’이어서 그것이 없어지는 양상을 기술한 것이고, <줄거나>는 액체가 없어지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므로 ‘날다’ 자체의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날다[2]③’의 의미는 <없어지다>로 귀결된다.

* 종합하면 ‘날다[2]’의 의미는 <바래다>와 <없어지다>로 압축되는데, <바래다>는 주체가 ‘빛깔’인 경우에 한하여 <없어지다>의 한 과정에 해당하므로 ‘빛깔, 냄새, 액체’를 통합하여 주체로 설정한다면 ‘날다[2]’의 의미는 <없어지다> 하나로 기술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날다[2]** (빛깔, 냄새, 액체 따위가) 없어지다. ¶ 색이 날다 / 붉은색은 날기 쉽다. / 아직도 광채가 날지 않고 번들거리는 테이블 위에는 벼룻집을 한 귀로 모두가 반듯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김정한, 낙일홍≫ / 향수가 날다. / 휘발유가 날다 / 알코올이 다 날아 빈 병만 남았다.

날다[3] ① 명주, 베, 무명 따위를 짜기 위해 샛수에 맞춰 실을 길게 늘이다. ¶ 무명을 날다.

- <명주, 베, 무명 따위>는 날아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고, <실>은 <날실>로서 ‘날다’와 공기하는 객체이며, <샛수에 맞춰>는 나는 동작의 전제에 해당되어서 ‘날다’ 자체의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날다[3]①’의 의미는 <길게 늘이다>로 기술된다.

날다[3] ② 베, 돗자리, 가마니 따위를 짜려고 베틀에 날을 걸다. ¶ 가마니 날을 날다.

- <베, 돗자리, 가마니 따위>는 날아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고, <날>은 <날줄>로서 ‘날다’와 공기하는 객체이어서 ‘날다’ 자체의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고, <베틀>은 베를 짤 때에 한하는 것으로서 ‘돗자리, 가마니’ 따위까지도 포함하려면 <베>는 불필요하므로 ‘날다[3]②’의 의미는 <틀에 걸다>로 기술된다.

* 종합하면 '날다 [3]①'은 '날다'의 동작 자체에 주목한 기술이고, '날다 [3]②'는 '날다'의 방법에 주목한 기술로서 길게 늘이려면 틀에 걸어야 하므로 '날다[3]'의 의미는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날다** [3] 【…을】 (명주, 무명, 베, 돗자리, 가마니 따위를 짜려고 샛수에 맞춰 날실이나 날줄을)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 무명을 날다 / 가마니 날을 날다.

8. 의소와 이의

- 의소(義素, sememe)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의미 실현 환경의 배타적 분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여러 의미(義味, seme)의 집합(集合, set)이며, 이의(異義, alloseme)는 한 의소 안에 있는 여러 의미(義味, seme)이다.
- 의소(義素) 표시는 형태소나 음소 표시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 > 안에 모든 이의(異義)를 나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 안에 하나의 대표적인 이의(異義)를 보이는 것이다. 부호 < >와 ≪ ≫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형태소 표시의 / /와 { }, 음소 표시의 [ ]와 / /에 대응하여 새롭게 설정한 것이다.
- ≪ ≫ 안에 보이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의(異義)는 이의(異義)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지 이의(異義)들의 공통적·추상적인 것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형태소 표시 { } 안에 보이는 것이나 음소 표시 / / 안에 보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 의소와 이의의 표시

{**형태소**} <**이의**(배타적 환경)> = ≪**대표 이의**≫
{**가**} <①, ②, ③, ④> = ≪①≫
{**나**} <㉠, ㉡, ㉢, ㉣> = ≪㉠≫
{**다**} <ⓐ, ⓑ, ⓒ> = ≪ⓐ≫

9. '날다'의 의소

앞에서 평정한 '날(다)'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날다** [1] ①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② 매우 빨리 움직이다.
> **날다** [2] 없어지다.

날다 [3]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 ‘날다 [1]/날다 [2]’는 객체를 요구하지 않고, ‘날다 [3]’은 객체를 요구하므로 전자와 후자는 ‘날다’의 의미가 실현되는 구문이 달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소로 구분된다.

* 거시기가 날다 [1]/날다 [2] :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 매우 빨리 움직이다 / 없어지다>
아무개가 거시기를 날다 [3] :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 ‘날다 [1]’과 ‘날다 [2]’에 기술된 3 개의 의미는 크게 주체가 실제로 공중에 뜨는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날다 [2]<없어지다>’와 주체가 실제로 뜨지 않는 ‘날다 [1]②<매우 빨리 움직이다>’로 구분된다.
- ‘날다 [1]②<매우 빨리 움직이다>’는 실제로 공중에 뜨지 않은 주체에 대하여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빠른 속도에 주목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이므로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와 ‘날다 [1]②<매우 빨리 움직이다>’는 한 의소(義素)의 두 이의(異義)라고 할 수 있다.
- 주체가 실제로 공중에 뜨는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와 ‘날다 [2]<없어지다>’는 공중에 뜬 주체에 주목하는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와 공중에 뜨기 전에 있었던 자리에 주목하는 ‘날다 [2]<없어지다>’로 구분된다.
- ‘날다 [1]①’의 예시문에서 공중에 뜨기 전에 있었던 자리에 주목하면 그 주체는 <없어지는> 것이고, ‘날다 [2]’의 예시문에서 공중에 뜬 주체에 주목하면 그 주체는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와 ‘날다 [2]<없어지다>’의 의미는 모두 하나의 동작 ‘날다’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이의(異義)라고 할 수 있다.

* ≈ ≈ 공중에 뜬 주체에 주목 :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공중에 뜨기 전에 있었던 자리에 주목 : <없어지다>

- 같은 구문의 ‘거시기가 날다’에서 실현되는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와 ‘날다 [2]<없어지다>’에서 ‘날다 [2]<없어지다>’의 주체인 ‘거시기’는 ‘빛깔, 냄새, 액체’ 따위이고,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의 주체인 ‘거시기’는 ‘빛깔, 냄새, 액체’ 따위를 제외한 것이므로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와 ‘날다 [2]<없어지다>’의 주체인 ‘거시기’는 배타적 분포를 이루므로 이들은 한 의소(義素)의 두 이의(異義)라고 할 수 있

다.

＊ 거시기[＋빛깔/냄새/액체]가 날다 [2]<없어지다>
거시기[－빛깔/냄새/액체]가 날다 [1]①<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 이상 '날다'의 의미 분석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날다'는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매우 빨리 움직이다>, <없어지다>라는 4 개의 의미를 갖는데,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와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 매우 빨리 움직이다 / 없어지다>는 별개의 다른 의소(義素)로 설정되고,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 매우 빨리 움직이다 / 없어지다>는 3 개의 이의(異義)를 갖는 하나의 같은 의소(義素)로 설정된다.

＊ '날다'의 의미

'날다 1'의 의소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 매우 빨리 움직이다 / 없어지다>

= ≪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날다 2'의 의소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날다 1 ①【…에】【…으로】【…을】공중에 떠서 움직이다. ¶ 하늘에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난다. / 거리에 흙먼지가 나니 눈을 뜰 수가 없다. / 사람들은 빌딩 오른쪽에 이상한 물체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정체를 궁금해했다. ‖ 폭탄이 터지자 폭음이 울리고 파편이 사방으로 날았다. ‖ 비행기 덕분에 인간이 쉽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 잠자리가 물 위를 날고 있다. / 지금쯤 그 녀석은 태평양 상공을 날겠지. / 도둑은 휙 날아서 담장을 넘었다. / 몽둥이와 쇠 파이프가 날고, 자전거의 체인과 굵은 쇠사슬이 비정한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갈랐다.≪이문열, 영웅시대≫ ②【…에서】【…으로】(비유적으로) 매우 빨리 움직이다. ¶ 총알택시를 타고 날면 30 분도 안 걸린다. / 지금 이곳에서 날지 않으면 경찰에게 잡힐 것이다. ‖ 범인은 눈치를 채고 벌써 다른 곳으로 날았다. ③ (빛깔, 냄새, 액체 따위가) 없어지다. ¶ 색이 날다 / 붉은색은 날기 쉽다. / 아직도 광채가 날지 않고 번들거리는 테이블 위에는 벼룻집을 한 귀로 모두가 반듯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김정한, 낙일홍≫ / 향수가 날다. / 휘발유가 날다 / 알코올이 다 날아 빈 병만 남았다.

날다 2【…을】(명주, 무명, 베, 돗자리, 가마니 따위를 짜려고 샛수에 맞춰 날실이나 날줄을) 틀에 걸어 길게 늘이다. ¶ 무명을 날다 / 가마니 날을 날다.

<끝> 고맙습니다.

남북한 순화어에 나타난 의미 표상 방식 고찰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을 중심으로 -

박진희·민현식

(한국 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남북한 순화어[1]에 나타난 의미 표상 방식의 차이를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일한 대상을 순화한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수집하여 그 표상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각 사례에 내재한 남과 북의 대상 인식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각각의 의미 표상 방식에는 언어사용주체의 대상에 대한 모종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상하였다면 그러한 차이를 통해 언어사용주체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전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남과 북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남북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적 이질화의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연구들은 1980 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어[2]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는

---

[1]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남북한 순화어는 네덜란드어인 'haak(호크)'와 일본어인 'たたみ(tatami, 다다미)', 프랑스어인 'montage(몽타주)', 'nuance(뉘앙스)'의 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영어를 원어로 하는 사례들이다. 남북한 공통 순화어 목록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영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례들로 한정한 이유는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이 남북한 공통 순화어에 내재된 언어사용주체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호크'나 '다다미'를 비롯하여 '마네킹(mannequin)', '발코니(balcony)', '커프스(cuffs)' 등은 서양에서 들여 온, 본래 우리에게 없던 개념이므로 그러한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의 결과가 순화어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더욱이 한자어 순화의 경우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유근(幼根)-어린뿌리(남), 싹뿌리(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자의 뜻을 고유어로 순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한 언어사용주체의 고유한 인식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 순화어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론한다.

[2] 곽충구(2001)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가 출간되고, 북한의 어문 관련 서적이 영인 출판되면서 북한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시기와 맞물린다.

[3] 초창기의 연구로는 홍사만(1985), 이현복(1987), 이승욱(1989), 유창근(1989) 등이 있으며, 그 후로 90년대에 들어서는 이주행(1990), 고영근 외(1990), 최호철(1991), 하치근(1991), 김용범(1992), 기세관 외(1994), 김민수(1995/1996), 박갑수(1997/1999), 홍종선 외(1998) 등의 연구가 있다. 2000년대 초반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언어 정책, 어문 규범,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남북 언어의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김민수 외(2002)와 국어학적 체계 및 문법적 차이를 밝히고, 그 교수 방안을 모색한 박창원 외(2003)가 있가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남북한 전문용어의 이질성을 밝힌 이현주 외(2017)와 오세진 외(2016), 김광수(2014),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강진웅(2017), 남북 언어 차이와 어휘

데, 국어 연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는 남북한 어문 규범, 사전 표제어, 학술 용어 및 전문 용어를 비교하여 그 성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있으며,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적 학술 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어에 대한 연구 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겨레말큰사전≫[4] 등의 작업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연구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남북한어를 순화하는 작업은 "남북이 분단 극복의 일환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언어적으로 외세를 상징하는 외래어를 가급적 배척하고 자주적 역량을 상징하는 言語財인 고유어를 선호(민현식, 2003b: 281)"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언어적인 동질성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자는 것(박창원, 2003: 194)"이라는 점에서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5]. 개인적·국가적 차원을 막론하고 남북 언어 통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많은 연구들에서 남북한의 순화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6]. '남북한어의 순화', '남북한의 순화어'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그 성과들을 빠짐없이 고찰하는 일이 요구되나, 여기서는 남북한이 동일한 순화 대상어를 어떻게 표상해 내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조해야 하는 연구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7].

먼저, 남한에서 순화한 말과 북한에서 다듬은 말[8]을 비교하고 있는 대단위 결과물[9]로는

차이를 원인별로 모색하고 남북한 어휘 단일화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는 권재일(2014) 등이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언어 및 교육 내용의 차이를 고찰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로는 강보선 외(2017), 오현아(2017), 박종관(2016), 오선화 외(2016), 이관규(2016), 고정희 외(2015) 등이 있다.

[4]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권재일, 2015: 118), 2005년 시작되어 2009년까지 진행되어 오다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로 중단되었다. 최근 남북 교류 사업들이 재개되면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작업 역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일찍이 박갑수(1984)에서도 남북한의 언어 문제를 고려할 때 민족을 결속하는 거멀못이 되는 국어를 통일하고 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6] 박창원(2003)에서는 외래적인 요소나 외국어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남한과 북한이 각기 상이하게 정리한 요소를 하나로 통일하거나 정리함으로써 언어적인 동질성으로 민족적인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어 순화의 목적이라고 논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국어 순화의 목적을 되새겨 보면 남북 언어 통일 작업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하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국어 순화 영역이라는 점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7] 사실, 남북한 순화어를 비교하는 연구보다는 '남한의 국어 순화'와 '북한의 말 다듬기'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먼저, 초창기에 이루어진 남한의 국어 순화 연구로는 김민수(1973, 1988), 남광우(1976), 이기문(1976), 박갑수(1976a, 1976b, 1979, 1984, 1985), 허웅(1977), 이응백(1984) 등이 있고, 북한의 말다듬기에 관한 연구로는 심재기(1988, 1995), 고영근(1989), 김무림(1989), 남기심 외(1989), 전수태 외(1989) 등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어순화 정책, 국어순화 운동의 성과 및 문제점을 비판적·반성적으로 고찰하거나(민현식, 2002; 이정복, 2003; 심지연, 2006; 박용찬, 2010; 김하수, 2011; 박종덕, 2015; 허재영, 2015 등), 국어 순화어 혹은 외국어(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지수 외, 2011; 탁성숙, 2014; 김미형 외, 2014; 조민하 외, 2015 등) 등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말다듬기에 관해서는 말다듬기의 내용을 고찰하거나(곽충구, 2001; 최희수, 2002; 홍사만, 2003 등), 말다듬기 운동의 역사와 과정을 더듬어 살피고, 그 성과 및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김기석, 2002; 이정복, 2014 등) 등이 이루어졌다.

[8] 주지하다시피 남한에서는 '국어순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는 '말 다듬기'라는 이름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고치고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9] 여기서 '대단위 결과물'이라 함은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순화어의 목록이 최소 1만 개 이상인 경우를

1991 년 국어문화사에서 발행된 ≪국어순화자료집≫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1977 년부터 1991 년까지 남한의 국어순화운동협의회와 국어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순화어'와 '1981 년 발행된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에 수록된 순화어'를 남한 사전의 제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어 남과 북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순화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0]. 그러나 '자료집'의 성격상 각각의 순화어 목록을 정련하여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북한 순화어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분석 연구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 이후, 1997 년 태학사에서 발행된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는 제목 그대로 김정일 시대(1995 년 당시)의 북한 규범(표준 발음, 띄어쓰기, 맞춤법), 순화어(말 다듬기), 문체론, 언어예절, 국어 교육의 실상과 조선말대사전의 특징을 확인하고, 1995 년 당시 국내의 북한어 연구가 김정일 시대의 북한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물을 담고 있다. 남북한 순화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국어사정위원회에서 1986 년에 편찬한『다듬은 말』의 수록 어휘 약 25,000 개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 부분이다. 이 자료를 통해 1986 년 북한에서 어떤 말들을 다듬었으며, 그것이 1992 년에 편찬된『조선말대사전』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순화어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 대단위 연구로는 2002 년 11 월 문화관광부에서 발간된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본래 남북한어 공동 순화를 위한 원칙과 실천적인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진 보고서이나, 이러한 원칙과 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순화어, 북한의 순화어, 그리고 남북한의 공통 순화어를 어종별, 단어구조별로 분석하고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같은 해 12 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은 이제까지의 연구가 언어적 이질성과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과는 다르게 '남과 북이 서로 같은 말로' 순화한 용어만을 추려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된다. 더욱이 '순화한 용어', '순화할 용어(즉, 순화 대상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 각각을 기준으로 정련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순화어의 의미적 계열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 권재일(2014)에서는 남북 언어 차이와 어휘 차이의

가리킨다.

[10] 다만, 공동 순화 대상어만을 추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된 순화 대상 어휘에는 남한의 순화한 말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북한의 다듬은 말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11] 예컨대,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정련한 목록에서 '가장자리'가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순화 대상어에 대한 순화어로 제시되어 있어 의미적 계열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다.

순화한 용어	순화할 용어(원어)	실려 있는 곳(출전)
가장자리	변연	조말86
가장자리	사이드보더(side border)	국연01
가장자리	쓰마(端)	국연97
가장자리	에지(dege)	국연99

유형, 남북한 어휘 다듬기 활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남북한이 어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와 의의를 논하였는데, 무엇보다 북한의 어휘 다듬기 활동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2006/2007 년판 ≪조선말큰사전≫에 실린 순화어의 일부 용례들을 소개하여 1986 년 이전과 이후에 다듬어진 말들 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남북한 순화어의 의미 표상 방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참조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순화어에 대한 비교 연구들은 주로 남과 북에서 각각 어떤 단어를 순화 대상어로 삼았는지, 그것을 순화한 결과가 형태적·의미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리고 특히 북한 순화어의 경우 그것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데 주목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이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순화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의미 표상 방식의 차이를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순화어에 내재한 남과 북의 대상 인식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2. 순화어와 의미 표상

남북한 순화어의 의미 표상 방식을 통해 해당 언어사용주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미 표상이 어떻게 언어사용주체의 인식과 관련을 맺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순화 대상어를 순화하는 과정과는 또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의미 표상과 언어사용주체의 인식이 맺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순화 대상어를 순화하는 국면, 다시 말해, 새로운 대상(혹은 개념)의 의미를 표상해 내는 국면에서 언어사용주체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유표화된다는 사실을 논의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2.1. 의미 표상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언어 기호가 개념과 연계되고, 이 개념이 그 언어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을 결정하며, '의미'는 바로 이러한 '언어 기호'와 '개념'과 '지시 대상'이 맺는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12]. 그런데 언어 기호가 개념과 연계되는 일은 언어 사용 주체가 자신의 정신 속에 있는 어떠한 표상(혹은 심리적 실재)을 개념과 연계시킴으로써 수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어

[12] 주지하다시피 의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의미의 의미(The Meaning of Meaning)'을 논한 Ogden & Richard(1923)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떤 단어의 개념적 의미는 결과적으로 언어 사용 주체의 정신적 표상을 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언어 사용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이와 같은 의미 표상이 그에게 내재해 있는 정신적인 것, 즉 심리적 실재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의미란, "객관적 대상의 개념적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적 내용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 사용 주체의 '해석[13]'을 포함하는 것(임지룡 외, 2016: 26)"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게 되면 동일한 지시 대상이 외부 세계의 물리적 사물로서 기능적 동일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미적으로 표상해 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지시 대상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표상해 내었다면 그러한 의미 표상 방식을 통해 그것에 대한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을 살펴보는 일 역시 가능해진다. 어떤 단어의 개념적 의미는 외부 세계의 물리적 사물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언어 사용 주체가 인식한 심리적 실재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4]. 또한 개념적 내용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해석)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지시 대상에 대한 언어 사용 주체의 의미 표상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5].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 표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단어의 의미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 원리, 곧 '기제(mechanism)'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서 단어의 의미를 표상해 내는 일이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논의했는데,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언어가 "인간 사고의 직접적인 산물인 동시에 인간의 인지 체계와 사고 과정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인지적인 특징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비유"이다(이종열, 2003: 21).

이제까지 비유는 "예술적 또는 수사적 목적을 위한 언어적 장치로 간주"되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법(technic)으로 여겨져 왔지만, 1980 년대 인지언어학적 관점이 도입됨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고를 나타내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정희자, 2004: 59). 즉, 인지적 관점에서 "비유는 언어 이전의 개념적 현상"이며, "우리의 경험과 사고를 확충하고 추론하는 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인지 기제"인 것이다(임지룡, 2015:14). 따라서 전통적 입장에서는 비유(figure of speech) 혹은 비유적 언어

[13] 이때의 '해석'은 '인식'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14]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두 단어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언어 사용 주체들에 의해 동일한 정신적 표상과 연계되었을 경우에만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15] 이러한 관점은 또한 코세리우(E. Coseriu, 1980)의 논의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코세리우(1980; 이정식,1998에서 재인용)는 언어 기호와 언어 사용 주체의 관계를 위해 '관용(norm)'을 설정하고 이것이 진정한 언어학의 고유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언어 기호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개별 단어, 특히 정제적 대상으로서의 단어는 언어 사용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해 하나의 텍스트성을 띠게 된다. 언어 기호와 언어 사용 주체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할 경우, 우리는 의미 해석이 정의에 기초하지 않고 언어 사용 주체의 '조명'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이정식, 1998: 149). 여기서 말하는 '조명'은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 역시 단어의 의미, 혹은 의미 표상에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이 개입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ative language)가 자구적 언어(혹은 문자적 언어 literal language)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고, 자구적 언어와는 다른 비유적 언어의 특성을 논하였으나 인지적 관점에서는 이 두 언어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며[16], 다만 이 둘의 관계는 새롭게 생성되는 비유와 죽은 비유가 정도성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과 같이 "의미적 정도성에 따라 일종의 범주적 확장 혹은 연장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다(이종열, 2003: 74).

요컨대, 단어의 의미를 표상해 낸다는 것은 언어 사용 주체가 자신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표상(심리적 실재)을 비유적 언어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와 같은 언어 사용 주체의 인지적 활동이 순화 대상어를 순화하는 과정과는 또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절을 달리하여 상론하기로 한다.

2.2. 순화어의 의미 표상 방식

언어 사용의 목적을 의사소통에만 둔다면 어떠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든 의사소통에만 충실하면 될 것이나 "우리가 외국어나 외래어의 남용을 경계하고 비속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심성을 순화하기 위함(민현식, 2003: 310)"이다. 국어 순화의 동기와 필요성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는 많은 논의들에서 국어 순화를 통한 '민족정신(국어 공동체의 정체성)의 확립', '민족문화의 발전' 등을 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17]. 또한 실제 국어 순화 작업을 수행한 문화체육부의 ≪일본어투 생활용어 순화집(1995)≫에서는 '우리말로 순화함', '원어의 뜻보다는 우리말에 쓰이는 뜻에 따라 순화함'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고,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에서도 고유어(토박이말)를 살려 쓰는 것을 국어 순화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18]. 이러한 원칙은 북한의 말 다듬기에서도 다르지 않다. 북한 국어사정위원회에서 공포한 ≪다듬은 말≫을 언어학적으로 분석 고찰한 박상훈 외(1986)에서는 어휘 정리의 첫째 방향으로 '고유어를 쓰는 것'을 들고 있다. 이 논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유어를 중심으로 어휘를 정리하는 것의 의의를 민족어의 특성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

[16] Evans, V. & Green, M.(2006; 임지룡 외, 2008: 308에서 재인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일상 개념인 '화'를 개념화하고 기술하는 방식이 본질상 상당히 은유적이며, 따라서 비유적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a. You make my *blood boil*. (너는 내 *피*를 *끓게* 만든다.)
b. He was *red with anger*. (그는 화가 나서 *빨개졌다*.)
c. She's just *letting off steam*. (그녀는 *울분*을 *풀고* 있다.)
d. Don't *fly off the handle*. (*자제심*을 *잃지* 마라.)
e. Try to *get a grip on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노력해 보라.)
f. He almost *burst a blood vessel*. (그는 화가 나서 거의 *혈관*이 *터질 지경*이다.)

[17] '민족정신의 확립'과 '민족문화의 발전'은 박갑수(1976:13-14)에서 국어순화의 필요성으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논의에서는 이외에도 '社會의 淨化', '國語改良과 言語活動의 改善'을 들고 있다.

[18] 물론 순화어 중에는 이러한 원칙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화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고려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 순화어를 생산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들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순화어는 일종의 정책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 우리 말의 어휘구성에서 고유어와 뜻이 꼭 같은 한자말과 외래어를 없애고 어휘체계를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민족어의 어휘구성에서 고유어가 차지하는 위치와도 관련된다. …(중략)… 이와 같이 고유어는 자체가 지니고있는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견인성있게 보존하고있기 때문에 단어체계의 질적상태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표식으로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고유어는 민족어발전의 전기간에 지배적인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면서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식별하는 본질적인 표식으로 된다. 오늘도 여전히 고유어는 우리 말 어휘구성에서 핵을 이루면서 우리 말 어휘발전의 토대로 되고있으며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더욱 풍부화하고 다양하게 발양시키기 위한 확고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박상훈 외, 1986: 13)

이러한 사실은 민족 고유의 생각과 말로 대상을 표현하려는 언어 사용 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남북 순화어 모두에 반영되어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본 연구에 주는 의의는, 순화어의 의미 표상 방식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을 살피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 어휘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그러한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 있다. 특히, “필요적 동기(need-filling motive)에 따라 기존어가 없기에 차용하게 되는 외래어(민현식, 1998: 97)” 및 외국어의 경우는 본래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대상(혹은 개념)을 순화하게 되는 것이이므로, 그 순화어에는 대상의 의미를 어떻게 표상해 낼 것인가와 같은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이 유표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외래어 및 외국어 순화의 의미 표상 역시 앞 절에서 논한 바 있는 ‘비유’를 주된 방식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일상사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표상해 내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인지 책략(cognitive strategy)’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여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미 경험한 바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임지룡, 1996: 4)”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의 방법은 남한의 순화어뿐 아니라 북한의 순화어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의미 표상의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박상훈 외(1986)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유적수법’을 외래어 순화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외래어 ‘케이프(cape)’, ‘롬파스(rompers)’, ‘본네트(bonnet)’를 각각 ‘날개옷’, ‘매미옷’, ‘꾀꼬리 모자’와 같은 비유의 방법으로 다듬음으로써 그 뜻이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비유의 방법으로 의미표현을 하면 직접 표현하는것보다 오히려 생동한 점도 있다. …(중략)… 례컨대 어린이들의 옷과 관련한 외래어 ≪케이프≫, ≪롬파스≫

등은 어린이들의 귀염성과 련결되는만큼 비유의 방법으로 그 특성을 나타내여 다듬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케이프≫를 ≪날개옷≫, ≪롬파스≫를 ≪매미옷≫으로 다듬었다. 이런 식의 비유는 그런 옷가지를 그 특성에 따라 정면으로 명명하여 다듬는것보다 그 뜻표현이 훨씬 파악이 있는것으로 되게 한다. 또한 ≪끈을 턱아래로 매는 전 없는 부인용 모자≫인 ≪본네트≫는 ≪꾀꼬리모자≫라고 비유적으로 산뜻하게 다듬었다. 이것도 그 모자의 특성을 정면으로 잡아서 명명하자면 꽤 힘들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런 비유적인 방법을 씀으로써 파악있는 대안을 얻을수 있었다. (박상훈 외, 1986: 113)

2.3.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선정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순화어의 의미 표상 방식을 대상으로 해당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남북한 공통 순화어, 그중에서도 외래어 및 외국어를 순화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해당 목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요구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의 북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남북한 언어 차이' 자료[19]를 기본 자료로 하여 [표 1]에서와 같이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외래어를 추출한 후, 남한의 순화어를 찾아 정렬하는 과정[20]을 거쳐 총 53개의 남북한 외래어 순화 목록을 확보하였다. 1차 추출 시에는 '브래지어(→가슴띠)'와 같이 의미 표상 방식이 일치하는 경우도 일단 포함하였으며, '도넛', '뮤지컬'과 같이 남한의 순화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을 제외하였다.

[표 1] 남북한 공통 순화 목록의 1차 정렬

연번	북한 언어	남한 언어	남한 순화어
1	11 메터벌차기	페널티 킥	벌칙 차기(→추출)
⋮	⋮	⋮	
7	가락지빵	도넛	순화어 없음(→제외)
8	가루젖	분유	

[19] 해당 자료는 남북한 언어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943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통일부 홈페이지의 북한정보포털 사이트(http://nkinfo.unikorea.go.kr/nkp/term/skNkLangCompare.do)에서는 남북한 언어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 943개 사례를 원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20] 남북한 언어를 비교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남한의 순화어를 별도로 찾아야 했으며, 이 작업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순화어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9	가리킴대명사	지시 대명사	
10	가마치	누룽지	
11	가무이야기	뮤지컬	순화어 없음(→제외)
12	가슴띠	브래지어	가슴띠(→추출)
⋮	⋮	⋮	

또한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앞서 추출한 53 개 목록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를 추출하여 33 개의 남북한 공통 외래어 순화 목록을 추가하하여 최종 86 개의 분석 대상 순화어를 확보하였다(순화어 전체 목록은 [부록] 참조)[21].

[표 2] 남북한 공통 순화 목록의 확보를 위한 추가 추출

선행연구	이은정(1991)	김민수(1997)	구본관 외(2002)	권재일(2014)
각 연구에서 제시한 순화어 목록 (시기)	-남한: 국어순화운동협의회와 국어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순화어 (1977-1991) -북한: <현대조선말사전>의 순화어(1981)	-남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국어순화자료집> (1990-2001)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대사전 1, 2>(1992)	-남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순화어(1999) -북한: <조선말대사전>의 순화어(1992)	-북한: 1986 년 이전 순화어의 일부 목록, 1986 년 이후 순화어의 일부 목록
본 연구에서 추출한 순	마네킹 (mannequin)	녹아웃(시키다) (knockout-)	게라(galley) 나이프(knife)	다다미 (tatami)

[21]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자료는 남북한 순화어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남북한 공통 순화어를 추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 대상 순화어를 추가한 것도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된 사례는 87개에 불과한데, 이처럼 남북한 공통 순화어가 많지 않은 이유를 구본관 외(2002)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수용 과정이 다르고, 순화의 역사와 성과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남한의 순화대상어 2600여 단어와 북한의 순화대상어 4400여 단어 중 공통되는 것은 약 198개에 불과하였다.

화어 목록	바이트(bite) 와셔(washer) 펀치(punch)	바리케이드(barricade) 바인더(binder) 사이드아웃(side out) 패스(pass)	드라마(drama) 드리블(dribble) 마스크(mask) 머플러(meffler) 스케일(scale) 스크린(screen) 스타트(start) 스토리(story) 스푼(spoon) 시럽(syrup) 커브(curve) 커프스(cuffs) 코너(corner) 콜드크림(cold cream) 크로스바(cross bar) 클립(clip) 파이프(pipe) 필드(field)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 발코니(balcony) 호크(<네>haak)
추출개수	4 개	5 개	20 개	4 개[22]

본격적인 순화어의 비교 분석 과정에서는 첫째, 의미 표상 방식이 온전히 일치하는 경우(유형 1), 둘째, 핵심적인 의미를 표상해 낸 방식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유형 2-1, 2-2),

[22] 이은정(1991), 구본관 외(2002), 김민수(2002)에서 추출한 목록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만을 추출하였다.

셋째, 순화 대상어가 다의어인 관계로 의미 표상이 달라진 경우(유형 3), 넷째, 외국어를 우리말로 단순 번역한 경우(유형 4)는 제외되었다. 다만, 단순 번역의 경우일지라도 그 번역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였으며, 번역한 사례가 남과 북 어느 한쪽에만 해당할 경우도 나머지 한쪽의 사례를 통해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을 살펴보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키지 않았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87 개 순화어 중 실제 분석 과정에서 제외된 사례(일부)

연번	순화 대상어	남한 순화어	북한 순화어	제외 유형
2	골키퍼(goal keeper)	문지기	문지기	1
60	커튼(curtain)	장막, 휘장	창가림막	2-1
21	메뉴(menu)	차림(표), 식단	료리차림표	2-2
22	몽타주(montage)	인물추정화	판조립[23]	3
63	코너플래그(corner flag)	구석깃대	구석기발	4

3. 남북한 순화어의 인지의미론적 고찰

인지언어학의 한 분야인 인지 어휘의미론(cognitive lexical semantics)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개념적 내용과 그에 대한 개념 화자의 인지적 해석을 망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 표현, 곧 단어의 의미 표상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실마리이며, 언어 표현과 의미 간에는 화자와 청자의 해석이라는 동적인 인지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임지룡 외, 2016: 28). 이 관점에서는 ‘바탕(base)’과 ‘윤곽 부여(profiling)’를 통해 의미 서술의 인지 작용을 설명해 내는데, 먼저 “서술의 바탕은 그 표현이 묘사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지 영역들을 일컬으며, 윤곽이란 그 바탕의 어떤 부분이 특이한 수준으로 드러나 초점으로 쓰이는 하부구조를 일컫는다(김명숙, 2005: 667).” 이러한 인지 어휘의미론의 관점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남북한 순화어에 나타난 의미 표상 방식을 ‘바탕’과 ‘윤곽 부여’를 중심으로 분석해 냄으로써 언어 사용 주체의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23]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을 가리키는 의미를 순화한 결과임.

3.1. 순화 대상어의 용도 및 기능에 대한 윤곽 부여의 차이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남북한 모두 순화 대상어의 '용도 및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윤곽 부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표 4] 대상의 용도 및 기능에 대한 윤곽 부여의 차이

연번	순화 대상어	남한 순화어	북한 순화어
3	나이프(knife)	<행정>칼, <미술>주걱칼	밥상칼
25	바이트(bite)	물리개	쇠칼
26	바인더(binder)	죔틀, 조임틀, 보관철	종이끼우개
35	센터링(centering)	문앞 주기	중앙으로 꺾어차기
81	프리킥(free kick)	자유축	벌차기

나이프(knife)의 경우, 남한에서는 일반어로서의 나이프는 순화 대상어로 삼고 있지 않으며, '행정'이나 '미술'과 같은 전문어로서의 나이프만을 순화 대상어로 삼고 있다. 행정 분야의 전문어로서의 나이프는 특별한 윤곽 부여 없이 '칼'로 의미 표상[24]을 한 반면, 미술 분야의 전문어로서의 나이프는 그 대상이 지닌 특정 형태(모양)에 대한 인지적 활성화를 통해 '주걱'에 윤곽 부여함으로써 '주걱칼'로 의미 표상을 해 내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특정 공간에 대한 인지적 활성화를 통해 그것이 사용되는 제한적 영역인 '밥상'에 윤곽 부여함으로써 '밥상칼'로 의미를 표상해 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 나이프는 '서양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칼'로 그 뜻이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밥상'은 그러한 사전적 정의에서도 유표화되지 않은 언어 사용 주체의 고유한 인식을 드러내는 매우 특징적인 의미 표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25].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이프는 남북한에서 모두 기존에 사용되던 '칼'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의미 표상에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바이트(bite)와 바인더(binder)는 핵심 의미에 대한 표상이 동일했던 나이프에서와는

[24]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나이프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이 그 자체로 대상물에 대한 윤곽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의미 표상의 과정에서 특별한 윤곽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25] 참고로 북한에서는 '果刀'를 '과일칼'로 순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나이프'를 '밥상칼'로 순화하는 것은 결합적 계열성을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지점이 포착된다. 즉, 바이트의 경우, 남한에서는 특정 부분을 고정시키는 데 쓰이는 '집게 도구'에 윤곽 부여함으로써 '물리개'라는 의미 표상을 해 낸 반면, 북한에서는 '(쇠를) 깎거나 자르는 도구'에 윤곽 부여함으로써 '쇠칼'로 그 의미를 표상해 내었다. 특히, 남한의 의미 표상 방식은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특정 형상을 활성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활성화는 북한의 의미 표상 방식에서는 유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바인더의 경우는 남한에서는 한데 모아 조이거나 꿰매게 하는 '틀' 혹은 '철'에 윤곽 부여함으로써 '죔틀, 조임틀, 보관철'이라는 의미 표상을 해 낸 반면, 북한에서는 '종이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든 도구'에 윤곽 부여함으로써 '종이끼우개'로 그 의미를 표상해 내었다는 점에서 핵심 의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견된다.

센터링(centering)과 프리킥(free kick)은 이 유형에 속하는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특정 분야에서의 '규칙'과 관계된다. 센터링의 경우 남한에서는 '목표 지점을 향한 연결 경로'에 윤곽 부여한 결과 '문앞 주기'라는 의미 표상을 해 낸 반면, 북한에서는 '목표 지점을 향한 동작 주체의 움직임'에 윤곽 부여하여 '중앙으로 꺾어차기'라는 의미 표상을 해 내고 있다. 또한 프리킥의 경우 남한에서는 '장애물이 제거되어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허용하는 상황'에 윤곽 부여하여 '자유축'이라는 의미 표상을 해 낸 반면[26], 북한에서는 '외부의 잠재적인 힘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윤곽 부여하여 '벌차기'라는 의미 표상을 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3.2. 순화 대상어의 모양, 형태, 상태에 대한 윤곽 부여의 차이

다음으로 살펴볼 유형은 남북한 모두 순화 대상어의 '모양, 형태, 상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윤곽 부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표 5] 대상의 모양, 형태, 상태에 대한 윤곽 부여의 차이

연번	순화 대상어	남한 순화어	북한 순화어
8	뉘앙스(nuance)	어감, 말맛, 느낌	뜻빛갈
17	마네킹(mannequin)	매무새 인형, 광고 인형	몸틀
24	스푼(spoon)	숟가락, 술, 양숟가락	오목숟갈
50	시럽(syrup)	착색 음료, 즙	진단물

[26] free kick을 우리말로 번역한 결과로 본다면, '자유축'이라는 의미 표상을 통해 '장애물이 제거되어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허용하는 상황'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뉘앙스(nuance)의 경우, 남한에서는 '미각적 대상'이나 '촉각적 대상'에 윤곽 부여한 결과 각각 '말맛'과 '어감, 느낌'으로 의미 표상을 해 낸 반면, 북한에서는 '시각적 대상'에 윤곽 부여한 결과 '뜻빛갈'로 의미 표상을 해 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제시된 뉘앙스의 정의에서는 남북한 순화어의 교차적 특징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뉘앙스(<프>nuance)

음색, 명도, 채도, 색상, 어감 따위의 미묘한 차이. 또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

≪조선말대사전≫

뉴앙스 =색조[1]

의미색채 (다듬은 말로) 뜻빛갈

색조[1] ① 광파의 진동수의 차에 따라 감각되는 색갈의 세고약함과 짙고연함 등의 차이

② 태도나 표현 등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기운이나 맛을 비겨 이르는 말.

위의 기술에 따르면, 남한의 사전에서는 '음색, 명도, 채도, 색상'과 같은 '시각'에 관계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사전에서는 '맛을 비겨 이른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각(맛)'에 관계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순화어에서는 시각적 윤곽 부여가 북한의 순화어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반대로 미각적 윤곽 부여는 남한의 순화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27]. 다만, '뜻빛갈'의 경우는 'nuance(북한식 표기: 뉴앙스)'가 아니라 '의미색채'를 순화 대상어로 삼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각적' 윤곽 부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스푼(spoon)은 특별한 윤곽 부여 없이 '칼'로 의미 표상을 했던 나이프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는 특별한 윤곽 부여를 하지 않은 '숟가락'이나, '그것의 전래되어 온 방식'에 윤곽 부여하여 '양숟가락'으로 의미 표상을 해 내었지만[28], 북한에서는 바탕에 이어 윤곽 부여 과정에서도 '(술 앞의) 특정 모양' 주목하여 '오목숟갈'로 의미 표상을 해 내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마네킹(mannequin)과 시럽(syrup)은 의미 표상을 위한 윤곽 부여의 차이가 이전 사례들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먼저 마네킹은 남북한

[27] 이러한 사실은 순화 대상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순화어의 의미 표상에 '참조적'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28] knife와 spoon의 순화어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모두 ‘사람’에 윤곽 부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남한에서는 ‘사람과 비슷한 대상’에 윤곽 부여하여 ‘인형’으로 그 의미를 표상해 낸 반면, 북한에서는 ‘사람을 본뜬 모형’에 윤곽 부여한 결과 ‘몸틀’로 의미 표상을 해 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시럽(syrup)은 남북한 모두 ‘마시는 것(음료)’에 윤곽 부여를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남한에서는 ‘그것의 시각적 특징’에 또한 윤곽 부여하여 ‘착색 음료’로 의미 표상을 해 낸 반면, 북한에서는 ‘그것의 미각적 특징’에 윤곽 부여하여 ‘진단물’로 의미 표상을 해 내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3.3. 그 외: 의미 표상 방식의 인지적 관습 차원의 문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은 바탕이나 윤곽 부여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그 결과로 얻어진 의미 표상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동일한 인지적 영역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의미 표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표상적 차원에 또한 인지적 관습이 개입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9].

연번	순화 대상어	남한 순화어	북한 순화어
1	갤리(galley)	교정쇄, 활자판 상자	판그릇
37	스카이 라운지(sky lounge)	전망쉼터, 하늘쉼터	전망식당
61	커프스(cuffs)	소맷부리 장식	소매기슭단
56	와셔(washer)	받침쇠, 똬리쇠	자리쇠

갤리(galley)와 와셔(washer)는 대상의 ‘모양 및 형태’를 바탕으로 그것이 보이는 특징적인 형태에 윤곽 부여를 했다는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 낸 의미 표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갤리는 남북한 모두 ‘대상물을 담아 내는 사각형의 물체’에 윤곽 부여하였지만 남한에서는 ‘(판)상자’로 그 의미를 표상해 낸 반면, 북한에서는 ‘(판)그릇’으로 그 의미를 표상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와셔는 남북한 모두 ‘다른 대상물을 받쳐 주는 모양’에 윤곽 부여하였지만 남한에서는 ‘받침’ 혹은 ‘똬리’로, 북한에서는 ‘자리’로 그 의미를 표상[30]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곽 부여를 통해 환

[29]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에서는 ‘어휘적 범주의 구성’뿐 아니라 그러한 범주의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판단에도 인지적 관습이 개입하는 것으로 본다.
[30] 북한의 ‘자리쇠’는 ‘座金’을 우리말로 번역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되는 유형물의 이와 같은 차이는 인지적 관습이 개입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스카이 라운지(sky lounge)와 커프스(cuffs)는 대상의 '용도 및 기능'을 바탕으로 특정한 방향이나 위치(공간)에 윤곽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그 결과로 얻어낸 의미 표상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스카이 라운지는 남북한 모두 '높은 곳(안쪽)에서 먼 곳(바깥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특정 방향성'에 윤곽 부여한 결과 '전망'이라는 의미 표상을 해 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31]. 그러나 각각 '쉼터'와 '식당'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또한 의미적으로 표상해 내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일한 대상을 통해 환기되는 특정 공간이 다르다는 사실은 해당 공간에 대한 언어 사용 주체의 관습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커프스(cuffs)는 남북한에서 모두 '아래팔이라는 특정 위치(공간)'에 윤곽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그 의미 표상 방식에서 남한은 '소맷부리'로, 북한은 '소매기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한 부분'을 '부리'로 인식하지만 북한에서는 '옷의 자락이나 소매, 가랑이 따위의 끝부분'을 '기슭'으로 인식한다는 것 역시 해당 언어 공동체의 관습이 반영된 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4. 나오며(생략)

[31] 남한의 순화어에서 '전망'은 '레이크 뷰(→호수 전망)', '마운틴 뷰(→산 전망)', '시티 뷰(→도시 전망)', '오션 뷰(바다 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뷰(view)'의 순화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뷰'의 형태적 결합이 없는 '스카이 라운지'를 '전망쉼터'로 순화했다는 것은 언어 사용 주체에게 '전망'의 개념이 의미적으로 유표화되었음을 방증한다.

<참고문헌>

곽충구(2001).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 11-1. 국립국어원, 5-27 쪽.

구본관·이해영(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1993).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5).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연구: 국어 사전과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7). 외래어 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국어연구소(1990).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Ⅲ. 한자어·외래어 편). 태양문화사.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권재일(2015). 남북한 어휘 단일화. 새국어생활 25-4. 국립국어원, 107-124 쪽.

김명숙(2005). 인지 의미론과 어휘 의미. 인제논총 20-1. 인제대학교, 664-675 쪽.

김민수 편(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김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민현식(1992). 북한문법에 대한 연구(1): <조선어문법)(1989)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숙명여자대학교, 9-35 쪽.

민현식(1993). 북한문법에 대한 연구(2): <조선어문법)(1989)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20 쪽.

민현식(1998). 국어 외래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2. 한국어의미학회, 91-132 쪽.

민현식(1999). 국어정서법연구. 태학사.

민현식(2002). 국어 순화 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 국립국어연구원, 205-251 쪽.

민현식(2003a). 국어 순화의 국어학적 연구;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2003-1-16. 33-214 쪽.

민현식(2003b). 국어 순화론; 남북의 언어와 한국어교육. 태학사, 281-343 쪽.

박갑수(1976). 국어 순화의 의의; 국어 순화의 방안과 실천 자료. 세운문화사.

박갑수(1984). 國語의 表現과 醇化論. 지학사.

박갑수(2016). 국어순화와 법률 문장의 순화. 도서출판 역락.

박상훈·리근영·고신숙(1986). 우리 나라에서의 어휘정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박창원 편(2003). 남북의 언어와 한국어교육. 태학사.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상). 동광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하). 동광출판사.

심지연(2006). 국어 순화어의 생성과 정착에 대하여.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159-180 쪽.

이기동 편(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이승재(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국립국어연구원.

이은정 편(1991). 국어순화 자료집. 국어문화사.

이정식(1998). 표상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2. 한국어의미학회, 133-153 쪽.

이정복(2014). 북한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159-191 쪽.

이종열(2003).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임지룡(1996).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분석. *국어교육연구* 28. 국어교육학회, 117-150 쪽.

임지룡·나익주·김동환 외 15 인(2015). 비유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임지룡·김동환·김옥녀 외 10 인(2016). 어휘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정희자(2004). 담화와 비유어. 한국문화사.
정희창(2015) 외래어 순화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어학* 67, 한국어학회, 89-104 쪽.
최상진·김진해(2006). 북한 '말다듬기 사업'의 한자어 관련 대응어 연구.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67 쪽.
최용기(2002). 통일 시대의 국어 순화. *한말연구* 11. 한말연구학회, 285-300 쪽.
최형용(2012). 순화어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36. 한중인문학연구, 127-159 쪽.
허재영(2015). 국어 순화 자료집의 문제점과 순화어 정비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57, 국어교육학회, 251-274 쪽.
허철구(1993). 남북한 국어 순화의 비교. *말과글* 54. 한국어문기자협회, 22-27 쪽.
홍사만(2004). 북한 문화어 어휘 연구: <조선문화어사전> 분석. 경북대학교 연구총서 04-01.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C. K. Ogden & I. A. Richards(1923/1926/1930/1936/1946/1949). The Meaning of Meaning.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김영수 역(1987). 의미의 의미. 현암사.
Coseriu, E.(1980). Textlinguistik: eine Einfuehrung, 3. Tuebingen ; 진익성 역(1995). 텍스트 언어학. 사회문화연구소.
Evans, V. & Green, M.(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The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역(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Evans, V.(2009). How Words Mean: Lexical concepts, cognitive models and meaning 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역(2012).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출판부.
Geeraerts. D.(2010). Theories of Lexical Seman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역(2013). 어휘의미론의 연구 방법. 경북대학교출판부.

박진희: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창의적 국어교육 미래 인재 양성 사업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9 동 408 호
08826
010-7192-1786
intensivejh@snu.ac.kr
민현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 동 422 호
08826
010-2078-0509
minhs@snu.ac.kr

[부록] 분석 대상 순화어(전체 목록)

연번	순화대상어	남한순화어	북한순화어	출처
1	갤리(galley)	교정쇄, 활자판 상자	판그릇	구본관외 (2002)
2	골키퍼(goal keeper)	문지기	문지기	통일부
3	나이프(knife)	칼, 주걱칼	밥상칼	구본관외 (2002)
4	네트(net)	그물	배구그물	통일부
5	네트터치(net touch)	그물닿기	그물다치기	통일부
6	노크(하다)(knock)	두드리다	손기척	통일부
7	녹아웃(시키다)(knockout-)	맥 못 쓰게 하다	완전넘어지기	김민수 (1997)
8	뉘앙스(nuance)	어감, 말맛, 느낌	뜻빛갈	통일부
9	다다미(tatami)	돗짚요, 돗짚자리, 왜돗자리	누비돗자리	권재일 (2014)
10	덤핑(dunping)	헐값판매/팔기	막팔기	통일부
11	드라마(drama)	극, 연극	극	구본관외 (2002)
12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	마른 세탁, 건식 세탁	마른빨래, 화학빨래	권재일 (2014)
13	드리블(dribble)	두 번 치기, (공)몰기	두번 몰기	구본관외 (2002)
14	레프트윙(left wing)	왼쪽공격수	왼쪽날개	통일부
15	로터리(rotary)	둥근거리, (원형)네거리	돌이판	권재일 (2014)
16	마네킹(mannequi)	매무새 인형, 광고	몸틀	이은정

		인형		(1991)
17	마스크(mask)	얼굴막이	얼굴가리개	구본관외 (2002)
18	머플러(muffler)	목도리, 머플러	목수건, 머리수건,목도리	구본관외 (2002)
19	매트(mat)	깔개	체조깔개	통일부
20	메뉴(menu)	차림(표), 식단	료리차림표	통일부
21	몽타주(montage)	인물추정화	판조립	통일부
22	미드필드(midfield)	중간지역	중간방어수	통일부
23	바리케이드(barricade)	방벽, 방어벽	쪽무이판	이은정 (1991)
24	바이트(bite)	물리개	쇠칼	김민수 (1997)
25	바인더(binder)	쥠틀, 조임틀, 보관철	종이끼우개	김민수 (1997)
26	백미러(back mirror)	뒷거울	후시창	통일부
27	발코니(balcony)	난간	내민대	권재일 (2014)
28	버라이어티쇼(variety show)	호화쇼	노래춤묶음	통일부
29	베란다(veranda)	쪽마루	내밈대	통일부
30	브래지어(brassiere)	가슴띠	가슴띠	통일부
31	블로킹(blocking)	(가로)막기	막기	통일부
32	사이드아웃(side out)	옆줄 벗어나기, 메김권교체	자리돌림	김민수 (1997)

33	서브(serve)	매겨넣기	쳐넣기	통일부
34	센터링(centering)	문앞 주기	중앙으로 꺾어차기	통일부
35	센터포워드(center forward)	중앙공격수	중앙공격수	통일부
36	스카이 라운지(sky lounge)	전망 쉼터, 하늘 쉼터	전망식당	통일부
37	스커트(skirt)	치마	양복치마	통일부
38	스케일(scale)	규모, 축척, 크기, 통	규모, 음계, 도랑	구본관외 (2002)
39	스크랩북(scrapbook)	자료 모음책	오림책	통일부
40	스크린(screen)	막, 영화, 화면	채눈	구본관외 (2002)
41	스타트(start)	시작, 출발	출발, 떠나기	구본관외 (2002)
42	스타 플레이어(star player)	인기 선수	기둥선수	통일부
43	스토리(story)	이야기, 줄거리	이야기줄거리	구본관외 (2002)
44	스파이크(spike)	강타	때리기, 륙상신	통일부
45	스푼(spoon)	숟가락, 술, 양숟가락	오목숟갈	구본관외 (2002)
46	스프레이(spray)	분무기	뿌무개	통일부
47	슬라이딩 태클(silding tachle)	미끄러져 덤비기	미끄러져 빼앗기	통일부
48	슬리퍼(slipper)	실내화	끌신, 방안식	통일부

49	시럽(syrup)	착색 음료, 즙	진단물	구본관외 (2002)
50	애니메이션(animation)	만화영화	그림영화	통일부

연번	순화대상어	남한순화어	북한순화어	출처
51	에스컬레이터(escalator)	자동계단	계단승강기, 자동계단	통일부
52	에필로그(epilogue)	끝말, 후기	맺음이야기	통일부
53	오버네트(over net)	그물넘음	그물넘기, 손넘기	통일부
54	오프사이드(off side)	진입 반칙	공격어김	통일부
55	와셔(washer)	받침쇠, 똬리쇠	자리쇠	이은정(1991)
56	이젤(easel)	삼각대	그림버티개	통일부
57	칼라(collar)	(옷)깃	목달개, 깃받이	통일부
58	커브(curve)	굽이, 굽은 길	굽이길, 굽인돌이	구본관외(2002)
59	커튼(curtain)	장막, 휘장	창가림막	통일부
60	커프스(cuffs)	소맷부리 장식	소매기슭단	구본관외(2002)
61	코너(corner)	구석, 모퉁이	구석, 모서리	구본관외(2002)
62	코너킥(corner kick)	구석차기	구석차기	통일부
63	코너플래그(corner flag)	구석깃대	구석기발	통일부
64	콜드 크림(cold cream)	기름 크림	기름크림	구본관외(2002)
65	크로스바(cross bar)	가름새	가름대	구본관외(2002)
66	클로즈업(close-up)	시선집중	큰보임새	통일부
67	킥오프(kick off)	먼저차기	첫차기	통일부
68	클립(clip)	종이집게, 틀집게	종이끼우개, 집개, 물개	구본관외(2002)
69	파운데이션(foundation)	밑화장(품)	분크림	통일부
70	파이프(pipe)	관, 대롱, 막대, 담뱃대	관, 서양식 담뱃대	구본관외(2002)
71	팔레트(palette)	갤판	갤판	통일부

72	패스(pass)	주기, 연결, 전하다	보내기	김민수 (1997)
73	팬터마임(pantomime)	무언극	몸짓극, 무언극	통일부
74	펀치(punch)	자름집게, 구멍뚫이	구멍뚫이	이은정 (1991)
75	페널티킥(penalty kick)	벌칙차기	11 메터벌차기	
76	페달(pedal)	발판	발디디개	통일부
77	페이크(fake)	속임수, 속임동작	속임동작	통일부
78	프라이팬(frying pan)	지짐판	지짐판	통일부
79	프레임(prame)	채둘레, 차체, 틀	흐렘	통일부
80	프롤로그(prologue)	머리말	머리이야기	통일부
81	프리킥(free kick)	자유축	벌차기	통일부
82	필드(field)	현장, 경기장	(경기장)마당	구본관외 (2002)
83	핸들링(handing)	손닿기, 손대기	손다치기	통일부
84	헤딩슛(heading shoot)	머리받아넣기	머리받아넣(놓)기	통일부
85	호크(haak)	걸단추	맞단추, 걸고리, 걸단추	권재일 (2014)
86	홀딩(holding)	머물기	머물기	통일부

中・日・韓 新漢語의 造語와 그의 交流

朴 甲 洙
(한국 서울대학교)

1. 서언

한・중・일 3 국은 흔히 한자문화권이라 한다. 고대의 중국은 선진문화의 나라로 한국과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한자의 전수요, 한자어를 이들 언어에 파급시킨 것이라 하겠다.

고대 중국의 殷(商) 나라에서는 갑골문(甲骨文)을 창시하였고, 이는 한자(漢字)로 발전하였다. 한자와 갑골문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들은 맥을 잇는 것이다. 갑골문의 음부(音符)는 周代 이후의 한자와 대응되어 은대의 언어가 뒷날 한어(漢語)의 조선(祖先)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牛島德次 외, 1979). 周나라는 殷을 멸망시켜 殷周 합체에 의해 "漢人의 文化圈"을 이루었으며, 영토는 周 일대(一代)에 거의 장강(長江)에까지 미치었다.

문자와 언어의 영향은 직접 접촉하거나, 전적(典籍)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며, 한자 및 한문과 접촉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문의 영향은 삼국시대, 특히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지명 등을 중국식으로 개정함에 의해, 그리고 조선조에 주자학(朱子學)의 도입으로 크게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應神天皇 15 년에 백제에서 아직기(阿直岐)가 일본에 건너가 황태자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그 다음해 역시 백제의 왕인(王仁)이 논어 15 권과 천자문을 일본에 가지고 가 한적을 학습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뒤 중세의 宋・元・明 때 한어(漢語) 및 한자문화와 직접 교섭을 가졌다. 이때 승려가 왕래하고, 무역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근세의 江戶幕府의 말기부터 명치유신(明治維新)에 걸쳐 중국과 접촉하였다. 명치유신 때에는 서양문물과 접촉하며 많은 신한어(新漢語)를 만들어 이들이 일본어에 넘쳐나게 하였다(杉本つとむ, 1982).

서구의 문명이 동점(東漸)하며 중국과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한・중・일은 서구의 신문명을 수용하는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근대(近代)라 한다. 그리고 이 시기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본다.

중국: ---> 근대 1840 ----> 현대 1919
일본: -----> 근대 1868 ----> 현대 1945
한국: ------> 근대 1894 ---> 현대 1945

근대에 접어들며 동양 삼국은 옛 유교문화를 탈피하고, 새로운 신문명을 추구하려 하였다. 그리고 서구어를 음차(音借)하거나, 번역(飜譯) 차용하였다. 서구어의 번역은 중국이 먼저 시작하였고, 이것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구 문화와 문명을 도입하며, 각종 서적을 번역하고 많은 한자어를 신조하였다. 일본에서는 개화기에 신제(新製) 한어가 양산되었다. 거기에다 청일전쟁(淸日戰爭) 이후 많은 중국인이 일본에 유학하여 이들 일제(日製) 신한어(新漢語)가 중국에 역수출(逆輸出)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고대에 한자어들이 일본에 전수되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 한자어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한자어의 교류(交流)가 일어나고, 역류현상이 전개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더욱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종래의 중국식 한자어가 일제 한자어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게 되었다.

한자어는 이렇게 근세에 들어와 중・일・한의 신한어가 교류됨으로 그의 정체성(正體性)을 의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중・일의 새로운 한자어의 조어(造語) 과정과, 이들의 영향, 상호 교류 과정을 살피고, 나아가 부분적이나마 우리 국어 어휘의 정체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동양 삼국의 문화적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 되는가 하면, 외국어로서의 한・중・일의 교육에도 기여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중국과 일본의 新漢語 造語

2.1. 中・日의 對譯 辭書와 譯書 출간

근대로 접어들며 서구 열강(列强)은 동양 삼국에 문호개방을 재촉하였다. 저들은 무력을 앞세워 유학(儒學)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쇄국의 문을 닫고 있는 이들 나라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에 접어들며 중・일은 다투어 서구문명을 수용하게 되었고, 서구의 학문을 번역 수용하게 되었다. 특히 淸日戰爭(1894-95) 이후 중국과 일본은 서구 근대문명을 이입하며 많은 서적을 번역・간행하였다.

중국에서는 아편전쟁(1840-42)을 기점으로 서구문명이 물밀어 들자 국가사업으로 번역에 손을 대었다. 청국(淸國) 정부는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의 일환으로 1862 년 北京에 同文館을, 1867 년에 上海 江南製造局 飜譯館을 개설하여 번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의 번역은 “중학위본(中學爲本) 서학위용(西學爲用)”이란 생각에 실학(實學)의 소개와 번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강남제조국 번역관(飜譯館)에서는 170 여종의 번역서가 출판되었는데, 그 내용은 군사, 공예, 물리화학, 수학, 천문, 생리, 정치, 역사・지리, 법률, 산업, 농업 등 광범한 범위에 걸친 것이었다(芝田稔, 1987).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중국제 신한어가 만들어졌다. 번역은 위의 두 기관 외에 천진의 北洋學堂, 상해의 南洋公學, 海軍衙門, 總稅務司, 時務報, 廣學會, 墨海書館 등에서도 행해졌다.

중국에서의 서구 문화 수용 및 소개는 외국의 선교사 등이 중국어를 학습, 서구어를 번역하여 일본에 비해 일일지장(一日之長)이 있었다. 사전은 1714 년 Basiel de Glemona 에 의해 "한자서역"(1714)이란 불어사전이 만들어졌다. 이는 M. de Guigness 의 Dictionnaire Chinois, Francais et Latin(1813)을 편집 출판한 것이다. 漢英字典은 주로 프로테스턴트의 선교사에 의해 1815 년경부터 만들어져 일본에서 많이 참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Robert Morrison 은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6 vol.)를 1815 년~1823 년 출판하였다. 이의 제 2 부가 한영사전, 제 3 부가 영한사전이다. 이후 많은 사전이 출판되었는데, 1844 년에는 S. W. Williams 의 An English Chinese Vocabulary, in the Court Dialect 가 나왔고, 1847~8 년 Medhurst 의 "英漢字典"이 나왔다. 1866~9 년에는 W. Lobscheid 의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with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 Hongkong(英華字典)(1866~9)이 나왔다. Lobscheid 는 1871 년 "한영자전"도 출판하였다. 그 뒤 1892 년에는 Herbert A. Giles 의 A Chines English Dictionary 가 출판되었다.

이른 시기의 번역어는 일률적이지도 않고, 합리성도 부족하여 별로 후대에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전류 특히 W. Lobscheid 의 "영한자전(英華字典)"과 Herbert A. Giles 의 "한영자전(漢英字典)" 등의 역어가 신한어로 수용되며,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森岡健二는 그의 "근대어의 성립"(1969)에서 柴田昌吉・子安峻이 "附音挿圖 英和字彙"(1873)가 번역어를 Lobscheid 의 자전에서 50%까지 빌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森岡健二 外, 1978).

번역서(飜譯書)는 1889 년 엄복(嚴復, 1853~1921)이 T. H. Huxley 의 "진화와 윤리"를 "天演論"이라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이 서구사상을 받아들인 최초의 번역서이다. 그는 이 밖에도 여러 권의 책을 번역하였다. Adam Smith 의 "국부론"을 "原富", Helbert Spencer 의 "사회학"을 "群學肄言", J. S. Mill 의 "자유론"을 "群己權界論", Edward Jenks 의 "정치학사"를 "社會通詮", Montesquieu 의 "법의 정신"을 "孟德斯鳩法意"라 번역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번역어는 오늘날의 표준 번역어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고전이 많이 활용돼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본다(芝田稔, 1987). 몇 개의 어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기 뒤의 괄호 속 용례는 현대의 것이다. 이들 용어는 별로 살아남은 것이 없다.

arithmatic 布算(산술), biology 生學(생물학), capital 母財(자본), chemistry 質學(화학), economics 計學(경제학), evolution 天演(진화), philosopher 名理家(철학가), politics 治制論(정치학), society 群(사회)

이 밖에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서적들도 나왔다. Alexander William 의 "수학계몽", Ricci Matteo 의 "기하원본", De Morgan 의 "대수학", Hobson 의 "博物新編",

Martin William 의 “格物入門”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박물신편”과 “격물입문”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다음 장에서 논의할 신한어의 교류를 하게 하였다. 이들 자료가 일본어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중국 지식인들은 일본 기행 자료를 많이 남겼는데, 여기에는 일본에서 새로 조어한 신한어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의 영향은 분명치 않으나, 중국어에 적잖이 영향을 끼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대표적인 기행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沈國威, 2012).

羅森(1854), 일본일기, 何如璋(1877), 使東述略幷雜詠, 王韜(1879), 扶桑遊記, 李筱圃(1880), 日本紀遊, 傅雲龍(1887-9), 遊歷日本圖經餘記, 엽경이(1889), 策鰲雜撫, 黃慶澄(1894), 東遊日記, 黃遵憲(1879), 日本雜事詩

日本人들이 처음으로 서구인과 접촉한 것은 16 세기에 일본에 온 선교사들이었고, 언어는 포르트갈 어였다. 그러나 언어적 영향은 어휘 수준이었다. 그 뒤에 長崎의 出島에 와 교역을 한 홀란드 인의, 난어(蘭語)와 교섭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江戶시대 말기가 되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며 서구어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번역어가 신조되었다.

일본의 德川幕府는 쇄국(鎖國) 정책을 폈다. 그런데 막부의 제 8 대 將軍 吉宗는 쇄국정책을 약간 풀어 양서(洋書)와 기독교에 관한 서적의 수입을 허락하였으며, 난학(蘭學)을 가르치게 하였다.

長崎의 통사(通詞) 중에는 우수한 사람이 셋 있었다. 中野柳圃는 문전(文典)을 번역, 학숙의 교재로 사용하였고, 馬場佐十郎(貞由)은 막부의 명령으로 번역국을 설립, 이의 책임자가 되었다. 吉雄權之助는 서양 의학을 吉雄塾에서 가르쳤다. 和蘭語 통사는 200 명이나 되었고, 이들 통사들의 번역은 잘 되어 있어 후세에 그 역어가 많이 남아 전한다.

衫田玄白과 前野良澤 등은 “해체신서(解體新書)”(1774)란 해부서를 번역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난학(蘭學)의 최초의 번역서이다. 번역은 長崎의 통사(通詞)와 江戶의 난학자들에 의해, 주로 한자어로 이루어졌다.

난학서는 “해체신서” 외에 “포술어선(砲術語選)”(1625) 등의 병학서(兵學書)가 간행되었다. 이 밖에 大槻玄澤의 “난학계제(蘭學階梯)” 등의 어학서, 司馬江漢의 “地球略說” 등의 지리서, 같은 司馬江漢의 “和蘭天說” 등의 천문서, 靑地林宗의 “氣海觀瀾” 등의 물리학서, 宇田川榕庵의 “사밀개종(舍密開宗)” 등의 화학서와 “植學啓原” 등의 식물학서 등이 번역 간행되었다(山田, 1979). N. 쇼메르 편 “厚生新編”(1975)이란 가정 백과사전과, “譯名字類”, “譯書字類” 등의 번역어 사전도 간행되어 한자어에 의한 번역어를 풍성하게 하였다(杉本, 1982). 이 밖에 난어학(蘭語學)에 대해서도 長崎의 中野柳圃, 本木良永, 馬場貞由 등이 활동하여 江戶의 난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품사 및 격(格) 등의 문법 술어는 明治 이전에 정역(定譯)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러한 난학시대는 명치 20 년을 전후하여 영학(英學)시대로 전환되는데, 이때의 많은

번역어가 현대 용어로 계승되고 있다. 기초적인 것은 과거의 용어를 계승하고, 明治維新 이후에는 신지식을 반영하는 번역어가 나오게 된다.

中村正直, 井上哲次郎, 西周 등은 영어로 된 서적을 번역하며 일본어 번역어를 고안해 내었다. 中村正直, 西周, 柴田昌吉・子安俊 등은 W. Lobscheid 의 "英華字典"의 용어를 많이 활용해 번역하였다. 中村正直은 "自助論(Self-Helf)"과 Mill 의 "자유지리(On Liberty)" (1872)를, 西周는 "생산성발온(生産性發蘊)"(1873), "백학연환(百學連環)"(1870), "이학(利學)"(1877) 등을, 井上哲次郎은 "哲學字彙"(1881)를 간행하였다. 井上哲次郎은 Lobscheid 외에 西周를 많이 참고하였다. 이때 坪內逍遙, 松島剛, 西山義行 등은, William Swington 의 만국사(1887) 등을 번역하였다. 品田太吉는 "セキスピア物語"를 번역하였고, Rev. W. White 는 "天路歷程"(1886)을 번역하여, 일본어에 신한어(新漢語)를 추가하였다(森岡健二, 1990). 余又蓀은 西周의 번역어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였는데 그는 余又蓀(1936)에서 西周의 중요 번역어로 26 개 단어를 들고 있다. 이는 대부분 현대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沈國威, 2012).

철학, 심리학, 윤리학, 미학, 언어학, 사회학, 인식론, 絶對, 선천, 후천, 주관, 객관, 형이상학, 세계관, 인생관, 인격, 범주, 공리주의, 聯想, 주의 表象, 感官, 진화론, 논리학, 권리

과학기술(科學技術) 분야는, 명치유신 이후에 서양을 수용한 인문분야에 비해, 약 100 년 빠른 난학시대를 통해 서양문명을 왕성하게 흡수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는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다. 이는 당시에 출판된 전문 용어집을 볼 때 쉽게 확인된다. 당시의 번역어를 살필 수 있는 이들 용어집을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佐藤喜代治 編, 1978b).

醫語類聚(1873), 英和藥品名彙(1873), 화학대역사서(1874), 영화수학사서(1878), 今昔對名表(1879), 洋和藥名字類(1881), 생물학어휘(1884), 공학자휘(1886), 광물자휘(1890)

이와 달리 인문・사회분야의 번역어를 살필 수 있는 용어집 및 사전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라틴七科字典(1877), 영화학예사전(1881), 민법응용자해(1888) 和蘭字彙( ), 吉田賢輔의 "英和字典"(1872), 柴田昌吉・子安峻의 "英和字彙"(1873), 井上哲次郎의 "訂增英華字典" (1883-84), 津田仙 등 역 "英華和譯字典"(1879) (井上 및 津田의 사전은 로브샤이드 사전의 개수본임), Hepburn 의 "新英語林集成"(3 판, 1886), 堀達之助 編 "英和對譯 袖珍辭書" (1867), "和譯英字彙"(1888)

2.2. 中・日 新漢語의 제작 과정

中・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8 세기 開化 과정에서 많은 신한어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들 한자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다음에 그 조어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접하게 되면 그것에 명명(命名)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미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음(原音)을 수용하는 원음차용(原音借用)을 하거나, 번역차용(飜譯借用)을 하게 된다. 서구문명이 중・일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원음차용(原音借用)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은 다 같이 한자로 표음(表音)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본에서는 처음에 한자로 표음을 하였고, 뒤에 假名로 표음하였다. 표음은 낱말 전체를 하는 방식과 그 일부를 표음하는 방식이 있다. 이들의 예를 몇 개씩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摩登(modern), 邏輯(logic), 賽因斯(science), 白蘭地(brandy), 沙發(sofa), 德謨克拉西(democracy), 窒扶斯(typhus), 煙士被理純(inspiration), 馬拉松(marathon), 引擎(engine), 普羅列搭利亞(proletariat), 布爾什維克(bol'sheviki), 華盛頓(washington), 巴里(paris)

일본 片假名: インク(墨水), インテリケンチァ(知識分子), クリスマス(聖誕節), セメント(水泥), ソプラノ(女高音), ダム(水庫), チーズ(乾酪), トマト(蕃茄), ニゥス(新聞), ネクタイ(領帶), バス(公共汽車), ブラッシ(刷子), ブルジョアジ(資本家), ピアノ(鋼琴), ビロード(天鵝絨), ホテル(飯店), ミシン(縫紉機), ラジオ(無線電), ワイシヤツ(襯衣)(佐藤喜代治 編, 1982a)

일본 한자어: 倶樂部(club), 德律風(telephon), 烟斯被里純(inspiration), 瓦斯(gas), 淋巴(lymph), 虎列拉(cholera)

부분 표음은 중국에서 지명, 인명 표기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는 생략하는 경우다. Los Angeles 羅城, San Francisco 桑港, Shakespeare 沙翁, Tolstoi 杜翁이 그 예다. 한자로 쓴 지명, 인명은 거의 중국에서 조어한 신한자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 原音借用에는 말소리와 뜻을 아울러 표기하는 음의차용(音義借用)도 있다. 중국어에서 “잉글랜드”를 “英國”, “로스앤젤레스”를 “羅城”, “유토피아”를 “烏托邦”, “비타민”을 “維他命(維生素)”, “나치스”를 “納粹黨”, “샌프란시스코”를 “桑港”, “크레무린”을 “克理母林宮”, “집”을 “吉甫車”, 셰익스피어를 “사옹(沙翁)”이라 하는 따위가 이런 것이다. 이들은 음차를 하면서,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원음에 그것이 나라(國・邦)나, 성시(城・府), 당(黨), 항(港), 궁(宮), 차(車), 노인(翁) 등임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

인 것이다.

원음차용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음역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가나(假名) 쓰기를 통해 자유롭게, 신사태(新事態)에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번역차용(飜譯借用)의 경우는 우선 직역어(直譯語)와, 의역어(意譯語)로 바꾸는 것이 있다. 의역어의 경우는 또 중국 고전(古典)을 활용하거나, 독자적인 역어를 창출하였다.

직역(直譯)을 하는 경우에는 단어, 또는 형태소의 의미에 따라 직접 번역하는 것으로, "Grund 元, stof 素(원소)", "Water 水, stof 素(수소)", "Salpeter 硝, zuur 酸, zilver 銀(초산은)"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그것이다. 직역어의 예는 N. 쇼메르 편 백과사전인 "厚生新編" 중의 小林義直의 "화학편"(1875)에서 화란어의 직역의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의역에서 중국 고전(古典)을 원용하는 방법은 중국이나 일본이 다 같이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옛 경전(經典)이나 불전(佛典)에 나오는 어휘나 구절을 활용해 조어를 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經濟"는 그 출전이 抱朴子에 보이는 말로,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을 economics 의 번역어로 사용한 것이고, "革命"은 역경(易經)에 보이는 말로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에서 "천명(天命)이 바뀌는 것", 곧 왕통(王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나 revolution 이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그것이다. organization 은 "紡織"의 의미에서 "組織"의 의미를, production 은 "생계를 세우는 수단으로서의 산업"에서 "生産作業"을 의미하게 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의미부여를 한 말로, 중국에서도 역수입하여 현재 상용되고 있는 말이다(佐藤喜代治 編, 1982a). 이 밖에 "感傷, 개조, 고통, 共和, 경감, 계급, 기일, 난잡, 貸借, 매매, 면회, 목축, 병사, 봉건, 사기, 사상, 소개, 상공, 식량, 養護, 언어, 연하, 외출, 운명, 융통, 절멸, 종순, 평화, 후일, 한계" 등도 일본에서 조어한 것으로, 중국의 고전에서 용례를 찾을 수 있는 신한어라 본다.

劉正埮・高名凱 외(1985)의 "漢語外來詞詞典"(1985)에도 중국 고전에 있는 말이라고 명시한 일제 외래어가 168 개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도 청조(淸朝) 말기에 대량의 양서를 번역하고, 많은 신어를 만들었는데, 이때 신어를 만들며, 원칙적으로 자국의 고전 어구를 찾아 번역어로 활용하였다. economics 를 "計學, 資生學", philosophy 를 "理學, 智學", sociology 를 "群學", physics 를 "格致學"이라 한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고전에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랐던지 대부분 사어(死語)가 되었으며, 여기에 일본 번역어가 대치되었다.(劉德有, 2006).

다음에는 독자적으로 의역(意譯)한 말이라 할 신조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Dunken(暗)-kamer(室)"를 "암실(暗室)"이라 하는 대신 "사진기"라 하는 따위가 이런 것이다. 먼저 일본에서 번역한 화란어의 역어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neutrale 중화, oplosbaar 가용・용해, isolern 遊離, overzuurd 과산・산화,

gezwavelde 硫化, gekoolde 탄화, phosphorische 인화, samenklevende 凝聚, verwantschap 親和力

명치 초기 魯文의 “西洋道中”(1880)과 “安愚樂鍋”(1871-2)에도 新漢語라 할 語彙가 많이 보이는데, 이들 가운데 다음(ア~サ行)의 예도 이러한 번역어이다(佐藤喜代治 編, 1982b).

.

緯度, 因果應報, 因循姑息, 英學, 영어, 英人, 英領, 圓球, 億長, 개항, 외국인, 外國流, 會主, 佳宴, 確證, 家畜, 합중국, 割烹店, 漢醫, 간단, 關目, 貴威, 牛店, 牛痘, 舊弊家, 嬌面, 虛名家, 금은화폐, 金無垢, 愚考, 군함, 戲述, 건강, 建言, 高名家, 國益, 國産, 刻砲, 五大州, 滑稽者流, 細圖, 刺傷, 縮圖, 塾生, 塾中, 축포, 種痘, 商家, 滋養, 商館, 蒸氣, 증기차, 증기기관, 小數, 少端, 小砲, 商法家, 上陸, 書畵帳, 食臺, 人車, 仁術, 신세계, 新席, 침대, 신문, 신문지, 人力車, 瞬間, 盛運, 西客, 西哲, 西洋家, 서양학, 서양인, 서양풍, 서양류, 석탄, 金 權, 船將, 賤身, 俗用

일본 어휘는 이러한 번역어에 의해 많은 한자어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 최초의 화영(和英)사전인, J. C. Hepburn 의 “A Japanese and English Dictionary(和英語林集成, 1867)를 통해 쉽게 확인된다. Hepburn 의 사전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판을 거듭함에 따라 어휘수를 대폭 증가하였다. 초판의 표제어는 20,772 어, 재판은 22,949 어, 3 판은 35,618 어로 어휘를 증보하였다, 따라서 초판에 비해 3 판은 어휘수가 14,846 어가 증가하였다. 제 3 판에 처음 표제어로 제시된 어휘를 J 項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松村明, 1983)

사물, 자치, 示談, 사업, 辭表, 事情, 시간, 사건, 실행, 사고, 인민, 人工, 인류, 인생, 辭書, 실제, 自炊, 實地, 자전차, 실물, 滋養, 자선, 여학교, 여자, 女史, 수업, 從事, 巡査

Hepburn 은 이러한 어휘의 증가에 대해 제 3 판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각 분야에 있어 일본어의 경이적, 또한 급속한 변화 때문에 이에 맞추어 증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 여기 화영(和英)의 일부로 1 만어 이상을 증보하였다. 의학・화학・식물 등의 각 부분의 순 전문어가 추가되면 좀 더 불었을 것이나, 여기서는 일상 일반의 것에 한정하였다. 이들 신어의 대부분은 한어이다.

Hepburn 은 증보한 한자어들을 일상 생활어라 하고 있다. 전문 분야의 용어를 증보하면 이보다 훨씬 그 수가 많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신문명을 수용하며, 얼마나 많은 신

한어가 조어되었는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중국에서도 의역(意譯)을 많이 하였다.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인 記號, 뉴스 新聞, 잉크 墨水, 추잉검 口香糖, 브르조아지 資本家, 프로레타리아 無産階級, 인테리겐처 知識分子, 인터내쇼널 國際, 생철 洋鐵, 튜립 鬱金香, 토나카이 馴鹿, 토마토 蕃茄, 솔 刷子, 버터프라이 胡蝶泳, 케이블 電纜, 배드민턴 羽球, 크리스마스 聖誕節, 버터 黃油, 치즈 乾酪, 시멘트 水泥, 소프라노 女高音, 스팀 暖氣, 택시 出租汽車, 비로드 天鵝絨, 와아셔츠 襯衫, 플라스틱 塑料, 라디오 無線電, 텔레비전 電視(佐藤喜代治編, 1982a).

이들은 대부분 현대 漢語로 쓰이고 있는 말이며, 일본 번역어와는 다른 것도 꽤 있다.

다음에는 형성 과정으로 볼 때 일본어에 한자를 먼저 적용하고, 뒤에 그것을 자음(字音)에 따라 음독하게 된 신한자어를 보기로 한다. 이는 일본의 고유어(固有語)를 한자로 쓰는, 소위 “아데지(當字・宛字)가 뒤에 한자어(漢字語)로 전용된 것이다. 이는 잘못이 빚어졌거나, 고의로 음독한 것으로, 일제 한어의 특수한 경우다. 이는 가차(假借)에 의한 조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かへりごと(返事), おほね(大根), でばる(出張), ものさわがし(物騷), ひのこと(火事)를 “ヘンジ, ダイコン, シュッチヤゥ, ブッサゥ, クゥジ”와 같이 읽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이 밖에 “尾籠, 兼日, 兼題, 立腹/腹立, 御前, 落居, 籠居, 心外, 心配, 出來, 安價, 安直, 遊女, 金打, 日當” 등과 같은 것도 있다(山本孝雄. 1979). 이와는 달리 아데지를 쓰고 화훈(和訓)으로 읽는 일제 한자어도 있다. 이는 조어 과정이 앞의 예와는 반대가 되는 경우이다.

山本孝雄은 이 밖에 “아데지(宛字)”의 예로, 한자어와 일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어도 들고 있다. “無造作, 合點, 無骨, 當番, 調印, 入念”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한자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어 조어 형식에 따라 일제 한어가 만들어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여기 덧붙일 것은 일본의 훈독어(訓讀語) 문제다. 이는 본래 한자어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형상 한자어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차용될 때 원음차용이 아니면 자음어(字音語)로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서 자음어(字音語)로 음독되는 근대 일본의 훈독 한자어는 신한어로 다루게 된다. 이들 자음어는 단어에 쓰인 문자를 가지고는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한자어가 상당히 많다. 그 중의 몇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貸方, 大型, 讀物, 物語, 浮世繪, 相手, 相場, 小型, 手續, 手形, 讓渡, 引渡, 組合, 場合, 差押, 取扱, 取締, 取立, 取消, 打消,

조어(造語)는 또 접사(接辭), 및 준접사(準接辭)라 할 성분이 붙어 파생어(派生語) 내지

복합어(複合語)인 신한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도 많은 신한어가 형성된다. 이들 신한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다 같이 쓰이고 있다.

이들 접사류에 해당한 것은 접두사(接頭辭)라 할 것과 접미사(接尾辭)라 할 것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접두사류: 內-(내심, 내의), 無-(무능, 무색, 무감각), 未-(미숙, 미등록, 미지수), 不-(불쾌, 부정맥, 불평등), 外-(외박, 외국), 眞-(진심, 진리), 初-(초등, 초면), 大-(대장부, 대인), 小_(소아, 소심)

접미사류: "-感(민감, 호감, 미감, 긴장감), -界(정계, 학계, 문화계, 금융계), -觀(주관, 객관, 인생관, 가치관), -期(정기, 임기, 전기, 夏期), -力(기억력, 군사력, 잠재력, 생산력), -論(문학론, 방법론, 유물론, 인식론), -法(귀납법, 변증법, 분석법, 해석법), -線(생명선, 전선, 일선, 차선), -性(가능성, 필요성, 민족성, 안전성), -式(신식, 양식, 일본식, 문답식), -炎(관절염, 늑막염, 장염, 폐렴), -率(능률, 안전율, 출산율, 확률), -的(과학적, 현실적, 대중적, 주관적), -点(초점, 관점, 요점, 출발점), -型(모형, 체형, 인간형?), -化(민주화, 공업화, 기계화, 다원화), -階級(유산계급, 양반계급), -問題(사회문제, 생산문제), -時代(원시시대, 철기시대), -社會(부족사회, 민주사회), -作用(풍화작용, 산화작용), -主義(자본주의, 고산주의) (劉德有, 2006)

이들 접사를 활용한 신한어는 대체로 일본에서 먼저 번역에 사용하고, 이를 중국어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용어도, 예외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일본의 번역어를 중국이 역수입하거나, 이들 조어법에 따라 중국에서 조어한 것으로 본다(劉德有, 2006)

다음에는 사자성어(四字成語)에 대해 보기로 한다. 한자어 사용이 유행하면서 명치(明治) 초년에는 한자어 가운데도 4 자로 된 소위 "四字成語"가 많이 쓰였다. 그리하여 宮武外骨은 "明治奇聞"에서 "명치의 초기에는 四字漢語의 時代였다. 관아의 포달(布達)이거나, 민간의 신문 잡지거나 즐겨 4 자 한어를 썼고, 법률용어에도 이것이 많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자(四字) 숙어(熟語)를 들고 있다.(松村明, 1983)

* 尊王攘夷, 開港佐幕, 大義名分, 王政復古, 大政奉還, 明治一新, 廢藩治縣, 文明開化, 自由平等, 民選議院, 君民同治, 信教自由, 神佛混淆, 舊弊頑固, 因循姑息, 肉食妻帶, 利用厚生, 權利義務, 公明正大, 人才登用, 不覇獨立, 新政厚德, 民權自由, 三權分立, 朝令暮改
* 有心故造(故意) 期滿免除(時效), 數罪俱發(병합죄), 再犯加重(累犯), 毆打創傷(傷害), 家資分散(破産)

이들은 반드시 신한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대부분이 당시의 시대상(時代相)을

반영하는 자음어(字音語)인 일제(日製) 신한어이다.

이상 신한어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제(日製) 신한어를 중심으로 신한자어를 살펴볼 때, 신한어는 원음차용, 번역차용, “아데지(當字・宛字)의 전용(轉用), 접사(接辭)에 의한 조어, 사자성어의 조성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中・日・韓의 新漢語 交流

3.1. 중국의 신한어 조어와 교류

서구문명이 동점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이들의 위세에 기가 죽었다. 그리하여 서구의 문화와 문명을 전면적으로 흡수하면서, 이들 어휘를 소수의 원음차용과 대량으로 번역차용을 하며 수용하였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淸日戰爭(1894-95) 이후,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뒤부터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다 같이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근대 국가를 지향하며, 서구어의 번역 작업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국(淸國) 정부는 1862 년 北京에 同文館을, 1867 년 上海 江南製造局에 번역관(飜譯館)을 개설하여, 번역 사업을 하게 하였다. 일본도 德川幕府의 제 8 대 將軍 德川吉宗 때 화란어 문전(文典)을 편수하도록 하는가 하면, 막부의 명령으로 번역국을 설립하여 馬場佐十郎으로 하여금 이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은 번역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이렇게 신한어(新漢語)를 개발하며 일방적인 전수(傳授)와 수용관계가 아닌, 교류(交流)를 하였다.

서구어의 번역은 중국이 먼저 시작하였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漢語를 배워 서구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위의 언급한 번역 기관이 개설되기에 앞서 많은 사전(辭典)들을 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교류의 면에서 볼 때는 특히 Lobscheid 가 편저한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with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1866-9)”이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일본의 사전 및 번역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구체적인 예로 명치 초기의 영문 번역은 이에 의지함이 많았다. 中村正直의 “自助論”과 “自由之理”(1872) 및 西周의 “利學”(1877) 등이 그러한 예다. 中村正直의 “자조론”에 보이는 “영화자전”과 일치하는 번역어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佐藤喜代治編, 1982b).

格言(maxim), 顯然トシテ(cleary), 保護(protection), 生命(life), 律法・法度(laws), 懶惰(idleness), 邦國(nation), 水平(level), 邦國(state), 治メ(govern), 治メ(rule), 忍耐(patience), 變更シテ(change), 成就シタリ(accomplish), 混亂(confusion), 黃金(gold), 生命ノ(vital), 學校(school), 材能(ability), 有用ノ(useful), 每日(daily), 艱難(difficulty),

財貨(wealth), 什物(furniture), 玻璃(glass), 無用ノ(useless), 偶然ノ事(accident), 定着シ(fix), 忽然トシテ(suddenly), 心ヲ用ヒテ=用心(carefully), 客(visitore), 磋キタリ(polish), 友(friend), 機會(opportunity), 考究(investigation), 樹林(forest), 愚人(fool), 黑暗(dark), 燈(lamp), 學習(study), 天文ノ(astronomical), 器(instrument)

또한 明治 초기에 출판된 英和字典類도 Lobscheid 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森岡健二(1969)는 1872 년 이후 출판된 吉田賢輔의 "英和字典"(1872), 柴田昌吉・子安峻의 "英和字彙"(1873) 등은 모두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후자가 역어의 50%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芝田, 1987). 또한 Lobscheid 자전의 번역본인 津田仙 등의 "英華和譯字典"(1879) 및 井上哲次郎의 "訂增英華字典"(1883~84)이 출판되는 등 Lobscheid 자전이 일본어 내지 일본 英學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중국에서도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 서적들이 많이 나왔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간행된 Hobson 의 "博物新編", Martin William 의 "格物入門" 등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신한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山田孝雄, 1979).

* 共和, 신경, 腺, 骨膜, 虹彩, 후두, 引力, 重力, 원심력, 구심력, 속력, 탄력, 압력, 分子, 重心, 氣孔, 기압, 水壓, 지구, 衛星, 花梗, 單葉, 複葉 葉柄, 花粉, 柱頭, 광선, 분위기, 탄소, 산소, 탄산, 질소, 수소, 한난계, 전분, 섬유/ 철학, 문학, 화학, 물리학, 인류학/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공법, 소송법
* 輕氣球, 증기, 電氣, 현미경, 망원경(천리경), 천왕성, 해왕성, 수성암, 화성함, 空氣
* 신문지, 잡지, 회사, 은행, 簿記

이렇게 중국에서는 淸末 근대화의 초기에 조어한 신한어(新漢語)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명치 초기에 이를 수용하고, 영향을 받으며, 자국어를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아갔다.

3.2. 일본의 신한어 조어와 교류

일본은 옛날부터 외국어라면 중국어 외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室町時代 말 서구인이 도래하여 처음으로 포르트갈 어가 일본어에 외래어로 들어왔다. 이어서 홀란드와 교역을 하며 그 영향을 받았다. 江戶시대 말기부터 明治시대에 걸쳐 일본은 서구의 문물 수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번역 및 출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어에는 서구어를 번역한 신한자어가 범람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당시의 일본의 지식인은 한자・한어에 대한 교양이 풍부하였고, 이들의 번역은 중국의 지식인에게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문체로 글을 썼다. 그리하여 일본의 번역서는 중국에서 많이 읽혔고, 또한 광범한 분야에 걸쳐 번역이 행해졌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의 "신민총보"(2 호, 1902. 2. 23.)가 잘 전해 준다.

우리나라의 當務에 급한 것이 民智를 여는 것만한 것이 없고, 민지를 여는데 譯書만한 것이 없으며, 역서는 일본문의 便捷만한 것이 없다.

이는 중국인이 지식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새로운 학문을 전하는 역서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역서라면 일본어로 된 것이 가장 익히기에 편하다고 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의 정치가요, 사상가인 梁啓超는 중국에서 영어영문을 중시하였으나, 이에 통하고, 학술・사상을 중국에 수입한 사람이 거의 없음을 개탄하고, 서구문명의 이해는 일본에서 배우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佐騰喜代治 編, 1982a). 그래서 민지(民智) 개발이 국가 당면의 급선무이므로 중국에서는 일본 서적의 번역이나 중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러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청일전쟁 이후 몇 만이라는 중국인이 일본에 유학을 하고 귀국해 일제 번역어가 중국에 확산되었고, 자국의 번역어를 밀어내고 일제 신한어가 대체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한어가 유입되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신한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역류(逆流)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역류현상은 명치 10 년 경부터 나타난다.(陳舜臣 外, 1972).

일본에서는 난학(蘭學)시대 이래 부지런히 신한어를 만들어냈고, 그 뒤 영학(英學)시대에 들어와서는 홀란드어를 매개로 하여 영어를 이해하였고, 한어가 영어를 이해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였다. 영학시대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Lobscheid 의 자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에서는 영어 사전과 번역서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J. C. Hepburn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 Japanese and English Dictionary(和英語林集成, 1867)"를 간행하여 판을 거듭하며 어휘를 증보하였다. 신조된 신한어가 수 없이 많아 판을 거듭하며 증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전문어는 증보하지 않았는 데도 말이다. 생활어가 그렇게 증가했다는 말이다. 신한어가 수천 수만 어에 이른다고 할 정도이다.(陳舜臣 外, 1972, 劉德有, 2006). 高島(2017)는 아무리 신한어를 들어도 끝이 없다며, 江戶시대 이전의 어휘를 매거하는 쪽이 쉬울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일본의 번역어는 이런 과정을 겪으며 급속도로 발전, 그 어휘를 불려나갔다. 이러한 일본어가 중국어에 유입된 것은 明治 初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어의 역류(逆流) 현상은 근대후기(近代後期)인 1895 년서부터 1919 년 사이의 문헌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한어의 역류현상에 대한 고찰은 우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余文蓀은 西周가 만든 번역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王立達은 “현대 중국어 속의 일어 유래 어휘”(1958)을 발표하였고, 高名凱와 劉正埮은 “現代漢語外來詞研究”(1958)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외래어 연구는 금기시되어 1959 년 북경사범학원의 “五四以來漢語書面語言的變遷和發展”을 끝으로 휴면 상태로 들어갔다. 그 뒤고 1984 년 劉正埮・高名凱・麥永乾・史有爲 등이 편해 “漢語外來詞詞典”(商務印書館・上海辭書出版社, 1985)를 간행함으로 일제 신한어의 영향은 크게 정리되었다. 여기에는 沈國威(2012)에서는 일본어 차용어사가 892 개 수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昆布”를 제외하여 891 개로 본다. 이 밖의 외래사 자료로는 또 “辭源”(商務印書館, 1931)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일제 신한어의 역전(逆轉)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성과가 중국 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당시 중국의 풍조가 일본을 따라 배우려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조어가 많으며, 어휘 구조를 구문구조에 따라 조어하여 번역어의 구조가 어색하지 않으며, 수만 명이란 일본 유학생이 일제 신한어를 모국에 유입시켰고, 신지식에 대한 일본의 서적이 많이 번역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沈國威, 2012)

그러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漢語外來詞詞典”(1985)을 중심으로 중국에 유입된 한자어사의 영향, 내지는 교류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의미의 면과 형태적인 면, 다시 말하면 조어의 면이란 양면의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高名凱・劉正埮은 이들 외래사들을 25 가지로 분류한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번잡하여 분류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沈國威(2012)에 따라 10 개 분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이에 따른 양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를 빈도순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기타 143 어 ②정치・경제・법률 등 정치 분야 121 어, ③물리・화학・수학・지리학 등 자연과학 분야 117 어, ④철학 분야 107 어, ⑤교육・의료위생・체육 등 교육 분야 106 어, ⑥문학・예술・음악・조형・고고학 등 인문 분야 82 어, ⑦ 경제・경제활동 등 경제 분야 80 어, ⑧공업, 농업 등 생산활동 및 기술 관련 분야 등 광위의 공업 분야 74 어, ⑨군사 관계 분야 49 어, ⑩종교 분야 12 어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타 분야가 가장 빈도가 높으나, 기타를 제외할 때 ①정치분야, ②자연과학 분야, ③철학 분야, ④교육 분야, ⑤인문 분야의 순으로 순위가 빠르다.

다음으로 형태(形態), 다시 말해 조어 구조를 볼 때, 2 음절의 신한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한자어는 본래가 단음절(單音節)의 형태로, 그것은 형태소(形態素)인 동시에 단어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소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상(事象)과 개념이 다양해져 1 음절의 형태소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어, 형태소의 결합에 의한, 2 음절 어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신한어도 2 음절로 조어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

다. 특히 일본에서는 모방심리에 의해 2 음절의 한자어를 양산한 것으로까지 본다(高島俊男, 2017). 이러한 말이 중국어에 유입되어 중국어에 보다 많은 2 음절의 신한어가 생겨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에 중국에서는 번역차용을,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원음차용을 많이 하여 원음차용어가 많아졌다. 물론 이는 상대적인 표현이다. 원음차용은 문자 그대로 조어라고는 할 수 없다. 생략이나 혼종어(混種語)의 경우는 조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능한 한 화란어를 번역 차용하였다. 생활 습관이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주일(一週日)"이란 개념을 번역하여 그것이 정착하기까지에 반세기가 걸렸다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아데지(當字)와 훈독어의 자음어화(字音語化)는 언어의 구조상 결과적으로 원음차용 형식을 지닌다. 이는 본래 한자어가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신한어를 증가시키는 것이 된다. 접사를 활용한 신한어의 조어, 및 사자성어의 양산 또한 중・일의 한자어를 증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형태적인 면에서 언급해야 할 의역어(意譯語)의 문제는 중・일의 조어에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특수성이 있다. 소위 중국의 고전(古典)에 있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조어법은 중국이나 일본이 다 같이 쓰고 있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독자적 발상(發想)에 의해 신한어를 조어하는 것은 개성적인 것이라 하겠다. 고대 한어를 활용한 신한어는 그 용례가 꽤 많아 180 개쯤 된다. 이들 용례 가운데 초성이 우리말로 "ㄱ~ㄷ"인 어휘의 예를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간사(干事), 강령(綱領), 강습(講習), 견인차(牽引車), 경비(經費), 경제(經濟), 경제공황(經濟恐慌), 경제학(經濟學), 계급(階級), 계획(計劃), 공수동맹(攻守同盟), 공화(共和), 과도(過渡), 과목(科目), 과정(課程), 광언(狂言, kyogen), 교수(敎授), 교육학(敎育學), 교제(交際), 교통(交通), 교환(交換), 국체(國体), 구류(拘留), 구체(具体), 군국주의(君國主義), 군적軍籍), 군수품(軍需品), 규범(規範), 규칙(規則), 기관(機關), 기록(記錄), 기분(气分), 기사(騎士), 기질(气質), 낭인(浪人), 노동(勞動), 노동자(勞動者), 노동조합(勞動組合), 논리학(論理學), 능력(能力), 능률(能率), 단행본(單行本), 대언인(代言人) lawyer, 도구(道具), 도서관(圖書館), 독점(獨占), 동정(同情), 등기(登記)

이에 대해 독자적인 의역어는 고전 한어를 바탕으로 한 어휘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용례가 많아 무려 671 개나 된다. 이의 예는 수적으로 많아 우리말로 "ㄱ" 초성을 가진 어휘만을 보아도 다음과 같이 많다.

가결(可決), 가극(歌劇), 가단주철(可鍛鑄鐵:malleable cast iron), 가명(假名), 가무기(歌舞伎), 가분수(假分數), 가상적(假想敵), 가정(假定), 각광(脚光), 각본(脚本), 각서(覺書),

간단(簡單), 간부(干部), 간선(幹線), 간수(看守), 간접(間接), 간헐열(間歇熱), 간헐천(間歇泉), 간호부(看護婦), 감성(感性), 감정(鑑定), 강단(講壇), 강사(講師), 강연(講演), 강제(强制), 강좌(講座), 개괄(槪括), 개념(槪念), 개략(槪略), 개산(槪算), 개입(介入), 개정(改訂), 개편(改編), 객관(客觀), 객체(客体), 갱목(坑木), 거두(巨頭), 거성(巨星), 거장(巨匠), 건축(建築), 검파기(檢波器:detector), 견지(堅持), 견습(見習 minarai), 결산(決算), 결핵(結核), 경공업(輕工業), 경관(警官), 경기(景氣), 경기(競技), 경찰(警察), 경험(經驗), 계기(契機), 계수(係數), 계열(系列), 계통(系統), 고로(高爐: blast furnace), 고리대(高利貸), 고사포(高射砲), 고장(故障), 고정(固定), 고조(高潮), 고주파(高周波), 고체(固体), 공간(空間), 공립(公立), 공명(共鳴), 공민(公民), 공보(公報), 공복(公僕), 공산주의(共産主義), 공소(公訴), 공업(工業), 공영(公營), 공인(公認), 공채(公債), 공칭(公稱: nominal), 공판(公判), 과학(科學), 관계(關係), 관념(觀念), 관점(觀點), 관조(觀照), 관측(觀測), 광고(廣告), 광년(光年), 광선(光線), 광의(廣義), 광장(廣場), 교감신경(交感神經), 교과서(敎科書), 교양(敎養), 교착어(膠着語), 교향악(交響樂), 교훈(校訓), 구축함(驅逐艦), 국고(國庫), 국교(國敎), 국립(國立), 국사범(國事犯), 국세(國稅), 국제(國際), 군부(軍部), 궁도(弓道), 권위(權威), 권익(權益), 권한(權限), 귀납(歸納), 극복(克服), 극장(劇場), 근무(勤務), 금액(金額), 금융(金融), 금패(金牌), 금혼식(金婚式), 긍정(肯定), 기계(機械), 기관포(機關砲), 기독(基督), 기독교(基督敎), 기밀(氣密), 기사(技師), 기선(汽船), 기수(旗手), 기업(企業), 기적(汽笛), 기조(基調), 기준(基準), 기지(基地), 기질(基質), 기체(氣體), 기호(記号), 긴장(緊張), 길지(吉地:下馱)

중국에서 차용한 의역어는 고전을 많이 활용해 신한어를 조어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발상에 의한 신한어가 많이 조어되었다. 그리고 직역어와 의역어의 관계도 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의 발상에 의한 번역어가 많이 중국에 유입되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원음차용은 예를 들지 않았는데, 서양 외래어와 일본의 광의의 가차어(假借語)가 원음차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음차하고 있는 어휘는 40 개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이 소위 일본에서 소위 “外來語”라 하는 것이 중국에 유입된 것이다.

加農炮: kanoho, 加答兒: kataru, 加非: kohi, 健質亞那: genchiana, 古柯: koka, 古加乙涅: kokain, 俱樂部: kurabu, 規那: kina, 規尼涅: kinine, 金剛石): konggoseki, 金糸雀: kanaria, 僂麻質斯: ryumachisu, 哩 miru, 糎:sench-metoru, 碼 yado, 粍 miri-metoru, 目: me, 小夜曲; sayo-kyoku, 安質母尼: anchimoni, 奥巴桑: obasan 大娘, 沃素: yoso, 瓦: guramu, 瓦斯: gasu, 淋巴: rinpa, 丁幾: chinki, 曹達: soda, 窒扶斯: chifusu, 呎(foot): futo, 粁: kilo-metoru, 瓩: kilo-gramu, 天鵝絨: birodo, 天主: tenshu, 吋: inchi, 襯衣:

shirt, 炭酸加里: tansan-kari<음,의>, 炭酸瓦斯: tansan-gasu<음,의>, 探海灯: tansho-to, 噸: ton, 虎列剌: korera

이상 “漢語外來詞詞典”을 중심으로 중국에 유입된 일제 차용어를 살펴보았고, “辭源”의 차용어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에 “辭源”에 수록된, “漢語外來詞詞典”에 수록되지 않은 차용어만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森岡健二 外, 1978).

免除, 大工, 대통령(대총통), 寒天(洋菜), 한난계(寒暑表・검온표), 후견인, 心配, 호주(가장), 지점(분점), 支配, 고장, 요리(烹飪), 晴雨計(풍우표), 안내, 注文, 澤山, 産婆(穩婆), 番地, 登錄(註冊), 看板, 窒素(淡氣), 競賣(拍賣), 백묵(분필), 興行, 調製, 弁當, 郵便, 配達

이렇게 中・日 新漢語의 交流 내지 영향은 상호적이었다. 양국의 관계는 초기에는 중국이 일본에,, 명치 10 년 이후 역전되어 일본이 주로 중국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일본의 신한어가 중국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沈國威(2012)의 지적처럼 이는 사전류의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결과이고, 중국의 신한어가 일본어에 미친 영향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월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3. 한국의 신한어 조어와 교류

한국에서도 다소간의 신한어가 조어되고 교류되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한어는 많이 신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중・일의 신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조선조는 쇄국정책(鎖國政策)을 폈고, 근세에는 열강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었는가 하면,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자국어를 잃고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비극을 겪어야 하였다.

1876 년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에 의해 개항(開港)을 하게 된 조선은 주로 청일(淸日)의 각축장이 되었다. 신문명은 중국과 일본을 통해 간접 수입되었다. 그리고 이 신문명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말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된 말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통용되는 어휘의 90%는 일본에서 번역 내지 조어된 어휘라고까지 본다(박영섭, 1995). 그것도 그럴 것이 개항 이후 1910 년 한일합방(韓日合邦)이 되어 일본의 세력 아래 놓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신한어는 조어, 및 교류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초점이 놓인다. 이에 조어 및 그 과정에 대해 앞에서 따로 살펴보지 않았기에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어와의 접촉은 壬亂때부터 있었다. 宣祖大王實錄에는 방을 걸어 이때 우리의 도성에 염습(染濕)된 왜어(倭語)를 통금하였다고 한다(박갑수, 2016). 일찍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조선통신사들의 일본어 내지 신한어가 소개되고 있

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본의 신한어가 우리말에 수용되게 된 것은 19 세기 90 년대, 곧 갑오경장(甲午更張) 전후라 할 수 있다. 물론 1980 년대에 일부 일본 유학생이 있었고, 상무(商務)나 공무로 일본에 출입하기도 하였으나, 신한어를 수용할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다. 서구문명의 수용은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청나라, 및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해진 뒤부터이다. 이때의 개화서적으로는 "만국공법, 조선책략, 박물신편" 등 많은 것이 있었다. 중국의 魏源의 "海國圖志"와, 청나라 참찬관(參贊官) 黃遵憲의 "조선책략"이 소개되고,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이 번역・간행되는가 하면, 헐버트의 "사민필지(四民必知)" 등이 간행되며 서양의 문물 제도에 관한 신한어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1895)과 같은 국한혼용의 계몽서도 간행되었다. 이는 福澤諭吉의 "西洋事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또한 1919 년까지의 초기의 사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 가운데 리델의 "한불 뎐"(1880)은 중국식 신한어가, James S. Gale 의 "한영 뎐"(1897)은 일본식 신한어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형철, 1997).

푸칠로, 노한사전(1874), 리델, 한불자전(1880), 언더우드, 한영・영한자전(1890), 다블뤼, 나한사전(1891), 스코트, 영한사전(1891), 게일, 한영사전(1897), 알레베크, 법한사전(1901), 일어잡지사, 일회화사전(1906), 柿原治郎, 일한いろは사전(1907), 존스, 영한자전(1914), 船岡獻治, 鮮譯日語大辭典(1919)

한편 "한불자전"은 구교(舊敎)의 신부들이 편찬해 구교와 관련된 어휘가 많고, "한영자전"(1897)은 신교의 목사들이 편찬하여 신교와 관련된 어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불자전"은 정치관계 어휘들이 거의 실려 있지 않은데, 이는 정치관계 어휘들이 대부부분 일본계 한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그간의 신문류나 교과서등에 쓰인 신한어는 "한영자전"(1987)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문학작품 및 교양서적도 많이 번역 출간되었다. 1895 년 게일의 "텬로역뎡"이 간행되었고, 학부의 편집국에서 편찬한 "영국사요"(1896), "중일약사"(1898), "미국독립사"(1899) 등 역사서가 많이 출간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영어로 된 것이다. 그리고 청말, 중화민국 초의 정치가요 사상가인 梁啓超의 "월남망국사"(1906, 및 1907)와 "中國魂"(1907, 1907) 등이 거듭 출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번역어는 중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여기 덧붙일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고, 신문・잡지가 창간되어 많은 신한어가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식 학교는 1886 년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창설되었고, 같은 해에 최초의 관립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이 설립되었다. 1894 년 학교는 대폭적으로 학제 개편이 단행되었으며, 이들 학교는 근대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대한제국 말기부터 정부에서 편찬한 교재를 학교에 공급함으로

신한어가 획기적으로 보급되었을 것으로 보게 한다.

그러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신한어의 영향 및 교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단일음절(單一音節)의 한자어의 많은 등장을 볼 수 있다.

* 是故로 古聖이 曰 孝란 者 親을 事 오. 悌란 者 長을 事 오.
  慈란 者 衆을 事 라 시니라 <소학독본, 1985>
* 孔子ㅣ曰 天이 物을 보 반다시 그 材를 因 야 篤 지라<소학 5>

본래 한어는 1 음절어이다. 따라서 신한어에도 앞의 예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1 음절어가 많으며, 특히 용언의 경우 어근이 1 음절의 한자어로 된 것이 많았다.

둘째, 2 음절어의 범람을 보게 한다.

2 음절 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高島(2017)는 일본의 2 음절어의 조어에 대해 "원숭이 흉내"라고 비하하고, "일본어는 2 음절이 연결되어 안정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한자 2 자를 결합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 중국인이 하는 것을 고급이라 생각하여 원숭이 흉내를 내 온 타성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 하고 있다. 이러한 lf 제 신한어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도 2 음절어가 범람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어에는 없는 일제 신한어와 같은 어휘가 한국어에는 무수하게 많다.

이는 한일 공통어, 말을 바꾸면 일제 신한어가 한국에 많이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일어 수용 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국어의 특징이라 하겠다. 중국어와는 달리 일제 신한어가 한국어에 크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하며, 韓日語의 교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음에 이들 예 가운데서 "あ, か" 2 行의 신한어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신한어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文化廳, 1969).

暗記(背), 案內(嚮導, 介紹), 育成(培養, 양성), 醫師(醫生, 大夫), 一族(一家), 一日(一天), 의류(衣服), 意味(意思), 운전(開車), 운전수(司機), 운반(搬運), 운명(命運), 영화(電影, 影片), 驛(站), 演習(實習), 응원(援助, 聲援), 옥상(屋頂), 회사(公司), 해설(설명, 講解), 回復(恢復), 가옥(房屋), 과학자(科學家), 각오(決心), 恪別(格外, 특별), 誇言(說得過火, 과장), 菓子(點心), 火事(火災), 箇條(分條), 渦中(旋渦中), 화요일(星期二), 看護(護理), 元日(元旦), 感心(佩服), 歡待(款待), 幻談(暢談), 寒暖計 (寒暑計), 官廳(정부기관), 看板(招牌), 肝要(중요, 要緊), 元來(原來), 歸國(回國), 喫茶店(茶館), 기부(捐錢, 捐助), 氣分(情緖, 精神, 心情), 휴게(休息, 憩息), 휴강(停課), 급행(쾌차, 急性地赶到), 給仕(侍者, 勤雜, 工友), 牛乳(牛奶), 舊來(已往), 共學(同校), 競技(比賽), 업자(同業者), 敎壇(講臺, 講壇), 共通(共同), 興味(興趣), 極度(極端), 拒否(拒絶, 否決), 義理(人情, 情面, 情分, 面子), 近所(近隣, 附近),

근무(服務, 工作), 금요일(星期五), 下宿(公寓), 결의(決心), 월급(薪水, 月薪), 월요일(星期一), 喧譁(打架), 견학(見習, 참관), 玄關(房門口), 元氣(很有精神), 검약(節省, 節約), 工員(工人), 後援(支援), 항공편(航空信), 孝行(孝順), 構內(院內, 교내), 후배(晩輩, 後班生, 항복(投降), 國電(國營電車), 御飯(飯), 今回(這次), 根氣(耐心, 耐性), 금월(這個月), 금주(這星期), 今日(今天, 現在), 今夜(今晚, 今天晚上)

이들 일제 한어는 중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한자어로는 다 쓰인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말에 다 수용되어 신한어로 쓰였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근한 예로 요일명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星期一 , 二, 三..."이라 하는 데 대해, 우리는 "月曜日, 火曜日, 水曜日..."이라 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말에 일본 신한어가 얼마나 엄청나게 영형을 미쳐던가는 상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모든 일제 신한어가 다 이렇게 수용된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일본의 신한어는 중국어는 물론 한국어에도 원칙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案外(意外, 出乎意外之外), 意地(固執, 用心, 心術), 옥내(室內), 委細(詳細), 醫者(醫生, 大夫), 衣裝(衣裳), 一應(大體, 大致), 一團(一群), 一段(更加), 一緖(一起), 一生懸命(拼命, 盡量), 一心(盡心, 一心一意), 一體(畢意, 究意, 到底), 遠足(교외여행, 도보여행, 학교활동지일), 我慢(인내, 忍住, 耐心), 氣性(성격, 성정), 氣樂(無憂無慮, 不緊張, 舒適), 恐縮(對不起, 過意不去), 固情(苦楚, 不便, 不滿), 苦勞(辛苦, 勞苦), 見物(觀光, 遊覽), 見當(注意, 豫想, 估計), 懸命(盡力, 拼命), 皇居(皇宮), 交番(派出所), 刻刻(時時刻刻, 每時每刻), 愚癡(怨言, 牢騷), 御免(對不起, 표시거절), 今度(這次, 這回)

또한 중국 한어와 일본어의 한어는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그것은 형태소의 배열 순서가 다른 것이다. 중국어에 없는 신한어의 경우 "あ, か"행의 다음과 같은 한자어가 이러한 예다. 한국어에는 일본 신한어의 영향이 대체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一統(統一), 관습(習慣), 감명(銘感), 强力(力强), 고통(痛苦), 苦勞(勞苦)"는 "한어외래사사전"에 보이는 것이다. (앞은 日語, 뒤는 中國語이다.)

이밖에 중국어에 없는 어휘는 아니나, 다음에 어순이 다른 예를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移轉-전이, 운명-명운, 외출-출외, 感傷-상감, 期日-일기, 고통-통고, 輕減-감경, 한계-계한, 언어-어언, 강하-하강, 후일-일후, 재목-목재, 詐欺-기사, 産出-출산, 産物-물산, 색채-채색, 終始-시종, 從順-순종, 趣旨-지취, 紹介-개소, 商工-공상, 上程-정상, 정열-열정, 식량-양식, 제한-한제, 정숙-숙정, 정정당당-당당정정, 先祖-조선, 線路-노선

貸借-차대, 단계-계단, 단축-축단, 탐정-정탐, 土砂-사토, 年賀-하년, 買收-수매, 敗戰

-전패, 賣買-買賣, 배분-분배, 奮發-발분, 兵士-사병, 平和-화평, 牧畜-축목, 絶滅-멸절, 면회-회면, 夜半-반야, 融通-통융, 養護-호양, 養殖-식양, 亂雜-잡난

일제 한자어 가운데는 형태의 면이 아니라, 의미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말도 많다. 이러한 것에는, ① 일・중 한자어의 의미가 중복되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② 일・중 한자어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의미의 다의성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이라 하겠으나, 후자는 의미가 다르다는 면에서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후자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예: 중국/ 일본)

曖昧(부정한 남녀 관계/ 불명확/ 韓: 억울한 누명), 一身(의류 一枚/ 身, 全身), 外人(타인/외국인), 관심(마음을 쓰다/ 흥취), 記事(사실을 기록하다/ 뉴스・소식), 汽船(발동선/ 輪船), 行事(행도 교제/ 예행적 행사 의식), 銀貨(현금과 물품/ 화폐), 勤勞(잘 일하다/ 노동・노고), 工夫(시간・暇/ 창작・想出)/ 韓: 학습・연구), 原稿(草稿/ 稿子), 檢討(자기 잘못을 비판하다/ 연구・심사), 講義(강의 노트・프린트/ 講・강해), 高揚(높이 올리다/ 發揚・제고), 試驗(해 봄/ 考試), 事情(사건・事柄・用事/ 이유・연고・情況), 趣味(재미 있다/ 기호・흥취), 正月(음력 정월/ 新年), 성취(成果/ 完成), 招待(응접하다, 초대하다/ 請客・邀請), 丈夫(夫・亭主/ 장건・건강・결실), 新聞(뉴스, 새로 일어난 일/ 報, 報紙), 說明(분명히 하다/ 해석・해설), 선생(남성 존칭/老師・교원・의사・律師), 大家(모두, 많은 사람/ 權威), 대장부(남자/不要緊・可以放心・沒問題), 大名(명성/ 봉건제후, 富而奢), 인간(世間/인류・사람), 평판(심판/ 명성・평가・풍문), 빈핍(가난하다/ 貧・窮핍), 便宜(싸다・득이 되다/ 方便), 勉强(싫어하면서 하다무리하게 ...하다/ 學習・少算), 洗面(器)(洗臉器・세면기 같은 형태의 그릇/ 托盤), 迷惑(미혹하다/ 麻煩・爲難), 模樣(格好・용모/ 花樣・情況・光景), 야채(야채, 산채/ 蔬菜・菜), 用意(의도/ 豫備・준비), 用心(마음을 쓰다,노력하다/ 小心・留神), 料理(처리하다/ 菜・ 중국요리)

4. 결어

中・日・韓의 신한어의 조어와 이의 영향(影響) 및 교류(交流)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양 삼국은 한자 문화권이라 한다. 그렇듯 역사적으로 동일문화권에 속할 뿐 아니라, 개화기 이후에도 신한어를 신조하며 신문명어(新文明語)를 발전시키며 현대를 살아오고 있다. 이는 서양의 라틴어와는 같으면서 다른 면이다.

중・일은 초기에는 중국이 일본에 영향을 끼치며, 개화기 후반기에는 일본이 중국에 영향을 끼치며 신한어를 조어하고, 문화적으로 선도해 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들의 영향을, 그것도 일본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신문명을 수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근세의 언어는 새로운 문물과 개념을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 이는 아카데믹한 연구를

위해, 문화적 교류를 위해, 또한 효과적인 활용과 외국어로서의 자국어의 교육을 위해 연구를 필요로 한다. 문화사적(文化史的) 교류와 효과적 언어 사용을 위해 신한어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 삼국의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삼국의 언어는 상호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아 이들의 新漢語의 국적을 따지기 힘들게 되었다. 정체성(正體性)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적으로 구명을 필요로 한다. 조어는 주로 중국 고전에 근거를 두고, 신한어를 조어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거나, 독자적 발상에 의해 많은 어휘를 신조하였다. 이들 신조어는 자료 아닌, 제작 의도에 따라 어종(語種)의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문화와 연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휘 특성을 파악하여 자국어를 바로 파악하고, 문화를 바로 이해하며, 교육 활동을 올바로 하여야 한다.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요, 국제화 사회요, 일일 생활권의 사회다. 중・일・한의 신한어를 올바로 파악하고 발전시킴으로 보다 나은 신문명사회를 구축하여 상호 교류하고, 친선을 도모하며 올바로 살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철(1975),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상), 을유문화사
김병철(1975), 상동 (하), 을유문화사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박갑수(2012), 한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역락
박갑수(201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역락
박갑수(2016), 국어순화와 법률문장의 순화, 역락
박갑수(2017), 언어・문화, 그리고 한국어교육, 역락
박영섭(1995), 국어한자어휘론, 박이정
沈國威(2012), 근대중일어휘교류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劉正埮・高名凱・麥永乾・史有爲 編(1985), 漢語外來詞詞典, 商務印書館上海辭書出版社
陳舜臣・陳謙臣(1972), 日本語と中國語, 祥傳社
劉德有(2006), 日本語・中國語, 講談社
牛島德次 外(1967), 中國文化叢書 1, 言語, 大修館書店
鐘ケ江信光(1964), 中國語のすすめ, 講談社 現代新書
高島俊男(2017), 漢字と日本人, 文藝春秋
佐藤喜代治 編(1978), 近代の語彙, 講座 日本語の語彙, 第 6 卷, 明治書院
佐藤喜代治 編(1982), 日本語の語彙の特色, 明治書院
阪倉篤義 外(1971), 講座國語史 3 語彙史, 大修館書店
芝田 稔(1987), 日本 中國 ことばの往來, 白帝社
杉本つとむ(1982), ことばの文化史, 櫻楓社
衫本つとむ(1981), 近代日本語, 紀伊國屋書店
鈴木修次(1979), 漢語と日本人, みすず書房
松村明(1983), 近代の國語- 江戸から現代へ, 櫻楓社
森岡健二 外編(1978), 講座 日本語學 4 語彙史, 明治書院
山田孝雄(1979), 國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 宝文館出版
文化廳(1969), 中國語と對應する漢語, 文化廳

(2018. 2. 23)

박갑수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서울, 대한민국
08826
+82-19-225-9815
carpsp@hanmail.net

서술절은 없다

목정수
(서울시립대 국문과)

1. 들어가기

한국어 문법을 범언어적인/유형론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어 문법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언어학적 개념이나 범주가 있어 이를 어떻게 일반언어학적 개념과 연계시켜 이해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다. 한국어 문법학자들끼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용어나 개념일수록 그 계보와 타당성/유용성을 지식고고학적으로 따져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가 보기에, '보조사', '관형사', '서술절'이란 개념/용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룰 '서술절'이란 개념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서술절을 최현배(1937), 허웅(1981, 1983) 등에서는 '서술 마디'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마디'라는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절(clause)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렇듯, 서술절 설정의 타당성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남기심 1986, 임동훈 1997, 임홍빈 1998, 홍기선 2014), 필자는 이를 서술절이냐 서술구냐란 논쟁으로 정리하고 결국 서술절은 서술구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목정수 2014a, 2014b). 정리하면, 서술절이란 용어는 '절'이란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술절이라 하는 것은 서술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술절은 조사 '이/가'가 붙은 성분을 일방적으로 주어로 분석하는 시각에서 파생된 오개념(misconception)/오류(fallacy)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김일규(2016)과 김건희(2017)이 '서술절' 설정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본고는 이들 논의에 응대하여 그들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서술절 개념의 부당성을 밝혀 보이고자 한다.

2. 서술절의 'NP 가' 성분의 통사적 기능: 조사 '이/가'는 정말 주어 표지인가?

먼저 한국어의 조사 '이/가'를 주격조사로 보고 더 나아가 주어 표지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따져 보자. 분명 다음과 같이 조사 '이/가'는 '을/를'과 대립을 하기 때문에 '주격조사'로 보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 가. 철수가 영희를 사랑했다.
나. *철수를 영희를 사랑했다.
다. *철수가 영희가 사랑했다.
라. *철수를 영희가 사랑했다. (‘철수 loved 영희.’라는 의미로)
마. 철수는 영희를 사랑했다.
바. 철수가 영희는 사랑했다.

그러나 하나의 격 형태가 하나의 통사적 기능에 일대일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가’가 실현되었다고 무조건 주어로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2) 가. 그게 아니야.
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다.
다. 그 사람은 보이지가 않네요.
라. 도무지가 알 수가 없어요.
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른바 ‘보어’에 붙는 ‘이/가’도 있고(2 가, 나), 동사 활용형에 붙는 ‘이/가’도 있고(2 다), 부사(어)에 붙는 ‘이/가’도 있다(2 라). (2 마)에서는 ‘그것이’ 성분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불분명해 보인다.1

다음 대화에서 보듯이, 조사 ‘이/가’가 붙어 있다고 해당 성분이 주어인 것은 아닌 것이다.

(3) A: 너 그때 나랑 본 공포영화 무서웠지?
B: 어, 그런데 다시 보니 오늘이 더 무섭네.
B’: 어, 그런데 다시 보니 오늘은 하나도 안 무섭네.

여기서 ‘오늘이’는 ‘무섭다’의 대상도 주체도 아니다. 부사어 ‘오늘’에 초점의 지위를 부여하여 상황을 대립시켜 지난번보다 오늘이 더 무서움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이/가’는 ‘오늘’을 주어로 만드는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한국어의 주격조사라는 것이 ‘이/가’를 비롯하여, 단체주격 ‘에서’, 인수주격 ‘이서’, 존칭주격 ‘께서’ 등처럼 복수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격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다(고영근·구본관 2008, 2018, 김민국 2016). 자리(position/slot)를 통해 해석해 보면, 오히려 ‘께서’가 주어 자리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가’보다 주격(nominative) 조사라는 용어

1 뒤에 가면, ‘그것이’ 성분이 주어로 분석될 수 없음이 밝혀진다.

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2

(4) 가.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척 귀여워하신다.
다. 할아버지께서도 고향이 그리우신가 보다.
라. 할아버지께서만 이마가 넓으시다.

(5) 가. 나는 할아버지가/*할아버지께서 무섭다.
나. 나는 할아버지가/*할아버지께서 있다.
다. 나도 언젠가 할아버지가/*할아버지께서 될 것이다.

앞서의 보조사에 대한 정의에서 보았듯이, 명사구 외에도 동사의 활용형이나 부사어 등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보조사이다. 그러나 격조사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보조사와 행태를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가, '을/를, '의'가 유일하다. '에, 에서, 에게, 께, 께서, 로, 와, 처럼, 대로, 만큼'은 그런 일이 없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격조사 패러다임에서 '이/가'와 '을/를'이 차지하는 위상은 다른 (부사)격조사류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가. 낙엽이 떨어지지-는/가/를/*에/*로/*께/*처럼 않았다.
나. 놀러-는/도/를/*에서/*께서/*같이 갔다.

물론 '이/가'와 '을/를'이 논항과 관계 맺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상 제약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조사 '은/는'이나 '도'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은/는'이나 '도'라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가, 를, 도, 는'이 동일부류의 성원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

2 본고의 분류 체계에서 '격(case)'을 서술어와 논항의 문법 관계로 파악하고 논항 내부에 포함된 것은 격어미로, 논항 외부에서 그 관계를 표시하는 것은 부치사(전치사/후치사)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격조사라는 것은 논항 자리에 오는 명사의 내부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 자리에, 즉 통사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치사류에 포함된다. 한국어 후치사류는 '에, 에서, 에게, 로, 와/과' 등의 단일후치사와 '에 대하여', '로 말미암아', '대신에', '위에, 아래에' 등의 복합후치사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가, 을/를, 의'는 여기서 제외된다(목정수 2003). 이 기준에 따르면, '에서'와 마찬가지로 '께서'는 명사 뒤 첫 번째 자리/위치/슬롯에 나타나는 후치사류에 속하는데, 조사 '이/가'와 '을/를'과의 결합이 다소 제한된다. 그렇다고 '께서'와 '가'가 교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사 '은/는'과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보면, 그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1) A: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신대.
B: ??뭐 할아버지께서가?

(2) 가. 할아버지께서는 고구마를 잘 드신다.
나. *할아버지가는 고구마를 잘 드신다.

(7) 가. 우리 애가 밥을 먹지-를/??가 않는다.
나. 빨리-를/*?가 뛰지 않고 뭐 하니?

(8) 가. 도대체-가/*를/*는/*도 무슨 소리야?
나. 아마-도/*는/*를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다. 한숨-도/을/*은/*이 못 잤어.

'-기는/도/를 하다' 구성은 보조사 '은/는, 도, 을/를'의 어휘·통사적으로 조건지어진 이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목정수 2002), 여기서도 '에, 로, 와, 처럼, 만큼, 보다, 에 대하여, 로 인해' 등의 격조사나 후치사류는 이러한 구성에 관여할 수 없다.

(9) 가. 밥을 먹기는 했다.
나. 네가 돈을 벌기를 하냐 청소를 도와주기를 하냐?

(10) *밥을 먹기-에/로/와/대로/만큼/보다/에 대해 한다.

'격조사 생략'이라고 하는 것도 '이/가'와 '을/를'이 격조사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격, 속격, 여격, 대격, 탈격' 등의 격 곡용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에서는 격 곡용(어미)의 생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가령, 라틴어의 제 2 곡용형에 속하는 남성 명사 'dominus (master)'의 경우를 보자. 라틴어의 명사는 보통 주격형을 기본형/사전형으로 잡는데, 주격어미를 생략하여 'domin-'의 형태로는 문장 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11) 라틴어 제 2 곡용 남성 명사 'dominus, dominī'

	dominus, dominī master m.			
	Singular		Plural	
Nominative	dominus	-us	dominī	-ī
Vocative	domine	-e		
Accusative	dominum	-um	dominōs	-ōs
Genitive	dominī	-ī	dominōrum	-ōrum

Dative Ablative	dominō	-ō	dominīs	-īs

(12) 가. Dominus pascit me, et nihil mihi deerit.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나. *Domin pascit me

(13) 가. Laudate Dominum. (주님을 찬양하라.)
나. *Laudate Domin.

반면에, 한국어의 조사 '이/가'나 '을/를'은 라틴어의 격어미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것들 없이도 주어진 성분은 서술어와 적절한 통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들 조사의 본질이 통사적/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가. 철수 왔니? cf. 철수가 왔니? 철수는 왔니? 철수도 왔니?
나. 나중에 대통령 될 거야. cf. 대통령이 되다. 대통령은 되고 싶지 않다
다. 내가 어제 사온 도시락 누가 먹었어? cf. 도시락을, 도시락은

이러한 명사에 붙는 조사류의 구조를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통하여 조사해 보면, 명사구의 문법적 확장 구조의 핵심체를 파악할 수 있다(목정수 1998, 2003). [N -> N'(=N+ Post) -> N"(=N'+ Det)]. 이 확장 구조체에 의해 '학교에 가다'와 '학교를 가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5) 가. 학교에 가다 => 학교-에-ø2 가다
나. 학교에를 가다 => 학교-에-를 가다
다. 학교에는 가다 => 학교-에-는 가다
라. 학교 가다 => 학교-ø1-ø2 가다
마. 학교를 가다 => 학교-ø1-를 가다
바. 학교는 가다 => 학교-ø1-는 가다
사. 학교도 가다 => 학교-ø1-도 가다

'학교 가다'는 '학교에 가다'의 '에'나 '학교를 가다'의 '를'이 생략된 것이 아니다. '학

교에 가다'의 '에'가 없이 '학교'라는 성분이 서술어 '가다'와 후치사의 도움 없이 'ø1'에 의해 직접 통사적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학교 가다'이다. 따라서 '학교 가다'와 '학교에 가다'가 일차적으로 대립한다. 이때 전자는 '학교를 가다' 구성과 더불어 타동 구성이고, 후자는 '학교에를 가다' 구성과 더불어 자동 구성이다.

'쇼핑 가다', '이사 가다', '장가 가다' 등의 이동 목적어 구성에서는 구체적인 후치사 '에'나 '로'가 개입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는 '을/를'의 경우 '쇼핑 가다'와 '*쇼핑에 가다'에서 보이는 문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타동 구문만 가능한 것이다.

(16) 가. 쇼핑/이사/장가 가다
나. *쇼핑/이사/장가-에 가다

(17) 가. 쇼핑/이사/장가-를 가다
나. *쇼핑/이사/장가-에를 가다

이를 위의 (15)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가. *쇼핑에 가다 => *쇼핑-에-ø2 가다
나. *쇼핑에를 가다 => *쇼핑-에-를 가다
다. *쇼핑에는 가다 => *쇼핑-에-는 가다
라. 쇼핑 가다 => 쇼핑-ø1-ø2 가다
마. 쇼핑을 가다 => 쇼핑-ø1-을 가다
바. 쇼핑은 가다 => 쇼핑-ø1-은 가다
사. 쇼핑도 가다 => 쇼핑-ø1-도 가다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조사 '이/가'가 붙은 성분이 무조건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이/가'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가'가 붙은 성분이 결정적으로 주어로 분석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어가 아닌 성분에도 '이/가'가 붙을 수 있다는 것과 조사 '이/가'의 본질이 격 표시 기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가'의 본질은 '은/는'과 '을/를'과의 대립 관계를 통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의 관여성에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예를 보면서 따져 보자. 여기서는 객체 존대와 주체 존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체 존대 '-시-'의 호응이라든지, 객체 존대에 관여하는 어휘적 표현 '만나 보다'와 '만나 뵙다'의 호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따져 보관대, '할

아버지가’ 성분은 도저히 주어 성분으로 분석될 수가 없다. 조사 ‘가’가 나타났지만, 그 성분의 통사적 지위는 목적어로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다. ‘할아버지를’과 통사적 지위 면에서는 목적어로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9 라, 마)의 ‘할아버지는’과 ‘할아버지도’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이다.

(19) 가. (나는) 할아버지가 만나 뵙고 싶다.
나. (나는)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다.
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만나 뵙고 싶다.
라. (나는) 할아버지는 만나 뵙고 싶지 않다.
마. (나는) 할아버지도 만나 뵙고 싶어.

(20) 가.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만나 보고 싶으신가 보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만나 보고 싶으신가 보다.

(21) 가.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만나 뵙고 싶은가 보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만나 뵙고 싶은가 보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만나 뵙고 싶다’ 구성에서 ‘할아버지가’가 주어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할아버지가 만나 뵙고 싶다’를 서술절로 설정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3. 서술절 옹호 논의의 몇 가지 문제점

3.1. 이중 주어 구문은 서술절을 안은 안은문장이고 여격 주어 구문은 단문인가?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은 내포절을 안은 포유문(복문)으로 보고 있고, 소위 여격 주어 구문은 단문으로 보는데 이는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심유경 2015, 김민국 2016). 필자는 소위 이중 주어 구문도 단문에 불과하며, 소위 여격 주어 구문도 단문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있다’의 소유 구문과 존재 구문을 통해서 증명해 보고자 한다.

(22) 가. 그 사람은 돈이 있다.
나. 그 분은 돈이 있으시다.

(23) 가.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
나. *?그 분에게 돈이 있으시다.

(24) 가. 그 사람은 방에 있다.
나. 그 분은 방에 계시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있다'가 소유 구문으로 해석될 때는 '있으시다'가 존대형으로 쓰이고, 존재 구문으로 해석될 때는 '계시다'가 존대형으로 쓰인다.

(25) 가. 안녕히 계세요/*있으세요,
나. 그 분은 시간이 있으시다/*계시다.

범언어적으로도 존재동사가 진행상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이러한 보편적 사실은 한국어에서 존재동사와 소유동사가 비록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6) 가. 我正在读书呢。
나. He is reading a paper.
다. 愛しているよ。
라.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책을 읽고 계십니다/*있으십니다.
마. 여기 앉아 계세요/*?있으세요.

물론 한국어의 '있다'가 존재동사와 소유동사로 구분되는 것은 영어의 'have'와 'be'로 나누어진 틀에 대응시켰기 때문이지 원래는 존재동사 '있다'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도 그렇지만 인구어에서도 'have' 계열의 동사가 소유 구문뿐만 아니라 존재 구문에도 쓰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예에서 보듯이, 비인칭 구문, 외치 구문, 도입/제시 구문 등 존재 구문에서 'have' 계열의 동사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몇몇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7) 가. Il y a un/*le livre sur la table. (책상 위에는 책이 있다.) (<= 'avoir')
나. Delante de la escuela hay una/*la cafetería. (학교 앞에는 카페가 있다.) (<= 'haber')
다. Em cima da mesa há um/*o livro. (책상 위에는 책이 있다.) (<= 'haver')

중국어의 '有(yǒ u)'도 소유동사로서 존재동사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28) 가. 我只有你。 (나(는) 너밖에 없어.) <= 소유동사 '有'
나. 你有时间吗? (너 시간 있어?) <= 소유동사 '有'

(29) 가. 桌子上有一本/*那本书。(탁자 위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 존재동사 '有'
나. 这儿有公用电话吗? (여기에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 존재동사 '有'

본고는 한국어 동사 '있다'를 존재동사로서의 '있다 1'과 소유동사로서의 '있다 2'로 나누어 보는 입장을 취한다. 한국어 동사 '있다'가 존재동사 'be' 계열과 소유동사 'have' 계열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다. 소유동사 '있다 2'는 영어의 'have'처럼 약한 타동사 부류에 속한다.

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었-'과 '-겠-'의 기원이 된 '-어 잇/이시-'나 '-게 ᄒᆞ엿/ᄒᆞ여시- > -게 엿/여시-'의 '잇다/이시다'도 존재동사로서의 '있다 1'인 것은 그 존대형 '-어 겨시-'에서 유래한 '-어겼-'으로 미루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광모 2000, 2002, 2009). '있다/계시다' 짝의 존재동사가 관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어에서 이와 같은 구성이 'have + 과거분사'형으로 나타난다거나 해당 동사가 자동사나 대명동사(verbe pronominal)일 경우에는 'be' 계열의 동사도 나타난다는 것은 존재동사와 소유동사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서로 넘나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을 수 있다'의 문법적 연어 구성이나 '어이(가) 없다', '맛(이) 있다', '재미(가) 있다' 같은 어휘적 연어 구성에서의 '있다'는 다 소유동사로서의 '있다-있으시다'의 짝에 대응된다. 소유동사로서의 '있다-있으시다'만이 '목술 구조'로서 하나의 어휘단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목정수 2005, 2017b).3

3 이러한 '있다/없다'가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으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김일규(2016: 37-38)과 같은 오해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목정수(2005, 2014)에 따르면 '어이가 없다'나 '맛이 없다'와 같은 표현들의 서술어는 '없다'이며 '어이'와 '맛'은 이 술어의 목적어/보어이다. 즉, '없다'라는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 보어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주장에 따르면 '없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인 '어이'와 '맛' 만을 논항으로 요구하며 그 외의 논항은 '어이가 없다'와 '맛이 없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이다. (…) 위에서도 논의했듯이, 목정수(2005, 2014)의 분석으로는 '이 식당이 김밥이 맛이 있다'처럼 주격 명사구가 세 개 이상이 나오는 문장의 통사구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 하지만 서술절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면 위의 문제들이 모두 사라진다. '있다'가 '맛'을 주어로 허가하고 '맛이 있다'라는 서술절이 '치즈김밥'을 주어로 허가하고 '치즈김밥이 맛이 있다'라는 서술절이 '김밥'을 주어로 허가하고 '김밥이 치즈김밥이 맛이 있다'라는 서술절이 '이 식당'을 주어로 허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서술구 논의로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맛(이) 있다'라는 소유 구문의 '가형 목적어' '맛'과 '있다'의 결합형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맛이 있다'가 주어 논항과 결합된 구문 '이 짜장면은 맛이 있다'는 기본적으로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 분석되고 '이 짜장면은 맛있다' 처럼 어휘화된 '맛있다'가 나타난 구문은 '주어 + 서술어'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음식점은/할아버지는 짜장면이 맛있다/맛있으시다'는 다시 '주어 + 목적어 + 기술동사(구)'로 분석하고 그 의미해석은 '이 음식점은/할아버지는 다른 음식보다 짜장면을 맛있게 만들어 제공한다/제공하신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에 '맛(이)있다'가 주관동사처럼 확장되어 쓰인 '나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사람들은 이 짜장면을 맛있어 한다' 같은 구문은 '나는 바나나가 좋다/싫다', '사람들은 바나나를 좋아한다/싫어한다'와 마찬가지로 '주어 + 목적어 + 주관동사(구)'로 분석하여. 'I like 짜장면'의 의미로 해석한다.

(30) 가. 이 책은 재미(가) 있다.
나. *이 책에는 재미(가) 있다.
다. 할아버지(께서)는 재미(가) 있으신/*계신 분이다.

(31) 가.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저에게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아버지(께서)도 이 일을 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계십니다.

필자는 '있다'가 관여된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의 차이를 통하여 '철수는 차가 있다'에서는 '철수는'이 주어 성분으로, '철수에게는 차가 있다'나 '그 차는 철수에게/한테 있다'에서는 '차가/그 차는'이 주어 성분으로 분석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였다(목정수 2017b).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는 의미적으로 서로 연관되지만, 그 통사적 구조나 의미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본다.4

(32) 가. 나는 꿈이 있다.
나. 나에게는 꿈이 있다.

유정물 1 인칭 대명사 '나'가 (32 나)처럼 후치사(=격조사) '에게'와 결합하면 처소어로 해석되어 '나'라는 장소/공간에 '꿈'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다음 (33 가)에서 '서울'이란 장소 관련 고유명사는 그저 처소어로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여느 유정물처럼 '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possessor)로서 해석된다.

(33) 가. 서울은 차가 많다.
나. 서울에는 차가 많다.

3.2. 이중 주어 구문에서의 성분의 이동 문제

서술절을 주장하는 논의에서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상위문의 주어는 하위 서술절 내부로 이동이 안 되는 이유를 서술절 경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어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술절을 옹호하는 임동훈(199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이

4 한국어의 소유 구문의 전형을 'NP-에게/께 NP-가 있다/있으시다'로 잡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것이 한국어 소유 구문의 전형으로 생성문법 학계나 언어유형론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Yoon 2004, Kim 2017).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백보 양보하여 'NP-에게 NP-가 있다' 구문이 소유의 의미로 연결될 수 있지만, 'NP-는/께서는 NP-가 있다/있으시다' 구성에 비하면 결코 무표적인/전형적인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34) 코끼리가 코가 길다. => *코가 코끼리가 길다.

임동훈(1997)은 서술절 구문에서 상위문의 성분을 서술절 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이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문법성 판단이다. 그러나 '*코가 코끼리가 길다'가 이상하다면, '코끼리가 코가 길다'도 마찬가지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색해 보인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자연스럽듯이, '코는 코끼리가 길다'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어순 뒤섞기와 관련된 임동훈(1997) 등의 문법성 판단은 재고가 요구된다. 임동훈(1997)의 판단과는 반대로 소위 서술절 구문으로 판단하는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의 자리바꿈은 가능하다. 다만, 정보구조에 맞게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35) 가. 나는 눈이 크다.
나. 눈은 말이야 철수가 크지.

(36)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
나. 그 호랑이 있잖아 나 정말 무섭더라구.

김건희(2017: 39)에서는 '이동' 기제는 다른 내포절들과의 비교의 판단 잣대가 일관되지 않고 (논자들에 따라서) 그 수용성도 상반되므로 '서술절 설정'을 부정 또는 긍정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소위 서술절과 관련된 구문이나 일반 타동 구문에서의 '이동'은 평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동에 관여하는 것은 이동에 따른 정보구조상의 문제이다. 필자는 어순 도치, 즉 성분의 뒤섞기는 정보구조의 흐름과 잘 맞기만 하면, 다 가능하다고 본다. 이중 주어 구문에만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37) 가.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다. 밥은 누가 해 주니?
라. 무슨 소리야 코는 내가 크지. 한 번 봐봐.

이러한 성분 뒤섞기는 절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절 경계 밖으로 나가는 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인용 내포절부터 보자.

(38) 나는 철수가 과자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39) 가. ?과자를 나는 철수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나. *과자는 내가 철수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다.
다. *나는 철수가 많이 먹는다고 과자를 생각한다.

이처럼 '철수가 과자를 많이 먹는다고'에서 인용 내포절 속의 성분이 절 경계를 넘어 주절로 이동한 문장은 비문이 되고 정보 처리를 매우 어렵게 하여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불가능한 문장이 되고 만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분 이동은 단일절(mono-clause)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분 순서가 자유로운 한국어의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타동 구문이나 '되다'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40) 가. 철수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나. 바나나는 철수가 좋아하지.

(41) 가. 나는 대통령이 꼭 될 거야.
나.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니?

따라서 김건희(2017: 38)에서 펼치고 있는 논의는 일종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 문장에서 (42 나)가 비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43)과 같은 이동 가능성을 두고 문법성을 따져야 했던 것이다.

(42) 가. 이런 장사는 장사치들이 먼저 상인들에게 신용을 얻는 게 제일이다.
나. ?*장사치들이 이런 장사는 먼저 상인들에게 신용을 얻는 게 제일이다.

(43) 장사치들이 먼저 상인들에게 신용을 얻는 게 이런 장사는 제일이다.

3.3. 이중 주어 구문에서의 관계화 제약도 서술절 경계 때문인가?

다음으로 관계화 제약과 서술절 설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관계화 구성의 제약을 통해,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의 '소주어 + 서술어'를 서술절로 보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본다. 관련된 관계절 제약에 대한 임동훈(1997: 35)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국어에서는 하위절의 성분이 관계절의 핵이 되고 상위절의 성분이 관계절의 일부가 되는 구문은 수용키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의 관계화 제약은 비단 이 구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되다' 구문과 비교해 보면 임동훈(1997)의 설명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되다'는 주어와 보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전형적인 두 자리 서술어이다.

(44) 가. 철수는 반장이 되었다.
나. 물이 얼음이 되려면 몇 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관계화 구성을 해 보면 '반장이 된 철수'는 가능하지만 '*?철수가 된 반장'은 안 된다. 그렇다고 '반장이 되다'가 '주어 + 서술어'의 서술절을 구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심리 서술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5)에서 보듯이, 관계화는 첫 번째 명사구만이 가능하다.

(45)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 호랑이가 무서운 나
다. *내가 무서운 호랑이

이와 반면에, 심리술어/심리용언, 즉 주관동사가 기술동사처럼 쓰인 구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절이 가능하다. 존재 구문의 '있다'와 평행하다.

(46) 가. 철수에게 호랑이는 무섭다.
나. 철수에게 돈이 있다.

(47) 가. 호랑이는 철수에게 무섭다.
나. 돈은 철수에게 있다.

(48) 가. 철수에게 무서운 호랑이
나. 철수에게 있는 돈

따라서 '돈이 있는 철수' 구성은 '철수는 돈이 있다' 구성에서 관계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철수에게 돈이 있다'에서 관계화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돈이 많으신 할아버지'의 경우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으시다'는 가능하지만 '*할아버지께 돈이 많으시다'가 불가능하고, '할아버지에게/한테/께 많은 돈'의 관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면, 임동훈(1997)에서 '부장이 싫은 직원들'과 '*직원들이 싫은 부장'의 관계화 제약을 두고 '직원들은 부장이 싫다'에서 '부장이 싫다'가 일종의 서술

어, 즉 서술절로 기능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관계화의 제약이 일어나는 것은 하위문의 주어가 관계절의 핵이 되고 상위문의 주어가 관계절의 일부가 되는 현상을 허용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서술절은 독립절을 이룰 수 있는가?

이중 주어 구문이 서술절을 안은 복문이라면, 다음과 같이 내포절만 실현된 문장이 복문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의 (49 가)를 (49 나)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49 가)를 독립된 하나의 단문, 즉 서술절로만 이루어진 단문으로 파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포절이 그것을 안은 상위절에서 독립하여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49) 가. 키가 크대요.
나. (철수는) 키가 크대요.

하위절은 상위절의 모문 동사가 없어지면서 독립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서술절 옹호론자들은 서술절은 지배하는 상위문 동사가 없는 특수한 내포절이라고 변론을 하지만 (임동훈 1997, 권재일 2012, 김건희 2017), 이는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개념이다. 이선웅(2014)는 '토끼는 귀가 길다'를 '주제어 + 주어 + 서술어'로 파악하고 있어 '주어 + 목적어/보어 + 서술어'로 분석하는 본고와 완전히 다른 시각이지만, 임동훈(1997)을 주어 중심의 통사론이라 진단하고 자신의 서술어 중심의 통사론에서는 서술절을 인정한다면, 안긴절은 있되 안은절은 없는 모순에 처한다고 하여 '서술절을 안은 안은문장'이란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5

3.5. 서술구의 확장인가 서술절의 확장인가?

한국어에는 독특하게 '화가 나다'-'화를 내다', '겁이 나다'-'겁을 내다'처럼 주술 구조와 목술 구조로 보이는 쌍의 표현이 존재한다. 그런데 '화가 나다'는 '화나다'로, '화를 내다'는 '화내다'로 어휘화되어 각각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6 따라서 '서술절'의 개념을 유지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다.

---

5 그런데 이선웅(2014)에서는 '서술절'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6 일본어에서도 '腹が立つ(hara-ga tatu)'와 '腹を立てる(hara-wo tateru)'가 쌍을 이루고, '腹立つ'와 '腹立てる'가 공히 사전에 동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어 문법에서는 '서술절'이란 개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문창학.목정수 2015).

(50 가. 나는 화가 났다.(서술절을 안은 '안은문장')
나. 나는 화났다.(단문)

(51) 가. 나는 화를 냈다.(단문)
나. 나는 화냈다.(단문)

여기서 '화가 나다'는 소위 서술절을 이루고 '화를 내다'는 동사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인다. 게다가 동사구가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절'이 하나의 단어로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가 나다'와 '화를 내다' 구성에서의 논항 구조를 보아도 '화가 나다'가 절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서술구로서 하위범주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7 서술명사 '화' 때문에 '화를 내는' 혹은 '화가 나는' 주체와 '화'를 유발시키는 자극제로서의 객체가 필요한데, 이 두 논항은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52) 가. 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났다.
나. 나는 그의 말에 화가 났다.

(53) 가. 그 사람은 나에게 화를 냈다.
나. 그 사람은 나의 말에 화를 냈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는 ('서술절 1(=가지가 않다)') => '서술절 2(=이해가 가지가 않다)' => '서술절 3(=그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가 않다)' => 복복복문(=나는 그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가 않다)'처럼 서술절이 내포되어 가는 복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술구 1/complex predicate(=이해가 가다)'에 목적어 '그의 설명이'가 결합된 서술구 2(=그의 설명이 이해가 되다)에 부정 보조동사 구문 '-지 않다'가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주어 '나는'이 결합하여 최종 '나는 그의 설명이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라는 단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4. 쪼개진 목적어의 유형론

4.1. 소위 서술절을 안은 이중 주어 구문은 기본 문형에 포함되어야

고영근·구본관(2008: 271)에서 제시한 기본 문형에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와 [①

7 중국어에서도 '화가 나다'나 '화를 내다'는 각각 '生气'나 '发火'로서 모두 '술빈' 구조를 이루고 있다(范琦慧 2010).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와 [② 무엇이 무엇이 된다.]는 기본 문형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누가/무엇이 누가/무엇이 어떠하다/어찌한다.]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나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같은 문장을 서술절이라는 내포절을 안은 포유문의 복문 구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기본 문형 중에서 [누가/무엇이 누가/무엇이 어떠하다/어찌한다.]는 매우 빈도가 높은 구문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를 기본 문형 중의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 빵은 맛이 있다', '철수는 얼굴이 크다', '철수는 머리가 좋다', '철수는 눈이 나쁘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그는 고향이 그립대', '나는 화가 났다', '철수는 배가 고픈가 보다' 등 엄청나게 생산력이 있는 구문에서 첫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의 논항 관계를 따져 보는 게 필요할 것이다. 먼저 기본적인 타동사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첫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 두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를 짚어보자. '철수를 좋아한대'라는 발화를 들었을 때 우리는 주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누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철수는/철수가 좋아한대'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를/무엇을'이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만큼 서술어 '좋아하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코가 크대'나 '철수는 크대' 또는 '돈이 많대'나 '철수는 많대'라는 발화를 들으면 마찬가지로 빈자리가 있는 것을 직감하고 '누가?'나 '무엇이?'라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크다'/'많다'와 관계를 맺는 논항은 타동사의 주어 논항을 외재 논항으로, 목적어 논항을 내재 논항으로 보듯이, 그 위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철수는 눈이 크다'에서 '철수는' 논항은 '크다'에 대해서 바깥에 놓여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눈이' 논항은 '크다'에 대해서 내부에 놓인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이냐 내부적이냐,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지, 다 같이 독립적인 논항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술어 '크다'/'많다'가 두 자리 서술어로서 두 논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된대'라는 발화를 들으면 '대통령이 되다'를 주술 관계의 단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져서 '누가 말이야?'라고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또한 '철수가 곧 될 거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과도 평행하다.

그런데, 학교문법의 시각에서 서술어 '크다'나 '많다'는 한 자리 서술어로서 두 번째 명사구만 하위범주화하는 것으로 보는 까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크다'가 한 자리 서술어로서의 용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를 들어, 서술어 '크다'는 '철수의 집은 크다'와 같이 하나의 논항, 즉 주어에 대해서 풀어주는 역할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논항을 둘로 나누어 취하는 '철수는 집이 크다'는 '철수는 큰 집이 있다'나 '철수는 큰 집을 가지고 있다'로 환언할 수 있듯이, 두 자리 서술어로 실현된 '크다'로 볼 수

있다. ‘많다’의 경우는 앞에서 ‘있다’ 구문의 예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존재 구문의 한 자리 서술어 ‘많다 1’과 소유 구문의 두 자리 서술어 ‘많다 2’로 구분된다.

‘한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나 ‘마누라가 가출했다’ 등을 듣고 ‘누가?’나 ‘무엇이?’라고 질문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길다’와 ‘가출하다’는 한 자리 서술어로 쓰인 것으로 봐야 한다.

임동훈(1997)에서 ‘철수는 키가 크다’와 같은 부류로 분류된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철수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이와 같은 테스트에서 제외된다. 가령, ‘철수는 죽었대’를 들었을 때, ‘누가?’라는 질문이 뒤따르지 않는다. 또 ‘(철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를 들었을 때도 ‘누가?’라는 질문이 뒤따르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를 들으면 그 문장은 자족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철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류는 기본 문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4.2. ‘를형 목적어’와 ‘가형 목적어’, 쪼개진 목적어(split-O) 유형의 한국어

세계 언어유형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미 범주인 타동사의 A(gent), P(atient), 그리고 자동사의 S(ubject)가 부호화되는 방식이나 정렬(alignment), 즉 격 표시 체계에 따라 ‘nominative-accusative pattern’, ‘ergative-absolutive pattern’, ‘active-inactive pattern’, ‘tripartite pattern’, ‘neutral pattern’, ‘focus pattern’, ‘direct-inverse pattern’으로 나눈다. 그런데, 한국어의 두 자리 서술어를 포괄하는 타동성 타입은 앞의 어느 패턴에도 귀속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의 독특한 타동성 유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형 분류 방식에 변주를 가할 필요가 있다. 목정수(2015a, 2015b)에서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격)-대격’ 유형의 언어로 보되, 한국어의 타동성 타입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쪼개진 목적어(split-O)’ 패턴을 따로 설정하여 타동 구문을 하위분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낸 바 있다.

(54) 가. Accusative system

나. Ergative system

다. Split-S system

(55) 가. Split-O system

나. Split-SO system

이러한 유형론을 통하여 한국어의 약한(weak)/낮은(low) 타동성 구문에서부터 강한(strong)/높은(high) 타동성 구문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Næss 2007). 약한 타동성 구문은 기본적으로는 '주격-대격'의 패턴을 유지하여, 주어는 주격[ø1-(은)]으로 실현되고 목적어는 주격[ø1-(이)]으로 실현되지만 조사 '이/가'와 어울리게 된다. 반면에 강한 타동성 구문은 주어는 약한 타동성 구문에서와 같이 주격[ø1-(은)]으로 실현되고 목적어는 주격[ø1-(을)]으로 실현되지만 조사 '을/를'과 어울리게 된다. 이렇게 한국어의 타동 구문은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약한 타동성 구문'과 '강한 타동성 구문'으로 쪼개져 있는 'split-O' 유형의 언어로 분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유형론 학계에서는 비전형적인 타동 구문의 많은 예가 보여주는 현상들을 기반으로 하여 비주격/비전형적 주어(non-nominative/non-canonical subject)라는 개념으로 전형적인 타동 구문 이외의 두 자리 서술어의 논항구조를 논해 왔다. 여기서 비주격 주어는 주로 '여격 주어'와 '속격 주어'로 나뉜다(Tsnoda 1985, Montaut 199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Næss (2007)은 전형적 타동 구문과 여기서 벗어난 '여격 주어' 구문의 변이들을 [Volitionality], [Instigation], [Affectedness]이란 의미자질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전형적인(prototypical/canonical) 타동 구문에서 전형적인 'Agent'는 [+Volitionality], [+Instigation], [-Affectedness]의 자질의 합으로, 전형적인 'Patient'는 [-Volitionality], [-Instigation], [+Affectedness]의 자질의 합으로 본다. 따라서 이의 중간 범주적 성격을 띤 여격주어 구문의 경험주 논항은 [+Volitionality], [-Instigation], [+Affectedness]의 'Volitional Undergoer'와 [+Volitionality], [+Instigation], [+Affectedness]의 'Affected Agent'로 나뉜다.

이처럼, 심리술어는 전형적인 타동 구문과 달리 경험주 논항과 자극제 논항의 격 표시 체계가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형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이 경험주 논항의 여격 표시이다.

(56) 루마니아어

가. Mi-e foame.
to me-is hunger
'I am hungry.'

나. Îmi place de tine.
to me please-3.sing.pre. of you
'I like you.'

다. Îi place muzica.
to him please-3.sing.pre. music.the
'He likes music.'

(57) 스페인어

가. A Luis le gustan los animales.
to Louis to him like.3pl the.pl animal
'Louis likes animals.'

나. ¿Qué fruta te gusta?
what fruit to you like.3.sing
'What fruit do you like?'

(58) 러시아어

Вам надо обратиться к врачу.
to you(vous) have to appeal to doctor.dat
'당신은 의사에게(병원에) 가야만 한다.'

그밖에 여격과 속격의 소유주(possessor)를 나타내는 구문이 보고되었다.

(59) Marathi (Indo-European, Indic; Pandharipande 1997 :230):

malā tīn bhāū āhet
I.dat three brothers are
'I have three brothers.'

(60) Lezgian (Nakh-Daghestanian, Daghestanian; Haspelmath 1993a:89):

Ada-z xtul-ar awa
she-dat grandchild-pl be.in
'She has grandchildren.'

(61) Kannada (Dravidian, Southern; Sridhar 1990 :133):

Nanage eraDu taNNive
I-dat two eye-3-pl-n
'I have two eyes.'

(62) 힌디어 (Montaut 1991: 123)

mere do bha:i: haiN
나-속격 두 동생-남성복수 있다-현재-남성복수

'나는 동생이 두 명 있다. = 나는 동생이 둘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타동 구문에서 행위주와 피행위주의 중간에 놓이는 경험주 논항이 격 표시 체계에서 여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보고되었고, 그리하여 '여격 주어'라는 개념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유형론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에서도 '여격 주어' 개념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소유 구문이나 심리술어 구문을 이에 따라 기술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음과 같은 구문에 대한 연구이다. 연재훈(1996)을 필두로 하여 최근 김민국(2016)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노선을 취하는 연구가 꾸준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63) 철수에게 책이 있다.8

(64) 철수에게 사과가 싫다.9

그런데, 목정수·이상희(2016)에서 주장하였듯이, 한국어의 심리술어의 실상은 세계 유형론 학계의 '여격 주어' 개념을 받아들여 '여격 주어 구문'으로 처리된 것과 거리가 있다. 외형적으로 소위 '여격 주어' 구문으로 실현된 구문 속의 심리술어는 주관동사가 아닌 객관동사/기술동사로 실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언어유형론 학계에서 여격 주어 구문으로 기술된 것이 한국어에서는 다른 형식의 구문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한국어의 심리술어(verbe subjectif)의 기본 문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

8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상세히 베풀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요점만 덧붙인다. 소유 구문은 형태적으로는 존재동사 '있다'를 통해 나타나지만, 존재 구문과 구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구문의 차이나 존재동사 '있다1' - '계시다'의 짝과 소유동사 '있다2' - '있으시다'의 짝을 통해 증명된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 구문의 여격어는 처소어로 해석하고 타동 구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여격 주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 구문만을 타동 구문으로 본다. 한국어의 소유동사(verbe possessif)의 기본은 앞의 심리술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구문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1) N1-(은) N2-(가) Vp-어미

'여격 주어'를 처소어, 즉 PP(Postpositional Phrase) 구조가 아니라 ApplP(Applicative Phrase), 즉 외부 논항으로 보려는 논의에 대해서는 Kim (2017)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사용된 예문의 실제성 자체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의 논의에 동의하기 어렵다. Kim (2017)에 제시된 예는 다음과 같다.

(2) a. Mini-eykey Inho-ka coh-ass-ta
Mini-dat Inho-nom be likable-past-dec
'Mini was fond of Inho.'
b. ku namca-eykey koyangi-ka kekcengi-ess-ta
that man-dat cat-nom worry-past-dec
'That man worried about the cat.'

9 이러한 심리용언의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한 논의는 김민국(2016)을, 그 구문의 비문법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목정수.이상희(2016)을 참고할 것.

(65) N1-(은) N2-(가) Vs-어미10

이때 경험주 논항은 'N1'의 자리에 나타나며 대상 논항은 'N2' 자리에 주로 한정조사 '이/가'가 실현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N1' 주어에 어떤 인칭이 오느냐에 따라 제약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한국어 심리용언의 특징이다.11

(66) 가. 나 바나나 싫어요.
나. 너는 돼지고기가 싫으니?
다. 그 사람은 개고기가 싫대요.
라. 그 사람은 개고기를 싫어해요.

한국어에서는 여격 주어 구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주관동사가 아니라 기술동사의 한 용법으로 인정된다.

(67) 가. 호랑이가 나한테는 무섭다. (Tigers are scary to me.) => 객관 기술동사
나.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I am afraid/scared of tigers) => 주관 심리동사

다음은 한 자리 심리 서술어와 두 자리 심리술어의 논항 실현 양상이다.

(68) 가. 나는 춥다.
나. 너는 왜 외롭니?

10 세계 유형론 학계에는 이러한 격 표시 패턴이 "bidirectional marking"(Croft 1993), "double-nominative marking" 또는 "double-absolutive marking"으로 알려져 있다.

(1) 가. Nae-ka ai-ka kwiyetta (Shibatani 1982: 106)
I-nom child-nom like
'I like the child.'
나. Taroo ga Hanako ga sukida (Shibatani 1982: 105)
Taroo nom Hanako nom like
'Taroo likes Hanako.'

11 유형론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어는 특수한 언어가 아니고 오히려 영어가 특수한 언어다("日本語は特殊な言語ではない。しかし、英語は特殊な言語だ。")라고 해서 유명해진 角田(츠노다)(2009)에서도 심리용언의 다음과 같은 구문을 예로 하여, 의미역, 격, 문법기능을 구별하고 있다. 인칭 제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어의 소위 말하는 주격조사 'が'가 쓰였다고 다 주어로 분석하지 않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분석과 상통하는 면이 많다.

	太郎が	花子が	好きであること
意味役割	感情の持ち主	対象	
格	主格	主格	
文法機能	主語	目的語	

다. 그 사람 무엇 때문에 괴로워 하니?

(69)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 나는 그 여자가 기억이 난다.
다. 그 사람은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우리는 한국어 문법에서 서술절 개념의 도입 없이도 단일 주어 개념을 가지고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의 단문 처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목정수 2005, 2014a). 다음 (70) -> (71) -> (72) -> (73)으로 갈수록 강한 타동성이 나타난다.

(70)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그는 [동생이 셋이다].
다. 네가 [여친이 많다]구?
라. 할아버지는 [책이 있으시다].

(71)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 나 [너 싫어].
다. 그가 [내 설명이 이해가 된다니] 놀랄 노자로소이다.
라. 할아버지(께서)도 [호랑이가 겁이 나시는] 모양이다.

(72) 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해]?
나. 그는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
다. 그는 [내 편지를 받고] 울었다.
라. 너도 [꿈을 꾸니]?

(73) 가. 나 오늘 [호떡 먹었다]. 부럽지롱!
나. 할아버지(께서)는 [호떡을 잘 드신다].
다. 그는 [아버지를 죽였다].
라. 네가 [그 사람을 때린] 이유가 뭐니?

위 문장들에서는 밑줄 친 성분이 주어로 분석된다. 나머지 [ ] 부분은 서술구를 구성한다. 그리고 서술구 안에서 서술어의 어휘적 성격에 따라 '가형 목적어'와 '를형 목적어'가 나뉜다. '가형 목적어'는 서술어가 [+화자 내부적], [+주관적], [+주체 지향적], [+자발적], [+비의도적], [+인력(引力)], [+구심력] 자질을 가지는가에 따라 반응하고, '를형 목적어'는 서술어가 [+화자 외부적], [+객관적], [+객체 지향적], [+통제적], [+의도적],

[+ 척력(斥力)], [+ 원심력] 자질을 가지는가에 따라 반응한다.

5. 맺음말

우리는 학교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술절' 개념의 부당성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소위 서술절은 절 표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clause)의 일반적 개념과도 맞지 않고 하위절이라는 피지배소(governee)와 상위절이라는 지배소(governor)와의 관계로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조사 '이/가'가 붙은 성분이 무조건 주어 자리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가'가 붙은 성분이 주어가 아닌 보어나 목적어로 분석될 수 있는 구문이 많이 있음을 실례를 들어 보였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철수는 여친이 없다' 같은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 그렇고,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같은 심리동사 구문이 그렇다. 이른바 '가형 목적어'이다.

이러한 '가형 목적어'는 '를형 목적어'에 비해 약한 타동성을 지닌 서술어의 객체로서 '대상(theme)'이라는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 약한 타동성을 지닌 서술어의 주체는 주로 '소유주(possessor)'나 '경험주(experiencer)'라는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반면에, '를형 목적어'는 강한 타동성을 지닌 서술어가 요구하는 '대상' 의미역의 논항이다. 강한 타동성을 지닌 서술어의 주체는 주로 '행위주(agent)'라는 의미역을 부여받는 전형적인 것에서부터 그 [행위성], [의도성]이 약화된 주변적인 것으로의 연속체를 이룬다. '나는 동생을 때렸다', '철수는 개를 죽였다'에서 '철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로 이어지는 연속체. 그런데 '가형 목적어' 구문이나 '를형 목적어' 구문이나 주어는 의미역의 차이는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N-ø1-(은)]으로 동일하게 실현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어는 격 표시 체계에 따라 'nominative - accusative pattern'에 속하는 언어이지만, 한국어의 타동 구문이 서술어의 어휘 의미적 성격에 따라 목적어 성분이 '가형 목적어'와 '를형 목적어'로 나뉘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른바 '쪼개진 목적어(split-O)' 유형에 속하는 언어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주장이자, '서술절은 없다'는 우리의 결론이다.

<참고문헌>

고광모(2000), 일부 방언들의 주체 높임법에 나타나는 '-겨-'의 역사(1): 과거 시제 어미 '-어 겼-'의 형성-, □한글□ 250, 189-225.

고광모(2002), '-겠-'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의 발달, □국어학□ 39, 27-47.

고광모(2009), '이시-/잇- > 있-, -어시-/-엇- > -었-, -게시-/-겟- > -겠-'의 변화, □언어학□ 53, (사)한국언어학회, 115-140.

고광모(2017), '-겠-'의 발달에 대한 재론: '-게 엿-'을 '-게 되엿-'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 □언어학□ 79, (사)한국언어학회, 53-72.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김건희(2017), 서술절에 대한 재고찰: 내포절 체계 내의 다른 절과의 변별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43, 29-63.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일규(2016), 한국어에 서술절이 존재하는가?, □언어와 정보□ 20-3, 27-40.

남기심(1986), '서술절'의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1□, 탑출판사.

목정수(2002), 숨겨진 (보)조동사를 찾아서: '의무'의 '(어)야-'를 중심으로, □형태론□ 4-2, 형태론편집위원회, 215-237.

목정수(2005), 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사)한국언어학회, 75-99.

목정수(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1, 63-105.

목정수(2014a),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6, 101-126.

목정수(2014b), 허웅 선생의 일반언어학 이론, □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권재일 엮음), 박이정.

목정수(2014c),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목정수(2015a), 한국어 통사론에서의 융합의 길: 조사와 어미의 신질서를 찾아서, □국어국문학□ 170, 71-115.

목정수(2015b), 알타이제어의 구문 유형론적 친연성 연구: 한국어의 타동 구문을 중심으로, □한글□ 307, 75-124.

목정수(2016),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46.

목정수(2017a),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상념, □새국어생활□ 27-1, 31-50.

목정수(2017b),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과 논항의 격 실현 양상: 여격 주어설 비판을 위하여, □한민족어문학□ 76, 105-142.

목정수.이상희(2016), 문두여격어 구문의 정체: 여격주어 설정은 타당한가?, □형태론□ 18-2, 217-241.

문창학.목정수(2015), 일한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대조 연구, □日本學硏究□ 45, 349-368.

박양규(1975), 所有와 所在, □국어학□ 3, 국어학회, 93-117.

范琦慧(2010),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심유경(2015), □한국어 문두 여격어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241-275.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선웅(2014), 통사 단위 ‘절’에 대하여,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77-104.

이정복(2006),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217-246.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1-66.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한정한(2013), 명사 논항의 자릿수와 이중주어 구문의 주어, □한국어학□ 61, 369-402.

허웅(1981), □언어학, 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허웅(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허웅(1999), □20 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홍기선(2014), 한국어의 격중출구문과 담화구조, □언어□ 39-3, 677-699.

角田 太作(2009), □世界の言語と日本語 (改訂版): 言語類型論から見た日本語□, くろしお出版.

陆谷孙(2007), □英汉大词典 The English-Chinese Dictionary□, 上海译文出版社.

陆谷孙(2015), □中华汉英大词典(上) The Chinese-English Dictionary□, 复旦大学出版社.

Croft, William.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UP.

Croft, William. (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oft, William. (1993), Case marking and the semantics of mental verbs, In Semantics and the lexicon, James Pustejovsky (ed.), 55–72. Dordrecht: Kluwer.

Kim, Kyumin. (2017), Non-oblique syntax for a dative experiencer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34(1), 77-106.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김민수 외 편(1979), ≪역대한국문법대계≫ 2-18.

Rivas, J. (2004), Clause Structure Typology: Grammatical Relation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risTram.

Montaut, A. (1991), Constructions objectives, subjectives et déterminatives en hindi/urdu: où les paramètres sémantiques croisent les paramètres discursifs, LINX 24, Université Paris X - Nanterre, 111-132.

Næss, Åshild. (2007), Prototypical Transi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Shibatani M. (2001), Non-canonical constructions in Japanese, Aikhenvald, Dixon and Onishi (eds.), Non-canonical Marking of Subjects and Object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07-354.

Tsunoda, Tasaku. (1985), Remarks on transi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21(2): 385-396.

Yoon, James H. (2004), Non-nominative (major) subjects and case stacking in Korean, Bhaskararao & Subbarao (eds.), Non-nominative Subjects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65-314.

목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010-9038-6533
mjsmok@uos.ac.kr

부사절의 문법적 의미와 형성 방법에 대한 고찰

이관규
(한국 고려대학교)

1. 들어가기

겹문장은 흔히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고 안은문장 속에 있는 안긴 절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종속절)과 안은문장에 들어 있는 부사절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아래 인용된 글은 80여 년 전에 외솔 최현배 선생이 <우리말본>(1937)에서 피력한 내용이다. 영어 문법이나 일본어 문법에서는 종속절과 부사절(아래는 어찌마디)을 부사절 하나로 볼 수 있음에 비하여, 우리말에서는 종속절(아래 '이은월'의 앞 절)을 따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뇌를 적어 놓은 글이다. 우리말에서는 종속절과 부사절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외솔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1) [붙임 1] 내가 여기에서 이은월이라 하여서 겹월의 한 갈래로 잡기까지에는, 오랜 時日을 두고 많은 苦心을 하였다. 英文法, 日本文法 等에서는 普通으로 겹월을 둘로 갈라서, 가진월과 벌린월의 두 가지로 하고, 우에 내가 이은월이라 한 것들은 가진월에 넣으며, 그 앞마디를 가진월의 어찌마디로 봄이 예사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그러한 前例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 가지 가름을 하여서, 우와 같이, 가진월과 벌림월 밖에 다시 이은월을 더하였나니 …… (최현배, 1937: 1130-1131)

어떤 언어 표현치고 의미 없는 것이 없다. 특히 부사절 표현은 문장 구조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보인다. 흔히 종속절도 부사절로 본다거나 나아가 대등절도 부사절을 보는 견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당 표현이 문장 구조에서 어떤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사절이 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는지 문법적 의미 차원에서 그 연구 현황을 살피도록 한다. 특히 각 의견들의 장점과 단점을 짚어 보도록 한다. 본고에서 살필 연구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 연구 과제

ㄱ. 부사절, 부사어, 부사의 개념은 무엇인가?

ㄴ. 왜 종속절과 부사절을 따로 설정하게 되었는가?

ㄷ.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한계점은 무엇인가?

ㄹ. 부사절을 설정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2. 부사, 부사어, 부사절의 개념: '수식', '꾸밈', '한정'

부사절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사와 부사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각각 그 구성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담고 있는 (3 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흔히들 부사 혹은 부사어는 뒤에 오는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앞에 놓여"는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놓인다는 말이고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이라는 말은 의미를 한정한다는 말이다. (3 ㄴ)에서 내용을 한정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의미적인 뜻을 담고 있다. 결국 통사적 꾸밈이라는 것과 의미적 한정이라는 개념이 부사 혹은 부사어 속에 들어가 있다. 꾸밈과 한정이라는 표현 이외에 '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꾸밈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1]

(3) 부사, 부사어, 부사절의 개념과 용례: [표준국어대사전]

ㄱ.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활용하지 못하며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매우', '가장', '과연', '그리고' 따위가 있다. ≒어찌씨·억씨.

ㄴ. 부사어: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어미 '-게'로 활용한 형용사,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 ≒어찌말.

ㄷ. 부사절: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절. '빙수는 이가 시리게 차가웠다'에서 '이가 시리

[1] 이러한 정의는 1937년에 나온 외솔의 <우리말본>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 어찌씨(副詞)는 풀이씨(用言)의 우에서 그 아래의 풀이씨가 어떠하게(어찌) 들어남을 보이는 씨를 이름이니, '어떠하게'(어찌) 하(되)느냐?의 물음에 對하야, 그 內容을 對答하는 말에 該當한 씨이니라. (1937:797)
㉡ 어찌마디(副詞節)란 것은 어찌씨 같이 쓰히는 마디를 이름이니: 어찌마디의 풀이말인 풀이씨는 어찌꼴로 됨이 그 보람이니라. 그 보기:
그 사람이, 낯이 뜨뜻하게, 그런 소리를 잘 해요.
나무잎이, 소리도 없이, 하나 둘씩 떨어진다. (1937:987)

게’ 따위이다. ≒어찌마디.

ㄹ. 성분 부사: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주는 부사. ‘성상 부사(性狀副詞)’, ‘지시 부사(指示副詞)’, ‘부정 부사(否定副詞)’ 따위가 있다.

ㅁ.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화자(話者)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로 나눈다.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아마’, ‘정녕’, ‘아무쪼록’, ‘하물며’,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즉’, ‘곧’, ‘및’, ‘혹은’, ‘또는’ 따위가 있다.

(밑줄은 필자)

(3 ㄱ)에서 보이는 ‘매우’, ‘가장’ 같은 부사는 분명히 뒤에 오는 말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3 ㄱ)에서 보이는 ‘과연’, ‘그리고’ 같은 부사도 뒤에 오는 말을 꾸민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김건희(2012:165-166)에서는 ‘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선행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 이는 단순히 뒤에 오는 것을 꾸민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준다는 확대된 의미로 ‘수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과연’, ‘그리고’ 같은 것들을 부사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ㄱ)에서 보듯이 부사는 크게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가장’, ‘매우’는 바로 뒤에 오는 성분을 수식하니까 성분 부사라고 한다. 이에 비해 ‘과연’, ‘그리고’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니까 흔히 문장 부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3 ㅁ)에서 보듯이 양태 부사나 접속 부사는 모두 문장 부사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식’이라는 표현이 의미를 더한다는 뜻을 지니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꾸밈’이 아니고 의미를 ‘수식’한다는 것인데, ‘꾸밈’이나 ‘수식’이나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즉 꾸미는 것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말이다. 차라리 ‘한정’이라는 의미를 부사, 부사어, 부사절에 주면 어떨까? 이는 (3 ㄴ)에서 얻은 생각인데, 성분 부사는 직접 한정하고 문장 부사는 간접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3 ㄹ,ㅁ)에 나타난 ‘꾸며 주는, 꾸미는’을 ‘한정하는’으로 수정하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4) 부사, 부사어, 부사절의 개념 [수정]

ㄱ.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을 한정하는 품사.

ㄴ. 부사어: 용언 또는 다른 말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ㄷ. 부사절: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절.

ㄹ. 성분 부사: 문장의 한 성분을 한정하는 부사.

ㅁ.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부사.

[2] 의미적으로 수식한다고 보는 것은 이숭녕(1968), 김영희(1987), 장요한(2007)에서 보이는 입장이기도 하다. 김건희(2012:165-168) 참조.

한편, 부사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논의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을 보면 부사절 자체를 설정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1985 년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는 부사형 전성 어미를 설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부사절을 설정하는 이상 절에서 사용되는 전성 어미는 있을 필요가 있다. 김인택(2014)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명사-명사형 어미-명사절'과 '관형사-관형사형 어미-관형사절'이 계열을 이루듯이, '부사-부사형 어미-부사절'이 계열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부사-부사형 어미'가 있으므로 '부사절'이 설정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3]

3. 부사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우리는 앞에서 부사절을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절이라고 하면서, 부사와 부사어를 용언 또는 다른 말을 한정하는 품사 또는 문장 성분이라고 개념 정의를 했다. 부사절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결국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한정한다는 개념을 사용함으로 해서, 성분 부사절과 문장 부사절을 설정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부사절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몇 가지 연구사적 검토가 있어 왔다. 이관규(1999, 2002), 민현식(2002, 2004), 고영근(2004), 이익섭(2003) 등이 그것인데, 종속절과 부사절 구분, 종속절의 부사절 인식, 대등절의 부사절 인식 견해들이 연구사적으로 있어 왔다. 여기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피지는 않는다. 단지 각각의 견해가 처음 제기된 논저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왜 각기 다른 견해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와 문제점 중심으로 살피기로 하겠다.

3.1. 종속절과 부사절 구분의 이유

개화기 이후 근대적 학문으로서 우리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시경, 김희상 등 개화기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말 연구가 뜨겁게 이루어지던 1930 년대에도 안긴문장으로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영어문법이나 일어문법을 바탕으로 하던 당시 학문적 연구 풍토에서 당연하기도 하였다.

(5) 박승빈(1935:385-386)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세운 일반적 견해 보임.

ㄱ. 複合文

從屬節을 包含한 文을 複合文이라 니ᄭᅥ一ㅁ

例 (1) 張君이 成功하기는 確實하다

[3] 이런 계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면, '종속절-주절', '대등절', '인용절', '서술절' 같은 단위들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貌楊이 아릿답고 빛이 고오ㄴ ᄉᆡᆫᄎᆞ이 푸엿소

(3) 아바님이 아들 글씨 쓰게 조회를 사오셧다

右 文에 (1) 「張君이 成功하」는 助詞 「기」가 添加되야서 名詞節이 되야서 敍述語 「確實하」의 主語로, (2) 「貌楊이 아릿답」과 「빛이 고오」는 接續助詞 「고」에 連結되고 ᄉᆡᆫᄃᆞ에 잇는 助詞 「ㄴ」의 作用을 바다서 冠形詞節 이 되야서 主語 「ᄉᆡᆫᄎᆞ」의 修飾語로, (3) 「아들 글씨 쓰」는 助詞 「게」의 添加로 副詞節이 되야서 敍述語 「사오」의 修飾語로 使用된 것임

ㄴ. 集合文

對等節이 集合된 文을 集合文이라고 니ᄅᆡᆫ마

例 (1) 山이 높고, 물이 길다

(2) 구룸은 龍을 조츠며, 바람은 범을 좇는다

(3) 술은 이스나 안주가 업스오

(4) 그 學生이 아직 어리오, 그러나 아이가 智慧가 매우 만흐오

右는 各히 獨立한 二個의 文을 接續助詞((1) 고, (2) 며, (3) 나) 又는 接續詞(4 그러나)의 連結로 된 것임[4]

(5)는 1935 년에 나온 박승빈의 <조선어학>의 내용이다. 학범 박승빈은 겹문장을 복합문, 집합문, 혼합문으로 나누었는데, 복합문은 (5 ㄱ)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절('장군이 성공하기'), 관형사절('모양이 아리땁고 빛이 고온'), 부사절('아들 글씨 쓰게')를 포함한 문이고, 집합문은 대등절이 집합된 문이고 혼합문은 복합문이 다시 집합문의 절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복합문은 안은문장이고, 집합문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따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학교 문법 용어로 하면 안은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 설정하여, 학교 문법의 종속절은 부사절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1937 년에 나온 최현배의 <우리말본>에서는 따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은월')을 더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유로 다음 (6)을 제시하고 있다.

(6) 최현배(1937:1131-1132) '이은월을 가진월에서 갈라 세운 까닭'

ㄱ. [붙임 1] 내가 여기에서 이은월이라 하여서 겹월의 한 갈래로 잡기까지에는, 오랜 時日을 두고 많은 苦心을 하였다. 英文法, 日本文法 等에서는 普通으로 겹월을 둘로 갈라서, 가진월과 벌린월의 두 가지로 하고, 우에 내가 이은월이라 한 것들은 가진월에 넣으며, 그 앞마디를 가진월의 어찌마디로 봄이 예사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그러한 前例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 가지 가름을 하여서, 우

[4] 박승빈(1935:386)에서는 복합문과 집합문 이외에 혼합문(混合文)도 설정하였다. 즉 복합문이 다시 집합문의 절이 된 문을 혼합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와 같이, 가진월과 벌림월 밖에 다시 이은월을 더하였나니: 그 까닭은 대강 다음과 같으니라. (최현배, <우리말본> 1937: 1130-1131)

ㄴ. 내가 여기에 이은월이라 한 것들은 그 앞뒤의 마디가 主從的이 아니요 對等的이다.

世人은 흔히 그 앞뒤의 마디를 主從的으로 보지마는, 좀 자세히 살펴 보면 決코 그렇지 아니하다. 곧 앞마디가 뒷마디를 꾸미는 어찌마디는 아니다. 이를테면,

언니는 부지런하지마는, 아우는 게으르다.

어느 날 내가 ㄱ의 집에 간즉, ㄴ이 거기에 와서 놀고 있더라.

그애가 내 동생인데, 나이가 열 두 살이다.

予ㅣ 가라사대, 배워서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비가 올뿐더러, 바람조차 분다.

처음에는 내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했다.

에서, 到底히 그 앞마디가 뒷마디를 꾸미는 일만 하는 것(어찌 마디)이라 할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보기들을 가지고 본다면, 到底히 앞마디가 뒷마디를 꾸미는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分明히 앞뒤의 마디가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제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어느것이 주장이요, 어느것이 꾸밈(곧 뿥음)이라고 그 結合의 主從性을 區別할 수 없는 것이다.

(6)을 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따로 설정한 이유로, “그 앞뒤의 마디가 主從的이 아니요 對等的이”기 때문이라 했다. 곧 “앞마디가 뒷마디를 꾸미는 어찌마디는 아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솔은 안긴 절의 하나인 부사절과 달리 종속절은 뒤 절을 꾸미는 성격을 지니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였다. 뒤집어 말하면 어찌마디, 곧 부사절은 뒤에 오는 것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솔은 통사적으로 꾸미는 것만을 부사절로 보았다. 종속절은 꾸민다기보다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한정하는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종속절이나 부사절이나 둘 다 뒤에 오는 절을 공통적으로 한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7) 문교부(1985:129, 133-134)

ㄱ. 부사절로 안김

7. (가) 산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다.

(나) 우리가 남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7 에서는 ‘소리도 없다’, ‘남의 도움이 없다’가 접미사 ‘-이’와 어울려서 부사절이 되었다.

ㄴ. 대등하게 이어지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짐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두 절의 관계는, 듯으로 보아 서로 대등한 것과 종속적

인 것이 있다.

4. (가) 철수는 서울로 갔고, 철호는 부산으로 갔다.

(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4-(가)는 “철수는 서울로 갔다.”와 “철호는 부산으로 갔다.”의 두 문장이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이어졌고, 4-(나)도 역시 ‘-며’애 의해 두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졌다.

5. (가)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다.

(나) 서리가 내리면 나뭇잎이 빨갛게 물든다.

5-(가)는 종속적 연결 어미 ‘-니’에 의해 앞절이 뒷절에 종속적으로 이어졌으며, 5-(나)도 ‘-면’에 의해 그렇게 이어졌다.

(6) 외솔의 견해는 이후 허웅(1983, 1999)에서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권재일(1985, 2012)로 이어진다. 결국 1985 년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 견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7 ㄱ)에서 보듯이 학교 문법에서는 ‘소리도 없이’와 같이 접미사 ‘-이’가 붙은 부사절을 설정하면서, 이어진 문장의 하나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소위 종속절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종속절을 설정하게 된 것은 최현배(1937)에서부터이며 허웅(1983)과 권재일(1985)를 거치면서 문교부(1985)의 국정 학교 문법으로 안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5]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사절은 뒤의 것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함에 대하여 종속절은 그러지 못한다고 본 외솔의 견해가 결정적 이유라는 점이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한정하는 것으로 부사절을 이해하면 말은 달라진다.

3.2.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이유

영어문법과 일어문법에서처럼 우리말 문법에서도 종속절은 설정 안 하고 부사절을 설정하는 것이 본래 전통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5)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6)에서 보듯이 외솔 최현배(1937) 이후 종속절과 부사절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대세로 굳어져 왔다.

그러다가 1980 년대 중반부터 종속절은 결국 부사절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6] 그 견해의 물꼬를 튼 것은 남기심(1985)의 9 쪽짜리 논문이었다.

---

[5] 허웅(1983)과 권재일(1985)의 견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관규(2002:402-405)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6] 이런 입장은 이후 유현경(1986), 이관규(1990, 1999), 서정수(1994), 최재희(1997), 김영희(1998, 2003), 이익섭·채완(1993), 이익섭(2003) 등으로 이어진다.

(8) 남기심(1985:9)

ㄱ. 첫째로, 대등 접속어미에 의해 이끌리는(대등 접속어미가 붙은) 문장은 그와 접속된, 뒤에 오는 문장 속으로 자리 옮김을 하지 못한다.

형이 크고 아우가 작다

*아우가 형이 크고 작다.

ㄴ. 둘째로 대등 접속문에서는 동일 명사(구)가 순행생략된다. 종속절 안의 명사와 동일한 명사가 뒤의 주절에 나타나면 주절의 명사가 생략된다. 그런데 종속 접속문의 경우는 역행생략이 된다. 종속절의 명사가 주절의 명사와 동일할 때 종속절의 명사가 생략된다.

영희가 예쁘고 (영희가) 슬기롭다.

(내가) 공부를 하려고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ㄷ. 세째로, 대등 접속문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재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종속 접속문에서는 재귀화가 일어난다.

김씨는 집을 지키고 김씨의 부인은 외출했다.

*김씨는 집을 지키고 자기의 부인은 외출했다.

그의 아들이 수석 입학을 해서 김씨는 기분이 좋더라.

자기 아들이 수석 입학해서 김씨는 기분이 좋더라.

ㄹ. 종속적 접속어미로 알려진 것 중에는 문장 접속의 기능 외에 부사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활용형을 구성하는 것이 있다.

그가 걸음을 이상하게 걷는다.

ㅁ. 이상에서 종속 접속 어미에 의해 이끌리는 문장(곧 종속절)은 내포절을 이루며 그 내포절은 바로 부사절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했다. 따라서 종속 접속 어미로 분류되는 어미들은 자격법의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면 용언의 자격법 활용이 명사형, 관형사형과 함께 부사형을 갖추어 균형과 체계를 갖춘 것이 된다. 이 어미들은 부사절을 형성하며 그 중에는 용언의 부사형을 형성하는 것도 있음을 보였다.

(8)에서 보다시피, 남기심(1985)에서는 선행절의 위치 이동, 생략과 재귀화의 방향 등에서 대등문과 종속문이 차이가 나는 사실을 보이면서 종속문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즉 종속절과 부사절은 동일한 통사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이면서 종속절은 곧 부사절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8 ㄹ) 같은 경우에서 '이상하게'는 당연히 부사절로 볼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결국 (8 ㅁ)에서처럼 종속절은 곧 부사절임을 주장하고 있다.[7]

[7] 대등절, 종속절, 부사절의 통사적 특성을 비교 대조한 것은 이관규(1999, 2002)로 미룬다. 거기에서도 결국 종속절과 부사절이 동일하게 부사절로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9) 교육인적자원부(2002: 163, 168)

ㄱ.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이 입고 있다.

그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한다.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 (163)

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 속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앞 절과 뒤 절에 같은 말이 다른 말로 대치되거나 생략된다.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앞 절이 뒤 절 속으로 이동)

나는 미영을 자주 만나지만, (그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로 대치하거나 생략)

국어에서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사절이나 관형절로 된 것도 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8)의 견해는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게 된다. 일단 (8 ㄱ)에서는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은 것만 부사절로 인정됐었는데, (9 ㄱ)에서는 접미사 '-이' 이외에 '-게', '-도록', '-아서' 등도 부사형 어미로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9)에서 보듯이 2002 학교 문법 교과서 안에 종속절이 원칙이고 부사절은 허용하는 규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정 학교 문법에서 종속절을 부사절로도 볼 수 있다는 원칙과 허용의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견해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다. 즉 이미 (6 ㄴ)에서 보았듯이 최현배(1937)에서는 종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한 이유가 이은월의 "앞마디가 뒷마디를 꾸미는 어찌마디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현배(1937)에서는 부사형 어미로 '-게'만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8), (9) 입장에서는 '-게'는 물론이고 '-도록', '-아서', '-으면' 등 모든 종속적 연결 어미들을 포함하게 된다. 즉 부사절이 단순히 뒤의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한정'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8]

종속절은 결국 부사절이라는 (8), (9)의 입장은 이론 문법과 학교 문법에서 많은 지지

[8] 최재희(1997)에서는 '-게 부사절 같은 경우는 성분 부사절로 보고 기존의 종속절은 문장 부사절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은 유현경(1986)에서도 엿볼 수 있다.

를 받았다. 이익섭(2003)에서는 종래 종속절을 부사절과 따로 설정한 것에 대한 “일종의 참회록”이라는 말을 하면서 『국어 부사절의 성립』이라는 최종적인 입장을 내 놓았다.

3.3.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이유

그런데 1990 년 대 들어서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는 다르다는 이론이 등장하면서, 국어의 통사 구조 차원에서 볼 때 종속절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등절까지도 부사절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왕문용(1992)와 왕문용·민현식(1993)에서 그 단초가 나타난다.

(10) 왕문용(1992:723-724), 왕문용·민현식(1993) 학교문법과 활용 체계 / 부사화와 문장의 접속

ㄱ. 국어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대등 접속 구조와 종속 접속 구조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동일한 형태소인 연결 어미가 통합 환경에 따른 의미 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어 파악될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처럼 하나가 배경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둘 다 새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정보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다. … (왕문용, 1992: 723)

여기에서는 (52)에서 ‘그리고, 그러나’가 선행문에 조응하는 것은 (53)의 선행절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곧 이들은 동일 기저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등은 부사이므로 대용 표현 이전의 문장의 상위 범주는 부사절로 볼 수 있다. (왕문용, 1992: 724)

ㄴ. 문장의 접속은 용언의 활용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용언의 활용체계를 다루면서 전통적으로 연결어미로 분류되던 어미를 부사형어미로 취급하였다. 문장의 접속은 원래 연결어미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므로 이 장에서 취급하는 문장의 접속이란 결국 문장의 부사화를 의미한다. 명사형어미에 의하여 문장의 명사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관형사형어미에 의하여 문장의 관형화가 이루어지며 문장의 부사화는 부사형어미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왕문용·민현식(1993:226)

왕문용(1992)에서는 (10 ㄱ)에서 보다시피, 대등 접속 구조와 종속 접속 구조가 ‘-고’나 ‘-며’와 같은 동일한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대등 접속 구조의 선행절을 접속 부사인 ‘그리고, 그러나’ 등 대용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대등절이나 종속절, 곧 부사절이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왕문용·민현식(1993)의 『국어 문법론의 이해』라는 단행본에서 구체적

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10 ㄴ)에서 보듯이 종래의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를 모두 부사형 어미로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10 ㄷ)에서 보듯이 문장의 접속이란 곧 문장의 부사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명사형 어미와 명사화,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사화, 부사형 어미와 부사화의 등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9]

(11) 유현경(2002:341-350) 대등종속어미 '-고'의 부사적 속성

ㄱ. 형태·통사적인 의존성을 들 수 있다. 대등접속어미 '-고'가 의미적으로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태적, 통사적으로는 의존적이다. 342

ㄴ. 대등의 의미를 지닌 어미 '-고'가 이끄는 절이 다른 요소로 대치될 때 부사어나 부사구, 부사절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43

ㄷ. 대등접속어미 '-고'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라는 세 번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대등접속절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343-344

·세상은 넓고도 아름다웠다.

·아버지는 목사로서 자기 아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는 아들의 생애에 큰 기대를 걸었다.

ㄹ. 대등접속어미 '-고'의 부사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결어미로의 용법을 들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어미들은 문장 안에서 접속어미로 쓰이는 동시에 후행절 없이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345

고광주(1999)에서는 대등 접속문과 차이 난다고 하는 종속 접속문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나서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은 특히 통사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10] 단지 '-고'만이 대등문을 만드는 것으로 거의 유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현경(2002)에서는 (11 ㄱ~ㄹ)에서처럼 '-고'가 부사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결국 어미 '-고'가 이끄는 절은 대등접속이 아니라 문장수식부사절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유현경(1986)에서는 종속절이 부사절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유현경(2002)에 와서는 대등절마저도 부사절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그나마 대등절 형성 어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고'마저 부사적 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어에

[9] 종속절은 물론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입장은 특히 문법 교과서를 해설하는 교사용지도서인 교육인적자원부(2002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물론 거기서 주된 설명은 종속절을 부사절로 본다는 입장이며, 대등절의 부사절 보기는 추가적인 설명을 곁들인 것이다.

[10] 고광주(1999: 57-65)에서는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을 가르는 아홉 가지 근거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구조적인 차이로 완전한 설명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호성과 대칭성, 선행절의 이동 가능성, 대등 연결 어미의 후행절 뒤 후접, 재귀화 실현 가능성 여부, 선·후행절 주제화 가능성, 나열 구성 혹은 접속사 되풀이 현상 등을 통사적으로 살피면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구성은 연결 어미 '-고'의 의한 일부 접속문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는 대등문과 접속문이 사라지고 안은문장(혹은 내포문)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11] 고광주(1999)와 유현경(2002)에 이어 이정훈(2007)에서도 이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의미적으로는 대등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사적으로는 절을 잇는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등절도 부사절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의미적으로는 대등절이 있지만 통사적으로는 없다는 주장은 일견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형태는 결국 의미를 발현하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어말 어미로 두 절을 잇는다는 점에서 보면 어미의 비독립성으로 인해 종속절뿐만 아니라 대등절까지도 부사절이라는 주장은 나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12]

4. 부사절을 형성하는 방법

앞에서는 부사절의 문법적 의미, 즉 그 범주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부사절을 이루는 기제, 즉 부사절을 만드는 문법적 형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부사형 어미, 혹은 부사형 형태는 아래 (1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2) 부사절 형성 방법: 허웅(1983: 274-275)

어찌마디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파생어찌씨에 의하는 것, 풀이씨의 활용에 의하는 것, 매인이름씨에 의하는 것, 특수토씨에 의하는 것이 있다.

ㄱ.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없고, 정신력 없이도 살 수 없다.

ㄴ. 이것은 그것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ㄷ. 구름의 한 조각이 사라지듯 사람의 목숨도 사라진다.

ㄹ.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 우물을 깊게 파라.

ㅁ. 혀가 닳도록 타일렀다.

ㅂ. 그 날 밤 그는 (그가) 자는 듯이 죽어 갔다.

ㅅ. 그는 못 본 척 눈을 돌렸다. / 그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떠들어 댔다.

ㅇ.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밑줄은 필자)

허웅(1983)은 부사절('어찌마디')을 만드는 방법으로 (12)에서 보듯이 접미사 '-이'(12

[11] 민현식(2002)에서는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를 다루면서, 부사절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말에 대등절과 종속절이 없고 오로지 부사절만이 있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이 논문은 유현경(2002)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12] 유현경(2002:350)에서는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남는 문제를 적고 있다.
"대등접속까지 부사절로 인정하여 접속어미가 이끄는 모든 절을 부사절로 분류하는 결론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치열하게 규명했던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여러 가지 통사적 차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긴다.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변별적 차이를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는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ㄱ,ㄴ), 부사형 어미 '-듯, 게, -도록'(12 ㄷ,ㄹ,ㅁ), 의존 명사 '듯이, 척, 양'(12 ㅂ,ㅅ), 특수 조사 '시피'(ㅇ)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알다시피'는 '알+ㄹ시피'로 분석되어, 어미 '-ㄹ다시피'가 붙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부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접미사, 어미, 의존 명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3) 접미사인가 부사형 어미인가: '-이'와 '-게'

ㄱ. 비가 <u>소리도 없이</u> 내린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ㄴ. 엄마가 아이를 {<u>곱게</u>/고이} 알았다. (유현경 2006: 102)

ㄷ. 꽃이 <u>예쁘게</u> 피었다. (유현경 2006: 118)

(밑줄은 필자)

부사절을 형성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이다. '-이'는 부사화 접미사로 (13 ㄱ)에서처럼 '소리도 없이'에서 쓰여 가장 대표적인 부사절 형성 표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접미사가 절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여 최근에는 접미사로서의 '-이$_1$'와 부사형 어미로서의 '-이$_2$'로 구분하곤 한다. 즉 (13 ㄱ)의 '-이'는 접미사가 아니라 부사형 어미로 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게'도 접미사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ㄴ)에서처럼 '고이'와 자유롭게 치환될 수 있는 '곱게'는 품사가 부사인데, 곧 이때의 '-게'는 접미사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13 ㄷ)에서의 '-게'는 품사가 형용사이며, 이때의 '-게'는 부사형 어미로 본다(유현경, 2006: 102, 118).

(14) 종속적 연결 어미인가 부사형 전성 어미인가: -도록, -아서, -듯이, -고자, -려고, -니까

ㄱ. 철수는 <u>발에 땀이 나도록</u> 뛰었다.

ㄴ. 길이 <u>비가 와서</u> 질다.

ㄷ. 눈물이 <u>비 오듯이</u> 쏟아졌다. (홍양추 1989: 66)

ㄹ. 나는 <u>시험에 합격하고자</u> 열심히 공부했다. (홍양추 1989: 86)

ㅁ. (내가) <u>공부를 하려고</u> 도서관으로 향했다. (남기심, 1985: 72)

ㅂ. 이슬이 <u>해가 뜨니까</u> 사라지는구나. (남기심, 1985: 71)

(밑줄은 필자)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14)에 사용된 어미 '-도록, -아서, -듯이, -고자, -려고, -니까'는 모두 부사형 전성 어미로 볼 수 있다. 물론 종속절로 본다면 모두 종속적 연결 어미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종속절과 부사절의 문법적 범주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도록'은 (13 ㄷ)의 '-게'와 함께 동질적으로 종속적 어미 혹은 부사형 어미로 다루어져 왔다.

(15) 의존 명사 구문은 부사절인가 아니면 부사구인가?

ㄱ. 꽃잎이 <u>소낙비 내린 듯이</u> 떨어진다. (홍양추 1989: 81-82) 유보

ㄴ. 영희는 <u>잠옷을 입은 채로</u> 달려 나갔다.

ㄷ. <u>비가 오기 때문에</u>, 길이 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168)

ㄹ. <u>비가 오는 가운데</u>,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 2002: 168)

(밑줄은 필자)

부사절 논의에서 약간 차원을 달리해서 보아야 할 것이 소위 의존 명사 구문이다. (15 ㄱ)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한꺼번에 보면 부사절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때는 '[소낙비 내리] + ㄴ듯이'로 보는 입장인데, 곧 기능주의 차원에서 '-ㄴ듯이'를 통합적 부사형 어미로 보았을 때 가능하다. (15 ㄴ)에서는 '-은채로', (15 ㄷ)에서는 '-기때문에', (15 ㄹ)에서는 '-는가운데'를 통합적 부사형 어미 하나로 본다는 것이다.[13] 그러나 이들 각각은 '[[[잠옷을 입]은]채]로',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는] 가운데]' 구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 아닌 부사구로 보아야 한다.[14] 물론 이는 통합식이 아닌 분석식 구조라고 보아야 한다.[15]

결국 (15)의 의존 명사 구문은 부사절로 볼 것인지 부사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문법 이론관 차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ㄴ듯이, -은채로, -기때문에, -는가운데'를 하나의 통합적 부사형 어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행 '-ㄴ 듯이, -은 채로, -기 때문에, -는 가운데'를 인정하여 부사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곧 기능주의를 택할 것인지 형태주의(분석주의)를 택할 것인지의 이론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후자의 일반적 분석 방법을 따른다.

5. 나아가기

5.1. 지금까지 부사절의 문법적 의미, 즉 그 범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의 시기별 혹

---

[13] (15ㄱ)에서 의존 명사 '듯이'는 '듯'으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 '듯이'와 '듯'은 서로 다른 의존 명사로 파악된다. (15ㄴ)에서는 의존 명사 '채'에 부사격 조사 '로'가 붙은 '채로'가 사용되었다. 같은 데서는

[14] '-기 때문에' 구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이관규(2012)에서는 핵 이동 원리 차원에서 부사구로 보고 있다. 즉 이들은 부사절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셈이다.

[15] 의존 명사 구문은 아니지만 명사형 어미 '-기'를 이용한 '-기까지', '-기 위하여' 같은 표현들도 부사절 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민현식 2002:243).

ㄱ. <u>비에 젖기까지</u>, 너는 무엇을 했냐? (민현식 2002: 243)

ㄴ. <u>비를 피하기 위하여</u>, 우산을 펼쳤다. (민현식 2002: 243)

(ㄱ)에서 '-기까지'를 통합적으로 부사형 어미로 보아야만이 '비에 젖기까지'가 부사절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에 젖기'가 명사절이고 '까지'가 부사격 조사가 되어 결국 '비에 젖기까지'는 부사구가 될 것이다. (ㄴ)에서도 '-기위하여'를 통합적 부사형 어미로 볼 경우 '비를 피하기 위하여'가 부사절이 될 것인데, 현재의 체계에서는 쉽지 않다.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비를 피하기를 위하-'에 부사형 어미 '-어'(여기서는 '-여')가 붙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은 의견별로 살펴보았다. 그 흐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여기에 표시된 것이 해당 기간 모든 논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박승빈(1935)은 당시의 대체적인 견해를 나타낸 저서이고, 나머지들은 해당 견해를 보인 첫 번째 논저이다.

	박승빈 (1935)	최현배 (1937)	남기심 (1985)	왕문용 (1992)
대등절	○	○	○	
종속절		○		
부사절	○	○	○	○

그러나 최근 들어 박소영(2002), 김인택(2002), 김태엽(2009), 김건희(2012), 김억조(2014) 등에서 다시 종속절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말은 영어나 일본어와 달라서 종속절과 부사절은 구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최현배(1937)의 견해를 대체로 따르는 입장들이다.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대등과 종속 구분은 분명 있다. 또한, 종속적인 문장들에서도 대등은 아니면서도 안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절들이 있어서, 종속절과 부사절을 나누게 된다. 외솔 최현배(1937)에서 고민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부사절의 문법적 의미를 따질 때, 그것을 의미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 통사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대등절까지도 부사절로 보는 견해들에서 중장하는 것이 '-고'는 아무리 대등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결국은 어미이기 때문에 선행절은 후행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말 자체가 교착어인 이상 어미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 '-고'와 '그리고'의 의미가 동일한데 굳이 하나는 부사절을 이끌고 하나는 대등절을 이끈다고 할 수 있을까?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를 인정하고 있는 학계에서 성분 부사절과 문장 부사절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굳이 '꾸밈'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국 '한정'의 의미로 부사절 수식을 해석한다면 문장 부사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꽃이 피게 빛을 밝히다.'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모두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보자는 견해로 이어진다.

5.2. 부사절의 문법적 의미, 곧 그 범주를 살핀 이 글을 통해서 문법 연구의 이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형태주의 이론에 따르면 미시적 분석을 하게 되고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거시적 분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 때문에' 구문은 부사절 구문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형태를 따지는 이론, 특히 핵 이동 원리를 따르는 이론에 의하면 '-기 때문에' 구문은 결코 부사절 구문이 아닌 부사구 구문이 된다.

문장, 절, 구, 어절, 단어를 엄격히 구분하는 형태주의 이론과 의사 전달 매개체로서의 언어 표현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능주의 이론 가운데 어느 것이 설명적 타당성이 더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터이다. 또한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교 문법 같은 데서는 더욱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5.3. 이 글에서 전혀 다루지 못한 것이 있다. 부사절 논의와 관련하여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준다는 소위 보조적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와 관련한 것이었다. 용언과 용언이 이어지니까 홑문장과 홑문장이 이어진다고 해야 할 터인데, 문제는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이 구체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먹고 싶다'에서 중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앞에 오는 본용언 '먹다'이고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부차 의미를 덧붙여 준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꾸밈'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의미적으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이 앞에 오는 본용언을 꾸민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의 '-아, -게, -지, -고'를 부사형 어미로 명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의미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 보조 용언 구성 관련 논의에서 의미보다 통사를 더 중요시하는 듯하다. 이것도 물론 어떤 문법 이론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표출할 수 있다. 특히 생성 문법 차원에서 본다면 본용언이 보조 용언을 수식하는 구조로서, 당연히 겹문장으로 본다. 의미만을 따진다면 중심 의미가 본용언에 있고 부차적 혹은 수식하는 의미가 보조 용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른 논문에서 살피기로 한다.

<참고문헌>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9-1, 49-80 쪽.

고영근(2004), 국어 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현행 고등학교 『문법』을 검토하면서-, 『우리말 연구』15, 23-53 쪽.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Ⅰ』, 집문당.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집문당.

김건희(2012), 부사절의 수식과 접속, 『한글』 297, 161-203 쪽.

김선희(), 부사절의 설정 문제와 범위, 『목원어문학』 17, 53-71 쪽.

김억조(2014), 종속접속문과 부사절을 안은문장의 의미 차이 교육의 필요성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7-3, 23-44 쪽.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201·202, 83-117 쪽.

김영희(2003), 내포 접속문, 『한글』 261, 173-206 쪽.

김인택(2002), 한국어 내포절의 범주 설정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0, 59-87 쪽.

김정대(2004),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국어국문학』 138, 121-152 쪽.

김태엽(2009), 내포문웝 ㅜ사절과 접속문의 종속절, 『학교교육연구』 5-1, 2-18 쪽.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어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0-1, 69-77 쪽.

민현식(2002),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10, 227-250 쪽.

박선자(1996), 『한국어 어찌 말의 통어 의미론』, 세종 출판사.

박소영(2002), 한국어 부사절과 접속문 체계 다시 보기, 『언어학』34, 49-73 쪽.

서형국(2012), 수식과 수식 단위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인문학연구』 21, 229-259 쪽.

왕문용(1992), 學校文法과 활용 체계, 『난정 이응백박사 고희기념논문집』, 715-728 쪽.

왕문용·민현식(200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77-104 쪽.

유현경(2002), 부사형 어미와 접속 어미, 『한국어학』 16, 285-315 쪽.

유현경(2006), 형용사에 결합된 오미 '-게' 연구, 『한글』 273, 99-123 쪽.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389-410 쪽.

이관규(1999), 대등문·종속문·부사절 구문의 변별 특성, 『선청어문』 27-1, 753-780 쪽.

이관규(2001), 국어 부사절의 유형과 통사 구조, 『수련어문논집』 26·27, 1-26 쪽.

이관규(2002), 국어 부사절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와 그 한계점, 『언어』 27-3, 399-416 쪽.

이은경(1995), 접속문의 대등성과 종속성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3, 237-262 쪽.

이은경(2010), 역대 학교 문법의 연결 어미와 부사형 어미 -이어진 문장, 부사절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어학』46, 285-315 쪽.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이정훈(2006),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그리고’에 대한 고찰, 『우리말글』 36, 73-105 쪽.
이정훈(2008),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18, 115-135 쪽.
이정훈(2015), 접속어미의 통사와 접속문의 통사구조, 『한국어학』 66, 49-85 쪽.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87-130 쪽.
최재희(1997), 국어 종속 접속의 통사적 지위, 『한글』 238, 119-144 쪽.
최재희(2011), 학교문법의 겹문장 체계 기술 방안 연구, 『한글』 292, 87-130 쪽.
허철구(2010), 국어의 ‘-고’ 접속문의 구조와 해석, 『한국어학』 47, 261-293 쪽.
홍양추(1989), 국어 부사절 내포문 연구, 『한글』 203, 49-92 쪽.

명사파생접미사 '-이'에 대한 고찰

-서북방언을 중심으로

정의향
(양주대학교)

1. 서 론

접미파생법은 품사에 따라 대체로 명사파생법, 동사파생법, 형용사파생법, 부사파생법 등으로 나뉘어 논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명사파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에서 명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 접미사들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도 매우 많을 것이다. 서북방언에서도 명사파생접미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비교적 생산적인 접미사들로는 '-이', '-음', '-기', '-개', '-쟁이(-장이), -뱅이(-방이), -퉁이', '-질, -노리/노릇', '-앙/엉, -앙이/엉이, -악/억' 등이 있다. 이들 명사파생접미사들은 주로 동사, 형용사, 명사, 어근, 의성·의태어 등을 어기로 취하여 명사를 파생시킨다.

2. '-이'에 의한 파생

서북방언에서 '-이'는 파생접미사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도 생산적인 파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일 형태소 동사어간 또는 복합동사어간에 결합하여 행위명사, 도구명사, 유정명사를 파생시키기도 하고 형용사어간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파생시키기도 하며 명사나 어근 그리고 의성·의태어에 결합하여 사람, 동물, 식물, 사물 등을 지칭하는 명사를 파생시키기도 한다.[1]

① [동사어간+-이]

(1) 가. 멕이(먹이), 벌이, 놀이　cf. 떠깨˜이/병떠까˜이/가매떠까˜이(뚜껑)

[1] 구본관(2002a:115-116)에서는 파생어 형성과 의미를 논의하면서 어기의 의미 중 일부만이 파생어에 반영된다는 송철의(1985)를 바탕으로 파생어 형성에서 어기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생접사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파생접사의 여러 의미 중 한 가지 의미만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이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하는 사람이나 사물', '…하는 물건 또는 도구' 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 -음'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 나딜이(나들이), 미다디([밀-+ 닫-]+ 이, 미닫이)

(1 가)는 단일형태소 동사어간을 어기로 취하여 '어떤 사실이나 일'을 나타내는 행위명사 및 도구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멕이'는 동사어간 '먹-'에 '-이'가 결합되어 '먹이'가 된 다음 후행모음 '-이'의 영향으로 움라우트를 겪은 것이다. 이 지역어에서는 피동화음이 '아, 어'인 경우에 움라우트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멕이' 외에도 보재기(보자기), 뎁히다(데우다), 냉기다(남기다)' 등의 예들이 있다.

'벌이'는 '돌아댕기멘 벌이두 그케 몯하구 골란히 살디(돌아다니면서 벌이도 그렇게 못하고 곤란하게 살지)'에서처럼 넓은 의미의 행위명사이다. '떠깨~이'는 동사어간 '덮-(蓋)'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2]

(1 나)의 '나딜이'는 '[나-+ 들-]+ -이'로 분석할 수 있고,[3] '미다디'는 '[밀-+ 닫-]+ -이'로 분석 할 수 있다. '나디리'와 '미다디'는 소위 비통사적 복합동사를 어기로 취한 것인데 이런 현상은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거의 생산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어에서 단일형태소 어간('나딜이', '미다디'는 제외)을 어기로 취하는 '-이'는 주로 '…하는 일 또는 …하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며 넓은 의미의 행위명사나 도구명사를 만든다. 이 지역어에서 단일형태소 동사어간을 어기로 취하는 파생어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② [[명사+ 동사어간]+ -이]

(2) 가. 봄맞이, 집딜이(집들이), 돈벌이, 밥벌이, 논갈이, 밭갈이, 가을갈이
나. 목걸이, 입성걸이(옷걸이), 재털이(재떨이), 못뽑이
다. 젖멕이(젖먹이)

(2 가)에서 '-이'는 '명사+ 동사어간'을 어기로 취하여 주로 행위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이것은 단일형태소 동사어간을 어기로 취하면 주로 넓은 의미의 행위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의 의미는 주로 '…을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2 나)에서 '-이'는 '명사+ 동사어간'을 어기로 취하여 도구명사 또는 사물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며 주로 그 행동이 미치는 대상물을 가리킨다. 파생접미사 '-이'는 '…하는 도구나 물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

[2] 이병근·정인호(2003:32)에서는 '덮-'의 어간말 'ㅍ'이 'ㅸ'에 소급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조어될 당시 이미 어기에 변화가 생겨 'ㅸ'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또 다른 한편 '떠깨~이'를 형태로 보면 'ㅸ>ㄲ'의 변화처럼 보이어 'ㄲ'이 'ㅍ'과 대응된다고 볼 수도 있어 어간말 'ㅍ'의 성격이 간단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3] '나딜이'의 '딜-'은 뒤에 오는 '-이'의 영향을 받아 '으'가 '이'로 전설모음화 하여 '딜'로 실현된 것이다. 이 지역어에서 개재자음이 '설정성' 자음인 경우에도 일부 단어는 통시적으로 움라우트를 겪었다. '나딜이' 외에도 '딜이다(들이다), 바니질(바느질)' 등 예가 있는데 이 지역어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다)에서 '-이'는 '명사+동사'를 어기로 취하여 유정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젖멕이'[4]의 의미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뜻이며 이때 접미사 '-이'는 '…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3) 젖을 안 뗀 아이. 그저 젖 먹는 아:는 이름이 잇디머. 이름 잇어. 젖멕이 젖먹이라 그는 사람두 잇구.

다음 (4)의 예들은 '-이'에 의한 파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잡이', '-살이'에 의한 파생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논란이 많은 파생어들이다.[5]

(4) 가. 낭잽이(양손잡이), 손잽이(손잡이), 문잽이(문잡이) cf. 낭쥐지, 손쥐지, 문쥐지 고기잽이(고기잡이) 왠손잽이(왼손잡이), 앞잽이(앞잡이)
나. 오막살이, 시집살이, 세간살이, 또꾸방살이(소꿉질), 살림살이
감악살이(감옥살이), 들사우살이(처가살이), 일꾼살이, 머슴살이

(4가)에 열거된 예들은 형태적으로 보아 모두 '잽이' 형태를 가진다.[6] 이 지역어에서 '잽이'의 의미는 다양하다. '낭잽이, 손잽이, 문잽이'[7]의 '잽이'는 '그릇이나 문, 기구나 도구에 달려 있는 손으로 잡아서 들거나 열 수 있도록 덧붙여 놓은 부분'을 의미한다. 그 중에 '문잽이'는 중부방언의 '문고리'에 해당한다. 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밑에 친 문열쇠, 문잽이, 문걸쇠라 그래두 될 거라 문잡이, 문잽이라 그래야 맞아.

'고기잽이'의 '잽이'는 '…을 잡는 행위'를 의미하며, '왠손잽이'와 '앞잽이'는 모두 '…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왠손잽이'는 '한 손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왼손을 쓰는 사람. 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을 의미하고 '앞잽이'는 '남의 시킴을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형태의 '잽이'를 모두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

[4] 김창섭(1992:19)에서는 '젖먹-'류는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나 더 큰 복합어의 내부에는 나타난다는 사실로 이들을 '잠재어'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성광수(2001:155)에서는 축약으로 인한 단어화(통사구조의 어휘화:젖먹-)의 가능성과 어휘부의 어근 '젖'과 '먹-'의 복합어 구성의 가능성 즉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5] 중부방언에서 '안경을 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안경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잡이'는 '잡다'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접미사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이런 의미의 '잡이'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잡이'가 접미사로 될 가능성은 중부방언보다 적다. 이 지역어에서 '안경잡이'에 해당하는 단어로 '안경재~이'를 사용하고 있다.
[6] '잽이'는 '잡-'의 모음 '아'가 후행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움라우트를 겪은 결과이다.
[7] 최형용(2003:289)에서는 '손잡이'형에 대해 두 가지 직접 성분 분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손잡-]-이]'와 '[손[잡이]]'형이 그것이다. 전자는 이들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고 후자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단어의 형성 과정을 위한 분석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손잡-'은 통사부의 실현 원리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고 어휘부 내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이 지역어에서는 '낭잽이'가 '낭줴지', '손잽이'가 '손줴지', '문잽이'가 '문줴지'로 쓰이기도 한다.

(4 나)에서 '살이'도 '잽이'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다양하다. '오막살이, 또꾸방살이(소꿉질)'의 '살-'는 '어떤 곳에서 사는 살림살이'를 의미하고, '감악살이, 들사우살이'의 '살-'는 '어디에 기거하여 사는 생활'을 의미하며, '일꾼살이, 머슴살이'의 '살-'는 '어떤 일에 종사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잽이, 살이'가 약간 특수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잽이, 살이'류를 접미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런 특수한 의미들은 대체로 단어형성과정에서 특수하게 주어지는 의미이거나 단어형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미의 특수화가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런 특수한 세부적인 의미까지를 '-이'의 의미기능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송철의 1992:130).

③ [형용사어간+-이]

(6) 깊이, 높이, 길이

(6)은 형용사어간에 '-이'가 결합하여 척도명사가 파생된 경우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세한국어시기에 척도명사는 형용사어간에 파생접미사 '- /의'가 결합하여 만들어졌었는데 근대한국어로 오면서 ' '의 소멸과 이중모음 '의'의 단모음화로 인해 지금의 동사어간으로부터 행위명사를 파생시키는 파생접사 '-이'와 그 형태와 기능이 동일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어에서도 중부방언에서처럼 의미론적 제약[8]으로 보이는 '*짧이, *낮이, *얕이'와 같은 척도명사 파생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정도성이 큰 형용사 즉 긍정적 가치 계열의 형용사들로부터만 명사가 파생된다. 또한 '길이, 높이'는 있지만 '*길기, *높기'가 없는 것은 의미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저지현상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송철의 1977:20).

이 지역어에서는 형용사어간에 명사파생접사 '-이'가 결합되는 경우가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다.

④ [명사/어근+-이]

(7) 가. 쩔뚝발이/찔룩발이(절뚝발이), 눅손이(육손이), 더펄이(덜렁이)
cf. 멍텅구리[9], 머저리, 마디(만(頭)+-이, (昆))
나. 떠까리(뚜껑, 떡깔+-이), 딱까리(상처딱지, 딱깔+-이), 도랭이(도랑+-이),

[8] 어기의 의미상의 특질에 따라 파생어의 형성이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것을 의미론적 제약이라 한다(고영근·구본관 2008).
[9] '멍텅구리'는 '멍텅+-구리'로 분석할 수 있으며 '멍텅'은 '멍텅하-'(정신이 빠진 것처럼 멍청하다)의 어근으로 볼 수 있다.

파이(파+-이),

장지기/장재기(장작+-이), 보라이(보라+-이, 보라색), 더데기(더덕+-이),
꼴짜기/골채기(골짝+-이), 누데기(누덕+-이, 누더기)
cf. 말쿠지(말ㅎ+곶-+-이, 말뚝), 피꺼기(피꺽+-이, 딸꾹질)

(7)의 '-이'는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취하여 '…와 같은 성질이나 특징을 갖는 사람, 동물, 식물'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듦으로써 '유정명사화소'(송철의 1992:134)라고 명명할 수 있다. 명사로부터 파생된 파생명사들은 동일 품사 내의 파생으로서 그 성격이 비교적 단순하다(김창섭 1996:113).

(7 가)는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취하여 사람을 나타내는 유정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쩔뚝발이/찔룩발이'는 '쩔뚝/찔룩+발+-이'로 분석할 수 있는데 '쩔뚝/찔룩'은 '쩔뚝거리다, 찔룩거리다'의 어근을 어기로 한 것이다. '쩔뚝발/찔룩발(절뚝발)'과 '눅손(육손)'은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며 이 명사어간에 '-이'가 결합되면 '그러한 신체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외모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더펄이'는 '더펄더펄' 또는 '더펄거리다'의 어근 '더펄'에 '-이'가 결합된 경우인데 그 의미는 '성미가 침착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사람'을 말한다.

(7 나)는 명사나 어근을 어기로 취하여 사물이나 식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말쿠지'는 '말ㅎ(橛:말뚝)+곶-+-이'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곶-'의 두음 'ㄱ'가 앞음절 말음 'ㅎ'의 영향으로 격음 'ㅋ'로 되고 모음상승 '오>우'에 의하여 '말쿠지'로 될 수 있다(김영배 1987:5). 따라서 '말쿠지'는 공시적 구조로 보기 어렵고 통시적 구조로 볼 수 있겠다. '말쿠지'의 의미는 평북방언에서 '①옷 따위를 걸기 위하여 벽에 박은 못 ② 말뚝'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지역어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8) 소두 말이야. 승이 세서 기면 저 내다 맨 그 풀 띧어먹으라구 내다 맨 그 말쿠지에두 배때기레 째진다 이러멘 내레 과:띠머.

그리고 '피꺽이'는 중부방언의 '딸꾹질'에 해당되는데 동사 '피꺽하다, 피꺽피꺽'의 어근 '피꺽'에 '-이'가 결합되어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9) 피꺽이 하문 딛기 싫다. 피꺽이 한다 그래. 피꺽 피꺽 그리디 피꺽이라 그래. 와자꾸 나오노 사람을 탁 놀래나게 해주문 떨어대.

다음 (10)의 예들은 주로 명사를 어기로 취하여 동물을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에는 주로 동물 이름에 붙는 경우가 많다.

(10) 고슴도티(고슴+돝+-이, 고슴도치), 곰팡이(곰팡+-이), 베루디(베룯+-이, 벼룩), 거부기(거북+-이) cf. 게루기/기루기(그력+-이, 기러기)

(10)의 '고슴도티'는 중부방언의 '고슴도치'에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ㄷ'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슴도티'로 실현된다. '고슴도티'는 '고슴+돝(豚)+-이'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주데~일 제 배때기다 쏙 타막구 쪼꼬매핸거 똥글해디디머 몸떼~이레 크다 글야디 고슴도티 가시레 깊어.

15 세기 문헌에서도 '고솜돝'이라는 어형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돝'은 '돼지'라는 뜻이지만 '고슴<고솜'은 '가시'를 뜻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히 그 어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18 세기의 문헌자료에는 '고솜돗치'로 나타나고 있다.

(12) ㄱ. 머리 터럭과 고솜도 가츨 게 호아 <1466 구급 66a>
ㄴ. 刺蝟 고솜돗치 <1778 방언유, 해부방언, 16a>

'베루디'는 명사 '베룯'에 '-이'가 결합된 것인데 중부방언의 '벼룩'에 해당한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베루디야 것두 개에두 많구 혹시 입성에두 올라서 후두둑 뛰는거 잇어 좀 시꺼멓게 베루디라 그래 베루디레 많아 개에서 올리우디머 사람에게.

⑤ [의성·의태어+-이]

(14) 맹꽁이, 뻐꾸기(<벅국이), 쌕쌔기(쌕쌕+-이, 귀뚜라미), 매미(* 암/ 얌+-이)

(14)는 의성·의태어를 어기로 취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유정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맹꽁이'는 의성어 '맹꽁'에 '-이'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인데 그 의미는 '맹꽁잇과의 양서류 동물'을 뜻하거나 '야무지지 못하고 말이나 하는 짓이 답답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역어에서는 전자의 의미보다는 후자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⑥ [동사어간+ -음/엄/엉+ -이]

(15) 헐미(헐-+ -음+ -이, 헌데/부스럼), 대리미(대리-+ -음+ -이, 다리미),
꺼스레미(그을음, 꺼슬-+ 엄+ -이), 허리거부레~이/꺼부레~이(꺼부르-+ -엉+ -이, 꾸부렁이)

(15)의 예들은 파생접미사 '-이'에 의해 형성되는 파생명사 중에서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헐미'는 형태로 보아 동사어간 '헐-'의 파생명사 '헒'에 다시 '-이'가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창돈(1978:230)에서는 '허믈'에 대한 설명에서 '험'을 '헐-'의 명사형으로 볼 수 있으니 '허믈'은 전성명사에 다시 접미사 '을'이 붙어 명사를 파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헐미'도 이와 동궤의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헐미'의 의미는 '다치거나 부스럼이 나거나 하여 살이 헐고 상한 자리 또는 그러한 병'을 나타낸다. 문헌자료 및 이 지역어에서 사용하는 '허믈', '헐미'에 대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 ㄱ. 湯火애 傷 닐 고티며 허믈 업게 호 (無瘢痕) <1466 구급방언해 11b>
ㄴ. 사 의 육신이라도 텬쥬 덕능의 도으심이 잇스면 인력법을 조곰이라도
헒이 업시 우흐로 올나갈 만 고 <1908 경향보감 3:145>

(17) 목아지 헐미 나구 헐어서 달련받는 사람 안 잇네. 그케 헐어개지구선 벵원에 가서 석 달반을 잇엇대. 너머 과히 아푸다 헐미레 되는 수두 잇어. 헐미레는 거이 헐어서 오래오래 안 낫는 것두 익구 그렇디머 헐미라 그래 칵 헐미레 나서 모구레 물어 떼서 헐미레 되는 거.

'대리미'와 '꺼스레미'는 각각 중부방언의 '다리미', '그을음'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각각 '대리-+ -음+ -이', '꺼슬-+ -엄+ -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은 동사어간에 '-음'이 결합되고 다시 거기에 명사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들이다. '대리-'[10]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를 의미하고, '꺼슬-'는 '불에 쬐어 거죽만 조금 타서 검게 하다'를 의미한다. '허리거부레~이/꺼부레~이'는 동사어간 '꺼부리-'에 '-엉'이 결합되고 다시 거기에 명사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이다. '꺼부리-'는 '한쪽으로 구붓하게 굽히다'를 의미하며 '꺼부레~이'는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으로 중부방언의 '꾸부렁이'에 해당된다.

[10] '대리-'는 움라우트 즉 '다리-'에서 앞음절의 후설모음 'ㅏ'가 뒤에 오는 전설모음 'ㅣ'의 영향으로 전설모음 'ㅐ'로 바뀌어 '대리-'로 된 것이다.

그 외에 이 지역어에서도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인명 뒤에 붙은 '-이'가 있는데 가령 '연이, 철이'와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이'가 인명에 붙을 때는 파생접미사로 보기 힘들다. 최현배(1937/1980:659-660)에서는 "씨가지를 그 하는 구실(職責)을 따라 뜻 더하는 것(加意的의 것)과 말 만드는 것(造語的의 것), 그리고 소리 고루는 것(調音的)"의 세 가지로 나눈다고 설명하면서 '쇠돌이, 갑득이'에서의 '-이'를 '소리 고루는 씨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때의 '-이'는 "뜻과 감목(품사)에는 아무 상관없이 다만 말의 소리를 고루어 그 소리 냄을 편하게 할 따름의 씨가지"로 규정하였다. 허웅(1975:39)에서도 최현배(1937/1980)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여 인명에 붙는 접사 '-이'는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 아무런 뜻이 없고, 오직 소리를 고르기 위해서 들어간 것 즉 닿소리로 끝난 이름씨를 홀소리로 끝나도록 하는 구실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동이'를 '복동'의 이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인명 뒤에 붙는 '-이'를 조음적 요소로 받아들이기로 한다.[11]

마지막으로 '-이'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는데 '-이'는 어기가 자음으로 끝날 때만 결합하고 모음으로 끝날 때는 결합하지 않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ㄹ'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가 이러한 음운론적인 제약을 가지게 된 것은 통시적으로 보면 이형태를 이루던 '-이'와 '-기' 중에서 '-이'만이 파생접미사로 발달했기 때문이다(구본관 2002:121).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파생접사는 한 가지 품사와만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동사, 형용사, 명사 등 여러 품사와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가 각각 다른 파생접미사일 가능성도 있다. 형용사어간에 결합된 '-이'는 중세한국어에서 '- /의'로서 '기릐, 노 '등으로 나타나다가 음운 변화의 결과로 '-이'로 바뀐 것이다. 명사나 어근에 결합된 '-이'도 동사어간에 결합된 '-이'와 비교할 때 어기의 품사가 다를 뿐 아니라 파생접사의 의미도 다르다. 명사어간이나 어근에 결합된 '-이'는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 사물'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어간 뒤에 결합된 '-이'는 '어떤 행위나 상태'의 의미를 지니어 역시 이들을 다른 접미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하치근(1999:365)에서는 파생접미사 '-이'를 어휘적 자질을 가지며, 단일어기를 취하는 접미사로 보면서 명사를 어간으로 취하는 '-이'는 근대한국어 후기에 새로이 나타난 것으로서 동사에 붙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형용사를 어간으로 취하는 '-이'는 중세한국어의 파생접사 '- /의'가 변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성격의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묶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파생접미사 '-이'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원과 기능면에서 볼 때 달리 처리되어야 함으로써 파생접미사 '-이'는 '-음'과 동질적인 접미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1] 송철의(1992:137)에서는 이광호(1985:68)의 견해에 따라 '-이'에 의해 형성되는 파생명사가 반드시 인명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uman]이라는 의미자질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명에 붙는 '-이'도 본질적으로는 동물명 뒤에 붙는 '바둑이'의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인명도 넓게 보면 유정명사의 범주에 들 수 있기에 그 '-이'들도 유정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18)의 예들은 주로 명사어간에 '-이'가 결합되어 다시 명사를 파생시킨 예들인데 음성적으로 모두 비모음으로 실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지역어에서는 'ㄴ'의 비모음화는 발견할 수 없고, 'ㅇ'의 비모음화는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어에서는 동물 이름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를 파생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 중세한국어시기에는 접미사 '-이'를 갖지 않은 형태로 쓰이던 것들이 근대한국어시기에 들어서서 접미사 '-이'를 갖는 형태로 쓰인 것이 있다(예: 두터비, 고솜도치)

(18) 가. 검데~이/껌데~이(검덩+-이), 연분호~이/진분호~이/분호~이(분홍+-이),
떨과~이(떨광+-이(떨광 나무), 아가위/山査子), 막내~이(막낭+-이(막낭 아들), 막내),
깡내~이(깡낭+-이(깡낭알), 옥수수), 모캐~이/집모카~이/텅깐모카~이(모캥(隅)+-이, 모퉁이), 도구레~이/도구라~이(도구랑+-이(도구랑 죽), 새알심),게드레~이(게드랑+-이, 겨 드랑이<겨 랑+-이)[12]
나. 부허~이(부헝+-이, 부엉이), 승네~이(승냥이), 디레~이(지렁이), 곰태~이(곰탱+-이, 골마지), 우레~이(우렁이), 올채~이(올챙이), 살개~이(살쾡이), 구레~이(구렁이),

(18 가)는 명사어간을 어기로 취하여 다시 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이다. '검데~이/껌데~이'는 '검덩+-이'로 분석할 수 있다. 기주연(1994:179)에서는 '검정'을 형용사어간 '검-'에 정도가 더 심함을 의미하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듸양/의영'이 결합된 것 즉 '검-+-듸영'으로 분석하였으며 '검정'이 '검듸영'으로부터 발달했다고 본다면 '검듸영>검뎡>검졍>검정'의 음운변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이 지역어에서는 '검듸영>검뎡>검덩'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검데~이'는 '검덩이'가 통시적으로 움라우트를 겪어 '검뎅이'로 되고 거기에 비모음화가 일어나서 '검데~이'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18 나)는 동물 이름에 다시 '-이'가 결합되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인데 이 파생어들은 음성적으로 비모음화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예들은 분석은 가능하지만 공시적인 파생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들은 기원적으로 '-이'가 없이도 명사로 기능하던 것이 나중에 다시 '-이'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부허~이'는 이 지역어에서 '부헝이'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중부방언의 '부엉이'에 해당한다. '부허~이'는 '부헝+-이'로 분석은 가능하지만 이 지역어에서 '부헝'이라는 어기는 보이지 않고 다만 '부허~이' 또

[12] 곽충구(1998c:633)에서는 육진방언의 인체 어휘를 기술하면서 '겨드랑이'는 '*kyʌtʰ+ʌraŋ > kyədiraŋ'과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kyʌtʰ'의 종성 /tʰ/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와 결합되면서 /t/로 실현되는 음운 현상-유기음이 평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중세한국어에서 '맡[場]+앙>마당', '갗[皮]+옥>가족>가죽' 따위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기주연(1994:168)에서는 '겨드랑이'의 접미사를 '-(으)랑이'로 보고 있다.
[13] '검뎡'은 함북의 '온성, 종성, 회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부헝이’라는 파생어만 남아 있어 공시적인 파생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서북방언의 명사파생접미사'-이'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뿐만 아니라 의성·의태어에도 결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는 단일형태소보다 주로 복합형태소에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는 대상이나 단위를 나타내며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대상, 행동의 과정 자체 등을 나타내는 명사를 파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고광주, 「명사+동사+접사’형 파생명사의 형성과정」, 『한국어학』제 12 집, 2000
2. 곽충구, 연변지역의 함북 길주, 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어휘·문법·음운·성조 조사자료, 1998a.
3. 곽충구, 감각 용언 파생의 방언 분화, 진단학보 86, 1998b.
4. 곽충구, 육진방언의 어휘,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1998c.
5.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6. 구본관, 15 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7. 구본관,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2002a.
8. 구본관, 형태론의 연구사, 한국어학 16, 2002b
9.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1996.
10.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1992.
11. 이병근·정인호, 중국 심양 조선어의 특징-문법·음운상의 몇몇 특징을 중심으로-, 한반 도와 만주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2.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2003.

조선인 김소지(金少芝)의 『일원시고(逸園詩稿)』 수사학

송진한*

(한국 전남대학교)

목차

Ⅰ. 『일원시고』의 한시 양상
1. 한시의 제재
2. 한시의 성격
Ⅱ.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 『일원시고』
1. 용사
2. 첩어
3. 비유
4. 대우
<참고문헌>

<발 표 문>[1]

Ⅰ. 『일원시고』의 한시 양상

1. 한시의 제재

작품의 제목을 우선 살펴보면, '감회', '우연히 지은 시', '느낀바 있어', '아무렇게나 지은 시', '술 취함을 변명하노라', '겨울밤', '추운밤', '앞의 운을 따라', '잠이 안 와' 등과 같이 제목에서 한시 창작을 추론할 수 있는 시가 많다. 이 제목들에 왜 그 시를 짓게 되었는지, 혹은 시를 언제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작 동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 제목과 내용을 포함하여 이 작품집을 분류해 보면, 우국과 동경, 세태와 인정, 가족과 소회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우국과 동경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국' 등이 있고, 세태와 인정에는 '섣달 12 일에', '한가로운 마음', '우연히 지은 시', '용도촌', '도연정' 등의 한시가 있으며, 가족과 소회에는 '할 일없이 앉아서', '임자구', '생모 서태부인의 영구 앞에서 곡하노라', '조주에서 춘행농과 작별하며', '1 일 밤', '11 일 밤', '풍진'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해당 시를 세

* 전남대 교수, jhsong@jnu.ac.kr

[1] 서·결론은 요약 제출문으로 대체하며, 이전의 초고를 바탕으로 쓴 필자, 「중국의 조선인 김소지의 『일원시고』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15집 2015. 6. 30. 글 등과 '중국의 조선인 김소지의 『일원시고』 세계' 한중인문학회 40회 국제학술대회 2017. 6. 29. 발표가 있다. 이 발표는 이러한 논문과 기존 발표들을 기본으로 하되, 그 해석에 초점을 맞춰 『일원시고』의 글쓰기를 정립하기 위해서 구상한 글의 일부이다.

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시제와 글감을 바탕으로 세 부분으로 대분류를 제시해 봤다.

2. 한시의 성격

이러한 제재의 양상에 따른 그 성격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간결미의 구현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집에는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서술한 다양한 고사나 성구, 여러 인물과 풍속이 나온다. 이들은 담담하고 소박한 시어로 산천경개나 명승고적에 의탁하여 기술된다. 그 속에는 시인의 동경이 자연과 인간, 역사와 현실의 유기적 조화 속에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중 시어 중에는 '겨울, 추운' 등의 용어를 차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이 용어들은 고단함과 비애감을 주는데, 이는 거의 반세기 걸친 격변기 흐름 속에 이를 녹여내면서 창작한 삶의 방식이 투영된 듯하다. 이렇게 시인의 성향이나 태도가 사회적 배경이나 인정과 결합되어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인생관이 진실성을 가지고 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시로 쓰여 진 시론 성격의 시에 저자 시 세계의 정신이 포괄적으로 드러난다. 저자는 시는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시보다는 진정성을 가진 시만이 참된 시라면서, 삶과의 동일시에서 시 창작의 실천화가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예로 저자는 '무성히 자라 가을 밤 우연히 이루다'라는 시에서 자신을 시마(詩魔)라고 하면서 시작은 일상과의 동일시에서 진정성이 두드러지고 가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시 읊기'2 에서는 『시경(詩經)』의 시체로서의 양식과 수사로서의 표현인 육의(六義), 즉 풍(風), 아(雅), 송(頌), 부(賦), 비(比), 흥(興)을 시론의 본보기로 삼아 창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타고난 성정의 올바른 바탕 위에서 당대의 삶에 대한 인식을 작품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에 따른 시만이 참된 시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창작한 듯하다. 이런 시론을 배경으로 저자는 간혹 절구가 있지만, 대부분 칠언이나 오언으로 율시를 지었고, 백화체(白話體)에 기반을 두면서 번체자(繁體字)로 시작 활동을 하고 있다.

Ⅱ.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 『일원시고』

중국의 고전 수사학과 서양 수사학은 다른 문화배경과 구조체계를 바탕으로 생성하고 발전하였다. 역사에서 중국 고전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 등이 언급한 서양수사학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그들은 중국문화의 영향과 제약 밑에서 독특한 방법과 지향 속에 형성되었다. 중국 고전 수사학은 상호 연관 속에 실용을 중시하여 치밀한 이론 체계는 없지만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을 수사학의 최고 경지로 여기면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관점을 추구했다. 이런 관점은 시어 선정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함축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구하게 내려왔다. 구체적으로 형식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식들이

수사학적 방안으로 구사되고 있다. 본 발표도 작품집에 등장하는 수사의 어떤 양식들이 형식미를 구현했는지 살펴본다.

부연하자면, 한시의 고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수사상의 문제이다. 시의 수사는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원시고』의 경우는 자구와 표현은 인명의 용사(用事) 등 전고(典故)의 활용이 매우 많고, 첩어(疊語)나 비유(比喩), 그리고 대우(對偶)의 빈번한 사용이 드러난다.

1. 용사

한문학에서의 수사적 기교는 연자練字·연구練句를 강조하면서 용사가 가장 발달하였다. 따라서 한시에서는 시적 사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용사라는 수사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전 명언이나 이야기를 원용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외부에서 어떤 사실을 끌어와서 개념을 유형화하게 되고 옛 것을 빌려와 어떤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예컨대, 고인(古人)의 인용은 '수염 기르고 나서', '차거운 밤', '북경이란 옛 이름 되찾게 되니', '스스로를 달래며', '문앞', '섣달 그믐날에 취하여', '옛날을 그리며'에 나온다. 성어(成語)의 활용은 '추운 밤', '한가로이 거닐며', '초열흘에 지음', '우연히 지은 시'에 사용되고 있다. 전거(典據)의 이용은 '외사촌 동생과 이별하며', '초아흐렛날', '봄날의 정취', '선영'에 드러난다. 이러한 수사학적 활용은 저자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상과 감정을 형상화하는데 효과를 드러내 자기화를 구현하게 된다. 저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시적 목표를 용사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첩어

한시는 산문과 달리 제한된 자구와 평측 등으로 첩어의 사용을 꺼린다. 그러나 저자의 시에서는 다양한 첩어를 사용하여 시의 음률을 조화롭게 하여 낭송의 기쁨을 일으키고, 의태와 의성으로 시·청각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며, 중첩한 표현을 통해 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작품집에서는 시적 상황을 의성·의태의 첩어를 통해 다양화하고 있다. 그 예로 '밤비' 등에서의 소소(蕭蕭), '초닷새 날 셋째 아들의 운을 따서'의 은은(隱隱), '해가 지는 변경'의 망망(茫茫), '둘째 아들 성에 가고 혼자 앉아서'의 편편(翩翩) 등이 있다. 또 하나는 시의를 강조하거나 강화하는 가능으로 첩어를 사용하는데, '우연히 쓰노라'의 총총(匆匆), '장 보고 오는 길에'의 화화(花花), '한가로이'의 슬슬(瑟瑟), '늙은 농부'의 일일(日日), '비래협'의 조조(朝朝)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첩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반복표현을 통해 시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면서 공감각을 일으키고 리듬감 있고 생동감 있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비유

『시경』의 육의에서 비(比)는 어떤 것을 직접 말하기 어려우므로 사물을 빌려다가 대상을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비유는 대체로 직유, 은유를 든다. 직유는 사물 간의 유사적 거리가 가까워서 원관념을 북돋워 아름다움을 증가하는데 적합한 비유 형태로 쓰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이하게 말하자면, 서로 비슷한 것끼리의 비유를 직유로 보았고 먼 것끼리의 비유를 은유로 보았다.

1) 직유

직유는 두 사물을 병치하여 비교하는 수사법으로 '약(若), 여(如), 사(似), 유(猶)' 등의 글자를 사용한다. 이 작품집에서는 '여'와 '사'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외에도 '위(爲), 시(是), 비(比)'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여'의 경우에는 '섣달 12 일에', '겨울 밤', '편지 부치러 가는 길', '베개를 베고 누워서', '시상', '앞 시의 운을 따라', '영정하' 등이 있다. '사'의 경우에는 '앞 시의 운을 따라', '스스로를 달래며', '술 마시고', '겨울 밤 아들을 가르치며', '갑문에서' 등에서 나타난다. '위, 시, 비'의 경우는 '우연히 지은 시', '한식날에 취하여', '대량저' 등에 드러난다.

직유는 주로 '여/사'와 '위, 시, 비'의 형식이 되어 표현의 명료성을 추구하였고, 비유의 대상 선정은 혹은 음성에, 혹은 형체의 근사에, 혹은 심정과 상태에 두어 수사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2) 은유

한시에서는 '시(是), 위(爲)' 등이 대체로 쓰이지 않으므로 생략되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여 풍부한 뜻과 묘미를 발휘하기도 한다. 반면에 암시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황폐한 마을', '초열흘에 지음', '쉰 두 번째 생일', '잠이 안 와', '삼괴판', '난거진' 등의 예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 한시집에 나타난 은유는 단순히 대상 그 자체만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비한 표현으로 언외지의(言外之意)를 느끼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혀 본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 뜻을 미루어 생각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시 세계로 구축하였다.

4. 대우

문장 중의 상하 양구의 자수가 같은 것, 구법이 유사한 것, 평측이 서로 마주 대한 것이 모두 대우이다. 원래 대우는 구법이 유사한 두 구가 대비가 된 것으로 구조상의 반복을 말한다. 대란 글자 하나하나가 대를 이룬 것이고, 우란 구절이 대를 이룬 것인데 총칭하여 대우라 한다.

중국어의 단음절어적인 성격이 대우에 용이했기 때문에, 대우가 주요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고, 율시의 필수 요건이 되면서 대우 방법의 요소와 기준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구와 대구 사이에 자수, 자의, 문법구조, 평측, 자음, 자형 등의 대우가 율시에서 대우법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수사학적 표현이란 대우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도 시어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며, 또한 전체적인 시상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

예컨대 '갑갑한 마음을 달래며'에서 대우법의 하나인 반대(反對)를 활용하고 있다. 반대란 어휘의 성질은 같으면서 의미가 서로 상반(相反)되거나 상비(相比)되는 시어로 대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반대는 두 구 사이의 대칭미를 선명하게 하면서 감각적인 대비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이 즐겨 사용한 대우법이었다. 여기서는 위아래 각 구의 첫 글자에서부터 색감을 부각시켜 반대를 구성하고 있다.

'제 2 갑문을 지나며'에서는 '우과(雨過)'와 '춘심(春深)', '산광(山光)'과 '야색(野色)', '근(近)'과 '심(深)'의 대를 이루면서 시골 생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윤 3 월 18 일에 지음'에서는 위아래 구가 매 글자마다 하나하나 대를 이루는 가운데, '고사(高士)'와 '용부(庸夫)'는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대조를 이루면서 동시에 학문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각 구절을 '담(談)'과 '논(論)'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대조적인 여운을 통해 반대의 구성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주강'에서는 위치와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짧은 세상에서 긴 시간의 우울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내(海內)'와 '인간(人間)'을 대조시켜 표현한다. 여기에다가 각각 위아래 구 세 번째 글자인 '무(無)'와 '유(有)'의 대조를 통해 반대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무염막수(無鹽莫愁)'의 전거도 활용하면서 시상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무염은 제나라의 못생긴 여인 종리춘(鍾離春)을 말하며, 막수는 양나라 낙양의 예쁜 소녀로서 노래를 잘 불렀다고 전해진다.

'옛 일을 생각하며'에서는 숫자와 양사를 지칭하는 글자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위아래로 '삼천(三千)'과 '양세(兩世)', '천경(千頃)'과 '일시(一時)'가 대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서 마지막의 글자에 '부(富)'와 '빈(貧)'을 써서 반대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추운 들판'에서는 고요한 시골 생활에서 풍경의 어울림과 평안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생동감을 전달한다. 특히 '문(聞)', '유(有)', '낙(落)', '포(鋪)'라는 동사를 통해 들판의 모습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집은 대우의 기본적인 표현기법에 능숙하면서도 자칫 단조로워 질 수 있는 수사기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체적인 시상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시 창작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자료>

『일원시고』사본 10 권

김동훈·리해산 편역, 『김소지한시집』 민족출판사, 2012.

김병민 외편, 『중국현대문학과 한국』자료총서 10 권, 2014.

<논저>

김남석, 『시수사학』, 현대문학사, 1972.

김동훈·리해산, 『김소지한시집』, 민족출판사, 2012.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박종훈, 「'비유'와 '대우'로 읽는 한시」, 『태동고전연구』, 제 20 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4.

송진한, 「중국 소장 근대 한·중 지식인의 '한국' 제재 작품 발굴과 연구에 대하여」, 『중국소설논총』, 제 20 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4.

송진한, 「중국의 조선인 김소지의 『일원시고』연구」, 『국학연구론총』15 집, 2015.6.30.

심경호, 「한문고전과 한문학에서의 수사학에 대하여」, 『수사학』, 제 3 집, 한국수사학회, 2005.

이병한 편저,『중국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2.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94.

조선족간사 편찬팀, 『조선족간사』, 연변인민출판사, 1986.

조성일.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조칙훈·한창희,「김소지와 그의 시집《일원시고》」,『조선족연구논충』, 연변대학교민족연구소, 1995.

진 형, 『중국문화 수사학』, 장쑤고서출판사, 2001.

최신호, 「초기시어에 나타난 용사이론의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 1 집, 고전문학연구회, 1971.

최신호 역, 『문신조룡』, 현암사, 1975.

황경훤, 『수사학』, 삼민서국인행, 민국 74.

문법 문식성에 기반한 사회과 텍스트 분석 연구

조진수
(서울대학교 SSK 연구단)

1. 서론

본 연구는 사회과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떠한 문법 요소에 주목해야 할지 탐색하여 그 기제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사회과 텍스트'란 사회 교과와 관련된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 사회 교과서뿐 아니라 교육과정 문서, 사회 교사의 수업 자료,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이승연·최정순, 2017), 본고는 문법적 차원에서 사회과 텍스트를 다룬 연구가 아직 많지 않다는 연구사적 판단하에 사회과 교과서를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법 요소에 주목하여 사회과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은 그간 주로 비판적 담화 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이승연, 2016 ; 윤노아·최윤정, 2017). 그러나 기존 연구는 비판적 담화 분석을 활용하여 사회과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법 요소가 왜 분석 대상이 되었는지에 주목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개별 사례 분석 결과를 보고할 뿐, 사회과 텍스트라는 특정한 장르성을 지닌 텍스트에서 어떠한 문법 요소들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과 텍스트에서 주목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법 요소가 무엇이고, 특정한 문법 요소가 주목과 분석의 대상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과 텍스트를 비롯하여 어떠한 텍스트든, 문법 요소에 주목하여 읽을 때 모든 문법적 장치가 주목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법적 장치만이 주목과 분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조진수, 2018 ㄱ:1). 따라서, 사회과 텍스트에서 어떠한 문법 요소가 주목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과 텍스트가 가진 장르성을 문법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1]

[1] 이러한 작업은 '문법 문식성'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문법 문식성은 "텍스트에 사용된 특정한 문법적 장치에 주목하여 이를 구조, 기능, 장르, 이데올로기 층위에 걸쳐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조진수, 2018ㄱ)"을 의미한다. 문법 문식성 관점에서 사회과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사회과 텍스트에서 특정한 의도를 담지하고 있는 유표적 문법 장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능과 장르,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사회과 텍스트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사회과 텍스트의 장르성과 주목되는 문법 요소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3 장에서는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와 같은 문법 요소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예증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추후 연구 과제를 제언한다.

2. 사회과 텍스트의 장르성과 주목되는 문법 요소

사회과 텍스트의 장르성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어떠한 문법적 장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과 텍스트는 사회 교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의 공통점 확인을 장르성 탐색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사회과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을 살펴보면, 사회 교과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을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 성격: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중략) 2. 목표: 사회과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반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교육부, 2015:3-4) (밑줄은 인용자)

문제는 '사회현상'이 해석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다른 해석들이 공존할 수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이 본질적으로 해석적 속성을 띤다는 점 때문에,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에는 기술자의 태도가 반영된다. 교과서의 기술은 공정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체로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만, 사회현상이 지닌 해석적 속성을 고려할 때 명제 내용에 대한 기술자의 태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교과서 B 의 경우 자유 무역의 이득을 설명하는 부분(p.209)에서는 "~의 효과가 크다", "~를 활성화한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와 같이 설명문 형식의 서술과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반면 자유 무역

체계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화와 이루어지면, 문법 교육의 국면에서는 사회과 텍스트와 같은 특정 장르의 텍스트를 읽거나 쓸 때 어떠한 문법적 장치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명료히 할 수 있다.

> 의 한계에 대한 서술에서는 “자유 무역의 반대론자들은 ~고 주장한다”,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 자유 무역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와 같이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관적인 견해, 또는 사실과는 다른 소수 집단의 주장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윤노아·최윤정, 2017:56)

위 연구는 경제 교과서의 기술 방식을 분석한 것인데,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명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윤노아·최윤정(2017)은 사회과 텍스트의 장르성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연구 사례를 통해 사회과 텍스트 분석에서 양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2]

그간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 이론을 토대로 과학 텍스트와 수학 텍스트에 사용된 명사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Halliday, 2004 ; 신선경, 2009 ; 소지영·주세형, 2017 ; 조진수, 2018 ㄴ), 최근에는 사회과 텍스트에 사용된 명사구에 주목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소지영·성경희·주세형, 2018).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사회과 텍스트에서 특히 양태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은 사회과 텍스트의 변별적 자질을 문법적 차원에서 새롭게 포착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급진적인 과학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과학현상에 대한 설명과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교과서의 기술 방식 측면에 국한한다면 사회과 텍스트를 분석할 때 양태의 문제가 다른 교과에 비해 특히 중요한 분석 요소로 부각된다고 보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과 텍스트에서 양태가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연역적 방식으로 도출해 내었으나, 양태의 하위 유형 중 특히 어떤 항목에 주목해야 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과 텍스트를 양태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텍스트를 분석할 때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문법 요소가 무엇이고 왜 그러한 문법 요소가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3], 양태의 하위 범주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중 어떤 항목이 의미 있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양태의 하위 범주 설정 방식은 논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양태의 하위 범주를 체계화한 박진호(2011:310-311)의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논의한다.

---

[2] 위의 사례는 문법 문식성에 대한 논의인 조진수(2018ㄱ:107)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 조진수(2018ㄱ)에서는 이 사례를 ‘장르성에 위배되는 언어 형식’이 ‘장르 내 유표성’을 띨 수 있음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과 텍스트에서 양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는 점까지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3] 박재연(2006:21)의 지적대로 어떤 양태를 실현할지는 화자 또는 필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선택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므로, 사회과 텍스트에서도 특정 양태의 선택 여부가 교과서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태의 하위 범주(박진호, 2011:310-311)>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를 나타냄.

예: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permission)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예: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예: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聞(hearsay), 추론(inferred)

앞서 지적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양태라는 언어 자원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사회과 텍스트를 한번 분석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태의 하위 범주 중 어떤 것이 사회과 텍스트 분석에 유용한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살피는 데 있다. 따라서 3 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룬 사회 교과서에 사용된 양태 표현을 비교하여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한다.

3. 양태에 주목한 사회과 텍스트 분석 사례

3.1. 분석 대상

사회과 텍스트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태에 주목함으로써 명제로 표현된 사회현상에 대해 집필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포착해 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2 종을 대상으로 삼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서태열 외(2011),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 이영민 외(2011),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3.2. 논의

사회 교과서 텍스트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교육 과정의 내용을 기술하더라도 교과서에 따라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지역 개발에 관한 사회 교과서 본문 기술의 사례이다.

(1)

거점 개발 방식은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여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개발 방식으로, 성장 거점으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개발 효과가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개발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 집권적인 정보 형태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실시하는 개발 방식으로, 단기간에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거둘 수는 있으나 기대했던 파급 효과가 미약하고 역류 효과가 크면 성장 거점과 주변 지역 사이에 성장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균형 개발 방식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발 방식으로, 주로 지방 분권적인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개발 방식이다. 지역 간 균형 성장은 가능하나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성장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서태열 외, 2011:148)

(2)

지역 개발은 개발 주체와 개발 방법에 따라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로 구분한다. 하향식 개발은 중앙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점 지역에 자본과 기술을 집중 투자한 후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개발 비용은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개발 효과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상향식 개발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 자체 단체에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하향식 개발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거점 개발이 있고, 상향식 개발의 대표적

인 전략으로 균형 개발이 있다.(이영민 외, 2011:153)

위 글은 모두 지역 개발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별 문장 수준에서 두 글의 명제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교육과정 내용을 교과서 텍스트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수준에서는 비교가 가능하다.

두 글을 양태 차원에서 비교해 보자. (1)은 거점 개발 방식과 균형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각각 '발생하기도 한다'[4], '나타날 수 있다'와 같은 우언적 구성으로 정보의 확설성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 인식 양태에서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은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개연성과 가능성 판단은 통상 화자가 명제의 확실성에 대해 오십 퍼센트 이상의 확신을 가지는지 오십 퍼센트 미만의 확신을 가지는지로 구분된다(박재연, 2006:293) [5]. 이러한 기준을 참고한다면 '발생하기도 한다',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과 텍스트 내에서도 특히 어떤 내용을 다룰 때 양태 표현이 교과서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는지의 문제와 양태 측면에서 어떠한 선택항 체계가 상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떠한 문법적 장치에 주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텍스트의 장르성이라는 포괄적 특성뿐 아니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하위 텍스트의 세부 내용 영역과도 관련된다. 내용 영역(field)이 장르나 사용역을 분석할 때 하위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지만, 문법 문식성의 관점에서 텍스트 내의 어떠한 문법적 장치에 주목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장르와 별도로 내용 영역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다.

사회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따라 양태 표현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지역 개발'을 다룬 부분이었다. 사회과 텍스트에서 양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4] 물론, '발생하기도 한다'의 양태성을 설명할 때 '-기도 하-'를 우언적 구성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할지 아니면 조사도 양태 실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도'를 양태 실현의 수단으로 보아야 할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사를 양태소로 보는 논의(고영근, 1986 ; 이선웅, 2001)도 있으나, "조사가 보이는 양태성은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함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양태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미가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임동훈, 2008:233)"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발생하기도 한다'에서 양태성이 실현되는 수단을 우언적 구성으로 볼 수도 있고 조사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특히, 조사의 양태성이 어미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양태 실현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양태 분석 틀은 언어학적 정합성 확보를 일차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태 현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 텍스트의 장르성을 양태 차원에서 검토할 때 사용하는 분석 틀은 분석적 체계인 어미뿐 아니라 우언적 구성, 나아가 조사와 어휘적 요소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체계기능 언어학에서 내용어와 기능어를 이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어휘-문법(lexico-grammar)'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과 유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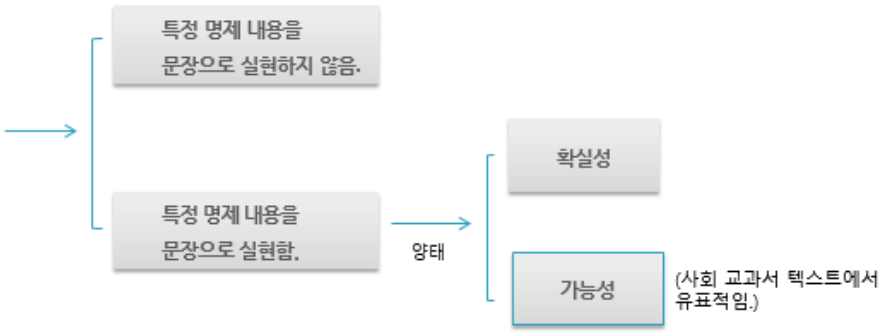
[5] 인식 양태에서 '가능성'은 'possibility'의 번역어로 'probability'의 번역어인 '개연성'과 계열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능성'이라는 번역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possibility'가 'probability'보다 낮은 확실성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만, 번역어인 '가능성'의 경우 확실성의 여러 수준을 포괄하는 용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자는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이라는 용어보다는 '높은 가능성(또는 높은 확실성)', '중간 수준의 가능성(중간 수준의 확실성)', '낮은 가능성' 정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용어의 표상성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지만, 본고는 용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기존 용어를 사용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사회과 텍스트의 장르성에서 비롯된 판단이었고, 양태 표현의 차이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지는 내용 영역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사회과 텍스트의 모든 내용 영역을 읽을 때 양태 표현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지역 개발'과 같은 특정한 내용 영역에서 특히 양태 표현이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1)과 (2)를 각각 문장 수준에서 일대일로 대응시켜 논의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교는 가능하다. (1)의 경우 개발 방식에 따른 단점을 제시할 때 인식 양태 중 확실성 정도를 조절하여 표현한 데 비해, (2)의 경우 거점 개발 방식과 균형 개발 방식의 지향 또는 장점만 기술하고 단점에 관한 기술은 아예 배제하였다. 양태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인식 양태 중 확실성의 정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방식 정도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더 상위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명제 내용을 아예 표현하지 않는 방식까지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특기해야 할 사실은 인식 양태의 확실성 정도 판단과 관련하여, 사회 교과서에서 '개연성 판단'이 사용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 (1)을 보아도 가능성 판단은 사용되었으나 개연성 판단은 사용되지 않았고, 사례 (2)에서는 아예 해당 명제가 문장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사회 교과서 텍스트에서 가능성 판단의 양태 표현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개연성 판단의 양태 표현은 거의 허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정확한 정보를 담는다는 교과서의 장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회 교과서 텍스트에서 정보의 확실성 정도와 관련된 인식 양태의 선택항 체계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 사회과 텍스트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양태 관련 선택항 체계의 예

[그림 1]은 우선 사회 교과서 텍스트에서 가능성 판단을 드러내는 양태 표현이 유표성을 띤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교과가 사회현상을 다룬다는 점을 근거로 양태 표현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였고, 사회 교과서 텍스트를 실제로 분석해 봄으로써 인

식 양태 중 가능성 판단을 드러내는 양태 표현이 유표적으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개발 방식'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다룬 사회 교과서 텍스트를 비교해 봄으로써 가능성 판단을 드러내는 양태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해당 명제 내용이 아예 문장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와 계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어 단위의 정합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두 방식이 사회 교과서 텍스트에서 선택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도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다. 아울러, 인식 양태 중 개연성 판단은 정보의 확실성을 중시하는 교과서의 장르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에서는 잠정적으로 사회과 텍스트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양태 선택항 체계에서 개연성을 제외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고는 문법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는 작업이 교육적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사용된 수많은 문법 요소 중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회 교과의 핵심적 교육 내용이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이고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해석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과 텍스트를 문법적 차원에서 분석할 때 양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더하여 실제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 양태 표현의 차이가 '지역 개발' 부분에서 현저하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법적 장치에 특히 주목할지의 문제에 '내용 영역(field)'이 관여함도 확인하였다. 또한, 양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할 때 양태 표현이 각각 선택항이 될 뿐 아니라 특정 명제 내용을 문장으로 실현할지 역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문법적 장치에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이를 분석,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늘 "모든 문법적 장치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부딪혀 왔다.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주목해야 하는 문법적 장치가 다를 수 있다면, 남은 문제는 장르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법적 장치가 달라지는 양상을 규명하고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의 장르성을 문법적 차원에서 규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과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러한 작업의 일단을 예시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근(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국어학회.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서태열 외(2011),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소지영·주세형(2017), 과학 교과서의 '문법적 은유'를 중심으로 본 국어과의 도구 교과적 본질 탐색, 국어교육연구 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19-158.

소지영·성경희·주세형(2018), 중학교급 학습자 서술형 답안의 언어적 특성 연구 –사회과 학업성취도평가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1, 한국어교육학회, 159-187.

신선경(2009), 과학의 언어, 사고와 표현 2(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35-60.

윤노아·최윤정(2017), 2009 개정 교육과정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화 관련 내용의 비판적 담화 분석, 시민교육연구 49(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1-67.

이선웅(201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317-339.

이승연(2016), 사회과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73-224.

이승연·최정순(2017), 사회과 텍스트 읽기 능력 증진을 위한 성취수준 작성 및 수업계획의 방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뉴 리터러시 연구(New Literacy Studies)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과교육연구 24(4),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7-50.

이영민 외(2011),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조진수(2018 ㄱ), 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진수(2018 ㄴ), 문법적 은유를 활용한 수학 텍스트의 이해 과정 연구 -'수학 문장제(word problem)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8 년 봄철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14.

Halliday, M. A. K.(2004), *The Language of Science*, Continuum.

성명: 조진수

소속: 서울대학교 SSK 융합교과개발연구단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1 동 603 호 (우)08826

전화: + 82-10-9950-1023

전자우편: jojinsu1@snu.ac.kr

다문화 화용론 시각으로 본 한국어 칭찬화행에 대한 연구

진염평·김만권

(대련외국어대학교)

요약: 칭찬어는 사람들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찬미, 감상, 감탄 등과 같은 감정을 전하는 공손의 말로서 짙은 문화특징을 갖고 있다. 다양한 문화에 따라 칭찬어에 대한 요구와 칭찬어의 함축적 의미가 달라진다. 본고는 다문화 화용론을 기초이론으로 하고 한국어 칭찬어의 분류, 표현 방식에 입각해 한국어 칭찬화행의 화용론적 기능, 영향을 받는 사회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 DCT)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어 원어민과 중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칭찬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차이를 일으키는 문화적 요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적 요소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중국 한국어 학습자들이 더 깊이 한국어 칭찬화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다문화 화용론, 한국어 칭찬 화행, 공손, DCT

1.서론

다문화 화용론은 제2언어로 다문화 언어 교제를 할 때 나타나는 화용문제를 연구한다. 다문화언어교제는 교제의 어느 쪽이나 교제 양측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서 제 2 언어를 쓰는데 다소 모국어의 특징이 수반되어서 다문화언어 교제라 한다.(何自然, 1997:11) 학계에서 다문화화용론은 언어가 아닌 문화적 요소를 주로 연구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개개인의 언어는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문화 교제에 있는데 중요한 장애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언어의 문제는 다른 문화 장애만큼 심하지 않다.(Prosser,1978:102)

다문화 화용론 이론이 발전하면서 학계에서 '다문화 화용론'에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화행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제일 많았고 그 중에서도 '예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행을 제일 많이 연구해 왔다. 청구 화행, 사과 화행, 칭찬 화행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칭찬 화행은 사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행으로서 학계의 연구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선구적인 심리학자 William James 는 인류 천성의 제일 심오한 근본은 칭찬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

다. 이를 통해 칭찬은 누구에게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적절하게 칭찬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교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국 학계에서 칭찬 화행에 대한 다문화 화용론적 연구는 대부분 영어 화행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칭찬 화행의 특성을 살펴봤다. 예를 들어, 박경옥(2006), 장민주(2009), 김현정(1996) 등이 있다. 중국 학계의 칭찬 화행 연구는 대부분 중국어와 영어의 대조연구나 중국어 칭찬 화행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权立宏 (2004) 、施家炜 (2000) 、蒋冰清 (2006) 、高志怀、李娟 (2004)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양국 학계에서 한중 칭찬어의 대조연구는 결핍된 상태이고 대다수의 연구는 화용론의 연구 시각으로 다른 언어에서 칭찬어 화용상의 차이에 대한 연구였다. 이 연구들은 Austin 의 화행이론、Grice 의 회화 원칙、Brown 과 Levinson 의 체면이론 그리고 Leech 의 “공손원리”에 기반을 둔다. 칭찬 화행의 문화 배경을 밝히기도 하지만 인류 교류의 기능, 규칙의 보편성을 중요시하고 다른 문화, 다른 사회, 다른 언어환경의 차이점을 소홀히 했다. 본고는 다문화 화용론에 입각해 한국어 원어민과 중국 학습자들이 칭찬 화행을 수행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칭찬 화행은 다른 문화나 다른 단체 사이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즉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는 사람끼리 교류할 때의 화용적 특징을 연구하기로 한다.

2.칭찬

Janet Holmes(1988)에서 칭찬을 화자가 청자에게 청자의 어떤 좋은 점(가진 물건, 성격, 솜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발화 행위라고 정의를 했다. 즉 상대방에게 우호적으로 감정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소유하는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발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高志怀、李娟 (2004) 에서 칭찬은 좋은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 칭찬어는 사람들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친미, 감상, 감탄 등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며 인류교제에서 흔히 보이는 화행이라고 했다. 郭爱先 (1996) 은 칭찬을 상대방의 좋은 인품, 뛰어난 능력, 타고한 업무 능력, 단장한 옷차림, 예쁜 장식구, 좋은 물건 등을 높이는 말로 정의하였다. 중국 신화사전에서 칭찬은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언어행위라고 했다. 김형민(2003:260)에서 칭찬은 화자가 청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청자를 높이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언어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위의 논설을 고려하면, 언어 문화에 따라 칭찬어의 정의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개괄적으로 칭찬어는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인품, 능력, 외모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언어 교제 행위로써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중요 수단이고 공손을 표현하는 언어 책략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칭찬어는 예의 언어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강력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민족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기에 민족 문화와 다른 세계관, 가치관, 심미관, 사

유방식, 민족심리가 다르다. 따라서 각 문화들이 칭찬어를 화용하는 데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문화 교제 중 중국의 사유방식에 의해서 중국어의 칭찬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거나 정확하게 한국어 칭찬어의 화용함의, 기능, 공손정도, 적용대상, 적용장소를 알지 못하면 한국인 상대방의 오해를 살 수 있다. 더 나아가 청자와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고 다문화 교제를 순조롭지 하는 데에 문제가 된다.

학습자가 다문화 교제 중 칭찬 화행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한국어 원어민들이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 즉 한국어 칭찬화행의 기본 특징을 알아야 한다. 비교를 해야 더 뚜렷한 인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칭찬의 분류, 표현 방식 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어 칭찬의 화용함의, 화용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3.한국어 칭찬어의 분류

본고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 이론에 의하여 칭찬어를 직접 칭찬과 간접 칭찬으로 나누었다.

3.1.직접적인 칭찬

'직접적인 칭찬'은 칭찬의 중심 화제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나 평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칭찬 유형이다. 가장 직접적인 칭찬 화행의 실현은 '멋있다', '최고다', '짱이다', '잘한다', '잘 어울린다', '미인이다'등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그 예가 된다.

예 1 :

①가: 어때?

나: 이 옷 입으니까 정말 예쁘고 우아하네요.

②가: 이것은 제 어머니 젊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나: 어머니께서 진짜 미인이시네요.

③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니 회사 관리를 잘하네요.

예 ①、②、③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칭찬으로 볼 수 있다. 이 예문들은 모두 긍정적인 가치 평가의 의미를 담는 어휘, 즉 '예쁘다', '우아하다', '미인'을 쓴다. 그리고 모두 '-네요'라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칭찬의 정도를 더한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들으면 청자가 언어환경에서 벗어나도 자기의 대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 직접적인 칭찬에 속한다. Boyle (2000) 에서 언급했듯이 직접 칭찬은 언어 환경에서 벗어나고서도 어떤 사회적 규약에 의해 칭찬의 말로 식별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칭찬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서로 친하지 않은 교제 양측의 심리 거리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언어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3.2.간접적인 칭찬

직접적인 칭찬과 달리 간접적인 칭찬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호감 표현과 칭찬을 명시적인 방식이 아닌 간접적 혹은 함축적인 방식으로 하는 칭찬 유형이다. 간접적인 칭찬의 말은 반드시 언어 환경과 결부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직접적인 칭찬 외의 다른 칭찬 방식을 모두 간접적인 칭찬에 포함시킨다. 김현정(1996)에서 간접적인 칭찬을 세부적으로 '알아채기', '정보묻기', '개인적 의견 말하기', '요청 및 제안', '농담하기' 이 5 가지로 나누었다. 김현정(1996)의 분류 방식은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분류다. 또한 이 5 가지 칭찬 유형은 한국 문화 배경에서나 중국 문화 배경에서나 흔히 보이는 칭찬 유형이라 본고에서는 김현정(1996)의 분류방식을 참고한다.

3.2.1.알아채기

'알아채기'는 상대방이나 칭찬 대상의 장점이나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지를 표현하는 칭찬방식이다.

예 2

가: 머리 스타일 바꿨네. 예뻐 보여요.

나: 감사합니다.

예 2 에서 화자와 청자는 동료사이인데 화자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청자의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것을 보고 "머리 스타일 바꿨네."라고 청자한테 인사를 했다. 이처럼 '알아채기'의 칭찬 방식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을 느끼게 해서 서로의 심리 거리를 줄일 수도 있다. '알아채기' 칭찬 방식은 중국에서도 흔히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봤을 때 "와, 못 알아보겠네.", "여자는 자라면서 여러 번 모습이 바뀐다는데 정말 예뻐졌네."라고 한다. 이런 칭찬 방식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변화에 대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작은 장점이나 변화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칭찬 방식은 명료함을 요구하는 Grice '합작원칙'의 방식준칙을 위반하지만 중국인들이 '마음으로 터득한다'를 중요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공손원칙'을 지키기 위해 '합작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3.2.2.정보묻기

'정보 묻기'는 칭찬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칭찬 대상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칭찬 방식이다. 한국인들이 친구의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것을 보고 "파마 어디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대답의 정보성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다.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기보다는 화자가 청자의 머리 스타일에 대

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칭찬 방식 역시 화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보임으로써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정보묻기' 또한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칭찬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친구가 파마한 것을 보면 보통 "파마 어디서 하셨어요? 예쁘네요", 친구가 새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보통 "옷은 어디서 샀어요?"라고 물어본다.

3.2.3.개인적 의견 말하기

'개인적 의견 말하기'는 상대방이나 칭찬 대상의 장점에 관한 화자의 생각이나 견해를 제기함으로써 칭찬 화행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화자는 칭찬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초점을 두어 표현한다. 전정미(2008)에 따르면 이런 칭찬 유형이 간접적인 칭찬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특히 동성의 여성 화자와 청자에게 선호된다.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상대방 내면의 만족을 자극해 상대방과의 심리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예 3
가: 너한테 수학 시험만큼은 누워서 떡 먹기야.
나: 아니에요.

예 3 에서 화자와 청자는 동창 사이다. 청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고 특히 수학 성적이 반에서 1 등이다. 화자는 "너한테 수학 시험만큼은 누워서 떡 먹기야."라고 해서 청자의 수학 능력에 대해 칭찬했다. 여기 '누워서 떡 먹기'는 한국 속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누워서 떡을 먹는 것이다. 이 말은 한국의 문화 배경과 결합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중의 칭찬 의미를 알 수 없다. '누워서 떡 먹기'는 어떤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것을 가리킨다. 떡은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부지런히 농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노동자에게는 눕는 자세가 제일 편하고 누워서 떡까지 먹을 수 있는 생활이 노동자에게 이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이다. 문화 풍습의 차이도 다른 민족의 간접적인 칭찬을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원인인 것을 엿볼 수 있다.

3.2.4.요청

요청을 통해 칭찬 화행을 수행할 경우, 칭찬 대상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화자가 노래대회에서 1 등을 한 동창에게 "노래 기교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의 노래 실력을 인정하고 청자의 노래 기교를 공유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요청도 청자에 대한 인정과 칭찬으로 볼 수 있다.

3.2.5. 농담하기

‘농담하기’는 농담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칭찬 방식이다. 예를 들면 화자가 자기와 친한 청자의 화장한 모습을 보고 “시집가도 되겠네.”라고 칭찬하는 방식이 이같은 칭찬 유형에 속한다. 이런 간접적인 칭찬 방식이 합작원칙의 방식준칙을 위반하지만 친하기 때문에 청자가 화자의 칭찬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화자의 이 농담이 청자와의 심리 거리를 줄일 수 있고 편한 담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앞에서 봤듯이 ‘농담하기’라는 칭찬 책략은 친한 사이에만 작용한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책략을 사용하면 쌍방 우호관계를 파괴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등급관념이 확고한 민족이라 한국인들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칭찬할 때 ‘농담하기’를 거의 쓰지 않는다. 학교나 회사의 선배에 대해 칭찬 화행을 수행할 때도 이런 칭찬 책략을 회피한다.

4.한국어 칭찬 화행의 표현 방식

각 민족마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교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교제 상황에 맞추어 특정한 화행 책략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이 책략들이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언어문화공동체 구성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사회 행위 규범이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정된 화행 표현이 생겨난다. 한국어 칭찬어의 표현방식은 주로 칭찬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와 문장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 동사, 형용사, 수식어, 그리고 문장들이 모두 칭찬을 하는데 사용된다.

4.1. 어휘로 칭찬하기

칭찬의 의미가 담긴 어휘는 아래와 같다.

4.1.1 명사

미인, 멋쟁이, 세계 1 위, 전문가, 대박, 예술, 최고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명사들이 모두 칭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중의 ‘미인’은 청자 외모에 대한 칭찬으로 그저 글자 2 개지만 청자 내면의 자아 만족감을 자극해 청자와 화자 간의 거리를 줄일 수 있다.

4.1.2 동사

한국에서 동사만으로 칭찬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와 결합해 칭찬 화행을 수행한다. 많이 쓰는 동사는 (예쁘게) 생기다, (잘)하다, (잘) 어울리다, (잘)생기다, (연기가) 죽이다, 인정하다, 젊다 등이 있다.

예 4 :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이설을 보면서) 불 끄고 보니까 더 잘 생겼다.
어쩜 저렇게 섹시해? 이제 방학하면 못 볼 텐데 일분이라도 더 봐.

-<마이 프린세스>-2 회

예 4 에서 화자는 남자 디자이너인데 청자 이설이랑 그저 아는 사이다. 이설 씨가 스스로 설계한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화자인 디자이너는 '잘 생겼다'라고 이설의 외모와 몸매에 대해 칭찬을 했다. 외모는 한국인들이 많이 칭찬하는 칭찬 내용이고 칭찬 대상이 이성인 경우에도 한국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이 동아시아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은 이성에 대한 칭찬을 꺼려 한다. 그렇기에 중국 회사에서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 대해 "너 오늘 참 예쁘더라.", "이렇게 입으니까 섹시해 보여요."라고 칭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중국에서 남자가 여자 외모에 대해 마구 칭찬을 하면 못마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차이는 다문화 오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1.3 형용사

한국은 칭찬을 하는데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매우 풍부한데 이는 한국어 어휘 자체의 특징과 떼어 말할 수 없다. 한국어는 형용사와 부사의 계통이 매우 발달했다. 풍부한 형용사는 한국인들의 풍부한 감정세계와 수식상의 애호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 칭찬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귀엽다, 젊다, 멋있다, 착하다, 자상하다, 똑똑하다, 완벽하다, 대단하다, 유능하다, 훌륭하다, 꽃답다 등이 있다.

예 5 :

나 좀 봐. 김 소장님 원래 꽃다우셨죠? ... 설마 지금 본인이 꽃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신사의 품격>-3 회

예 5 에서 화자는 "원래 꽃다우셨죠?"라고 김 소장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했다. '답다'는 명사 뒤에 붙은 접미사로서 앞의 명사와 같이 형용사를 구성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앞의 명사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예 5 에서 화자가 '꽃답다'라는 형용사로 청자의 얼굴을 꽃에 비유한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남의 외모를 칭찬할 때 자주 꽃을 활용한다. 꽃은 액운을 내몰 수 있고 아름다움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수식법 중에 꽃으로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예가 많다. '꽃 같은 미인', '꽃보다 남자', '꽃미남' 등이 바로 그 예이다. 따라서 꽃을 통해 칭찬하는 것은 화행을 수행하는 문화적 환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1.4 수식어

명사, 동사, 형용사 외에 “형용사 어간 + 관형사형어미‘-은/는’” 라는 형식도 칭찬하는데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미소가 빛나는 배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의 목소리, 아름다운 소녀 등이 모두 칭찬하는 표현이다. 수식어는 중심 단어의 상태나 의미를 묘사하거나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칭찬 표현에 수식어를 넣으면 칭찬의 어세를 더하고 칭찬 내용을 돋보이게 한다.

이해영(2015)에 따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칭찬할 때 동사, 명사, 부사보다 형용사를 더 많이 쓴다. 제일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형용사는 순서대로 ‘예쁘다, 대단하다, 부럽다, 친절하다’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화자가 동사로 상대방을 칭찬할 때 보통 동사 앞에 ‘잘’을 붙인다.

4.2. 문장으로 칭찬하기

알다시피, 한국어는 교착어고 풍부한 조사와 어미가 복잡한 문형과 문장 구조를 형성한다. 이해영(2015)에 따르면 한국에서 칭찬하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구법구조를 취한다.

가.①NP(is/looks)(really)ADJ→머리 되게 건강하다. (35.66%)
②(really)ADJ→대단하다.(16.28%)
나.①NP (really) V→머리 잘 잘랐네. (36.43%)
② (really) V→와! 정말 잘 친다.(5.43%)
다.You V (a) (really) NP →너 정말 IT 전문가야. (4.65%)
라.You V (a) (really) ADJ NP→너 정말 좋은 친구야. (1.55%)

5. 설문지 조사 결과 분석

본고는 설문 조사의 방식으로 한국어 모어화자와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어떻게 칭찬 화행을 수행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설문지는 연령, 사회적 지위, 사회적 거리 등 요소를 고려해 5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이런 상황에 칭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어서 칭찬을 할 거면 뭐라고 칭찬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다. 물론 설문지를 받는 사람의 연령, 직업, 사회적 신분 및 지위가 칭찬 화행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만 본고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의 칭찬 화행 수행 시의 특징 및 모어화자와의 차이를 연구 목적으로 삼아서 일부러 모어 화자 수험자도 학습자와 연령이 비슷한 재학중인 대학생에 제한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 수험자는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인 유학생이고 한국어 학습자 수험자는 대련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칭찬 화행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어 학습자를 다시 초급팀(1-2 학년)와 고급팀(3-4 학년)으로 나눈다.

본 설문지는 한국인 유학생 30 명, 초급팀 중국인 학습자 15 명, 고급팀 중국인 학습자 15 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5.1.칭찬 유형의 사용빈도 대조

한중 칭찬어 유형의 사용 실태

상황 / 한국어 모어 화자/중국인 학습자 / 칭찬 화행의 유형		상황 1 (회사 동료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	상황 2 (친한 친구가 새 차를 샀다)	상황 3 (여동생이 좋은 대학교에 붙었다)	상황 4 (회사의 이사님이 승진했다)	상황 5 (부하직원이 회사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
안 칭찬하기		0%	7.8%	5.6%	0%	6.7%
		0%	6.3%	0%	0%	4.2%
직접 칭찬		33.3%	25.6%	41.7%	42.5%	33.3%
		43.6%	28.1%	53.3%	47.5%	45.8%
간접칭찬	알아채기	17.9%	10.3%	0%	0%	0%
		12.8%	15.6%	0%	0%	0%
	정보묻기	17.9%	12.8%	5.5%	0%	0%
		17.9%	12.5%	0%	0%	0%
	개인적 정보 말하기	20.5%	25.6%	22.2%	32.5%	23.3%
		20.5%	28.1%	20.0%	30.0%	29.2%
	농담하기	10.3%	10.3%	16.7%	17.5%	23.3%
		5.1%	6.3%	10.0%	10.0%	16.7%
	요청	0%	7.7%	8.3%	7.5%	13.3%
		0%	3.1%	16.7%	12.5%	4.2%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안 칭찬하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중국인 학습자보다 높다. 특히 상황 3 에 대한 '칭찬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중국인 학습자는 다 칭찬할 것으로 선택하는 반면에 한국어 모어 화자 중 5.6%는 칭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민족이 지난 세기에 침략과 전쟁의 고통을 겪어 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인들은 침략을 막는 동시에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한 자존심을 키우고 이런 자존심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항심리를 생기게 한다. 또한 한국 모어 화자는 칭찬할 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 '예쁘다', '짱이다', '잘하다', '대단하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보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직접적인 칭찬 책략'을 쓰는 비율이 더 높다. 자연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단도직입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한국의 사회 배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고대에 한국은 농업 중심의 농업국이었고 한국인들은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하는 삶을 살았다. 기후가 농업 생산에 특수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자연에 대해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한국의 무속 신앙은 바로 '자연에 영혼이 담겨 있다'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은 자연을 숭상하는 민족인 것을 또 한 번 입증해 주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인 학습자의 직접 칭찬의 사용 빈도도 아주 높다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직접적인 칭찬 방식을 많이 쓰는 것은 한국어 수준과 관계가 있다. 한국어 수준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명확하고 간단한 직접적인 칭찬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간접적인 칭찬 방식에 대한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개인적 의견 말하기'라는 책략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유능해서 꼭 승진할 줄 알았어.", "就知道你一定会升职的. (꼭 승진될 줄 알았어.) "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학습자보다 '농담하기'라는 간접적인 칭찬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상황 1 에서 동료가 머리 스타일을 바꾼 것을 보고 10.3%의 한국어 모어 화자는 '농담하기'로 동료를 칭찬했다. "와, 여자 다 됐네.", "남자친구가 생겼나 봐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연령이 비슷하고 친한 친구끼리 '농담하기'로 상대방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칭찬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성의 외모에 대해 '농담하기'로 칭찬을 한다면 예의에 어긋나거나 경박한 행위라는 소리를 들 수 있다.

5.2.화제가 칭찬화행을 수행하는 데 끼치는 영향 대조

Manes(1983:98)에서 한껏 멋을 낸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모는 흔히 칭찬하는 화제인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외에 개인의 소유물과 능력도 칭찬 화제에 속한다. 소유물은 상대방의 경제수준, 사회지위, 개인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칭찬은 상대방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고의 상황 1 의 칭찬 화제는 외모, 상황 2 의 칭찬 화제는 소유물, 상황 3, 4, 5 의 칭찬 화제는 능력이다.

상황 1 에서 '칭찬할 겁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 모어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칭찬할 것으로 선택하고 직접적인 칭찬 방식을 많이 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보통 '알아채기', '개인적인 의견 말하기'로 외모에 대해 칭찬하고 중국인 학습자는 '정보 묻기', '개인적 의견 말하기'라는 책략을 많이 쓴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정보 묻기'로 상대방이 머리 스타일을 바꾼 것에 대해 칭찬할 경우 보통 직접적인 칭찬 책략도 함께 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 중국인 학습자가 '정보 묻기'의 방식으로 칭찬하는 것은 '화제를 시작하기'라는 사회적 교제 기능만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는 '화제를 시작하기'라는 기능 외에 긍정적인 말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의 정도를 높이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중국인 학습자보다 타인 외모에 대한 칭찬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상황 2 에서 상대방의 소유물인 '차'에 대해 칭찬하는 경우에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모두 '직접적인 칭찬'과 '개인적 의견 말하기'라는 칭찬 책략을 제일 많이 쓴다. 주의할 만한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나 중국인 학습자나 소유물에 대해 칭찬할 때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에 대해 칭찬할 때보다 직접적인 칭찬을 덜 쓴다. 이를 통해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의 가치취향을 엿볼 수 있다. 즉 소유물보다 자기의 능력을 칭찬 받을 것을 더욱 바란다.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해 칭찬할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안 칭찬하기'를 선택하는 비율은 각각 7.8%, 6.3%다.

본고의 5 가지 상황 중에서 능력과 관련된 상황은 상황 3, 상황 4, 상황 5 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타인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칭찬했다. 그리고 '외모'와 '소유물'에 대해 칭찬할 때보다 직접적인 칭찬 책략을 더 많이 쓴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모두 능력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4 에서 회사 이사님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17.5%의 한국어 모어 화자는 '농담하기'라는 책략으로 칭찬화행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의 '직접적인 칭찬' 책략을 사용하는 비율은 10.0%밖에 안 된다. 중국인 학습자의 '요청' 책략을 사용하는 비율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높다.

5.3.사회적인 지위가 칭찬화행을 수행하는 데 끼치는 영향 대조

본고의 설문지 조사 중 상황 1 과 상황 2 는 사회적 지위가 같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고 상황 4 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다. 그리고 상황 5 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는 상대방에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직접적인 칭찬 책략을 많이 쓴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 칭찬할 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비

율은 각각 33.3%, 45.8%이다. 모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비율보다 높다.

겸손은 중국 문화의 중요한 내용이고 중국 문화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다.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들이 칭찬 화행을 수행할 때 저절로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격하시킨다. 반대로 중국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 칭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타인의 능력에 대한 칭찬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기색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농담하기'라는 칭찬 책략을 쓰는 비율은 상대방의 지위와 상관없이 중국인 학습자보다 높은 것이다. 따라서 '농담하기'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전형적인 칭찬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6.결론

칭찬 화행을 연구한 결과 한국 모어 화자와 중국 학습자들은 칭찬 화행을 수행하는 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적지 않다. 그 차이점은 언어 표현의 차이와 문화 가치 관념의 차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문화의 차이는 효과적인 교류를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다. 본고의 연구 결과가 아래와 같다.

①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 학습자보다 칭찬을 덜 한다. 이는 한민족의 강한 자존심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 모어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가 직접적인 칭찬 책략을 많이 쓴다.

② 간접적인 칭찬 책략 중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개인적 의견 말하기'라는 책략을 선호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농담하기'라는 칭찬 책략을 쓰는 비율이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낮다.

③ 한국인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학습자보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더욱 중요시한다. 상대방이 이성이라도 외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반대로 중국인 학습자는 이성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신중히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능력'을 많이 칭찬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비슷한 문화 가치 취향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한국어 연구자와 학습자들이 한국어 칭찬 화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Boyle.2000.“You’ve worked with Elizabeth Taylor”:phatic functions and implicit compliment[J].Applied Linguistics, (21):26-46.

[2]Janet Holmes.1988.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New Zealand English[A]. Anthrolological linguists,(28)4:485-508.

[3]박경옥.2006.담화분석을 통한 칭찬 화행 연구—한국어 회화교재와 TV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D].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장민주.2009.한국어 칭찬 화행 양상에 관한 연구[D].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5]高志怀 李娟.2004.称赞语的语用研究[J].河北师范大学学报, 27 (1)：109-112.

[6]顾曰国.1992.礼貌、语用与文化[J].外语教学与研究, (4)

[7]郭爱先.1996.美国英语称赞的话题与对象[J].高校教育管理.(3):56

[8]何自然.1997.语用学与英语学习[M].上海：上海外语教育出版社.

[9]蒋冰清.2006.英汉称赞语的语用特征分析[J].哈尔滨学院学报, 27 (11)：130-133.

[10]权立宏.2004.汉语中男女在称赞语和称赞语回应使用上的差异分析[J].现代外语, 27 (1)：62-69

[11]施家炜.2000.汉英文化称赞语对比分析[J].汉语学习, (5)：41-48.

한국어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에 대한 고찰

— 문장 범주를 중심으로

마려

(중앙민족대학교 대학원/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대학)

1. 서론

일상생활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람들은 가급적 부정적이고 민감한 화제는 피하고 부드럽고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완곡 표현의 사용은 금기를 회피하고 상대의 체면을 유지하고 예의를 지켜 긍정적이고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

한국어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에 대한 최근 연구는 주로 한·중 완곡 표현 대조연구와 한국어 완곡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곽단양(2006)은 어휘 차원, 문장 차원, 담화 차원으로 나누어 한국어 완곡 표현의 형태를 고찰하였고, 췌이펑훼이(2010)는 음성, 문자, 어휘, 문법으로 나누어 한·중 완곡어 구성 방식을 대조하였고, 김욱(2011)은 음운적, 어휘적, 문법적, 수사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한·중 완곡어 구성 방식을 대조하였고, 채운옥(2014)은 음성·문자 변용 방식, 어휘 변용 방식, 수사 방식으로 나누어 한·중 완곡 표현의 구성 방식을 대조하였고, 양정(2016)은 언어적인 생성 방식과 비언어적인 생성 방식으로 나누어 한국어 완곡 표현의 생성 방식을 고찰하였다.

아쉬운 점은 이상의 논의는 개괄적인 유형 분류에만 치중하였고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구성방식 연구가 부족하고 사용사례도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어휘 범주의 논의가 상대적 많지만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류와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본고는 세종말뭉치[1]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문장 범주의 한국어 완곡 표현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 한국어 완곡 표현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완곡 표현의 개념과 범주

김미형(2000:28)에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완곡 표현'이라고 하였다. 완곡 표현은 어휘 범주와 문장 범주로 나눈다. 전통적으로 완곡어로 언급된 것과 시사적인 용어 표현과 관련되는 것은 어휘 층위의 것들인데, 성격상 원래의 낱

[1]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corpusSearchManager.do

말이 갖는 좋지 않은 뜻을 감추고 대신 좋은 어감을 지니는 다른 낱말로 대치하는 것이다. 문장의 표현, 또는 대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완곡성을 갖는 것들은 문장 층위의 것들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부담스러울 때 그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다. 이상 두 종류는 모두 완곡 표현이라는 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데, 그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두 경우 모두 동일한 표현 의도를 지니고 동일한 표현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다(김미형, 2000:32).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완곡 표현의 개념을 규정해 보도록 하겠다. 완곡 표현은 듣기에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하거나 충격을 주는 등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것에 대해 듣기 좋은 말로 바꿔 준 표현이다. 이는 다시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과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으로 나눈다. 어휘 범주의 완곡 표현은 재앙이 온다고 믿거나 더럽고 은밀하거나 직접 말하면 불쾌감이나 충격을 주는 내용을 듣기 좋게 바꿔 준 단어 또는 관용구이다.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은 주장, 거절, 요청, 명령, 질문, 지적, 설득 등 말하기 민망하거나 듣기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부드럽게 듣기 좋은 말로 바꾼 문장이다.

문장 범주에서의 완곡 표현은 화용론의 개념인 '간접 화행'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Searle 의 화행 이론에서 간접 화행을 다시 관례적 간접 화행과 비관례적 간접 화행으로 분류하였다. 관례적 간접 화행이란 발화에 동원된 일정한 단어나 구문에 의해서 함축되기 때문에 함축된 바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비관례적 간접 화행이란 형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추론을 해야 함축된 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빌려 문장 차원의 한국어 완곡 표현을 다시 관례적 완곡 표현과 비관례적 완곡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a) 소리를 좀 높여 주세요.

(b) 소리를 좀 높여 주시겠어요?

(c) 뒤에서 잘 안 들리네요.

(d) 앞에 가서 앉고 싶어요.

위의 예문 중에 (a)는 직접 표현이고 (b)(c)(d)는 모두 완곡 표현이다. (b)는 관례적 완곡 표현으로 명령문을 의문문으로 전환하여 내포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c)(d)는 비관례적 완곡 표현으로 일정한 형식이 없고 언어 환경을 잘 분석하고 추론을 해야 완곡된 의미를 알 수 있다. 본고는 (b)와 같은 문장 층위 완곡 표현 중의 관례적 완곡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의 구성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문장 범주의 한국어 완곡 표현 구성 방식

어휘 범주의 완곡어는 어느 정도 한정된 목록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을 띤다. 그런데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은 다분히 화용론적인 것으로서, 한정된 목록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다만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고 이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다

는 예시를 할 수 있다. 아래에 문장 범주의 한국어 완곡 표현을 문장의 구성 방식, 문장의 의미 표현 방식, 문장의 실현 방식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3.1 문장의 구성 방식

한국어는 진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크게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서술문이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직접적이면서 어감이 상대적으로 강렬하지만 이에 비해 의문문은 보다 부드럽고 완곡하다. 의문문은 발화자에 의해 야기되는 거부감이나 불편함, 당황스러움 등 부담을 줄이고, 갈등이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의문문을 이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1) 서술문을 의문문으로 전환

서술문은 보통 화자가 일, 사물에 대한 설명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표현은 강렬한 주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불쾌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문문으로 전환하여 완곡하게 말할 수 있다.

(1) ㄱ. 우리는 63 빌딩의 중간까지 물이 찬다는 건 좀 너무하다.

→ 우리는 63 빌딩의 중간까지 물이 찬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으냐?

(2) ㄱ. 보충수업을 하기 싫다.

→ 보충수업을 안 하면 안 돼?

(1 ㄱ)의 기본 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원망하는 것이라서 직접 말하면 청자가 곤란하게 만든다. 이를 의문문으로 전환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감추면서도 상대방이 깨닫게 할 수 있다. (2 ㄱ)의 기본 의미는 화자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고 태도가 강경하여 상대방이 난감해지고 서로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문문으로 전환하면 자기 생각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룰 확률이 높아진다.

2) 명령문을 의문문으로 전환

명령문의 기본 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의미 층면에서 보면 명령, 요구, 금지 등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구조 층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형식과 부정적인 형식으로 나누는데 긍정적인 것은 보통 명령, 요구, 건의 등 의미를 가지고 부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명령, 금지, 권유 등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ㄱ. 조금만 가르쳐 줘요.

→ 조금만 가르쳐 줄래요?

ㄴ.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ㄷ. 저녁을 먹고 가요.

→ 저녁을 먹고 가지 않겠어요?

(4) ㄱ. 결혼을 하지마.

→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느냐?

ㄴ. 그런 말은 하지 마.

→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어떨까?

(3)(4)는 모두 명령문을 의문문으로 전환하는 예문인데 (3)은 긍정적인 표현이고 (4)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3)에서 '-ㄹ/을래요', '-ㄹ/을까요', '-지 않겠어요?'등으로 명령문을 의견을 구하는 의문문으로 완곡하게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청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 (4)에서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하는 게 어떨까'등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는 권유 의미를 가지는 의문문으로 명령, 금지를 표현하는 문장을 바꿔 말한 것이다. 그러면 청자가 화자의 명령에 대한 선택 여지가 생겨 명령구에서 받은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

3) 청유문을 의문문으로 전환

청유문은 명령문보다 좀 완곡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요구하면 말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슨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쓰는 표현들이다. 이럴 때 직접 청유하는 것보다 말을 더 우회적으로 상의하고 묻는 표현으로 전환하면 더 효과적이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보다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

(5) ㄱ.내일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자.

→ 내일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ㄴ.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

→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ㄷ. 뭐 먹으러 가자.

→ 뭐 먹으로 갈까?

4) 설명 의문문/판정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으로 전환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그 대답을 요구하면서 언어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다. 청자의 대답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 하고,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라 한다.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또는 반어 의문문)이라 한다.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은 청자가 꼭 대답해야 되어서 강요하는 어감이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수사 의문문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보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6) ㄱ. 무슨 불만이 있니?

→ 무슨 불만이 있지 않겠지?

→ 무슨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지?

(7) ㄱ.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ㄴ. 오늘 학교에 안 가도 돼?

→ 오늘 학교에 안 가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6)은 '…지 않겠지''아니겠지'의 이중 부정 형식으로 원래 설명 의문문의 강렬한 비난 어감을 약화시킨다. (7)은 '…이 아니잖아''…ㄴ/다면 얼마나…ㄹ/을까?'로 원래 판정 의문문의 강열한 원망이나 진술을 완곡하게 전환하고 상대방의 부담을 줄인다.

이상의 예문을 살펴보면 문장 유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서술문이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상대적으로 어감이 직접적이고 강렬한데 의문문은 특히 수사 의문문은 어감이 부드럽고 완곡하다. 그래서 언어 교류 활동에서 상대방에게 위협감과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서술문, 명령문, 청유문을 의문문으로 전환하고 일부 상황에서 설명 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3.2 문장의 의미 표현 방식

문장의 의미 표현 방식으로도 완곡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 표현, 희망 표현, 추측 표현, 수혜 표현, 느낌 표현, 모호 표현, 비유 표현 등이 있다. [2]

1) 가정 표현 사용

가정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서술내용을 마음 속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서술하는 표현이다. 가정 표현(예:만약…면/ㄴ,는다면/혹시…)은 요청의 경우에 단도직입적인 요청의 어감을 없애고 상대방이 곤란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조건이 먼저 제시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화자의 체면이 깍이지 않게 된다.

(8) ㄱ. 병원에 한번 가 봐요.

→ 시간이 나면 병원에 한번 가 봐요.

ㄴ. 원효의 어머니가 유성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했어요.

→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효의 어머니가 유성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였다고 했어요.

(8 ㄱ)은 병원에 가는 것을 요구하는데,'시간이 나면'을 덧붙임으로 화자의 명령 어감이 약해지면서 청자는 화자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완곡한 표현이 된다. (8 ㄴ)은 원효의 어머니가 유성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견해를 나타내는데, 앞에 '{삼국유사}에 의하면'을 첨가하게 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견해를 좀 더 약하게 피력하는 것이 되어 완곡 표현의 작용을 하게 된다.

2) 희망 표현 사용

희망 표현이란 말하는 이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희망 표현(예:…면 좋겠어요/…면 해요/...기 바랍니다)은 약화의 원리를 활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아주 완곡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

[2] 문장 편폭의 제한으로 본문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가정 표현, 희망 표현, 추측 표현, 수혜 표현만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기로 한다.

(9) ㄱ. 조금만 더 경청해 주세요.

→ 조금만 더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ㄴ.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심을 좀 가져 줘야 해요.

→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9 ㄱ)의 예문에서는 조금 더 경청해 주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면 고맙겠다'의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명령의 어감을 약화시키고 '요구'가 아닌 '희망'의 어감으로 바꾸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9 ㄴ)에서는 '가져 줘야 해요'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 '…면 좋겠다'를 덧붙여 사용함으로써 희망 사항을 나타낸다. 상대방은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혜택을 준다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마음 가볍게 화자의 청탁을 들어 줄 수 있다.

<표 1> 희망 표현 방식

희망 표현
-(았/었)으면 하다, -(았/었)으면 싶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고맙겠다/감사하겠다, -기 바라다, -기 원하다, -고 싶다, -고 싶어하다, -고자 하다, -아/어 보고 싶다.

3) 추측 표현 사용

추측 표현(예:…는 것 같아요/…인가 보네요)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추측할 때 주로 쓰는 표현들이다(국립국어원 2005:287). 추측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은 모호함인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약화 원리를 활용한 완곡 표현의 하나로 흔히 사용된다. 단호한 어감을 피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음을 화자가 고려하는 느낌을 주며, 캐묻지 않고 관심 정도를 보이는 느낌을 준다.

(10) ㄱ. 이런 식으로 쉬엄쉬엄 수영하면 한강을 건널 수 있다.

→ 이런 식으로 쉬엄쉬엄 수영하면 아마도 한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ㄴ. 극적인 성격 때문에 시집은 못 가요.

→ 극적인 성격 때문에 시집은 못 갈 것 같다.

ㄷ. 오늘 바빠서 못 가요.

→ 오늘 바빠서 못 갈지도 몰라요.

ㄹ. 박 장관 발언을 내용면에서 본다면 역시 좀 지나쳤어요.

→ 박 장관 발언을 내용면에서 본다면 역시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10 ㄱ)의 관점과 (10 ㄴ)의 판단이 잘못 되었을 경우 화자는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청자에게 경솔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 청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10 ㄷ)의 거절과 (10 ㄹ)의 지적은 어감이 강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깍을 수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직접적으로 긍정하지 않고 모호한 추측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히 그 일을 사색해 보게 한다. 화자에게는 겸손함을 보이게 하고 듣는 이에게는 어떤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추측 표현으로는 '아마','혹시' 등의 추측성 부사나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2> 추측 표현 방식

추측 표현
추측성 부사: 아마, 아마도, 혹시. 추측성 종결어미: -ㄹ/을 것이다, -겠, -ㄹ/을까, -는/ㄴ/은/ㄹ/을 것 같다, -는/ㄴ/은 듯하다, -는/ㄴ/은 듯 싶다, -ㄹ/을지 모르다, -ㄹ/을/는/은/ㄴ/던 모양이다, -ㄴ/은/는가 싶다, -는/ㄴ/은가 보다, -나 싶다, -ㄹ/을까 싶다, -ㄹ/을 테니, -ㄹ/을 법하다, -ㄹ/을 걸요, -성 싶다.

4) 수혜 표현 사용

수혜 표현은 조동사 '주다'라는 표현에 의해 '동사+아/어 주다'의 관용형으로 이루어진다.[3]요청의 의미를 지니는데 화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어감을 주는 표현이므로 청자에게 듣기 좋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반면, 화자가 청자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는 완곡 효과가 없다).

(11) ㄱ.문 좀 닫아요.

→ 문 좀 닫아 주세요.

ㄴ.멀리 보낼 거니까 단단하게 포장하세요.

→ 멀리 보낼 거니까 단단하게 포장해 주세요.

(11)에서 '문 좀 닫아 주세요'와 '단단하게 포장해 주세요'는 직접적인 요청이기는 하지만 '문 좀 닫아요' '단단하게 포장하세요'등과 같은 표현에 비해 요청의 의미가 더해진다. 이것은 상대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 명령의 어감을 약화시키고 상대가 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약화와 미화의 원리를 통해 완곡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3.3 문장의 실현 방식

문장의 실현 방식으로 성분 첨가, 피동문 전환, 부정문 전환 등이 있다.

1) 성분 첨가

완곡 표현으로 사용하는 성분 첨가 방식은 주로 축소사 첨가, 부사 첨가와 삽입구 첨가 등이 있다.

[3] 김미형(2000:56) 논문에서의 '수혜 표현'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였다.

(1) 지소사 첨가

지소사(指小詞, diminutive)는 '작은 단어'라는 뜻으로 주로 '좀, 조금, 잠깐, 잠깐만, 약간, 잠시, 한가지, 약간이나마'등과 같은 작은 것을 지시하는 단어를 가리킨다. 지소사의 주요 기능은 언어 교제에서 문장의 딱딱한 느낌을 감소시키고 무례함을 피하며 화자와 청자 간의 부드러운 담화 분위기를 수립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이런 축소사를 써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교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

(12) ㄱ. 그쪽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래요?

→ 그쪽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줄래요?

ㄱ. 사실 나는 약이 오른다.

→ 사실 나는 좀 약이 오른다.

(12 ㄱ)은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인상을 주기 위해 지소사를 쓴 것이다. 이런 경우에 청자도 부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화자도 더 예의 있어 보이게 된다. (12 ㄴ)은 청자의 입장, 심정과 자존심까지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충격이나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축소사를 써 조심스럽게 자기의 심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런 '지소사'들이 완곡 효과뿐만 아니라 강조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예: 이거 해라, 좀./ 잠깐도 못 봐 주니? 등) 어디까지나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김미형, 2000:56).

(2) 부사 첨가

여기 말하는 부사는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에 한한다. 한국어에서 '아마, 혹시'등 부사들은 모두가 단정이 아닌 어림짐작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어 완곡 표현에 아주 적합하다. 즉 어휘 내포의 불명확성을 증가하여 진실한 지시 내용을 모호하게 한다.

(13) ㄱ.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혹시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 아마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혹시'를 씀으로써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없어도 괜찮다는 뜻을 포함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게 한다. 그리고 '아마도'를 첨가함으로써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고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여 듣는 이의 부담감을 줄인다.

(3) 사견 표현 첨가

사견표현 첨가는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한' 등을 문장 앞에 덧붙이는 것이다.[4] 그 관점은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적인

[4] 김미형(2000:56) 논문에서의 '사견 표현'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였고 더 좋은 명칭이 있을지에 대하여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의견을 표현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담화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자칫 상대에게 독단적인 느낌을 약화시켜 청자로 하여금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 ㄱ. 이런 행동들은 거의 다 무의미하다.

→ 내가 보기에 이런 행동들은 거의 다 무의미하다.

ㄴ.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

→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4)에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으로는'을 덧붙여 이것은 단지 자신의 생각일 뿐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4) 감정 표현 첨가

여기 말하는 감정 표현이란 주로 '미안한데/미안하지만', '죄송한데/죄송하지만', '실례하지만','글쎄요'등 미안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른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누구의 요구를 거절할 때, 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문장 앞에 감정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여 상대의 이해를 구하면서 화자의 부정적인 인상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청자는 화자의 부탁, 거절, 또는 지적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15) ㄱ. 거기 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 실례지만 거기 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드리고 싶지 않네요.

→ 죄송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드리고 싶지 않네요.

ㄷ.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 미안하지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15)에서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거절하거나 지적을 할 경우에 '실례지만','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을 덧붙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데에 미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또 표현이 매우 겸손하고 온화하여 상대방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2) 피동문 전환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뉘는데,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동작을 받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피동문은 일반적으로 '-이-, -히-, -리-, -기-'와 같은 피동 접미사에 의한 파생적 피동문과 '-아/어지다'등에 의한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눈다(송창선, 2010:210). 피동문은 능동문과 비교하여 한편으로는 '행위성이 약화되거나 상실된 일'을 나타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절로 그리됨(자연성)의 의미가 강화된 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최규수, 2010:237). 그래서 한국어는 피동문을 이용하여 말을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16) ㄱ. 수선이를 출근한 지 한달 만에 짤랐다.

→ 수선이는 출근한 지 한달 만에 짤렸다.

ㄴ. 어느 틈에 나 혼자도 새벽 산책을 할 수 있다.

→ 어느 틈에 나 혼자도 새벽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ㄷ.기초 작업에서부터 책의 조판까지 컴퓨터가 처리를 했다.

→ 기초 작업에서부터 책의 조판까지 컴퓨터 처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16 ㄱ)에서 '수선이를 출근한 지 한달 만에 짤랐다'는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청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나 '수선이는 출근한 지 한달 만에 짤렸다'라는 피동 표현으로 전환하면 '짤랐다'는 행동을 완곡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16 ㄴ)에서의 '-게 되다'는 약화의 원리를 통해 객관적인 조건이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타인에게 자랑하는 느낌을 피하고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취득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16 ㄷ)에서는 '-아/어지다'를 이용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주의력을 객관적인 사건에 분산시키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

3) 부정문 전환

긍정문은 보통 화자가 일, 사물에 대한 설명이나 생각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표현은 강렬한 주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고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정문으로 전환하여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17) ㄱ. 가능성이 있다.

→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ㄴ. 그것은 누구에게든 나쁜 일이다.

→. 그것은 누구에게든 좋은 일이 아니다.

(17 ㄱ)에서 '있다'는 표현은 너무 단언적이고 상대방의 의심이나 반박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없는 것도 아니다'는 표현이 훨씬 여지를 남겨 두고 상대방에게 겸손한 느낌을 준다. (17 ㄴ)에서 '나쁜 일'이라는 표현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이다. 이를 '좋은 일이 아니다'는 부정문으로 전환하면 직접 말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갖게 하여 꼭 순응해야 한다는 구속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4. 결론

이상으로 문장범주 차원에서 한국어 완곡 표현의 구성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분류 체계를 떠나 더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류 방법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장의 구성방식, 문장의 의미 표현 방식, 그리고 문장의 실현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연

구를 통하여 문장 범주의 한국어 완곡 표현 체계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완곡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곽단양,「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곡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 국립국어원,『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3] 김미형,「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한말연구 7』, 2000.

[4] 김욱,「한·중 완곡어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 송창선,『국어통사론』,한국문화사, 2010.

[6] 양정, 「한국어 교육용 완곡 표현 선정 및 등급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7] 채춘옥,「한·중 대조를 통한 완곡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8] 최규수,『한국어 통사론 입문』, 박이정 출판사, 2010.

[9] 췌이펑훼이,「한·중 완곡어 구성 방식의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마려, 중앙민족대학교 박사과정생,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대학 강사, 大连市旅顺南路西段 6 号 大连外国语大学韩国语学院, 116044, 135-5598-1589, mary4380@163.com

재외조선족의 언어사용과 의식

—북경시, 광동성, 경기도 거주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카기 다케야

(일본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1. 들어가기

중국에는 주된 생활언어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족이라 불리며 주로 19 세기 말부터 1940 년대에 조선반도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의 후손이다. 『中国 2010 年人口普查资料』(제 6 회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조선족은 중국 전체에서 183 만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집거 지역을 떠나 중국 내의 기타 지역이나 중국 외로 재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趙貴花(2016), 文銀実(2017) 등). 이러한 인구 이동을 유발한 요인으로 1978 년 이후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연해 도시의 경제 발전이나 1992 년의 중한국교수교로 인한 노동력 수요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람의 이동은 물건이나 돈의 이동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언어 그 자체의 존재 양식에도 큰 영향을 주어, 나아가서는 민족 정체성의 존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1]. 본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의 이동으로 인한 언어 변화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중국 동북 3 성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재외조선족'이라 부르고 그들의 언어사용, 의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경시, 및 광동성 연해부의 경제특구 지역을 중국 내의 사례로, 한국 경기도 안산시를 중국 외의 사례로 삼아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조선족의 언어사용, 언어의식이 어떠한 공통성, 특수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2].

[1] 文銀実(2017)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부터 특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발전 지역인 환발해만(요녕성 심양시, 대련시), 수도권(북경시, 천진시), 산동성(위해시, 연태시, 청도시), 장강삼각주 경제권(상해시, 항주시, 의오시, 소주시), 주강삼각주 경제권(심천시, 광주시)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인구이동 또한 현저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2] 북경시의 조선족 인구는 1982년, 3,734에서, 2000년, 20,369명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예동근, 윤인진(2008), 申慧淑(2013)). 광동성의 조선족 인구 또한 1982년, 154명에서 2010년, 18,588명으로 약 120배나 증가했다(『中国2010 年人口普查资料』).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서울시의 남서쪽 약30km에 위치하는 공업도시)의 2018년4월말 기준 조선족 인구는 46,804명이었다(안산시(2018). 단 안산시의 분류에서는 조선족은 '한국계 중국인'이라 불린다).

2. 선행연구

제 2 장에서는 재외조선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1)중국 국내, (2)중국 국외(한국)로 나누어 개관한다. 단 언어사용 측면에 집중한 기존 연구가 매우 적으므로, 여기서는 언어뿐 아니라 중국 도시부,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조선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전반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1. 중국 국내

먼저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해 논한 연구를 보면,

김국화(2007)는 북경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사용에 대해 출판사나 방송국, 대학교와 같은 사업단위에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金成子(2010)는 북경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민족교육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申慧淑(2013)은 북경시의 조선족을 사례로 하여, 도시에서의 조선족의 언어적응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趙貴花(2016)는 북경시 조양구 망경에 위치하는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그곳에 모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제 2 장).

南玉瓊(2016)은 조선족의 광동성 심천시로의 이동과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2.2. 한국 국내

이어서 한국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살펴 보면,

예동근(2009)은 한국 안산시, 서울시 구로구의 사례를 통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외국인으로서의 조선족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장안리(2016)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의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자본, 소수민족사회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상에서 재외조선족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북경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해서는 언어사용, 의식을 분석한 것이 존재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해서는 커뮤니티나 경제, 정체성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많고, 언어사용이나 의식에 특화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에 따라 재외조선족을 비교해서 논한 것은 더욱 찾아 보기가 힘들다. 본발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재외조선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3 가지

지역의 사례를 언어사용, 언어의식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분석, 조사의 틀

3.1. 분석의 틀

본발표에서 구체적인 언어나 변종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편의상 다음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서로 구별하기로 한다.

(1)조선어…중국에서 조선족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변종)의 총칭.

(2)한국어…한국에서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변종)의 총칭.

(3)한 어 …중국의 공용어. 한족의 언어. 중국어라고도 불린다.

3.2. 조사의 틀

본발표에서는 중국 북경시, 광동성, 한국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사용, 언어의식에 관한 설문지조사의 결과와, 조사협력기관의 직원에게 실시한 인터뷰의 결과를 분석한다. 본조사의 개요 및 제보자의 속성은 [표 1]과 같다.

4. 분석

제 4 장에서는 설문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의 전제가 될 (1)언어환경에 대해 개관한 후에 (2)언어사용, (3)언어의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4.1. 언어환경

먼저 언어환경에 대해 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는 거주년수나 출신 학교, 직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거주년수와 거주예정년수를 물은 결과를 보자.

[표 2]를 보면 거주년수의 평균은 광동성, 북경시에서 비교적 길고,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짧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지의 50 대 이상의 거주년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북경시나 광동성으로의 이주가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으로의 이주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거주예정년수를 보면 30

대, 40 대, 50 대에서는 북경시, 광동성보다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긴 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경시, 광동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은(광동성에서 약간 길기는 하나), 많은 경우 노후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신의 출신지, 또는 기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정착할 경향이 강하며 귀향이나 귀국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3].

또한 자신이 다녔던 소학교, 중학교가 조선족학교, 한족학교 중 무엇이었는지를

물은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를 보면 모든 지역이 연령이 높을수록 조선족학교에 다닌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광동성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북경시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조선족학교에서는 1990 년대까지 일본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30 대 이상의 많은 재외조선족은 조선어나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어, 일본어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언어능력이 후에 살펴볼 직업, 언어사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4]. 또한 북경시의 20 대, 30 대는 한족학교를 다녔던 사람의 비율이 높은데, [표 2]에 따르면 이 세대의 평균거주년수가 기타 지역과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 출신지에서 한족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거주지에서 제보자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를 보면 북경시에서는 직업군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광동성에서는 무역업, 경기도에서는 공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보게 된다. 조사협력기관 직원에게 실시한 인터뷰로부터, 북경시 거주자 중에는 회사 경영자나 공무원, 변호사 등이[5], 광동성 거주자 중에는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서 통번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경기도 거주자 중에는 소위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각 많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위의 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4.2. 언어사용

다음으로 언어사용에 대해 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는 대화자에 따른 언어사용이나 텔레비전 시청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거주지에서 대화자(상사, 동료, 조선족 친구(같은 고향 / 다른 고향), 한국인)에 따라 어

[3] 안산시(2018)에 따르면, 2018년 4월말의 조선족 인구(46,804명)가운데, 등록 외국인의 내역은 방문취업(17,623명), 영주(5,484명), 방문동거(2,060명), 결혼이민자(1,265명)이며, 영주자와 결혼이민자의 합계는 전체의 14.4%를 차지하고 있다.

[4] 花井みわ(2011)에 따르면 1980년대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중학교의 외국어교육은 영어가 0%, 일본어가 100%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일본어교육의 비율이 35%까지 내려갔으며 2010년대에는 거의 영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5] 예동근, 윤인진(2008)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 북경시에 거주했던 조선족은 주로 대학생, 국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북경의 호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조선어, 한어, 한국어로 나누어 물은 결과를 [표 5]로 살펴 보자. 먼저 상사에 대한 언어사용을 보면 북경시, 광동성에서는 한어, 경기도에서는 한국어의 사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우세한 언어(변종)과 일치하는 것으로, 대화자의 언어(변종)에 맞춰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동료에 대한 언어사용을 보면 북경시, 광동성에서는 40 대까지는 한어가, 50 대 이상에서는 조선어의 사용률이 높아 세대차이를 보인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상사에 대한 사용률보다는 낮지만 동료에 대한 언어 사용에서도 한국어의 사용률이 높음을 보게 된다.[6]

또한 조선족 친구(같은 고향)에 대한 언어사용을 보면 광동성에서는 조선어의 사용률이 높은 반면, 북경시,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선어의 사용률이 낮고 그 대신에 한어, 한국어의 사용률이 각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라도 한국어가 우세한 환경에서는 자신이 언어형성기에 획득한 변종이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한편 조선족 친구(다른 고향)에 대한 언어사용을 보면, 북경시와 광동성 모두에서 젊은 층에서 한어 사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중국)조선어라도, 예를 들어 길림성(연변) 출신인 화자와 흑룡강성 출신인 화자 사이에서는 그 변종의 차이가 커,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로 이해하기 쉬운 변종인 한어로 시프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7]. 또한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시프트가 일어나기는 하나, 그 때에 선택되는 언어(변종)으로 한어보다 한국어가 우세하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고향이 다른 조선족과의 대화에서는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변종으로서, 해당 지역의 우세언어(변종)가 선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 대한 언어사용을 보면 북경시에서는 한어의 사용률이 높은데 비해 광동성, 경기도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한국어의 사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경시에서는 한어를 이해하는 한국인 주재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광동성이나 경기도에는 한어를 이해하는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지의 조선족이 통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는 대화자에 따른 언어사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으로 재외조선족은 한어는 물론, 조선어와 한국어를 서로 다른 각각의 언어변종으로 인식하고 사용하

[6] 단, 한국어의 사용률이 동료가 조선족인지 한국인인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7] 북경시, 광동성의 50대, 60대에서 한어의 사용률이 낮고, 조선어의 사용률이 높은 것은 이 세대가 젊은 층에 비해 한어 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대에 따른 언어능력 의식에 대해서는 [표 7] 참조.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큰 경향으로는 북경시에서는 대화자를 불문하고 40 대 이하에서는 한어가, 50 대 이상에서는 조선어가 우세한데 비해, 경기도에서는 대화자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에서 한국어가 우세함이 밝혀졌고, 광동성에서는 대략 40 대 이하에서는 한어가 우세하지만 고향이 같은 조선족에게는 조선어를,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를 사용하며 대화자에 따라 사용언어에 차이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한어 텔레비전 방송, 한국어 텔레비전 방송의 하루 중 시청 시간을 '매우 자주 본다', '자주 본다', '가끔 본다', '거의 보지 않는다'로 나눠서 물은 결과인 [표 6][89]을 살펴보자. 표를 보면 한어 텔레비전에 대해 북경시, 광동성에서는 '매우 자주 본다' 또는 '자주 본다'를 선택한 제보자가 많은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특히 20 대, 50 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대에서 '거의 보지 않는다'를 선택한 제보자가 많음을 보게 된다. 또한 한국어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북경시, 광동성에서도 '자주 본다', '가끔 본다'를 선택한 제보자가 비교적 많지만, 경기도에서는 '매우 자주 본다'를 선택한 제보자가 매우 많았다. 즉 거주 지역에서 접하기 쉬운 텔레비전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한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4.3. 언어의식

이어서는 언어의식에 대해 살펴 보자. 구체적으로는 언어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앞으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어, 자녀에 대한 조선어교육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답을 분석한다.

먼저 조선어, 한국어, 한어의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기능영역(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마다 '4:아주 잘한다', '3:잘한다', '2:조금 한다', '1:전혀 못한다'라는 지표로 물은 결과인 [표 7]을 보자. 표를 보면 광동성에서는 조선어와 한어에 있어서는 연령이나 영역을 불문하고 모두 4.0 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자기평가가 높은 반면, 한국어에서는 자기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경시, 경기도에서는 조선어는 연령이 높을수록, 한어는 연령이 낮을수록 각각 자기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 조선어, 한어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 자체는 광동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북경시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자기평가도 광동시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보게 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조선어와 한국어의 자기평가는 대략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항상 조선어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재외조선족의 한국어 능력은 기층이 되는 조선어 능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8] 조사에서는 각 선택지에 다음과 같은 시간을 제시했다(하루 기준).
매우 자주 본다…90분 이상　　자주 본다…60분 이상 89분 미만
가끔 본다…10분 이상 59분 미만　　거의 보지 않는다… 9분 미만

[9] 북경시의 조사표에서 빈칸이었던 4 명(30대, 40대에서 각 2 명)을 제외했다.

이어서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를 [표 8][10]로서 살펴 보기로 하자. 표를 보면 북경시, 광동성에서는 40 대 이하에서는 한어를 선택한 사람이, 50 대 이상에서는 조선어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한어가 더 우세한 화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표 3]에서 보았듯 광동성에는 조선족학교 출신자가 많았는데, 특히 40 대 이하에서 한어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모어 인식은 자신이 받은 학교교육(초등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또는 과거의 언어환경에도 영향을 받는 듯하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북경시나 광동성과 같은 뚜렷한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는 한편, (북경시나 광동성에서와는 달리) 한국어를 모어라고 인식하는 제보자가 일정수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재한 조선족 중에는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장안리(2016)에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언어형성기에 획득한 변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쓰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언어에 대한 적응 능력과 유연성을 다시 증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언어에 대한 의식은 [표 9]와 같다. 표를 보면 북경시에서는 한어를 선택한 제보자가 많았던 한편, 광동성이나 경기도에서는 한국어를 선택한 제보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북경시에서 한어가 많은 것은 ([표 5]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는 다국적, 다민족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공통언어로 한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동성, 경기도에서 한국어가 많은 것은 현재의 자신의 언어사용, 언어능력은 둘째 치고, 앞으로 한국어를 매개로 해서 한국인, 한국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더 밀접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제보자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조선어를 선택한 제보자가 극히 적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한국어를 공부함으로써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 앞으로의 조선어 계승에 있어 하나의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조선어교육에 대해 ‘꼭 가르치고 싶다’, ’될 수 있으면 가르치고 싶다’,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다’, ‘전혀 가르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 라는 5 개 항목(선택식)으로 물은 결과를 [표 10]으로 살펴 보자[11][12]. 표를 보면 ‘꼭 가르치고 싶다’를 선택한 제보자의 비율은 광동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도, 북경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회답의 분산을 보아도 광동성에서는 ‘꼭 가르치고 싶다’ , ’될 수 있으면 가르치고 싶다’를 선택한 제보자만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세대에서 ‘꼭 가르치고 싶다’가 70%를 넘었기 때문에 민족어(변종)의 계승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0] 북경시의 조사표에서 빈칸이었던 4 명(30대에서 2 명, 40대, 60대에서 각 1 명)을 제외했다.
[11] 질문항목의 설정에 있어서는 손영(2013)을 참조했다.
[12] 북경시의 조사표에서 빈칸이었던 4 명(40대에서 2 명, 30대, 50대에서 각 1 명)을 제외했다.

한편 북경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르치고 싶다', 경기도에서는 '꼭 가르치고 싶다'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그 비율이 광동성보다는 압도적으로 낮으며,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다', '전혀 가르치고 싶지 않다', '모르겠다'와 같은 회답을 하는 제보자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 5]에서 보았듯 북경시 거주자에게는 한어,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한국어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더해 [표 3]에서 보았듯 광동성에는 조선족학교 출신자가 많다는 사실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발표에서는 설문지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북경시, 광동성, 한국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환경, 언어사용, 언어의식을 분석하였다. 일련의 분석에서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언어환경 : 거주년수는 광동성, 북경시에서 길고, 거주예정년수는 경기도에서 길다. 출신 학교는 모든 지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조선족학교가 많지만, 그 비율을 따져보면 광동성에서 보다 높고 북경시에서는 낮다. 직업은 북경시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업종들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광동성에서는 무역업, 경기도에서는 공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2) 언어사용 : 북경시에서는 40 대 이하에서 한어가, 50 대 이상에서 조선어가 우세한데 비해 경기도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한국어가 우세하다. 또한 광동성에서는 대략 40 대 이하에서는 한어가 우세하지만 대화자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에 차이를 보인다. 텔레비전 시청은 거주지 언어의 시청이 많다.

(3) 언어의식 : 언어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는 광동성에서는 조선어와 한어에서 높으며, 한국어에서 낮다. 또한 북경시, 경기도에서는 조선어, 한어에 대한 자기평가가 광동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북경시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자기평가도 낮다.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는 북경시, 광동성에서는 40 대 이하에서 한어, 50 대 이상에서 조선어를 선택한 사람이 많고 경기도에서는 한국어를 선택한 사람도 존재한다. 앞으로 중요한 언어는 북경시에서는 한어, 광동성이나 경기도에서는 한국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자녀에 대한 조선어 교육의 의욕은 광동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도, 북경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의 분석에서 재외조선족의 언어사용, 언어의식은 텔레비전 시청이나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의식처럼 북경시, 광동성(중국국내)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항목이 있는 한편, 언어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나 자녀에 대한 조선어교육의 의식처럼 북경시,

경기도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항목, 앞으로 중요한 언어에 대한 의식처럼 광동성, 경기도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항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발표는 지금까지 많이 조사되지 않았던 재외조선족의 언어사용, 언어의식에 대해 해명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발표의 분석이 설문지조사의 데이터 분석(현상 파악)에 그쳤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배경이나 요인,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이나 지역 사회와의 관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보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추후 보다 상세한 분석을 계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金成子(2010)「中国都市部における民族教育に関する一考察－北京に住む朝鮮族を事例として」『アジア社会文化研究』11

趙貴花(2016)「第２章　北京の「韓国城」(コリアンタウン)──改革開放が生み出した新しい都市コミュニティ」『移動する人びとの教育と言語－中国朝鮮族に関するエスノグラフティー』

南玉瓊(2016)「朝鮮族の深圳市への移動とエスニック・コミュニティの形成」『立命館国際研究』29-1

花井みわ(2011)「中国朝鮮族の人口移動と教育－1990 年以後の延辺朝鮮族自治州を中心として－」『早稲田社会科学総合研究』11-3

文銀実(2017)「中国朝鮮族の経済発展にともなう国内外への移動と民族社会の再形成── 黒龍江省綏化地区の散居型朝鮮族を研究対象として──」나고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국화(2007)「북경조선족언어공동체의 언어사용상황에 대한 약간한 고찰－사업단위로 중심으로」『중국조선어문』2007:2

박경래 외(2012)『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在中同胞言語実態調査)국립국어원

손영(2013)『中國 丹東 居住 朝鮮族의 言語에 대한 社會言語學的 硏究』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산시(2018)「2018 년 4 월말 외국인주민 인구 현황」

예동근, 윤인진(2008)「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북경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공동체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회 2008 후기 사회학대회』

예동근(2009)「공생을 만드는 주체로서의 조선족 : '제 3 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논의 : 재한조선족의 현실과 전망」『在外韓人硏究』19

장안리(2016)「Cultural identity, social capital and immigrant enclave : Meaning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Chinese (Joseonjok) Diaspora in Korea」『한국문화연구』31

申慧淑(2013)『城市朝鲜族语言适应研究 ： 以北京市朝鲜族流动人口为例』民族出版社 中央民族大学"985 工程"三期重点学科语言学及应用语言学建设项目北京市共建项目专项资助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 国家统计局人口和社会科技统计司(2012)『中国 2010 年人口普查资料』中国统计出版社

[표 1]조사의 개요

			북경시		광동성		경기도	
조사협력기관			북경 조선족기업가협회		광동성 조선민족연합회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조사시기			2018년 4～5월		2017년 6～7월		2016년 8～9월	
조사 인원수			77명		75명		83명	
제보자의 속성	20대	남성 여성	2명 10명	12명	3명 6명	9명	2명 6명	8명
	30대	남성 여성	9명 26명	35명	7명 9명	16명	6명 19명	25명
	40대	남성 여성	8명 13명	21명	6명 16명	22명	13명 17명	30명
	50대	남성 여성	5명 2명	7명	5명 10명	15명	6명 9명	15명
	60대	男性 女性	1명 1명	2명	4명 9명	13명	5명 0명	5명

[표 2]평균 거주년수, 평균 거주예정년수

	북경시		광동성		경기도	
	거주년수	거주예정년수	거주년수	거주예정년수	거주년수	거주예정년수
20대	3.8년	14.7년	2.4년	21.7년	3.8년	18.7년
30대	8.2년	25.4년	9.6년	20.6년	6.8년	34.6년
40대	14.6년	16.1년	15.3년	16.9년	9.9년	30.2년
50대	18.4년	9.7년	16.7년	14.0년	7.1년	21.7년
60대	26.5년	-	23.8년	8.1년	12.7년	2.00년
전체	10.7년	9.7년	14.3년	16.1년	7.9년	28.9년

[표 3]다녔던 소학교, 중학교

	북경시				광동성				경기도			
	소학교		중학교		소학교		중학교		소학교		중학교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20대		12(100%)		12(100%)	6(66.7%)	3(33.3%)	4(44.4%)	5(55.6%)	4(50.0%)	4(50.0%)	3(37.5%)	5(62.5%)
30대	17(48.6%)	18(51.4%)	17(48.6%)	18(51.4%)	13(81.3%)	3(18.8%)	12(75.0%)	4(25.0%)	16(64.0%)	9(36.0%)	18(72.0%)	7(28.0%)
40대	15(71.4%)	6(28.6%)	12(57.1%)	9(42.9%)	21(95.5%)	1(4.5%)	19(86.4%)	3(13.6%)	16(53.3%)	14(46.7%)	17(56.7%)	13(43.3%)
50대	7(100%)		6(85.7%)	1(14.3%)	14(93.3%)	1(6.7%)	14(93.3%)	1(6.7%)	12(80.0%)	3(20.0%)	11(73.3%)	4(26.7%)
60대	2(100%)		2(100%)		13(100%)		13(100%)		5(100%)		5(100%)	
전체	41(53.2%)	36 (46.8%)	37(48.1%)	40(51.9%)	67(89.3%)	8(10.7%)	62(82.7%)	13(17.3%)	53(63.9%)	30(36.1%)	54(65.1%)	29(34.9%)

[표 4]직업

		경비	관광	교육	농어업	공사 건설	무역	음식점	공업 제조	판매	기타
북경시	20대		3 (25.0%)		1 (8.3%)			1 (8.3%)			7 (58.3%)
	30대		3 (8.6%)	1 (2.9%)		1 (2.9%)	9 (25.7%)	2 (5.7%)	1 (2.9%)	1 (2.9%)	17(48.6%)
	40대		3 (14.3%)	1 (4.8%)				7 (33.3%)	2 (9.5%)		8 (38.1%)
	50대					1 (14.3%)	2 (28.6%)		1 (14.3%)		3 (42.9%)
	60대							2 (100%)			
	전체		9 (11.7%)	2 (2.6%)	1 (1.3%)	2 (2.6%)	11 (14.3%)	12 (15.6%)	4 (5.2%)	1 (1.3%)	35 (45.5%)
광동성	20대			1 (11.1%)		1 (11.1%)	4 (44.4%)			3 (33.3%)	
	30대		1 (6.3%)	2 (12.5%)			8 (50.0%)		1 (6.3%)	4 (25.0%)	
	40대		1 (4.5%)	1 (4.5%)			11 (50.0%)	2 (9.1%)	1 (4.5%)	5 (22.7%)	1 (4.5%)
	50대	6 (40.0%)				1 (6.7%)	4 (26.7%)			3 (20.0%)	1 (6.7%)
	60대	6 (46.2%)							6 (46.2%)	1 (7.7%)	
	전체	12 (16.0%)	2 (2.7%)	4 (5.3%)		2 (2.7%)	27 (36.0%)	2 (2.7%)	8 (10.7%)	16 (21.3%)	2 (2.7%)
경기도	20대		1 (12.5%)	2 (25.0%)				1 (12.5%)	3 (37.5%)	1 (12.5%)	
	30대		2 (8.0%)	4 (16.0%)		1 (4.0%)		4 (16.0%)	8 (32.0%)		6 (24.0%)
	40대			4 (13.3%)		6 (20.0%)		2 (6.7%)	15 (50.0%)		3 (10.0%)
	50대				1 (6.7%)	3 (20.0%)		5 (33.3%)	6 (40.0%)		
	60대					2 (40.0%)			2 (40.0%)		1 (20.0%)
	전체		3 (3.6%)	10 (12.0%)	1 (1.2%)	11 (13.3%)		12 (14.5%)	34 (41.0%)	1 (1.2%)	10 (12.0%)

[표 5]대화자에 따른 언어사용(비율)

		상사			동료			조선족 친구 (같은 고향)			조선족 친구 (다른 고향)			한국인		
		朝	漢	韓	朝	漢	韓	朝	漢	韓	朝	漢	韓	朝	漢	韓
북경시	20대	4.6	94.6	0.8	1.7	98.3	0.0	0.8	99.2	0.0	0.8	99.2	0.0	1.7	91.6	6.7
	30대	18.7	76.8	4.5	13.9	83.7	2.4	29.7	67.2	3.1	25.9	70.7	3.4	24.5	47.9	27.6
	40대	20.0	70.9	9.1	32.7	60.2	7.1	43.2	53.6	3.2	43.5	53.0	3.5	31.2	30.0	38.8
	50대	58.0	30.0	12.0	55.0	26.7	18.3	86.2	7.0	6.8	83.0	9.0	8.0	70.0	1.7	28.3
	60대	33.3	33.3	33.3	67.0	33.0	0.0	67.0	33.0	0.0	67.0	33.0	0.0	—	—	—
	전체	26.9	61.1	11.9	34.1	60.4	5.6	45.4	52.0	2.6	44.0	53.0	3.0	31.9	42.8	25.4
광동성	20대	13.3	68.9	17.8	26.7	67.8	5.6	60.0	34.4	5.6	31.1	62.2	6.7	36.7	3.3	60.0
	30대	23.3	58.7	18.0	38.8	55.6	5.6	57.5	40.6	1.9	33.8	59.4	6.9	37.5	5.0	57.5
	40대	25.2	65.2	9.5	44.8	51.0	4.3	61.0	33.8	5.2	32.9	63.3	3.8	24.8	1.9	73.3
	50대	40.0	50.0	10.0	47.3	43.3	9.3	65.3	32.7	2.0	41.3	54.0	4.7	29.3	0.0	70.7
	60대	47.5	51.7	0.8	67.7	30.0	2.3	75.4	23.1	1.5	58.5	39.2	2.3	37.7	0.0	62.3
	전체	29.9	58.9	11.2	45.0	49.5	5.4	63.8	32.9	3.2	39.5	55.6	4.9	33.2	2.0	64.8
경기도	20대	20.0	8.8	71.3	26.3	25.6	48.1	35.0	46.7	18.3	30.0	53.0	17.0	21.4	0.0	78.6
	30대	10.6	10.6	78.8	9.5	16.2	74.3	39.4	22.9	37.7	25.6	30.3	44.2	14.2	0.0	85.8
	40대	9.6	3.6	86.8	10.4	14.4	75.2	20.5	30.0	49.5	16.5	32.0	51.5	12.3	0.0	87.7
	50대	23.1	0.2	76.7	17.6	13.6	68.9	24.2	15.8	60.0	31.1	17.4	51.4	11.6	0.0	88.4
	60대	33.8	8.8	57.5	45.0	11.7	43.3	45.0	11.7	43.3	45.0	11.7	43.3	83.3	0.0	16.7
	전체	14.5	6.1	79.4	14.8	16.1	69.1	30.1	26.2	43.7	24.4	30.3	45.3	16.9	0.0	83.1

[표 6]언어별 텔레비전 방송 시청 시간

		한어 TV				한국어 TV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거의	매우 자주	자주	가끔	거의
북경시	20대	2 (16.7%)	6 (50.0%)	3 (25.0%)	1 (8.3%)			6 (50.0%)	6 (50.0%)
	30대	4 (12.1%)	13 (39.4%)	13 (39.4%)	3 (9.1%)		11 (33.3%)	11 (33.3%)	11 (33.3%)
	40대	5 (26.3%)	7 (36.8%)	6 (31.6%)	1 (5.3%)	1 (5.3%)	8 (42.1%)	7 (36.8%)	3 (15.8%)
	50대	1 (14.3%)	3 (42.9%)	3 (42.9%)		1 (14.3%)	5 (71.4%)	1 (14.3%)	
	60대		2 (100%)				2 (100%)		
	전체	12 (16.4%)	31 (42.5%)	25 (34.2%)	5 (6.8%)	2 (2.7%)	26 (35.6%)	25 (34.2%)	20 (27.4%)
광동성	20대	6 (66.7%)	3 (33.3%)				3 (33.3%)	5 (55.6%)	1 (11.1%)
	30대	14 (87.5%)	2 (12.5%)				3 (18.8%)	8 (50.0%)	5 (31.3%)
	40대	16 (72.7%)	5 (22.7%)	1 (4.5%)			10 (45.5%)	9 (40.9%)	3 (13.6%)
	50대	5 (33.3%)	7 (46.7%)	3 (20.0%)		3 (20.0%)	8 (53.3%)	3 (20.0%)	1 (6.7%)
	60대	8 (61.5%)	3 (23.1%)	2 (15.4%)		2 (15.4%)	6 (46.2%)	5 (38.5%)	
	전체	49 (65.3%)	20 (26.7%)	6 (8.0%)		5 (6.7%)	30 (40.0%)	30 (40.0%)	10 (13.3%)
경기도	20대	1 (12.5%)	1 (12.5%)	1 (12.5%)	5 (62.5%)	6 (75.0%)	2 (25.0%)		
	30대	7 (28.0%)	2 (8.0%)	4 (16.0%)	12 (48.0%)	19 (76.0%)	5 (20.0%)	1 (4.0%)	
	40대	1 (3.3%)	3 (10.0%)	12 (40.0%)	14 (46.7%)	28 (93.3%)	2 (6.7%)		
	50대		3 (20.0%)	3 (20.0%)	9 (60.0%)	11 (73.3%)	2 (13.3%)		2 (13.3%)
	60대			5 (100%)		3 (60.0%)	2 (40.0%)		
	전체	9 (10.8%)	9 (10.8%)	25 (30.1%)	40 (48.2%)	67 (80.7%)	13 (15.7%)	1 (1.2%)	2 (2.4%)

[표 7]영역별 언어능력의 자기평가(4 단계의 평균치)

		朝鮮語				漢語				韓国語			
		話す	書く	聞く	読む	話す	書く	聞く	読む	話す	書く	聞く	読む
북경시	20대	1.2	1.1	1.2	1.1	3.6	3.6	3.6	3.6	1.1	1.1	1.1	1.1
	30대	2.3	2.3	2.3	2.3	2.9	2.9	2.9	2.9	2.0	1.9	2.0	2.0
	40대	2.4	2.3	2.4	2.3	2.7	2.7	2.7	2.7	2.0	2.0	2.1	2.0
	50대	3.1	2.6	3.1	3.1	2.6	2.6	2.6	2.6	2.4	2.1	2.4	2.4
	60대	3.5	3.5	3.5	3.5	3.0	3.0	3.0	3.0	3.5	3.5	3.5	3.5
	전체	2.5	2.3	2.5	2.5	3.0	2.9	3.0	2.9	2.2	2.1	2.2	2.2
광동성	20대	3.9	3.9	3.9	3.9	4.0	4.0	4.0	4.0	2.9	2.9	2.9	2.9
	30대	3.6	3.6	3.6	3.6	3.8	3.8	4.0	4.0	2.8	2.8	2.8	2.8
	40대	4.0	4.0	4.0	4.0	4.0	4.0	4.0	4.0	3.0	3.0	3.0	3.0
	50대	3.9	3.9	3.9	3.9	3.8	3.8	3.8	3.8	2.9	2.9	2.9	2.9
	60대	4.0	4.0	4.0	4.0	3.5	3.5	3.5	3.5	2.8	2.7	2.7	2.7
	전체	3.9	3.9	3.9	3.9	3.8	3.8	3.9	3.9	2.9	2.9	2.9	2.9
경기도	20대	2.6	2.6	2.8	2.8	3.3	3.3	3.3	3.3	2.5	2.9	2.6	2.8
	30대	3.0	3.1	3.1	3.1	3.1	3.0	3.2	3.1	3.0	3.0	3.0	3.0
	40대	3.4	3.2	3.4	3.5	3.3	3.1	3.3	3.3	3.3	3.3	3.3	3.3
	50대	3.1	3.0	3.1	3.5	2.8	2.5	2.7	2.7	3.1	2.9	3.1	3.1
	60대	3.3	3.5	3.5	3.5	2.7	3.0	3.0	3.0	3.0	3.0	3.0	3.0
	전체	3.1	3.1	3.2	3.3	3.0	3.0	3.1	3.1	3.0	3.0	3.0	3.0

[표 8]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북경시			광동성			경기도		
	조선어	한어	한국어	조선어	한어	한국어	조선어	한어	한국어
20대	2 (16.7%)	10 (83.3%)		1 (11.1%)	8 (88.9%)		4 (50.0%)	4 (50.0%)	
30대	16 (48.5%)	17 (51.5%)		4 (25.0%)	12 (75.0%)		7 (28.0%)	9 (36.0%)	9 (36.0%)
40대	10 (50.0%)	10 (50.0%)		8 (36.4%)	14 (63.6%)		9 (30.0%)	8 (26.7%)	13 (43.3%)
50대	6 (85.7%)	1 (14.3%)		14 (93.3%)	1 (6.7%)		9 (60.0%)	2 (13.3%)	4 (26.7%)
60대	1 (100%)			12 (92.3%)	1 (7.7%)		1 (20.0%)		4 (80.0%)
전체	35 (47.9%)	38 (52.1%)		39 (52.0%)	36 (48.0%)		30 (36.1%)	23 (27.7%)	30 (36.1%)

[표 9]앞으로 중요한 언어

	북경시				광동성				경기도			
	조선어	한어	한국어	없음	조선어	한어	한국어	없음	조선어	한어	한국어	없음
20대		11(91.7%)	1(8.3%)		1(11.1%)	2(22.2%)	6(66.7%)		1(12.5%)	1(12.5%)	6(75.0%)	
30대		31(88.6%)		4(11.4%)		3(18.8%)	13(81.3%)		1(4.0%)	4(16.0%)	18(72.0%)	2(8.0%)
40대	1(4.8%)	20(95.2%)				4(18.2%)	17(77.3%)	1(4.5%)		3(10.0%)	23(76.7%)	4(13.3%)
50대		7(100%)				5(33.3%)	10(66.7%)		1(6.7%)		10(66.7%)	4(26.7%)
60대	1(50.0%)	1(50.0%)				2(15.4%)	9(69.2%)	2(15.4%)		1(20.0%)	3(60.0%)	1(20.0%)
전체	2(2.6%)	70(90.9%)	1(1.3%)	4(5.2%)	1 (1.3%)	16(21.3%)	55(73.3%)	3(4.0%)	3(3.6%)	9(10.8%)	60(72.3%)	11(13.3%)

[표 10]자녀에 대한 조선어교육

		꼭	될 수 있으면	별로	전혀	모르겠다
북경시	20대	2 (16.7%)	7 (58.3%)	2 (16.7%)	1 (8.3%)	
	30대	13 (38.2%)	13 (38.2%)	5 (14.7%)	3 (8.8%)	
	40대	4 (21.1%)	10 (52.6%)	5 (26.3%)		
	50대	1 (16.7%)	4 (66.6%)		1 (16.7%)	
	60대		1 (50.0%)	1 (50.0%)		
	전체	20 (27.4%)	35 (47.9%)	13 (17.8%)	5 (6.8%)	
광동성	20대	7 (77.8%)	2 (22.2%)			
	30대	12 (75.0%)	4 (25.0%)			
	40대	19 (86.4%)	3 (13.6%)			
	50대	13 (86.7%)	2 (13.3%)			
	60대	12 (92.3%)	1 (7.7%)			
	전체	63 (84.0%)	12 (16.0%)			
경기도	20대		2 (25.0%)	3 (37.5%)	1 (12.5%)	2 (25.0%)
	30대	12 (48.0%)	6 (24.0%)	1 (4.0%)	4 (16.0%)	2 (8.0%)
	40대	9 (30.0%)	9 (30.0%)	3 (10.0%)	3 (10.0%)	6 (20.0%)
	50대	4 (26.7%)	7 (46.7%)	3 (20.0%)		1 (6.7%)
	60대	3 (60.0%)	1 (20.0%)			1 (20.0%)
	전체	28 (33.7%)	25 (30.1%)	10 (12.0%)	8 (9.6%)	12 (14.5%)

일본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합부

ttakagi@sfc.keio.ac.jp

단일 동화(单一同化)에서 유한 다원（有限多元）으로
- 한국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의 발전

고륙양

(상해외국어대학교 동방언어대학 조선어학과)

[요약] "메리지 스퀴지(Marriage Squeeze:결혼 적령 인구 성비의 불균형)"과 "지역 경제 발전의 불균형"의 영향으로 결혼 이민자들이 중국에 진입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가 안겨준 문제에 대비,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이주자 수용 및 관리 정책 외에도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과학적인 언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관련 법률, 계획 등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 가치관이 단일 동화에서 유한 다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동화 주의(assimilation)"와 " 다원 주의 (multiculturalism)"의 변증법적인 대립 통일 관계를 반영한다.동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다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 두 가지 이념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키워드] 한국,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 동화 주의, 다원 주의

들어가며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공장” 및 “신흥 경제체”로 부상되는 중국은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접수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메리지 스퀴지(Marriage Squeeze: 결혼 적령 인구 성비의 불균형)등 인구 요인과 “지역적 경제발전 불균형”등 경제 요인으로 국제 결혼 이민, 특히 동남아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중국에 진입하여 중국의 사회 생활에 참여하고 있다.전통적인 이민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은 국제 이주자의 접수, 관리 등에 관한 관념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관련 발전 계획 및 관리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중국에 진입한 동남아 여성 결혼 이민자는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 저하, 기술 능력 저하, 수입 수준 저하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의 취득에 지장을 끼치어 불법 입국, 불법 연기, 불법 체류 등 현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빈곤을 가중시키고, 혼인 안정성을 동요시키며, 위생 안전을 위협시키고, 외국 문화를 유입시키면, 여성 및 아동 권리를 손상시키는 비전통적인 안전(Non-traditional security,NTS)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중시키

는 요인 중의 하나는 결혼 이민자의 교육수준, 특히 언어 능력의 저하로 들 수 있다. 결호 이민자로 인한 안전 문제를 대비,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이주자의 접수, 관리 등 국경 관리 측면의 정책을 제정, 보완하는 과제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언어 통역/번역,언어 치료, 그리고 언어 자원 이용 등과 같은 언어 정책 과제가 또한 향후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혼 이민자의 국적 특징, 이주 지역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달 수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순 유형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 유사하며 상호 참조 가치가 있다. 21 세기 초반부터 한국은 대규모 결혼 이민자의 "물결"을 맞이하여 중국보다 일찍부터 결혼 이민자로 인한 지역 경제, 결혼 및 가족, 사회 치안, 문화 갈등 등 문제를 겪어 왔다. 한국은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의 언어 교육, 언어 번역/통역, 언어 치료, 그리고 통합된 사회의 조성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정을 받았다.

정책 가치관은 공공 정책의 핵심이며, 정책 성공 여부의 관건 요소이다. 따라서 정책 가치관과 공공 정책 및 윤리적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정책 연구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1] 본고는 한국의 관련 법률 및 정부 계획을 검토하여 한국의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의 가치관을 관찰하고 그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중국의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의 건설과 개선에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는 문헌 분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며, 분석 대상으로서는 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2010-2012),<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2013-2018) 등이 있다.

1. "동화 주의"정책 기조의 수립: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국제 이주자 수가 크게 늘었다. 한국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 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이주자 수량은 2002 년 이후로부터 매년 28%의 속도로 증가했다.[2] <국적법>과 같은 기존의 국경 관리법은 국제 이주자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정부의 국제 이주자 권리 및 이익 보호를 규정하는 서비스 지향적 법률은 결여되어 있었다. 2006 년에 유엔 난민 특별 보고관인 호르헤 부스따만떼(Jorge Bustamante)는 국제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고용, 신분, 결혼 등 삼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의 결혼 문제는 주로 결혼 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에 해당된다. 호르헤 부스따만떼(Jorge Bustamante)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언어 문제를 겪고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며 심지어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1] 陈路芳. 政策价值观浅论[J].经济与社会发展(第一卷第12期). 2003. 第63页。
[2] 전경근.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J]. 저스티스 146(2). 2015. P295.

야 한다고 건의하였다.[3]이에 한국 정부는 2007 년 국제 이주자의 기본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초의 전문법--<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칭함)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 이주자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서비스 지향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중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및 기타 관련 법률,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지침을 제공하는 법이 되었다.

기본법 제 10 조는 국제 이주자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서비스 지향적 의무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한국 정부가 재한 외국인 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총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 11-17 조에는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영주권자, 난민, 귀화인 및 외국 전문 인력과 같은 특정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서비스 지향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중의 제 12 조는 전문적으로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조항으로서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제도 문화 교육,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의 제 18 조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국민과 국제 이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 1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이주자의 인권 보호, 자기 개발을 위한 국제 이주자의 능력 증대, 한국 사회의 적응력 강화, 국제 이주자와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 사회적 안정 유지 등은 기본법의 기본 목표이다.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법은 주로 언어와 문화 등 분야의 교육 지원 조치를 규범화함으로써 국제 이주자의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과 발전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킨다. 특히 결혼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와 문화 차원의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되어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의 발전을 실현하도록 도와 주는 한국 정부의 의무가 강조된다.

국제 이주자 정책 영역의 서비스 지향적 기본법으로서 상술 내용은 국제 이주자 문제에 대한 높은 중요시를 반영하고 있다.특히 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강조는 국제 이주자로 하여금 한국어를 파악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보인다.

상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본법의 정책 가치관은 "다원 주의"가 아닌 "동화 주의"임을 알 수 있다. "동화 주의 (Assimilationism)"는 강세 민족 또는 집단이 강제적 또는 자연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약세 민족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원 주의(다문화 주의,Multi-Culturalism)"는 왓슨(Watson)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

[3] 联合国新闻(网络版). 人权专家：移民在韩国面临三大问题[N]. http://www.un.org/chinese/News/story.asp?NewsID=6936

양한 문화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문화 가치관이다. 다원 주의에 의해 이뤄진 공공 정책의 목적은 문화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차별 대우를 소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각 문화 간의 평등을 달성하고 촉진하는 데에 있다.[4] 다원 주의의 언어 정책은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화 간의 완전한 평등을 강조하고,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모든 민족에게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하고 철저한 다양성을 강조한다.

기본법은 국제 이주자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학습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국민의 국제 이주자에 대한 수용도를 향상시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국제 이주자들이 모국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이민자 모국어 교육에 관한 의무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반면에 적극적으로 국제 이주자, 특히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습득을 진원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형적인 동화 주의 언어 정책에 해당된다. 그의 궁극적 목적은 국제 이주자로 하여금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한민족과의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국가 안정을 공고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동화 주의 정책 가치관의 형성 요인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 및 경제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전형적인 단일 민족 국가, 단일 언어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 식민 통치, 심지어 국가 멸망의 위기를 겪었지만 언어와 문화의 단일성, 그리고 민족 혈통의 상대적 단일성을 유지해 왔다. 한국 국민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민족 정체성, 민족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 시대의 민족 문화 전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협애한 민족 주의를 낳고 외래문화, 특히 소위 "미개발 국가"에 대한 멸시와 혐오 등 정서를 자아내고, 한국 사회의 다원 문화에 대한 수용도에 악영향을 끼친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국제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자민족 문화 중심"의 특징을 보이면서 "나라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외국인을 한국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협애한 민족 주의를 옹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5]

사회 문화 차원에 있어서는 유교가 여전히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측에서 중요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 어촌 등 지역에서는 낙후한 경제 형태가 유교 사상에 대한 고수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가, 기업주들도 유교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을 가족으로 운영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부장식의 관리를 행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 사상은 한국 사회의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에중요한 영향을 두루 미친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 배경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도 유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국제 이주자에 관한 법에서 보이는 부계 중심(父系中心)인 "혈통 주의"는 이러한 경향의 전형적인 예이다. 한국의 <국적법>과 <체류자격법>은

[4] (美) CW.沃特森 (著),叶兴艺 (译) . 多云文化主义[M]. 长春:吉林人民出版社. 2005. 第20页。
[5] 서덕희. 문화의 차원에 비추어 본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의 특수성[J]. 아세아연구 56(1), 2013.P7-40.

“속지 원칙(属地原则)”이 아닌 “속인 원칙 (属人原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부계 혈통 주의”특징이 뚜렷한 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의 특징은 남성으로 구성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한, 관리, 배제의 정책을 채택하는 반면에 여성이 주도하는 결혼 이민자에게는 보호, 지원, 수락의 정책을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이 형성되는 원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 이민자의 자녀가 부계 혈통 중심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민족”이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논리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결혼 이민자도 "한국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또한 동화 주의 정책 가치관의 체현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민족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경제 성장 부담을 안고 있다.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애로 사항때문에 다원 주의 정책의 채택도 저항력을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다원 주의가 문화의 다양성과 동등성을 인증, 보장하는 정책 가치관으로서 문화 간의 차이성과 민족 간의 이질성을 돋보이고 통일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통일 국가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6] 뿐만 아니라 다원 주의의 국제 이주자 정책은 모든 인종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에 더 많은 투입을 요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한국 정부가 다문화 주의 정책 가치관을 채택하는 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본법은 반포된 후에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정책 가치관인 "동화 주의"는 변화가 없었다. 기본법의 지도 하에서 전문적으로 결혼 이민자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008 년에 반포, 실시되었다. 지원법은 7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한국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의 가치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단일 동화”에서 “유한 다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08 년에 반포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하 “지원법”으로 칭함)은 정부의 다문화 가족[7] 정책을 표준화하고 촉진하는 전문법으로서 그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결혼 이민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 해당됨)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16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는 지원법에는 결혼 이민자의 언어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계성이 있는 조항은 5 개에 달하고 한국 정부가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6] 刘向东. 文化多元语境下的国家认同建构[D].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2015. 第2页

[7]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에 해당 된다.

표(1):2008 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결혼 이민자 언어 생활에 관한 조항

조항	내용
제 5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 2,3 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제 2,3 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5 조부터 제 10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법의 제 4 조에 의하면 한국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법의 제 12 조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주된 실무 기구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한다. 그 중의 (2)와 (6) 항은 역시 결혼 이민자의 언어 생활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08 반포 당시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결혼 이민자 언어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다 언어 번역 서비스를 강화하함으로써 결혼 이민자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 집행 효과를 향상시킨다.

(2) 한국어 교육를 강화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어 그들의 한국 사회 생존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와 같은 정책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08 년의 지원법의 정책 가치관은 기본법의 "동화 주의"정책 이념을 이어 받아 결혼 이민자의 자녀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들을 한민족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8 년에 반포된 후에 지원법은 7 차례의 개정을 거치었다. 그중에 결혼 이민자 언어 생활에 관련된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2) : <다문화 가족 지원법> 결혼 이민자를 위한 언어 정책 개정 내용

개정 시간	개정 조항	개정내용	비고
2011	제 6 조, (제 1 항)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만이 지원된다.
2013	제 10 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결혼 이민자	개정 전: 관련 내용

	(제 3 항)	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 없다.

개정 후의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 언어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조정 사항이 있다.(1).결혼 이민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 성원으로, 즉 결혼 이민자 및 그의 배우자로 확장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정책 조정은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통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동화 주의 정책 범주에 속한다.(2).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지원법의 이와 같은 발전은 한국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이 "단일 동화"에서 "유한 다원"으로 전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한국 정부에서 사회 통합,민족 통합, 국가 안정과 문화 다양성 보호 간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3. 정책 실천의 전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지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한국 여성 가족부는 5년마다 거시적인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제가 포함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칭함)을 개발해야 한다.기본 계획의 수립은 여성 가족부의 주도로 진행되지만 여성 가족부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정부 기관은 기본 계획 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다른 정부 기관은 기본 계획에서 명시된 거시적인 정책 목표 및 구체적인 정책 과제의 전개에 동참하는 의무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 1 차 기본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11 개의 중앙 행정 기관이 참여하였고, 제 2 차 기본 계획의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수는 13 개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본 계획은 국가 및 지방 정부 관련 부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지도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 가족부는 두 차례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제 1 차례는 2010-2012 년, 제 2 차례는 2013-2018)을 수립하였다. 다음으로는 표(3)의 대조 내용을 통하여 두 차례 기본 계획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3 : 두 차례 기본 계획의 정책 목표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비교

	제 1 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제 2 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3-2018)

정책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총체적 정책 목표	1.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1.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2.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政策課題 구체적 정책 과제	1.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2. 국제결혼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3.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

			경 조성
		6. 정책추진체계 정비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기본 계획 정책 목표의 변화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 설계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제 1 차 기본 계획이 실시되는 기간에 한국 정부는 다문화 가족을 한국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다문화 가족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삼았다. 제 2 차 기본 계획은 다문화 가족을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언어 능력을 비롯한 자신 발전 능력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제 1 차 기본계힉의 정책 목표를 “통합”으로 축약한다면 제 2 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는 "통합"과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 과제 측면에는 두 차례의 기본계획은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는 언어 정책의 연속성은 주로 초등학교 예과과정의 개설, 결혼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 강화 훈련 등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에서 확인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제 2 차 기본 계획은 큰 발전도 이뤄져 있다. 그의 첫번째 정책 과제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으로 설정되어 있고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기본 계획은 지원법의 틀 안에서 한국 여성 가족부의 주도로 제정된 정부 사업 계획안으로서 한국 정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서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변화 양상은 지원법과 일치하여 결혼 이민자 정책 과제에서의 일관성과 발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지원법과 기본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혼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는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동화 주의의 정책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동시에 한국 정부는 결혼 이민자 출신 국가의 언어, 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언어 문화 교육을 통해 다원적인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결혼 이민자 출신 국가의 언어 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정 내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전제를 하고 있어 보충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의 핵심 취지는 결혼 이민자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해당 언어의 언어적 지위를 한국어와 동등

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내부의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정 생활의 조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그외에도 모국어 교육의 시행은 한국어 교육 정책의 동화주의적 의도를 어느 정도 감추고 한국어 교육이 가져오는 문화적 저항을 줄이며 간접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효고도 기대되기 때문이다.[8]

맺음말

상술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국 결혼 이민자 언어 정책의 발전 궤적은 "단일 동화"에서 "유한 다원"으로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유한 다원"이란 결혼 이민자로 하여금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한민족과 통합되게 하고 사회 통합과 국가 안정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제한된 문화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다.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동화 주의와 다원 주의의 변증법적인 통일성을 반영하고 있다.

동화 주의 정책가치관의 목적은 민족 집단 간의 차이를 없애는 데 있으며, 다원 주의의 목표는 민족 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치관은 대립적이면서도 변증법적인 통일 가능성이 존재한다.[9] 민족 동화는 차이를 없애지만 역효과도 일으킨다. 즉 동화는 오히려 다원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강세 민족은 강제 수단으로 약세 민족에게 동화를 강요하면 약세 민족의 반항을 일으키어 약세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특성을 유지하게 추진한다. 비 강제적 조치가 아닌 경우에도 약세 민족은 자신의 문화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원주의는 차이점을 보존하지만 통합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다원 주의가 주장하는 다양성은 주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체 발전을 이룰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다원주의는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헌이 되고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므로 대립된 동화주의와 다원주의는 서로 보완하는 정책 가치관이 될 수 있다. 다원주의의 전제는 차이를 유지하고 문화의 다양서을 인정하는 가치관으로서 포용성이 있고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동화주의는 사회 통합, 국가 통일을 보장하는 가치관으로서 역시 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동화나 다원이나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되고 정책 실천 과정에서 양자의 대립하면서도 통일된 관계를 인식하고 양자 간의 평횡점을 찾아내어 양자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안정을 보장 할 수 있다.

[8] 김현진,이은주.다문화시대,언어정책의 현주소-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J].인문과학연구 39.2012.P166
[9] 吴玉凤, 杨宗亮. 论民族同化与多元文化主义[J]. 名作欣赏:文学研究旬刊(2014 (6)). 2014. 第154页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1]陈路芳.政策价值观浅论[J].经济与社会发展(第一卷第 12 期).2003

[2]联合国新闻(网络版). 人权专家：移民在韩国面临三大问题[N].http://www.un.org/chinese/News/story.asp?NewsID=6936

[3]刘向东.文化多元语境下的国家认同建构[D].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2015

[4]吴玉凤, 杨宗亮.论民族同化与多元文化主义[J].名作欣赏:文学研究旬刊(2014 (6)).2014

[5] CW.沃特森（著）,叶兴艺（译）.多云文化主义[M].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5

[6] 김현진,이은주.다문화시대,언어정책의 현주소-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J].인문과학연구 39.2012.161-193

[7] 전경근.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J]. 저스티스 146(2). 2015. 293-314

[8] 서덕희. 문화의 차원에 비추어 본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의 특수성[J]. 아세아연구 56(1), 2013. 7-40

법률 및 정부 문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EB】. 2013.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

다문화 가족 지원법【EB】.2017.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undefined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2010-2012) 、 (2012-2017)【EB】.2016.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From Single Assimilation to Limited Pluralism

-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icy for Marriage Immigrants

Gaoluyang

Abstract: In the role of "marriage squeeze"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mbalance," a large number of married women immigrants into China. In addition to formulating and improving policies and laws on the admission and managemen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plan and policy of language for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the laws, government plans and other literature sort, this paper observes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icy of marriage immig

rants. The study find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immigrants' language policy is changed from "single assimilation to limited pluralism". This change reflects the dialectical unity of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This paper holds that we should not over emphasize assimilation, nor overemphasize pluralism. In social practice, we should use both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to balance the two. Only in this way can we protect the cultural diversity and ensure the steady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society.
Key word: Korea, Marriage immigrants, Language policy,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作者简介

1976 年生，男。本科毕业于延边大学朝鲜语系，博士毕业于韩国祥明大学韩国学专业。教授，研究生导师。目前执教于上海外国大学东方语学院朝鲜语系，担任系主任（副职）。主要研究方向是语言政策与语言规划和外语教学。

作者联络信息

邮寄地址：上海市松江区文翔路 1550 号上海外国语大学七教楼（东方语学院）213 室

手机：13917325822　　电邮：gao.luyang@163.com

“조선어 동의적사용어휘 편람 (APP) ”개발과 연구

여문호

(연변대학교)

1.본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 대한 타민족 학습자와 모국어 학습자 사이에는 두가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하나는 언어심리적 측면의 차이인데 타민족으로서 조선어를 공부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자기가 이미 배웠거나 습득하고 있는 제한된 어휘량을 가지고 보다 넓은 언어교제와 어휘활용을 진행하려고 애쓰지만 조선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그와는 달리 조선어 어휘 구성속에서 보다 더 알맞고 표현력이 높은 어휘를 골라쓰려고 힘쓴다.즉 조선어를 배우는 사람은 조선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제한되고 적은 량의 어휘를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조선말학습과 언어교제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차이인데 타민족 학습자는 자기의 모국어 (중국어) 와 인간공통의 론리와 개념을 바탕으로 조선말 어휘의미를 습득하고 활용하려고 하지만 조선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자기에게 이미 체득되고 습관화된 언어적 사유로서 자연스럽게 언어교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하여 타민족에게 조선말을 습득시키고 활용하게 하려면 조선어의 구조와 기능상 특성을 인간의 공통적인 사유와 개념에로 최대한 접근시켜 해석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타민족 학습자들에게 조선어학습에 편리를 주고저 조선어의 동의적 사용어휘 편람 (APP) 을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데 상술한 두 측면에 따라 론의하고저 한다.

2.“동의적 사용어휘”의 개념과 본질

어휘론에서는 동의어를 말 그대로“뜻같은말”이라고 정의도 하고 다듬기도 한다. 그리고“동의어”를 다시 뜻이 완전히 같은 “절대적 동의어”(례: “돈사-돼지우리”) 와 뜻이 비교적 같은 “상대적 동의어”(례: “출발하다-떠나다”) 로 갈라썼으며 동의어보다 뜻같기 성질이 낮은 다시 말하여 “류의어”(“뜻비슷한말”) 를 (례:“아름답다-곱다,예쁘다,화려하다”) 로 설정하여 써왔다.

지금까지 어휘론에서 말하던 “동의어”와 관련된 이 모든 술어와 개념에 상대되는 “동의어적 사용어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리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실례를 들어 설명하려고한다.

언어행위어휘론[1]에 기초한 교제언어학이나 언어사용에서는 실례로 조선말 단어 "집"의 "동의적 사용어휘"로는 "둥지 (제비둥지—제비집) ,곽 (안경곽—안경집) , (권총곽—권총집) 굴 (개미굴—개미집) ,통 (몸통—몸집) ,가정 (우리 가정—우리집) ,댁 (사돈댁—사돈집) , 식당 (단고기식당—단고기집) ,상점 (담배집—담배상점) ..."으로 설정하는데 여기서 단어 "집"이 언어행위과정에 같은 뜻으로 어울려 쓰이는 "둥지,곽,굴,통,가정,댁,식당,상점..."등의 어휘들은 다 "동의적 사용어휘"들인 것이다.

구조언어학[2],다시말하여 지금까지의 어휘론에서 말하는 동의어, 류의어에는 우에서 본 "동의적사용어휘"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그런데 어휘기능론에 기초한 언어행위론,교제언어학,언어사용론 등에서 이러한 어휘들을 "동의적 사용어휘"라고 부르는 리유는 아래와 같다.

이 어휘들이 "동의적 사용어휘"로 되는 근거는 첫째로 언어행위과정에 단어 "집"과 "둥지,곽,굴..."등이 엇바꿔 쓰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대상을 놓고 다 같은 뜻으로 여러 어휘가 쓰이는 것이다.하나의 대상,현상을 놓고 둘 또는 그 이상의 어휘로 표현하면 그 어휘들은 모두 동의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일반언어학적 원리이다.

그 근거는 둘째로 구조언어학의 어휘구성론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휘기능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만큼 "사용어휘"라는 새로운 술어와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3.어휘의미망에서 중심을 이루는 의미소의 선택과 활용

매개 민족어 어휘의미는 자기의 고유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의 언어행위과정에 그것이 론리적 사유와 언어구사에 적극 가동됨으로써 사람은 자유자재로 언어행위와 언어교제를 진행할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이 어휘의미망은 눈에 보이지도,귀에 들리지도,손에 잡히지도 않는 극히 추상화된 언어현상이다.

단적인 실례로 중국학생들이 조선말을 처음 배울 때 날자 (시간) 와 관련한 어휘의미망에 접근하는데서 조선말 단어들인 "어제,오늘,래일"은 전혀 생소하지만 "전일,금일,명일"을 대뜸 아는 것은 가시화된 뜻글자인 한자말로 표기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추상화된 어휘의미망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법의 하나가 바로 의미소에 의한 어휘의미망 재현이다.여기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의미소해석리론이다.이때의 "의미소"는 철저히 민족어 어휘의미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 공통의 사유활동에 작용하는 론리

[1] 언어철학에서 '언어행위'란 일상언어의 엄밀한 분석을 철학의 과제로 하는 일상언어학파의 한 사람인 오스틴(John Langshaw Austin)이 고찰한 언어의 본질적 존재양식을 가리킨다.
[2] 언어의 사회적(혹은 전달적) 기능을 강조하고 또한 역사적 사실과 주어진 단계의 언어 상태를 구별할 것을 강조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

이다.

단편적인 실례로 조선말 어휘의미망에서 단어 “집”의 어휘의미소 해석을 보면 그것을 리해할수 있을수 있다.

조선말단어 “집”의 기초의미는 “사람이 일정한 공간속에서 고착되여 사는 시설이다.” 이때에 기초의미소 “사람”하나만을 놓고 보면 “사람”이 “동물”로 이전되면서 “집”이라는 단어가 “둥지 (제비둥지-제비집) ,굴 (개미굴-개미집)”등의 동의적사용어휘가 생겨나고 동물 (생명체) 로부터 무생물체로 전이되면 “곽 (안경곽-안경집) , (권총곽-권총집)”등의 동의적사용어휘들이 쓰이게 된다.이와 마찬가지로 기초의미소 “사람”의 특성이나 활동, 인척관계로 이전되면 “가정 (우리 가정-우리집) ,통 (몸통-몸집) ,댁 (사돈댁-사돈집)”등의 동의적사용어휘들이 만들어져쓰이게 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자연언어의 어휘의미를 가시화하여 (생물체,사람,동물,무생물체...등) 의미망을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의미소에 대한 접근방법을 얻어내려는데 있다.

총체적으로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론리적인 언어적사유와 언어구사방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언어를 매체로 하여 완전히 서로 다른 개별민족어어휘의미에로 접근시키는 방법은 언어구조와 체계의 대비해석보다는 언어사용과정 즉 언어행위와 언어교제과정을 출발로 하는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것이 현대 기능어휘론이나 인지언어학,언어행위론이나 교제언어학 등의 연구성과에 의하여 많이 밝혀지고 있다.

4.동의적 사용어휘에 대한 일반화와 개별화,추상화와 구체화 원리에 의한 접근

지금까지의 구조주의언어학은 인간언어를 대하고 연구분석, 활용하는데서 기호체계로서의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한데로부터 자연히 연구방법론이 형식주의,구조주의에 기초하게 되였고 그에 따라 일반화,추상화된 언어현상을 해석하게 되였다.그러나 근대에 와서 활발해지고 있는 인지언어학,교제언어학,어휘기능론,언어행위론,교수언어학 등 현대언어학과 경계언어학들에서는 기호의 체계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데로부터 연구방법론이 기능주의로 바뀌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일반화에서 개별화에로,추상화에서 구체화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다른 모든 민족어와 마찬가지로 조선어도 자연언어의 속성 그대로 언어구조는 언어행위를 통하여 일반화에서 개별화,추상화에서 구체화에로 실현되는것이 일반적인 합법칙성으로 되고 있다. 실례로 조선말 단어 “보다”의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의미는 “눈으로 감각하다”이지만 그것이 언어행위에서 구체화 될 때에는 “눈”으로 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활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읽다”:신문을 읽다-신문을 보다

“감상하다”:영화를 감상하다-영화를 보다

“관람하다”:연극을 관람하다-연극을 보다

“참관하다”:박물관을 참관하다-박물관을 보다

“구경하다”:경기를 구경하다-경기를 보다

“치료하다”:병을 치료하다-병을 보다

“낳다”:손주를 낳다-손주를 보다

“누다”:소변을 누다-소변을 보다

“차리다”:아침상을 차리다-아침상을 보다

“내다”:결판을 내다-결판을 보다

“처리하다”:일을 처리하다-일을 보다

“지내다”:제사를 지내다-제사를 보다

“입다”:덕을 입다-덕을 보다

이처럼 동사 “보다” 한 단어가 13 개 단어로 쓰이는 것은 추상화된 동사 “보다”가 언어교제와 언어실천에서 구체화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언어행위과정에 구체화된 이 13 개 단어 대신에 일반화된 “보다”라는 1 개 단어를 우선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배워 언어교제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활용하자는 인식과 리해를 가지고 이 편람(APP)을 리해하고 리용해야 한다.

5.결론

새로 연구개발하려는 “조선어 동의적 사용어휘편람(APP)”은 상술한 언어연구방법론과 원리를 옳게 인식파악하여야 연구활용에서 응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례로 이 편람 (앱) 이 적은 량의 대표적인 단어를 가지고 “대충”말하게 한다고 본다든가,어떻게 단어 “보다”와 “읽다,관람하다,치료하다,낳다,누다,차리다,입다,처리하다...”가 동의어가 되며 지금까지의 뜻풀이 사전들에서와도 차이난다고 하는 생각은 다 연구방법론이 전혀 다른 구조주의적 관점과 사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행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현대언어학의 연구성과를 교수언어학에 적극 받아들여 언어학습과 교육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언어연구자들과 언어교육자 앞에 나선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17),사회과학출판사

문영호(2012),<조선어품사에 대한 범주론적고찰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중국조선어문

김영수(2015),<중국과 미국의 한국어 교육과정 비교-연변대학교와 럿거스대학교를 중심으로>,국어교육

김광수(2016),<중국에서의 훈민정음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중국조선어문

김철준(2008),<조선어 문법>,연변대학 출판사

남기심(1995),<어휘의미와 문법>,연세대 국어연구소.

오미향(1993),<어휘 의미 지도에 관한 연구>,연세대 교육 대학원 석사 학위론문.

임지룡(1989),<국어의미론>,탑출판사

임지룡(1996),“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언어학>,한국언어연구회

최창렬(1981),“동의성과 다의성의 한계,” <교육농촌>1,전북대학교

정정섭(1982),<외국어 교육의 기초와 실천>,동원출판사

구문 문법의 시각에서 본 한국어 "-게 되다"의 교수 방법[1]

남 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논문초록] 한국어에서 "용언+-게 되다"구문은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언어 형식이다.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문법 형태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언어 사용에서 오류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법 형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의미, 문법, 화용의 특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구문 분법의 시각에서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의미 기능 및 교수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먼저 "용언+-게 되다"형식을 구문 문법에서 말하는 구문으로 보고 그 기본 의미를 기존의 논의에서 "피동", "예정상", "변화, 상태변화"로의 의미 해석에서 "피동"과 "예정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변화, 상태변화"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이와 달리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로 개괄하였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사용에서 나타나는 부동한 의미도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을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교수 방법에 적용하면, 특히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구문 문법, -게 되다, 의미 기능, 구문의 의미, 교수 방법

1.서론

한국어에서 "용언+-게 되다"구문[2]은 사용 빈도가 아주 높은 언어 형식이다.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도 자주 다루어 지는 문법 형태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언어 사용에서 오류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법 형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주로 "용언+-게 되다"구문이 나타내는 기본 의미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용(화용적 특성)에서 나타난

[1] 本文是吉林省高教学会 2017 年度高教科研项目《构式语法视角下的韩国语教学研究》（课题编号：JGJX2017C7）的部分研究成果。

[2]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게 되다"로 표시되는 문법 형식은 구문 문법의 시각에서 보면 정확하게 "용언+-게 되다"구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구문은 모든 용언에 다 사용될 수있으며 또 "용언+-게 되다" 형식 전체가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 구문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른 언어 자료들을 인용할 때는 원문의 형식대로 "-게 되다"로 표시할 때도 있다.

다. 한국어 기존 연구의 논의를 보면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에 대하여, 좀 앞선 연구에서는 “피동”과 “예정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면 근래에 와서는 “변화, 혹은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정남 2009 ,유연 2017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와 해석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용언+-게 되다”구문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어색한 문장은 여전히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 a. 我变成了大学生。
b. 나는 대학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2) a. 这个地方变成了运动场。
b. 이곳은 운동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장은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딘가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언어 현상이다. 이와 같은 어색함은 적어도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단순히 “변화”로 이해하고 사용하였기에 나타는 현상이라고 본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 “용언+-게 되다” 구문이 나타내는 기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소위 말하는 “변화”란 무엇인지?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를 말하는지? 이런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어휘적 수단으로 아니면 문법적 수단으로 타나내는지? 등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적어도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습득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변화”와 중국어에서의 “变（成）”으로 표현되는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에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일정한 한국어 기초가 있는 4 년제 본과 대학교 한국어학과 2,3,4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한국어 관형 표현 “용언+-게 되다”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중에는 여러 오류 류형과 어색한 문장들이 많지만, 특히 본 논문과 관련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변화”로 이해했을 때 학습자가 위와 같은 중국어 내용(a)를 한국어 (b)형식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은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비교적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또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용언+-게 되다”구문의 의미 및 사용에 대한 교수 방법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 문법 교수에서 “용언+-게 되다”와 같은 구문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단일 문장 내에서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예를 들면,

(3) 나이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4) 내일부터 휴식하게 됩니다.
(5) 모레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6) 이분이 내일 한국에 가게 됩니다.

위의 문장들은 모두 단일 문장 형식이다. 이런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을 가르칠 때 한국어 교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단일 문장 형식이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단일 문장 형식은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예문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용 조건(화용적 특성)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이, 단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의 예문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를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단순히 이런 단일 문장으로써는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이 구문에 대한 통일적인 의미 해석이 없으면 개개의 문장마다 의미 해석을 달리 달아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위의 예문(3)-(6)을 중국어로 “前面的行动、状态将要出现, 产生新情况、新变化, 已被决定、安排的事情要实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관형 표현으로 다루어지는 “용언+-게 되다”는 의미 기능적 특정상 선행절과의 관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단순히 “용언+-게 되다”구문만이 포함된 단일 문장 내에서 그 기능을 설명한다면 이 구문의 의미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교수 방법은 특히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의미, 문법, 화용의 특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구문 분법의 시각에서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의미 기능 및 교수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려한다.

2.구문 문법의 시각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은 일반적으로 Goldberg 의 이론을 구문 문법 이론

의 대표로 하고 있다. 그는 형식과 의미의 “대응물” 혹은 “짝”이라는 술어를 사용하면서 구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Goldberg(1995)의 기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문이란 문장 안의 단어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구문 문법에 따르면 하나나 그 이상의 자질이, 문법 내에 존재하는 다른 구문의 지식으로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히 구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 C 가 형식과 의미의 짝(F_i, S_i)이고 그 F_i의 어떤 양상과 또는 S_i의 어떤 양상이 C 의 성분이나 이미 확립된 다른 구문으로부터 엄밀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C 를 구문이라고 한다.

Goldberg 는 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구문 문법학자들은 주어진 구문 이 잘못 쓰인 환경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 또한 화자의 언어적 지식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은 미묘한 의미적, 화용적 요인이 문법적 구문 제약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Goldberg 가 화용적 요소에 대해 아주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Goldberg(2003)에서는 구문이란 형식과 기능의 짝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의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화용적 기능도 포함된다. 때문에 구문 문법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의미론과 화용론의 엄격한 구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초점 요소, 주제화, 사용역 따위도 의미론적 정보와 함께 모두 구문 안에 제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문 문법의 주장은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형식상의 통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의미적 및 화용적 기능도 함께 고려되여야 함을 말해준다. 구문 의미의 형성 및 구문 의미에 대한 이해에는 항상 화용적 요소가 담겨져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구문 문법의 시각에서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한국어 “용언+-게 되다”를 구문 문법의 시각에서 형식과 기능의 짝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기능의 분석에서 의미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을 동시에 중요시하며 이 구문의 기본 의미에는 화용적 요소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한다.

3. “용언+-게 되다”의 특징

Goldberg 의 구문 문법의 이론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관형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용언+-게 되다”는 전형적인 구문인 것이다. 이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를 기존의 논의에서는 “상태의 변화” 혹은 그냥 간결하게 “변화”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후술하겠지만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라고 기술하려 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이 구문 형식 전체가 나타내는 의미이며 또 그 구성 요소들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의미이다. 비록 구문 요소 중에 동사 “되다”가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는 우리가 말하는 이 구문의 의미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와는 다른 의미이라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세히 기술하려 한다.

3.1 통상적 특징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은 일반적으로 “용언” 뒤에 연결 어미 “-게”와 보조동사 “되다”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동사(자동사, 타동사)와 형용사에 모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기서 김정남(2009)의 예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7) 기계를 함부로 방치하면 기계가 못 쓰게 된다.
(8) 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철수가 가장 앞서 달리게 되었다.
(9) 물을 너무 많이 부었더니 밥이 질게 되었다.
(10) 성형 수술 후 여자가 예쁘게 될 것이다.

예문 (7)과 (8)은 동사에 쓰인 것이고 예문 (9)와 (10)은 형용사에 쓰인 것이다. 때문에 이 구문은 “-게”선행 어간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연(2017)에서는 “-게 되다”에 선행하는 용언 분포중에서 약 77%가 동사이고 약 18%가 형용사이며 약 5%가 보조용언이라고 하였다. 또 각 용언의 속성에 따라 의미가 달리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품사 속성에 관한 분석은 본 논문의 분석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각 품사의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

3.2 의미적 기능

한국어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게 되다”의 의미 기능은 크게 “피동”, “예정상”, 그리고 “상태변화”로 나눌 수 있다(유연 2017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들은 모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3.2.1 우선 먼저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볼 때의 문제점을 보자. 유연(2017)에서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최현배(1961), 최규슈(2005), 고영근·구본관(2008) 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각자의 관점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러나 임홍빈(1977)과 김정남(2009)의 관점을 들면서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김정남(2009)에

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피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게 되다”의 구문을 피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11) 영이가 철수에게 토끼를 잡게 했다.
(12) 철수가 영이에 의해 토끼를 잡게 되었다.
(13) 철수가 영이에 의해(영이 때문에) 토끼를 잡았다.

김정남(2009)에서는 예(11)의 피동문으로 예(12)를 대응시키면서 “-게 되다” 구문을 피동으로 보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12)를 피동문으로 보는 것이 그 대당되는 능동문으로 예(11)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예(11)에 대하여 예(13)이 대응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13)도 역시 피동문으로 해석될 소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예(13)의 문장은 피동문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게 하다”와 “-게 되다”에는 모종의 관련성이 있으나 능동-피동의 짝으로 대응되는 구문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게 되다”구문에는 주어가 순전히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었다는 양태적인 의미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피동 구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게 되다”가 형용사와도 공기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 되다”를 피동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게 되다” 구문이 피동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3.2.2 다음으로 “-게 되다”를 “예정상”으로 처리하는 견해를 살펴보자. 유연(2017)에서는 여기서 대표적인 논의는 고영근(1986/2004), 민현식(1990)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게 되다”구문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이런 예정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또한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게 되다”구문도 많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김선영(2015)에서는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우리도 ｛내년부터, 작년부터｝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는 예를 제시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또한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예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년부터”의 수식을 받으면 “살게 되었다”는 “예정된 일”이지만, “작년부터”의 수식을 받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즉, 동일한 “동사+-게 되다”구문이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일어난 사건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상의 논의로부터 볼 때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예정상”으로 처리하는 견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3.2.3 마지막으로 “-게 되다”의 기본 의미를 “변화” 혹은 “상태변화”로 보는 견해이다.

유연(2017)에서는 여기서 대표적인 논의는 서정수(1991), 전영철(2008), 김정남(2009) 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김정남(2009)에서는 전영철(2008)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게 되다”의 기본 의미는 “피동”보다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디어 범인이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는 “잡다”의 피동사 “잡히다”가 사용된 피동 구문에 다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되다”가 통합한 구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게 되다”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있어 굳이 “상태”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변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태”라는 개념을 쓸 경우 혹여 “되다”의 의미 영역이 형용사에만 국한되거나 하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3.2.4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여러 학자들이 언급했듯이 “-게 되다”구성은 기본적으로 “상태변화”를 나타낸다는 견해들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로 개괄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우선 먼저 이 구문이 확실히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낸다는데는 동의한다는 것이며, 또 동시에 위의 여러 견해들과 달리 이 변화는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를 나타낼때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라는 화용적 기능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용언+-게 되다”구문은 의미 기능적 특정상 선행절과의 관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단순히 “용언+-게 되다”구문만이 포함된 단일 문장 내에서는 그 기능(의미적,화용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용언+-게 되다”구문의 사용에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은 언어 사용에서 당연히 긴 문장들을 사용해서 풍부한 내용들을 표달하려는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위에서처럼 단순히 단일문 내에서 “상태변화”로만 해석한다면 학습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예문(1)-(6)과 같은 어색한 문장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먼저 예문(1)-(2)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인용해본다.

(14) a. 我变成了大学生。
b. 나는 대학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c. 나는 대학생으로 되었습니다.
(15) a. 这个地方变成了运动场。
b. 이곳은 운동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c. 이곳은 운동장으로 되었습니다.

예문(14)와 (15)를 보면 중국어 원문에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变(成)”이 있는데 한국어 역문(b)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동사 “변하다”에 다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게 되다”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이와 같이 단순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할 때는 역문(c)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굳이 “-게 되다”를 사용하겠다면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일 그 어떤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면 혹시 역문(b)도 가능할지 모르겠다만 위와 같이 앞뒤 문맥이 없이, 다시 말해서 일정한 화용적 조건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예문(3)-(6)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인용해보자.

(16) a. 나이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b.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17) a. 내일부터 휴식하게 됩니다.
b. 연휴가 되어서 내일부터 휴식하게 됩니다.
(18) a.모레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b. 학교의 결정으로 모레부터 시험을 보게 됩니다.
(19) a.이분이 내일 한국에 가게 됩니다.
b. 회사의 추천으로 이분이 내일 한국에 가게 됩니다.

예문(16)-(19)에서 각 (a)는 “-게 되다”를 사용한 단일문이고 (b)는 (a)에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주어진 문장이다. 서로 비교해보면 각 (b)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여기서 위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한국어에서 “용언+-게 되다”구문은 화자가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를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언어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언+-게 되다”구문은 의미 기능적 특정상 선행절과의 관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에 주의를 돌리고 논의를 전개한 학자로는 김정남(2009)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는 말뭉치 자료를 근거로 어떠한 유형의 원인절이나 조건절, 혹은 특정 어휘가 “-게 되다”에 선행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는 “-게 되다” 선행절 혹은 선행 어휘의 유형을 “원인 표현”, “조건 표현”, “자동성 표현”의 세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김정남(2009)의 이와 같은 논리는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로 보는 본 논문의 견해화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모두 이 구문의 전제 조건(화용적 특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견해와 다른 것은김정남(2009)에서는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그

냥 “변화”로만 기술한 것이다. 구문 문법에서는 구문을 형식과 기능의 짝으로 보고 이 기능에는 의미적 기능과 함께 화용적 기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구문 문법의 시각에서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로 개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2.5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로 개괄하면 이 구문의 의미적 및 화용적 기능을 모두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괄하면 “용언+-게 되다”구문이 구체적인 여러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어느 정도 모순되어 보이는 관점으로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정남(2009)에서 제기한 “자동성 표현”에 대한 논의이다. 그는 선행절이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상황과 달리 뚜렷한 원인이나 조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진행되는 자동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다.

(20) 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매너 없는 집단으로 비쳐지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다.

나. 경찰, 제자리 찾아야 공권력의 최일선인 경찰이 어쩌다가 폭력에 마구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인가?

다. 어머니는 그러다 내버린 일곱째 딸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라. 그러다 어떻게 이 감독과 함께 다니게 됐어요.

마. 시간과 재물을 주체성 없이 낭비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남(2009)에서는 예(20)에서 “어쩌다가”, “그러다”, “그러다 어떻게”, “어딘지 모르게” 등은 이와 같은 자동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게 되다”의 자동성의 의미가 “-게 되다”를 관용적인 쓰임 중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핑계”를 대는 상황에 많이 쓰이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핑계”도 어떤 전제(조건, 원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 이와 같은 문장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배경이 있어 그러한 상황적 요소에 따라 변화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화자의 발화 태도(양태적인 의미 기능) 혹은 의식이 있으므로 하여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자가 이같은 발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전제하에서”의 일부분인 것이다.

3.2.6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로 개괄하면 이 구문의 의미적 및 화용적 기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한국어 교수에서 “용언+-게 되다”구문은 화자가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를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언어 형식으로 해석하면 예문(1)-(6)과 같은 어색한 문장을 피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먼저 구문론적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형식과 의미/기능의 짝이 언어 사용에서의 적절성이다. 이것은 또한 구문 문법에서의 주요 연구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언어 습득에서의 핵심은 구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장악하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어 교수에서는 형식과 의미/기능의 유기적인 결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언어 형식의 의미는 어휘 의미와 구문 의미의 융합이며 외국어 교수에서는 언어 형식과 의미(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것은 구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적 기능 및 화용적 기능과 같은 정보는 모두 언어 습득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인식하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용언+-게 되다”구문의 의미와 용법을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선 먼저 “용언+-게 되다”를 한 개 구문으로 보고 그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로 개괄해 준다. 이렇게 하면 이 형식에서는 통사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즉, 이 언어 형식은 모든 용언에 모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구문의 의미적 및 화용적 기능에 관한 정보를 강조한다. 즉, 이것은 화자가 어떤 전제(원인, 조건, 상황 등)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를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라는 것을 강조해준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 예문은 단일문 형식이 아니고 일정한 전제(원인, 조건, 상황 등)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제시해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구문 문법의 시각에서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고 교수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먼저 기존의 “피동”, “예정상”, “변화, 상태변화”로의 의미 해석에서 “피동”과 “예정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변화, 상태변화”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이와 달리 그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로 개괄하였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의 형태적, 의미적, 화용적 특징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사용에서 나타나는 부동한 의미도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기초상에서 한국어 “용언+-게 되다”구문에 대한 교수 방법도 제시하였다. 우선 먼저 “용언+-게 되다”형식을 한 개 구문으로 보고 모든 용언에 다 결합할 수 있고 그 기본 의미를 “어떤 전제하에서 가져오는 변화”로 개괄해 준다. 그리고 이 구문의 의미적 및 화용적 기능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화자가 어떤 전제(원인, 조건, 상황 등)하에서 가져오게 되는 변화를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라는 것을 강조해주었다. 이와 같은 분석과 교수 방법은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특히 고급 학습자들의 문장 확대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1]. Adele E. Goldberg 저 손영숙·정주리 공역(2006), 《구문 문법》, 한국문화사.

[2].김정남(2009), '-게 되다'의 의미와 분포, 한국어 의미학 30.

[3].김선영(2015), '형용사+-게 되다'에 대한 일고찰, 《언어》40-1.

[4].유연(2017),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 '-어지다'와 '-게 되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刘沛霖 等（1996）,《韩国语惯用句型》, 东北朝鲜民族教育出版社。

[6].[美]Adele E. Goldberg 著. 吴海波 译（2007),《构式：论元结构的构式语法研究》, 北京大学出版社。

[7].陈满华（2009）, 关于构式语法理论的几个问题, 外语教学与研究（第 5 期)。

[8].邓云华、刘芬（2010）, 构式观与语言构式教学, 西安外国语大学学报（第 2 期)。

[9].戴卫平 (2013), 构式语法理论视域下的二语构式习得, 中国石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第 5 期)。

[10].[美]Adele E. Goldberg 著. 吴海波 译（2013),《运作中的构式：语言概括的本质》, 北京大学出版社。

[11].王初明（2015）, 构式和构式语境与第二语言学习, 现代外语（第 3 期)。

남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133002)

E-mail: namilem@163.com

1950-60 년대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 기술 양상 연구

-품사론을 중심으로-

오현아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Ⅰ. 들어가며 : 복수의 한국어'들'에 대한 관심
Ⅱ. 조선어 교과서 문법 영역 관련 선행 연구
Ⅲ. 1950-60 년대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 기술 양상 분석
Ⅳ. 나오며

들어가며 : 복수의 한국어'들'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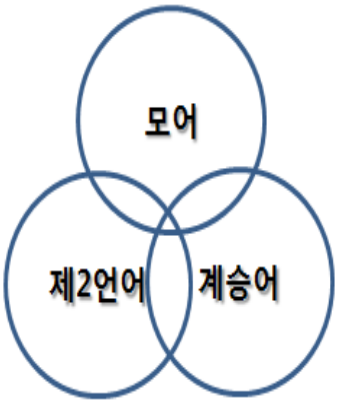
국어에 대한 입장은 크게 국어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입장, 언어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입장, 국어의 실제 사용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국어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입장은 우리 국어의 역사적인 맥락과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제 강점기 하 우리의 지식인들은 국어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국어 애호 의식을 본격화해 조선어학회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8.15 광복 이후에는 모어 회복 운동과 모어 애호 의식에서 흔히 쓰는 일본 말을 찾아 순화하는 '우리말 도로 찾기(1948 년 6 월)'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오현아, 2004: 17-22 참조).

이러한 국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재외동포들의 모어 교육에서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 편향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나, 이미 재외동포들의 모어(교육) 상황은 하나의 '(한)국어'로 수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점과 그 입장에 대해서는 오현아·오지혜·진가연·신명선(2016)을 참조할 수 있다.

오현아·오지혜·진가연·신명선(2016:75-77)에 따르면, 재외국민, 혹은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그 교육의 성격과 목적이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문제인가, '모국어로서 국어교육'의 문제인가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쟁점이자 변수가 되어 왔다. 이는 제 1 언어, 제 2 언어, 모어, 민족어, 계승어의 다양한 양상을 띠

기도 하며,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나 세대의 언어 사용 환경, 언어의 위상, 언어 정책에 따라서 다면적,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은 언어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논의에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 과제, 방향을 검토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이 재외동포의 현지 적응, 동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조항록, 2004:226-227)에서부터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 신장하고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상을 구현(박갑수, 2007:370)하는 데 초점을 둔 관점(조태린, 2010:199 재인용)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국제이해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의 관점, 그리고 재외동포 혹은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귀국의 문제와 맞물려 한국사회의 적응을 고려하는 입장까지 재외동포 교육은 국내와 국외, 과거.현재.미래를 아울러 중요한 교육적 연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 교육적 접근에서 (한)국어의 위상 차원에서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은 언어생태학적 환경, 한국어의 위상, 현지 교육과정, 언어교육정책, 우리 정부의 지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 언어사용환경, 재외동포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을 요한다. 다만, 이 경우 (한)국어는 모어, 제 2 언어, 상속어의 세 측면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달리하게 된다(조태린, 2010). 먼저, 모어로서 재외동포 교육은 민족적 정체성, 조국과의 정서적 유대감 즉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제 2 언어로서 재외동포 교육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이해나 요구에 따른 선택적 언어(김하수, 2006/2008)로서의 성격을 띠는데, 이때 해당 사회에서 한국어의 지위가 관건이 된다. 또한 상속어로서 재외동포 교육은 계승어, 즉 가족 또는 혈연으로 관련되어 있는 언어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그림 1]) 참조). 특히 계승어의 측면에서 재외동포의 언어 즉, 교포 언어(heritage language)는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교포 언어는 환경에 의해 영향력(strength)이 우세한 언어(dominant language)와 그렇지 않은 언어로 나뉘며, 둘째, 개인적으로는 환경, 경험, 교육, 인생의 흐름 등에 의해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세대에 의해 언어의 차이와 변동을 겪으며, 셋째, 교포 화자는 매우 제한된 사용역(장르, 어조, 분야 등)에서만 언어사용능력을 갖는다(Vales, 2001; 강남욱, 2009:286-287 재인용). 다시 말해서 재외동포 언어는 개인 혹은 집단의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모어, 제 2 언어, 계승어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띠게 된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단수의 유일무이한 순수성을 가진 하나의 한국어로 수렴될 수 없는 복수의 한국어“들”로 존재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의 모어 교육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중국에서의 1950-60 년대 연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 조선어 기술 양상을 품사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조선어 교과서 문법 영역 관련 선행 연구

조선어 교과서 문법 영역 관련 선행 연구는 1) 남한어와 북한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교 연구와 2)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오현아 외, 2016: 81-82)., 3) 중국 대학의 조선어 문법 교재 연구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 남한어와 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

남한어와 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는 언어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해 남한어와 북한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비교 연구들이 많은데, 홍종선(1999), 최유숙 외(2015)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어교육 차원에서 국어교육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의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왕문용 . 민현식(1999), 홍종선(2009), 김정선(2015) 등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현황을 검토한 권순희(2014), 북한이탈학생의 국어 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로 배재훈(2012) 등이 있어, 남한어와 북한어를 중심으로 언어 차원에서의 비교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교육을 다룬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 비교 연구는 언어 차원에서는 남북한어와 연변어의 어휘 체계를 비교한 이광호(1995), 사전을 중심으로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를 비교한 박갑수(1997),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을 모색한 권재일(2006) 등이 있으나, 언어 교육 차원에서 중국의 조선말과 남북한어 중심으로 다루어진 연구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인식의 문제와 그 교과서들의 단원 배열, 구성 체제, 내용에 대해 비교 대조한 이관규(2016)와 재외동포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을 모국어 교과, 분단 상황에서의 중간자적 언어 교과, 재외동포 현지 교과 차원으로 구분해 학교급별.영역별.위상별 연구 가능성을 제시한 오현아 외(2016), 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분단 상황에서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를 분석한 오현아(2017a), 초등학교급에서의 조선어문 교과서와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오현아(2017b)에 그치고 있어 초, 중, 고등학교를 넘어선 대학 교재를 대상으로 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3) 중국 대학의 조선어 문법 교재 연구

중국 대학의 조선어 문법 교재 연구로는 강미화(2016)이 유일하다. 강미화(2016)에서는 문장론을 중심으로 1950 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 연변 대학의 조문학부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문법 교재의 변화 양상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어 교육사 측면에서도, 재외동포의 모어 교육 연구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이 심화 확장될 필요가 있다.

4) 연구 대상 및 방법

1950-60 년대 연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 조선어 문법 기술 양상을 형태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한 대상 교재는 다음 <표 1>과 같다.

기호	교재명	발행일	저자	출판사
Ⓐ	현대조선어	1957. 01~ 1957. 07	연변대학	연변대학함수부
Ⓑ	현대조선어(형태론 1)	1963. 06	방장춘	연변대학함수부
	현대조선어(형태론 2)	1963. 07	방장춘	연변대학함수부

<표 1> 연구 대상 교재 목록

2.1950-60 년대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 기술 양상 분석

1) 전체적인 구성

<현대조선어>는 1957~1958 년에 중국 연변대학 조선어문 강좌의 교재로 연변대학 함수부에서 출판한 것이다. 이는 서론,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 어휘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순차적인 출판 연도에 따라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총 539 면으로 페이지는 단권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영근, 2001)

<현대 조선어(형태론 1)>은 1963 년 6 월에 연변대학 함수부에서 발행한 것인데, 편저자는 방장춘이다. 이는 차례 5 면과 본문 174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의 후속편으로 <현대조선어(형태론 2)>가 있으므로 그 내용은 형태론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서언, 1 장 단어의 구성, 2 장 품사, 3 장 명사, 4 장 수사, 5 장 대명사'가 기술되어 있다.

<현대 조선어(형태론 2)>는 1963 년 7 월에 연변대학 함수부에서 발행한 것인데, 편저자는 방장춘이다. 이는 차례 6 면과 본문 232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2 면의 완결되지 않은 기술 내용으로 보아 이후의 낙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전편으로 <현대조선어(형태론 1)>이 있으므로 그 내용은 형태론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6 장 동사, 7 장 형용사, 8 장 관형사, 9 장 부사, 10 장 감동사, 11 장 철자법과 띄여쓰기'가 기술되어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품사론에 논의를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품사론 체계 구성 양상 비교**

이들 교재의 품사론 체계 구성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	Ⓑ
품사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동사의 형태론적 표식과 문장론적 기능 동사의 종류 동사의 문법적 범주 법 존경법과 계칭 전달 어법 자격법 형용사 관형사 부사 토 감동사	품사 품사의 개념 조선어의 품사 분류 원칙 명사 명사의 어휘 문법적 특성 명사의 격 도움토 합성 체언토 체언의 용언형과 이 용언형에 기초한 문법적 범주와 그 형태 명사의 수 범주 명사의 종류 불완전 명사 명사의 단어 조성 수사 수사의 종류 수사의 문법적 특성

	수사와 단위 명사와의 결합 관계 대명사 대명사의 어휘 문법적 특성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미정-의문 대명사 재귀 대명사 동사 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과 그 종류 보조적 용언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법적 의미들 후치사적 동사와 그 문법적 의미 자동사와 타동사 상 범주 동사의 종결토와 그 문법적 의미 접속토와 그 문법적 의미 동사의 체언형 용언의 합성토 시칭 범주 존칭 범주와 그 표현 수법 동사의 원형 동사의 단어 조성 형용사 형용사의 어휘-문법적 특성과 그 종류 문법적 형태와 의미 상에서의 동사와의 차이점 <있다, 없다, 계시다>에 대하여 용언토와 어간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특수한 어음론적 현상 형용사의 단어 조성 관형사 언제나 관형사로만 쓰이는 것 어근의 조성 부분과 동음이의어로 존재하는 것 접두사와 동음 이의어로 존재하는 것 부사 상황 부사

	삽입 부사 부정 부사 접속 부사 의성-의태어 감동사 감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 감동사의 종류

<표 2> A, B, C 교재의 품사론 체계 구성 양상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와 Ⓑ 교재 모두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의 8 품사를 다루고 있으나, Ⓐ 교재에서 독립적으로 다룬 '토'는 Ⓑ 교재에서 명사의 하위 구성 요소, 동사와 형용사의 하위 구성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품사의 내용 기술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1) 개별 품사의 내용 기술 양상 비교

이들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별 품사의 내용 기술 양상을 (1) 품사 분류의 원칙, (2)명사, (3) 수사, (4) 대명사, (5) 동사, (6) 형용사, (7) 관형사, (8) 부사, (9) 토, (10) 감동사, (11) 후치사적 단어 부류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품사 분류의 원칙

Ⓐ	Ⓑ
품사란 단어에 대한 분류이며, 또한 어휘-문법적 범주이다.(155 쪽) 품사의 분류에 대하여 모스크바 종합대학 편찬 "현대 로씨야어 형태론" 36 페지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로씨야에서의 품사는 단어로써 표현되는 의미의 점에서 그에 고유한 형태론적 표식과 문법적 범주의 점에서' 형태 조성과 단어 조성의 류형의 점에서' 단어 결합과 문장 안	품사란 문법적 범주와 문법적 형태의 점에서, 단어들의 조성 수법의 점에서, 단어 결합의 점에서, 문장론적 기능의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점에서 분류해 놓은 단어들의 부류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단어들의 어휘-문법적 부류이다.(23 쪽) 첫째, 조선어의 품사는 단어들의 형태론적 표식, 즉 문법적 범주와 문법적 형태 상의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

에서의 그의 문장론적 기능의 점에서 구분되는 단어들의 어휘-문법론적 분류이다.(156-157 쪽)	하여야 한다. 둘째, 조선어의 품사 분류는 또한 단어들의 문장론적 특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① 어떤 문장 성분으로 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② 조선어의 품사 분류는 단어 결합 상의 특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단어를 중심 단어로 하고 어떤 단어들과 결합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③ 조선어의 품사 분류는 단어 조성 수법 상의 특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의미 상의 특성에 근거하여 단어를 분류하여야 한다.(25, 26 쪽)

<표 3> A, B 교재의 '품사 분류의 원칙' 관련 기술 양상

Ⓐ, Ⓑ 교재 모두 모스크바 종합대학 편찬 <현대 로씨야어 형태론>의 품사 개념을 바탕으로 품사 분류 기준을 상세화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문장 성분으로 될 수 있는가', '단어 결합 상의 특성', '단어 조성 수법 상의 특성', '의미 상의 특성'에 근거한 품사 분류 기준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품사 분류의 기준이 통사론적인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명사

Ⓐ	Ⓑ
명사는 대상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누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합할 수 있다. 명사는 실질적 의미 어휘적 의미로 충망되여 있으며 형태론적으로는 격토와 그의 범주를 가지며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이다. 명사가 나타내는 이름에는 동물의 이름(사람, 마소, 인민, 민족, 로 신…), 사물 사건의 이름(강산, 풍년, 국경절…), 사유 대

문장론적으로는 명사 자체로도 문장 성분으로 되나 주로 정상적인 언어 행위에선 토를 첨가하여 주어, 규정어, 보어, 상황어로 되며 계사 “이다”의 도움을 얻어 술어로도 될 수 있다. (159 쪽)	상으로서의 모든 현상, 특성 및 과계 등의 이름(인식, 추위, 감상, 상대성, 절대성, …)과 행동의 이름(웃음, 뜀, 운동, 달리기…) 등이 포괄된다. 명사는 이와 같이 객관 현실세계의 모든 대상, 현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이기 때문에 실사에 속한다.(29 쪽)

<표 4> A, B 교재의 ‘명사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교재에서는 명사의 개념, 명사의 형태론적 문장론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토의 첨가를 통해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 명세화하고 있어, 현대 남한 문법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 교재에서는 명사의 개념과 하위 부류를 유형화해 제시하고 있으며, 실사와 허사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명사의 하위 부류의 기준으로 ‘유정성, 사건, 현상, 행동’ 등을 적용하고 있다.

Ⓐ	Ⓑ
1.명사의 형태론적 표식과 문장 기능(163-164) 2. 명사의 종류(164-168) (1)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2) 완전 명사와 불완전 명사 - 일반적인 규정어를 동반하는 불완전 명사 제 1 류 : 각종 문장 성분으로 다 될 수 있는 것 : 분, 이, 치, 또래 따위, 해, 것, 바, 데, 쪽, 탓, 자위, 겨이, 지음 제 2 류 : 주어로만 될 수 있는 것 : 쉬, 리, 씨, 나위, 티, 지	제 3 장 명사 제1절 명사의 어휘 문법적 특성 (29-31) 제2절 명사의 격(31-72) 1. 격의 개념 및 그 체계 격토의 문법적 의미 1) 주격토 <가, 이>의 문법적 의미 2) 대격토 <를, 을>의 문법적 의미 3) 여위격토 <에, 에게, 께>의 문법적 의미 4) 위격토 <에서, 에게서, 께서>의 문법적 의미 5) 조격토 <로>의 문법적

제 3 류 : 상황어 술어로 될 수 있는 것 : 차, 따름, 터, 때문, 참, 뿐, 나름 제 4 류 : 보어, 또는 상황어로만 되는 것 줄, 척, 체, 듯, 양, 둥, 번, 만, 만큼, 셈, 채, 제, 적, 대로, 겸, 상, 통, 바람, 족족 3. 명사의 문법적 범주(169-183) (1) 격 : 주격, 속격, 대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호격, (2) 수 : 보조어의 수, 어근 반복의 수 4. 명사의 단어 조성(183-190) 단일 어근, 합성적 단어 조성, 접사적 단어 조성	의미 6) 구격토 <와, 과>의 문법적 의미 7) 속격토 <의>의 문법적 의미 8) 호격토 <아, 야, 여, 시여>의 문법적 의미 제3절 도움토(72-88) 제4절 합성 체언토(88-98) 1. 격토끼리 어울린 합성 체언토 2. 격토와 도움토가 어울린 합성 체언토 3. 도움토끼리 어울린 합성 체언토 제5절 체언의 용언형과 이 용언행에 기초한 문법적 범주와 그 형태(98-105) 제6절 명사의 수 범주(106-108) 제7절 명사의 종류(108-119) 1.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2.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 3. 후치 방위 시간 명사 4. 격 형태가 불구전한 완전 명사 5. 단위 명사 제8절 불완전 명사(119-133) 1. 불완전 명사에 대한 일반적 개념 2. 불완전 명사의 류형과 그 문법적 의미 1) 어휘적인 불완전 명사 2) 문법적인 불완전 명사 제9절 명사의 단어 조성(133-144) 1. 단일 어근의 단어 조성 2. 합성의 수, 법 3. 접사의 수, 법

<표 5> A, B 교재의 명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5>를 통해 우리는 명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명사의 어휘 문법적 특성, 명사의 격, 도움토, 합성 체언토, 명사의 수 범주, 명사의 종류, 명사의 단어 조성’ 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명사의 격’은 단어 결합 상의 특성을 중시하는 품사 분류의 특성이 반영된 기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 교재의 세부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교재에서는 ‘명사의 종류’를 먼저 제시한 데 비해, Ⓑ 교재에서는 ‘명사의 격’을 먼저 다루고 있어 ‘단어 결합 상의 특성’을 하위 분류보다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명사의 격’ 관련 하위 기술 내용에서 Ⓐ 교재는 활동체에만 사용되는 여격과 위치적 의미를 나타내는 위격을 구분하고 있으나, Ⓑ 교재에서는 여위격으로 통합적으로 다루면서도 위격에만 한정되는 토를 구분하고 있다.

셋째, Ⓑ 교재에서는 ‘도움토’ 항목을 별도로 두어 ‘1) 문장론적 관계를 나타내는 도움토들, 2) 격토 또는 용언토 뒤에 붙어서 그 토의 의미를 정밀 보충하여 주는 것들, 3) 류사 계렬에 대한 관련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움토들’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 교재에 비해 내용이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 교재에서는 ‘합성 체언토’ 항목을 별도로 두어 체언토의 결합 양상을 유형화하고 있다.

다섯째, ‘명사의 종류’ 관련 하위 기술 내용에서 Ⓑ 교재에서는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의 항목을 따로 두어 ‘유정성’의 기준에 따른 명사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후치 방위 시간 명사’ 의 항목을 따로 두어 ‘명사, 대명사 또는 동사 등 뒤에 쓰이여 공간 및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의 일종’으로 구분하여 상술하고 있다. 그리고 ‘격 형태가 불구전한 완전 명사’ 항목을 따로 두어 ‘일부 격토만 가지면서, 주로 주격토, 속격토, 조격토를 가지며 용언형과 그것을 기초로 용언토를 가지는 한자어’에 대해 예시를 들어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위 명사’ 항목을 따로 두고 있으나, ‘단어 결합 상의 특성’을 중시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항목에서 자세히 다룰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완전 명사와 불완전 명사’ 구분에 대해 Ⓐ 교재에서는 각종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 특정 문장 성분만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어휘적인 불완전 명사와 문법적인 불완전 명사로 구분하고 있다.

여섯째, 두 교재 모두 개별 품사의 세부 항목에서 해당 품사의 단어 조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조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품사론의 하위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 인상적이다.

일곱째, 두 교재 모두에서 문장 성분 용어로 남한 문법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어, 규정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상황어’는 ‘술어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정도나 양태를 나타내면서 술어의 뜻을 수식하여주는 문정성분’이며, ‘규정어’는 ‘문장에서 대

상의 특징, 표식을 규정하거나 그 소속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으로 개념화된 문장성분 용어로 양태 중심의 문법 용어가 개념화되고 있는 양상(오현아, 2017a:353-354)이라 할 수 있다.

(3) 수사

Ⓐ	Ⓑ
수사는 대상의 수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얼마' '몇 '몇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191)	수사는 대상의 수량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이다.

<표 6> A, B 교재의 '수사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교재에서는 수사를 정의하면서 담화 상황을 염두에 둔 정의를 덧붙이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간결하게 수사를 정의하고 있다.

Ⓐ	Ⓑ
1. 수사의 종류(191-195) (1) 수량 수사와 순서 수사 (2) 단순 수사, 복합 수사 및 합성 수사 (3) 수사의 규정 어형과 수사와 같이 사용되는 명사	제1절 수사의 종류(144-147) 1. 수량 수사와 순서 수사 2. 단순 수사와 복합 수사 3. 개략 수사 4. 고유 수사와 한자 수사 제2절 수사의 문법적 특성(147-151) 1. 수량 수사의 문법적 특성 2. 순서 수사의 문법적 특성 제3절 수사와 단위 명사와의 결합 관계(151-158)

<표 7> A, B 교재의 수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7>을 통해 우리는 수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수사의 종류, 수사의 문법적 특

성, 수사와 단위명사와의 결합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 교재의 세부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교재에서는 '수사의 종류'만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수사의 문법적 특성', '수사와 단위 명사와의 결합 관계'까지 확장해 다루고 있다.

둘째, Ⓐ, Ⓑ 두 교재 모두 '단순 수사와 복합 수사'를 다루면서 수사의 조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셋째, Ⓐ 교재에서는 '수사의 규정 어형' 부분에서 수사가 규정어가 되면서 어음적 형태가 바뀌는 '하나->한, 둘->두'와 같은 사례를 통해 개별 품사가 문장 성분이 규정어일 때의 형태 변화까지 다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 교재에서는 '수사의 문법적 특성' 항목을 따로 두어 형태론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격으로 쓰일 수 있는지, 통사론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상술하고 있어, '단어 결합 상의 특성' 기준이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 Ⓑ 교재 모두 '수사와 단위 명사와의 결합 관계'를 다루어 이 역시도 '단어 결합 상의 특성' 기준이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4) 대명사

Ⓐ	Ⓑ
대명사는 직접적으로 명명하지도 못하며 일정한 대상 현상을 표시하지도 못한다. 언어 행위의 장면에 의하여 명사, 수사를 대신하여 지시함으로써 명명적 기능을 놀 뿐이다. 대명사는 인칭 관계 사물 지시 관계의 어휘적 의미로 충망되여 있으며 형태론적 문장론적 기능은 명사와 거의 같다.(159)	대명사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의 부류이다. 대명사는 대상을 직접 명명하지 않으며, 그 대상의 구체 내용을 직접 나타내지 못 한다. 때문에 대명사는 보다 큰 개괄성과 미정성을 띠고 있다. 때문에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과 그 내용은 구체적인 언어 행위의 장면에 따라 부동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대명사가 지시하는 내용과 대상은 언어 행위의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158-159)

<표 8> A, B 교재의 '대명사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 두 교재 모두 '지시성'을 중심으로 대명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 교재에서는 '개괄성'과 '미정성'을 더해 특정 장면에서만 그 지시 대상과 내용을 알 수 있음을 좀더 상술하고 있다.

Ⓐ	Ⓑ
1. 대명사의 의미(196-197) 2. 대명사의 종류(197-202) (1) 인칭 대명사 (2) 지시 대명사 (3) 미정-의문 대명사	제1절 대명사의 어휘 문법적 특성(158-161) 제2절 인칭 대명사(162-165) 제3절 지시 대명사(165-170) 1. 지시 대명사의 개념과 류형 2. 지시 대상에 따르는 구별 3. 거리에 따르는 구별 4. 지시 대명사의 문법적 특성 제4절 미정 - 의문 대명사(170-172) 제5절 재귀 대명사(172-174)

<표 9> A, B 교재의 대명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9>를 통해 우리는 대명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대명사의 의미, 대명사의 종류, 대명사의 어휘 문법적 특성'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 교재의 세부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 두 교재 모두 '미정-의문 대명사' 항목을 두어, 남한 현대 문법에서 '미정칭'과 '부정칭'을 두고 있는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 교재에서는 '지시 대명사의 문법적 특성' 항목을 따로 두어, 지시 대명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격의 형태를 제시하고 규정어로서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셋째, Ⓑ 교재에서는 '재귀대명사' 항목을 따로 두어, 사람만 돌이켜 지칭하는 '자기, 자신, 저희, 당신'과 인물과 비인물을 두루 지시하는 '저, 자체'를 하위 구분하고 있다.

(5) 동사

Ⓐ	Ⓑ
동사는 행동 및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되여 있느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동사는 대상의 행동 또는 과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다.(1)

동사는 형태론적 문장론적 특성은 형용사와 거의 비슷하나 문법적 범주로서 “상, 태”의 범주가 있으며 현재의 “시칭 토”가 있음이 형용사와 구분되는 점이다. 례 : 가다 먹다(먹이다, 먹는다) 보다 주다 놀다(160)	

<표 10> A, B 교재의 ‘동사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교재에서는 동사를 정의하면서 담화 상황을 염두에 둔 정의를 덧붙이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간결하게 동사를 정의하고 있다.

Ⓐ	Ⓑ
1. 동사의 형태론적 표식과 문장론적 기능(202-203) 2. 동사의 종류(203-208) (1) 자동사 타동사 (2) 기본 동사와 보조 동사 3. 동사의 문법적 범주(208-220) (1) 상 : 능동상, 사동상, 피동상, (2) 시칭 : 현재, 과거, 선과거, 미래 (3) 태 : 완료태, 지속태, 시칭과 태의 관계 4. 법(221-228) (1) 종결어미로써 표시되는 법 : 직설법, 의문법, 명령법, 권유법 (2) 보조 동사와 기본 동사, 기타의 단어 결합으로써 표현되는 법의 범주 : 부정, 추측, 소원, 의도,	제1절 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과 그 종류(1-5) 제2절 보조적 용언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법적 의미들 : 복무, 시행, 의도, 소원, 당위성, 추츨, 부정, 가능성, 미정, 가치성, 태적 의미(5-17) 제3절 후치사적 동사와 그 문법적 의미(17-26) 1. 후치사적 동사의 특성 2. 후치사적 동사의 용법과 그 문법적 의미 제4절 자동사와 타동사(26-31) 제5절 상 범주(31-48) 1. 상의 개념 및 체계 2. 상의 표현 수법 3. 상 형태의 문법적 의미 4. 상과 문장 구조 제6절 동사의 종결토와 그 문법

시행, 가능, 당위 5. 존경법과 계칭(229-232) (1) 존경법 : '시' (2) 계칭 : 해라, 하게, 하오, 존대, 반말, (3) 존경법과 계칭의 관계 6. 전달 어법(232-234) (1) 직접 전달 어법 (2) 간접 전달 어법 7. 자격법(234-245) (1) 종결 술어법 (2) 접속 술어법 (3) 규정 어법 (4) 상황 어법 (5) 명사법 8. 동사의 단어 조성(245-247) (1) 단순 어근적 단어 조성 (2) 합성적 단어 조성 (3) 접사적 단어 조성	적 의미(48-69) 1. 종결토의 개념 2. 계칭 범주 3. 식 범주 4. <의지-추측>의 종결토 5. <목격>의 종결토 6. <감탄>의 종결토 제7절 접속 토와 그 문법적 의미(69-106) 1. 렬거 접속토 2. 원인 접속토 3. 대립 접속토 4. 선택의 접속토 5. 조건 접속토 6. 목적-의도의 접속토 7. 방식의 접속토 8. 결과의 접속토 9. 사고 담화의 내용을 나타내는 접속토 10.부정의 접속토 제8절 동사의 체언형(106-116) 1. 체언형의 개념 2. 동사 체언형의 격 형태 제9절 용언의 합성토(116-123) 제10절시칭 범주(123-145) 1. 시칭의 개념과 그 체계 2. 시칭 접미사의 문법적 의미 3. 규정토의 문법적 의미 제11절존칭 범주와 그 표현 수법(145-147) 제12절동사의 원형(147-148)

	제13절동사의 단어 조성 (148-159) 1. 접사의 수법 2. 합성의 수법 3. 어음 교체의 수법

<표 11> A, B 교재의 동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11>를 통해 우리는 동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 동사의 종류, 후치사적 동사와 그 문법적 의미, 상, 시칭, 태, 법, 존칭, 자격법, 동사의 단어 조성'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 교재의 세부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교재에서는 '보조적 용언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법적 의미들' 항목을 Ⓐ 교재에 비해 전반부에서 다룸으로써 '단어 결합 상의 특성' 기준이 중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 교재에서는 '후치사적 동사와 그 문법적 의미' 항목을 따로 두어 '격 형태를 갖춘 체언 뒤에 쓰이여 선행 격토와 함께 격적 기능을 수행하는 후치사적 동사(있어서, 대하여 등)'를 별도로 다루어 인상적이다.

셋째, Ⓐ, Ⓑ 두 교재 모두 '상' 범주 항목을 따로 두어 '능동, 피동, 사동'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 풍부한 예시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개 통사론의 하위 내용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넷째, Ⓐ 교재에서는 '법' 아래 '종결어미로써 표시되는 법'으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동사의 종결토와 그 문법적 의미' 항목을 별도로 독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 내용으로 '계칭 범주, 식 범주, 의지-추측, 목격, 감탄'을 함께 다루어 문법 범주보다는 형태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화,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교재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화자에 대하여 설정하는 담화의 목적을 일정한 문법적 형태로 표현한 것'을 일컫는 '식' 이라는 다소 낯선 문법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 교재와 마찬가지로 조선어의 식을 '서술식, 의문식, 권유식, 명령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용어의 도입과 함께 Ⓐ 교재에서 사용했던 '법' 이라는 문법 용어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교재 모두 문장 유형 중 감탄문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 교재에서는 서술식 토 중에 자기와 청자에게 동시에 서술하는 경우에 쓰이며 감탄을 나타내는 '누나,는데 구나'를 들고 있으며, 일정한 언어 환경에 의해 의문의 어조에 의해 의문을 나타내는 토로 '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감탄의 토로만 기능하는 토는 없으며, 서술의 토가 감탄의 토로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문장 유형에서도 감탄문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 교재에서는 ‘동사의 체언형’ 항목을 따로 두어, 전성어미에 의한 동사의 형태 바꿈과 결합하는 격의 형태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 교재에서는 ‘용언의 합성토’ 항목을 따로 두어,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 방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곱째, Ⓐ, Ⓑ 두 교재 모두 ‘시칭’을 다루고 있으나, Ⓐ 교재에서는 ‘현재, 과거, 선과거, 미래’로 구분했던 데 반해, Ⓑ 교재에서는 ‘절대직 시칭과 상대적 시칭’, ‘현재, 과거, 미래’로 구 구분으로 바뀌면서 그 기술이 좀더 정교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덟째, Ⓐ, Ⓑ 두 교재 모두 ‘존칭’을 다루면서, 주체 존대의 접미사 ‘시’를 다루고 있다.

아홉째, Ⓐ 교재에서는 ‘전달 어법’ 항목을 따로 두어 다루고 있으나, Ⓑ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열째, Ⓑ 교재에서는 ‘동사의 원형’ 항목을 따로 두어, 동사 활용에 있어서의 기본형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열한째, Ⓐ, Ⓑ 두 교재 모두 ‘동사의 단어 조성’을 다루고 있어, 이 역시 조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품사론의 하위 내용을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6) 형용사

Ⓐ	Ⓑ
형용사는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하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형용사는 실질적, 어휘적 의미에 동반하여 문법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보조적 단어의 첨가 없이 능히 자립적으로 술어로 되며 자격법에 이하여 규정어 상황어, 주어, 보어의 문장 성분으로 되며 시칭, 법, 계칭, 자격법의 범주를 가진다. 례 : 좋다 아름답다 춥다 빠르다 맑다(159-160)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 표식 및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다.(160)

<표 12> A, B 교재의 ‘형용사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 두 교재 모두 ‘대상의 표식’을 중심으로 형용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 교재에서

는 ‘대상의 성질, 정적인 상태’를 더해 좀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	Ⓑ
1. 형용사의 형태론적 표식과 문장론적 기능(243) 2. 형용사의 종류(243-252) (1) 성질 형용사와 존재, 지시, 미정-의문 형용사 (2) 기본 형용사와 보조 형용사 3. 형용사의 문법적 범주(252-264) (1) 시칭 ① 술어의 시칭과 그의 형태 ② 규정어의 시칭과 그의 형태 (2) 법 ① 종결어미로써 표시되는 법 : 직설법, 의문법, 명령법과 권유법 ② 보조 형용사와 기본 형용사, 기타 단어 결합으로써 표현되는 법의 범주 : 부정, 추측 (3) 존경법과 계칭 존경법 ① 계칭 (4) 전달 어법 : 직접 전달, 간접 전달 (5) 자격법 ① 종결 술어법 ② 접속 술어법 : 병렬, 종속, 가정, 양보 ③ 규정어법(관형사법) ④ 상황어법(부사법) ⑤ 명사법 4. 단어 조성(265-268) (1) 단순 어근적 단어 조성	제1절 형용사의 어휘-문법적특성과 그 종류(160-162) 제2절 문법적 형태와 의미 상에서의 동사와의 차이점(162-168) 제3절 <있다, 없다, 계시다>에 대하여(168-171) 제4절 용언토와 어간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특수한 어음론적 현상(171-179) 1. 토가 어간에 응축되는 현상 2. 결합 모음 <ㅡ>가 첨가되는 현상 3. 모음 조화 현상 4. 력사적 어음 교체 현상 제5절 형용사의 단어 조성(179-186) 1. 접사의 수법에 의한 형용사의 조성 2. 합성의 수법에 의한 형용사의 조성

(2) 합성적 단어 조성 (3) 접사적 단어 조성 (4) 어음 교체의 단어 조성 5. 명사어법(268) 6. 술어의 시칭(268) 7. 전통어법(268)	3. 어음 교체에 의한 형용사의 조성

<표 13> A, B 교재의 형용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13>을 통해 우리는 형용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형용사의 어휘-문법적 특성, 형용사의 종류, 동사와의 차이점, 용언토와 어간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특수한 어음론적 현상, 형용사의 단어 조성'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 교재의 세부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교재에서는 '형용사의 문법적 범주' 항목 아래에서 '시칭, 법, 존경법과 계칭, 자격법' 등을 다루고 있으나, Ⓑ 교재에서는 '문법적 형태와 의미 상에서의 동사와의 차이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 교재에서는 '있다, 없다, 계시다에 대하여' 항목을 따로 두어, 존재사를 Ⓐ 교재에 비해 좀더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 교재에서는 '용언토와 어간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특수한 어음론적 현상' 항목을 따로 두어, '단어 결합 상의 특성' 기준이 중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 교재에서는 '전달 어법' 항목을 따로 두어 다루고 있으나, Ⓑ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다섯째, Ⓐ, Ⓑ 두 교재 모두 '형용사의 단어 조성'을 다루고 있어, 이 역시 조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품사론의 하위 내용을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7) 관형사

Ⓐ	Ⓑ
관형사는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떠한"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관형사는 실질적 어휘적 의미에,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로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자체에 문법적 의미를 내포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으	관형사는 대상을 표식 또는 량적 방면에서 한정하는 단어들의 부류이다.(186)

로 문장 가운데서 아무런 토의 첨가 없이 언제나 규정어적 성분으로 된다. 례 : 모든, 새, 딴(160)	

<표 14> A, B 교재의 '관형사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 두 교재 모두 '대상의 표식'을 중심으로 관형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 교재에서는 '량적 방면에서 한정'을 더해 좀더 자세히 정의내리고 있다.

Ⓐ	Ⓑ
1. 관형사의 형태론적 표식과 문장론적 기능(269-272) 1) 관형사와 규정어로 되는 수사와의 차이 2) 관형사와 규정어로 된 대명사와의 차이 3) 관형사와 규정어로 되는 형용사와의 차이 4) 관형사와 규정어로 되는 형용사와의 차이 5) 관형사와 명사의 접두사와의 차이	1. 언제나 관형사로만 쓰이는 것(188-189) 2. 어근의 조성 부분과 동음 이의어로 존재하는 것(189-190) 3. 접두사와 동음이의어로 존재하는 것(190-192)

<표 15> A, B 교재의 관형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15>를 통해 우리는 관형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관형사의 종류'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 교재에서는 문장성분이 되었을 때 혼동이 될 수 있는 다른 단어와의 차이에 주목해 하위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조어론적 측면에서 주목해 하위 분류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8) 부사

Ⓐ	Ⓑ
부사는 행동 성질의 표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언제" "어떻게" 등의	지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조선어의 부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부사도 실질적, 어휘적 의미에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자체에 문법적 의미를 내포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문장 가운데서 아무런 토의 첨가 없어 언제나 상황어적 성분으로 된다. 례 : 벌써, 잘, 아주, 대단히(160-161)	볼 수 있다. 1. 상황 부사 : 반가이, 극히, 이리, 금방, 왜 2. 삽입 부사 : 과연 가령 비록, 아마, 제발 3. 부정 부사 : 아니, 못 4. 접속 부사 : 및, 또는, 혹은 5. 의성-의태어 : 왈랑절랑, 한들한들(192-193)

<표 16> A, B 교재의 '부사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교재에서는 '행동 성질의 표식'을 중심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부사의 하위 유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	Ⓑ
1. 부사의 형태론적 표식과 문장론적 기능(272-276) 1) 부사가 상황어로 될 때 2) 부사가 술어로 된다. 3) 삽입어로 될 때 2. 부사와 다른 품사들과의 차이(276-277) 1) 상황어로 되는 형용사와의 차이 2) 부사와 상황어로 되는 명사와의 차이 3) 부사와 상황어로 되는 대명사와의 차이 3. 부사의 종류(277-280) 1) 장소의 부사 2) 시간의 부사 3) 양태의 부사 4. 의성어와 의태어(280-283)	제1절 상황 부사(193-196) 1. 행동 방식의 상황 부사 2. 시간의 상황 부사 3. 장소의 상황 부사 4. 정도의 상황 부사 5. 의문의 상황 부사 제2절 삽입 부사(196-200) 1. 삽입 부사의 개념 2. 삽입 부사의 류형 제3절 부정 부사(200-201) 제4절 접속 부사(201-202) 제5절 부사의 단어 조성(202-205) 1. 단순 부사의 단어 조성 2. 파생 부사의 단어 조성 제6절 의성-의태어(206-213) 1. 의성-의태어의 어휘-문법적 특성

1) 한 단위의 어음을 그대로 반복한 것 2) 일부의 자음 또는 모음을 바꾸어 반복한 것 3) 의성어와 의태어의 타품사에로의 전성 5. 부사의 단어 조성(284-285) 1) 본래부터 부사인 것 2) 타품사로부터 전성된 것 3) 동사로부터 전성된 것 4) 형용사, 동사의 접속어형이 그대로 부사로 된 것	2. 의성-의태어의 단어 조성 상의 특성 3. 의성-의태어에 나타나는 모음 조화 현상에 대하여

<표 17> A, B 교재의 부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17>를 통해 우리는 부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부사의 형태론적 표식과 문장 기능, 부사와 다른 품사들과의 차이, 부사의 종류, 의성어와 의태어, 부사의 단어 조성'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 교재의 세부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교재에서는 문장론적 관점에서 부사의 기능을 정의하고 다름 품사들과의 차이를 기술하는 반면에, Ⓑ 교재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 교재에서는 '부사의 종류' 항목에서 '장소의 부사, 시간의 부사, 양태의 부사'를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상황부사, 삽입부사, 부정 부사, 접속 부사'로 그 하위 유형이 좀 더 세분화되어 상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 Ⓑ 두 교재 모두 '의성어, 의태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 교재에서는 조어론적 관점에서 하위 유형화를 하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어휘-문법, 단어 조성, 모음조화 현상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넷째, Ⓐ, Ⓑ 두 교재 모두 '부사의 단어 조성'을 다루고 있으며, 단순 부사와 파생 부사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조어론적 관점에서 하위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9) 토

Ⓐ	Ⓑ
토에는 이, 의, 에, 와, 마다, 부터등도 있으며, "이다"와 같은 용언과	

련계를 짓는 “계사”도 있다. 이 “계사”는 토와 용언의 계선상에 놓여 있다.(161)	

<표 18> A, B 교재의 ‘토의 정의’ 관련 기술 양상

Ⓐ	Ⓑ
1. 격 토(286) 2. 접속 토(286-287) 3. 보조 토(287-290)	

<표 19> A, B 교재의 토 관련 세부 기술 양상

Ⓐ, Ⓑ 두 교재 모두 ‘토’를 다루고 있으나, Ⓐ 교재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개별 품사의 하위 절에서 다루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0) 감동사

Ⓐ	Ⓑ
례 : 아, 오, 어뿔사, 만세(161)	감동사란 이야기하는 사람의 정감, 정서, 의지 따위를 명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다. 따라서 감동사는 명명적 기능이 없으며,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가 없다.(213)

<표 20> A, B 교재의 감동사 관련 기술 양상

Ⓐ 교재에서는 감동사의 예를 간단히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에서는 ‘사람의 정감, 정서, 의지’를 중심으로 감동사를 정의내리고 있다.

Ⓐ	Ⓑ
1. 여러 가지의 감정을 나타낸다.(291) 2. 여러 가지 의지적인 느낌과 의사를 나타낸다.(291) 3. 상대편을 부르거나 대답하거나 또는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나타낸다.(291)	제1절 감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213- 제2절 감동사의 종류 1.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 2.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3. 상대방의 이야기, 부름 등에 대한 태도 및 대답 등을 나타내는 것

<표 21> A, B 교재의 감동사 관련 세부 기술 양상

<표 21>를 통해 우리는 감동사 관련 세부 기술 내용으로 '감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 감동사의 종류'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 교재의 세부 기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 두 교재 모두 감동사의 종류에 대해 유형화해 제시하고 있다.

둘째, Ⓑ 교재에서만 '감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 항목을 따로 두어, 1) 일반적으로 일정한 언어 환경, 어조, 몸짓, 손짓, 얼굴 표정 등의 도움 밑에서 화자의 감정, 정서, 의지 등을 나타냄, 2) 감동사는 단어 결합을 이루지 못함, 3) 감동사와 다른 단어들 사이에는 보통 좀 긴 휴식이 오기 때문에 휴지부(,)를 찍음, 4) 감동사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법적 형태 변화가 없음을 그 특성으로 들고 있다.

(11) 후치사적 단어 부류

Ⓐ	Ⓑ
조선어의 모든 단어들은 이 아홉개의 품사에 망라되며 자기의 특징에 따라 어느 한 품사에 소속된다. 그러나 품사 내부에서 한 품사로부터 다른 품사로 전이되는 과도적 현상도 있다. 이 것은 현재 있는 품사 가운데서 한 품사로부터 다른 품사로 전이하는 과도적 현상도 있거니와 현재 그러한 품사가 없는, 새로운 어휘-문법적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단어의 부류도 있다.	

조선어에서 특히 지적하여 될 것은 일부 명사와 형용사 및 동사에서 후치사적(토에 가까운) 단어의 부류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집 앞에 나라 에 있어서 뒤에 에 대하여 안에 집 우에 나라 를 위하여 밖에 를 통하여 가운데 를 항하여 밑에 와 더불어 옆에 와 함께 속에 로 말미암아 (161-162)	

<표 21> A, B 교재의 후치사적 단어 부류 관련 기술 양상

Ⓐ 교재에서는 개별 품사 기술과는 별도로 후치사적 단어 부류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 교재의 동사의 하위 항목으로 '후치사적 동사와 그 문법적 의미'에서 다루고 있다.

이상의 1950-60 년대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의 기술 양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 '단어 결합 상의 특성'에 따른 문장론 중심의 기술, 2) '상황어, 규정어'와 같은 양태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기술, 3) 개별 품사 내 '단어 조성 문제(조어론)'까지 포괄하는 품사론 기술을 들 수 있다.

3.나오며

(1) 당시의 남북한 문법 기술과의 비교를 통한 1950-60 년대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의 고유한 특성 추출이 목표임.

이를 위해 1950-60 년대 남북한 국어 문법 교재 기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1950-60 년대 이후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 기술 변천사가 목표임.

이를 위해 1970~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변대학 조선어 문법 교재 기술 양상 분석이 필요함.

(3) 또한 교재 저자 선생님들과의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교재 내용 구성의 내적 원리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할 예정임.

<참고문헌>

1) 자료

연변대학(1957), 현대조선어, 연변대학함수부.(역대한국문법대계 2 53)

방장춘 편저(1963), 현대조선어(형태론 1), 연변대학함수부(역대한국문법대계 2 55)

방장춘 편저(1963), 현대조선어(형태론 2), 연변대학함수부(역대한국문법대계 2 55)

2) 논저

강남욱(2009), 영어권 교포 화자의 한국어 어휘 인식 유형화 연구-한국방송(KBS) <높이를 맞춰요 2>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9 ~ 308 쪽.

강미화(2016), 중국에서의 대학교용 조선어문법 교재 변화 양상-문장론을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5 권 4 호, 순천향대 인문학연구소, 31-63.

고영근(2001), 역대한국문법의 통합적 연구, 서울대 출판부.

김병혁(2017),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高麗人의 歷史性과 正體 認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김하수(2006),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3 ~ 131 쪽.

김하수(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1, 한국사회언어학회, 79 ~ 104 쪽.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365 ~ 393 쪽.

오현아(2004), 국어 순화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오현아·오지혜·진가연·신명선(2016), 재외동포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77, 73-108 쪽.

오현아(2017a), 분단 상황에서 중간자적 언어 교과로서의 조선어 고등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 분석 연구-문장 단위 문법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2-2, 국어교육학회, 344-370 쪽.

오현아(2017b), 조선어 초등 교과서 문법 교육 내용에 나타난 남북한어 문법 영향 관계 분석 연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7 중국한국어교육발전포럼 발표 자료집, 130-155 쪽.

오현아(2018.02), 2000 년대 재일 조선인 시문학의 시적 성취, 문법으로 읽어내기: 계간 시지 <종소리>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제 4 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80-289 쪽.

우평균(2009),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슬라브학보 24-1, 한국슬라브학회, 243-267 쪽.

조태린(2010), 재외동포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2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 ~ 218 쪽.

조현용.이상혁(2012),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언어 환경과 한국어교육 문제 연구, 한국어교육 2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7-282 쪽.
최윤갑. (2006). 중국에서의 조선어문법연구. 중국조선어문, 2006(1), 4-9.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사용 양상 연구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를 중심으로-

지미영
(길림사범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에서 문장[1]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문장 성분 간 호응[2] 오류 양상들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문장 사용 양상에서 특히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 양상에 주목하는 까닭은,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에서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문장 오류의 원인은 문장 내 구성 요소들이 형식과 의미에 맞게 적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 간 호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곽수진·김영주: 2010, 석주연: 2008, 송현정: 2007).

최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장르별 형식 연구, 쓰기 내용 연구, 담화 표지 연구, 표현문법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습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쓰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장은 의미 완결의 기본 단위이고 동시에 텍스트를 이루는 기본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지도의 중요성은 간과되곤 한다.

다음은 중국 길림성 소재의 J 대학교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이다.

1) 가. * 나는 노래와 춤을 춥니다. (1 학년)
나. * 내가 하고싶은 말은 건강하기를 바란다. (2 학년)
다. * 나는 그 애와 같이 다닐 때 더욱 즐거운 일이었다. (3 학년)

이처럼 등급을 막론하고 학습자들은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어색한 문장들을 많이 산출

[1] 구본관 외(2015)에서는 문장을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독립적 형식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하나의 끝맺음이 있고, 생각과 느낌을 단어로 연결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최소의 언어 단위를 문장으로 보았다.

[2] 송현정(2007)에서는 문장 내에서 언어 형식으로서의 한 대상 A와 특정한 다른 대상 B가 함께 짝을 맺어 고정적인 형태 관계로 실현될 때 그 양상을 호응 관계로 정의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언어 형식으로서의 한 대상을 가리키고, 문장 성분 간 호응이란 그 대상들이 특정한 관계를 이루고 형식과 의미에 맞게 적격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관계를 가리킨다.

한다.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어색하면 전반 글의 정확성과 가독성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차이가 있고 중국어의 호응과 한국어의 호응은 서로 다른 범주의 문법지식이다 보니 한국어에 직관이 없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어려워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문장 성분 호응 오류의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펼치려 한다.

첫째, 한국어학과 2 학년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에서 문장 성분 간 호응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만약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유형화 할 것인가?

둘째,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오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1.2. 선행 연구 검토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장 지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담화기능과 연결된 표현 문형 교육 및 기본 문형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연구가 주된 경향을 보였고, 문장 성분 간 호응에 대한 연구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 부사의 호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채희락: 2004, 임유종·이필영:2004, 2005, 최형연:2015, 조용준·대려연:2016)였고,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사적 호응을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곽수진·김영주 (2010)와 진강려(2014)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특히 문장 성분 간 호응 관계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학습자들의 호응 관계 오류를 폭넓게 다루긴 했으나, 전자는 오류 양상 제시에만 그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법이 결여되어 있었고, 후자는 연구 흐름에서 좀 더 나아가 호응 관계의 지도 내용 체계와 교수 지도 활동으로 5가지 원리를 제시하고는 있었지만 오류 유형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와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층적 원인을 파악한 후 문장 지도 교육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습자의 문장 성분 호응 오류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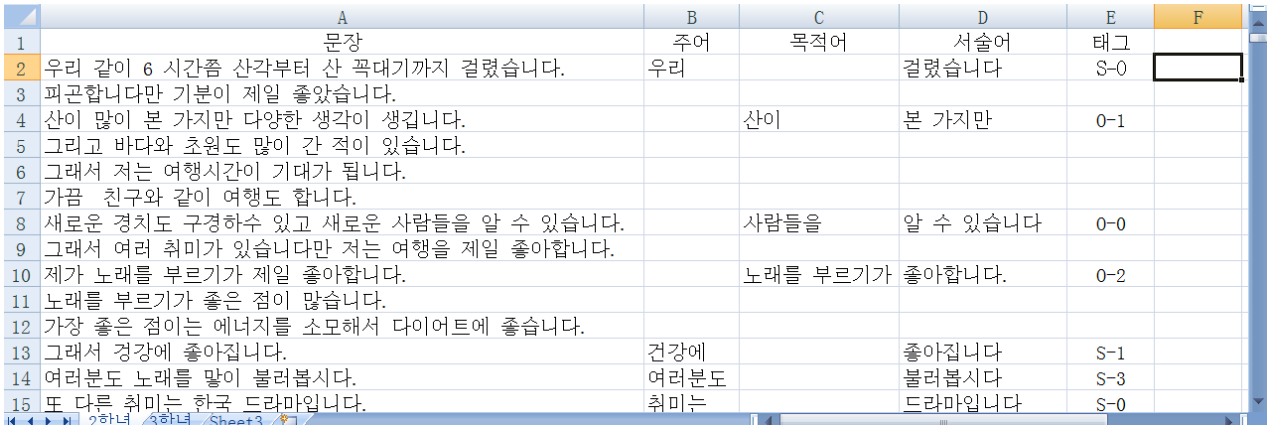
2.1. 연구 대상과 관찰 자료

본고의 연구 대상은 중국 길림성 소재의 J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2 학년 학습자들이 쓴 작문 자료 90 편이다. ‘나의 취미 생활’, ‘건강’, ‘자기소개서’를 주제로 한 자유작

문이었고, 총 14,110 어절수의 자료였다. 수집한 자료를 모두 텍스트에 입력하여 학습자 원시 코퍼스 파일로 구축한 후 파일명에는 작성자의 정보가 아닌 고유번호를 달았다.

2.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수집한 작문 자료에서 학습자가 직접 생성한 문장을 바탕으로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살펴보고 오류 판정을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A	B	C	D	E	F
1	문장	주어	목적어	서술어	태그	
2	우리 같이 6 시간쯤 산각부터 산 꼭대기까지 걸렸습니다.	우리		걸렸습니다	S-0	
3	피곤합니다만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4	산이 많이 본 가지만 다양한 생각이 생깁니다.		산이	본 가지만	0-1	
5	그리고 바다와 초원도 많이 간 적이 있습니다.					
6	그래서 저는 여행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7	가끔 친구와 같이 여행도 합니다.					
8	새로운 경치도 구경하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0-0	
9	그래서 여러 취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행을 제일 좋아합니다.					
10	제가 노래를 부르기가 제일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르기가	좋아합니다.	0-2	
11	노래를 부르기가 좋은 점이 많습니다.					
12	가장 좋은 점이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13	그래서 경강에 좋아집니다.	건강에		좋아집니다	S-1	
14	여러분도 노래를 많이 불러봅시다.	여러분도		불러봅시다	S-3	
15	또 다른 취미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취미는		드라마입니다	S-0	

[그림 1] 학습자 코퍼스 분석 화면

먼저 위의 [그림 1]과 같이 Microsoft Excel2003 을 이용하여 90 편의 작문 자료를 문장 단위로 정리한 다음 각 문장에서 문장 성분 간의 통사적 호응, 의미적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색한 절을 추출하였다[3]. 그리고 절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표 1>의 분석 틀처럼 오류가 나타난 부분을 판정하여 주석을 달고 해당 어절 뒤에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표 1>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 분석을 위한 틀[4]

문장 성분 간 호응의 분류	주석에 대한 해설	주석기	오류 예시[5]

[3] Lyons(1997)에 따르면 문법성은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문장이 완성된 언어 형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수용성이란 모국어 화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어감이 어색하거나 모호하여 모국어 화자로서 문맥상 받아들이 어렵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문법성과 수용성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어색한 문장,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으로 일컫는다. 단, '부모님가 나에게 건강하 음식을 자주 해주신다.'에서 '이/가'와 같은 형태적 오류는 본고에서 제외한다.

[4]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오류 양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호응 관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 유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영신(2003)에서는 통사적 호응, 어휘적 호응, 논리적 호응으로, 허영실(2007)에서는 문법적 호응과 의미적 호응으로, 곽수진·김영주(2010)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 어휘 호응으로, Donara Harutyunyan(2013)에서는 문법적 호응과 의미적 호응으로, 진강려(2014)에서는 문법적 호응과 의미적 호응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호응 관계에 대한 분류 기준을 연구자마다 조금 달리 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된 부분도 있었다. 바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호응을 봤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 언어라는 특징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호응 관계의 유형을 서술어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5] 본고에서 제시한 오류 예시는 연구 대상으로 수집한 90편의 작문 자료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호	
문법적 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주어 또는 서술어의 부재	S-1	*그래서 건강에(√이) 좋아집니다.
		주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	S-2	*과식, 편식, 육식 등을(√이). 나쁜 습관이다.
		서법 상 비호응	S-3	*여러분도 노래를 많이 불러봅시다(√불러 보세요).
		높임자질의 비호응	S-4	*저는 날씬하기 위해서 많이 오이를 먹는다. (√나는……먹는다 / 저는……먹습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 또는 서술어의 부재	O-1	*나는 노래와(√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목적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	O-2	*배우들도 연기가(√를) 잘 하기 때문입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6]	접속소, 양태소, 부정소, 부정 부사어와 서술어의 비호응	A-1	*만약 편식을 안 하고 과식을 안 하고(√하면) 건강이 좋습니다. *우리 아마 여향하기 모두 좋아합니다(√좋아할 것입니다).
의미적 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S-0	* 야채는 아주 건강합니다(√건강한 음식입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O-0	*새로운 경치도 구경하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만날) 수 있습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A-0	*누가 옆에 있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아주/매우……) 큰 행복이다.

위의 틀에 따라 분석 기준을 정하고 연구자 외 분석자 2 명과 함께 작문 2 편을 함께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각자 분석을 실시하였고, 해결되지 않은 오류는 함께 분석하여 판정하였다.

[6] 임유종(1998:180-190)에 의하면 호응 부사는 접속소 호응부사, 양태소 호응 부사, 시제/동작상 호응 부사, 부정소 호응 부사, 일치소 호응 부사로 세분될 수 있다. 접속소 호응 부사란 '가령/만일……-면, -는다면, -거든 등'처럼 특정 종속 접속 어미 따위와 호응 관계를 맺는 부사를 가리키고, 양태소 호응 부사는 '설마……-겠느냐, -ㄹ까'처럼 서법 형태들과 호응 관계를 맺는 부사류를 가리키고, 시제/상 호응 부사는 '아까, 이미……' 처럼 시제/상 체계와 관련된 것을 가리키고, 부정소 호응 부사는 '절대로, 결코……'처럼 부정소와 호응 관계를 보이는 부사 유형을 가리키고, 일치소 호응 부사는 주어를 지향하고 일치소 '-시-'와 호응 관계를 보이는 부사 유형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의 특정에 맞게 접속소, 양태소, 부정소, 부정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만 분류 기준에 넣었다. (자세한 호응 부사 분류는 임유종, 1998을 참조.)

3. 연구 결과 및 분석

학습자들이 생성한 전체 문장에서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오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2>와 같았다.

<표 2> 문장의 호응 오류율[7]

총 문장 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 수	오류율
1842	470	25.52%

위의 <표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 중 4 분의 1 이 넘는 문장은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다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장은 형태적 오류까지 더해져 가독성이 심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문장 구성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장 성분 간 호응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다시피 본고에서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 성분 간 호응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하기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1. 주어와 서술어의 비호응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오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주어와 서술어의 비호응 오류였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고 서술어는 주어의 성질, 상태, 움직을 나타낸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들이 많이 산출된다. 문장 성분 간 총 오류 488 개에서 주어와 서 오술어 비호응의 개수는 284 개로서 무려 58.2%를 차지했다.

3.1.1. 주어 또는 서술어의 부재 (S-1)

주어라는 행위자와 서술어라는 행위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문맥에 맞지 않게 주어와 서술어를 함부로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2) 가. * 나한테 건강이라고 본다. (무엇?)

나. * 사람마다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 배드민톤과 오목을 두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

위의 예문은 주어의 부재로 생긴 비호응 문장들이다. 박정희(2013)에서는 한국어는 회복가능성 조건에 충족되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다. 2(가)를 보면 '본다'와 호응하는 전체 주어(나)는 문맥상 회복이 가능하므로 생략할 수 있지만, '무엇이 건강인지?' , '건강이다'에 대한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2(나)에서도 앞 구절과 호응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구'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어야 한다.

[7] 가령 한 문장 안에 문장 성분 간 호응이 1개 이상의 경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문장을 단위로 살펴보았기에 하나의 문장으로 계산하였다.

3.1.2. 주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8] (S-2)

행위자인 명사에는 그 성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알맞은 격조사가 와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생성한 문장을 살펴보면 주격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가. *과식, 편식, 육식 등을 나쁜 습관이다.

나.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는 좋아 질수 있어요.

3(가)에서는 '과식, 편식, 육식 등'은 '습관'의 주체를 나타내므로 주어를 나타내는 격표지를 사용해야 하고, 3(나)를 보면 가령 '몸'이 주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몸에 좋다'(对身体好)란 중국어 표현과 한국어 연어 관계의 영향을 받아 '몸에는 좋아 질수 있어요'와 같은 호응의 비문이 나타났다.

3.1.3. 서법 상의 비호응(S-3)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종결어미나 보조 용언의 기능이 문장 속에서 주어와 어떻게 공기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가. *우리는 집에서 영화를 보세요.

나. *여러분도 노래를 많이 불러봅시다

'여러분', '우리' 등과 같은 주어는 서술어로 서법의 제한을 갖고 있다. 즉 4(가)에서 주어 '우리'는 '명령이나 요청, 높임'을 나타내는 '-(으)세요'와 호응을 맺을 수 없고, 4(나)에서 '여러분'이란 주어도 청유형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을 맺을 수 없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인데, 문장을 시작할 때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주어와 호응할 수 있는 서술어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3.1.4. 높임 자질의 비호응 (S-4)

이익섭(2006)에서 지적하듯 한국어는 문말어미가 일차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 나머지 요소도 정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겸양 표현의 인칭 대명사 주어를 사용했다면 서술어도 객체 높임의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호응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겸양 표현을 나타내지 않는 인칭 대명사 주어를 사용했다면 서술어도 객체 높임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지 말아야 호응이 이루어진다.

5) 가. * 저는 건강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나. * 2 년 동안 한국어는 나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 *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는 높임법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 한국어 학습자들은 예(5)와 같은 비문을 많이 생성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인칭 대명사를 가르칠 때 어휘적 지

[8] 조사는 문장 성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주어의 격표지와 서술어의 비호응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학습자가 주어나 목적어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격표지를 통해야 판단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주격조사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격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을 문장 성분 간 호응 범주에 포함시켰다.

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문맥에서의 호응 문제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3.1.5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S-0)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은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오는 것을 말한다.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음 예문(6)은 주어와 서술어가 의미적으로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문이 되는 경우이다.

6) 가. *또 다른 취미는 한국 드라마입니다(√취미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나. *대학교가 생각보다 바쁩니다(√대학교 생활이 …… 바쁩니다.)

다. *어머니께서 임신할 때 부모님은 배드민턴을 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태교는 배드민톤입니다(√어머니의 태교는 …… 배드민톤입니다).

라. *같이 카드 게임을 해서 그녀들은 나를 잘 알게 했습니다(√그녀들은 나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6(가)를 보면 주어인 '취미는'과 서술어인 '한국 드라마입니다'는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6(나)에서도 '바쁘다'는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딴 겨를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에 주어로 '대학교'와 호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교 생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6(다)를 보면 문법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맥에서 따져보면 이는 확실히 호응의 문제이다. '태교'란 '아이를 밴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일'을 가리키는데, 만약 정말로 주어인 '저의 태교'라면 문맥 상 의미적으로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비문이다. 따라서 6(다)에서 주어는 '나의 태교는'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교는'일 것이다. 6(라)는 피동과 사동이 헷갈려 의미적 호응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런 오류는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문장에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추출하여 호응이 되는지 검토해 보는 방법도 좋을 듯 하다. 다음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 양상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3.2.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비호응 오류는 186 개로 전체 호응 오류의 38.1%를 차지하였다. 목적어는 주요 문장 성분의 하나로,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가리킨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는 목적어 또는 서술어가 없거나, 목적격 조사를 잘못 쓰고, 의미적으로 이상할 때 비문이 많이 생긴다.

3.2.1. 목적어 또는 서술어 부재 (O-1)

목적어는 주어와 서술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목적어 성분이 없으면 비문이 되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생략하면 그 역시 비문이 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7) 가. *저는 처음 만날 때에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별로 없지만 친해 후에는 말이 많아진 유형입니다.

나. *또 음악을 들으면 그 노래를 가수의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7(가)를 보면 '누구를' 만났는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하고, 7(나)를 보면 목적어는 있지만 그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넣어야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것이다.

3.2.2. 목적어 격조사와 서술어의 비호응 (O-2)

한국어에서 목적어는 흔히 대격조사 '-을/를'로 표시되며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다음의 비문들을 보면 학습자들이 목적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목적격조사가 올 자리에 주격조사를 쓰거나 다른 조사를 쓰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8) 가. *다양한 장르가 있고 배우들도 연기가 잘 하기 때문입니다.

나.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생활에 위해서 꼭 건강해야돼.

다.*저는 취미가 많이 있지만 운동과 관련 있는 것에 제일 관심이 있어서 배드민턴을 치기가 좋아합니다.

위의 8(가, 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목적격조사가 와야 하는 자리에 주격조사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 부사격 조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목적격조사 자리에 다른 조사를 잘못 사용하면 문장의 호응이 깨지게 되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문장에서 이중목적어일 경우 학습자들은 목적격조사를 반복해서 쓸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에 8(다)와 같은 비문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격조사의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우선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필수 문장 성분을 가려내는 연습도 필요할 것이다.

3.2.3. 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O-0)

9) 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면 좋겠습니다(√직업을 찾았으면……).

나. *내성적인 저는 일하는 양이 많을 때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수줍음을 타서 부탁을 잘 줄 수 없습니다(√부탁을 하다).

다.*등산이 우리 기분를 좋다(√기분을 좋게 한다).

라. *예쁜 글씨는 사람들 마음이 편안하게 합니다(√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마. *그래서 저는 청소하고 통풍이 잘 하곤 합니다(√통풍을 잘 시키곤 합니다).

위의 9(가, 나)는 모두 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가 호응 되지 않아 생성된 비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직관이 없는 데다가 모국어의 사고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쉽게 범한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연어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9(다, 라, 마)는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에서 나타난 양상처럼 학습자들이 피동과 사동을 헷갈려함으로 나타난 의미적 비호응 오류다. 따라서 위의 괄호 안에 표시한 것처럼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문장 안에서 호응하는 문장 성분과 결부시켜 피동과 사동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오류는 18 개로 전체 호응 오류의 3.7% 밖에 차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사어와 서술어 호응의 고정적인 형태를 모두 장악해서가 아니고 부사어 사용이 연구 대상 자료에서 적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법적 호응 오류 양상을 세분화 하지 않고 다 함께 묶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3.3.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부사어는 주로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을 가리킨다. 최윤갑(2009)에서는 부사어를 부사격(에게, 께, 에게서, 에게로, 에, 에서, 와/과, 로/으로, 라고)으로 된 체언 성분을 다 부사와 함께 포괄시키는 것은 명칭과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부사어란 어디까지나 부사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도 이 관점에 따라 분석하였다.

3.3.1.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법적 호응(A-1)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일부 부사어들이 고정적 형태의 서술어 호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10) 가. *우리는 꼭 유혹을 뿌리치다.

나.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나는 꼭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간다.

다. *왜냐하면 성격이 밝은 사람은 자주 기쁘다.

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너무 조용하지만 친한 사람을 보면은 너무 활발하여 말이 별로 많아진다.

10(가, 나)에서 부사어 '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란 뜻으로 '뿌리쳐야 한다', '가겠다' 등 '당위, 의지나 계획'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문이 된다. 10(다)에서도 '왜냐하면'은 이유를 표현하는 '-어서/니까/므로/때문이다' 등 이유 표현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이 이루어지지만 학습자들은 10(다)와 같은 오류를 많이 범한다. 10(라)와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별로……없다/아니다/못하다/안/못'의 부정을 나타내는 호응의 고정 관계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여 범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부사어가 하나의 어휘로만 교수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의 호응 관계측면에도 비중을 두고 교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3.3.2. 부사와 서술어의 의미적 호응 (A-0)

부사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 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때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부사어를 쓰지 않으면 문장은 의미가 모호해져 학습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11) 가. *제 룸메이트는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나. *나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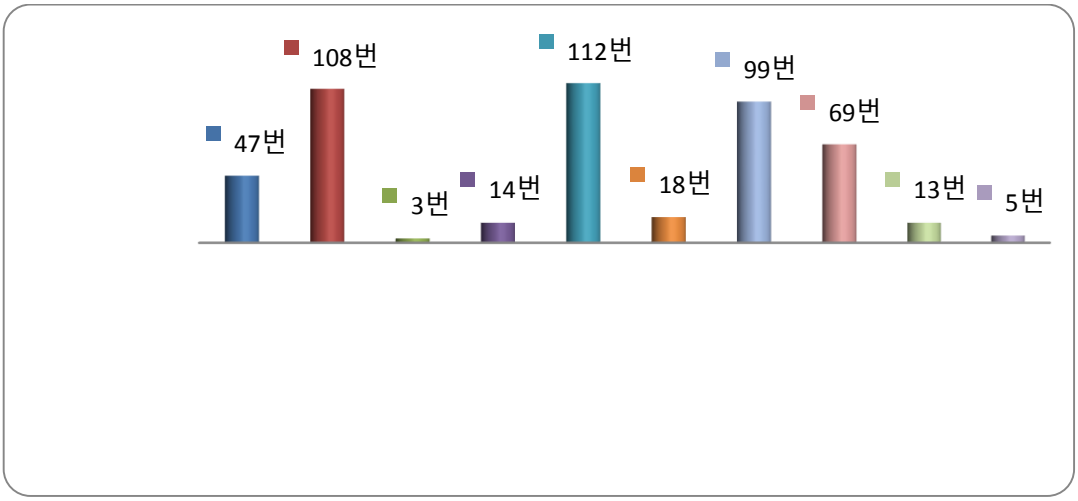
다. *세상에 아무 일도 양면이 있다.

11(가)에서는 '얼마나' 뒤에 부사어가 생략되다 보니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많이, 잘, 자주’ 등과 같이 어떤 부사어를 쓰느냐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장을 쓸 때 모호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11(나, 다)에서는 ‘아무’ 뒤에 조사 ‘도’가 오면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긍정의 서술어가 왔기 때문에 호응이 되지 않는다. 이는 ‘아무’라는 부사어의 의미 및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문맥을 통한 어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4.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중국 J 대학교 2 학년 학습자들의 문장 쓰기 오류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 유형의 구체적 양상들을 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문장 성분 간 호응의 오류 유형화

[그림 2]를 살펴보면 주어와 서술어 또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주어 또는 목적어의 격조사와 서술어의 비호응 그 외, 주어 또는 서술어의 부재로 인한 오류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장 오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이 문장 성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어 교재는 주로 구어 위주의 개별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장 구조의 이해를 의식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많지 않다. 따라서 문장 성분을 추출해 보고 자가 수정을 해 보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 문장의 주성분을 추출해 보는 활동들은 정확한 쓰기뿐만 아니라 읽기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어 문장 성분 간 호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고립어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보다는 단어와 단어 간의 조합(搭配[9])을 더 중시한다. 오

[9] 예를 들면, ‘먹다’에서 ‘밥’을 먹을 경우에는 ‘吃饭’으로, ‘죽’을 먹을 경우에는 ‘喝粥’이렇게 조합(搭配)가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연어 관계와 비슷하다.

히려 중국어에서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 안에서가 아니라 문장 밖에서의 호응 즉, 전반 텍스트에서 앞 뒤 문맥 간의 호응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 주어 또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비호응, 부사와 서술어의 문법적 비호응 등과 같은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목표어와 모국어의 차이 때문이다. 우선, 언어적 형태 차이 즉 중국어는 문법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가 거의 없고 어순과 위치만으로 문법적인 형태를 타나내는 언어이다 보니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연히 조사에 대한 인식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를 생략하거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등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 주어 또는 목적어의 격조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이 빈번하게 생성된다. 다음은 문장 구조의 차이로, 특히 이중주어문이나, 이중목적어문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에게 서술어와 호응하는 격틀구조를 동시에 교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중심으로 문장 지도의 교육 방안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중심으로 한 문장 지도의 교육 방안

교육 목표	의미와 기능적 지도 아래에서 문장의 구조, 즉 문장 구성 성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의미, 기능과 연결시켜 정확한 한국어 문장을 생성하고,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	1. 문장 성분과 성분 간 호응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한다. 2.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가르친다[10]. 3.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서는 주어의 인칭 대명사와 서술어의 높임 자질의 일치(예: '저……-ㅂ/습니다; 나……-ㄴ/는/다' 등), 서법 상의 제약(예: '우리……명령 X' 등), 유생물 또는 무생물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적 호응(예: '야채는 건강하다. X' ; '취미는……-는 것이다. √), 주어와 피동을 나타내는 서술어[11]의 호응 등을 가르치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에서는 이중목적어문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어와 사동 표현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호응을 가르치며,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에서는 '꼭', '왜냐하면', '아무' 등과 같은 학습자 쓰기에서 나타난 고빈도 부사어의 고정적 관계 학습이 필요하다[12].

[10] 한국어 문장 구조의 기본 문형들로는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 '무엇이 어찌하다' , '무엇이 무엇을 어찌하다' ,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되다' 가 있다.
[11] 간혹 "아이들은 연필을 깎다가 칼날에 손을 베이기 일쑤이다."와 같이 목적어와 피동사의 호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동사는 별도로 주의를 줘야 할 것이다.
[12] 개별적 어휘 학습에만 머무르지 말고 문맥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	1. 텍스트를 읽고 내용 이해하기 (질문식) 2. 문장 성분 찾기 (밑줄이나 동그라미로 표시) 3. 호응에 대해 알아가기 (스스로 규칙을 찾거나, 또래끼리 토론하고, 교사 피드백하는 방식) 4. 비슷한 글을 써 보기(산출단계) 5.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적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가 수정하기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문장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 양상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문장 성분 간 호응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귀납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2 학년 학습자들만 대상으로 문장 성분 간의 통사적, 의미적 호응 관계 오류를 살펴보았기에 기타 학년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오류 양상을 폭 넓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교육 방안에 대한 효과 검증이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를 시발점으로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강은국(1993), 조선어 문형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남영신(2003),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 까치글방.

석주연(2008),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교육, 박이정.

송현정(2007), 호응 관계연구, 한국학술정보(주).

최윤갑(2009), 한국어 문법 신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于素秋 编(2008), 汉语句内照应关系解析研究, 中央民族大学出版社.

곽수진·김영주(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성분 호응 관계 오류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 의미학회, 29-51.

박정희(2013), 주어와 서술어의 생략 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32, 우리말학회, 39-61.

이익섭(2006), 사회언어학(개정판), 민음사, 201-234.

임유종(1998), 국어 부사의 하위 분류, 어학연구 3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75-204.

진강려(2014), 문장성분 호응 관계를 활용한 한국어 문장 교육 연구, 선청어문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05-127.

허영실(2006), 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문장성분 호응 지도 내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Donara Harutyunyan (2013), 아르멘아 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장 지도 방안 연구, 서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Lyons, J (1977), Semantics(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지미영

길림사범대학교

중국 길림성 사평시 철서구 해봉대로 1301

136000

139-4440-9863

chimeiying617@126.com

방위명사의 의미와 단어 형성 참여 양상

-‘上’과 ‘下’에 관한 의미를 중심으로-

곽휘, 지성녀[1]

(广东外语外贸大学南国商学院)

<요약>

한국어에서 공간 개념을 나타나는 어휘는 명사의 하위 부류에 속해 있다. 이러한 명사는 보통 방위명사라고 하는데, 이런 방위명사는 일종의 관계명사라고 할 수 있다. 관계명사는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 여러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위명사는 기본적으로 방향 및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은유와 문법화 과정을 거쳐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본고는 한국어 방위명사 중에 ‘상’과 ‘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위/아래’와 ‘상/하’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관련된 의미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형성 참여 양상과 통사적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방위명사 중에 ‘상’과 ‘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위/아래’와 ‘상/하’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고, 관련된 의미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형성 참여 양상과 통사적 특징을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어는 영어와 같은 인도유럽어계에 속한 언어와 달리 공간적 개념이 명사의 하위 부류인 방위명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위/아래’와 같은 고유어 방위명사뿐만 아니라, ‘상/하’등 한자어 방위명사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방위명사는 기본적으로 공간 개념과 관련된 의미에서 나타나지만, 은유와 문법화 과정을 거쳐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미에서 일부 방위명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단어의 한 구성 요소로써 합성어와 파생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위/아래’와 ‘상/하’는 각각 고유어와 한자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새로 생성된 복합어의 형태와 통사적 특징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위/아래’와 ‘상/하’의 의미를 분류하고,

[1] 곽휘,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한국어학과 강사
지성녀,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한국어학과 부교수

각 의미에서 생성된 복합어의 형태와 통사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위/아래’의 의미 및 단어 형성 참여 양상

‘위/아래’는 방위명사로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공간 개념을 나타내며 위치 및 방향을 지시한다. ‘위/아래’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아래’의 뜻풀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	아래
① 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 쪽. 또는 사물의 중간 부분보다 더 높은 쪽.	① 어떤 기준보다 낮은 위치
② 길고 높은 것의 꼭대기나 그 쪽에 가까운 곳.	
③ 어떤 사물의 거죽이나 바닥의 표면.	
④ 신분, 지위, 연령, 등급,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더 높거나 나은 쪽.	② 신분, 지위, 연령, 등급,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낮은 쪽
⑤ 글 따위에서, 앞에서 밝힌 내용.	④ 글 따위에서, 뒤에 오는 내용
⑥ 강 따위의 물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이나 부분.	
⑦ 시간적 순서가 앞에 오는 것.	
⑧ 어떤 일이나 조건 따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테두리나 범위.	③ 조건,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
⑨ 어떤 것의 바깥이나 이외.	
	⑤ ‘음부’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표(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아래’의 뜻풀이를 보면, ‘위/아래’의 의미는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아래’의 뜻풀이를 보면, ‘위’의 의미는 ‘아래’의 의미보다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하다. ‘위/아래’의 이러한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많이 생성되며, 단어 형성에서 합성어의 제 1 요소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제 2 요소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제어를 검색해 보면,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어가 많으며 그 형태와 의미적 특징도 다양하지만 제 2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어는 그리 많지 않다.

(1) X+ 위: 손위, 물위, 밑위, 아래위
X+ 아래: 곁아래, 뜰아래, 물아래, 밑아래, 바람아래, 발아래, 손아래, 위아래

(1)에서는 ‘위/아래’가 제 2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어이다. 이들은 어휘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성어가 생성될 때 그 형태적 규칙이나 의미적 특징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반면에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어는 그 형태와 의미적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형성된 합성어의 형태적 양상을 보면 ‘위, 윗, 우, 웃/아래, 아랫’이 있다.

(2) 위/아래 + X: 위치마/아래치마, 위채/아래채, 위턱/아래턱,
위통/아래통, 위청(廳)/아래청, 위층(層)/아래층,
위편(便)/아래편
윗/아랫 + X: 윗간/아랫간, 윗거죽/아랫거죽, 윗길/아랫길
윗반(班)/아랫반 윗변(邊)/아랫변,
윗사랑(舍廊)/아랫사랑
우/아래 + X: 우댓사람/아래댓사람, 우대(代)/아래대
웃/아랫 + X: 웃동네/아래동네, 웃마을/아래마을, 웃사람/아래사람
웃대(代)/아래대, 웃청(廳)/아래청
(3) 위/웃 + V: 위덮다, 위서다, 웃돌다, 웃보다, 웃자라다, 웃치다

(2)-(3)은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명사와 합성동사이다. ‘위/아래’는 단어의 구성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명사는 대부분 서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 합성동사를 생성할 경우 서로 대칭적인 단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에서 보이듯이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명사에 ‘위/아래’가 합성어 형성요소로 나올 때 뒤에 ‘ㅅ’이 표기된 경우도 있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1 공간적 의미

(4) 꽃병이 책상 위/아래에 놓여 있다.
(5) 서랍은 장롱 위/아래에 있다.

(4)의 '꽃병'과 '책상'은 서로 별개의 대상이며, 책상을 기준으로 꽃병이 책상보다 높거나 낮은 위치에 놓일 때 '위/아래'를 사용하여 가리킨다. (5)의 서랍과 장롱은 서로 별개의 대상일 수도 있고, 서랍은 장롱에 포함될 수도 있다.

(6) 위에서 설명한 조성 의무를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7)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6)과 (7)에서의 '위/아래'는 지면적인 공간과 관련된 의미에서 나타난다. (6)의 '위'는 말이나 글 따위에 지면상에서 먼저 언급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7)의 '아래'는 반대로 그 다음에 기술할 글이나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앞에서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어의 형태적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지시대상은 그 자체가 상하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위'는 하늘을 향하는 쪽이고 '아래'는 땅을 향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8) 위층/아래층, 위씨방/아래씨방, 위틀/아래틀, 위띠방(枋)/*아래띠방,
윗삼/*아랫삼, 윗중방(中枋)/아랫중방, 윗세장/아랫세장, 윗알/이래알

(8)에서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생성된 합성명사를 보면, '위/아래'는 지시대상의 '위쪽/아래쪽 부분'의 의미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 인간이나 동물 등의 몸과 관련된 합성어를 특별히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몸에 착용하는 의류와 관련된 합성명사도 많이 나타난다.

(9) 위대정맥(大靜脈)/아래대정맥, 위턱/아래턱, 위팔/아래팔,
위팔뼈/아래팔뼈, 윗눈시울/아랫눈시울, 윗눈썹/아랫눈썹,
(10) 윗도리/아랫도리, 윗마기/아랫마기, 윗벌/아랫벌, 윗옷/아래옷,
아래윗벌/*윗아래벌, 윗막이/아랫막이

이상 논의를 정리하자면, '위/아래'는 '어떤 기준보다 더 높은/낮은 쪽'이라는 공간적 의미에서 가리키는 위치는 일반적으로 서로 대칭되어 있으며 상하관계는 중력에 의하여 결

정되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한 기준점이 선정되면 '위'와 '아래'의 위치는 대칭적으로 나타나며,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형태상으로 '위/아래'가 제 1 요소로 쓰여 생성된 공간 개념과 관련된 합성어의 양상을 보면, '위/아래'가 단어 구성요소로써 보이는 형태적 양상이 '위, 윗, 우, 웃/아래, 아랫'가 있는데, 명사와 결합할 때 뒤에 'ㅅ'이 표기된 경우도 있고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위/아래'로 형성된 합성명사는 서로 대립적으로 반의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의어의 쌍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2.2 시간적 의미

'위/아래'는 공간적 의미 외에 시간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시간적 의미는 주로 '시간적 순서가 앞에 오는 것'에서 많이 나타난다. 즉, '위/아래'는 시간 줄에서 '위'는 '과거, 먼저'를 의미하고, '아래'는 '미래, 나중'을 뜻한다.

(11) 한반도의 역사는 위로 1 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1)의 '위'는 '시간적 순서가 먼저 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준의 대상이 '현재'라는 시간 개념이다. '현재'라는 시간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로 1 만 년 전'을 의미한다.

'위/아래'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로 자립적으로 쓰이며 단어 구성요소로 생성된 합성명사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2.3 추상적 의미

'위/아래'의 추상적 의미는 크게 두 군데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신분, 지위, 연령, 등급,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높/낮은 쪽'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조건,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위/아래'의 추상적 의미는 은유나 문법화 과정을 거쳐 실현한다. 은유는 '어떤 사물이나 경험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은유란 한 개념을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2]

[2] Lakoff 과 Johnson(1980)은 은유를 구조은유(structural metaphor), 지향은유(orientational metaphor), 존재은유(ontological metaphor)와 영상은유(image metaphor) 네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 그 중에 공간 개념과 많이 연관되는 은유는 지향은유이다. 지향은유는 '상'과 '하'의 의미관계 등의 공간적인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까지 끼치고 있다.

(12) 위로는 회장에서, 아래로는 평사원까지 모두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13) 나이는 그보다 세 살 아래였지만, 그녀는 그를 남동생처럼 대했고 많이 챙겼다.
(14) 우리 고유 문화의 바탕 위에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15) 8 일자에서도 합참 발표를 인용해 '서해 교전은 북한 해군이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지른 의도적 도발임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Lakoff & Johnson(1980)에서는 '위'에 대한 영상 도식이 '좋은 것, 많은 것, 통제나 힘이 있는 것, 높은 지위, 의식, 건강과 삶, 미덕, 행복, 이성적인 것, 미래, 앞'으로 나누고, '아래'는 '나쁜 것, 적은 것, 통제나 힘에 따르는 것, 낮은 지위, 무의식, 아픔과 죽음, 타락, 슬픔, 감정적인 것, 과거, 뒤'로 분류하였다.[3] (12)의 '위/아래'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은 '위'로, 반대로 형편상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래'로 지칭하였다. (13)의 '아래'는 '나이'의 의미를 나타난다. '위'는 연령은 어떠한 기준보다 더 많은 쪽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는 반대로 어떠한 기준보다 더 적은 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14)와 (15)의 '위/아래'는 '조건, 영향 따위가 미치는 범위'라는 의미를 뜻한다. '위/아래'가 단어의 구성요소로써 생성된 추상적 의미와 관련된 합성어로는 주로 '신분, 지위, 연령, 등급, 정도 따위에서 어떠한 것보다 높/낮은 쪽'에서 나타난다.

(16) 손위/손아래
(17) 윗누이/*아랫누이, 윗사람/아랫사람, 윗자리/아랫자리, 웃청/아래청, 윗길/아랫길, 웃어른
(18) 위덮다, 위서다, 웃돌다, 웃보다, 웃자라다, 웃치다

3. '상/하'의 의미 및 단어 형성 참여 양상

한국어에서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도 공간 개념에서 많이 나타난다. 먼저《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상/하'의 뜻풀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상:「명사」① '임금'의 높임말.② 품질이나 등급을 나눌 때, 비교적 뛰어나고 좋은 부분. ③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말.
-상:「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①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3] 임지룡(1988)에서도 '위/아래'가 추상적 의미로 쓰일 때 흔히 질적인 극성의 대립 곧 긍정 대 부정의 가치 평가 개념이 있다고 하였다.

②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하:「명사」①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말② 품질이나 등급을 둘 또는 셋으로 나눌 때의 맨 끝
-하:「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①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상/하’의 공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를 기술하였다.《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상/하’의 추상적 의미를 하나 더 추가로 등재하였다. ‘상’은 일부 한자말 이름씨에 뒷가지처럼 쓰이어, ‘-에서’, ‘-의 관계로’ 따위의 뜻이고 ‘하’는 일부 한자말 이름씨 아래에 쓰이어 ‘처지, 조건’ 따위의 뜻이라고 하였다.

3.1 공간적 의미

‘상/하’의 기본적 의미는 물체의 위/이래 쪽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19) 통영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 표류 중이던 선원이 4 명 무사히 구조되었다.
(20) 교교한 심야의 월하를 홀로 가는 그 고귀한 정회를...

‘해상’과 ‘월하’는 각각 ‘바다 위’와 ‘달 아래’라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공간 개념을 기술할 때 주로 고유어 ‘위/아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하’는 문장에서 자립명사로 공간 개념을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단어의 구성요소로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공간 개념과 관련되는 합성명사를 많이 생성한다.

(21) 상동(上同)/하동(下同), 상략(上略)/하략(下略), 상례(上例)
(22) 가상(架上) 각상(閣上) 갑상(甲上) 강상(江上) 관상(棺上) 기상(機上)
난상(欄上) 두상(頭上) 면상(面上) 벽상(壁上) 봉상(峰上) 수상(樹上)
(23) 각하(脚下) 강하(江下) 계하(階下) 교하(橋下) 궐하(闕下) 기하(旗下)
등하(燈下) 산하(山下) 성하(城下) 송하(松下) 수하(樹下) 안하(案下)

3.2 시간적 의미

사전에서 ‘상/하’의 시간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단어 구성의 제 1 요소로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이전’, ‘이후’의 의미를 나타난다.

(24) 상오(上午)/하오(下午), 상순(上旬)/하순(下旬),

상반기(上半期)/하반기(下半期), 상반년(上半年)/하반년(下半年)
(25) 상년(上年)

3.3 추상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과《우리말 큰사전》에 따르면, '상/하'의 추상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품질이나 등급을 나눌 때, 비교적 뛰어나고 좋은 부분/낮은 부분'에서 '상/하'의 양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상/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질 때 문장에서 한 성분으로 자립적으로 쓰여 나타날 수도 있고, 단어의 구성요소로써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명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26) 이 사과는 품질이 상에 속하다.
(27) 성적이 하에 머물렀다.
(28) 상품(上品)/하품(下品), 상등품(上等品)/하등품(下等品),
상책(上策)/하책(下策), 상류(上流)/하류(下流), 상급(上級)/하급(下級)
(29) 상객(上客), 상형(上刑), 상늙은이

'상/하'는 일부 한자말 이름씨 아래에 쓰여 '처지, 조건' 따위의 뜻을 많이 나타내기도 한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러한 '-상/하'를 접사로 처리하고 방향 및 위치의 의미를 나타나는 '상/하'와 구분하여 별도로 등재하였다. 접사는 다시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눌 수 있고, 파생어도 접두사에 의한 것과 접미사에 의한 것이 있다. '-상/하'는 접사로 쓰일 때 접두사로 쓰이지 않고, 접미사로만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생성하였다.

(30)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외관상 절차상 전산상 통신상
(31) 원칙하 지도하 지배하 식민지하

4. 방위명사의 통사적 특징

한국어에서 공간 개념을 나타나는 어휘가 명사의 하위 부류에 속해 있다. 이러한 명사는 보통 방위명사라고 부르는데, 방위명사는 일종의 관계명사라고 할 수 있다. 관계명사는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세계 여러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아메리카에서 사용하는 마야어(Mayan languages), 멕시코 일부지역에서 사용하는 Mixe-Zoquean languages,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베트남어와 태국어,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도 관계명사의 양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영어, 불어, 러시아 등 언어에서 관계명사의 기능은 전치사 혹은 후시차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관계명사는 명사의 하위 부류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명사와 달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두 명사나 명사구 간의 공간 관계, 시간 관계, 인과 관계, 목적 관계, 위치, 이동 등 여러 관계를 실현할 때 사용된다.

관계명사는 두 명사 간의 여러 관계를 실현하는데 이 중에 공간 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간 관계와 관련된 용어는 많은 언어에서 존재하고, 이들이 공간개념어로 부르기도 하다. 한국어에서도 '상', '하', '위', '아래' 등 방향 및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관계명사를 찾아볼 수 있다. 세계 여러 언어에서 방향 및 위치와 관련된 공간 개념어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각 언어에서 실현방법은 서로 다르고, 통사 기능 및 의미적 특징도 한국어와 다른 양상이 보인다. 인도 유럽어족 중에 대표적인 영어는 명사의 하위 부류에 들어가 있는 front, back, top, bottom 과 같은 공간 명사도 있지만 방향 및 위치를 기술할 때 주로 전치사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in, on, under, below, above 등 공간 전치사는 명사 앞에 나타나 두 사물의 위치 관계를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공간 전치사는 공간 명사 앞에 나타나 in + front of, in + back of, on + top of 와 같은 전치구로 방향 및 위치 관계를 기술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는 중국어에서 방위사를 통하여 방향 및 위치 관계를 표현한다. 중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에 따라 중국어 방위사는 명사의 하위 부류에 속하는 주장도 있지만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어에서'위/아래'는 문장에서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로 자리명사로서 나타날 수 있고, 단어의 한 구성요소로써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어서 관련된 의미를 기술할 수도 있다. 반면에 '상/하'는 문장에서 자립명사로 나타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단어의 구성요소로써 사용되거나 후치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하'는 일부 한자어 명사 뒤에 쓰여 'X(한자어) + 상/하'의 식으로 '사유, 처지, 조건' 따위의 뜻으로 나타낼 경우 '-상/하'는 후차사적인 용법과 아주 비슷하다. 후치사는 문장에서 스스로 완전한 독립 형식이 되지 못하는 부속어로서 인구어의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상/하'의 추상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관리상, 예의상, 배경하, 지배하'는 후치사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상으로 한국어 방위명사 중의 '상'과 '하'의 의미를 나타내는 '위/아래'와 '상/하'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미를 분류하고, 관련된 의미에서 나타나는 어휘의 형성 참여 양상과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유어 '위/아래'와 한자어 '상/하'는 기본적으로 공간 개념의 의미에서 나타나지만, 은유와 문법화 과정을 거쳐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위/아래'는 문장에서 공간적 의미, 시간적 의미와 추상적 의미를 뜻할 때 자립명사로

서 나타날 수 있지만, ‘상/하’는 그렇지 못하고 단어의 한 구성요소로써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만들어서 관련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위/아래’는 단어의 구성요소로써 합성어를 만들 때 주로 제1요소로 나타나고, 생성된 합성어는 형태적 특징도 ‘위, 윗,우, 웃/아래,아랫’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상/하’는 제 1 요소와 제 2 요소로 모두 활발하게 참여하여 관련된 복합명사를 만들었다. 특히 추상적 의미에서 제 2 요소로 나타날 때 후치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는 일부 한자어 명사 뒤에 쓰여 ‘X(한자어) + 상/하’의 식으로 ‘사유, 처지, 조건’ 따위의 뜻을 뜻할 때 뒤에 다양한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X + 상/하’는 보통 ‘의, 로, 에, 에서’와 결합하는데 이 결합 방식은 크게 관형어 용법과 부사어의 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길본일(1997),「한국어의 시간 인식과 표현」,《우리말연구》7, 2-12

김동식(1981),「복합명사를 찾아서」,《국어학》 24, 385-401.

김선희(1987),《현대국어의 시간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1988),「공간어와 시간적 의미」,《목원어문학》 7,

김창섭(1996),《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양상》, 태학사

노양진・나익주(2006),《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노재민(2009),《공간어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현식(1990),「공간어와 시간어의 상관성(1)」,《국어학》 20, 47-71.

박경현(1986),《현대국어 공간개념아의 의미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영순(2000),《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서은(2004),《공간어에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손뢰(2010),《한국어 위치어 및 관련 단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평호(2012),「공간말 '위', '아래'의 의미」,《한국어 의미》39

신은경(2005),《국어 공간어의 의미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지룡(1980),「국어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 개념」,《국어교육연구》 12

임지룡(1988),「극성의 의미 대립 양상」,《국어교육연구》 20, 79-101

임지룡(1991),「의미의 상하관계에 대하여」,《들메서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693-705

임지룡(2003),《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임혜원(2004),《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전수태(1997),《국어 반의어의 의미구조》, 박이정

최지영(2006),《在...上/下 형식의 어법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휘, 지성녀

소속: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510545 광주시 백운구 광동외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원 한국어과

전화: 13922157905

E-mail: canlisus@126.com

국어 피동사의 함축 의미와 상(相)적 특성 연구

유영영

(산동대학교)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피동사의 함축 의미와 상(相, aspect, 体)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피동사는 독특한 상적 특징을 띠며 의미에 따라 상적 유형이 달라지는데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달성동사로, 가능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상태동사로 쓰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히/리/기'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은 능동문의 변형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즉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에 의해', '~에게'로 실현), 능동사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되어 피동사로 전환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현실에서 피동문은 언제나 대응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나. 벽에 걸려 있는 시계가 보였다. ↔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봤다.
다. 날씨가 풀렸다. ↔ *날씨를 풀었다.
라. 요즘 밥이 잘 먹힌다. ↔ (?나는) 요즘 밥을 잘 먹는다.
마. 눈이 잘 보인다. ↔ *눈을 잘 본다.

(1 가)의 '잡히다' 피동문은 기존의 논의에서 전형적인 피동문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뒤의 '잡다' 능동문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1 나)에서 '보다'를 "목격하다"로 해석할 경우에는 '보다' 구문과 '보이다' 구문이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보다'를 "관찰하다"로 해석한다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없다. (1 다)~(1 마)는 피동문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것들이다. (1 다)에서 '풀리다'는 '풀다'로부터 파생된 피동사로 볼 수 있으나 '날씨를 풀다'가 쓰이는 능동문은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피동사가 자체적으로 의미확장되는데 (1 다)에 쓰이는 '풀리다'는 확장된 의미로 쓰여 '풀다'와의 연관성이 약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풀리다'를 독립적인 자동사로 보는 것이 더욱 직관에 맞을지도 모른다. (1 라)의 '먹히다' 피동문은

뒤의 능동문과 어색한 대응을 이룬다.(1 마)에서는 '보이다'의 능동문을 만들어 보았을 때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눈'은 보는 대상이 아니므로 '보다'의 목적어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장을 피동문으로 봐도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보이다' 그 자체가 피동사라는 점에서 (1 마)와 같은 경우를 피동사의 용법 중의 하나로 본다면 무리가 없는 듯하다.

능동문은 사건 전체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하면 피동문은 그 결과시점에서 그 사건을 기술하고 결과상태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신 외 2000, 오충연 2008). (1 가)~(1 다)와 같은 피동사는 바로 이에 해당되어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1 라)와 (1 마)의 피동사는 상태성을 드러내지만 의미면에서 결과상태가 아닌 가능이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4] 피동사의 이러한 의미적 차이가 상적 차이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피동사가 상적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피동사의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의미에 따라 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상적 유형과 피동사

동사는 시간적인 흐름과 관련된 사태를 표현하므로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가 어떠한 모습인지와 관련된 '상'은 동사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김윤신 2006:32). Vendler(1967)에서는 술어를 상태(state), 행위(activity),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ment)이라는 네 가지 상적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Smith(1991)에서는 동사 자체가 아닌 동사구의 상황유형을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성(accomplishment), 순간(semelfactive), 달성(achievement)으로 세분하였다. 각 상황유형이 가지는 시간적 자질은 다음과 같다.

(2) 가. 상태(state): [-역동성(dynamism)], [+지속성(duration)], [-종결성(telicity)]
나. 행위(activity):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다. 완성(accomplishment):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라. 순간(semelfactive):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마. 달성(achievement):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상태동사는 다른 유형의 동사와 달리 역동적이지 않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예쁘다', '깊다' 등을 들 수 있다. 행위동사와 완성동사는 모두 역동적이고 지속적이지만 완성점을 가지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달리다', '먹다' 등은 비종결적인 특성을 지니는

[4] 피동사의 가능 의미와 관련하여 목정수·김영중(2006)과 시라이시(2008)에서 논의한 바 있다.

행위동사에 속하고, ‘만들다’, ‘짓다’ 등은 종결적인 특성을 지니는 완성동사에 속한다. 순간동사와 달성동사의 경우는 양자가 모두 역동적이고 비지속적이지만 완성점의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 비종결적인 순간동사의 대표적인 예는 ‘반짝이다’, ‘기침하다’ 등이 있고, 종결적인 달성동사의 대표적인 예는 ‘도착하다’, ‘죽다’ 등이 있다.[5]

한국어에서는 ‘T-동안’, ‘T-만에’ 등의 시간 부사어와 ‘-고 있다’, ‘-어 있다’ 등이 相의 검증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조민정 2001, 홍윤기 2002, 남승호 2004, 김윤신 2006). 지속 시간 부사어 ‘T-동안’은 지속되는 시간을 가리켜 대체로 지속성을 지니는 동사와 어울리며, ‘T-만에’는 시작점에서 완성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가리켜 종결성을 갖는 동사와 어울린다. ‘-고 있다’는 동작이나 사건의 진행이나 반복, 결과상태의 지속 등을 나타내며, ‘-어 있다’는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와 결합하여 결과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검증방법은 동사의 상적 유형을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결합이 불가능한 동사 유형이어도 일정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결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어 동사의 상적 유형을 논의하면서 어떤 유형의 능동사가 피동사와 대응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피동사는 모두 타동사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상적 유형을 논의하는 데 타동사의 예만 제시하기로 한다. ‘-어 있다’는 타동사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T-동안’, ‘T-만에’와 ‘-고 있다’만 상적 요소로 사용하겠다.

다음은 상태동사 ‘견디다’가 상적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3) 가. 영희가 오래 견뎠다.
나. 영희가 잘 견디고 있다.
다. *영희가 한 시간 만에 견뎠다.

(3 가), (3 나)와 같이 지속성을 갖고 있는 상태동사 ‘견디다’는 ‘T-동안’, ‘-고 있다’와 잘 결합하는데 견디는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쁘다’, ‘깊다’와 같이 영구적인 성질을 가지는 상태동사는 ‘T-동안’, ‘-고 있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3 다)와 같이 ‘T-만에’는 종결성을 갖지 않는 ‘견디다’와 결합하기 어렵다. 오충연(2008:125-6)에서도 지적했듯이 피동이 사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건성이 없는 상태동사는 피동사 파생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순간동사가 상적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5] 본고에서는 동사구의 상적 유형을 동사의 상적 유형과 동일시한다.

(4) 가. ?*철수가 밥상을 상보로 한 시간 동안 덮었다.
나. ?*철수가 밥상을 상보로 덮고 있다.
다. ?*철수가 밥상을 한 시간 만에 덮었다.

(4 가), (4 나)에서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덮다'는 'T-동안', '-고 있다'와의 결합이 자유롭지 않지만 완전히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4 가), (4 나)가 받아들여진다면 "덮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4 다)에서처럼 'T-만에'와 '덮다'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않다. 만약 (4 다)가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철수가 한 시간 후에 덮었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4)의 '덮다'는 대응되는 피동사 '덮이다'가 있다. 따라서 드물기는 하지만 순간동사는 피동사의 파생이 가능하다. '꼽다', '꽂다', '끄다' 등이 그것이다. 순간동사가 과정성이 없기 때문에 피동사로 파생될 수 없다고 지적했던 오충연(2008:125-6)의 논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행위동사 '흔들다'가 상적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5) 가. 철수가 손을 5 분 동안 흔들었다.
나. 철수가 손을 흔들고 있다.
다. ?*철수가 10 분 만에 손을 흔들었다.

(5 가), (5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행위동사 '흔들다'는 [+역동성]과 [+지속성]의 자질로 인해 'T-동안', '-고 있다'과 잘 결합한다. (5 다)에서처럼 '흔들다'는 종결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T-만에'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 만일 (5 다)가 문법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철수가 10 분 후에 손을 흔들었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흔들다', '밀다' 등과 같은 일부 행위동사는 대응되는 피동사가 있다.

종결성을 가지는 달성동사와 완성동사는 피동 파생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다음은 달성동사가 상적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6) 가. *1 분 동안 실을 끊었다.
나. *실을 끊고 있다.
다. 10 초 만에 실을 끊었다.

(6 가), (6 나)와 같이 '끊다'는 'T-동안', '-고 있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이것은 '끊다'의 [-지속성] 자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 다)와 같이 '끊다'는 [+종결성] 자질로

인해 ‘T-만에’와 잘 결합한다. 이때 ‘10 초 후에 실을 끊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달성동사 ‘끊다’와 순간동사 ‘덮다’의 차이는 상태 변화로 끝나느냐에 있다. 끊긴 대상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만 덮인 대상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은 완성동사가 상적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7) 가. 엄마가 5 분 동안 사과를 깎았다.
나. 엄마가 사과를 깎고 있다.
다. 엄마가 5 분 만에 사과를 깎았다.

(7 가)에서처럼 ‘깎다’는 ‘T-동안’과 결합하여 5 분 동안 깎는 과정이 계속 진행됨을 의미한다. (7 나)와 같이 ‘깎다’가 ‘-고 있다’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깎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7 다)는 종결성을 가지는 ‘깎다’가 ‘T-만에’와 잘 결합함을 보여준다. 이때 ‘사과를 깎는 데 5 분 걸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과정과 결과상태를 포함하는 복합사건을 나타내는 완성동사는 (7 가), (7 나)와 같이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7 다)와 같이 결과상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3. 결과의 의미와 상적 특성

2 장의 논의를 통해서 상태동사를 제외한 일부 순간동사, 행위동사, 달성동사와 완성동사는 대응되는 피동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달성동사와 완성동사의 경우는 [+종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당 피동사도 [+종결성]을 그래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의 [+종결성]은 결과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순간동사와 행위동사의 경우는 그 자체가 [+종결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당 피동사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결성의 유무는 ‘T-만에’와의 결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8) 가. 실이 1 분 만에 끊겼다.
나. 큰 사과가 5 분 만에 깎였다.
다. 지붕이 5 분 만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덮였다.
라. 큰 나무가 1 분 만에 흔들렸다.

(8)은 각 유형의 능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가 ‘T-만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때 “안 되다가 일정한 시간 후에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만 (8 가)와 (8 나)에서처럼 [+ 종결성]을 띠는 달성동사와 완성동사로부터 파생된 피동사는 ‘T-만에’와의 결합에 있어 매우 자유로운 반면에 (8 다)와 (8 라)에서처럼 [-종결성]을 띠는 순간동사와 행위동사로부터 파생된 피동사는 ‘T-만에’와의 결합에 있어 조건이 주어져야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된다. 그리고 (8 가)와 (8 나)는 주어에 상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며 결과 상태가 유지되지만 (8 다)는 주어에 상태 변화가 없으나 덮이는 결과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8 라)는 주어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사건은 완성점을 함축하지 않는다. 즉, 달성동사와 완성동사, 순간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는 [+ 종결성]이 있는 반면에 행위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는 [+ 종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완성점을 가지는 자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어 있다’와 피동사를 결합시켜 봄으로써 피동사가 결과상태를 나타내는지를 다시 확인하기로 한다.

(9) 가. 실이 끊겨 있다.
나. 접시에 사과가 예쁘게 깎여 있다.
다. 지붕이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다.
라. *나무가 흔들려 있다.

(9 가)~(9 다)는 달성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로부터 파생된 피동사가 ‘-어 있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피동사가 표현하는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동사는 [+ 종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 라)와 같이 행위동사로부터 파생된 피동사 ‘흔들리다’는 ‘-어 있다’와 결합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행위동사의 대당 피동사가 행위동사의 [-종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피동사는 결과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동사가 [+ 지속성]을 띠는지는 ‘T-동안’과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서 확인된다.

(10) 가. *실이 10 분 동안 끊겼다.
나. *사과가 10 분 동안 깎였다.
다. *지붕이 1 년 동안 플라스틱으로 덮였다.
라. 나무가 10 분 동안 계속 흔들렸다.

(10 가)~(10 다)는 달성동사, 완성동사와 순간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들이 ‘T-동안’과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피동사는 [-지속성] 자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0 라)와 같이 행위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는 'T-동안'과의 결합이 허용된다. 이것은 행위동사로부터 이어받은 [+지속성] 자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피동사가 '-고 있다'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11) 가. *실이 끊기고 있다.
나. *지붕이 플라스틱으로 덮이고 있다.
다. ?사과가 조금씩 깎이고 있다.
라.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

(11 가)와 (11 나)에서 보듯이 달성동사와 순간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는 [-지속성]을 띠기 때문에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없다. (11 다)과 같이 완성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는 '-고 있다'와의 결합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여기에서 '-고 있다'는 결과 상태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완성동사의 대당 피동사에 대한 [-지속성]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 (11 라)와 같이 행위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 있다'와 결합하여 사건의 진행을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달성동사, 완성동사와 순간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는 [+종결성]과 [-지속성]을 띠기 때문에 달성동사와 같은 상적 특성을 보여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행위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는 [-종결성]과 [+지속성]을 띠기 때문에 행위동사와 같은 상적 특성을 보여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는 중점이 결과상태에 주어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중점이 과정에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능의 의미와 상적 특성

한국어의 피동사는 화용론적으로 피동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2) 가. 저 건물이 잘 보여?
나. 이 사과는 껍질이 잘 깎인다.
다. 책이 잘 읽힌다.
라. 중국 콘텐트에 한국 플러그도 잘 꽂힌다.

(12 가)의 '보이다'는 피동의 의미가 약한데 건물이 보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뜻을 나타

낸다. 여기에서 '보이다'는 '볼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의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그 앞에 '잘'이나 '안' 같은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가능의 의미가 더 뚜렷해진다. (12 나)~(12 라)의 '깎이다', '읽히다', '꽂히다'도 '보이다'와 같은 성격을 띤다.[6] (12)의 피동사와 대응되는 능동사인 '보다', '깎다', '읽다', '꽂다'는 각각 달성동사, 완성동사, 행위동사, 순간동사에 속한다.[7] 즉, 피동사는 어떤 유형의 능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든 모두 가능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13)과 같이 대상 논항이 주어 자리에 오는 (12)와 달리 도구 논항이 피동사의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13) 가. 눈이 잘 보인다.
나. 남성용 면도기가 더 잘 깎인다.
다. 이 브랜드의 믹서기는 잘 갈린다.
라. USB 케이블을 끼워도 덮개가 잘 덮인다.

(13 가)에서 '보이다'의 주어인 '눈'의 의미역할은 도구, 즉 시각을 갖는 대상이지, 시각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능동문의 목적어로 실현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보이다'는 가능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동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의미상 능동사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13 나)의 '깎이다'와 (13 다)의 '갈리다', (13 라)의 '덮이다'도 '보이다'와 같은 특성을 띤다. 본동사가 행위동사, 순간동사, 완성동사, 달성동사 중 어느 유형에 속하든 대당 피동사는 가능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3)의 피동사는 원형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일반 자동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

가능의 의미로 해석되는 피동사는 정적인 특성을 보여서 [+역동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 점은 피동사가 상적 요소와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서 확인된다.

(14) 가. ?*시 자체는 호흡이 길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쉽게 읽혔다.
나. *시 자체는 호흡이 길지 않고 한 시간 만에 쉽게 읽혔다.
다. *시 자체는 호흡이 길지 않고 쉽게 읽히고 있다.
라. *시 자체는 호흡이 길지 않고 쉽게 읽혀 있다.

[6] 가능의 의미로 해석되는 피동사와 관련하여 반사동(anticausative) 혹은 중동 피동(middle passive)으로 본 논의가 있었다. 반사동과 피동은 모두 본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실현된다. 예를 들면 "Anton opened the door"에 대해 반사동은 "The door opened"이고, 피동은 "The door was opened"이다. 피동은 행위자구를 가지지 않을지라도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가 함의되는 반면에 반사동은 상황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7] 달성동사와 행위동사로 쓰이는 '보다'는 달성동사로 쓰일 때만 '보이다'와 대응관계를 이룬다(유영영 2014).

(14)는 대상 논항이 피동사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인데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사가 상적 요소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피동사는 상태동사와 같은 상적 특성을 보여 정적인 상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도구 논항이 피동사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15) 가. 한 동안 눈이 잘 안 보였다.
나. *눈이 수술 후 한 달 만에 잘 보였다.
다. *눈이 지금 잘 보이고 있다.
라. *눈이 잘 보여 있다.

(15)의 '보이다'는 'T-동안'과의 결합만 허용될 뿐이어서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자질을 지닌다. 따라서 '보이다'와 같이 가능의 의미로 해석되는 피동사는 상태동사의 상적 특성을 보여 상태동사로 판정할 수 있다.

달성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와 행위동사 네 가지 유형의 능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는 모두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정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일이 검증하지 않아도 상태동사로 판정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한국어 피동사의 함축 의미에 따른 상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피동사는 일부 순간동사, 행위동사, 달성동사, 완성동사로부터 파생된다. 그 중에 달성동사와 완성동사는 피동사의 파생이 가장 활발하다. 둘째, 달성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의 대당 피동사는 결과상태에 중점을 두어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행위동사의 대당 피동사는 행위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과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셋째, 순간동사, 행위동사, 달성동사, 완성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는 모두 가능의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다. 그리고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사의 주어 자리에는 대상 논항이 오는 경우와 도구 논항이 오는 경우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피동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 피동사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달성동사로, 가능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상태동사로 기능한다.

이 논문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순간동사, 행위동사, 달성동사, 완성동사가 대당 피동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동사와 대응되는 능동사

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같은 피동사라도 취하는 논항의 종류에 따라 다른 문법성과 의미를 보여주는데 본고에서는 피동사의 다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두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윤신(2006),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31-61.

김윤신 외(2000), 한국어 피동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실현, ≪인지과학≫ 11-1, 한국인지과학회, 25-32.

남수경(2007),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남수경(2011), '-어지다' 의미 고찰에 대한 시론,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75-202.

남승호(200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5-124.

목정수·김영중(2006), 한국어 피동문의 구조와 가능의 의미 해석, ≪인문언어≫ 8, 국제언어인문학회, 369-387.

배희임(1988), ≪국어피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시라이시 치에미(2008), 피동표현과 가능속성구문,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113-138.

오충연(2008), 국어 피동의 상, ≪어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111-141.

유영영(2014), 지각동사 '보다'의 의미 연구, ≪언어≫ 39-3, 한국언어학회, 485-504.

조민정(2001),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윤기(2002), 국어 문장의 상적 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S. C.(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Vendler Zeno(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인적사항

이름: 刘荣荣

소속: 산동대학교

주소: 山东省济南市洪家楼 5 号山东大学外国语学院（우편번호: 250100）

전화: 17686600311

전자우편: lemon2086@naver.com

한국 수어사전에 등재된 한자어 수어의 도상적 양상

허윤성

（산동성 하택학원）

1,서론

수어는 농아인들인 손의 동작이나 얼굴 표정 등을 사용하여 의사 전달하는 것으로 중국어에서는 “手势语”또는 “手势表情语”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수화” 또는 “수화어”라고 한다. 수어는 수형(손의 모양), 수위(손의 위치), 수동(손의움직임), 수향(손의 방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얼굴 표정 등 손 이외 다른 표지)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수어는 공용어가 아니다. 각 나라의 국어(한국어, 중국어)가 서로 다른 표현형식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수어도 하나의 언어로서 서로 다른 표현 형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수어에서 한자어 남(南)은 ‘남’은 ‘따뜻하다’의 수어와 같은 기호로 지역적인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 수어에서‘南’은 손바닥을 펴서 손끝이 아래쪽을 향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 논문은 한국수어사전에 나타난 외래어 중의 하나인 한자어 수어의 빈도수를알아내고 이제까지 논의된 바 없는 한자어 수어를 중심으로 하며 이 논문의 논의를 위해 사용한 수어 자료는 한국 수어의 경우『한국수어 사전』(국립국어원 편),중국 수어의 경우『中国手语(수어 사전)』(华夏出版社) 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도상성에 의한 한자어 수어와 중국 수어의 양상을 검토하고 개념적 은유에의한 한자어 수어와 중국 수어에 반영된 개념적차이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수어의 통역 및 보급에도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할 뿐만아니라 한 중 수어간 연구에도 일조하게 될것이다.

주제어: 수어,한자어, 비교, 도상성 ,개념적 은유 , 인지언어학

2, 한국수어의 변천과정 및 언어학적 연구

한국수어는 미국 북감 리교 선교사인 로제타셔우드홀(RossettaShen"loodHall)여사에 의해 청각장애인들의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된 1909 년부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발전되

어 왔다.

1913 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제생원(濟生院)에서 실시한 5 년제 청각장애자 교육에서 일본수어(JSL)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수어에 관한 최초의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80 년대 이후에 서울농아학교 교직원을 중심으로 약 5700 여 단어(수어)가 수록된『표준수화사전』13)이 창간됨으로써 수화 보급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촉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수어통역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체를 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수화 통역사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3 회를 실시하였다.

수어의 언어학적 연구는 Stokre(1960)를 중심으로 1960 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에서도 특수교육이나 언어학적 접근으로 수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한국 수어의 경우, 석동일(1989), 전정례(2002), 이정옥과 이준우{2005), 장진석(2008), 장세은{2008), 최상배(2012) 등이 있고, 중국 수어의 경우, 陳小紅(2011), 李恒과 吳鈴 (2013a, 2013b, 2013c), 劉博(2013), 呂會華와 高立群(2011), 王丹과 鬪學新(2014), 吳鈴(200S), 張磊와 哈平安(2003), 鄭璇(2010) 등이 있다.

한국수어와 중국수어를 비교적 상세하게 비교한 연구는 정은숙(2002)으로 한국수화와 중국수화의 조어 방법, 자주 사용되는 어휘의 비교문장 등 면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또 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 중 수어를 비교한 연구는 석수영(2015), 임지룡과 석수영(2015), 임지룡과 송현주 (2015) 등이 있다.[1]

3, 한자어 수어와 그에 대응되는 중국 수어의 어휘 비교

2007 년에 출판된 『한국 수어사전』에는 총 6856 개의 단어가 들어 있다.그 중 한자어 단어는 4222 개로서 전체 단어의 62%를 차지한다. 그만큼 한국 수어사전 및 수어 교과서 그리고 농아인들의 일상 생활에 수어로 대화를 나눌 때 한자어 단어가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자어 수어 단어에서 가장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ㄱ』자가 들어가는 단어인데 총 639 개로서 전체 단어의 9.3%를 점유하고 있고 두번째로 『ㅅ』자가 들어간 단어가 611

[1]석수영(2016) , <수어의 구조와 의미 간의 상관성 고찰 -한중 신체어를 중심으로> , <언어과학연구 제76집>(2016년 3월)P152.

개, 전체 단어의 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번째로 사용빈도수가 높은 단어는『ㅈ』가 들어가는 단어로 534 개를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단어의 7.8%이다. 사용 빈도수가 가장 적은 것은 『ㄹ』자가 들어있는 단어로 촌 3 개에 불과하다. 이를 도표로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한자어 수어 자모 배열에 따른 빈도수(전체 단어 6856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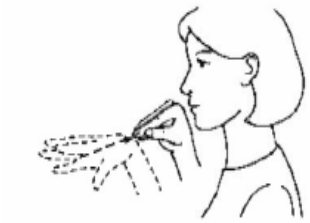
자음	자음의 배열순서로 본 한자어 단어 수량(단위/개)	전체 단어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1. ㄱ	639 개	9.3%
2. ㄴ	114 개	1.7%
3. ㄷ	189 개	2.8%
4. ㄹ	3 개	0.04%
5. ㅁ	270 개	3.9%
6. ㅂ	297 개	4.3%
7. ㅅ	611 개	8.9%
8. ㅇ	526 개	7.7%
9. ㅈ	534 개	7.8%
10. ㅊ	326 개	4.8%
11. ㅋ	4 개	0.06%
12. ㅌ	100 개	1.5%
13. ㅍ	141 개	2.1%
14. ㅎ	468 개	6.8%

< 그림 1>

정은숙(2002)의 『한국수화와 중국수화의 비교』에서는 동형동의 기호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동형동의(同形同義)기호는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 사용되는 손, 수형(手形), 수위(手位), 수동(手動) 또는 수향(手向)이 일치하고, 그 의미도 같은 기호로서 이 기호에는 첫째, 단어가 의미하는 대상, 단어가 의미하는것을 연상하게하는 대상, 또는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상이 같다. 둘째,단어가 의미하는 동작,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관련있는동작,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작이 같은 것은 동형동의(同形同義)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2]

이에 근거하여 '한국 수어[3](Korean Sign Language, 이하 KSL)'와 '중국 수어[4](Chinese Sign Language, 이하 CSL)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한자어 수어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 수어를 찾았다.

KSL



CSL

< 그림 2> '흡수'와 '吸收'

< 그림 2>에서 나타나다 싶이 두 그림의 표현은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놓았다가 안으로 끌어당기며 손끝을 모아대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공기를 마시거나 무슨 음식을 흡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동작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도상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

[2] 정은숙(2002),『한국수화와 중국수화의 비교』,p85페이지 참조.
[3] 2007,『한국 수어사전』,국립국어원
[4] 2003. 『中国手语』,中同聋人协会编,华夏出版社

KSL

CSL

< 그림 3> ‘경찰’과 ‘警察’

<그림 3> 에서 보면 두 그림의 표현은 오른 주먹의 1·2·5[5]지를 펴서 5 지 등을 이마 중앙에 내고 1·2 지를 두 번 상하로 흔든다. 허나 ‘警察’에서는 손 위치가

머리에 있지만 흔드는 것보다 경찰 제복에서 모자의 동그란 마크를 연상시킴으로서 경찰이라는 직업을 표현하도록 한다. 여기서 한자어 수어 ‘경찰’이 나타내려는것은 주요하게 모자, 그에 대응되는 CSL 의‘警察’이 나타내려는 것은 마크다.둘의 공통점은 모두 경찰이라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표식을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기호로 경찰이라는 직업 전체를 나타내도록 한다. 이는 전 세계 경찰 이라는직업이 있는 나라에서 도상성 공통성이 확인되며 또한 인지언어학에서의 외형 기

반 도상적 수어에도 속하게 된다. 임지룡·송현주(2015)에서는 ‘소’, ‘시계’, ‘집’등 세 가지 수어 단어를 예로 들면서 모두 외적인 모양 중 부분을 통해 지시물의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경찰과 ‘警察’의 지시물의 의미를 드러낸 것과 동일한 관점이다.

K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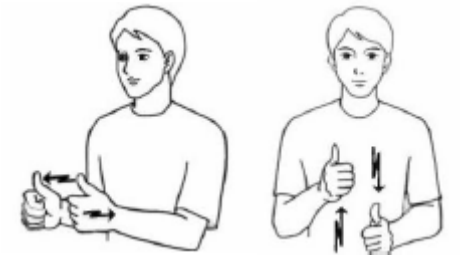
CSL

< 그림 4> ‘뇌’와 ‘脑 ’

[5] 수어에서는 엄지를 5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1지, 2지, 3지, 4지라고 한다.

석수영(2016)에서는 신체어의 수어에 대한 의미 고찰에서 '머리'와 '头'통하여 한국 수어는 머리가 아픈 경험에서 아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동작으로 중국수어는 머리가 아픈 경험에서 아픈 증상의 장소를 가리키는 동작으로 각각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6] .<그림 4>를 보면 KSL 에서는 오른 주먹의 1 지를 펴서 끝으로 머리 위를 가리키지만 CSL 에서는 이마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한자어 수어나 중국 수어는 머리를 가리키는데서 일치한 동작을 나타내며 머리 안에 뇌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 뇌에서 사고를 한다는 은유적 의미도 포함하게 한다. 외적인 모양 중 부분을 통해 지시물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사고의 의미도 포함되며 '머리로 사고하다' 혹은 , '뇌로 사고하다'는 등의 은유적의미에 더욱 다가가게 한다.

KSL 와 CSL 에는 또 한 동작이 비슷하거나 다른 한 동작이 다른 수어도 포합된다. 예를 들면



KSL

CSL

< 그림 5> '경기'와 '比赛'

< 그림 5> 에서 '경기'의 두번째 동작과 '比赛'의 동작은 아주 흡사하다. 여기서 다른 점이면 CSL 에서는 상하 모양만 나타내지만 KSL 에서는 상하 동작과 전후 동작을 같이 나타냄으로써 경기의 치열함을 더 한층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다.

KSL

C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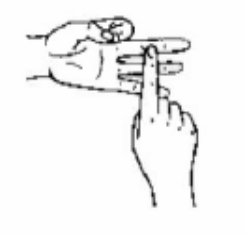
< 그림 6> '가치'와 '价值'

[6] 석수영(2016),『수어의 구조와 의미 간의 상관성 고찰-한중 신체어를 중심으로』,『언어과학연구 제76집』,언어과학회.

< 그림 6>에서 KSL 와 CSL 에서는 1 지와 5 지를 맞대어 동그라미를 형성하고모두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는 첫째, 가치는 금전과 관계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둘째 이는 경제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즉 상하 움직이는 동작은 경제의 파동과도 같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KSL 에 등재된 한자어 수어를 보면 의외로 자주 사용하는데 CSL 에 없는 수어단어가 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가입', '교통사고', '양보', '가장'등 이러한 단어는 평상시에 사용 빈도가 비교적 많은 단어지만 CSL 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볼수 없다. KSL 에서는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연관되는 '교통사고','교통비','교통경찰'등이 수록되었지만 CSL 에서는 '交通'만 있을 뿐 그에 연관되느 단어는 수록되지 않고 있다. 모방식(微字式)단어가 너무 많은 것 이다. 모방식(微字式)양손을 이용하여 한자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모방하거나 혹은 공간에 문자를 적는 것 으로 그 대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CSL 에서 '王'이라는 단어와 KSL 에서 '왕'이라는 단어를 보면

KSL



CSL

< 그림 7> '왕'과 '王'

KSL 에서는 '왕'을 주먹을 쥐고 5 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말하는 '으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지만 CSL 에서는 오른손의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을 일정한 거리로 벌리고 왼손의 검지를 세 손가락에 대면서 '王'자를형성하였다. CSL 에서의 동작은 비교적 중국 실정에 맞지만 이는 반드시 한자를배우는 기초상에서 형성하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경우는 오히려 KSL 의 설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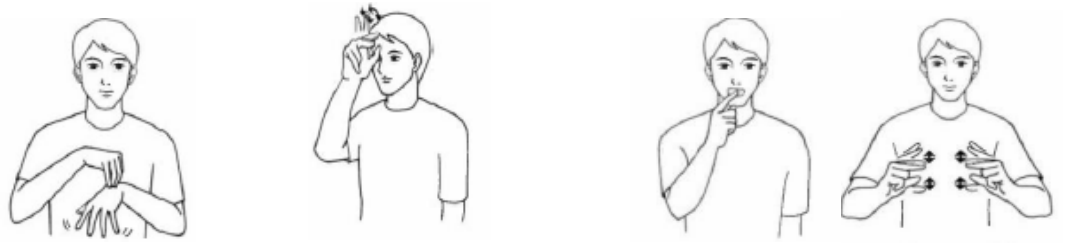
이해하는데 더 쉬울수 있다. 제일 중요한 점은 CSL 에는 모든 단어의 함의를 수록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만 즉 그림과 그림에 해당되는 설명만 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CSL 에서는 국어대사전과 결합하여 단어의 뜻을 해명하고 그림과 그림에 해당되는 설명까지 포함했으며 농아인들이 알기 쉽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수어사전을 편찬하였다.

이는 중국 수어사전이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농아인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이며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4,한자어 수어의 도상적 양상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수어를 연구한 논문은 현재 너무 많은 것은 아니다. 한자어 수어에 대한 연구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적다. 굳이 한자어 수어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면 석수영(2016) 의 『수어의 구조와 의미 간의 상관성고찰 -한중 신체어를 중심으로』에서 신체어에 포함된 한자어 수어, 임지룡·석수영(2015)의 『한중 수어에 나타난 대립어의 양상 비교』에서 대립어에 포함 된 한자어 수어이다.

임지룡·송현주(2015)에서는 도상성[7]에 대해서 형태와 의미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말한다고 하였고 Taub(2001: 19)에서는 수어의 도상성을'영상(image)'과'지시물(referent)' 사이 심적 모델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즉 도상적 수어를 지시물의 외형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와 동작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로 분류하였다.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아래 외형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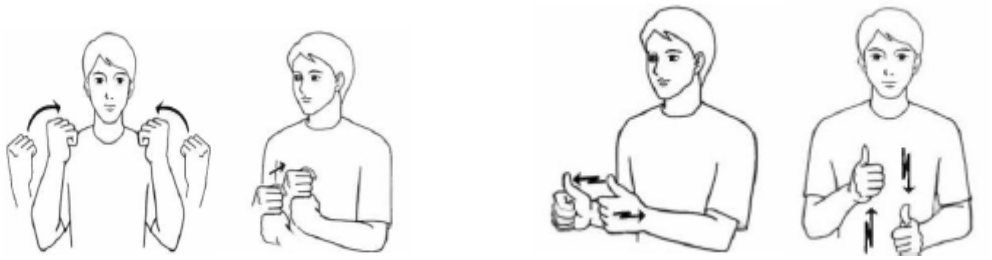


'문어(文魚)' '경찰' '두부'

<그림 8> 외형 기반 도상적 수어

<그림 8> 에서 보면 한자어 수어 '문어(文魚)', '경찰', '두부' 등 모두 외형을 위주로 선정한 수어이다. '문어(文魚)'의 경우 다리가 많다는 것을 왼 손가락을 번갈아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경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모자를 주요하게 연상시키는 것으로 표현하며 '두부' 의 경우는 1· 2·3·4 지 사이를 약간 벌린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 보게 하는 것으로 그 모양을 표현하고있다. '두부' 의 경우는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환유적 의미에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다[8].

[7]임지룡·송현주(2015), 『한국 수어의 동기화 양상』한국어 의미학 49,P69 참조.
[8] 개념적 환유'는 '동일한 틀', '영역', '이상적인지모형' 속의 한 개념적 요소나 실체(사물, 사건, 특성), 즉 '매체(vehicle)'가 다른 개념적 실체(사물, 사건, 특성),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 임지룡·석수영(2015),P94 참조.



보건(保健)　　경기

<그림 9> 동작 기반 도상적 수어

<그림 9> 에서 보면 '보건(保健)'에서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힘주어 당김으로 힘과 건강의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며 주요하게 달아다니는 동작을 나타내면서전후와 상하로 경기의 치열함을 온 몸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수어는 모두몸으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면서 모두 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동작을 기반으로 한 은유적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다.

임지룡·석수영(2015)에서느 개념적 은유가 수어에도 널리 편재해 있다고 하였다. 수어의 경우 KSL, CSL 모두 '생각'을 '머리 부분(관자놀이)'에 대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근원영역은 '머리'에 해당하고, 목표영역은 추상적인 '마음(mind)'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는 개념적 은유 "생각은 사물이다"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추상적인 의미를 통하여 은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수어도 적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공산주의(共産主義)

<그림 10>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자주 쓰는 정치적 용어이다. 두 수어는 벽돌을 쌓는 동작에서는 모두 같지만 민주주의(民主主義) 의 색상과 공산주의(共産主義) 색상을표현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는 하얀 색, 공산주의는 빨간 색으로 표현하는 이 두 동작은 그에 따르는 문화적 배경이 뒷받침 하고 있다. 구소련과 중국의국기가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모두 부단한 과정을 거쳐야 그 사회에 도달할수 있다는 추상적 의미는 벽돌을 쌓는 동작에서 일치함을 보아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한자어 수어에 대하여 『한국 수어사전』에 차지한 비율, 그에 대응되는 중국 수어와의 비교, 인지언학적 관점에서 본 한자어 수어 등 세가지 방면으로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간추려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2007 년에 출판된 『한국 수어사전』에는 총 6856 개의 단어가 들어 있다.그 중 한자어 단어는 4222 개로서 전체 단어의 62%를 차지한다. 그만큼 한국수어사전 및 수어 교과서 그리고 농아인들의 일상 생활에 수어로 대화를 나눌 때한자어 단어가 많이 쓰인 다는 것을 알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한자어 수어와 대응되는 중국 수어를 통하여 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거나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며 또한 도상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CSL 에는 모든 단어의 함의를 수록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만 즉 그림과 그림에 해당되는 설명만 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CSL 에서는 국어대사전과 결합하여 단어의 뜻을 해명하고 그림과 그림에 해당되는 설명까지 포함했으며 농아인들이 알기 쉽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수어사전을 편찬하였다. 이는 중국 수어사전이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농아인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이며 풀어나가야할 숙제이다.

셋째, 임지룡·송현주(2015)의 연구에 나오는 도상적 수어를 지시물의 외형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와 동작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로 분류한다는 이론 근거하여 '문어(文魚)','경찰','두부' 등 모두 외형을 위주로 선정한 수어와 보건(保健) 과 경기 등 동작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를 선정하여 살펴 보았다. 결과적으로형태와 의미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수어의 도상성을'영상(image)'과'지시물(referent)'사이 심적 모델의 관계로 설명한다는 이론에 부합 되었다.

넷째, 개념적 은유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자주 쓰는 정치적 용어인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 두 가지 수어를 통하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색상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하얀 색, 공산주의는 빨간 색으로 표현하는이 두 동작은 그에 따르는 문화적 배경이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두수어의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이 또한 개념적 은유의 의미에 부합되며 동일한 유사성에 바탕을 둔 '도상성'과 '은유'는 종종 동시에존재하거나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번 한자어 수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수어 통역을 위해서는더 많은 정력을 들여 수어 사전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분류하고 ‘중 한 수어사전’이나 ‘중 한 상용어 수어’ 등 서적들을 출판하여 중국과 한국의 농아인들의 교류에 더 많은 편리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1, 국립국어원(2007b), 『한국수화사전』, 국립국어원.

2, 中國聲人協會編輯(2003),『中國手語』,北京華下出版社.

3. 임지룡·송현주(2015),『한국 수어의 동기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49:59-85.

4. 임지룡·석수영(2015),『한중 수어에 나타난 대립어의 양상 비교,『현대문법연구』85: 87-114.

5. 정은숙(2002), 『 한국 수화와 중국 수화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6. 김현희(2013), "한국수화와 일본수화의 유사성 정도가 일본수화의 의미기억에 미치는 영향", 일본학연구 4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365-384.

7. 윤병천(2014), 『한국 수어 코퍼스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8. 강주해(1998),『수화 통역의 필요성과 국내 수화 통역 서비스 실태』, 서울한국농아인 협회,

9. 남기현(2004), 『한국 수화의 동사적 수화 공간과 지형적 수화공간』,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한국수화학회.

10. 장진석(2008), 『한 미 수화 어휘의 언어학적 공통특성 분석-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이름: 허윤성(许闰星)

소속: 하택학원 외국어 학원(菏泽学院 外国语学院)

주소: 산동성 하택시 대학로 2269 번 (山东省 菏泽市 大学路 2269 号)

우평번호: 274015

전화: 18354089891

전자우편: xurunxing@163.com

한국어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

정걸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의 ‘한자어+ 하다’류 능격동사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능격동사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한 뒤, <동아 새국어 사전>에서 총 909 개의 능격동사를 가려내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한자어+ 하다’류 능격동사는 총 401 개로 전체 능격동사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능격동사를 구성하는 ‘하다’는 경동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앞에 붙는 한자어는 서술성 명사의 성격을 가진다. 이중 한자어는 그 구성방식에 따라 연합식(聯合式), 진술식(陳述式),지배식(支配式),편정식(偏定式),동보식(動補式) 등 5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음절어를 구성하는 한자어 형태소 가운데 대부분은 능격형태소가 있다. 그 형태소는 고대 중국어 중에서 능격동사에 속한다. 중국어를 차용할 때 의미뿐만 아니라 통사적 기능도 같이 차용되었다고 본다. ‘하다’와 ‘한자어’ 양자의 결합과정은 어휘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능격동사, 한자어+ 하다, 형태적 특성, 통사적 특성

1. 서론

한국어 중에서 이런 부류의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자타양용이 가능하고 타동사의 목적어는 자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다.

(1) a. 철수 씨는 차를 움직였다.
b. 차가 움직였다.

예문 (1)중의‘움직이다’는 ‘능격동사’라고 한다 (이상억, 1970/1972).(1a)는 타동사구문이고 목적어인 ‘차’는 자동사구문 (1b)의 주어가 된다.

능격동사라는 술어는 Perlmutter (1978)의 ‘비대격 사설’ 중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한국학자들은 1970 년대부터 한국어의 능격동사 및 그 능격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대표적 연구로 이상억(1970, 1972), 김석득(1980) 등을 들 수 있다. 80 년대에 들어 고영근 (1986) 을 비롯하여 통시적인 시각으로 능격동사의 발전양상을 고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는 중세 한국어 중에서 보편적으로 자타 교체현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중세 한국어에 능격동사의 쓰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90 년대에 와서 능격동사 및 능격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화해졌다. 이 시기는 강은국(1993), 고광주(1994), 김문오(1997)를 비롯한 통합적인 연구와 함께 우형식(1996)을 비롯한 이론적 탐구가 있었으며, Kim Young Joo(1990), Chung Tae Goo(1993), 윤만근(1996), 유동석(1998)와 같이 통사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연구도 나왔다. 그뒤 고광주(2001)의 <국어의 능격성 연구>라는 저서가 나왔고, 플로리안(2013)등을 위시하여 유형론의 관점에서 능격동사를 다루려는 새로운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연구대상은 대부분 고유어 중의 ‘움직이다’류 동사에 집중되었다. ‘움직이다’류 능격동사는 전체 능격동사의 5.5%를 차지한다. 반면에 44.1%를 차지하는‘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 새국어 사전>(제 4 판)에서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를 가려낸 뒤 ‘하다’의 속성 및 ‘한자어’의 속성, 그리고 ‘한자어’와‘하다’간의 공기제약을 분석하고 한자어 내부 형태소 간의 관계 등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능격동사의 정의

학계에서는 현재 한국어 능격동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실정이다.능격동사와 자주 혼용하는 술어는‘중간동사 (middle verb)’‘중립동사(neutre verb)’‘양용동사 (labile verb)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등이 있다.

전형적인 능격동사는 동사가 형태변화 없이 동시에 자동사와 타동사 구문에 쓰일 수 있고 타동문의 목적어와 자동문의 주어가 동일한 명사 분포를 취해야 한다. 타동사문와 자동사문 교체시 의미상 사동 의미와 기동 의미(起動 意味)의 교체가 일어난다[1].

[1]기동의미(起動意味)는 쉽게 자동의미로 이해가는데 두 개념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기동의미는 자발의미(自發意味) 에 더 가깝다. 기동의미는 객체 내부의 힘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객체 내부에 자아 발동(自我 發動)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가 멈추었다’. 이 문장의 개념구조는[[y Do-something] cause [y become stop]]이다. 그

‘전형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능격동사 중에 비전형직인 능격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위성 능격동사[2] , 또는 명사 논항간의 소유관계를 지니는 능격동사[3] 등이다.

즉 형태론적으로도 자타 구문 교체시 형태변화가 없어야 한다. 논항수에 따라 두 가지 논항 구조가 있는데 자동구문에 쓰이는 능격동사는 1 원 능격동사라고 하고 타동구문 경우는 그 동사 2 원 능격동사라고 한다. 의미상 타동구문은 사동의미, 자동구문은 기동 의미를 지닌다.

본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필자는 우선 능격동사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1) ‘NP1 이+ NP2 를+ V----NP2 가+ V’구문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2)‘스스로’를 첨가하는 것이다. 만약 첨가하고 비문이 되면 다시 ‘-어지다’를 이용해서 구문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스스로’나 ‘-어지다’ 중의 하나만 통과하면 능격동사다.

즉 위의 기준 (1)과 기준(2)에 모두 부합되는 동사만이 능격동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위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동아 새국어사전>중의 능격동사를 추려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표 1> 한국어 능격동사 수량 통계

분류	움직이다 류	의성의태+ 거리다 류	한자어+ 하다 류	통계
예	(얼굴이)가리다, (옷이)구기다, (이야기가)그치다, (영향이)끼치다, (깃발이)나부끼다	(눈이)깜박이다, (고개가)끄덕이다, (몸이)뒤척이다, (눈이)반짝이다	①(차가)감속하다, (음식점이)개업하다, (자동차가)급정거하다, ②능격모형 ‘X 화(化)하다’: 근대화하다, 장기화하다	

뜻은 Y는 자기에게 어떤 힘을 썼는데 그 결과는 자기를 멈추게 했다는 것이다.

[2] 피위성 능격동사는 주체의 재귀적 피해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다. 즉 행동주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다. 예를 들어, (팔목이)겹질리다, (손이)다치다, (손목이)삐다, (다리가)절다, (마음이)조이다, (마음이)죄다, (몸이)떨다 등이다.

[3] 예를 들어 (입맛이)당기다, (힘이)다하다, (힘이)뭉치다, (힘이)펴다, (머리카락이)흩날리다.

수량	50	458	401	909
비례	5.5%	50.4%	44.1%	100%

<표 1> 중의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는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317 개)이고 예를 들어 '증가하다, 가동하다'등이다. 하나는 능격모형(84 개)이고 예를 들어 '국제화하다, 다양화하다'등이다. 본문의 연구대상은 일반적인 '한자어+하다'류에 한한다.

3. '하다'의 속성과 '한자어'의 속성 및 공기제약

3.1 '하다'의 경동사적 속성

'하다'의 속성에 대해서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3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하다'를 접미사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현배 (1937) 、김창섭(1997) 등이다. 둘째는 '하다'를 동사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정수 (1975)는 형식동사 (empty verb) , 서정수 (1991) 는 '서술 형식 대행 기능소'라고 하고, 심재기 (1982) '서술 기능 완결소'라고 하고, 박병수 (1974) , 허철구 (1997) 는 대동사(proverb)라고 한다. 셋째는, 통사적 접사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창수(1992), 시정곤(1994)등이다.

경동사 (light verb) 라는 개념은 최초로 Jesperson(1949)이 제기했다. 그는 'have a rest, take a walk, give a sigh'등 구조 중의 'have, take, give'그리고 'make, put, do' 등 동사는 의미적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사가 아니기에 경동사라고 한다는 것이다.

(2) a.김영삼 정권이 대학국사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u>격하 (했다)</u> .
b.대학국사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u>격하(했다)</u>.

(2)중의 '격하하다'는 능격동사이다. (2a) 는 능격동사의 타동사문이고 (2b) 는 자동사문이다.'격하하다'중의 '하다'는 의미가 뚜렷하지 않으며 통사적인 기능만 보유된다. '격하하다'의 의미는'격하'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예문(2)는 '하다'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비문은 아니다. 그 이유는 (2a)중'격하'만으로 논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격하'는'김영삼 정권'을 행위자(agent)로 지정하고 '대학국사'를 대상(patient)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한자어'격하'는 서술성을 지닌 서술성 명사 (verb noun)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능격동사 연구 중에서 경동사 관점을 따르는 좋은 점은 '의성의태+거리다'류 능격동사 중의'거리다, 대다,하다, 이다'와 일치성을 유지한다.

목정수・연재훈(2000), 김진해 (2006) 에 따라 '거리다, 대다, 하다, 이다'는 기능동사라고 보는데 본문의 경동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

(3) a.꿈지럭거리다——꿈지럭+거리다
b.꿈틀대다——꿈틀+대다
c.깜박이다——깜박+이다
d.급정거하다——급정거+하다

(3a)(3b)(3c)는'의성의태+거리다'류 능격동사이고 (3d)는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이다. 이상 능격동사는 전부 '서술성 성분+경동사'의 구조를 지니고'서술성 성분'와 '경동사'의 결합은 어휘화의 결과라고 본다.

3.2 '한자어'와 '하다'간의 공기제약

목정수·연재훈(2000:101)에서 X-(를) 하다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도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서술성 명사는 자신의 논항과 공기할 때 주제화가 되지 않는다.

(4) a.철수는 로봇을 작동했다.
b.* 작동은 철수가 로봇을 했다.
c.작동은 철수가 했다.
d.로봇 작동은 했다.

(4b) 는'작동'을 주제화시켜 비문이 되었다. 그 원인은'작동'의 유일한 목적어인'로봇'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된 의미 분석을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4b) 중의 목적어인'로봇'을 빼면 (4c) 가 되고 맞는 문장이 된다. (4d) 가 성립한 이유는'작동'은 자신의 논항과 같이 주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술성 명사는 자신의 논항을 거느린 상태에서 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없다.

(5) a. *철수가 로봇을 한 것은 작동이다.
b.철수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로봇 작동이다.

(5a)는 비문이 되는 원인은 서술성 명사인 '작동'이 자기의 목적어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5b)은 서술성 명사인 '작동'은 자기의 논항인 '로봇'과 나란히 있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된다.

셋째, 서술성 명사는 의문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a. *철수가 로봇을 뭘 했니?
b.철수가 로봇을 작동을 했어.

(6a)가 비문이 되는 원인은 의문대명사가 명사성 성분에 대해서 질문이 가능하고 서술성 명사는 동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문대명사의 질문이 불가능하다.

넷째, 서술성 명사는 그것이 요구하는 논항과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없다.

(7) a.철수가 로봇을 작동을 했다.
b. *철수가 작동을 로봇을 했다.

(7a)와 (7b)중의 '로봇'과 '작동'뒤에 다 '을'이 붙어 있지만 두 개의 '을'은 문법 지위가 다르다. 위의 문장의 문법 구조는 '철수가 [[로봇**을** 작동]**을** 했다]'이다. '작동'과 '로봇'이 자리를 바꾸면 문법구조가 뒤바뀌면서 비문이 된다.

다섯째, 서술성 명사는 관계절의 표제명사가 될 수 없다.

(8) *철수가 로봇을 한 작동은 실패했다.

표제명사는 명사의 속성을 지니어야 하고 서술성 명사는 동사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파괴시킬 수 있다.

여섯째, 서술성명사는 부사와 형용사의 수식을 둘 다 허용할 수 있지만 논항을 동반하는 경우는 부사어에 의한 수식만을 허용한다.

(9) a. 어려운 작동을 했다.
b. 어렵게 작동을 했다.
c. *로봇을 어려운 작동을 했다.
d. 로봇을 어렵게 작동을 했다.

(9c)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서술성명사가 논항을 거느려서 동작성이 강해지고 형용사로 수식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9d)는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해 주기에 자연스러운 문

장이 된다. (9a)(9b)가 성립하는 이유는 그 문장 안에 명사 논항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가 기타 성분을 수식할 때 수식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서술성 명사는 대명사화(=대용화)가 불가능하다.

（10）철수는 로봇을 작동을 하고, 영애는 로봇을 그것을 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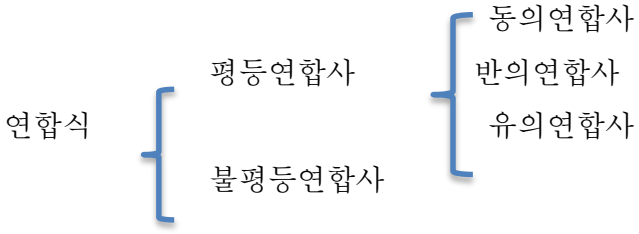
(10)중의 '그것을'은 앞에 있는'작동'을 대용화할 수 없다.

4. 한자어 내부 형태소 간의 관계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 중에서 한자어를 한자수에 따라 다시 단음절어(즉 중국어의 单音词)7 개, 이음절어(즉 复音词)306 개, 삼음사(즉 三音词)4 개, X 화 84 개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중에서 이음절어가 제일 많아 이음절어 내부 두개의 형태소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은 최초에 중국 고대 문헌으로 통해서 한자를 차용했기 때문에 한자가 고대중국어 중에서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자를 차용할 때 조어법과 일부 통사구조를 같이 차용했다고 본다. 본고는 고대중국어의 시각 아래에서 한자어의 내부 형태소간의 관계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程湘清 (2008) 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의 이음절어는 보통 연합식(聯合式), 진술식(陳述式),지배식(支配式),편정식(偏定式),동보식(動補式) 등 5 가지로 나누었다.

4.1 연합식

연합식은 병렬식(竝列式)이라고도 한다. 형태소의 의미에 따라 평등연합사(平等聯合詞)와 불평등연합사(不平等聯合詞)로 나눌 수 있다. 평등연합사는 다시 동의연합사(同義聯合詞), 유의연합사(類義聯合詞), 반의연합사(反義聯合詞) 등 3 가지로 나눈다. 한국어 능격동사 중에서는 동의 연합사와 반의연합사가 있고 유의연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의연합사는 두 형태소의 의미가 거의 동일하는 연합사를 말한다. 두 개의 형태소는 의미가 완전히 같을 수 없고 기본 의미만 같으면 동의엽합사로 귀속시킬 수 있다. 동의연합사를 한자의 품사에 따라 '동사성 한자+동사성 한자' 와 '형용사성 한자+형용사성 한자'로 나눌 수 있다.

(11) a. 동사성 한자+ 동사성 한자: (나무가)마찰(摩擦)하다, (우리가)결속(結束)하다,
(힘이)결집(結集)하다, (유교가)결합(結合)하다,
(10 년이)경과(經過)하다, (적군이)궤멸(潰滅)하다
b. 형용사성 한자+ 형용사성 한자: (쇠가)적열(赤熱)하다, (근육이)이완(弛緩)하다

반의연합사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다.예를 들어 '(소리가)저앙(低昂)하다'이다.

불평등연합사는 두 형태소의 의미중에 같은 의의소를 지니는데 하나의 형태소는 의미가 좁고 구체적이다. 하나는 의미가 총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면 의미가 좁고 구체적인 형태소는 이음절어의 전체 의미를 줄어들게 한다. 두 형태소의 지위는 의미 측면으로 볼 때 불평등하다. 程湘清 (2007) 은 불평등연합사의 불평등도 상대적이고 편정식 연합사와 다르다. 불평등연합사는 병렬적 특성을 지닌다.

(12) 불평등연합사: (물품이)감손(減損) 하다, (생산량이)감축(減縮) 하다,
(욕구가)감쇄(減殺) 하다, (욕심이)멸진(滅盡) 하다,
(재산이)귀속(歸屬) 하다

4.2 서술식

서술식은 진술식이라고도 하는데 차지하는 수량이 많지 않고 주로 '명사성 한자+ 동사성 한자'또는 '명사성 한자+ 형용사성 한자'의 구성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13) 서술식: (부장이)격상(格上) 하다, (부장이)격하(格下) 하다

4.3 지배식

지배식은 동빈식(動賓式)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은 '동사성 한자+ 명사성 한자'의 구조를 지닌다. 동사성 한자는 술어 역할을 하고 명사성 한자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특히 동사성 한자는 고대 중국어에서도 능격동사에 속한다. '능격형태소'라고 불린다. 주로 '감(減)、개(开)、멸(灭)、변(变)、정(停)、종(终)、증(增)、주(驻)、지(止)、통(通)、파(破)、패(敗)、폐(廢)、폐(閉)、합(合)、휴(休)'등이 있다.

(14) 지배식

減: (빛이)감광(減光) 하다, (몸무게가)감량(減量) 하다

开: (해수 욕장이)개장(開場) 하다, (강좌가)개강(開講) 하다
灭 : (가문이)멸족(滅族) 하다, (동물이)멸종(滅種) 하다

变: (모양이)변체(變體) 하다, (목재가)변형(變形) 하다

停: (차가)정거(停車) 하다, (차가)정차(停車) 하다

终: (학기가)종강(終講) 하다, (연극이)종연(終演) 하다

增: (값이)증가(增價) 하다, (군력이)증력(增力) 하다

驻: (차가)주차(駐車) 하다

止: (열이)지열(止熱) 하다, (출혈이)지혈(止血) 하다

通: (물이)통수(通水) 하다, (말이)통어(通語) 하다

破: (분위기가)파흥(破興) 하다

败: (분위기가)패흥(敗興) 하다

廢: (학교가)폐교(廢校) 하다, (소식이)폐색(閉塞) 하다

閉: (병원이)폐원(閉院) 하다, (시장이)폐장(閉場) 하다

合: (당이)합당(合黨) 하다, (기업이)합체(合體) 하다, (피가)합혈(合血) 하다

休: (박물관이)휴관(休館) 하다, (학교가)휴교(休校) 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격형태소는 고대 중국어에서도 능격동사다. 아래의 예들 통해서 살펴 보겠다.

（15）a.如弒君、如灭国、此即是贬，不能加一字以贬之也。《姚际恒文集》
b.占者曰：'有形不成，有体无声，其国灭。'《太平御览》

（16）a. 刘向《洪范传》曰：'彗星见觜觿，必有破国、乱君，伏死其辜者。'《开元占经》
b. 普对曰：客星伏南斗中，而太白、岁星在西方，占曰：'东方之国破'。《华阳国志》

（17）a.凡打伤在两胁、两胸、两肚、两肋，却用通气、通血、清心药。《证治准绳疡医》
b.乃受天地父母之元气而生身者。故与脐对。有窍而不开。虽其气无不通。《伤寒论纲目》

위의 예문 중의 (a)는 다 능격동사의 타동사문이고 (b)는 능격동사의 자동사문이다. 능격형태소인 '滅(멸)''破(파)''通(통)'이 한국어 조어(造語)에 참여해서'(가문이)멸족(滅族)

하다, (동물이)멸종(滅種) 하다'등 어휘를 형성했다. '灭(멸)'이 능격동사이기 때문에 '멸족하다' 등 어휘도 능격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기타 지배식 한자어는 능격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내부에 능격형태소가 없기 때문이다.

(18) 결석하다(缺席), 고백하다(告白), 관심하다(關心)

(18)중의 '결' '고' '관'등 한자는 중국어 중에서도 능격동사가 아니고 일반 타동사이다.

4.4 편정식

편정식은 '상황어-중심어(状中关系)'와'수식어—중심어 (定中关系) ' 2 가지로 나눈다. 주로 '부사성 한자+ 동사성 한자'의 구조를 지닌다. 앞에 있는 형태소는 동작의 방식이나 동작의 상태를 나타난다(张谊生 2004).이 부류의 동사가 능격동사가 되는 이유는 뒤에 있는 동사성 한자가 능격형태소이기 때문이다. 부사성 한자는 행위 방식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19)편정식

旋 : (차가)우선(右旋) 하다, (차가)좌선(左旋) 하다

轉 : (사태가)반전(反轉) 하다, (상황이)역전(逆轉) 하다

動 : (백성이) 격동(激動) 하다, (개혁이)시동(始動) 하다

破 : (집이)대파(大破) 하다, (배가)전파(全破) 하다

坏 : (시설이)전괴(全壞) 하다

加 : (소득이)배가(倍加) 하다, (양이)점가(漸加) 하다

減 : (수입이)반감(半減) 하다, (양이)점감(漸減) 하다

開 : (문이)반개(半開) 하다

增 : (투입이)배증(倍增) 하다

合 : (기술이)복합(複合) 하다

活 : (문화가)부활(復活) 하다

成 : (만물이)숙성(熟成) 하다, (일이)즉성(卽成) 하다

生 : (아이가)쌍생(雙生) 하다, (소리가)재생(再生) 하다

斷 : (연설이)중단(中斷) 하다

和 : (두가지 원소가)중화(中和) 하다

变 : (태도가) 돌변(突變) 하다

活 : (문화가)부활(復活) 하다

露 : (마음이)표로(表露) 하다

滅: (적이)진멸(盡滅) 하다

4.5 동보식

동보식은 보충식이라고도 한다. 보통 앞에 있는 형태소는 동작을 나타나고 뒤에 있는 형태소는 결과를 나타난다. 그 결과는 중국어 중에서 보어(補語)라고 한다. 보어는 의미상 불행의 의미, 부정적인 의미, 방위, 수량, 정도 등 의미를 추가해 준다.

(20) 보어의미에 따른 분류

a.불행하거나 부정적인 의미: '死、灭、伤、破、折、绝、散、断'등이 있다.

(물품이)소진(燒燼)하다, (동물이)절멸(絶滅) 하다, (민족이)멸절(滅絶) 하다

b.장소,방향의 의미: '出、入、上、下'등이 있다.

(혈압이)강하(降下) 하다, (물이)적하(滴下) 하다, (죄인이)적하(謫下) 하다

c.수량, 정도의 의미: '大, 少, 進'등이 있다.

(수요가)감소(減少) 하다, (소득이)증대(增大) 하다, (기억력이)증진(增進) 하다

5. 결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한자어+하다'류 능격동사는 총 401 개(X 화하다 포함)이고 능격동사 의 44.1%를 차지한다. '하다'의 속성은 경동사고 '한자어'의 속성은 서술성 명사이다. '하다'와 '한자어'의 결합과정은 어휘화의 과정이다.

이음절어 한자어 내부는 다시 연합식(聯合式), 진술식(陳述式),지배식(支配式),편정식(偏定式),동보식(動補式) 등 5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음절어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 가운데 대부분은 능격형태소가 있다. 그 형태소는 고대 중국어 중에서 능격동사에 속한다. 중국어를 차용할 때 의미뿐만 아니라 통사적 기능도 같이 차용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1]郭曙纶：《动词的类义及其层级》，《井冈山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2004 年。

[2]程湘清：《汉语史专书复音词研究》，商务印书馆。2008 年。

[3]Perlmuter：《Impersonal passives and the accusative hypothesis》，Proceedings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1978.

[4]Jesperson,O:《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VI, Morphology. London:George Allen and Urvin Ltd.1949.

[5]목정수·연재훈:《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한국어학 제 12 집,한국어학회,2000.

[6]이상억：《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1970.

[7]이상억:《동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 : 사동.피동성을 중심으로》, 어학 연구 제 8 권 2 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72.

[8]김석득：《자리만듦성과 시킴월(사동문) 되기 제약》,《말》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80.

[9]고영근：《능격성과 국어의 통사 구조》,한글 192, 한글 학회.1986.

[10]강은국：《조선어 문형연구》, 서울:박이정출판사.1993.

정걸 116044

중국 요녕성 대련시 여순남로 서단 6 번지 한국어학원

13130015656

zhengjie0112@hotmail.com

한•중 불교어휘 연구

이홍매

(상해제 2 공업대학)

1.서론

불교가 중국을 비롯한 한자권 나라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는 바이다. 불교는 고대인도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한·중 양국의 문화 생활과 언어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언어 생활에 대한 영향으로 말하자면 범어로 된 경전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외래어 어휘체계를 풍부히 했다는 점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불(佛)', '보리(菩提)', '관음(观音)', '미륵(弥勒)', '중생(众生)' 등 신어들의 출현이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어 불교 어휘가 중국을 통하여 이차 번역되어 들어왔다는 사실로부터 이 단어들도 한자어 어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불교어도 일상생활에서 그 어원을 인식하지 못 할 정도로 민중들의 언어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중 불교어의 어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차용 방식과 의미 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과 중국의 불교어 어휘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 불교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임승곤(1975)과 홍철기(1988)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승곤(1975)에서는 불교 어휘의 전입과 그 유형을 한자어 형식, 범어와 고유어의 결합 형식,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홍철기(1988)에서는 한국어 불교어의 특징과 한자 불교어의 유입과 발전 과정을 연구하였다.

중국에서의 불교어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梁晓红(1994)에서는 불교어휘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역사적으로 불교어휘가 중국어 어휘 발전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蒋栋元(2006)은 불교 문화가 중국 문화에 끼친 영향과 불교어 성어의 구성 특징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石利华(2008)는 불교어의 한자어화 방식과 그 특성 그리고 한자어화 과정에서의 한자어휘 수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亓恒娜(2011)에서는 불교어원 단어의 개념을 소개하고 <现代汉语词典>에 수록된 불교어원 단어들의 의미 사용 변화를 다루었고, 王亚茹(2014)에서는 불교어휘를 대

상으로 한 중국어 어휘 교수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蒋琼(2015)은 <汉字外来语词典>에서 전문 불교용어와 비전문 불교용어를 통계하고 그들의 의미 형태면에서의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중 불교어의 대조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安国锋, 金海燕(2009)에서는 불교어휘를 일반 어휘와 사자성어로 나누어 대조 분석을 진행하고, 쉬원원(2013)에서는 한·중 불교어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유형별 대조 분석을 통하여 양국 불교어휘의 사전의미와 사용의미를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한·중 불교어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재 불교어휘의 사용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양국 불교어휘의 형태 구성과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봄으로써 불교 문화와 관련된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의의를 둔다.

2.불교어의 유입과 번역

2.1 한·중 양국의 불교어 유입

기원전 6 세기에 고대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는 하나의 완전한 종교적 사상·이론 체계를 가진 종교로서 그 사상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국경의 제한을 벗어나 세계 각 국으로 전파되었다. 중앙 아시아를 경유하여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다시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 베트남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에 동아시아 불교 문화관을 형성하였다. 역사·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교리의 조직이 가장 발달했던 것은 중국 불교이다.

불교가 전래되는 당시의 중국 사회는 고대 국가가 통합되던 시기였으므로 지배자들에 의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요구와 기층 민중들에 의한 요구의 결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고차원적인 사상 체계를 필요로 하였다.[1] 불교가 정식으로 중국에 들어온 것은 동한명제 시기이고 불교어의 유입도 이 시기 두 사신에 의하여 전래된 <四十二章经>의 번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佛(불)', '塔寺(탑사)' 등 불교 핵심어들이 나타났다. 그후 남북조 시대에는 이미 중국의 민족문화와 융합되고, 외래 문화를 포용하던 당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황금기를 이루었으며 기나긴 역사 속에서 유학과 조화되어 중국 특색의 불교를 형성하였다. 불교 전파에 가장 공로가 컸던 것은 경전 번역이었음이 사실이고 경전 번역 과정에서 수많은 한역 불교어가 속출되면서 중국 문화와 융합되었다. '世界(세계), 过去(과거), 现在(현재), 未来(미래), 平等(평등), 翻译(번역)' 등 단어들은 점차 민중들의 일상생활 용어로 정착되면서 중국어 어휘 체계를 풍부히 하였다.

불교가 한국에 전해 진 것은 약 1600 년 전 삼국시대이다. 한국의 불교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고 민중들의 신앙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1] 정성임(2004), 불교의 유입과 중국어 어휘의 변화,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국인문학회

제일 큰 종교가 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소수림왕(기원 372 년) 시기에 전진왕(符坚)이 고구려에 사절과 승려들을 보낼 때 불상과 불전을 함께 보냈다. 이때부터 고구려에서 불교 선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불교어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백제(기원 384)로 전해져 가면서 점차 펴졌다. 신라 향가에 이미 '관음(观音)', '미륵(弥勒)', '여래(如来)', '남무물(南无佛)', '자비(慈悲)', '서방(西方)', '공양(供养)', '법계(法界)', '보리(菩提)', '중생(众生)', '번뇌(烦恼)', '참회(忏悔)', '보현(普贤)', '무량수불(无量寿佛)' 등 단어들이 출현하였고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와서부터 불교가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후 고려 시기에 불교가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 한국에 들어온 불경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어로 변역된 한역본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어휘는 중국 한자어 불교어휘와 비슷한 형태 구조를 가진다. 조선 시대에 한글이 창제된 후로 <금강경>, <화엄경> 등 대량의 한글 불경 번역본이 출현하였다.

김영태, 우정상(1964)에 의하면 불교가 한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와 한자도 동시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당시에 고유문자를 가지지 않았던 한국은 대량의 한자를 받아들였고 한자의 유입과 침투는 한국에서 한자어휘의 사용을 넓혔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어는 불교 경전에서 쓰던 불교어, 또는 불법을 전했을 때에 쓰는 불교어휘를 차용하여 일상생활에 융합되어 들어갔다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한국에서 상당한 수량의 불교어휘가 남아있고 일상 언어생활에서 높은 사용 빈도를 차지하여 한자어휘의 불가결의 일부가 되었다고 제시하였다.[2]

2.2 불교어휘의 번역 방식

불교 전파 과정과 중국 문화와의 밀접한 관계로 한국 불교어휘는 중국 불교어휘를 기초로 한다. 아래 경전 번역 과정에서 범어가 중국어로 흡수된 방식과 대응되는 한국어 불교 어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2.1 음역 어휘

比丘	비구 (Bhikchu)	比丘尼	비구니 (Bhikchuni)	菩提	보리 (Bodhi)
支那	지나 (china)	夜叉	야차 (Yaksa)	瑜伽	요가 (yoga)
舍利	사리 (Sari)	刹那	찰나 (ksana)	阿修罗	아수라 (Asura)

대다수의 음역 불교어는 일반적으로 불교 전문용어로 쓰이고 있으나 현재 사람들의 일상사회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2.2.2 의역 어휘

[2] 쉬원윈(2013), 한·중 불교어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중국 불교계 어휘들을 보면 의역 방식으로 번역된 불교어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어휘 체계와 민중들의 언어생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도 의역 어휘들이다. 의역 어휘는 크게 비유법과 고유어휘 차용으로 나눈다.

1) 비유법은 어떤 관념을 다른 관념에 비교하여 그 결합을 언어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法(법)+ 자연물: 法门 법문　　法印 법인　　法雨 법우　　法轮 법륜　　法水 법수

心(심)+ 자연물: 心花 심화　　心眼 심안　　心地 심지　　心田 심전　　心境 심경

爱(애)+ 자연물: 爱河 애하　　爱海 애해　　爱火 애화

비유법은 추상적인 교의와 개념을 자연물과의 결합으로 형상적으로 표현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2) 고유어휘 차용

고유어휘를 차용하여 불교 술어의 함의를 표현하는 번역 방식에는 직접 차용과 의미 파생이 있다.[3]

먼저 고유어휘 직접 차용법을 보면 <礼记·王制>의 '有功德于民者'에서 '功德(공덕)'을 차용하여 불교의 '施善(功)得福报(德)' 의 뜻을 표현한다. '天道(천도)'는 <易·系辞下>의 '有天道焉'에서 차용한 어휘로서 원래는 자연법칙을 뜻하던데로부터 불교어휘의 번역에 사용되어 불교의 '六道(육도)' 중 최고로 오묘한 경계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다음 고유어휘의 의미 파생 번역을 보면 고유어휘의 의미가 확장되어 불교 교의를 해석하는데 쓰인다. 중국어에서 '解脱(해탈)'의 고유어휘 의미는 '开脱,免除(벗어나다/해제하다,면제)'인데 불경 번역에서 번뇌와 업장(业障)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로운 경지에 이름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2.2.3 범한(梵汉) 결합식 번역

범어 음역과 중국어 어휘를 결합한 것으로 음역과 의역의 방식을 동시에 취한 방식이다.

1) 범어+ 중국어

佛+ 중국어: 佛土 불토　　佛身 불신　　佛经 불경　　佛像 불상　　佛法 불법

禅+ 중국어: 禅师 선사　　禅杖 선장　　禅天 - - -

[3] 冯天瑜(2003), 汉译佛教词语的确立, 湖北大学学报 참조

僧+ 중국어: 僧徒 승도　　僧侶 승려　　僧堂 승당　　僧人 - - -

2) 중국어+ 범어

念佛 염불　　卧佛 와불　　坐禅 좌선　　封禅 봉선　　高僧 고승

이밖에 중국어 '僧'과 같은 경우는 범어 'Samgha(僧伽)'의 음역 약칭이며 의역으로는 '众'(중), '大众(대중)'인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众' 혹은 '大众'보다는 '僧'과 이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이에 대응되는 단어는 '스님' 혹은 '중'인데 '僧'의 한국어 음역 '승'이 종성이 약화되어 '스'로 된 것으로 보이고, 뒤에 존경의 의미 접미사 '님'이 붙어 승려를 높이 이르는 말로 쓰인다. 그리고 '중'은 중국어 '众'의 음역으로 원래는 절에서 살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며 포교하는 사람들 즉 그런 단체를 이르던 말이었는데 근래에는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그 대신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

'和尚(화상)'은 범어 'Khosha'의 중국어 음역으로서 본래의 뜻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비교적 높은 수행을 마치고 스승의 자격을 가진 승려를 일컫는 말인데 후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출가한 남자 승려를 두루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현재 중국어에서 출가 승려에 대한 높임말은 '(法师)법사'를 사용한다. 한국어에서 '화상(和尚)'은 아직도 승려를 높여 이르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에서 설명하다시피 승려의 높임말인 '스님'에 비해 그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다.

불교어휘는 불교 경전에서 불교 인물, 사물의 명칭, 그리고 불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의 어휘들을 총칭하는데 범어 경전이 음역, 의역, 음역과 의역의 결합 방식으로 번역되어 중국어에 전래되었다. 여기서 한국 불교어휘는 중국어로 번역된 불교어가 다시 한국에 전해진 이유로 대부분이 한자어이다.

3.한·중 불교어휘의 구성과 의미

한국의 불교 또는 불교어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중국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불교어휘는 구성과 의미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한국의 불교어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불교 어휘와의 비교와 연계 속에서 분석함이 바람직하다.

고대 인도의 범어로 나온 경전들이 중국에 들어와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따라서 불교어휘가 산생되었다. 한국 불교어는 비록 중국어를 차용해 유입된 이중 외래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번역과 토착 과정에서 본국의 사회 문화 환경과 언어 환경에 따라 한자어의 형태와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 진 단어들이 있다. 아래 그 구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양국 불교어휘에 대해 살펴본다.

3.1 불교어휘의 구성

3.1.1 어휘소

아래에 ‘선(禅)’과 ‘불(佛)’을 예로 들어 어휘소 분포와 불교어휘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선(禅): 범어 ‘dhayana(禅那)’의 약어 음역이다. 중국어에서 선정(禅定)을 달리 이르는 말인 ‘静虑(--)’, ‘思惟修(사유수)’로 의역되는데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불교 수행법으로서 ‘선’은 ‘선종(禅宗)’을 가리킨다.[4] 현대 중국어에서 ‘禅’은 독립적인 어휘소로 되지 못하고 원래의 불교어 의미가 확장되어 불교의 사물을 두루 가리키며 다른 어휘소와 결합하여 새 단어를 만든다. 한국어에서의 ‘선(禅)’도 다른 어휘소와의 결합으로만 단어를 구성한다. ‘坐禅’, ‘禅师(선사)’, ‘禅杖(선장)’, ‘禅寺(선사)’, ‘禅林(선림)’ , ‘禅门(선문)’ 등이 이로 구성된 불교어휘이다.

불(佛): 범어 ‘Buddho’의 약어 음역이고 불교에서 명사로 쓰이며 수행을 마친 ‘각자(觉者)’를 뜻한다.[5] 현대 중국어에서 ‘佛’은 명사로써 본유의 의미를 보류하고 ‘佛陀’의 약칭으로 쓰인다. 여기서 한국어의 ‘불’과 중국어의 ‘佛’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중국어에서는 독립적인 어휘로 쓰이며 ‘佛教(불교)’, ‘佛寺(불사)’, ‘佛家(불가)’, ‘佛老(불로)’, ‘佛经(불경)’, ‘佛门(불문)’, ‘佛像(불상)’, ‘念佛(염불)’ 등 의미를 두루 나타내고 또 이와 같은 불교어휘들을 형성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불(佛)’은 부처를 가리키는데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어휘소와의 결합을 전제로 불교어휘를 형성한다. ‘불교’, ‘불사’, ‘불상’, ‘불경’, ‘염불’ 등 불교어휘가 바로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예들은 ‘계(戒)’, ‘과果)’, ‘겁(劫)’, ‘마(魔)’, ‘고(苦)’ , ‘지(智)’, ‘식(识)’ , ‘환(幻)’, ‘승(乘)’, ‘탐(贪)’ 등이 있다. 중국어의 표의 문자 특성으로 이런 단음절 문자는 강한 의미 파생 능력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이음절 단어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한국어 불교어 역시 한역 불교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의 중국어 이음절 단어에 상응하는 상당수의 이음절 단어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음절 어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3.1.2 이음절 어휘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신생 사물과 새로운 관념의 산생, 사상 의식의 변화는 당시 중국어 단음절 위주의 어휘체계로 하여금 이음절화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음절 어휘 혹은 다음절 어휘의 출현은 언어 발전의 추세로서 단음절의 새로운 사물에 대한 표현

[4]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는 ‘선종(禅宗)’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참선으로 자신의 본성을 구명하여 깨달음의 묘경(妙境)을 터득하고, 부처의 깨달음을 교설(教說) 외에 이심전심으로 중생의 마음에 전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하는 종파. 중국 양나라 때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중엽에 전해져 구산문이 성립되었다.

[5]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수록된 ‘각자(觉者)의 뜻: 「1」‘부처’의 다른 이름. 깨닫기 위한 수행을 마치고 자신의 깨달음으로 남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다.「2」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의혹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 ≒깨달은이.

력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어휘체계를 풍부히 하였다. 한국어 어휘 체계에 편입된 불교어휘들은 중국어 번역을 거친 이차 번역 어휘가 대부분인 이유로 이음절 어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찰나(刹那), 가사(袈裟), 미륵(弥勒), 보살(菩萨), 아수라(阿修罗), 아미타불(阿弥陀佛)'과 같은 범어 음역 이음절 혹은 다음절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한역 파생 이음절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위 3.1.1 부분에서 제시한 조어 능력이 강한 어휘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음절 단어들 중에서 지면상 관계로 일부분을 간추려서 그에 대응되는 한국어 어휘들을 함께 살펴본다.

마-魔: 범어 'mara'의 음역어 '魔罗'가 '魔'로 간략된 것이다. 본래의 뜻은 일이 잘 되지 않게 방해하거나 그르치게 하는 요사스러운 장애물과 극복해 내기 어려운 장벽을 말하며 또는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번뇌와 의혹 등 마음의 심리활동을 뜻한다. 불교계 어휘로 정착되면서 후에 중국어의 다른 어휘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魔法 魔鬼 魔力 魔王 魔术 魔障 魔界 魔爪 魔头 魔掌 魔杖 魔镜 魔方

마법 마귀 마력 마왕 마술 마장 마계 (마수) (악마) (검은손) -- -- --

恶魔 病魔 妖魔 淫魔 除魔

악마 병마 요마 (음란마귀) --

계-戒: 범어 'Sila'의 의역이고 불교 교의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각종 규범과 죄를 금하고 제약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 의하면 율장(律藏)에서 설한 것으로, 소극적으로는 그른 일을 막고 나쁜 일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고, 적극적으로는 모든 선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고 한다.

戒律 戒严 戒备 戒口 戒杀 戒烟 戒酒 戒约 八戒 杀戒 色戒

계율 계엄 (경비) -- -- -- -- -- 팔계 살계 --

위에서 보다시피 '마(魔)'와 '계(戒)'로 생성된 중국어와 한국어 단어들의 관계를 보면 일부가 직역된 것들이고 일부는 의역 혹은 형태를 달리하는 음역 단어들이다. 또 어떤 중국어 단어들은 한국에 직접 대응되는 번역이 없고 단어 결합 혹은 구로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

3.2 불교어휘 의미

한국 불교어휘는 범어 경전을 번역한 중국어 불교어휘를 차용한 결과로서 대부분이 중국어와 동일한 형태와 비슷한 의미를 취하는 한자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어휘가 토착화되고 세속화 되는 과정에서 부분적 양국 불교어휘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사용 의미가 서로 다르다. 대부분의 한국어 불교어휘가 중국어 불교어휘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로 양국 불교어휘의 동일 의미에 대한 해석은 약하고 그 사용 의미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파생 의미와 의미 전이로 나누어 표로 제시한다.

3.2.1 파생 의미

불교어휘	불교어 원 의미	한국어 사용 의미	중국어의 사용 의미
태생- 胎生	사생(四生)의 하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생물	포유류 모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발육을 한 후에 태어나는 일; 어떠한 곳에서 태어남	포유류 모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발육을 한 후에 태어나는 일
연고- 缘故	인연(因缘) 즉 결과를 일으키는 모든 조건 혹은 원인	사유;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 인연(姻缘)	원인; 이유
생사- 生死	모든 생물이 과거의 업(业)의 결과로 삼계(三界) 육도(六道)의 미혹한 세계를, 태어나고 죽음을 되풀이하며 돌고 도는 일, 생로병사의 시작과 끝;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생존과 사망; 서로 생사를 같이 하는 깊은 정의를 말함
청정- 清静	나쁜 짓으로 지은 허물이나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함; 계행(戒行)이 매우 조촐함	맑고 깨끗함; 맑고 고요함;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함	날씨가 맑고 고요함; 심성이 순수하고 마음이 평온함;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음
안심- 安心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거나 수행의 체험으로 움직임이 없는 경지에 마음을 머무르게 함	모든 걱정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짐	마음이 안정됨; 일부러 고의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음; 마음씨, 심보

상속- 相续	인과(因果) 관계 연속이 끊기지 않음	뒤를 이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이어 받는 일	앞뒤를 이음; 연이어, 연속하다, 계속하다
광명- 光明	부처와 보살 등의 몸에서 나는 빛; 번뇌와 죄악의 암흑에 신앙상의 지혜와 견해를 밝게 비추는 일	밝고 환함;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	밝고 환함; 정의롭고 희망적인 것; 솔직하고 사심이 없음
분별- 分别	세상 모든 것이 본래는 허무하고 몽환같은 것인데 중생들이 이를 가리고 따지는 것을 말함 (凡夫之虚妄计度)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함	구별하여 변별함; 이별; 서로 다름; 따로따로
허공- 虚空	아무것도 없는 세계	텅 빈 공중	마음이 텅 비다(空虚); 공중
법보- 法宝	삼보(三宝)의 하나로써 깊고 오묘한 불교의 진리를 적은 불경을 보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불교의 원 의미로 쓰임	부처님의 설법; 비범한 효과 혹은 기적의 위력을 산생하는 신기한 보배; 특별히 효과적인 공구, 방법 혹은 경험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태생- 胎生, 연고- 缘故'의 사용 의미를 볼 때 한국어의 경우 파생 범위가 중국어보다 더 넓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불교어휘들은 중국어가 한국어에 비해 사용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보인다. '생사- 生死'를 예로 들면 중국어 불교어휘는 한국어 불교어휘에 비해 깊은 정의를 나타내는 '生死之交', '生死弟兄'등 파생 의미가 더 있다. '법보- 法宝'의 경우 한국어에는 따로 사용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중국어에는 다른 파생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의미 전이

불교 어휘	불교어 원 의미	한국어 사용 의미	중국어 사용 의미
출세- 出世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고 중생의 세계에 나타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	출생하다, 태어나다; 생산하다, 세상에 나오다
점심- 点心	선원에서 배고플 때에 조금 먹는 음식을 이르는 말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 쯤까지의 동안; 또는 이 시간 때에 끼니로 먹는 음식 또는 이런 끼니를 먹는 일	식전 혹은 식후에 먹는 과자나 빵과 같은 간식
외도- 外道	불교 이외의 종교	바르지 아니한 길이나 노릇;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본업을 떠나 다른 일에 손을 댐	정당하지 못한 수단, 생각 혹은 행동; 타인 취급하다, 체면을 차리다(见外, 客气)
기특- 奇特	유일하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통하여 귀염성이 있다.	평범하지 않고 드물며 사람을 놀라게 할만한 행위
단위- 单位	승당 안에 명패를 붙여 지정한 좌석	길이, 무게,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	물리적 양을 측량할 때 적용되는 표준; 직장, 기관, 단체, 회사 혹은 기관, 단체 내의 부서, 부문
강의- 讲义	승려들이 모여서 경전을 외우고 논의하는 것; 부처님의 공적을 찬양하는 모임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침	강의 내용을 집필한 교재 또는 수업 내용, 자료
방편- 方便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쓰는 묘한 수단과 방법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	편리하다; 편의 혹은 편리하게 하다

		하는 수단과 방법	
도사- 导师	중생을 불도(佛道)에 인도하하는 승려 또는 법사	--	지도 교수; 선도자, 지도자
율사- 律师	계율에 정통한 승려; 승려들의 그릇된 일을 검찰하는 승관(僧官)	--	변호사
장부- 丈夫	불성(佛性)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다 자란 씩씩한 남자	성년이 된 남자; 남편
이익- 利益	부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얻는 은혜나 행복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일정 기간의 총수입에서 그것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뺀 차액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애정- 爱情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불법(佛法)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마음;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의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말함
강사- 讲师	강당에서 경론을 강의하는 승려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 모임에서 강의를 맡은 사람	대학교에서의 중급 직함;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출세- 出世, 점심- 点心'은 표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만 불교어의 원 의미가 완전이 전이되어 일상 생활 속에서 쓰이고 중국어에서는 '태어나다'의 불교어 원 의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다. '외도- 外道, 기특- 奇特, 단위- 单位, 강의- 讲义, 방편- 方便'은 양국 언어의 사용 의미가 모두 전이된 것으로 보이고 '도사- 导师, 율사- 律师'는 중국어에서만 의미가 전이되어 사용된다. 그리고 '장부- 丈夫, 이익- 利益, 애정- 爱情, 강사- 讲师'도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전이된 사용 의미가 있지만 위의 단어들과 다른 점이라면 두 나라의 사용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

4.결론

불교는 본래 인도에서 발생하였고 또 발전하였으나 불교의 진리성과 보편성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그 민족성과 환경의 조건에 상부하고 적응하여 특수한 불교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 불교어휘의 번역 방식, 구성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범어 불교어휘는 음역, 의역, 음역과 의역의 결합 방식으로 번역되었으며, 어휘소의 독립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단음절 불교어휘와 이로부터 파생된 이음절 어휘를 살펴보고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불교어휘는 불교 교의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던 의미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고 또 전이되어 일상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불교어휘 사용 의미를 비교하여 공동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 요컨대 양국 언어 속에 차용된 한역 불교어휘는 오랜 시일이 경과하는 동안 차차 외래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토착하는 과정에서 고유어의 음운, 의미, 조어 등의 여러 차원에서 언어적으로 융해하고 변형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 유입된 불교어휘들은 불교 전래의 특성상 대부분이 한자어인 것만은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한·중 양국의 단음절과 이음절 불교어휘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밖에 성어, 속어 등 분야의 불교어휘들에 대한 비교 연구도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승동(2011), 불교사전, 서울: 민족사

김지형(2000), 음운의 변용과 불교계 어휘의 형성, 경희대학교 미속학 연구소

남명애, 김영주(2008), 한·중 이형동의 한자어휘 대조 연구, 국어교육 제 127 호, 한국어교육학회

방경일(2012), 생활 속 불교용어, 서울: 운주사

쉬원윈(2013), 한·중 불교어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승곤(1975), 한국 불교어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황진(2016), 한·중 불교 관련 속담 비교 연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정성임(2004), 불교의 유입과 중국어 어휘의 변화,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중국인문학회

홍철기(1988), 불교어휘 연구: 차용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梁晓虹(1994), 论佛教词语对汉语词汇宝库的扩充, 杭州大学学报

梁晓虹(1994), 佛教词汇的构造与汉语词汇的发展, 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

蒋栋元(2006), 汉语佛教成语中的佛学智慧探析, 中国矿业大学学报

安国峰, 金海燕(2009), 汉韩语佛教词语对比, 延边大学学报

石利华(2008), 佛教词语的汉化, 西南大学硕士学位论文

亓恒娜(2011), 《现代汉语词典》佛源词语研究, 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

王亚茹(2014), 对外汉语佛教词语教学中的佛教词语及教学策略探究, 西北大学硕士学位论文

蒋琼(2015), 《汉语外来词词典》佛源词语研究, 扬州大学硕士学位论文

冯天瑜(2003), 汉译佛教词语的确立, 湖北大学学报

王继红(2006), 语言接触与佛教汉语研究, 安阳工学院学报

高丹丹(2014), 汉语佛源词语语义嬗变及动因研究, 渤海大学硕士学位论文

이름: 이홍매

소속: 상해제 2 공업대학

주소: 上海市浦东新区金海路 2360 号 1 号楼 715 室

우편번호: 201209

전화: 13162226040

전자우편: lihongmei226@hotmail.com

한국어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 연구

-연결 어미를 중심으로

조순화

(浙江越秀外国语学院东方语言学院朝鲜语系)

서론

어휘의 언어 내적 의미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휘적 의미다. 어휘적 의미는 언어 표현이 갖는 고유한 의미적 특성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의미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 가운데는 어휘적 의미 특성이 비교적 약하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대다수 체언이나 용언 등의 실질 내용어의 경우에는 어휘적 의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조사나 어휘, 의존 명사와 같은 의존적 요소들은 어휘적 의미 특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미가 없 다'고 기술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휘적 의미가 잘 보이지 않거나, 혹은 기능상 특징 외 에 실제로 어휘적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어휘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하 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될 것이다. 실제로 언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의미 유형을 통사 적 의미, 문법적 의미, 관계적 의미 등으로 언급되었다.

본고는 한국어의 조사, 어미, 의존 명사 등과 같은 의존적 요소들의 어휘 의미 또는 문법적 의미 분석을 목적으로 문법적 의미의 실현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명세화하고, 그 결과를 실제 문법 형태소의 의미 분석에 적용하여 분석 결과의 엄밀성을 확보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문법 형태소들이 갖는 의미 유형을 체계화하고 사용된 문맥을 살펴 문법적 의미 실현의 조건을 밝히고, 의미 실현 조건의 배타적 분포 특성을 살펴 실제 문법적 의미 분석에서 적용하려고 한다. 또한 문법적 의미의 실제 분석 과정으로'원인-결과'의 연결 어미 <-니까>, <-어서>, <-느라고>, <므로>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제시한다.

한국어 연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하는 점이다. 연구 대상이 결정되었다면 분석 과정에서 밝혀내야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석 작업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본고는 문법적 의미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대상은 어휘의 의미가 된다.

1.어휘 의미와 유형

의미 유형은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어휘가 갖는 여러 단의들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면 기본의미와 파생의미로 나눌 수 있고, 언어 단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휘 의미, 구/절의미, 문장 의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휘 의미 분석에서의 맥락적 측면에서의 언표 의미와 맥락의 의미, 문장 의미의 측면에서의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그리고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공통된 의미인 단의와 특정된 맥락에 의존적으로 실현되는 변의를 살펴 한국어 어휘 의미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1.1. 언표 의미와 맥락의 의미

김혜령(2015:25)은 의미 분석에서 어휘 의미를 그 어휘가 사용된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을 경우, 먼저 맥락과 맥락을 제외한 어휘 자체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어휘가 사용된 맥락의 의미를 제외한 어휘 표현 자체의 의미 즉 언표의 의미와 어휘가 사용된 맥락이 포함된 의미 즉 맥락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표의 의미는 언어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로, 최호철(2011)에서 화맥이 배제된 언어 단위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이는 언어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맥락의 의미와 대비되는 유형의 의미가 된다. 최호철(2011)에서는 언표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언표의 의미
가. 언표 담문의 의미= 언표 문장의 의미 + 결속적 의미
나. 언표 문장의 의미= 언표 단어의 의미 + 통사적 의미
다. 결속적 의미= 구조적 응결성 + 의미적 응집성
라. 응결성 = 반복, 환언, 대응, 대치, 지시, 접속 등
응집성 = 신구 정보, 화제 등

(1)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단어 즉 어휘의 언표 의미는 언어 내적, 혹은 언어의 외적인 맥락이 모두 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맥락은 언어 표현들 사이의 관계인 문맥과, 언어와 언어 외적 환경 사이의 관계인 화맥으로 구분된다. 최호철(2011)에서 문맥은 결속적 의미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 결속적 의미는 구조적 응결성과 의미적 응집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응결성은 반복, 환언,

대응, 대치, 지시, 접속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응집성은 신구 정보, 화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속적 의미는 문장 단위, 혹은 문장이 모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텍스트 단위에서 잘 드러난다.

(2)가. 어제 빵을 사다 놓았는데,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이미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오늘 동생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애는 곧 면접이 있어 초조한 눈치였다.

(2 가)와 같은 문장에서 화자들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어제 사다 놓은 빵'이라는 점을 터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후행문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를 복원하여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나)의 경우, '그 애'가 동생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해석은 모두 맥락에 의존한 것인데, 이 맥락은 언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 내적인 것이다. 따라서 결속적 의미들은 문맥적 의 미에 해당한다. 즉 결속적 의미는 언어 내적 의미이면서 맥락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맥락적 의미이면서 언어 외적인 의미인 화맥적 의미와 대비되는 성격을 갖는다.

언어 표현과 관련된 언어 외적 세계에 대해서는 Lyons(1977)에서는 발화의 상황을 규정 하는 요소로 발화의 참여자와 그가 처한 시공간 및 활동 분야, 격식성, 주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태자(1993)에서는 상황적 맥락과 사회 관계적 맥락으로 나누어 보고, 상황적 맥락은 상황, 의도, 배경이 포함되고, 사회 관계적 맥락에서는 위치 관계와 나이 관계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최호철(2011)에서는 화맥에 대하여, 화행적 의미를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화행적 의미는 크게 사람과 상황으로 구성되는데, 사람은 태도와 관계로 구성되고, 상황은 장면과 화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3) 최호철(2011)의 화맥적 요소

가.사람	태도	배경, 의도
	관계	지위, 나이, 친소
나.상황	장면	시간, 공간, 사태
	화시	

(3)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화맥을 구성하는 요소는 발화에 참여하는 사람인 참여자와 그 참여자가 처한 상황으로 크게 구분된다. 참여자와 상황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시 그 요소들이 세분될수 있다.

이 절에서 논의한 언표 의미와 맥락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언표 의미는 언어 표현이 갖는 그 고유의 의미, 맥락은 언어 표현들 사이의 관계인 문맥과, 언어와 언어 외적 환경 사이의 관계인 화맥으로 구분된다. 문맥은 결속적 의미로 드러나고, 화맥은

발화의 참여자와 상황의 의미로 드러난다.

1.2.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최호철(1993,1996)에서는 어휘 의미론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에 포함되는 의미로 어휘적 의미, 통사적 의미, 화행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화행적 의미는 본고에서 분류한 언어 외적 의미에 해당하므로, 언어 내적 의미에는 어휘적 의미와 통사적 의미가 포함된다. 어휘적 의미는 어휘가 갖는 기본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화맥적 의미가 포함되며, 단어가 언제나 독립적으로 갖게 되는 의미라고 하였다. 반면 통사적 의미는 관계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어떤 단어가 문장안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광호(2008)에서도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크게 대별된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문법적 의미는 문법적 기능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어휘적 의미에 관한 정의는 연구들사이에서 대체로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어휘적 의미에 대비되는 특성의 의미 유형으로는 구조적, 관계적, 문법적 의미 등으로 상이하게 불리지만, 그것이 어휘와 어휘 사이의 관계, 혹은 문장을 이룰 때에 어휘가 배열되고 조직되는 구조상의 특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문법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언어 단위가 갖는 기능이나, 언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미를 말한다. 한국어는 문장성분들 사이의 관계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표지들은 역시 어휘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문법적 의미는 구조적 의미로 나타나지 않고, 어휘에 기대어 나타난다. 이 의미를 최호철(1993 가, 1996)에서는 통사적 의미로 보았다. 조사나 어미 등이 갖게 되는 의미는 대부분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통사적 의미인 것이다. 문장을 구성하는 의미이므로 통사적 의미는 타당한 명칭이라 하겠다.

1.3.어휘의 단의와 변이 의미

어휘의 의미 가운데는 다수의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의미가 있고, 다분히 특정한 맥락에 의존적으로만 실현되는 의미가 있다. 어휘의 의미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 는 것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어휘 의미 역시 전자를 말한다. 의미 분석과정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전자를 단의, 후자를 변이의미로 부른다. 단의의 개념은 김민수 (1981)에서 제시한 것으로, 단의는 어휘의 의미 실현 조건에 의해 획득되는 어휘가 갖는 개개의 의미를 말한다. 김민수(1981)의 용어에 의하면 어휘의 개별 의미 는 곧 단의가 된다. 김민수(1981)에서는 구조언어학의 구성 요소들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구조언어학의 구성 요소(김민수 1981:32)

音素(phoneme)	異音(allophone)	單音(phone)	音韻論(phonology)
語素(morpheme)	異形態(allomorph)	形態(morph)	形態論(morphology)
意素(sememe)	異意(alloseme)	單意(seme)	意味論(semology)

또한 변이는 특정한 개별 맥락에 의미한 것으로 볼수 있다.맥락은 그 실현 양상에 따라 특정한 의미 실현 조건이 되어 단의를 생성하기도 하고 단순히 일회적인 의미만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어떤 맥락이 의미의 실현 조건이 되지 못하고 일회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의미는 맥락에 의한 변의 의미가 된다.

어휘의 단의와 변이는 모두 맥락 안에서 실현된 어휘의 의미이다. 이 가운데 변이 의미는 구체적인 개별 맥락에 의해 실현된 의미이며, 단의는 일반화된 맥락에 의해 실현된 어휘의 의미이다. 어휘의 의미 분석에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어휘의 단의에 해당된다.

2.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

2.1.어휘 의미 특성과 의미 실현 조건

어휘의 의미적 특성은 해당 어휘의 의미와 그 어휘의 실현 조건으로 나누어진다. 어휘의 의미적 특성은 그것이 모두 어휘의 의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 의미 및 그와 연관된 특성들로 구성된 것이다. 최경봉(2012:253)에서 어휘소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소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 것인데 이는 하나의 어휘소의 의미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어휘소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호철 (1993 가)에서는 기존의 변형 생성 문법에서 통사 특서응로 분류하였던 논항 특성이나 선택 특성 등이 의미 특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남경완(2008)에서는 어휘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적 특성이나 고유 특성 외에 그와 결합적 관계에 있는 논항 특성이나 선택 특성이 어휘 의미 특성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도 어휘의 의미 특성에는 어휘의 의미 외에 의미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보를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문법적 형태소의 의미 분석에서도 해당 문법 형태소의 의미 특성과 한 맥락(문맥)안에서 함께 공기하는 다른 문법 범주에 대한 정보도 포함키는 분류를 따르기로 하였다.

어휘 의미는 많은 경우 고립된 상태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의미는 맥락안에서 실현되고 그처럼 특정 의미가 실현되도록 하는 맥락이 곧 의미 실현 조건이 된다. 김혜령 (2015:46) 에서는 맥락의 특성에 비추어 문맥적 의미 실현 조건과 화맥적인 의미 실현 조

건으로 나누어 보았고, 여러 맥락가운데서 어휘의 고정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의미 실현 조건이 되지만, 어떤 맥락은 단순히 변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 그친다고 보았다.

(5)의미 실현 조건(김혜령, 2015:56)

①문맥적 의미 실현 조건

가. 공기 관계: 논항 특성, 선택 특성

나. 결속 관계

②화맥적 의미 실현 조건:

가. 참여자: 관계, 태도

나. 상황: 장면, 사회문화적 배경

(5-①)의 문맥적 의미 실현 조건은 문장 맥락인가, 텍스트 맥락인가에 따라 크게 공기 관계와 결속 관계로 나누고 있다. 공기 관계에는 논항 특성인가 선택 특성인가로 정리되되고 있다. 결속 관계는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파악되는 맥락 즉 텍스트 맥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문장 내 공기 관계로서는 설명할수 없는 의미 실현 조건이 된다.

(5-②)의 화맥적 의미 실현 조건은 화맥적 의미 특성에 포함되는 참여자, 상황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다. 화맥적 실현 조건인 참여자는 다시 관계, 태도로, 상황은 장면과 배경으로 세분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문법적 형태소의 의미 분석은 앞서 논의한 어휘 의미 실현 조건의 분류를 따르되 문법 형태소의 의미가 실현되는 데 관여하는 여러 정보들을 다양하게 살펴 아래 소절에서 세부적으로 그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으로 제시한다.

2.2.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의 내용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의 그 어휘 의미특성은 문장 구성에 기여하는 통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조사나 어미는 모두 문장내 맥락안에서 다른 어휘 요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어휘적 의미와 함께 문맥적 의미에 포함된다.

(6) 가. 형<u>이</u> 집<u>을</u> 샀다.

나. 어떻게 사느냐<u>가</u>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 중국 음식<u>도</u> 좋아하세요?

라. 영수<u>랑</u> 민호는 이번 토요일에 생일 파티에 간대.

마. 바람이 불<u>고</u> 비가 내린다.

바.모든 사람들이 건강은 중요하다<u>고</u> 생각한다.

사.누나는 색깔이 빨간 옷을 샀다.

(6 가-라)에서는 조사의 다양한 기능을 보이는 예들이다. (6 가)의 격조사 '-이'와 '-을'은 선행 명사'형'이나 '집'이라는 말에 붙어 이 단어들이 서술어 '샀다'의 주어와 목적어임을 나타내 준다. 또한 (6 나)의 격조사 '-가'는 '어떻게 사느냐'와 같은 선행절을 안아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 준다. (6 다)의'-도'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나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다.(6라)의 '-랑'은 단어 와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조사이다. 조사의 다양한 의미는 모두 한 문장 맥락안에서의 단 어들의 관계나 그 의미 특성을 나타내므로 언어 내적 맥락인 문맥이 그 의미의 실현 조 건이 된다.

(6 마-바)에서는 어미의 다양한 기능을 보인 예들이다. 우선 (6 마)에서는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고, 앞뒤 문장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단순한 나열의 의미를 갖는 '-고'를 선택한 것이다. (6 바)에서는 어미 '-고'를 이용하여 '건강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문장속에 안기는 방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또한 두 문장의 내포적인 관계 의미 를 고려하여 '-고'를 선택하게 된것이다. (6 사)에서는 '색깔이 빨갛다'라는 문장을 전성어미 '-(으)ㄴ'을 이용하여 한 문장내의 관형사절로 만들었다.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를 포괄하여 한국어 어미의 문법적 의미는 한 문장 맥락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문맥이 그 의미 실현 조건으로 된다.

조사나 어미는 맥락의 특성에 의해 그 문법적 의미의 실현이 모두 언어 내적 맥락인 문 맥적 실현 조건을 갖게 되지만, 그 실현 양상에 있어서는 다른 문법 범주와의 관계에서 그 참여 요소가 다양할 뿐만 아니 라 상이하다. 이는 한국어 문법적 형태소의 의미 분석에서 그 실현 조건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에서는 연결 어 미를 중심으로 그 실현 조건의 내용들을 그 해당 의미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 밝힌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주된 문법 기능은 문장과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는 문장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해당되는 의미 유형의 연결 어미가 선택된다. 그러므로 연결 어미는 문장의 구성의 측면에서의 연결 기능과 선후행문의 의미적 연결 기능이 문법적 의미 특성에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7)가. 아빠가 가셨어서 엄마는 일주일 동안 나랑만 지냈다.
나. 이 소설은 출판되겠자마자 잘 팔리겠다
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는 이야기를 했어요
라. 형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형이 기뻐했다.
마. 기분이 좋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바. 훌륭한 과학자이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 더워서 창문을 열어라.
아. 더워서 창문을 열자.
자. 그는 숙제를 하지 않느라고 잠을 못 잤다.

(7 가-사)의 예문은 하나의 문맥 속에서 연결 어미들의 문법적 의미의 실현에 있어서 다른 문법 범주와의 결합 관계에서 보여지는 제약을 갖는 것으로 모두 비문이 되는 예들이다. (7 가)는 연결 어미 '-어서'가 과거시제 '-었'과의 결합이 제약을 받은 것이고, (7 나)는 연결 어미 '-자마자'는 미래시제 '-겠'과의 결합이 제약을 받은 것이고, (7 다)는 연결 어미 '-면서'가 선후행문의 주어가 동일함을 요구하는 제약을 받는 것이고,(7 라)는 연결 어미 '-자'가 선후행문의 주어가 상이함을 요구하는 제약을 갖는 것이고,(7 마)는 연결 어미 '-려고'가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를 갖는 문장 유형에 있어서 제약을 갖는 것이고,(7 바)는 연결 어미 '려고'가 '-이다'명사서술형의 제약을 갖는 것이고,(7 사)와 (7 아)는 연결 어미 '-어서'가 명령이나 청유의 문장 유형의 제약을 갖는 것이고,(7 자)는 연결 어미 '-느라고'가 부정형과의 결합에서 제약을 갖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진행된 어휘적 의미 분석에서는 주로 어휘들의 결합 관계에 있어서의 논항 특성이나 선택 특성을 의미 실현 조건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반해, 문법적 의미 분석에 있어서는 한 맥락안에서 공기하는 다른 문법 범주인 시제, 상, 양태, 부정, 문장성분, 문장유형 등 문법 형태소들과의 결합 양상이 그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의 내용 요소로 포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김혜령(2015)에서 맥락적 특성에 따른 어휘적 의미 분석에서 그 의미 실현 조건의 분류를 따르되 한국어 문법적 형태소들의 실현 양상에서의 다른 문법 범주와의 공기 관계 요소들을 그 의미 실현의 조건의 내용 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 한국어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

<table>
<tr><td colspan="3">한국어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td></tr>
<tr><td rowspan="2">문맥적 의미
실현 조건</td><td rowspan="2">결속 관계</td><td>의미 특성</td></tr>
<tr><td>제약 특성</td></tr>
</table>

(8)에서 결속 관계는 문법적 형태소들이 문장 형성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단어들의 결합 관계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결속 관계에서의 의미 특성은 문법 형태소들의 문맥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제약 특성은 다른 문범 범주의 형소들과의 공기 관계에 있어서의 제약을 갖는 의미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단어와 단어들의 공기 관계와는 다른 차원이므로 제약 특성으로 명칭을 달리 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을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 한국어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 표시

단의번호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 결속 관계							용례
	의미 특성	제약 특성						
		시제	상	부정	양태	문장 성분	문장 유형	
01								
02								

3. 문맥적 의미 실현 조건에 따른 문법적 의미 분석

3.1. 한국어 연결 어미의 의미 분석의 틀

본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문법적 의미 실현의 조건에 근거하여 한국어 연결 어미를 중심으로 그 문법적 의미 분석의 과정을 제시하도록 한다. 한국어의 연결 어미는 연결되는 문장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0) 한국어 연결 어미 목록(김정숙 등, 2002)

의미 범주	연결 어미
나열	-고 -(으)며
동시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시간순서	-고, -아서/-어서
전환	-다가
대립-대조	-(으)나, -지만, -는데/-(으)ㄴ데, -아도/-어도
이유-원인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조건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목적	-(으)러, -(으)려고, -도록, -게

인정	-아도/-어도, -(으)ㄹ지라도, -더라도
선택	-거나, 든지
방법-수단	-아서/-어서, -고
배경	-는데/-(으)ㄴ데, -(으)니

3.2.한국어 연결 어미의 의미 분석의 과정

<연결 어미'-니까'의 문법적 의미 분석>

[한국인을 위한 외래어 문법 2]:
용법 1)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하여 이유나 판단의 근거임을 나타낸다.

① 이 영화는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요.
②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 합시다.
③ 네 전공이 성악이니까 노래를 잘 부르겠구나.
④ 무서워하는 너를 보니까 아이가 도망가지
⑤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해라.

용법 2)앞의 행위를 한 결과 뒤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① 어제 학교에 가니까 여전히 학교는 공사 중이었어요.
② <춘향전>을 뮤지컬로 보니까 재미가 있더냐?
③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곳이 정말 아름답군요.
④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요.

용법 1)에서 제시된 뜻풀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하여 이유나 판단의 근거임'과 용법 2)에서 제시된 뜻풀이 '앞의 행위를 한 결과 뒤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은 선후 행문이 필연성을 나타내는 인과 관계의 의미를 갖는 것과 선행문의 행위로 후행문에 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인지함을 나타내는 의미는 문맥적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연결 어미 '-니까'의 의미 실현 조건으로 결속적 관계는 의미 특성상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두가지 단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결속 관계에서 다른 문법 범주와의 제약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이여 문맥적 의미는 서로 다르게 드러난다.

(11)가. 어제 학교에 갔으니까 여전히 학교는 공사중이었어요.(x)

나. <춘향전>을 뮤지컬로 봤으니까 재미가 있더냐?(x)
다.그 말을 듣고 봤으니까 이곳이 정말 아름답군요.(x)
라.서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요.(x)

(11)의 (가-라)는 연결 어미 '-니까'의'선행문의 행위로 후행문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인지함'의 단의가 실현되는 문맥에서 과거시제인 '-았/-었'과의 제약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또한 이 경우는 미래 시제 '-겠'과의 결합에서도 제약을 갖게 된다. 이는 선행문의 '행위성' 과 후행문의 '결과 초래'의 의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12)가. 초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x)
나. 배가 아프니까 학교에 못 왔어요.(x)

(12 가)에서는 자주 쓰는 인사말에서 연결 어미'-니까'는 제약을 갖는 경우이고,(12 나)에서는 선행문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의유의 의미 특성을 나타낼 때 연결 어미 '-니까'가 제약을 갖는 경우이다.

(13) '니까'의 의미
가.의미부
01. 그래서 또는 그로 인하여 //이 영화는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요.
02. 그것을 하고 보니//어제 학교에 가니까 여전히 학교는 공사 중이었어요.
나. 의미 실현 조건
문맥: 결속 관계
01:선후행문의 의미 관계 <이유-근거>
02:선후행문의 의미 관계<행위-결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결 어미 '-니까'의 의미 실현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4) 연결 어미 '-니까'의 의미 실현 조건

단의 번호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 결속 관계							용례
	의미 특성	제약 특성						
		시제	상	부정	양태	문장 성분	문장 유형	

01	선후행 문의 의 미 관계 <원인-이유-근거>					주어 같음	평서 청유 의문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 합시다.
						주어 다름	명령 의문	
	선후행 문 불가 의미 관계 < 인사말>	×	×	×	×	×	×	초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
	선후행문 불가 의미 관계 <자신의 감정 또는 상황>	×	×	×	×	×	×	배가 아프니까 학교에 못 나왔어요. (×)
02	선후행문의 의미 관계 <행위로 인한 새삼스러운 결과>	과거:-었/-았 미래:-겠	완료 상예 정상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곳이 정말 아름답군요.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법적 형태소인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어휘의 의미와 그 유형들을 살펴 보고 맥락적 특성에 의한 문법적 의미의 실현 조건을 문맥과 화맥으로 나뉘어 구분하였다.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의미는 대부분이 문맥적 의미 실현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 실현의 조건의 내용을 세분화여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연결 어미 '-니까'의 문법적 의미 분석에 적용하여 연결 어미 '-니까'의 의미 특성을 결속 관계로서의 의미 특성과 제약 특성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의미 특성은 연결 어미 '-니까'의 문맥적 의미가 실현되는 분포 특징을 고찰하여 단의를 정리하는 것이고, 제약 특성은 다른 문법 범주 형태소들과의 공기 관계에서 갖는 의미 제약을 정리하는 것이다. 제약 특성은 구체적으로 시제, 상, 부정, 양태 문장 성분, 문장 유형 등 범주로 정리된다.

한국어 문법적 의미 실현 조건의 결과물은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다양한 오류를 범하는는 것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방지할수 있으며,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체계적으로 문법 형태소의 의미를 터득하는 좋은 참고서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본고에서는 연결 어미 '-니까'의 문법적 의미 분석의 과정을 제시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조사, 어미 전반에 이르는 문법적 의미 분석은 후속 연구로 기약한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총서 1.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 자료 총서 2.

김민수(1981).「국어의미론」일조각.

김태자(1993),"맥락 분석과 의미 탐색."「한글」219. 79-114.

김혜령(2015)."국어 어휘 의미 실현 조건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경완(2005 가)"동사 의미 분석에서의 단의 설정에 대하여: 논항과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한국어학」26. 93-117.

남경완(2005 나)."용언의 의미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경완(2005 다)."의미 관계로서의 다의 파생 관계에 대한 고찰."「한국어의미학」17. 151-175.

남경완(2008).「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연구」태학사.

최경봉(2013)."어휘 의미와 의미관계 정보의 구성과 작용."「한국어의미학」42. 27-55.

최호철 편(2013).「의미 자질 기반 현대 한국어 낱말밭 연구」한국문화사.- 197 -

최호철 편(2013).「한국어 단어의 의미 구조와 의미 관계 연구」한국문화사.

최호철(1993 가)."현대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 의소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호철(1993 나)."어휘부의 의미론적 접근."「어문논집」(민족어문학회) 32.185-217.

최호철(1995 가)."의미연구의 전제와 차원: 언어 단위 및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20. 287-306.

최호철(1995 나)."의소와 이의에 대하여."「국어학」25. 77-98.

최호철(1996 가)."어휘 의미론과 서술소의 의미 분석."「한국어학」4. 67-108.

최호철(1996 나)."국어의 의미격 설정에 대하여."「한글」232. 123-146.

최호철(1998 가)."구조 의미론의 수용 양상과 국어 어휘 의미론의 과제."「한국어의미학」2.

11-39.
최호철(1998 나). “범주와 계층의 통용과 통합.”「순천향 어문논집」5. 525-542.
최호철(1999). “현대 국어 ‘덜다, 떨다, 털다’의 의미 분석.”「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23. 71-88.
최호철(2000). “현대 국어 감탄사의 분절 구조 연구: 감정 감탄사를 중심으로.”「한국어내용론」7. 361-408.
최호철(2002). “한국어 의미 연구의 나아갈 길.”「21 세기 국어학의 현황과 과제」(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65-92.
최호철(2005). “국어의 다의 분석과 사전 기술.”「국어 연구와 의미 정보」(이원직 외) 월인. 153-184.
최호철(2006). “전통 및 구조 언어학에서 본 의미의 본질.”「한국어의미학」21. 31-49.
최호철(2011). “국어 발화의 의미에 대하여.”「한국어의미학」36. 481-529.
최호철(2014). “우리말의 의미를 연구하는 마음가짐.” 한국어의미학회 34 차 전국학술대회 강연 요지문.
Lyons, J.(1977). Semantics 1,2. (강범모 역(2013).「의미론 1,2」한국문화사.)
용례 검색
카이스트 한국어 용례 색인
http://semanticweb.kaist.ac.kr/research/kcp/KCP2.html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웹기반 코퍼스 검색도구
http://corpus.korea.ac.kr/

인적사항
이름: 赵顺花（조순화）
소속: 浙江越秀外国语学院东方语言学院朝鲜语系
주소: 浙江省绍兴市会稽路 428 号
우편번호:312000
전화:15355579999
전자우편: zhaoshunhua717@126.co

韩汉翻译中语篇不连贯偏误分析

朱 霞

（四川外国语大学）

摘要：韩汉翻译中语篇的衔接连贯是翻译的难点。本文针对韩国语专业学生在韩汉翻译中出现的语篇不连贯偏误进行了分析，重点研究了语法衔接和词汇衔接方法，旨在探讨在翻译过程中如何选择各种手段来取得语篇的连贯。

关键词：韩汉翻译；不连贯；偏误分析

韩汉翻译中语句的衔接和语义的连贯是个难点，也是翻译教学需要研究的重点。“衔接作为连接手段，是语篇的有形网络，体现在语篇的表层结构上；而连贯则是无形网络，贯穿于整个语篇，主要指话语意义所取得的效果。” 不连贯指用关系断裂的译文话语替换原文连贯话语而造成的翻译失误。换句话说就是，原文是连贯的，但译文由于译者不恰当的解读或表述导致了不连贯。可以说语义连贯的语言是通顺的，不连贯的语言是不通顺的。

语言学家（克里斯特尔 Crystal）说，“将一系列句子称为语篇意味着这些句子展现了某种相互之间的依赖，他们的出现不是任意的。” “语篇的衔接与连贯是篇章研究的核心，也是篇章能否站得住脚的关键。而且一个篇章如果前后衔接，意思连贯，其可接受性则八九不离十” （胡壮麟，1994：iii）。

连贯就是“自然或合理的链接”。译本语言的连贯性如何是衡量译文质量的一个决定性的依据之一。翻译在某种程度上讲，就是连贯的重构。在理解原文的过程中，译者首先要找出原文特定的连贯脉络，然后才能对原文的意义做出合理的梳理和解读。译者要以读者所能理解和欣赏的方式重新实现这一连贯模式。成功的翻译意味着最大限度地回复原文中各种相关的关系，而不是孤立的词、句或段的意思。因此，不连贯的翻译都是有问题的、不合格的。

学者们对衔接的类型做出了不同的分类。胡壮麟（1994）将衔接分为四类：指称、结构衔接、逻辑衔接和词汇衔接。王东风在《连贯与翻译》一书中，将衔接分为语法衔接和词汇衔接。语法衔接包括指称、替代、省略、连接。词汇衔接分为两大类：复现关系和同现关系。 译者要用各种衔接手段来使得译文语篇连贯，以实现整个译文的语言通顺流畅。本文针对学生译文中缺失衔接手段而导致语义不连贯的偏误进行分析，主要探讨语篇的衔接方法。

1. 语法衔接

1.1 连词衔接

连接属于语法衔接手段的一种。“连接”是一个“前言与后语之间建立系统联系的专门用语

(HaLLiday&Hasan,1976:227)。连接是人类运用于逻辑推理的基本手段。韩语和汉语中有相同的衔接关系，译者采用形式对应的处理方式就可以体现源语连贯语义。

1.1. 1 并列连词衔接

并列复句由两个或两个以上的分句并列组合而成，这些分句叙述相关的几件事情，或说明相关的几种情况。

(1)종이의 대량생산으로 세계는 새로운 문예 부흥기를 맞으며 문학과 학문이 발달하였다.

译文 1：纸的大量生产迎来了世界新的文艺复兴，文学和学术不断发展。

译文 2：纸的大量生产使世界迎来了新的文艺复兴时期，并促进了文学和学术的不断发展。

分析：译文 1 的两个分句，各有主语：前一个分句的主语是“纸的大量生产”，后一个分句的主语是“文学和学术”，前后句脱节。译文 2 用连词“并”连接上下句，并添了动词“促进”使前一个分句的主语“纸的大量生产”一以贯之也做后一句的主语，使上下句自然贯通。

(2) 에스파냐인과 포르투갈인은 은으로 사치품을 구입하고 군사력을 확충했다.일부 은은 동유럽의 곡물과 원재료를 수입하는 데 사용했다.

译文 1：西班牙人和葡萄牙人将一部分银用来购买东欧的谷物和原材料，另一部分购入银制奢侈品，提高了军事能力。

译文 2：西班牙人和葡萄牙人用银购入奢侈品和东欧的谷物和原材料，并扩充了军事力量。

分析：译文 1 共 3 个分句，第三分句有些唐突。译文 2 在第三分句前添了表示并列的连词“并”，使前后句自然衔接。另外原文是“군사력을확충했다.”“확충”汉语中有等值词语“扩充”，无需译为“提高”。

1.1.2 因果连词衔接

因果复句指正句和偏句之间是原因和结果的关系的句子。偏句说明原因，正句说明结果。

(3)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기까지 수백년 걸린 불교나 기독교와 달리 시작부터 국가적 규모지원을 받으며 출발한 이슬람교는 한층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译文 1：佛教和基督教经历了数百年才被认定为宗教，与此不同，从一开始就获得了国家级规模支持而创立的伊斯兰教，以更快的速度传播。

译文 2：佛教和基督教经历了数百年后才被人们接受，与此不同，伊斯兰教一开始就得到了国家级规模的支援，因而得以迅速传播。

分析：原文通过伊斯兰教与佛教、基督教的比较，说明了伊斯兰教迅速传播的原因。译文 1 由 3 个分句组成，第三分句“以更快的速度传播”没有表现出原文的因果关系。译文 2 是 4

个分句，在第 4 分句前加了表示因果关系的连词“因而”，明确地说明了第三、四句间的因果关系。

（4）별과 은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부족해 별이 흩어진다고 판단한 이들은 우주에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译文 1.行星和银河相互吸引的重力不足，行星由此散开，宇宙需要更多的物质。

译文 2.他们认为星体和银河因相互吸引的重力不足，而导致了星体的离散，因此宇宙需要更多的物质。

译文 1 由 3 个分句构成。第一、二句之间，第二、三句之间缺少连接词，所以没有明确地表现出前后句的因果关系，导致语义不连贯。译文 2 是一个长句，宾语是一个二重复句，用因果关联词“因此”显现了第一层的因果关系，用“因……而”，表现了第二层的因果关系，使整个句子语义连贯。

1.1.3 假设连词衔接

假设复句一般由两个有假设关系的分句组成，前一个分句假设存在或出现了某种情况，后一个分句说明由这种假设的情况产生的结果。

(5)이때 중심부의 온도가 1 억 도 까지 올라가면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译文 1.如果此时中心温度上升到 1 亿度（K），又会产生其他的核聚变反应。

译文 2.如果此时中心温度上升到 1 亿度（K），就会产生其他的核聚变反应。

分析：译文 1 第一分句的“如果”与第二分句的“又”，不能搭配使用，应该是“如果……就”。

（6）6500 만 년 전에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금쯤 어떻게 진화했을까?

译文 1.“6500 万年前，陨石没有掉落到地球的话，地球上的生命体将会如何进化？”

译文 2.“6500 万年前，如果陨石没有落在地球上，那么地球上的生命体如今会怎样进化呢？”

分析：译文 1 的前后两个分句，缺少关联词，读起来感觉别扭。译文 2 用了假设关联词“如果……那么”，明确地表现了两个分句的假设关系。

1.1.4 目的连词连接

目的复句指一个分句表示实现某种目的或避免某种结果，一个分句表示为此而采取的行为。

（7）그렇다고 빅히스토리를 인문과 과학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주의 시작에서 현대사회

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를 하나로 꿰는 '통찰력'을 얻기 위함이다.

译文 1.宇宙大历史并不是把人文和科学不分青红皂白地混淆在一起。我们想画这样一幅巨大的画的理由是,从宇宙的开始到现代社会这段冗长的历史穿成一条线的话,需要有'洞察力'。

译文 2. 不过，认为宇宙大历史是人文和科学杂乱拼凑而成的观点也是错误的。我们想描绘如此巨大的图画，是为了获得能够贯穿从宇宙起始到现代社会这一巨大历史的一种洞察力。

分析：对译文 1 的第二句进行句子成分分析的话，主语是“理由”，谓语是“是”，“从宇宙的开始到现代社会这段冗长的历史穿成一条线的话，需要有‘洞察力’”是宾语部分，整句话的主要意思是“理由是需要有洞察力”，显然没有逻辑联系；“从宇宙的开始到现代社会这段冗长的历史穿成一条线的话”也是病句。译文 2 的宾语部分用“为了”表现出“想描绘如此巨大图画”的目的。

1.1.5 转折连词衔接

转折复句指前面分句提出某种事实或情况，后面分句转而述说与前面分句相反或相对的意思。

（8）베가성에서 온 외계 생명체의 관점과 같은 시선을 얻는 것이 조금 버겁다면, 산정상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조망력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译文 1.从来自织女星外界生命体的观点相同的视角看待问题有点困难的话，那么站在山顶上就会获得俯视这个世界的视角。

译文 2.尽管难以获得跟来自织女星的外界生命体相同的视觉，但也能得到登上山顶俯瞰世界的慧眼。

分析：原文是转折复句，但是译文 1 翻译为假设关系“（如果）……那么”，与原文的语义有差异。译文 2 用“尽管……但”，表示姑且承认前文的事实，下文意思有转折，与原文的语篇关系相吻合。

1.1.6 承接词语衔接

承接复句指两个或两个以上的分句，一个接着一个地叙述连续发生的动作，或者接连发生的几件事情，分局之间有先后顺序。

（9）오래전부터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을 침점하려고 침을 흘리며 음모궤계를 꾸며오던 일제놈들은 조선동학당봉기를 계기로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침략하고 중일갑오전쟁을 일으켰다.

译文 1.对朝鲜和中国早已垂涎三尺、蓄谋已久的日本帝国主义以朝鲜东学党起义为契机派遣军队侵占朝鲜，引发中日甲午战争。

译文 2. 日本帝国主义对朝鲜和中国早已垂涎三尺，蓄谋已久，他们以朝鲜东学党起义为

契机派兵侵略朝鲜，继而发动了中日甲午战争。

分析：译文 1 由 2 个分句构成，第 2 分句突兀，“引发”是引起，促发的意思，应该用“发动”。译文 2 共 4 个分句，句子简短，第 4 分句前用“继而”，与前文自然衔接。

（10）흑사병을 신의 천벌이라 여겼던 기독교인들은 채찍질 고행단을 만들어 쇠로 된 채찍으로 스스로를 때렸다.

译文 1.认为鼠疫是神的天谴的基督教人成立了鞭策苦行团，用铁链鞭打自己，但是却从没想过分散在各地的老鼠是鼠疫的原因，这样的防御毫无用处。

译文 2.基督教人以为鼠疫是神的惩罚，于是成立了鞭策苦行团，用铁链鞭打自己。他们从没想过分散在各地的老鼠是鼠疫的原因，所以这样的防御是毫无用处的。

分析：译文 1 由 4 个分句组成，第三分句与前文不应该是转折关系。译文 2 是两个复句。前一个复句的第一、二分句是先后关系，用了承接连词“于是”。后一个复句用“他们”回指“基督教人”，与前文语义相连。

1.1.7 递进连词衔接

递进复句指后面分句所表示的意思比前面分句更进一层。

（11）몽골 제국이 점령한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기엔 몽골인의 수가 너무 적었고, 몽골의 문화 역시 기존의 정착 문화에 큰 영향을 남기지 못했을 뿐더러 기존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기에도 역부족이었다.

译文 1.蒙古帝国虽然占领了广大的领土，但是蒙古人的数量太少，蒙古的文化也对当时的主流文化没有产生很大的影响，与同既有的文化相互融合并形成新文化的标准也相差甚远。

译文 2. 蒙古帝国虽然占领了广大的领土，但是蒙古人的数量太少，蒙古文化对当时的主流文化也没有产生很大的影响，又没有实力与既有的文化相融合形成新文化。

分析：译文 1 由 4 个分句构成，第 4 分句语句啰嗦，与前文衔接也不自然。译文 2 的第 4 分句前用“又”表现了前后句的递进关系，使前后句意连贯。

1.2 指称衔接

指称，或指代衔接，是指能使 C 照应，是指将话语中的一个语言成分看成另一成分的参照点，并以此来确定后者在整个话语中的意义。照应可以分为外指照应和内指照应。前者指的是话语中某个成分的参照点不在话语本身，而存在于语境中；后者则指的是语言成分的参照点存在于话语上下文，包括回指照应和下指照应两类，大多数照应属于回指照应。

（12）천마와 함께 말을 개량하고 기르는 기술이 한나라에 전해졌으며, 말에 대한 국가 정책까지 정비되었다. 좋은 품종의 말에 파르티아 제국에서 들여온 기마 궁술등이 접

합되면서, 한나라의 군사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译文 1.不仅是天马，改良、饲养马的技术也在汉朝传播开来，汉朝甚至还出台了关于马的国家政策。优良品种的马加之从安息帝国传播过来的骑马射箭技术，使得汉朝的军事能力进一步增强。

译文 2.随着天马，改良、饲养马的技术也传到汉朝，汉朝还制定了关于马的国家政策。优良的马加以从安息帝国传播过来的骑马射箭技术，这些强化了汉朝的军事力量。

分析：原文的第一句，不是递进关系，而译文 1 用“不仅……还”译成递进关系，语气比原文生硬；译文 1 是使动句，谓语由句尾的“增强”一词充当，违背了重音居后的原则，读起来别扭，可以改为“使得汉朝的军事能力得到进一步增强”。译文 2 用“这些”照应前文的主语“优良的马加以从安息帝国传播过来的骑马射箭技术”，使句子简洁明了。

（13）유라시아 네트워크를 오가던 상인들은 몽골의 유목 민족이 생산하지 않는 필수품과 다양한 물품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주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역 발달에는 물론 정복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译文 1. 往返于欧亚大陆网络的商人不仅带去了蒙古游牧民族不生产的必需品和多种物品，还提供了关于定居地区的各种信息，对交易的发展和征战提供了很大的帮助。

译文 2. 往返于欧亚大陆的商人不仅带去了蒙古游牧民族不生产的必需品和多种物品，还提供了各个地区的各种信息，这对交易的发展和征战提供了很大帮助。

分析：译文 1 由 3 个分句构成，最后一句与前文语义不连贯。译文 2，在第三分句前加了“这”，回指前文的内容，使整个句子语义紧凑。

（14）이토록 거대한 우주를 그 작은존재가 이해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분명 합니다.

译文 1：在巨大的宇宙中，以微小形态存在的人类探索宇宙真是一件了不起的事。

译文 2：微不足道的人类居然了解如此宏大的宇宙，这的确是件十分惊奇的事情。

分析：译文 1 没有弄清原文的主谓宾是“人类探索宇宙”，基本按照原文的语序翻译的，虽然合乎语法，但很别扭。译文 2 用“这”指代前句，译成两个分句，言简意赅。

1.3 替代

替代是指一个语言项目被另一个语言项目所取代，即通过取代前句中某一语言项目，建构句际衔接。

（15）이 거대한 블랙홀을 중심으로 그 중력에 의해 묶여 있는 천체의 집단을 은하로 보기도 합니다.

译文 1.以这种巨型黑洞为中心，受重力作用的影响被吸附在周围的星体的团就被看作为星

系。

译文 2：以这个巨型黑洞为中心，被其重力捆绑的天体集团叫做星系。

分析：原文中“그 중력에 의해”“그”指“블랙홀”。译文 1“受重力作用的影响”意思不明确，与前文不连贯。译文 2“被其重力捆绑”，用“其”替代前文的“巨型黑洞”，与前文衔接。

（16）나선은하는 중심부를 관통하는 막대가 있으면 막대나선은하(SB)로, 그렇지 않으면 나선은하(S)로 나누었습니다.

译文 1：螺旋星系的中心区域若有长杆贯通则为棒旋星系（SB），若没有则为螺旋星系（S）。

译文 2：螺旋星系根据是否有贯通中心区域的长杆，分为棒旋星系（SB）和螺旋星系（S）。

分析：译文 1，译者没有看清“중심부를 관통하는 ”是“막대”的定语，所以产生了误译。“若有……则为”,“若没有则为”重复使用相同的词语，显得啰嗦，不简练。译文 2 用“是否有”替代“若有……则为”“若没有则为”，使语义更加清晰，紧凑。

1.4 省略衔接

（17）우리는 상승군의 기세로 신속히 북진해오고있는 미군해병대 제 1 사단과 맞다들었다. 이 부대는 세계 제 2 차대전부터 한번도 패해본적이 없다는 상승군으로서 그 기세가 매우 대단하였다. 우리는 조선입국 전쟁의 첫 전투로 이 상승군과 정면으로 맞다들었다. 우리 부대는 급히 항미원조의 명령을 받고 야밤에 도강을 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선발대 보병부대가 먼저 압록강을 건너 급행군으로 적의 선두부대가 와있다는 장진호(长津湖）반류담（柳潭）을 향해 급행군을 하였다.

分析：源语中画横线的部分中断了部队与美军作战的叙述，不利于文章一气呵成，所以不译为好。下面是省略后的译文：

部队与急速北进的美国海军第 1 师抗衡。美国海军第 1 师是号称第二次世界大战以来从未打过败仗的王牌军，气焰十分嚣张。我们步兵先遣队首当其冲跨过鸭绿江急速向敌人先头部队所在地长津湖前进。

（18）새벽이 되어서야 승전을 한 우리 부대는 산속 소나무밭에 잠자리를 폈다.그때는 마을이라야 죄다 폭격을 받아 없어지고 해서 우리 전사들은 제 외투를 뒤집어쓰고 소나무밑에서 로숙을 해야 햇던것이다.나도 전사들 틈에 끼워 소나무가지를 꺾어 깔고 외투를 뒤집어쓰고 잠을 청했으나 낮에 얻은 조기천의 서사시《백두산》을 보고파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分析：源语中划线的部分是多余的，不用解释读者对战时的情况自然会理解，如果翻译了会使叙述松散，不利于语篇流畅连贯。下面是省略后的译文：

这是一场痛快的袭击战。这一夜，我们消灭了不少敌人。到了拂晓战斗结束后，部队就在山中松树林里休息。我折下松枝躺在上面准备睡一觉。可是白天拾到的诗集深深地吸引着我，怎么也睡不着。

2．词汇衔接

词汇衔接是指话语是通过词汇选择而建立起连贯性的。较长话语中的词汇衔接可通过重复使用关键词或对该话语有特别意义的词汇来实现。词汇衔接手段可细分为重复、同义、反义、上下义关系和搭配。

2.1 重复衔接

重复，指某个词或某几个词项在同一话语或语段中两次或多次出现，从而起到了句子内部和句子之间的衔接作用。 巧妙地使用词汇重复，不但可以发挥其话语的纽带作用，而且能够达到突出主题，加深印象等修辞效果。

（12）우주는 암흑 물질과 은하,성운 등의 질량이 있는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결합되여 있습니다.은하단의 규모에서도 중력에 의해 천체들이 묶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译文 1.宇宙是黑色物质和银河、星云等具有质量的物质通过相互吸引的重力结合在一起构成的。在星系团里天体因重力捆绑在一起。

译文 2.宇宙是由暗物质、星系和星云等具有质量的物质之间相互吸引的重力而结合起来的。星系团里的天体也由重力捆绑在一起。

分析：译文 1 的两个句子缺少内在关联，是相互脱节的。译文 2 前一句用了表示原因的介词“由”，后一句用副词“也”并重复使用“由”，说明星系和宇宙都是由重力结合起来的，使前一句和后一句语义相连。

2.2 排比衔接

语篇中排比结构的使用，能造成凸显和均衡美，也可以起到连句成篇的作用。

（13）첫날부터 지구가 빅뱅 이후 언제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자는 의견, 지구의 생성 과정을 알려면 태양계의 출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 별의 탄생과 원소의 생성이 먼저이니 그것부터 논의하자는 의견 등이 분분합니다.

译文 1.地球大爆炸以后，地球是在什么时候、怎样形成的？要想知道地球的生长过程是否要追溯到太阳系的出现？星系的诞生和元素的生成哪个在先？关于这些问题众说纷纭。

译文 2.第一天开始议论纷纷，有的主张要了解宇宙大爆炸后地球是从什么时候、怎样开始

形成的；有的主张要想了解地球的形成过程就要追溯到太阳系的出现；有的主张星体的诞生和元素的生成在先，所以先着手研究这个问题。

分析：译文 1 是 4 个单句，除了第三句，基本表达了原文的意思。译文 2 通过三次重复“有的主张”构成排比句，把不同内容的句子连接起来，使之形成连贯的话语。

2.3 搭配衔接

搭配指话语中的某些表达法与另一些表达法之间存在某种关系。它们必须相互搭配使用或习惯性共现，才能使整个话语具有衔接力。

（14）1206 년에 칭기즈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연속된 육지의 면적으로는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다. 몽골 제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정복 활동을 통해 중국 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정치적으로 통합했다. 몽골 제국의 정치적 통합과 안정으로 유라시아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었다.

译文 1. 1206 年成吉思汗建立的蒙古帝国是人类历史上连续陆地面积最大的帝国。蒙古帝国在极短的时间内通过征战在政治上统一了中国、中亚和西亚。蒙古帝国政治统一、安定，欧亚大陆的网络进一步强化。

译文 2. 1206 年成吉思汗建立的蒙古帝国是人类历史上连接陆地面积最大的帝国。蒙古帝国在极短的时间内通过征战在政治上统一了中国、中亚和西亚。随着蒙古帝国的统一安定，欧亚大陆的网络得到进一步强化。

分析：译文 1 由前两个单句和后一个复句构成。复句中第一、二分句是因果关系，译文缺少衔接词，使得两个分句之间联系不紧密。译文 2 由 3 个单句构成。第三句用介词“随着”和动词“得到”搭配使用，使句内语义连贯。

（15）빅히스토리 시리즈의 출간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빅히스토리 학습과 연구의 체계를 잡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译文 1.宇宙大历史系列的出版使韩国的初高中和大学迈出了学习和研究宇宙大历史的第一步。

译文 2.宇宙大历史系列丛书的出版，将为韩国学生能够在初高中以及大学里系统地学习研究宇宙大历史迈出可喜的一步。

分析：原文是推测的语气，但译文 1 用使动句表达了肯定的语气。译文 2 用副词“将”表达了推测的语气，用介词“为”表达了谓语“迈出”的目的，与原文的语义相吻合。

（18）우리 부대는 동상당한 인원을 후송하고 남은 전사들로 추격을 시작했다. 그에 앞서 먼저 불에 타고 있는 마을의 불을 꺼야 했다.

译文 1. 我们部队立即派人护送冻伤伤员，其余的战士开始追击敌人。之前我们先扑灭了

村里燃烧的火。

译文 2.我们部队先扑灭村里的火势后，立即派人护送冻伤的伤员，其余的战士开始追击敌人。

分析：源语语无伦次，语言不严谨，不合逻辑。译文 2 调整了语序，并增译了“立即派人”，与后文“其余的战士”相照应，使语义连贯。

结 语

本文对韩汉翻译中语篇不连贯的偏误进行了分析，并指出了具体的衔接方法。语法衔接方面主要阐述了并列、因果、转折、目的、承接、假设、递进关系连词的衔接方法；词汇衔接方面主要阐述了重复、排比、搭配的衔接方法。以上例句全部来自大学生在韩汉翻译中出现的偏误和翻译教学中遇到的难点。学生的翻译偏误主要原因在于没有弄清原文的关系网络，即语法关系。从中可以看出译者的韩国语阅读理解能力不足，韩汉复句知识不扎实。从中可以得到启示：训练语篇的衔接连贯方法应该是翻译教学的重点和难点，必须给予足够的重视。

중국 대학 한국어 번역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송향근·정이붕

(부산외국어대학교·천진사범대학교)

1. 서론

중·한 양국은 1992 년 외교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가 활발해졌다. 중국 내 각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도 교육목표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외교, 대외 국제무역, 교육, 문화교류 등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용형(實用型) 인재의 양성으로 변화 해 왔다.[1] 한중 관계의 변화와 중국 정부가 외국어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기준을 고려하면 한국어학과 교육 과정에서 통·번역 교과목의 설치는 너무 당연하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필요성에 부응하여 중국 교육부에서는 "대학교 학부 외국어 비통용어 전공 규범(高等学校本科外语非通用语种类专业规范)"을 내와 번역 기능을 학부생이 학부과정에서 반드시 키워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이에 각 대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번역 과정을 개설하였고 학생들도 학술형(學術型) 석사과정보다는 실용형 번역 석사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한중·중한 번역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4 년제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번역교육은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이론 자료가 부족하거나 교수방법이 부당하며 수업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교사들의 능력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교재 구성도 비합리적인[2] 문제를 안고 있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교재는 난이도의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고 교육대상이 불분명하며 내용 구성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교수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한·한중 번역 교재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아주 미흡한 바, 지

---

1 각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교육목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 목표에서는 비슷하다. 중국 교육부의 <4 년제 대학 전공목록(2012)>에 의하면 본 전공은 탄탄한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 등 기본 언어적 기능을 구비하고, 대상 국가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등 관련 지식을 파악하며, 외교, 대외경제무역, 문화교류, 방송 출판, 교육, 연구 등 덕과 재능을 겸비하고 국제적 시야를 구비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동연(2016: 3)에서 참조.

2 하안나(2012)는 한국어 번역 교재에 대해 분석을 통해 지금 4 년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번역 교재는 내용이 진부(陳腐)하고 3 학년 학생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HE(2013)는 중국 내 4 년제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번역 교재는 실용성이 떨어지고 번역의 주제는 별로 실생활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번역 교육, 한국어 번역 교재의 중요성을 이상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바로 알 수 있다.

금까지 불과 십여 편[3]에 불과하다. 장민(2005), 홍영매(2005), 김기석(2006), 하안나(2011), 이미경(2012), 홍경아(2012), 원려근(2014) 등은 번역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된 논의를 펼쳤는데 번역 교재에 대한 개발도 약간 언급되어 있다. 특히 주정(2015)은 번역 교재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함께 교재개발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모두 한중 양국 번역 교육 현황, 번역 교육 방안, 번역 과정 설계, 한중 번역 오류 양상과 해결 방안 등에만 국한되어 있고 학습자와 교사의 번역 교재에 대한 요구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교재의 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적절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제를 짊어질 생각으로 먼저 학부과정에 실행 중인 한중-중한 번역 교육 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개설한 한국어 번역 관련 교과목들을 살펴보고 현재 사용 중인 교재들을 정리하여 현황 진단과 함께 과제와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중국 내 한국어 번역 교재의 실태 분석

2.1 중국 대학의 한국어 번역 교육

본고는 중국 내 4 년제 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번역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고등교육(高等教育) 기관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 인재 양성 방안(人才培養方案)에 수록된 중한·한중 번역 관련 과목의 개설 현황과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고 있는 번역 교재를 포함한 번역 교육 환경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본고는 신뢰도가 높은 중국 내 한국어 학과의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은 이유로, 98·5[4]와 211[5]공정 대학교만 분석 대상으로 검토한다. 또한 필수 수업인 번역과정을 조사대상으로 번역 교과목의 명칭과 학점, 개설학기, 사용 교재 등에 대한 내용도 조사대상에 넣을 것이다.

[3] 필자가 한국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http://www.riss.kr)'와 중국의 '中国知网(http://www.cnki.net)'에서 검색해 본 결과 검색된 논문은 십여 편, 그중 학술적 가치를 가진 논문은 10 편 미만이었다.

[4] 98·5 공정(工程): 1998 년 5 월 4 일, 베이징대학교 건학 100 주년 기념대회에서 당시 국가주석이며 당 총서기인 쟝저민이 "현대화실현을 위해 우리 나라에도 일부 세계선진수준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선포한 이후 "당중앙의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부흥전략과 쟝저민동지의 호소"에 따라 교육부는 "21 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에서 베이징대학교, 청화대학교 등 39 개 대학을 세계일류대학과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건설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약칭 "98·5 공정"이라 한다.

[5] 211 공정(工程): 21 세기를 맞이해 100 개 좌우의 대학교와 일부 중점 학과를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국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부흥전략에서의 2 세기를 걸치는 전략적 공정으로 신중국 창립이후 중국고등교육 영역에서 진행한 최대 규모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공정에 선정된 대학은 116 개이다.

<표 1> 중국내 98·5 공정※ 및 211 공정★ 대학 통번역 교과목 통계표

학교명	교과목명, 학기, 학점	사용하는 교재
延边大学★	韓譯漢 6-2[6], 漢譯韓 7-2	汉朝朝汉翻译基础(金永寿 외, 2009)및 기타 자료
山东大学(威海)※★	中韩互译 7-4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05)
上海外国语大学★	翻译理论和实践(朝譯漢)7-2 翻译理论和实践(漢譯朝)8-2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吉林大学※★	朝鮮·韓國語筆譯Ⅰ6-2 朝鮮·韓國語筆譯Ⅱ7-2	汉韩翻译教程(吴玉梅 외, 2016)
哈尔滨工业大学(威海)※★	韓中翻译理论与实践 6-4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中韓翻译理论与实践 7-4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对外经济贸易大学★	翻译理论和实践(朝譯漢)6-2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翻译理论和实践(漢譯朝)7-2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中國传媒大學★	韓國語飜譯 5-2, 韓國語飜譯 6-2, 韓國語飜譯 7-2	
南京大学※★	翻译理论和实践(朝譯漢)6-2	교재미정
	翻译理论和实践(漢譯朝)7-2	
北京外国语大学★	韓中飜譯 6-2, 中韓飜譯 7-2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复旦大学※★	翻译理论和技巧韩国语(上)6-2, 翻译理论和技巧韩国语(下)7-2	교재미정
北京大学※★	韓中飜譯 6-3, 中韓飜譯 7-3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中山大学★	朝鲜(韩国)语翻译理论与实践(笔译)7-4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中央民族大学※★	翻译理论和实践(朝譯漢)6-2 翻译理论和实践(漢譯朝)7-2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湖南师范大学★	韓漢互譯 6-4	中韩翻译教程(张敏 외, 2013) 韩中翻译教程(张敏 외, 2012) 汉韩翻译教程(吴玉梅 외,

[6] 교과목 뒤에 있는 두 숫자는 앞의 것은 해당 교과목 개설학기, 뒤의 것은 학점이다.

		2016)
蘇州大學★	韓漢筆譯 5-3	
華南師範大學★	朝鮮語飜譯理論(1)6-2 朝鮮語飜譯理論(2)7-2	
山東大學※★	中韓筆譯 5-2	
中國海洋大學※★	韓國語翻译理论与实践(1)6-2 韓國語翻译理论与实践(2)7-2	
華中師範大學★	韓中飜譯理論(1)6-2, 韓中飜譯理論(2)7-2	
南京師範大学★	韓漢對譯 6-2, 7-2	

<표 1>의 조사 통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범위에 들어오는 98.5 및 211 공정 대학교는 거의 중국 동부주역에 위치해 있다. 그 중, 베이징 5 개, 산둥성 4 개, 지앙쑤성 3 개, 지린성 2개, 상하이 2개, 광둥성 2개, 후난성, 후베이성 각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상의 대학교에서 설치한 번역 교과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의 명칭이 다양하다."翻译理论与实践"이라는 교과목에서 파생되어 나간 교과목 명칭만 해도 "翻译理论与技巧", "中朝(韩)翻译理论与实践", "韩国语翻译理论与实践", "韩中(中韩)翻译理论与实践", "朝鲜语翻译理论" 등이 있다. 거기에 한중-중한번역, 한중-중한통역 등으로 명명된 교과목도 합치면 무려 21 개[7]에 달한다. 그러나 명칭만 다를 뿐, 한중 번역과 중한 번역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둘째, 번역 관련 교과목은 대부분 제 5 학기부터 제 8 학기에 이르러 개설되는데 특히 제 6 학기와 제 7 학기에 집중되어 고급학년 교과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저학년(低學年)에 개설되지 않은 이유는 번역이 쉽지 않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한국어 능력도 최소 중급 수준에 이르러야만 번역 수업을 접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번역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급 이상 수준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조사범위에 속하는 대학교에서 한중·중한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韓中飜譯教程>(张敏 외, 2012)과 <中韓飜譯教程(张敏 외, 2013)>이다. 그 외에 <漢朝朝漢翻譯基礎(金永寿 외, 2009)>과 <汉韩翻译教程(吴玉梅 외, 2016)> 등 교재도 번역 교과목의 교재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난징대학교(南京大学), 푸단대학교(复旦大

[7] 韓譯漢, 漢譯韓, 韓中飜譯, 中韓飜譯, 韓漢互譯, 中韩互译, 韓漢對譯, 韓漢筆譯, 中韓筆譯, 韓國語飜譯, 朝鮮·韓國語筆譯, 韓中飜譯理論, 韓國語翻译理论与实践, 朝鮮語飜譯理論, 翻译理论和实践(朝譯漢), 翻译理论和实践(漢譯朝), 韓中翻译理论与实践, 中韓翻译理论与实践, 翻译理论和技巧韩国语(上), 翻译理论和技巧韩国语(下), 朝鲜(韩国)语翻译理论与实践(笔译).

学) 등 대학교에서는 번역 교재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하는 교재가 비교적 단일하고 이미 출판된 교재도 번역 교과목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더불어 일부 대학교에서는 중한·한중 번역 과목에 대한 해당 수업을 개설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는 한중 번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중국 내 대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한국어 번역 교육의 폐단을 끄집어, 한국어 번역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어 번역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2 한국어 번역 교재 분석

본고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번역 교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논문 검색 사이트, 도서 판매 사이트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조사하여 현재 중국 내 교재 개발 현황을 살피고자 하였다.

<표 1> 한중 번역에 관한 교재

순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한어문 번역에 대하여[8]	최기천	辽宁人民出版社	1980
2	朝汉詩詞翻译技巧	韩东吾	延边大学出版社	1991
3	朝汉翻译教程	张敏	北京大学出版社	1992.9
4	중국어번역기초	장의원	延边大学出版社	1994.6
5	朝汉翻译理论与技巧	韩东吾	延边大学出版社	1994.7
6	한중번역교본	柳英绿	延边大学出版社	2002.9
7	韩中翻译教程	朱锡峰	辽宁民族出版社	2004.8
8	※韩汉翻译教程	程宏·韩瑛	北京大学出版社	2004.10
9	※韩汉翻译实践	金海月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5.7
10	※韩汉翻译技巧	全香兰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5.7
11	韩中翻译教程	张敏·金宜希(韩)	北京大学出版社	2005.8
12	韩中翻译教程(第二版)	张敏·朴光海·金宜希(韩)	北京大学出版社	2006.3
13	韩文汉译实用技巧	沈仪琳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5
14	한중번역교본	柳英绿	延边大学出版社	2006.12

[8] 하안나(2012:13)에 한(限)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15	中级韩汉翻译教程	金兰	北京大学出版社	2008.1
16	한중번역교본	柳英绿	延边大学出版社	2009.6
17	韩汉翻译基础	柳英绿	延边大学出版社	2009.6
18	韩汉翻译教程	李龙海·李承梅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9.8
19	韩中翻译教程	张强·朱会敏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12.2
20	韩中翻译教程(第3版)	张敏·朴光海·金宜希(韩)	北京大学出版社	2012.7
21	韩汉翻译研究：理论与技巧	李民·宋立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7
22	※韩中翻译教程	全香兰·周小波	世界图书出版公司	2015.9
23	韩国语翻译概论	张敏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8.1

<표 2> 중한 번역에 관한 교재

24	한조번역리론연구	太平武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1992.6
25	汉朝翻译教程	金永寿	延边大学出版社	1995
26	朝汉翻译理论与技巧	太平武	中央民族出版社	1999.4
27	中韩翻译教程	李龙海	海洋大学出版社	2000
28	中韩翻译教程	张义源·金日	延边大学出版社	2003.1
29	中韩翻译教程	张敏·金宣希(韩)	北京大学出版社	2005.8
30	中韩翻译教程	朱锡峰	辽宁民族出版社	2006.2
31	中韩翻译教程	张义源·金日	延边大学出版社	2008.7
32	中韩翻译教程(第2版)	张敏·金宣希(韩)	北京大学出版社	2013.7
33	中韩翻译教程	孙志凤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14.7
34	중한 번역 이론과 기교	太平武	民族出版社	2016.5
35	汉韩翻译教程	吴玉梅·金基石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6.6

<표 3> 한중·중한 두 방향에 관한 교재

36	汉朝朝汉翻译基础	金永寿·全化民	延边大学出版社	2003.11
37	韩汉互译教程(一)	李玉华·孙金秋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6.1
38	韩汉互译教程(二)	李玉华·孙金秋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6.10

39	汉朝朝汉翻译基础	金永寿·全化民	延边大学出版社	2009.6
40	中韩韩中翻译	蔡铁军·黄蕾·金晶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0.11
41	中韩互译教程	张敏·张娜	北京大学出版社	2013.3

이상의 도표에 나열된 한중 번역 교재와 중한 번역 교재, 그리고 한중·중한 두 방향에 관한 교재를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재들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이 다양성을 갖춘다. 둘째, 교재 내용을 보면 편찬 시기, 편찬자의 자료 선택에 따른 내용의 시대성, 편중성, 난이도 등 면에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교재들의 구성을 보았을 때 각 교재의 주안점이 다르다. 넷째, 교재에서 번역 교육의 방식이나 지도적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어서 본고는 번역 교재의 선정기준 즉 번역교재 특징의 반영 여부(번역 이론과 번역 기교 포함 여부), 번역 교재 구성의 합리 여부(어휘, 문장, 텍스트 포함 여부), 학부 번역 교육의 요구 만족 여부(번역이론보다는 번역 실제 치중), 구매의 편리 여부(쉽게 구할 수 있음) 등 요소를 고려하여 10 권의 교재를 본고의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4>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는 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韩中翻译教程(第 3 版)	张敏·朴光海·金宣希(韩)	北京大学出版社	2012.7
中韩翻译教程(第 2 版)	张敏·金宣希(韩)	北京大学出版社	2013.7
中韩汉互译教程	张敏·张娜	北京大学出版社	2013.3
中韩翻译教程	张义源·金日	延边大学出版社	2008.7
韩中翻译教程	张强·朱会敏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12.2
中韩翻译教程	孙志凤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14.7
汉韩翻译教程	吴玉梅·金基石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6.6
汉朝朝汉翻译基础	金永寿·全化民	延边大学出版社	2009.6
韩汉翻译教程	李龙海·李承梅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9.8
中韩韩中翻译	蔡铁军·黄蕾·金晶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0.11

한국어 교재 분석과 관련하여 진대연(1999), 이해영(2001), 서종학(2002), 황인교(2003), 강남욱(2005), 김윤주(2011), 정채은(2014), 주정(2015) 등 연구자들은 교재 분석 기준을 언급한 바가 있다.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었지만 번역 교육을 받는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춰 교재 분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연구는 주정(2015)에 한한다. 그는 번역 교육의 특징을 고려하여 번역 방법을 선정하느라 하였지만 아쉽게도 번역 교재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교재 연구 분석은 크게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외적 구성에는 디자인과 편집, 구매와 비용, 관련 구성물의 유무 등이 포괄될 것이고, 내적 구성에는 목표와 교육과정, 전체 구성과 단원의 구성, 그리고 학습내용의 주제, 어휘, 문법, 문화, 발음 등이 망라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도하는 바가 번역 개발 방안이기 때문에 교재의 내적 구성에 중점을 두고 학습활동 및 자율학습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재 분석은 목표와 구성 원리, 한국어 교육, 중국어 교육, 번역 이론, 번역 방법, 학습활동, 평가·피드백 등을 포함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번역 교재 분석 기준

<table>
<tr><td>구분</td><td colspan="3">내용</td></tr>
<tr><td rowspan="3">내</td><td>목표 및 구성 원리</td><td colspan="2">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가?
교육 번역 목적 학습자를 위한 요구분석에 기초하였는가?
학습자의 학습 목적(직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한국어 번역 교육의 특성에 맞게 편성되었는가?</td></tr>
<tr><td>교재구성</td><td colspan="2">전체 교재의 구성은 어떤가?
각 단원의 구성은 어떤가?
각 단원에는 학습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각 단원 학습 내용들이 유기적, 단계적,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td></tr>
<tr><td>영</td><td>주제
(텍스트)</td><td>주제별 세부 상황을 알맞게 제시하였는가?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주제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주제가 다양하고 실제적인가?</td></tr>
</table>

적 구 성	역 별 내 용	언어 교육 (한중)	텍스트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제시하는가? 어휘의 양과 난이도가 적절한가? 비슷한 어휘와 문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문법 설명을 제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필요한 문법에 대한 연습을 다루었는가?
		번역 이론	번역 이론을 제시하는가? 번역 내용이 있다면 단원 주제와 관련되는가? 한중·중한 번역에서 난점 및 번역하지 못한 요소를 제시하는가?
		번역 방법	번역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번역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번역 방법은 어느 언어로 제시되어 있는가? 번역 방법이 단원 텍스트 종류와 연관되어 있는가?
		문화	문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가? 문화 내용이 있다면 텍스트와 관련되는가? 문화 내용이 있다면 번역에 대해 도움이 되는가?
	학습활동		학습 활동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학습 활동의 내용은 주제, 번역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가? 실제 번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학습 문제의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평가·피드백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의 학습 상태를 진달할 수 있는가? 학습 평가 도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학습 활동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상의 번역 교재 분석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재는 대부분 교육 번역과 번역 교육의 혼란을 겪고 있는 바, 교재 중 번역 방법이나 기교 중심에만 지나치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실력과 요구가 고려되지 않았고 분석 대상 교재들은 대부분은 길고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로 설정되어 있다. 세 번째로, 언어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은 제시·설명되었지만, 난이도가 있거나 혼동되기 쉬운 어휘와 문법 및 표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네 번째는 이상의 교재는 학습 활동을 구현함에 있어서 구성 형식이 단일하고 참고 답안도 누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 차이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3. 한국어 번역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지금까지 중국 내 교육기관의 한국어 번역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서 수용되고 있는 한국어 번역 교육과 관련된 교재를 포함한 한국어 번역 교육의 외부환경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더 심층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문제점을 밝혀내 학습자에게 맞는 한국어 번역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 및 교사, 그리고 번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는 20 개 98·5 공정 및 211 공정 대학교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 250 명[9], 한국어 번역 교과목 담당 교사 34 명, 그리고 번역 종사자 89 명을 대상으로 번역 교육의 필요성과 만족도, 그리고 중한·한중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와 번역 교재의 구성 및 번역 이론과 실제번역에 있어서의 결합방식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 중한·한중 번역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원인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
교원은 번역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	12%	**59%**	21%
연습이 부족	48.8%	**70.59%**	44.94%
수업 방식이 재미없음	**54.4%**	23.53%	31.46%
수업 시간 짧음	23.2%	35.29%	34.83%
교재 내용이 실지 생활에서 벗어남	46.4%	**64.71%**	**68.54%**
자기 수준이 교재 수준과 맞지 않음	28%	53%	18%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한·한중 번역 교육에 대한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또한“교재 내용이 실지 생활에서 벗어남”이라는 항목이 학습자나 교사, 번역 종사자를 막론하고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9] 앞서 각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내 4년제 대학교에서는 3, 4학년부터 한국어 번역 교과목을 개설한다. 이런 설정을 고려하여 본 설문지도 각 기관의 3, 4학년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는데 번역 종사자일 경우에는 각 원인 중에서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학습자는 “수업 방식이 재미없음”, 교사는 ‘연습이 부족’에 원인을 꼽을 것에 눈에 들어온다.

<표 7> 번역 수업을 통하여 가장 제고하고 싶은 능력

내용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		
	매우	필요	보통	매우	필요	보통	매우	필요	보통
번역 이론(정의, 기준 등)	19.2%	44.8%	34.4%	23.53%	23.53%	47.06%	7.87%	42.7%	34.83%
번역 방법/번역 기교	42.4%	50.4%	7.2%	29.42%	58.82%	11.76%	42.7%	40.45%	13.48%
정확한 한국어 어휘 표현	41.6%	52%	6.4%	**64.71%**	23.53%	11.76%	59.55%	32.58%	5.62%
정확한 한국어 문법 표현	44.8%	45.6%	8.8%	58.83%	35.29%	5.88%	56.18%	30.34%	7.87%
원어민과 비슷한 언어 표현 습관	**58.4%**	34.4%	7.2%	47.06%	47.06%	5.88%	**71.91%**	20.22%	7.87%
올바른 모국어 문어체 표현 능력	39.2%	44.8%	13.6%	47.06%	41.18%	5.88%	47.19%	38.2%	13.48%
다양한 번역 연습 활동	44.8%	46.4%	8.8%	**64.71%**	29.41%	5.88%	47.19%	43.82%	7.87%
번역 텍스트 내용 지식	37.6%	46.4%	13.6%	47.06%	29.41%	23.53%	35.96%	41.57%	20.22%
양국 간에 문화 지식	43.2%	44.8%	11.2%	23.53%	58.82%	17.65%	39.33%	41.57%	15.73%

위 <표 7>은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가 번역 수업을 통해 가장 제고하고 싶거나 제고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번역 수업을 통하여 각종 능력 즉 종합적 능력향상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해 보아야 할 것은, 학습자와 번역 종사자는 번역 수업을 통하여 “원어민과 비슷한 언어 표현 습관’에 대한 능력제고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대신 교사는‘다양한 번역 연습 활동’과 ‘정확한 한국어 어휘 표현’(각 22 명, 64.71%)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한국

어 문장 습득이나 언어 소통에 있어서 학습자의 어휘와 문법 선택 능력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중한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점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
관련된 문화 배경 지식 부족	**72%**	**83%**	**64%**
문체·텍스트의 표현 방식이 부합되지 않음	43.2%	41.18%	48.31%
원어민 표현 습관에 부합되지 않음	**84.8%**	**100%**	**86.52%**
한국어 맞춤법이 틀림	22.4%	11.76%	14.6%
문법 사용 부당	53.6%	25.32%	39.33%
어휘 사용 부당	**63.2%**	**76.47%**	**60.67%**

<표 9> 한중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점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
번역문의 어순의 혼잡하고 주어가 누락되기	**64%**	**71%**	**49%**
한자어의 영향을 받고 직접 한자로 표시	**52.8%**	**76.47%**	**56.18%**
문어체 표현 방식 부당	45.6%	**64.71%**	**59.55%**
텍스트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	44.8%	41.18%	42.7%
텍스트 내용을 잘 이행하지 못함	**53.6%**	23.53%	42.7%

<표 8>은 중한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관한 통계수치이다. 제시한 바와 같이, 한중 번역에서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는 모두 “원어민 표현 습관에 부합되지 않음”, “관련된 문화 배경 지식 부족”, “어휘 사용 부당”을 택하였는데, 각각 제 1 위, 제 2 위, 제 3 위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한 번역 교재를 개발할 때 한국어 원본 자료와 문화 배경, 그리고 관련된 배경지식이 적당한 비율을 차지하도록 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9>는 한중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통계수치이다. 학습자는 한중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데 대하여 “번역문의 어순의 혼잡하고 주어가 누락되기”, “텍스트 내용을 잘 이행하지 못함”, “한자어의 영향을 받고 직접 한자로 표시”를 택하고 있는 대신, 교사와 번역 종사자는 “텍스트 내용을 잘 이행하지 못함”보다는 “문어체 표현 방식 부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직장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문어체 표현 방식과 관련된 훈련을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10> 한국어 번역 교재에서 다뤄야 할 내용

내용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		
	매우	필요	보통	매우	필요	보통	매우	필요	보통
번역 기본 이론 소개	24.8%	41.6%	30.4%	17.65%	35.29%	47.06%	14.61%	35.96%	39.33%
번역사(飜譯史)	20%	36%	36%	-	35.29%	58.83%	7.87%	21.35%	52.81%
번역 기교·방법	**52%**	36.8%	10.4%	**52.94%**	41.18%	5.88%	**51.69%**	33.71%	13.48%
어휘 설명	44%	45.6%	9.6%	**52.94%**	41.18%	5.88%	46.07%	40.45	11.24%
문법 설명	43.2%	43.2%	12.8%	29.41%	35.3%	29.41%	40.45%	39.33%	19.1%
예문 해독	**50.4%**	38.4%	10.4%	35.29%	52.95%	11.76%	46.07%	38.2%	14.61%
다양한 텍스트 소개	46.4%	44%	9.6%	47.06%	41.18%	11.76%	46.07%	38.2%	16.61%
다양한 연습 형식	**50.4%**	44%	5.6%	**64.71%**	35.29%	-	**64.04%**	29.21%	6.74%

<표 10>는 한국어 번역 교재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한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의응답 통계수치이다. 이 부분에서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는 공동으로 “번역 기교·방법”, “다양한 연습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응답으로, 학습자는 “예문 해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교사는 “어휘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 봐야 것은,‘번역사(飜譯史)’의 통계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교사가 번역 사상이 한국어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교재 개발을 함에 있어서 번역 사상사를 번역 능력 향상과 어떻게 유기적인 결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추가해야 한다.

<표 11> 한국어 번역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 내용 필요성

내용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		
	매우	필요	보통	매우	필요	보통	매우	필요	보통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52%**	42.4%	5.6%	41.18%	41.18%	17.66%	47.19%	35.96%	13.38%
초청장(신년·회의)	28.8%	43.2%	25.6%	17.66%	41.18%	41.18%	28.09%	42.7%	25.84%
연설문	48%	44%	7.2%	**47.06%**	47.06%	5.88%	**51.69%**	34.83%	12.36%
신문보도·뉴스평론	46.4%	43.2%	9.6%	**70.58%**	17.66%	11.76%	**50.56%**	35.96%	11.24%
계획 보고서	45.6%	40.8%	11.2%	**47.06%**	47.06%	5.88%	**61.8%**	34.83%	3.37%
설계 보고서	40%	41.6%	16.8%	29.41%	41.18%	29.41%	30.34%	49.44%	17.98%
증명 서류	42.4%	44.8%	12%	41.18%	35.29%	23.53%	42.7%	37.08%	16.85%
전자우편	**52.8%**	41.6%	5.6%	**52.95%**	35.29%	11.76%	**58.43%**	25.84%	12.36%
축사(신년·회의)	40.8%	42.4%	16%	35.29%	52.95%	11.76%	42.7%	42.7%	12.36%
소개(제품·명승지)	39.2%	46.4%	14.4%	35.29%	52.95%	11.76%	49.44%	43.82%	6.74%
협정 및 법규	36.8%	41.6%	18.4%	23.53%	58.82%	17.65%	46.07%	35.96%	17.98%
성명·연합공보	39.	39.2%	18.4%	35.2	47.06%	17.6	46.0	37.08%	13.48%

	2%			9%		5%	7%		
영화대본	33.6%	37.6%	27.2%	17.65%	47.06%	23.53%	17.98%	43.82%	31.46%
학술논문	**50.4%**	37.6%	11.2%	29.41%	47.06%	17.65%	30.34%	42.7%	23.6%
문학작품 (소설·시가 등)	40.8%	39.2%	18.4%	23.53%	47.06%	23.53%	28.09%	38.2%	25.84%

<표 11> 은 한국어 번역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 내용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이 부분에서도 학습자, 교사, 번역 종사자는 공동으로 “전자우편”,“연설문”, “신문보도·뉴스 평론”,“계획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영화대본”, “초청장”,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통계수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 그다지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교사와 번역 종사자와 달리, 학습자는“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와 “학술논문”을 선호하는데 이는 응답자가 교재를 통해 내용에 대한 습득보다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우려로 실제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 개발에 있어 구분이 없이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다루는 것보다 실용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루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도표에서 한국어 번역 교재의 만족도를 위한 한국어학과 학습자, 현장에서 한국어 번역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그리고 번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내용에 대한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번역 교육 과정과 번역 교재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현행되는 중한·한중 번역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재 중 번역 이론과 방법의 분량도 작으며, 실용성도 떨어지는 문제는 공동으로 지적해냈다. 그러나 번역 교재의 구성 자료에 대한 대답은 선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번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맞지 않다. 둘째, 번역 교육을 진행할 때 번역 이론과 실제 모두를 중요시한다. 셋째, 번역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있어 바람직한 수업 자료는 향후 직장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넷째, 교재 내용에 관한 여러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이 교재 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고, 이 결과를 교재 개발에 반영할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번역 교육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중국 대학의 한국어 번역 교육의

현황, 번역 교재 분석을 통하여 번역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습자, 교사, 번역종사자 등 번역 교재 수요자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 교재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98·5 와 211 공정 대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또한 필수 수업인 번역과정을 조사대상으로 번역 교과목의 명칭과 학점, 개설학기, 사용 교재 등에 대한 내용도 조사대상에 넣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각 대학교에서 설치한 번역 교과목의 특징은, 첫째, 교과목의 명칭이 다양하지만 한중 번역과 중한 번역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둘째, 번역 관련 교과목은 대부분 제 5 학기부터 제 8 학기에 이르러 개설되는데 특히 제 6 학기와 제 7 학기에 집중되어 고급학년 교과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번역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중급 이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셋째, 사용하는 교재가 비교적 단일하고 이미 출판된 교재도 번역 교과목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교재분석에 들어가서는, 중국 내 한국어 번역 교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 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논문 검색 사이트, 도서 판매 사이트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조사하여 현재 중국 내 교재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 현재 사용 중인 교재는 대부분 교육 번역과 번역 교육의 혼란을 겪고 있는 바, 교재 중 번역 방법이나 기교 중심에만 지나치게 구성되어 있고, 학습자의 실력과 요구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 교재들은 대부분은 길고 난이도가 높은 텍스트로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난이도가 있거나 혼동되기 쉬운 어휘와 문법 및 표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학습 활동을 구현함에 있어서 단일하고 참고 답안도 누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 차이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도 부족하다.

제 3 절에서는 학습자에게 맞는 한국어 번역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 개 98·5 공정 및 211 공정 대학교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 250 명, 한국어 번역 교과목 담당 교사 34 명, 그리고 번역 종사자 89 명을 대상으로 번역 교육의 필요성과 만족도, 그리고 중한·한중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와 번역 교재의 구성 및 번역 이론과 실제번역에 있어서의 결합방식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내용에 대한 응답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현행되는 중한·한중 번역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재 중 번역 이론과 방법의 분량도 작으며, 실용성도 떨어지는 문제는 공동으로 지적해냈다. 그러나 번역 교재에 존재하는 문제점이나 구성 자료에 대한 대답은 응답은 선명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번역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원인과 번역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 내용으로 학습자가 “수업 방식이 재미없음”과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와 “학술논문”을 선택하는 가 하면, 번역 수업을 통하여 가장 제고하고 싶은 능력에서는 교사가‘다양한 번역 연습 활동’과‘정확한 한국어 어휘 표현’을 꼽고 있다. 이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입장에 서서 수업 과정과 교재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아래와 같은 번역교수 및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중국 내 대학교에서 번역 과정은 교육 시간이 짧고 전공 교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을 늘리고 번역 교수 양성에 있어 중국 내 자체 양성과 중한합작 양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둘째, 번역 교육을 세분화·구체화되는 추세로 확대해야 한다. “중한미디어번역”, “문학번역”외에“정치시사번역”, “경제무역번역”, “과학기술번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영역에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고 여러 층위에 적용하는 교재가 활발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론적인 지식 습득과 번역 실제를 잘 결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번역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중한 각 분야에 관한 잡지, 문학작품과 도서들, 사이트, 드라마의 번역된 자막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실시된 설문 조사 대상을‘20개 98.5공정 및 211공정 대학교’로만 한한 점이다. 따라서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보편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조사 대상 기관과 대규모의 응답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어 번역 교육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는 기초적인 조사와 통계 분석으로 번역 교육 관련 연구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기석(2006),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 방법론”, 「국어교육연구」18, 서울대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245-266.

李太福·王庆云(2017), “한국어학과 번역과목의 현존 문제점과 보완책에 관한 연구-교수 실제 및 교재 내용설정의 미비점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韩国语教学与研究」, pp. 49-55.

朴银淑(2018), “중국내 대학교 한국어과 번역 관련 교과목 및 교재에 대한 연구”,「한중인문학 연구」, Vol.58 No.-, 한중인문학회, pp. 111-132.

안미현(2010), “외국어교육과 번역교육의 상관관계”, 한국독일어교육학회,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pp. 39-61.

吴春花(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번역교수의 효율화방안 연구”, 「中國學論叢」Vol.11 No, 韓國中國文化學會, pp. 443-461.

원려근(2014),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중국어 번역 오류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미경(2012),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Vol.13 No.2, 한국번역학회, pp. 139-164.

장 민(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번역 교육”,「Korean 연구와 교육」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어문학연구소, pp. 137-146.

정채은(2014), “관광 목적 한국어 교재 분석: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용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주 정(2015),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용 한중 번역 교재 개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國語敎育學硏究」Vol.9 No.1, 국어교육학회, pp. 407-434.

하안나(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번역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pp. 287-329.

홍경아(2012), “텍스트성을 활용한 실무중심 번역 교육”,「통번역학연구」, Vol.16 No.3, pp. 211-233.

홍영매(2005), “한국어 敎育에서의 中韓 번역 교육 內容 構成 硏究”, 석사학위논문, 서울大學校 大學院.

이름: 송향근
소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 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화: + 82-10-3324-3072
전자우편: hksong@bufs.ac.kr

이름: 정이붕 (郑怡鹏)
소속: 천진사범대학교
주소: 天津市西青区宾水西道延长线 393 号
우편번호: 300387
전화: 13512829016 / + 82-10-7408-5116
전자우편: zhengyipeng13@qq.com

통역의 방향성이 도착어 비유창성에 미친 영향

-중한, 한중 순차 통역을 사례로

이민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1.연구목적

중한 양국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형성과 한중 FTA 협의 타결에 따라 통역은 중한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 현장의 통역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통역 인재 양성을 하는 데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역과 번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번역과 달리 통역이 시간적 제약 하에서 실시간대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통역사의 정보처리 능력을 실시간대로 최대한 작동하도록 하는 인지적 부하를 기본으로 한다(이태형, 2013:192). 또 한편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순차통역은 이중언어 간의 전환 활동으로서 말하기, 특히 입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말하기는 현장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의사소통의 영역이므로 화자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서종훈, 2013:28). 비유창적인 현상은 주로 무언 휴지(unfilled pause), 유언 휴지(filled pause), 반복(repeats) 및 자기 수정(self-repairs) 등과 같이 비유창적인 요소들이 동반된다(戴朝晖, 2011:38). 통역은 이런 면에서 입말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통역은 두 가지 언어간의 실시간 전환으로서 통역사의 B 언어 능력이 모국어와 어느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할 때 모국어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유창성 성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 한편으로는 통역 행위가 발생하는 환경 자체가 모국어로 소통하거나 외국어로 직접 소통하는 것과 달리 시간 상의 긴박감, 심리적인 긴장감, 청자의 기대감 등으로 인해 말하기보다 휴지를 비롯한 비유창성 문제가 더 많이 초래된다(刘绍龙, 2007:115-120). 그럼으로 통역 과정에 나타난 비유창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통역 질 향상과 통역 평가의 과학성 확립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符荣波, 2012:437).

그렇다면 통역의 과정에서 A 언어에서 B 언어로 통역할 때와 B 언어에서 A 언어로 통역할 때 도착어의 유창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통역 대회 본선 참가자들의 통역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통역의 방향성이 도착어 비유창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유창성 및 비유창성

유창성은 언어치료 분야와 외국어 교육 등을 비롯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유창성의 정의는 언어 형식에 맞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그 언어에 숙달되어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권도하 등, 2011). 일반적인 유창성은 반복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적절한 속도로 말을 하는 말하기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언어 유창성은 의미, 음운, 구문, 화용 등의 언어 영역별 유창성 능력을 말하며 의미적으로 유창하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 음운론적으로 유창하면 무의미하고 복잡한 음절들을 연속으로 발음할 수 있으며 구문론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며 화용론적으로 유창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숙달된 구두적 반응을 한다 (Starkweather, 1987). 김유정(1999)에 따르면 유창성은 거침없이 능숙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유창성이란 언어 사용자가 한 언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뜻한다고 한다. 말하기의 경우에는 언어 사용자가 내재하고 있는 능력을 언어 수행에 옮기는 생산 능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말을 막힘없이 자신감있게 잘하는 정도라고도 한다. 그러나 통역의 경우에는 언어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언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막힘없는 어휘 구사 능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유아, 2010:45).

이와 반대로 비유창성은 말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막힘, 연장, 음소반복, 음절반복, 낱말반복, 낱말군 반복을 포함한다(심현섭, 2000:102). 통역을 할 때 통역사는 원문의 이해에서부터 변환을 거쳐 발화하고 또한 현장의 긴장한 분위기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도착어에 비유창적인 요소들이 동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통역의 유창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요약해 보면 크게 휴지, 반복, 수정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심현섭(2000:102)에서는 말이 의도한 대로 산출되지 않았거나 말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발화 산출이 지연되거나 발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자기 수정으로 규정한 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세분화시켜서 원천어를 도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음 낱말이나 음소 산출을 준비하기 위해 앞의 낱말이나 음소를 과도 연장하는 경우와 ‘en’, ‘e’, ‘a’, ‘그’, ‘음’ 등의 음성 표지를 수반하는 것을 휴지로 규정하고 낱말 또는 음소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말을 다시 시작하는 행동을 수정으로 간주하며 막힘이 없이 반복이 있는 경우를 반복으로 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휴지, 수정,

반복, 이 세 가지 변량을 통역의 비유창성을 검증하는 척도로 규정한다.

3.선행연구

지금까지 비유창성 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 생산의 비유창성과 통역 생산의 비유창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3.1 언어 생산의 비유창성 연구

유럽에서는 Raupach(1980)에서 처음으로 시간적 변량을 가지고 말하기 데이타에 대해 계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유창성 및 비유창성 문제를 고찰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유창성과 비유창성 문제를 연구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0 년 이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동들의 말더듬기로 인한 비유창성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변재원 외 2004;이혜란 외 2009 등). 2010 년을 전후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와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시점과 맞물려 언어치료학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아동, 중도 입국자녀, 한국가정의 조기 이중 언어 사용 아동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와 외국어를 사용하는 내외국인의 언어 및 유창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기 시작했다(이효진 외, 2013:125).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읽기, 쓰기, 말하기 유창성 특성에 대한 고찰을 많이 시도했다(马冬梅, 2012,2013; 缪海燕, 2009, 2013 등).

3.2 통역 생산의 비유창성 연구

PÖchhacker(1995)에서는 영어와 독일어로 진행된 회의통역 데이타를 가지고 발화자와 통역사 간의 말오류에 대해 대조 분석을 했다. Tissi(2000)에서는 동시통역 과정에 있어서 휴지 등 비유창성 현상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비유창성 유형을 제시했다. Cecot(2001)에서는 전문 통역사를 대상으로 동시통역 과정에서 나타난 휴지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에서는 이태형(1999)에서 영한 동시통역에 있어서의 휴지 현상, 특히 의도한 휴지를 연구 목적으로 두고 분석했다. 이유아(2010)에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한일 동시통역에 있어서의 유창성 전략을 고찰했고 이태형(2012)에서는 실제 생방송 영한 동시통역 자료를 분석하여 문장 내에서 1 초 이상의 과도한 휴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구했다. 중국 국내에서는 徐海銘(2010)에서는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를 대상으로 중영 순차통역에 있어서의 휴지 현상 및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휴지는 노트 테이킹 정리, 도착어 산출 수정을 위한 통역 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戴朝暉(2011)에서는

영어 시험에 사용된 학습자 통역 코퍼스를 이용해 중영 통역에서 나타난 비유창성 현상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학자들은 통역에 있어서의 비유창성 문제를 다소적으로 다루었지만 한일, 영한, 중영 등 대부분 한 방향의 통역 유형만 고려했다.

Mead(2000)에서는 영어 및 이탈리아어 간에 일어난 순차통역 행위를 실험 대상으로 휴지 및 언어 방향성의 관계를 토의한 결과 A 언어로 통역하는 경우, B 언어로 통역하는 것보다 유창성이 낫다고 한다. 符榮波(2013)에서는 영어과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중, 중영 쌍방향 순차통역 산출을 분석하여 통계 처리를 한 결과 통역의 방향성 및 도착어 유창성 간에 관련이 없고 A 언어로 통역하는 경우, B 언어로 통역하는 것보다 유창성이 낫지 않다고 한다. 이 두 연구는 각각 영어권 언어간, 영어권 언어 및 동양권 언어 간에 일어난 통역 양상을 고찰했고 또 서로 정반대가 되는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같은 동양 한자어권에 속해 있는 중국어와 한국어 간의 전환에 있어서 통역의 방향성 및 도착어의 비유창성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통역의 방향성과 도착어의 유창성 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4.연구 방법 및 절차

符榮波(2013)에서는 휴지, 반복, 수정을 변량으로 통계처리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맥락에 따라, 즉, 휴지, 반복, 수정 이 3 가지 변량에 대한 관찰과 수집, 그리고 분석에 초점을 둔다.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순차통역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고 화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 2014 년 11 월 15 일에 베이징 제 2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제 7 회 다언어 전국 통역 대회---한국어 파트” 본선에 진출한 6 명의 참가자들의 통역문을 데이타로 선정하기로 했다. 전국 15 개 학교의 한국어과에서 선발한 15 명의 학생들은 각자 학교의 최고 한국어 통역 실력을 갖춘 자로서 11 월 15 일 오전에 진행된 예선에 참가하였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15 명 중 9 명이 탈락되었고 나머지 6 명만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에서는 한중, 중한 각각 40 초 가량 되는 3 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진행했다. 아나운서가 녹음을 한 단락을 듣고 “땡”소리가 나면 참가자는 50 초 내지 1 분의 시간 안에 통역을 한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땡” 소릭 들리면 바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서 통역을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통역 대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녹음했고 컴퓨터에 녹음된 내용을 디지털 음성 파일로 저장한 후 한중, 중한 순차통역 내용을 전사했다. 그

런 다음에는 음성파일을 음성 편집 프로그램인 Gold Wave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얻어진 수치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17.0 버전으로 통계 처리를 했다.

4.2 변량에 대한 통계

앞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언어 산출의 비유창성은 주로 휴지, 반복 및 자기 수정 3 가지를 포함한다.

휴지(pause)는 대화하는 중에 일어나는 말 중단이다. 휴지는 너무 길거나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는 말 멈춤이다. 휴지의 종류는 언어 산출의 시간적 양상으로 유언휴지와 무언휴지가 있다. 유언 휴지는 내용어 없이 “um”, “uh”, “a”, “그”, “那个”, ”就是”등 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체워진 말의 멈춤이다. 무언휴지는 200ms 내지 250ms 이상 어떤 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말이 없는 빈 멈춤이다. 본 논문에서는 휴지를 통계할 때 유언 휴지와 무언 휴지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통역에 있어서의 과도한 휴지로 처리하고 함께 통계한다. 무언 휴지를 통계할 때 휴지 중 문장 내에서 발생한 1 초 이상의 휴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정도의 휴지는 통역사 측에서 원활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경우 청중들은 통역사가 정보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태형, 2012:203).

비유창성 반복(repeats)은 단어 결합, 문법 등에 대한 변경없이 음소, 단어, 구절, 구 등은 말을 더듬듯이 다시한번 언급한 경우를 말한다. 통역문을 전사해 보니 음소나 단어, 그리고 구절을 2 번 이상 반복된 경우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은 모두 1 번으로 통계처리한다.

戴朝暉(2011)에 의하면 수정은 다른 정보로 대체하기(different repairs), 적당한 표현으로 대체하기(appropriacy repairs), 그리고 틀린 정보를 수정하기(error repairs), 이렇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분류를 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로 앞에 말한 정보를 대체하는 것을 모두 수정으로 규정하여 통계한다.

단, 휴지와 반복이나 수정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 휴지로 통계하지 않고 반복이나 수정으로 규정한다.

4.3 데이타 분석

도착어 비유창성을 나타내는 각 변량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Gold Wave 에 입력한 파도형 파일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휴지, 반복, 수정의 구체적인 위치와 회수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표 1>의 비유창성 변량을 나타내는 개괄적 자료를 획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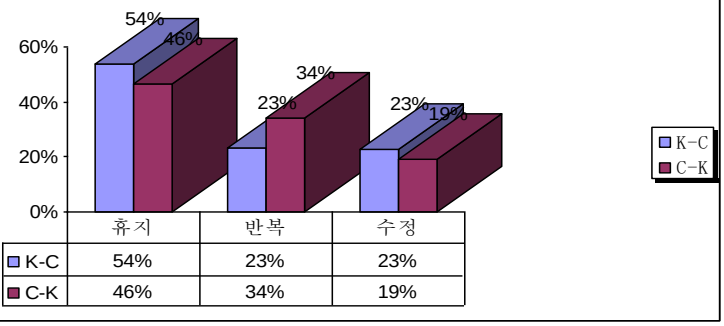
<표 1>

대회 참가자	통역 방향	휴지	반복	수정
1	K-C	14	3	1
	C-K	15	8	6
2	K-C	24	0	1
	C-K	45	5	3
3	K-C	12	20	11
	C-K	15	43	6
4	K-C	1	3	7
	C-K	8	9	9
5	K-C	6	4	4
	C-K	2	12	9
6	K-C	14	1	6
	C-K	23	3	12

더욱 구체적인 수치 분석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구성한다.

먼저, 두 가지 통역 방향성에 있어서 대회 참가자들의 비유창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표 1 에서 획득한 수치를 분류별로 합계하여 그림 1 을 획득한다.

<그림 1> 한중, 중한 통역에 있어서 도착어 비유창성 비율



	휴지	반복	수정
K-C	54%	23%	23%
C-K	46%	34%	19%

<그림 1>에 나타나듯이 6 명 참가자들의 도착어 비유창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휴지, 반복, 수정 이 3 가지 유형 중에서 과도한 휴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수정의 비율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각 유형의 내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한중 통역을 할 때 휴지와 수정의 확률이 비교적 높았고 중한 통역을 할 때는 반복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0.05 수준에서 x^2=0.096 로 나타나므로 통역의 방향성과 도착어 비유창성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각

변량별로 통역 방향성과의 관계를 t-test 를 통해서 검증한다.

1) 과도한 휴지

과도한 휴지에 있어서는 한중 통역과 중한 통역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중 통역이든 중한 통역이든 과도한 휴지라는 변수가 통역의 방향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균이 -0.6167 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한중 통역에 비해서 중한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휴지 양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중 통역을 할 때 원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떻든 간에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에 포착해서 바로 모국어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로 통역을 할 때 100% input 된 정보를 적당한 한국어 등가어를 검색해서 전환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중 통역이든 중한 통역이든 과도한 휴지라는 변량이 각각 54%와 46%로 다른 두 가지 변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통역을 할 때 현장 분위기로 인한 압박감, 언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갑자기 언어 산출이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언어 생산할 때 습관적으로 “en”, “a”와 같은 말버릇이 동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반복

반복에 있어서 한중 통역에 비해 중한 통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반복이라는 변량은 통역의 방향성과 크게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Mead(2000)에서 제시한 모국어로 통역하는 것은 외국어로 통역하는 것보다 유창하다는 주장과 일치하다.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전환하는 것보다 모국어를 한국어로 전환할 때 참가자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인 한국어로 전환할 때 참가자들은 산출된 도착어의 정확성에 대해 자신이 없고 어떤 한국어 등가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자꾸 망설이는 경향을 보여서 말을 더듬거리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3) 수정

수정에 있어서 한중 통역과 중한 통역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한중 통역을 하는 것보다 중한 통역을 할 때 도착어에 대한 수정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중 통역이든 중한 통역이든 참가자들이 도착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전문가 통역사가 아닌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압박감이 강한 분위기 속에서 원문을 듣고 실시간으로 등가어를 검색해서 산출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림 1> 전반적인 데이타를 보면 중한 통역에 있어서는 수정은 세 가지 변량 중에서 제일 적은 확률인 19%

만 차지하는데 한중 통역에 있어서는 수정은 반복과 모두 같은 확률인 23%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도착어를 산출하는 경우 대회 참가자들이 산출된 등가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착어에 대한 수정의 빈도가 그다지 많지 않다. 도착어 내용이 머릿속에 축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한 휴지의 양상을 보이고 또 도착어가 산출된 후 도착어의 정확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로 음절이나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만 수정하는 경우가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국어로 통역을 할 때 산출된 등가어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통해서 통역문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4.4 샘플 분석

위에서 t-test 검증을 통해서 각 변량에 있어서 통역 방향성 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지도 방안을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문을 통해서 각 변량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샘플 내용을 전사할 때 참가자들의 통역 내용 상의 문법적인 오류에 대한 수정을 거치지 않고 음성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전사한다.

1) 휴지

예문(1) 과도한 휴지 및 통역 방향성과 관련된 전사본 (한중)

对于人们的日常生活来说呢，天气是一个非常大的影响要素。天气不仅会影响人们的感情，也会影响一些市场经济类的一些东西。(en)当然，现在天气的有关信息呢，对市场有重要的影响，所以一部分的企业呢，利用这个天气的信息来活跃现在的经济。(en)所以(en)现在的这些企业们呢，利用这些(en)和天气气象有关的信息，(en)来进行自己的产品促销。

예문(2) 과도한 휴지 및 통역 방향성과 관련된 전사본 (중한)

환태평양 협력 관계 협정은 주로 TPP 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en)이는 미국의 주도로 전세계적으로 최대의 다국간의 경제적인 정치 협력 협정입니다. (en)이 협정의 목표는 2015 년전까지 아시아 지역의 모든 관세를 면제하여 (en, uh)아태 경제 일체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n)또 처음에는 (en)이것과 문래와 지리, (en)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en)(네 개) 네 개 국가만 구성된 (en)협정으로서 2005 년 후에 (en)또 2008 년까지 미국도 다시 가입하여 지금까지 열 두개의 국가로 구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참가자들은 보통 3 가지 경우에 휴지 경향을 보인다. 첫

번째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휴지하는 것이다. 위의 샘플에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전사 내용에 대한 관찰을 해 보니 어떤 참가자는 통역을 시작하는 첫 문장의 머리 부분에 “um”와 같은 휴지를 수반하는 음소를 넣는다. 두번째는 시간적 부사어, 연결부사 뒤에 휴지를 수반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단어를 산출할 때 종종 휴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서 통역을 맡을 때 참가자들의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들은 내용을 머리속에서 도착어로 전환시켜서 산출할 때 수행기억 상의 처리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통역이 말하기처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말하기할 때 “en”, “uh”와 같은 습관적으로 뱉은 말버릇도 함께 드러난다.

2) 반복 (반복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예문(3) 반복 및 통역 방향성과 관련된 전사본 (한중)

（由于）根据气候的不同，消费者的购买类型也会发生不断变化，因此能够及时把握消费者的消费心理并制定相应的营销策略，同时调整供应量及进行广告策略的调整，对企业来说非常重要。现在在世界其他国家，一些大企业，根据天气而进行科学性的营销方案的调整(en)已经成为一种普遍化的现象。

예문(4) 반복 및 통역 방향성과 관련된 전사본 (중한)

TPP (협상)협정은 원칙적으로 (en)관세를 없어져야 되는데 다른 협정보다 더 자유로운 협정입니다. (en)관세를 빼고 에너지 등 자유도 필요합니다. 이제 근데 각 나라는 자기의 그 나라에 따라서 좀 약한 지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문(3)과 예문(4)에서 보듯이 통역 과정 중의 반복 현상은 대부분 특정한 단어나 표현의 산출에 의해 나타난다. 반복돼서 산출된 단어나 표현은 보통 길이가 짧고 어떤 경우에 한 단어의 첫 음질이나 앞의 몇개의 음절만 반복된 경우도 있다. 이는 통역을 맡은 자의 산출된 단어나 표현의 정확성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뒤에 이어져 산출될 문장을 머리속에서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역할도 한다(戴朝晖, 2011:41). 한 마디로 화용론 측면에서 봤을 때 통역 과정에 나타난 반복 현상은 유언 휴지와 같이 산출을 하기 위해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3) 수정 (참가자들이 통역 과정에서 스스로 수정한 부분은 [ ]로 표시함)

예문(5) 수정 및 통역 방향성과 관련된 전사본 (한중)

现在像天气一样对人类日常生活起到重要作用的东西并不多。[而且现在][现在企业们]天气不仅影响人们的[感情]情绪，还会影响人们的购买欲望。现在有一种根据天

气营销而进行的营销方式，它是将天气和企业营销活动尽可能结合起来，（那个）（en）使市场活性化，促进人们的购买力。它[也对企业]也是企业获取市场营销的一个重要方面。

예문(5) 수정 및 통역 방향성과 관련된 전사본 (중한)

TPP 는 관세 철폐로서 FTA 보다 (……)[내용이]범위가 더 넓고 자유화도가 더 높습니다. 관세 철폐 외에 인적 자본의 자유화 유통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하여]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국은]각국의 상황을 근거하여 협상 기간에 [일정의]일정한 완충 기간을 (……)통해 국내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개의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통역에 있어서 수정은 문법적인 오류를 고치거나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통역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발화 행위이고 또한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이유로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통역문에 대한 수정을 많이 할 수 없게 마련이다. 또한 과도한 휴지나 반복은 심리적인 부담때문에, 정보 산출이나 습관적인 말버릇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행위라면 수정은 통역을 맡은 자들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통역을 맡은 자들은 통역문의 유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고 또한 특별히 더 좋은 표현으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될 수 있는 한 수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수정의 확률이 다른 변량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5.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중국어와 한국어 간의 전환에 있어서 통역의 방향성 및 도착어의 비유창성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했다. Mead(2000)에서는 A 언어로 통역하는 경우, B 언어로 통역하는 것보다 유창성이 낮다고 한 반면 符榮波(2013)에서는 통역의 방향성 및 도착어 유창성 간에 관련이 없고 A 언어로 통역하는 경우, B 언어로 통역하는 것보다 유창성이 낮지 않다고 한다. 본 논문은 2014 년 전국 한중, 중한 순차통역 대회 본선 참가자들의 통역 내용을 분석하여 과도한 휴지, 반복, 수정, 이 세 가지 변량이 순차통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통역의 방향성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계처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과도한 휴지와 수정의 경우, 한중 통역과 중한 통역에 있어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로지 반복의 경우에만 한중 통역에 비해 중한 통역을 할 때 발생한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다. 한마디로 통역의 방향성과 도착어의 유창성 간에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도착어가 유창하게 산출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통역의 방향성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모국어로 통역하는 것은 외국어

로 통역하는 것보다 꼭 유창한 것이 아니다. 이는 符榮波(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통계 분석과 샘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역하는 데 있어서 도착어의 비유창성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은 주로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순차통역의 정보처리 부하로 인해 통역을 맡은 자는 뒤 문장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휴지와 반복 행위를 하게 된다. 두번째는 통역은 말하기처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발화자의 말하기 습관으로 인해 내용 전달 상으로 필요없는 말버릇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en”, “uh”, “a”, “그” 등과 같은 말버릇들은 과도한 휴지 중의 하나인 유언 휴지로서 통역 유창성을 방해한다. 세번째로 순차통역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분위기 아래에서 발생하는 통역 행위로서 통역을 맡은 자들은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말을 더듬거나 등가어 검색 지연과 말실수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음소나 표현을 반복하거나 틀렸다고 판단된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행동들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중한, 한중 통역사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 원문 분석과 도착어의 정확성, 통역 전략 등 언어적과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기억 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 처리 능력, 듣기와 노트테이킹을 적절하게 분배시키는 것도 훈련시켜야 한다. 그밖에 통역 현장 모의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감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유언 휴지로 나타난 각종 말버릇을 억제하여 통역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통계수치를 가지고 통역의 방향성과 도착어의 비유창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남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변량 빈도에 대한 통계는 수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였으므로 여기서 발견된 점들이 전문 통역사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대회 참가자들의 노트테이킹과 유성 사유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참고문헌>

Cecot, M(2001), Paus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A contrastive analysis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performances, The Interpreters'Newsletter.

Mead, P(2002), Control of puses by trainee interpreters in their A and B language, The Interpreters' Newsletter, pp:10:89-102.

PÖchhacker, F(1995), Slips and shift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J. Tommola (ed.), Topics in Interpreting Research, Turku : University of Turku.

Raupach, M(1980), Temporal variables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speech production, In H. W. Dechert&M. Raupach(eds.), Temporal variables in speech, The Hague: Mouton, pp:263-270.

Starkweather, W., Gottwalk, R., & Halfond, M(1987), Stuttering prevention: A clinical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Tissi, B(2000), Silent pauses and disfluencie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A descriptive analysis, The Interpreters' Newsletter , pp: 10 : 103-127.

권도하, 외 8 인(2011), 『유창성장애』, 서울: 학지사.

김태경, 외 2 인(2010), "유창성 요인으로 본 말하기 능력", 『한국언어문화』, 제 34 권.

민광준(2004), 『한일 양 언어 윤율의 음향음성학적 대조 연구』, 서울, J&C.

변재원, 외 2 인(2004), "초기 말더듬이 아동의 비유창성 특수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

서종훈(2013), "말하기에 드러난 '쉼(pause)' 인식 양상 연구", 『어문학』, 119 기, pp:28.

심현섭(2000), "내적 수정 가설 검증 연구: 말 오류, 비유창성, 자기수정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pp:102.

이유아(2010), "한일 동시통역에 있어서의 유창성 전략에 관한 고찰", 『일어일문학』, 제 45 기, pp:45.

이태형(2013), "영어 한국어간 순차통역의 시간적 양상", 『통역과 번역』, 15(2), pp:192.

이태형(1999), "영한 동시통역에 있어서의 휴지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창간호.

이태형(2012), "영한 동시통역의 문장 내 과도한 휴지 연구", 『통역과 번역』, (2), pp:203.

이혜란, 외 2 인(2009), "3-5 세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종류 및 수반 행동의 종류가 수반행동의 시작 시점에 미친 영향", 『특수 교육학 연구』, (2).

이효진, 외 2 인(2013), "한국어 학습 외국인의 읽기, 쓰기, 말하기 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4), pp:125.

戴朝晖(2011),"中国大学生汉英口译非流利现象研究",『上海翻译』, (1), pp:38, 41.

符荣波(2012),"英汉双向交替传译中译语停顿的对比研究",『外语教学与研究』,(3), pp:437.

符荣波(2013),“口译方向性对译语非流利产出的影响”, 『现代外语』,(2).
刘绍龙(2007), 『翻译心理学』, 武汉：武汉大学出版社, pp:115-120.
马冬梅(2012),“口语非流利产出分类体系研究”, 『外语与外语教学』,(4).
马冬梅、刘健刚(2013), “英语专业研究生口语非流利重复特征研究”,『现代外语』,(4).
缪海燕(2009), “第二语言口语非流利产出的停顿研究”, 『解放军外语学院学报』,(4).
缪海燕、刘春燕 (2013), “英语专业学生的口语非流利填充策略研究”, 『解放军外语学院学报』,(6).
徐海铭(2010), “汉英交替传译活动中的口译停顿现象实证研究——以国际会议职业口译受训译员为例”, 『外语研究』,(1).

저자: 이민(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13074163925 limin@dlufl.edu.cn

중한-한중 번역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중국 내 번역 교육 현황과 학습자의 번역문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담 결

(중남임업과학기술대학교)

1. 들어가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45 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92 년 중·한 수교 이후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간의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면서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의 수요가 급속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2000 년대에 들어 중국 내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교의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 이와 동시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도 변화하였다. 즉 1990 년대 이전 각 대학 한국어학과의 교육목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 및 외교 등과 관련된 인재의 양성이었으나, 1990 년대 이후로는 한국문화를 파악하고 한국어로 외교, 대외경제무역, 교육, 문화교류, 연구 등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용형(实用型) 인재의 양성으로 변해 왔다. 이러한 변화로 중국 내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만으로 나누어 교수되지 않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역사, 번역' 등 다양한 능력을 모두 지닌 한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한 양국 간의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면서 전문적인 번역인재의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향후 취직을 대비하여 자신의 번역 능력 향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번역교육은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번역 실력을 갖춘 전문인재의 양성은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중요한 교육목표 중의 하나이다.

[1]수교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대학교는 북경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해방군낙양외국어대학교, 연변대학교 그리고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불과 5곳이었다. 그러나 중국 고등교육(高等教育) 정보 사이트인 학신망(学信网)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2월 30일 기준,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4년제 대학교는 124개, 3년제 전문대학교는 140개가 있다.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과목은 각 대학교에 따라 구체적인 교과목의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리하면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 및 졸업논문 3 부분으로 구성되며,[2] 그 중 대부분의 대학교는 3,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번역 수업을 진행되고 있다.[3] 이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 번역 수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번역수업은 보통 대학교 3,4 학년 때 개설되고 있고, 다른 전공 과목보다 늦게 시작하고 학습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그리고 번역수업의 특성으로 학습자들은 짧은 학습시간 내에 비교적 많고 다양한 번역지식을 배우고 소화해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으로 구성된 번역 교재가 없거나 교사가 직접 선정된 텍스트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번역수업의 교육내용을 소화해내기 힘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열정이 떨어져 번역에 대한 두려움만 계속 커진다.

이러한 현황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번역수업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떤 교재로 진행해야 하는지,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요구에 만족한 교재를 찾거나 개발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학습자들이 번역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시해야 하며, 향후 중한-한중 번역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을 두고 현재 중국 내 한국어학과에서의 번역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중국어권 학습자둘이 중한-한중 번역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중한-한국 번역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중한-한중 번역교육 관련 연구의 최근 경향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역사가 70 여년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번역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吴春花(2001)[4]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한-한중 번역 관련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나 연구 방향이

[2] 전공과목은 한국어의 기초 언어지식부터 중급, 고급 언어 지식을 비롯한 한국 사회 문화, 직업 수행하기 위한 한국어 등을 포함한다.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13개 대학에서의 한국어 전공과목을 정리한 결과, 크게 어학과목, 문화 관련 과목, 직무수행을 위한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3] 홍영매(2005)는 2004년 6월~10월 4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중국 내 각 대학 한국어학과를 대상으로 번역 과목의 개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번역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체 대학교 수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吴春花(2001)는 번역 이론을 제시하고, 중국 내 대학교의 번역 수업 실태를 고찰하여,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번역의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있다.

2001 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한-한중 번역 관련 연구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한-한중 번역 관련 연구물

연구방향	연구물
번역교육 방안 연구	吴春花(2001), 홍영매(2005), 고암(2009), 高弼兰(2009), 金莲花 (2011), 하안나(2012)등
번역에서 나타난 오류분석 연구	여려(2007), 한운운(2007), 당문평(2007), 이정원(2011), 주원(2012), 程水锋 (2016) 등
중한 대조 연구	김미성(2006), 김민정(2009), 장언청(2009), 범신성(2010), 김려(2011) 등
중한-한중 번역전략 연구	王敏·张宗琴 (2008), 纪艳青·王爱云 (2009), 문윤희(2010),吕春海(2011), 庄庆涛 (2014), 刘畅 (2015), 李雪莹 (2016), 王秀娜·白璐 (2016), 金莲花 (2017), 贾世秀·崔桂花 (2017) 등
중한-한중 번역교육 실태 조사	HE,Wenqi(2013), 矫红红 (2016)
중한-한중 번역 연구(문학/영상)	孙霄(2008), 김혜민(2017), 중국 내 학위논문들 등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중한-한중 번역 관련 연구는 번역교육 방안 연구, 번역에서 나타난 오류분석 연구, 중한 특정한 영역 대조 연구(어휘 위주), 중한-한중 번역전략 연구, 교육실태 조사, 문학/영상 작품 번역 연구 등으로 나누어진다. 번역교육 방안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인 반면 중한-한중 번역전략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한국어교원들 자신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발표한 연구물들이다. 또한 번역(笔译) 연구보다 통역(口译) 연구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 몇 년에 들어 중한-한중 문학작품 또는 영상작품 번역 연구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3. 중국 내 대학교 한중-중한 번역 교육 현황

金莲花(2011)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전공교과목 설정에 있어서 중한 번역수업은 한중 번역수업보다 수업 교시가 적으며 과목도 비교적 다양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중 번역수업은 한중 번역, 비즈니스 번역, 뉴스 번역, 통역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나 중한 번역수업은 중한 번역, 통역 두 과목만 개설되고 있다. 또한 한중 번역수업은 대부분 3 학년 때부터 개설되어 4 학년까지 이어지는 반면 중한 번역은 아마도 4 학년 1 학기 때만 개설되는 형편이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번역문 오류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3 장에서는 중국 내 대학교 한중-중한 번역 교육 현황과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기존 번역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교육과정

중국 각 대학에서는 통·번역, 무역, 교육, 연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번역 실력을 갖춘 전문인재의 양성은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중요한 교육 목표 중의 하나이며,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중한-한중 번역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개설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각 대학에서 번역 관련 과목을 개설되고 있으며 보통 대학교 3 학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필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이하 “W 대학”이라 한다) 한국어학과 학습자이므로 이 대학교의 교육 현황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W 대학 같은 경우 한국어학과 전공과목 중 번역 관련 과목으로 한중번역(朝汉翻译), 중한번역(汉朝翻译), 한국어통역(朝鲜语口译)이 있다. 3 학년 1 학기 때 한중번역 수업(80 교시), 3 학년 2 학기 때 중한번역 수업(96 교시), 4 학년 1 학기 때 한국어통역 수업(32 교시)을 개설되고 있다.[6]

3.2 교재

현재 중국 내 한국어학과의 중한-한중 번역 수업을 위해 개발한 번역 교재는 많지 않

[5] 담결(2010)과 담결(2017) 참조하였음. 전화 인터뷰와 학교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조사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밝힌다.

[6]번역수업은 한국어학과 고학년의 필수전공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보통 대학교 3,4학년 때 개설된다. 다만 일부의 대학에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개설되기도 한다. 수업 유형은 대부분 한중번역과 중한번역으로 나누었는데, 통역을 따로 가르치는 학교가 종종 있다. 또한 번역이론과 실천과 같은 번역이론을 교수하는 과목을 개설된 학교도 있다.

다. 각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번역 교재는 다음과 같다.[7]

가: 中韩翻译教程（第二版），北京大学出版社，2013 年 7 月。

（「중한번역교정(한국어 통번역)」, 북경대학교출판사, 2013 년 7 월）

나: 韩中翻译教程（第三版），北京大学出版社，2012 年 7 月。

（「한중번역교정(한국어 통번역)」, 북경대학교출판사, 2012 년 7 월）

다: 韩中-中韩口译教程，北京大学出版社，2014 年 8 月。

（「한중-중한통역교정(한국어 통역)」, 북경대학교출판사, 2014 년 8 월）

위에서 제시한 교재는 모두 북경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를 위해 개발되었다. 현재 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도 위와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점의 도서 판매 기록에 의하면 위 <가>와 <나>는 모든 번역 교재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3 가지 교재의 외적과 내적 구성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7] 하안나(2012:29-31)에서 중국 국내 대표적인 26개의 대학교 한국어 번역 교육 과정과 교재 사용 실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 내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북경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된 「한중번역교정(韩中翻译教程)」과 「한중번역교정(中韩翻译教程)」이다. 그 외 교재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재를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표 2> 중국 내 한국어학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번역 교재

세부항목	가	나	다
표지			
주교재	단일교재	단일교재	단일교재
구입의 편리함	편리함	편리함	편리함
가격	53 위안	45 위안	55 위안
크기 및 페이지 수	A4; 410	A4; 352	A4; 204
출판년도	2005 년 8 월 1 판 2013 년 7 월 2 판	2005 년 1 월 1 판 2006 년 3 월 2 판 2012 년 7 월 3 판	2014 년 8 월 1 판
출판사 및 저자	북경대학교출판사 장민, 김희선	북경대학교출판사 장민, 박광해, 김희선	북경대학교출판사 김희선
삽화 및 사진	삽화 및 사진 있음	삽화 및 사진 있음	삽화 및 사진 있음
레이아웃	흑백 인쇄 글자 크기 적당함	흑백 인쇄 글자 크기 적당함	칼라 인쇄(연핑크색) 글자 크기 적당함
관련 구성물	없음	없음	워크북, CD
	총 16 과	총 16 과	총 12 과

단원 구성[8]	본문 – 어휘 –번역해석– 번역이론 – 번역연습 – 과제 – 참고자료	본문 – 어휘 –번역해석– 번역이론 – 번역연습 – 과제 – 참고자료	사진 도입 – 번역 상황 설명 – 어휘 – 본문 –본문해석 – 통역이론 – 필자의 통역 경험담
난이도	높음	높음	적당함
연습문제	어휘, 문장, 단문 번역	어휘, 문장, 단문 번역	통역 연습[9]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와 <나>는 흑백 인쇄이지만 인쇄 상태가 좋고 글자의 크기와 단락의 간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보기 편하다. <다>는 칼라 인쇄이기 때문에 더욱 좋다. 그리고 이 교재들을 구매하기 쉽고,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니다. 또한 이 3 권의 교재는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저자(개발자)도 동일하기 때문에 한중번역, 중한번역, 한중-중한 통역 수업에 따라 연이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교재의 내용 면에서 보면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단원은 '본문 – 어휘 –번역해석– 번역이론 – 번역연습 – 과제 –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해석과 번역이론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독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 교재의 페이지 수가 많고 내용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들고 다니기 힘들고 공부하는데도 어려워한다. 또한 2005 년도에 출판된 책이어서 본문의 텍스트 중 일부는 오래된 자료이고, 현재의 발전 추세에 맞추지 못하며 실제성(实际性)과 실용성(实用性)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고 공부하는 정이 떨어진다. 그리고 교사용 지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수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같은 경우는 연습 활동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3.3 기존 번역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조사

학습자들이 중한-한중 번역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학습자들을

[8] <가>와 <나>의 단원 주제가 흡사하며 문체에 따른 분류로 단원을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접/이력서, 초청장, 축사, 환영사, 뉴스, 평론, 설명문, 서술문, 논문, 계약서, 법률 및 법규, 영화 대본, 소설, 시 등 있다. <다>는 면접, 기관 방문, 행사 일정 안내, 관광, 비즈니스 상담, 비즈니스 접대, 행사 진행 멘트, 인터뷰, 축사, 환영사 등 주제로 구성하였다.

[9] <다> 교재는 연습 문제를 제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구성물로 워크북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연습 활동으로는 본문 CD를 듣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기록한다는 것이다.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역 연습하기보다는 교재를 보면서 내용을 옮기기만 한다.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어권 학습자는 W 대학교 한국어학과 3 학년 2 학기 학생 30 명과 4 학년 2 학기 학생 10 명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설문조사 대상 기본 정보(성별, 나이, 한국어 등급 수준 등)

② 번역 수업에 대한 만족도 관련 사항(수업시간[10],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을 통해 배웠던 점,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선호하는 수업 방식,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 기타 등)

③ 교재에 대한 만족도 관련 사항(교재 난이도, 교재에 대한 만족도, 선호하는 주제 바라는 번역 교재 등)

설문조사 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설문조사 대상 기본 정보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학습자의 총 인원 수는 40 명이다. 남자는 7 명이고 여자는 33 명이다. 모두 성인이며 20 대이다. 그리고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18 명이 중급(3 급 또는 4 급), 22 명이 고급(5 급 또는 6 급)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② 번역 수업에 대한 만족도 관련 사항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8 명이 '매우 만족하다', 15 명이 '만족하다', 17 명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였다. 수업을 통해 배웠던 지식으로는 '어휘, 번역이론, 전문용어, 자주 사용되는 표현, 한국 문화, 문법'의 순이었다. 번역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어렵다', '의역이 어렵다', '어휘량이 부족하다' 등 대답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내용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어서 선생님이 강의 속도를 더 낮추고 중요한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가능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더 실제적인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여 수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교재에 대한 만족도 관련 사항

이 부분은 학습자들이 번역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역 교재에 대해 주제, 구성, 난이도, 어휘 등 면에서 평가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선택형 문항이 아닌 개발형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대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3학년 1학기 때 개설된 한중번역 수업은 매주 6교시/4교시, 3학년 2학기 때 개설된 중한번역 수업은 매주 6교시, 4학년 1학기 때 개설된 한국어 통역 수업은 매주 4교시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교재 내용의 난이도가 높고, 오래된 주제가 많아 시대에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리고 과제와 참고자료의 내용이 어려워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본문 내용의 흥미도가 낮아 지루하고 공부하는 열정이 떨어진다.

셋째, 어려운 고유어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교육 내용이 많아 포인트 내용과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

다섯째, 번역 수업 시간이 부족하며, 그 짧은 시간에 학습 내용을 소화해내기 어렵다.

여섯째, 교재가 무거운 편이고 휴대하기 힘들다.

바라는 번역 교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대답으로는 첫째, 현대 사회 발전의 추세를 따르고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어휘 선정에 있어 유행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며 어휘 설명에 있어 예문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재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넷째, 장마다 포인트 내용을 정리해 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학습자들이 번역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유로는 높은 교육 내용의 난이도, 실용성이 떨어진 텍스트, 담당교사의 단일한 수업 방식, 적극적이지 못하는 학습자의 학습 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교사가 강의식 수업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을 구성될 수 있다.

4. 중국어권 학습자의 번역문 오류 분석

4.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W 대학교 한국어학과 3 학년 학생들의 한중-중한 번역 숙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오류 분석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말하기 자료와 쓰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번역문의 오류분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번역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번역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3 학년 1 학기 때의 한중 번역 숙제(제 3 과, 제 4 과, 제 9 과의 연습문제)

② 3 학년 2 학기 때의 중한 번역 숙제(제 4 과, 제 7 과, 제 9 과의 연습문제)

숙제는 교재에 제시된 연습 문제이며 보통 해당 과의 내용을 모두 습득한 후 숙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내용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번역 능력도 파악할 수 있다.

4.2 분석 결과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쉬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오역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번역해야 하는 장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중국어로 번역할 때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능력 수준으로 발생한 오역을 제외시키고 모국어 간섭이나 고유한 사고방식에 의하여 일어난 오역의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2.1 한중 번역문 오류분석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중국어 번역하는 것이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 내용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역을 발생하는 경우와 학습자가 익숙하지 않은 장르로 오역을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한중 번역문에서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① 문장 (일부) 이해 불가의 예

아래 예 1 같은 경우 학습자들이 문장의 일부인 “만남의 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学术见面会的场地” 또는 “学术与交流的会场”로 번역하여 오역이 발생하였다. 예 2는 문장 전체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예이다. 이 말은 주최측 관계자가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여하러 온 한국철학학회 관계자에게 하는 감사의 말인데 학습자들은 이 자리가 한국철학학회로 잘 못 이해하고 있었다. 예3은 학습자들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예이다. 화자가 말하는 “어느 석학”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즉 북경대학교의 연단에 서는 것이 모든 석학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 “나”도 북경대학교의 연단에 서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예 1: (제 3 과)

오늘 한국어학회는 ‘언어학 연구의 이론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2012 년 춘계학술대회를 열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학술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역 1:为了召开主题为“语言学研究的理论和应用”的 2012 年春季学术大会，今天韩国语言学会在首尔大学为其准备了学术见面会的场地。

오역 2: 今天韩国语言学会将以“语言学研究的理论和应用”为主题举办 2012 年春季学术大会，并在首尔大学准备好了学术与交流的会场。

예 2: (제 3 과)

여러 가지 바쁜 일을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한국철학학회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역 1: 在此我对百忙之中抽空前来参加这次韩国哲学学会的各位致以诚挚的谢意。

오역 2: 在繁忙的行程中抽空来此参加韩国哲学学术会议的各位，在此表示衷心的感谢。

예 3: (제 4 과)

존경하는 북경대학 총장, 교수, 학생, 그리고 내빈 여러분,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북경대학교의 이 연단에 설 것이라고는 어느 석학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역 1: 尊敬的北京大学校长，教授，同学们及各位来宾，在不久前，无论哪个大学者都想不到自己会站在传统的令人自豪的北京大学的讲台上发表讲话。

오역 2: 尊敬的北京大学校长, 教授, 学生们及各位来宾, 大家好！谁都不敢想象, 直到不久前, 一位著名的学者将会在有着悠久历史的北京大学的讲台上进行演讲。

②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예

익숙하지 않은 장르로 인해 오역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번역할 자료는 학습자가 이전에 접하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문체 또는 장르일 경우가 있고, 문장을 이해했지만 상황에 맞는 또는 문체에 맞는 중국어 표현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아래 예 4 의 “한 지붕 아래 모이게 하다” 와 예 5 의 “한 끼 식사”는 그 예이다.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으로 옮기지 못하여 “在同一个屋檐下团结起来”와 “简单的可以吃一顿饭的食物”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국어인 중국어의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 능력도 갖추어야 하지만 모국어인 중국어의 구사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4: (제 4 과)

우리 두 나라 간의 아름다운 선린우호 관계는 식민 세력으로 단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 함께 한 공동선언은 동북아시아를 한 지붕 아래 모이게 하는 시작일 것입니다.

오역 1: 我们两国间美好的睦邻友好关系被殖民势力断绝了, 今天我们签署的共同宣言是东北亚开始在同一个屋檐下团结起来。

오역 2: 我们两国之间睦邻友好的关系被殖民势力所中断了, 今天我们一起宣言, 东北亚共赢时代即将开始。

예 5: (제 9 과)

영국에서 등장한 샌드위치, 미국에서 생겨난 햄버거와 핫도그, 인도의 카레라이스 등의 음식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한국에도 그런 음식들이 있으니, 그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것이 비빔밥이다.

오역 1:像英国的三明治, 美国的汉堡热狗, 印度的咖喱饭等简单的可以吃一顿饭的食物一直受到倾睐。在韩国这些事物中不得不提到石锅拌饭。

오역 2:英国的三明治, 美国的汉堡热锅, 印度的咖喱等食物, 因为能简单吃的一顿饭而持续的受到喜爱。韩国也有这样的食物, 其中被经常提及的就是拌饭。

4.2.2 중한 번역문 오류분석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중한 번역 시의 오류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역문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예 6: (제 7 과)

引起失眠的**原因**有很多：有生理因素, 如饥饿、饱胀等；有心理因素, 如焦急、恼怒等；有环境因素, 如吵闹、寒冷等。

오역1: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이 많다. 기아, 포만감 등 생리적인 요인이 있고, 불안, 분노 등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그리고 소음, 추위 등 환경적인 요인 등이 있다.

오역 2: 불면증 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생리적으로 굶주림, 배가 잔뜩 부른 게 등 있고 심리적으로 초조함, 화나게 등 있고 환경적으로 시끄러움, 추움도 있다.

번역문[11]: 불면증을 초래하는/불명증이 생기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다. 허기 또는 포만

[11] 번역문은 「中韩翻译教程」에 따른 참고답안을 참조한 것이다.

감으로 인한 생리적인 요인, 불안/초조하거나 분노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 소음이나 추위 등의 환경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원인"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뜻하며, "요인"은 사물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또한 "饥饿", "饱胀" 등 어휘를 번역할 때 무조건 한자독음 혹은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문장의 구조와 간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 7: (제 9 과)
翻译工作者在**业务方面**应具备的条件是要精通两门以上的语言。
오역 1: 번역자들이 업무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은 두 가지 이상 언어를 능통해야 하는 것이다.
오역 2: 번역근무자는 두개 이상의 언어의 통달하는 것이 업무에 있어서 구비되어야 할 조건이다.
번역문: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바로 두 가지 이상 언어에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翻译工作者"를 "번역근무자"로 번역할 수 없고, 보통 "번역사"로 말한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在业务方面"를 생략해도 무방하며, 생략해야 자연스럽다.

예 8: (제 9 과)
金教授**在**语言学研究**方面**很有成就。
오역 1: 김교수님은 언어학 연구에 대해 성과가 나타냈다.
오역 2: 김 교수님 언어학 연구 분야에서 성과가 있다.
번역문: 김교수는 언어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在**…研究**方面**"을 "…연구 분야에서"로 번역해야 적절하다. "很有成就"를 "탁월한 성과를 보이다/상당한 성과를 거두다/눈부신 성과를 이루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예 9: (제 10 과)
胡先生 2001 年参加教育工作, 先后毕业于江苏师范学院、徐州地区教师进修学院。

오역 1: 2001 년 교직에 종사한 후 씨는 장쑤사범대학교와 쉬저우 지역 교사연수대학을 졸업했다.
오역 2: 후 씨는 2001 년에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강소사범학원과 서주지역 교원연수학원에 졸업되었다.
번역문: 호(胡)교수는 강소사범대학(江苏师范学院)과 서주(徐州) 소재 교사연수대학을 졸업한 후 2001 년부터 교육계에 투신했다.

이 문장을 번역할 때 우선 어순부터 정해야 될 것이다. "선(先) 졸업 – 후(后) 취직"의 순서를 고려하여 뒤의 문장을 먼저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江苏师范学院"과 같은 중국 학교명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보통 한국 한자독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택한다. 예를 들어 "延边大学"을 "연변대학교"로 번역하고 "옌볜대학교"로 번역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의 "학원"은 "补习班/培训班"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으로 번역하면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다. "江苏师范学院"을 한국 한자독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뒤의 "徐州"도 한자독음인 "서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 10: (제 10 과)
三星电子家庭网络技术**成为**美国消费电子协会标准。
오역 1: 삼성전자 가정인터넷기술은 미국 가전협회의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오역 2: 삼성의 전자홈네트워크기술은 미국소비가전협회의 기준이 되었다.
번역문: 삼성전자의 홈네트워크기술 미국가전협회/미국소비자가전협회 표준규격으로 채택됐다.

오역 1 은 "家庭网络技术"이라는 전문용어를 모르고 있어 오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成为**美国消费电子协会标准"는 "미국가전협회 표준규격으로 채택되었다"로 번역해야 적절하다. 오역 2 는 우선 문장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 주어는 "삼성전자의 홈네트워크기술"이고 "삼성의 전자홈네트워크기술"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회사명이기 때문이 띄어쓰기 하거나 격조사 "의"를 삽입하면 안 된다. 또한 "成为"가 성질, 신분,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되었다"로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습자들이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번역한다. 특히 중국어와 한국어에 동일한 단어(한자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대일로 대응시켜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오역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어휘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번역하기 위해 사전을 많이 이용하는

데, 사전의 뜻풀이에 근거하여 번역했을 때 부적절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어의 표현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언어 체계와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 구조를 일대일 대응식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문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한다. 예를 들어 논문을 번역할 때 종결어미 '-ㅂ니다/습니다'를 사용하거나 구어체 표현을 사용한다.

넷째, 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긴 문장을 번역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번역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사전에서 찾아낸 어휘를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 정보를 검색한 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사전에 근거하는 것보다 전문용어, 관용표현, 특수 어휘, 한자어의 표현법 등을 따로 정리하고, 자주 사용함으로써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원문의 내용을 살리면서 한국어의 표현 방식에 부합되도록 문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국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말을 만들어 번역하거나 무조건 원문과 번역문의 단어와 단어, 행과 행, 문구와 문구를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장르가 다른 자료의 문체적 특징을 파악하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따로 정리하여, 이를 번역할 때 활용하면 번역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A 는 …라고 밝혔다." , "B 에 따르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이 있고 논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본 연구는 …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등이 있다.

넷째, 배운 번역이론을 번역할 때 활용해야 하며, 중국어를 한국어로 잘 번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문을 여러 번 읽고 원문의 내용과 문맥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후 번역한다. 그리고 초벌번역을 완성한 후 누락된 내용이나 오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독자의 시각으로 번역문을 살펴야 하는데, 즉 독자가 읽었을 때 정확이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동시 수 차례로 문장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번역인재의 수요로 한국어 교육에서 번역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되어 있지만 아직 연구

방향이 다양하지 않고,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다.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번역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 중국 내 한국어학과 번역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고, 학습자들이 중한-한중 번역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와 오류분석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W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습자만을 선정하였다는 점을 볼 때 그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보편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조사 대상 기관과 대규모의 응답인원, 그리고 대량의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번역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에 불과하다. 보편성과 전문성을 얻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가 더 많은 번역이론과 번역 교육이론을 연구해야 하며, 학습자 요구조사 대상이 좀더 큰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량의 중한-한중 번역문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향후 과제로 남기며 번역 오류 분석을 비롯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번역 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기대한다.

<참고문헌>

중국 문헌

[1] 高弼兰.论高职院校韩国语翻译教学[J].常州信息职业技术学院学报.2009(6).

[2] 金莲花.对中韩翻译课堂教学的几点建议[J].语文学刊·外语教育教学.2011 年第 10 期.

[3] 刘畅.中韩口译中增词法使用研究-以习近平在首尔大学的演讲为例[D].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2015 年.

[4] 王敏,张宗琴.中韩文化传播中朝汉翻译技巧分析及研究[J].武汉科技学院学报. 2008(7).

[5] 庄庆涛.中韩翻译过程中的汉字词使用策略探[J].云南社会主义学院学报.2014 年第三期.

한국 문헌

[6] 고암(2009), 통역번역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려(2011), 중국어와 한국어의 인칭대명사 번역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문윤희(2010), 현대 중국어 신조어의 번역전략 연구: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여려(200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번역문 연구: 오류분석 및 교육적 대책,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吴春花(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번역교수의 효율화방안 연구, 中國學論叢, vol. 11.

[11] 주원(2012), 한중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HE,Wenqi (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중 중한 번역 수업 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하안나(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번역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홍영매(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중한 번역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李氏王朝的汉学政策

黄仙姬

（湖北民族学院 外国语学院）

关键词：李氏王朝、事大交邻、汉学政策、汉学教育、汉学家

摘　要：李氏王朝的“事大交邻”外交政策影响了历代君主对汉学的重视程度，也成就了当时朝鲜王朝汉学家们卓越的汉语造诣。李氏王朝对汉学的各种奖励制度，汉学机构的建立，汉学者的培养政策推动了整个王朝译学教育的发展。

资助项目：湖北省教育厅项目（2016Q180）

前　言

关于朝鲜王朝的汉学政策和汉学教育一直以来都是偏重于朝鲜王朝前期的成果和介绍，对于朝鲜王朝后期的汉学政策及汉学教育情况介绍却是很少，本文将着重介绍朝鲜王朝中后期的汉学政策及其汉学家和汉学作品。

一、朝鲜王朝的汉学政策

朝鲜王朝的汉学政策始于太祖时期，太祖元年 8 月太祖制定了科举法，设立文科、吏科、译科等三科，让吏曹掌管。太祖 2 年 9 月颁旨设立了司译院。司译院提调契长寿等人制定司译院制度时根据生员的学习成绩和学习态度进行严明的赏罚。

太宗时期，不仅教授译官汉语知识，也教授译官们很多经史知识。最值得一提的是太宗 13 年 6 月为了教授司译院学生们经史义理，在司译院设置了文官训导之职。

回顾整个朝鲜王朝的汉学教育，世宗对于汉学的推崇在朝鲜王朝历代君王中尤为突出，世宗在朝时制定了很多积极的汉学政策，推动了汉学的发展，世宗对于音韵学也非常重视。世宗对汉学的热情还表现在计划派遣大量的留学生前往中国学习汉语。但是因为明朝的不允而被搁置，对此世宗（世宗 15 年 12 月）对大臣们不由感叹道：“然 漢音有關事大 不可不應 予欲遣子弟于義州 使之來往遼東 傳習漢語 何如”。世宗 11 年 9 月己酉，启用精于吏学的李边为司译

院训导时说道:“譯學實國家重事 邊亦體予意 勤學不倦”。世宗 20 年 3 月命金何每隔三日给世子讲习汉语。世宗对汉语的热情也可以表现在世宗给明朝的上书文。“本國僻在東陲 語音與中國殊異 必資通譯 乃能傳名”

“漢語傳音 漸至差訛 慮恐倘有宣諭聖旨 難以曉解 朝廷使臣到國應待言語 理會者小 深為未便 辛今李相粗識文字漢音純正 ”。世宗末年开始到世祖初年为止，将译科也列为科举考试的科目之一。

燕山君时期的文化活动开始走向全面的萎缩和颓靡之态。根据燕山君 10 年 5 月的实录记事，可以看出燕山君不喜汉学，使汉学政策呈现颓靡。“王不喜文雅……故一时 事大文书 撰述无人 仅得修送 鄙陋不足观 世宗成宗 累十年振作之文教 尽堕矣”。

中宗时期的百废待兴也体现在中宗朝时的君臣对于译学再兴倾注的努力。中宗为了培养专长于汉语吏文的崔世珍的承继者，设立了吏文学官等职。“承文院 汉语吏文成才者 无之 只有崔世珍一人 而其后更无能者 汉语 则尹溪 沈达源 颇有将来 然赴京时 不为同行 故言语不能质证矣”。中宗想要培养崔世珍的成绩者的努力在中宗 30 年更是突出，中宗劝勉各文臣通读老乞大・朴通事等文，也计划了一系列派遣留学生去中国的计划，可是都没有收到相应的成效。

宣祖时期，在壬辰倭乱的前后，因为与中国的接触日趋密切，译学受到重视，李恒福、李恒福、李廷龟等相臣也都精通汉语，不用翻译官也可以自由地与之会话。处于壬辰倭乱中的宣祖 27 年 3 月，宣祖将汉语吏文的学习进行过奖励。李朝中后期，将汉学和汉学教育重新复兴起来的是肃宗。肃宗根据闵鼎重的建议，在肃宗 8 年建立了偶语厅，设置了汉、清、蒙、倭四科。并选拔了 100 名少聪敏者在四学学习。

英祖 5 年 4 月，兵曹判书赵文命向英祖上书，汉语译官恐将会绝迹，建议对其做出对策。英祖 6 年 11 月庚寅右议政赵文命又建议译学的奖励制度。上书文如下:“彼我国交际 专赖象舌 而近来汉语几乎绝种 盖汉学偶语厅 即故相臣闵鼎重所 而以汉人 郑先甲 文可相 定为训长 课习生徒 故其时 大有成效 即今译辈中 善为汉语者 亦其流矣 今则偶语厅徒 有其名 无其实效”。

二、朝鲜王朝的汉学家及其成果

朝鲜王朝时期因为事大交邻的外交政策和历代君王对于汉学的重视，涌现出了很多优秀的汉学家，编撰了很多优质的汉学书籍。

朝鲜王朝建国初期活跃的汉学家中，多数是如契长寿、唐诚、曹崇德、徐士英、张愿等中国归化人。其中，契长寿之功甚高，契长寿是司译院初期的提调，在司译院建设初期，致力于其运营调度。契长寿用汉语解释《小学》，并将其编成汉语教科书《直解小学》,《直解小学》在朝鲜王朝的整个汉学教育过程中占有重要位置，与李朝中期出现的《老乞大谚解》、《朴通事谚解》其名。世宗 16 年 2 月，在写给礼曹的汉学劝励条件建议中写道:“直解小学 老乞大 朴通

事等杂语 悉皆汉语根本”。世宗末年，成三问、申叔舟、朴彭年、崔恒等人编撰了“韵会翻译”、《东国正韵》、《洪武正韵译训》等。

成宗 4 年 6 月，将古今名贤节妇的事迹搜集整理，将其翻译成汉语，编撰成《训世评话》，成宗 11 年将其刊行成册。

燕山君时期，精于汉学的唯一一人李昌臣，在燕山君 6 年编撰了《日用汉语翻译草》。

肃宗 3 年（1677）边暹，朴世华等 12 人重新谚解了中国语教科书朴通事。肃宗 16 年（1690）慎以行，金敬俊，金指南等人，编撰了近代汉语辞书，译语类解 2 卷。在这册书中，在每个单词下用韩文标注，在左侧标记了东国正韵式的字音，在右侧标记了新的字音。肃宗 22 年（1696）至肃宗 46 年（1720）的 25 年间，教诲厅谚解了汉语教科书《五伦全备记》，在景宗元年（1721），高时彦将其加序刊行成《五伦全备注释谚解》5 卷。《五伦全备记》是李朝初期开始与老乞大、朴通事一起被用于科举用的教科书。

英祖 37 年（1761）边宪编撰了汉语教科书《老乞大新释》1 卷，并谚解了《新释老乞大谚解》3 卷。与边宪同一时期的金昌祚在英祖 41 年（1765）编撰了汉语教科书《朴通事新释》1 卷，并谚解了《朴通事新释谚解》3 卷。英祖 51 年（1775）金指南之孙金弘喆为了补充译语类解的不足之处，编撰了《译语类解补》1 卷。正祖 19 年（1795）李洙，张谦等人编撰了《重刊老乞大》1 卷。编撰《译语类解》的金指南被登用为“汉学教诲资宪知枢”，与金指南一同编撰《通文馆志》的其子金庆门在肃宗 16 年（1690）登科，英祖时，作为活跃在汉译学界，被登用为“汉学教诲资宪知枢”，编撰了《译语类解补》的其孙金弘喆也被登用为“汉学教诲资宪知枢”。

哲宗 6 年（1855）登科的李英宪在高宗 20 年（1883）编撰了汉语教科书《华音启蒙》2 卷，最后被登用为“汉学教诲资宪知枢”。

三、李氏王朝的吏学政策

历代君王对文臣教习汉语皆是因为想将其用为御前通事。明宗时，重视汉语吏文，每年 3 月、9 月都会定期地向各汉语文臣及吏文制述官。右赞成金安国说道：“祖宗朝精于汉语的文臣非常多，能兼任御前通事的文臣也很多，可近年来的文臣即使不识汉语吏文也能中科举，任高职，所以对汉语吏文不太精进”。

对此，中宗 35 年 11 月乙卯，领议政尹澈依据经济六典，重建汉吏科。

成宗朝时，精于吏文汉语的金自贞、池达河等人被任命为承文院提调，中宗朝时，一如既往的教习文臣的吏文和汉语。但是却一直没有出现特别精通者。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한중대조언어학의 두 가지 목표

상해외국어대학교 김기석

2018.7

한중대조언어학의 학과 성숙도와 목표 의식

학과 성숙도가 낮고 목표 의식이 명확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독립적인 '한중대조언어학'이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1. 당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론 기피 증세' （理论规避症）이 다.
2. 이론과 연구 방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 시야가 좁다.
3. 거시적 연구, 해석적 연구, 양적 연구(定量研究)가 적다.

결과: 언어학적 가치가 있는 창의성 연구가 결핍하다. 아직까지 일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黄玉花：2015 金基石：2010, 2013, 2014)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대조언어학의 두 가지 목표: 형이하 목표와 형이상 목표

- **형이하(形而下) 목표(응용 목표):**

  대조를 통해 외국어 교육에서의 장애, 언어간 번역에서의 오역 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한다. (오류분석 이론, 중간언어 이론)

- **형이상(形而上) 목표(이론 목표):**

  대조를 통해 언어와 사유, 언어와 민족성, 언어 세계관 등 문제를 탐구하고 언어의 보편성 연구에 기여한다. (유형론, 언어 보편성 이론)

-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절대적인 계선이 없다. (과정의 연속체)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대조분석과 대조언어학

- **대조분석（Contrastive analysis）**
-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

비록 이 두 가지 명칭이 국내외에서 항상 통용되고 있지만, 연구 목표에서 차이성을 가지고 있다.

■许余龙（2010）：

대조분석은 응용성 대조 연구에 치중하며, 특별히 외국어교육에서의 난이도 분석의 구체적 방법을 가리키기도 한다.

- **대조분석의 목표는 형이하의 응용 목표이고 방법론은 A언어에서 출발하여 B언어의 대응 관계를 찾는 단방향성 대조이다.**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대조분석과 대조언어학의 구별

•중국 학자 许余龙(2010)은 미국에서 탄생한 "대조분석"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대조언어학"과 아주 큰 구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대조언어학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Lado(1957)의『다문화 언어학』과 James(1980)의 『대조분석』》에서는 주로 응용 대조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외국어교육에서의 응용 대조 문제를 다루었다. 그들은 지어 Contrastive Linguistics라는 용어의 사용조차 기피하였다.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형이하 목표의 한계성

- 형이하 응용 목표의 이론적 배경은 외국어교육에서의 부정적 전이는 모국어에서 온다는 이론적 가설이다.
- 그러나 교육 실천의 검증에 의하면:
  부정적 전이는 학습자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언어환경, 교과서, 교사의 능력 심지어 학습자의 심리 소질 등 다방면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 그러므로 단순히 학습자의 모국어와 외국어의 대조를 통해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고 난이도 위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대조언어학은 자체의 이론이 없다

-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대조언어학은 독립적 언어학과가 아니라 변두리 학과(边缘学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대조언어학(대조분석가설)은 1950년대 말 미국에서 탄생한 후, 단순히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응용학과로 자리매김하였다.(기술성, 차이성, 공시적, 미시적 연구)
- 대조언어학의 형이하 목표의 근원.

➢ 대조언어학의 시야: 언어 교육/번역/사전 편찬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대조언어학 이론의 기생성

- 구조주의 언어학와 행위주의 심리학 토양에서 탄생한 대조언어학은 60 여 년간 줄곧 기타 언어학 이론（구조주의 문법, 변형생성 문법, 인지문법, 기능주의 문법, 사회언어학 등)에 기대여 발전하여 왔다. (附庸学科/寄生学科)
- 소위 대조언어학이란 오늘 날 '손을 내밀어 이론을 구걸하는 이론'으로 불리고 있다.(伸手要理论的理论) —潘文国(2006):

➢ 대조언어학의 시야: 언어 교육/번역/사전 편찬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대조언어학은 단순히 '언어교육을 위한' 형이하 목표에서 벗어나야 한다

- 폴란드 대조언어학 학자 acek Fisiak(1971)는 최초로 이론대조언어학과 응용대조언어학를 구분할것을 주장하면서, 이론대조가 학과 건설의 중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론대조언어학의 연구 모델은 쌍방향성 대조（双向对比）이다.

- X
- ↙ ↘
- A(Xa) B(Xb)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회향성 대조와 동일성 원칙

◆ 회향성（回向对比） A→B→A/ B→A→B (潘文国2006:306)（崔吉元1999：서문）

회향성 대조는 대조의 동일성 원칙에 위배될수 있다.

◆ Fisiak(1976)：대조언어학은 언어교육을 위한 목표에서 벗어나야만, 자체의 리론을 발전시키고 언어유형론과 언어 공통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潘文国、谭慧敏2006:37)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중국 대조언어학의 특징: 吕叔湘의 인식 (1977)

-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학과 의미에서의 대조 연구는 20세기7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징표는 吕叔湘의 《대조를 통해 문법을 연구해야 한다》이다.(1977.5.5)
- 한 사물의 특징은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한어의 특징을 알려면 반드시 비한어와 비교해야 하고 현대한어의 특징을 알려면 고대한어와 비교해야 하고 보통화(普通话)의 특징을 알려면 방언과 비교해야 한다. 음운, 어휘, 문법은 모두 대조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중국 대조언어학의 특징: 광의성; 연구 방법론적 시각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대조 (자체)는 연구가 아니다

- Chomsky 문법 연구의 3개 차원:

  '관찰, 기술, 해석' (观察充分，描写充分、解释充分)
- 대조는 관찰과 기술 단계의 작업이다. 해석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언어학 연구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전통적 대조언어학(대조분석)의 연구목표와 방법론으로는 해석의 충분성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 대조 자체는 '무엇 때문에'라는 물음에 답을 줄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현대 언어학 연구라고 할 수 없다.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형이하 대조는 기술 단계이다

-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는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게 되였는가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대조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吕叔湘)
- 대조 연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해석의 도경은 유형론적 시각이다.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유형론 시야란 곧 범언어(跨语言) 적 연구 시야이다

● 물론 인구어의 시각(眼光)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구어의 문법 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더욱 높은 경지（境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언어유형론이다. 이와 같은 경지에서 우리는 중국어 자체의 시각뿐만 아니라 인구어의 시각, 아프리카 토종 언어의 시각도 있게 되고 아메리카 인디안 언어의 시각도 있게 된다. (沈家煊:2009）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한중대조언어학의 이론적 출로

➢한중대조언어학에서 유형론 시각의 필요성:

유행(跟风赶时髦)?

1. 현대언어학의 공통한 발전 추세.
2. 대조언어학 시야의 한계.
3. 한중 대조 연구의 이론 곤경.

● 언어유형론이란 인류 언어의 변이 및 그 한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语言类型学是对人类语言变异及其限度进行研究的科学。)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유형론 학자처럼 사고하라

- '인류학자/물리학자/심리학자/계산기학자 처럼 사고하라' .

  '인류학자처럼 사고하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

  그 원인은 아마 인류학자의 범문화적 시야에 대한 긍정에 있는 것 같다
- 언어유형론과 인류학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이론과 방법론의 넓은 시야에 있다.
- 언어 대조 연구자들도 유형론 학자들 처럼 범언어적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 즉 대조하는 언어를 인류 언어와 문화라는 넓은 시야에서 고찰해야 한다.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학습자의 습득 방향과 연구자의 연구방향

◆한·중 언어 대조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

➢ 모국어를 기준언어로 하는 것이 대조 연구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다. 그러나 한중 대조 언어학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중 대조 연구가 위주이고,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한 대조 연구가 위주이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연구의 깊이에도 영향을 준다.

-김영옥 (2011.6: 177)<한·중 대조언어학 연구의 현황에 대한 고찰>.<중국어문학논집>.

➢ 문제점: 1.학습자의 언어 습득 방향과 연구자의 대조 연구 방향 ?

2. 학습자의 모국어와 연구자의 모국어?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한·중 대조'와 '중·한 대조': 세 가지 가능성

(1)본질적 구별이 없다. 다만 연구자의 "입장" 또는 "주체 의식" 을 반영할뿐이다. 대체상 중국에서 "중·한 대조", 한국에서 "한·중 대조" 라고 많이 쓴다. "한중 관계" / "중한 관계", 등.

(2)본질적 구별이 있다. 대조 연구의 방향성 혹은 중점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한국어 전공자의 목적어는 한국어이므로 "한·중 대조"를 하고, 대외 중국어 전공자의 목적어는 중국어이므로 "중·한 대조"를 한다. 즉 목적어가 연구 중점이 된다.

(3)전후 순서가 수의적이다. 연구자가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다.(拍脑袋拍出来) 다만 서술 순서에 구별이 있을뿐이다.

➢ 中国英汉比较研究会（CACSEC）
国际汉·韩语言对比学会

➢ 강세 언어와 약세 언어 문제? (연구와 기술의 성숙도)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한·중 대조 학계 현황

- 중국 CNKI 통계: 1997-2017년 논문 제목 검색에 의하면 총 375편 논문.
- 중·한 대조(汉韩对比/中韩对比) 284편.
- 한·중 대조(韩汉对比/韩中对比) 110편.
- 『중국조선어문』: 1990-2014년, 총59편.

  조·한 대조(朝汉对比) 52편, 한·조 대조(汉朝对比) 7편.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한중대조언어학의 방향성과 방법론의 두 차례 전환 （转向）

◆ 대조의 방향성(directionality)과 방법론에서의 두 차례의 전환

➢ 첫 번째 전환 (1980년대 중반) : 한·중(조·중) 두 언어에 대한 단방향성 대조(单向对比) 에서 쌍방향성 대조（双向对比）에로의 전환.

대표작 유영록 석사 논문: 汉语 '在NP'和朝鲜语'NP+에서' 'NP+에'的对比(1985)

방향성: 형식→ 의미(从外到内) . (从此，朝汉语对比走上了科学轨道。- 崔吉元)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 두 번째 전환(2000년대 초반): 두 언어의 형식(공통한 표층 구조)을 출발점으로 하던 대조에서 의미(공통한 개념 또는 범주)를 출발점으로 하는 대조에로의 전환.

대표작 최건 :『한중 범주 표현 대조(韩汉范畴表达对比) 』（2002）

방향성: 의미 →형식 (从内到外) (韩汉对比研究取得重大进展的标志性成果。–马庆株)

한중 대조 연구의 유형론 취향(取向)

- (CNKI) 2006-2017년도 통계(제목, 주제어），논문 27편，그중 학술지 논문 17편，박사 논문 6편 ，석사 논문 4편.
- 박사 논문: 언어유형론 시각의 한중 어순 대조연구(백련화: 2011/2014)
  박사 논문: 유형론 시야의 중한 지시사 비교 연구(염초: 2014)
- 대표적 성과 : 최건(2006, 2009, 2010 ,2014), 손금추(2017), 백련화(2011，2012, 2014), 염초(2016), 후효단(2016, 2017） 등.
- 석사 논문: 중국어 '放'과 한국어 '놓다'의 의미 대조 (조금주:2017)

  유형론의 '의미지도' 이론 활용 (참조 언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대조언어학과 언어유형론의 교호 작용(交互作用)

- 언어유형론은 대조언어학에 **범언어 시야와 원칙**을 제공한다.
- 대조언어학은 언어 유형 차이에 대한 분류와 개괄이 언어 실제에 부합되는가를 **검증**할 수 있고, 또 언어유형론의 해석이 대조하는 언어에 적용되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 孙金秋《类型学视角下的汉韩数量短语语序历时比较》（2017）：
Greenberg(1963)U18和U20에서 언급하지 않은 유형 참조항(参项)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하였다. 즉 한국어 명·수량 우세 단어 결합 어순 N-(Q-CI)이 SOV 문장 어순과 연관되고, 중국어의 명·수량 단어결합 어순（Q-CI）-N이 SVO 문장 어순과 관련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결론은 중·한 두 언어의 통시적 비교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이는 어순 유형론에 대한 중·한 대조 연구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金立鑫)

◆ **교호 작용**: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작용.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감사합니다!
谢　谢！

上海外国语大学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중국어 담화표지 유형 및 중한 대조 분석

이윤경

(상해외국어대학)

1.머리말

담화표지어란 문장의 명제 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상의 표지를 뜻한다. 담화표지어는 담화를 구성하고 담화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문장 성분으로서가 아니라 담화 층에서 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담화표지어는 통사론, 의미론 관점에서 뿐 아니라 화용론 측면에서 더욱 연구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 학계에서 담화표지어를 정의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Schiffrin(1987)의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인 요소로서 담화의 단위를 일괄적으로 묶어준다(sequentially dependent elements which bracket units of talk)”를 들 수 있다. 담화표지어를 의미론적으로 보면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화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간의 관계에서 볼 때 담화표지어는 담화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담화책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언어 성분이 담화상에서 화자와 청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담화책략으로 사용될 때 담화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담화표지어라고 한다.

담화표지어 용어 또한 학자들의 연구 관점에 따라 다른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담화표지어 discourse markers (Schiffrin 1987)’, ‘담화불변화사 discourse particles(Schourup 1985)’, ‘화용표지어(pragmatic markers (Fraser 1996)’, ‘담화연결사 discourse connectives (Blakemore 1987)’등의 용어의 사용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기능과 의미면에서 담화표지, 감탄사, 간투사, 화용표지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담화불변화사(송병학 1994), 감탄사(이원표 1993), 간투사(오승신 1995 구종남 1997), 화용표지(구종남 1998; 이정애 2002), 담화표지(이기갑 1995; 임규홍 1996; 이한규 1996, 1997, 1999; 구종남 2000, 김향화 2001; 박혜선 2011; 강소영 2014)등의 용어[1]가 쓰여지고 있다.

[1] 용어의 사용 흐름을 살펴보면 여러 용어 중에서 ‘담화표지’ 용어가 보편적으로 두루 사용 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학자들이‘담화표지’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인 ‘담화표지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처럼 담화표지어가 가진 풍부한 가능성과 담화표지어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의 사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담화표지어는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 담화표지어를 분석하고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대응 표현을 알아보고 비교 분석할 것이다. 중한 대조를 통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담화표지어의 특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 학습자들의 담화표지어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는 외국어를 구사함에 있어 화용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담화표지어를 체계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통점과 언어 개별적 특징 역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담화표지어의 이론적 배경

2.1 선행 연구

담화표지어(Discourse markers)에 관한 연구는 외국 언어학계에서 시작되었는데, 가장 초기에는 영어를 위주로 한 담화표지어의 정의와 의미 및 기능에 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Schiffrin(1987)에서는 담화표지어를 문장이나 명제, 화행 등의 언어적 단위를 묶어 연결하는 요소라고 정의하였고, 영어에서 ‘well’, ‘oh’등 11 개의 자주 사용하는 담화표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Levinson(1983) 에서 담화표지가 선행담화와 후속담화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표현임을 강조하였다. Fraser(1990)는 담화표지가 화용적 범주에서 맥락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20 세기 70 년대에서 80 년대에, 독일 학계에서 ‘불변화사(Particles)’로 불리는 근접한 언어 현상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80 년대 말에서 지금에 이르러, 언어학계에서 ‘담화표지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중국 학계에서 이론 중심으로 근 몇 십년간의 담화표지어의 연구 상황과 연구 성과를 소개한 평론적 성격의 논문으로는 冉永平(2000), 黄大网(2001), 何自然, 莫爱屏(2002), 冯武光(2004) 등이 있다. 이들 논문에서는 주로 담화표지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화용론적 관점에서 담화표지어에 대해 이론적인 논지를 나타내었다. 근래 들어 평론적 성격의 연구 외에, 중국어 담화표지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그 기능에 대한 연구 및 개별 담화표지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연구 등, 다른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 결과물도 나오기 시작했다. 연구자로는 刘丽艳(2011), 李秀明(2011), 殷树林(2012)등이 있다. 刘丽艳(2005)에서는 ‘你知道吗’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시작하였고, 李秀明(2011)에서는 메타담화 (meta discourse)와 담화표지어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殷树林(2012)에서는 개별 연구에서 벗어나 담화표지어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담화표지어에 대한 중한 대조 연구 방면에서는 郑青青(2013)에서 뜻이 비슷한 의문사 ‘哪里’ 와 ‘어디’ 를 주제로

하여 그 두 의문사가 각각 담화표지어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기능을 비교 분석하였고, 陈希(2009)에서는 두 언어에서 담화표지어의 화용론적 기능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적인 대조 연구라기보다는 개별 담화표지어에 대해서 그에 대응되는 담화표지어를 찾고, 화용론적 기능에 근거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외국 언어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화표지어 연구의 특징은 대부분 개별 담화표지어에 대해 그 형식과 의미, 특징 및 문법화(grammaticalization)와 어휘화(lexicalization) 등에 의한 담화표지어로의 변천 과정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담화표지어 연구가 담화표지어 자체에만 집중되어, 전체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 시각에서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2.2 담화표지어의 기본 기능과 정의

담화표지어는 화자의 발화 의도와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담화 책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담화표지어는 의미상 명제적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청자로 하여금 담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담화표지어는 명제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를 구조화하여 청자로 하여금 담화를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또한 담화표지어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화자의 그 담화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어 청자의 이해를 이끌기도 한다.

이러한 담화표지어는 일상적인 언어생활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언어 현상으로서 담화표지어의 정의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刘丽艳(2005:25) 등 학자들의 담화표지어에 대한 정의를 보면, 1)음운상 식별성을 띠며, 어기사(语氣词), 휴지, 억양의 높낮이 등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다. 2)운율상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자유로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운율 단위의 성격을 가진다. 3)통사적으로 비강제성을 띠며, 문장의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앞뒤로 다른 문장 성분과 결합하여 또 다른 문법적 단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생략해도 문법상 무리가 없다. 4)의미상 명제적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청자의 담화에 대한 이해를 이끄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5)고착화 현상을 보이지 않으며, 변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6)형태상 고정성을 보이며 사용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양상(modality)을 전달하는 표지로 변화되었다. 7)기능적 면에서 볼 때 연결성을 가지며, 담화 단위 간의 연결하는 성분으로서 앞뒤 담화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8)화용론적 성격을 띤다. 9)감정적, 표현적 기능을 함으로써, 담화표지어로 화자의 그 담화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정애(2002:85)에서는 본래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단어가 텍스트 안에서 접속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로 변화한 후, 더 나아가 화자의 심리적 또는 추론적 태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변해가는 것을 문법화라고 지적하고 이는 객관적이며 어휘적 의미를 가진 언어 성분이 주관적이며 화용적 의미로 발달하여 담화표지어가 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담화표지어는 그 어휘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명제적 의미가 탈색되면서 화용적 기능으로 전이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문법적 측면에서 보면 담화표지어가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부자연스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담화표지어가 텍스트 상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용은 선택적이거나 잉여적인 것이 아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담화표지어 유형에 따른 분류

담화표지어는 여러 관점에서 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분류의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의 원칙은 담화표지어의 능동성 여부 및 전형성(典型性)의 정도,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살펴보겠다.

화자의 담화표지어 사용이 능동적인가 아니면 수동적인가의 관점에서 능동성 담화표지어와 수동성 담화표지어로 나눌 수 있다.

3.1 능동성 담화표지어

능동성 담화표지어란 화자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담화표지어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화자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제 안에서 쓰이는 담화표지어를 뜻한다. 능동성 담화표지어를 사용하는 궁극적 목적은 언어 사용 중에 화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담화표지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청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동시에 청자의 그 담화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어, 청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있다. 청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능동성 담화표지어로 인해 보다 정확하게 담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담화 의도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능동성 담화표지어는 담화를 구성하고, 청자의 담화에 대한 이해를 이끌며, 담화의도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언어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1) [这吃法不但“的, 的”的声音清脆可听, 那手和头的转侧的姿势窈窕得很, 有些儿妩媚动人。连丢去的瓜子壳也模样姣好, 有如多多兰花。]由此看来, [咬瓜子是中国少爷们的专长, 而尤其是中国小姐、太太们的拿手戏。] (丰子恺《吃瓜子》)

화자는 담화표지어 '由此看来'를 사용하여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와 동시에 '由此看来'가 앞뒤 담화를 연결시키는 작용을 한다. '由此看来'의 선행 발화의 내용은 중국인이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후행 발화의 내용은 앞에서 관찰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중국인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해바라기 씨를 좋아한다. 특히 여자들이 더 그러하다'라는 결론이다. 즉, '由此看来' 의 담화모델 '근거-추론' 으로 선행 발화에서는 근거를 나타내고, 후행 발화에서는 근거에 의거해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담화표지어가 문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라는 특징에서 볼 때, 위 예문에서도 담화표지어 '由此看来'를 생략해도 담화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화자는 이 담화표지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청자는 이 담화표지어의 출현으로 '근거-추론' 이라는 담화모델을 연상하게 됨으로써 앞 부분의 내용을 회상하고 뒤 부분에서 추론을 통한 결론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재빨리 그 앞뒤 문맥을 파악하여 좀 더 쉽고 빠르게 전체 담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봐야 같이 화자의 담화표지어 사용의 능동성 유무에 따라 능동성 담화표지어와 수동성 담화표지어로 나눌 수 있는데 위 예문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담화의 앞뒤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능동성 담화표지어라고 볼 수 있다. 능동성 담화표지어는 담화표지어의 전형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비전형적(non-typical) 담화표지어와 전형적(typical) 담화표지어로 나눌 수 있다. 전형성의 정도는 담화표지어의 정의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담화표지어의 기준에 부합할수록 그 전형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전형성이 높은 담화표지어를 전형적 담화표지어라 하고, 전형성이 낮은 담화표지어를 비전형적 담화표지어라 한다.

어떤 언어 형식은 일반적인 어휘(실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및 부사 혹은 구조적 작용을 하는 조사나 어휘를 연결하는 접속사 등)의 형식으로 쓰임과 동시에 문법화 과정을 통해 분화되어 담화표지어로도 같이 공존하여 쓰일 수도 있다. 만약 일반 어휘로 사용되는 것보다 담화표지어로 더 많이 쓰인다면, 그 언어 단위의 문법화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언어 형식의 실재적 의미를 연상하기가 어렵게 되어 담화표지어의 특징을 완벽히 갖추게 됨으로써 전형적인 담화표지어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만약 문법화 정도가 높지 않아서 그 의미와 기능이 일종의 중간 상태에 놓여있다면, 그것을 비전형적인 담화표지어라 부를 수 있다.

3.1.1 비전형적 담화표지어

비전형적 담화표지어란 실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담화 안에서 담화를 구성하고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어 성분을 뜻한다. 예를 들면, '概言之, 由此看来, 顺便说一句, 坦率说一句, 总而言之, 一言以蔽之, 概括地说, 更具体地说, 简单地说, 话说回来, 换

句话说, 打个比方说' 등이 있는데 이런 담화표지어는 그 문자적 의미에서 바로 담화표지어 기능을 추론할 수 있고 의미 탈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법화 정도가 높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3.1.2 전형적 담화표지어

전형적 담화표지어란 문법화 정도가 높고,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언어 성분을 뜻한다. 예를 들면, '老实说', '不瞒你说, 说实在的, 这样吧, 这麼说, 是这样的, 你知道吗, 我跟你说, 不是我说你, 你看你, 好了/行了, 不是, 你像, 要不, 我说, 你说, 你懂的, 对了, 你别说, 这不/可不, 也是' 등의 담화표지어를 포함한다.

전형적인 담화표지어는 문법화와 어휘화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담화내에서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그 문자적 의미에서 담화표지어 기능을 추론하기 어렵다. 문법화가 이루어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전형성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며, 전형성이 높은 담화표지어를 전형적 담화표지어라고 한다. 전형적 담화표지어 범위 안에서도 각각의 담화표지어에 대해서 문법화가 이루어진 정도의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형적 담화표지어 안의 '老实说'와 '你别说'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실재적 의미를 보유한 채 담화표지어 기능을 하는 '老实说'에 비해 실재적 의미를 완전히 소실하고 담화표지어 기능을 하는 '你别说'의 문법화 정도가 더 높은 것에서 더욱 전형적인 담화표지어라고 하겠다.

3.2 수동성 담화표지어

수동성 담화표지어란 주동성 담화표지어와 상반된 개념으로서, 그 사용이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인 특징을 가진다. 담화 과정 중 잠시 막힘이 있을 때 자연스레 나타나거나, 혹은 개인의 입버릇과 같은 습관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 역시 청자의 담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화자가 어떤 담화표지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능동성 담화표지어와 차이를 보인다.

수동성 담화표지어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심리적 담화표지어란 어기사, 지시어 등의 반복 사용을 뜻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휘적 성격의 표지어가 아닌, 모델(modeling) 성격의 표지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담화 표현 중에 막힘이 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 반응이라 볼 수 있다.

피동성 담화표지어의 또 한 종류로 '개인 습관적 담화표지어'를 들 수 있다. 이는 개별성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며 주로 접속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方梅(2000)에서 접속사가 그 접속사로서의 문법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담화표지어로 변화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접속사가 의미약화(semantic reduction)

를 거쳐 문법적 의미를 잃고 담화를 구성하는 담화표지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담화표지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사로 '所以', '但是', '因为', '可是', '那么', '而且', '然后', '甚至', '如果'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접속사로서의 문법적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근거로는 이들이 담화표지어의 용법으로 쓰일 때 이들과 원래 문법적으로 서로 호응하는 다른 접속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所以'는 '因为'와 결합할 수 없고, '可是'는 '虽然'과 '那么'는 '要是'과 '而且'는 '不但'와 '然后는 '先'과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

4. 중한 담화표지어 대조

담화표지어 한중 대조 분석은 중국어 담화표지어에 착안하여 거기에 맞는 한국어 대응 표현 분석을 위주로 진행할 것이다. 대조 분석의 관점은 비전형적 담화표지어와 전형적 담화표지어, 수동성 담화표지어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4.1 비전형적 담화표지어

중국 학계에서는 담화표지어 연구 대상으로 구어과 서면어 모두를 포함하는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주로 구어 안에서 담화표지어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중국어 비전형적 담화표지어에는 서면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서면어의 특성상 형태적으로 간결성을 띠는데 반해, 한국어의 대응 표현은 설명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 1> 중국어 담화표지어 서면어와 구어에 대한 한국어 대응 표현

서면어	구어	한국어 대응 표현
简言之	简单地说，说得简单一点	간단하게 말하면
相对而言	相对来说	상대적으로 말하면
换言之	换句话说	바꾸어 말하면
概言之，　概而言之，概括而言	概括地说	개괄하여 말하면
总而言之	总之，总体来说	총괄적으로 말하면
鉴于此	由此看来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一言以蔽之	简单来说，总体来说	한 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例如	打个比方说	예를 들면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담화표지어라도 중국어에서는 서면어와 구어의 표현에서 형태상 다소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서면어와 구어의 구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4.2 전형적 담화표지어

비전형적 담화표지어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양국 언어 간의 차이점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에 전형적 담화표지어에서는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비전형적 담화표지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화표지어로서의 기능을 실현하는 반면, 전형적 담화표지어는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문법적 의미를 잃고 절차적 의미 (procedural meaning)만을 가지게 되면서 각각의 담화표지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본래 서로 다른 언어 유형에 속하여 언어 표현 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전형적 담화표지어는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로서 담화 내에서 담화를 구성하고 이끄는 기능을 하는데, 주의 환기 기능, 화제 전환 기능, 발언권 가져오기 기능, 발화 연속 기능 등 여러 담화 기능을 담당한다. 그 중에서 주의 환기 기능은 담화표지어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의 환기 기능 중에서도 화제 도입의 관점에서 양국 담화표지어를 비교해 보면, 중국어 담화표지어로는 '你知道吗, 我跟你说, 我告诉你, 我说, 你说, 你看你, 不是我说你, 你别说' 등이 있고 한국어 담화표지어로는 '저, 뭐, 어디, 자, 아니, 이제, 글쎄, 있잖아' 등을 들 수 있다. 표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 비전형적 담화표지어

언어	주의 환기, 화제 도입 기능
중국어 담화표지어	你知道吗, 我跟你说, 我告诉你, 我说, 你说, 你看你 不是我说你, 你别说 등
한국어 담화표지어	저, 뭐, 어디, 자, 아니, 이제, 글쎄, 있잖아 등

중국어 담화표지어를 한국어 대응 표현 방식으로 보면 각각 '你知道吗(너 아니?), 我跟你说(내가 너에게 말하겠는데), 我说(말하건대), 你说(니가 말해봐), 你看你(너 봐 너), 不是我说你(내가 너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我告诉你(내가 너에게 알려 주겠는데), 你别说(있잖아)' 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어 표현에서 상당히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양국 담화표지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어에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적으로 담화표지어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1 인칭 대명사 '我(나)'와 2 인칭 대명사 '你(너)'를 사용하여 화자가 직접적으로 청자를 겨냥하여 청자의 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담화표지어 안에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형식이 없고 의문사나 지시어 등을 통한 표현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일상 대화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사용한다면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표현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담화표지어의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직접적으로 청자를 가리키지는 않고 지시어나 의문사 사용 등의 다른 방식을 통해 완곡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어 담화표지어보다 화자와 청자를 그대로 넣어서 표현하는 중국어 담화표지어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두 언어 간 담화표지어 사용의 차이점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 사용의 개별적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3 수동성 담화표지어

중국어에서 담화표지어로서의 '这个 , 那个'는 원래 지시어 용법이 문법화를 거치면서 담화표지어화 된 것이다. 이들은 화자가 발화 도중에 표현할 적당한 어휘를 찾지 못하여 잠시 말문이 막혔을 때 스스로에게 담화를 수정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어 갑자기 담화가 중단될 위험을 막아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습관적이며 무의식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의 지시어 '这个, 那个' 과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을 보면 역시 한국어 지시어를 들 수 있다. 중국어의 지시체계가 '这'와 '那'의 이원 체계인데 한국어는 '이, 그, 저'의 삼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최현배(1959)에서 지시어 '이, 그, 저'의 원근 개념에 따라 각각 '근칭 중칭 원칭'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태 변화가 많은 한국어의 특성상, 담화표지로서의 지시어 또한 다양한 형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계열의 형태 변화로는 '이게', '이런', '이렇게'등으로, '그'계열로는 '그게', '그런', '그렇게', '그러니까'등으로, '저'계열로는 '저게', '저런', '저렇게'등의 표현 형식이 있다. 축소 형식으로는 각각 '이케', '저케', '근까'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어 지시어 '이'는 화자에게는 가깝지만 청자에게는 먼 대상을 가리키고, '그'는 화자에게 멀지만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며, '저'는 화자와 청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어에서는 화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这' 가 쓰이고, 화자와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킬 때는 '那' 가 쓰인다. 따라서 중국어 지시어 '这'는 한국어의 '이'와 대응되고 지시어 '那'는 한국어의 '그', 혹은 '저'와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어와 한국어가 서로 근칭과 원칭으로 대응되는데 반해, 담화표지어로서의 사용 빈도수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유효려(2006)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어 지시어

중 ‘그’계열의 담화표지어 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刘丽艳(2009)에서는 중국어 지시어 ‘这个(이것)’가 ‘那个(저것 혹은 그것)’에 비해 높은 사용 횟수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담화 안에서 지시어가 사용될 때 두 언어 간의 언어 사용 배경 및 문화적 요소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효려(2006)에서 한국어에서는 ‘그’의 문법화 정도가 높은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这个(이것)’의 문법화 정도가 높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두 언어의 지시어가 겪은 문법화 현상의 불균등이 담화표지어로서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동성 담화표지어로서 지시어가 사용되는 점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공통된 부분이나, 담화 안에서 사용되는 구체적 사용 요건에서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 연구를 통해 중국 학계에서 담화표지어에 대한 정의와 연구 경향 및 연구 성과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중국어 담화표지어의 특징과 유형별로 분류해 보았다. 중한 대조의 관점에서 볼 때, 상위 범주에서의 비교, 즉 담화표지어가 가지는 특징과 수행하는 역할 등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중한 양국 담화표지어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 언어 유형의 차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담화표지어가 실현되는 모습에서는 세부적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전형적 담화표지어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본래의 문법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전형적 담화표지어와는 달리, 전형적인 담화표지어는 문법화와 어휘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문법적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담화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화용론적 기능만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언어 사용 중 중한 양국의 문화 차이도 전형적 담화표지어의 사용 양상에 영향을 주어 양국 담화표지어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구종남. 2000. 담화표지 '뭐' 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국어 문학 35, 5-32.

김명희. 2005. 국어 의문사의 담화표지화. 담화와 인지 13:2, 21-42.

김미선. 2012. '그런데'의 담화 기능 연구. 인문과학연구 34, 35-54.

유효려. 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 비교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애. 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정선혜. 200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연구: '글쎄, 뭐, 좀' 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영옥. 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 연구 4, 113-145.

_____. 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 45, 45-93.

정윤희. 2005. 국어 의문사 '뭐' 의 의미 분석. 겨레어문학. 35, 109-131.

주 요. 2011. 한국어 담화표지에 관한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lakemore, Diane. 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ser, Bruce. 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931-952.

Lawrence Schourup. 1999. Tutorial overview: Discourse markers. Lingua 107, 227-265.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iffrin, Deborah.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陈丽君. 2010. 话语标记"我给你说"的演变过程.浙江师范大学学报 6, 84-87.

陈希. 2009. 中韩话语标记语语用功能对比研究.中国海洋大学硕士学位论文.

邓 瑶. 2011. 谈话语体中"你比如说"的话语功能探析.云南师范大学学报 4, 63-67.

董秀芳. 2003. "X 说"的词汇化.语言科学 2,46-57.

_____. 2007. 词汇化与话语标记的形成.世界汉语教学 1, 50-61.

_____. 2010. 来源于完整小句的话语标记"我告诉你".语言科学 3, 279-286.

方 梅. 2000. 自然口语中弱化连词的话语标记功能.中国语文 5, 459-470.

冯光武. 2004.汉语语用标记语的语义、语用分析.现代外语, 1, 24-31.

郭风岚. 2009. 北京话话语标记"这个"、"那个"的社会语言学分析. 中国语文 5, 429-480.

胡建峰. 2010. 试析具有证言功能的话语标记"这不". 世界汉语教学 4, 483-494.

黄大网. 2001. 话语标记研究综述. 福建外语, 1, 5-12.

李秀明. 2006. 汉语元话语标记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刘大为. 2011. 链接结构与话语标记语的衔接功能. 现代中国语研究 13, 1-9.

刘丽艳. 2009. 作为话语标记的"这个"和"那个". 语言教学与研究 1, 89-96.

_____. 2011. 汉语话语标记研究. 北京语言大学出版社,

马国彦. 2010. 话语标记与口头禅—以"然后"和"但是"为例. 语言教学与研究, 4, 69-76.

莫爱屏. 2004. 话语标记语的关联认知研究. 语言与翻译（汉文）3, 3-8.
施仁娟. 2014. 基于元话语能力的汉语话语标记研究. 华东师範大学博士学位论文,
孙利萍·方清明. 2011. 汉语话语标记的类型及功能研究综观. 汉语学习 6, 76-84.
唐善生·华丽亚 .2011. “你别说”的演化脉络及修辞分析. 当代修辞学 4, 24-34.
冉永平. 2000. 话语标记语的语用学研究综述. 外语研究, 4, 8-14.
邢 欣. 2007. 视角转换與语篇衔接语. 修辞学习 1, 5-11.
殷树林. 2012. 现代汉语话语标记研究.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于宝娟. 2009. 论话语标记语“这不”、“可不”. 当代修辞学 4, 17-33.
郑青青. 2013. 汉韩话语标记“哪里”与“어디”的对比. 上海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

이윤경
上海外国语大学 东方语学院 韩语系
201620 中国上海市松江区文翔路 1550 号
E-mail: lirunjing7@163.com

한 • 중 대조분석 연구 소고

-한 · 중 어휘 대조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채옥자

(복단대학교)

1. 들어가기

한 · 중대조분석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 · 대조하여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는 점에서, 공시적(synchronic)인 시각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비교 · 대조하여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대조언어학 연구 분야에 속한다. 이런 대조언어학(對 照言語學, contrastive linguistics)은 그 연구 결과를 외국어 교육과 외국어 학습이나 언어 습득 분야에 적용시키면서 발달한 학문이다. 따라서 한 · 중 대조분석 연구의 결과물 역시 한국어 교육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한 · 중 대조분석 연구의 결과물들이, 한국어 교육에 과연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 즉 한국어 교사의 교수나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특별히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 · 중 대조분석 연구는 학습자의 모어(출처 언어)인 중국어(漢語)와 목표언어인 한국어를 비교 · 대조하여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어, 그 연구의 결과물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학습자의 용이한 학습을 위한 것과 같은,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에 적용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 중 대조분석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 · 중 대조분석 연구는 음운, 어휘, 문법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본고에서는 한 · 중 어휘 대조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의 내용, 방법 등 면에서,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한 · 중 어휘 대조분석 연구의 대조언어학적 역할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한 · 중 어휘 대조분석연구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한 · 중 어휘대조분석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 서로 대응하는 어휘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의미와 용법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어 어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학습자들의 어휘력 증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어', '어휘', 어휘부', '어휘력(어휘 능력)'등은 어휘 대조 연구 논의를 위해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어휘력'에 대하여 일찍 김광해(1993: 305)에서는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런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이라는 구조로 체계화하였다.

어휘력의 구조(김광해1993: 306)

1. 양적 능력 …… 어휘의 양

2. 질적 능력

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1. 단일 어휘소의 의미(단어의 의미, 多義)

2. 관용적 어휘소의 의미(숙어, 속담, 四字成語 등)

3. 단어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

나.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1. 유의관계, 반의관계

2. 공기관계

여기에서 어휘에 대한 '양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 언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및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김광해1933: 306).이처럼 '어휘력'을 질적인 속성과 양적인 속성을 가지는 '사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휘 능력'이라는 개념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데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을까 싶다. 어휘력은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는 인간의 언어 능력 중의 하나인 의식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민현식 외(2005: 80한국어 교육론 2), 구본관 외(2016:139) 등 연구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어휘력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손영애(1992: 11)에서는 어휘력은 "낱말들의 형태, 의미, 화용에 관련되는 지식의 총체'라고 규정하였는데, 능력과 '지식'을 동일시하고 있다. 한편 구본관 외(2016: 138)에서는 어휘력을 특정 개인이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어휘력'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즉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이런 어휘의 사용은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바, 언어 사용의 두 영역인 '이해'와 '표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휘력은 어휘에 대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어휘소의 필요 충분한 정보에 대한 인지력이 되겠다. 이는 어휘의 정확한 이해와 표현과 같은 어휘의 사용에 관계된다.

이런 어휘력은 다른 일면, 정확한 이해와 표현이 가능한 어휘적 수량의 정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것은 어휘력은 정확한 어휘 사용 가능성 여부와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 사

용의 가능성 여부 등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력: 특정 개인의 어휘 사용 능력

1. 어휘에 대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2. 사용 가능한 어휘의 수량

따라서 어휘력은 일차적으로 어휘에 대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어휘의 이해와 표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된다.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어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어에 대한 지식은 I.S.P.Nation(1990)에서 제시한 다음의 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 단어에 대한 지식

형태	**구어**		**어떻게 들리는가?**
			어떻게 발음되는가?
	문어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쓰는가? 철자는 어떤가?
위치	**문법구조**		**어떤 구조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가?**
			어떤 구조에서 이 단어를 써야 하는가?
	공기관계		**이 단어의 앞뒤에 어떤 유형의 단어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어떤 유형의 단어를 이 단어와 같이 써야 하는가?
기능	**빈도**		**이 단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하는가?
	적절성		**이 단어를 어디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 단어를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인가?
의미	**개념**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하겠는가?

	연합		**이 단어가 상기시키는 다른 단어들은 무엇인가?**
			이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말은 무엇인가?

(1)은 단어에 대한 지식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 즉 어떤 단어가 발화 상황에서 어떻게 들리고 실제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표기되고 적을 수 있는지, 문장의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어떤 단어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등이 모두 단어에 대한 지식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단어에 대한 지식은 사전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 사전에서 한 단어가 표제항일 경우, 그 단어의 발음, 형태, 의미 정보뿐만 아니라 예문,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관련 어휘 정보, 한자어나 외래어의 경우는 원어 정보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단어에 대해 학습자는 모어와의 대응 표현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간에 있는 연결 고리를 파악해내는 능력이 있는 바, 그 능력의 핵심은 학습자 자신의 모어인 중국어와 학습 대상이 되는 한국어를 비교 · 대조 분석하는 능력에 있다.

이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 · 중 어휘 대조분석 연구는 한국어 어휘와 중국어 어휘의 대응에 대한 대조분석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십만 개에 이르는 어휘 항목을 중국어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대조분석 연구는 대부분 범주 별로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물론 개별 단어의 대조분석 연구도 가능하다). 이런 어휘 대조분석 연구의 접근방법은 형태(구조)로부터 출발하거나 의미(범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 · 중 어휘 대조분석 연구에 대해서는 내용과 방법론의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1 범주별 어휘 대조분석 연구

한국어 어휘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나눌 수 있고 단어 형성법에 따라 단일어, 복합어(합성어, 파생어)로 나눌 수 있으며 의미 관계에 따라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상의어, 하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확장 여부에 따라 단어 형식 어휘, 확장 형식 어휘(관용구, 속담, 연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어휘적 분류는 한중 어휘 대조 분석 연구에 대조의 내용과 범위를 한정시켜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대조 분석 연구는 한국어 어종별 어휘 범주인 한자어 범주에서 중국어와의 대조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일찍 成元慶(1977)에서는 한 · 중 양국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대조하였다. 한자어 범주에서 또한 단어 형

성의 원리에 의한 범주로 대조분석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향옥(2011)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파생어와 중국어 파생어의 구조를 대조분석한 연구이고 단발령(2006)은 한국어와 중국어 파생접사에 대한 대조분석 연구이며 방향옥 · 강희숙(2009)는 한국어의 한자어와 중국어의 접두파생어에 대한 대조연구이다. 유적(2008)은 한중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대조 연구이고 陳晶晶(2007)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칭파생접미사에 대해 대조 분석하였다. 한편 최형용(2006)은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양상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이는 한국어의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가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사이에 '등가(equivalent)'(오미영 역, 2007)(중국어로는 대응성(對應性 equivalence)許余龍2002 :26)관계를 성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성란(2012)역락,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언어 대조연구, 태평무(2015)中韩语言对比研究, 世界图书出版社 등이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许维翰（1978）, 车光一（1984）, 张兴权（1984）, 权奇英（1984） 崔奉春（1989）,

柳英绿（2000）, 金奉民（2007）, 施暉（2009）등은 양국 언어의 화행, 동사의 자릿수, 언어문화에 대한 대조연구이다. 박건영(1994), 노명주(2002), 등은 중국어의 피동문, 사동문 등에 대한 연구이고 최순희(2005), 왕단(2007)등은 의미 관계에 의한 범주인 연어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곽일성(2017)에서는 의미장을 이용한 범주인 감각 형용사 범주에 대한 한중 대조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품사 범주인 형용사나 분류사에 대한 한중 대조분석, 의미장에 의한 범주인 착용동사, 색채어(빛깔어)에 대한 한중 대조분석 연구도 있다.

2.2 방법에 따른 어휘 대조분석 연구

언어를 記號의 체계로 보는 경우, 어휘항목은 記表(signifiant)와 記意(signifié)의 상관관계로 양분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어휘의 形式(시니피앙)과 內容(시니피에)의 대응관계로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어휘 연구는 이런 어휘의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複雜한 對應關係를 밝히는 언어 연구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어휘 硏究의 目的은 인간 언어의 어휘의 형태(구조)와 의미(기능) 사이의 관계를 밝히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 연구도 그 목표는 어디까지나 언중의 理解와 表現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 驅使를 위하여 즉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현상에 내재해 있는 규칙 · 정보의 集合을 밝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어휘 연구의 窮極的인 목적에서 우리는 어휘 연구에서 형식에서 출발하여 내용에 다가가는 접근법 및 내용에서 출발하여 형식에로 다가가는 접근법 두 가지 연구 방법론이 모두 必須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휘에 대한 한중 대조분석 연구도 마찬가지로 접근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조의 출발어가

한국어인지 아니면 중국어인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으며 오류 분석을 통해 오류 범주를 찾아 대조분석 할 수도 있다

◆ 접근 방법

1) 형태(구조)에서 의미로의 대조

2) 의미(범주)에서 형태로의 대조

◆ 대조의 방향

1) 단일방향 대조

2) 양방향 대조

◆ 오류 범주에 대한 대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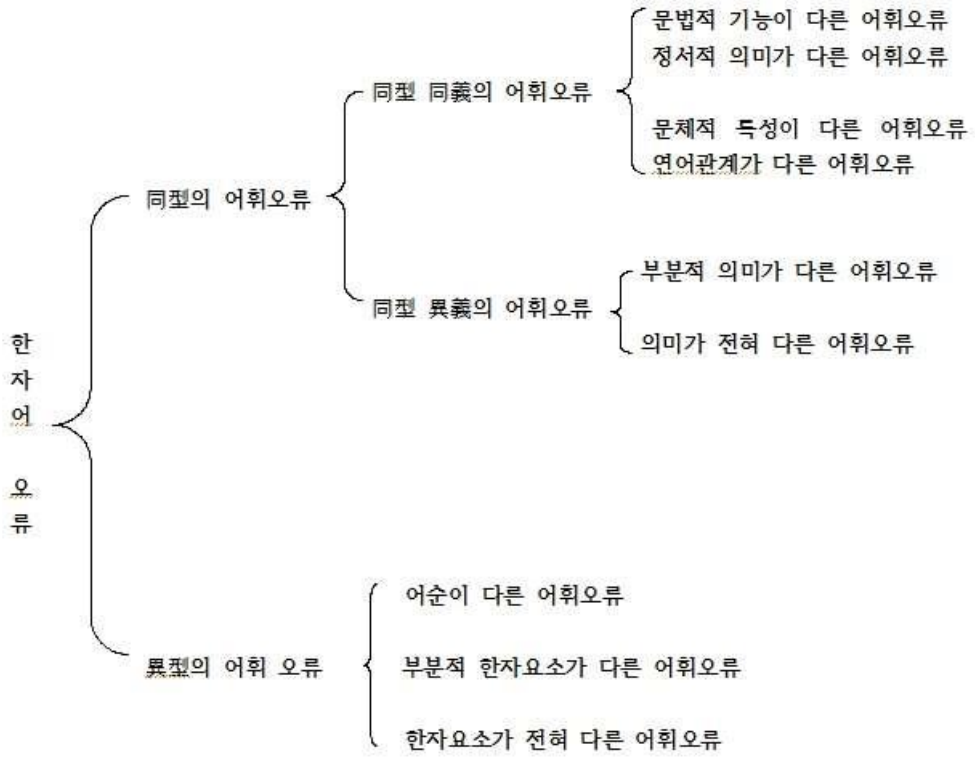
모어가 중국어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중국어의 특징이나 규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영향을 모어 영향(母語 影響)이라고 한다 그것은 외국어 학습은 모어라는 필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어떤 식으로든 모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전이(轉移, transfer)라는 용어를 쓰며,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할 때는 촉진(促進, facilitation),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할 때는 간섭(干涉, interference)이라고 한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14: 244 참고).

제2 언어 습득시 모어의 영향은 음운, 의미, 통사, 관용어 등 제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한자어계 동형어들은 서로의 언어를 학습할 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전이, 즉 촉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간 언어에서 의미와 문법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학습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간섭을 일으키기도 한다.

채옥자(2014)에서는 바로 이런 오류 범주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오류의 발생 원인으로 되는 모어 영향 즉 중국어의 영향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남을 밝혀내는 것이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산출한 한자어 오류의 유형은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한자구조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의 오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즉 한자구성요소가 같은 이른 바 同型의 한자어 오류와 한자구성요소가 다른 異型의 한자어 오류로 나누어지며 동형의 한자어 오류는 의미적으로 세분되어 어휘의미가 다른 경우, 문법의미가 다른 경우, 정서적 의미가 다른 경우, 연어 관계가 다른 경우 및 문체적 특성이 다른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다음 다른 한자구조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 한자 요소가 부분적으로 다른 경우 및 전혀 다른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은 기타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과 보편성을 가지는 동시에 특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교사는 어휘 교육에서 한자어를 가르칠 경우 우선 중국어와 형태적으로 같은 한자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한자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같은 구성요소일 경우에는 의미론적으로 기본의미, 확대의미 등 면에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며 그 다음 용법 면에서는 문법적인 면, 문체적인 면, 색채적인 면 및 연어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시킨다. 다음 다른 한자구성요소일 경, 어순만 다른 지, 한자 구성 요소가 일부 다른 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지 등을 면밀히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이 산출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한자어 교육 내지 어휘 교육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 . 중 어휘 대조 분석 연구는 우선 한자어와 고유어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한자어는 다시 중국어와 한자 구성이 같은 것과 다른 것으로 나누고 같은 구성의 경우는 주로 의미 및 용법 면에서 대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경우는 어순이 다른 것, 한자 요소가 일부 다른 것 등으로 나누어 대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들이 산출한 한자어 오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중 어휘의 문법적 기능이 다른 어휘 오류

이 부류는 어휘적 의미가 같지만 문법적 의미가 다른 어휘들인데 학습자들이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들을 말한다.

(1) ㄱ.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습관(√보통LAd) 침대에서 잔다.(CHI/L3)
(조철현2002:152)
ㄴ. 이것은 다른 학생들에 세탁시간을 *영향했습니다.(√영향이 있습니다.)-C4
(차숙정 . 송향근2006:431)
ㄷ. 그는 항상 *노력하게 공부해요.(√열심히)(복단대 1학년생)
ㄹ. 제 친구는 자주 나를 *관심해 주어요.(√배려해)(복단대 2학년생)

(1ㄱ)은 학습자가 '습관'이 한국어에서 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사처럼 씀으로써 생긴 오류로, 이는 중국어에서 같은 구조의 단어 '習慣'이 동사이지만 '習慣吃米飯(습관적으로 쌀밥을 먹는다)와 같이 부사의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중국어의 이런 기능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생긴 오류로 판정된다. (1ㄴ)에 대하여 차숙정 . 송향근(2006:431)에서는 '-하다'에 의한 파생어 생성 규칙을 '-하다'를 붙일 수 없는 어휘에도 적용시켜서 나타난 오류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습자가 부당하게 적용시킬 수 있은 근거는 같은 한자 구성의 중국어 '影響'이 동사로 쓰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영향'은 중국어 '影響'과 같은 어휘적 의미를 같지만 문법적 기능은 명사의 기능만 있어 '영향을 받다/영향을 끼치다/영향이 있다' 등과 같은 연어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影響市容(도시 풍경에 영향을 끼치다)'와 같이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중국어의 지식을 한국어에 적용시켜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ㄷ) 역시 중국어의 '努力'이 부사적 기능이 있기에 한국어의 '노력'도 '-하다'를 붙이면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적용시킨 오류로 보인다. (1ㄹ)의 '관심'은 한국어에서는 명사의 기능으로 '관심을 가지다, 관심이 있다' 등으로 쓰이고 동사의 기능이 없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의 기능으로 '남을 배려하다'는 뜻으로 '關心他人'과 같이 쓰인다. 그러므로 이는 학습자가 '관심'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적 기능의 차이에 대한 인지의 부족으로 '관심'을 문법적으로 잘못 사용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전이 현상이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제2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오류분석을 통해 오류의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고, 한국어 학습에서 중국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있어서 고급에 갈수록 어휘의 의미 차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학습자는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현법을 인지한다면 어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는 어휘 항목의 의미와 용법에 관한 정보를 사전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얻게 된다. 사전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언어항목을 표제항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되 필요충분한 음운 · 문법 · 의미 · 화용상의 정보를 압축하고 체계화시켜 표제항 중심의 사전 조항을 이루게 하고서 그 표제항들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구조화시킨 텍스트이다(이병근2000: 9 참조). 한국어 사전도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전에 제시된 정보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정보는 아니다. 그것은 어휘는 공시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지며 통시적으로 변화하며 이런 어휘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연구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전이 필요충분한 정보를 담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을 신성시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사전, 중한사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참조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이용자가 아닌 사전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연구 결과물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을 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대조분석 연구의 응용학적 역할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발" 동작 동사 용법 대조 연구

이설련
(절강월수외국어학원)

1. 서론

본 연구는『표준국어대사전』과『现代汉语词典(第 7 版)』에서 "발" 동작을 나타내는 한국어 동사와 중국어 동사들을 추출한 다음 의미 대응되는 것들의 통사·의미특성상 갖는 정보들을 대조 분석하여 용법 차이를 관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문의 구조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동사 정보는 주로 하위범주 정보, 논항 정보, 격틀 정보, 의미역 정보 등을 포함한다. (권재일 2000). 동사 정보에 대한 앎은 그 동사 용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바탕 작업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발" 동작 동사의 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위 정보, 격틀 정보를 대조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동작동사 부류에서 "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사실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의 묶음이다. "발"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 묶음은 의미 동질성과 변별성에 따라 약간의 낱말밭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의미 유사성에 근거한 의미 유추나, 실제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언어적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어휘 선택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한•중 "발" 동작동사 범위 및 분류

2.1. "발" 동작동사 정의

"발" 동작 동사의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먼저 한국어 "발"과 중국어 "脚"의 사전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발"은『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 부분"을 말하고, 중국어 "脚"은『现代汉语词典(第 7 版)』에서 "人和动物的腿的下端, 接触地面支持身体的部分"을 말한다. 사전 정의대로라면 "발" 동작 동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에 있는 기관에 의한 동작을 언어화한 것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동작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 동작 동사를 정의하기에 앞서 다음 예를 관찰해보도록 한다.

1 ㄱ. 그는 나의 발[1]을 (발[2]로) 디뎠다.
ㄱ′. 그는 나의 발[1]을 디뎠다.
ㄴ. 그는 땅을 밟았다.
ㄴ′. 그는 땅을 (발로) 밟았다.
ㄷ. 그는 축구공을 차다.
ㄷ′. 그는 축구공을 (발로) 차다.
ㄹ. 신이 발에 꼭 맞다. 『표』
ㅂ. 脚面。『现』
ㅅ. 脚尖。『现』

예 (ㄱ)을 관찰하면 문의 구조에 명사 "발"이 두 번 출현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발[1]"은 동사 "디디다"의 통사·의미특성상 반드시 문의 구조에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필수적 논항을 표시한 경우이고, "발[2]"는 수의적 논항의 자격으로 문의 구조에 출현 가능한 논항을 표시한 경우이다. 문의 구조에서 필수논항인지 아닌지는 예 (ㄱ′) 와 같이 "발[2]"을 삭제해 보면 명확해진다. 마찬가지로 예 (ㄴ)에서 "발"은 문의 구조에 수의적 논항으로 출현하여 동사 "밟다"를 수식하는 경우이고, 예 (ㄷ)에서 "발"은 수의적 논항의 자격으로 동사 "차다"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ㄱ)에서 "발[2]"와 (ㄴ′)와 (ㄷ′)에서 "발"은 모두 문의 구조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동사의 동작 방식을 표현해주는 역할로, 조격 표지 "-로"에 의해 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런 동작동사는 의미특성상 [+발] 자질을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고, 문의 구조에서 [+발] 자질을 갖는 논항과 수식관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위 예들과 그 해석들에서 "발" 동작 동사의 정의를 일단 다음과 같이 의미적인 측면과 통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발" 동작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인 "발"이 어떤 동작 완성의 수단이 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언어적으로 정의한 것이 "발" 동작 동사가 된다. 통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문의 구조에서 [+발] 자질을 갖는 성분의 수식을 받을 경우, 즉 문의 구조에서 명사구 "NP-로"에 의해 수식 가능하면 "발" 동작 동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사론적인 정의에 반례가 될 수 있는 동작동사들이 있어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간혹 생물체의 이동을 나타타내는 동사들도 [+발] 자질을 갖는 성분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 ㄱ. ?그는 [발로] 여기로 왔다.
ㄱ′. 그는 [걸어서] 여기로 왔다.

ㄱ″. 그는 [발로 걸어서] 여기로 왔다.
ㄱ‴. 그는 [차로] 여기로 왔다.
ㄴ. ?그는 아래층에 [발로] 내려갔다.
ㄴ′. 그는 아래층에 [걸어서] 내려갔다.
ㄴ″. 그는 아래층에 [발로 걸어서] 내려갔다.
ㄴ‴. 그는 아래층에 [승강기로] 내려갔다.

위 예 (ㄱ)과 (ㄴ)에서 문의 구조에서 출현한 "발"은 화용론적인 측면에서는 납득가능한 문장이나, 통사론적인 측면에서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ㄱ)과 (ㄴ)을 (ㄱ′)와 (ㄴ′)와 같이 "여기로 온 방법을 나타내는 성분 "걸어서"를 추가하면 문이 보다 자연스러워짐을 관찰할 수 있다. (ㄱ″)와 (ㄴ″)와 같이 문 "그는 발로 걸어서 여기로 왔다"와 문 "그는 아래층에 발로 걸어서 내려갔다"에서 수식 성분 "발"을 추가했을 경우도 자연스러운 문이 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성분 "발"이 상위문의 핵심 동사 "왔다"를 수식해서가 아니라, 내포문의 동사 "걷다"를 피 수식 대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짐을 말해준다. 따라서 문의 구조에서 "발"을 동작의 수식 성분으로 상정가능하다 하여 모두 "발" 동작 동사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즉 위 예에서 "오다"와 "내려가다"는 본고의 연구범위에서 제외된다.

3 ㄱ. 신을 신다/穿鞋。『표』
ㄱ′. ? 신을 (발에) 신다/ (脚上)穿上鞋。
ㄱ″. 구둣주걱으로/손으로 신을 (발에) 신다. 用鞋拔子在脚上穿鞋.
ㄱ‴. ?발로 신을 (발에) 신다. 用脚往脚上穿鞋.

예 (ㄱ)에서 신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신"이 되는데, 문의 구조에서 필수적인 대상 논항이다. (ㄱ′)에서 "신다"는 문의 구조에서 필수적인 대상 논항 외에 신는 행위가 행해지는 지점인 "발"을 수의적인 논항으로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 예인데, 결코 불필요한 논항임으로 삭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동사 "신다"의 통사·의미특성상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발"이 문의 구조에 나타나면 부자연스러운 어감을 준다. (ㄱ″)에서 손으로 신든, 구둣주걱으로 신든 결과적으로 모두 "손"이 행위의 수단이 된다. 반면 (ㄱ‴)와 같이 "발"을 신는 동작 행위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문의 구조에 출현시켰을 경우 전체 문이 어색해짐을 관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우리는 손으로 신을 신지 발로는 신을 신지 않게 때문이다. 따라 본고에서는 "신다"와 같은 동작 행위 동사를 "발" 동작 동사 범주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내린 "발"동작 동사의 정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예(2)와 예(3)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통사론적으로, 단일문의 경우나 복합문의 상위문 또는 내포문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동작동사가 "발"의 피 수식 동작이 될 경우에만 "발" 동작 동사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한정한다.

정리하면 "발" 동작 동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인 "발"이 어떤 동작 완성의 수단이 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데 문의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동사는 반드시 [+발]자질을 갖는 성분이나 표현에 의해 수식이 가능해야 한다.

2.2. "발" 동작 동사 범위

본 연구에서 한·중 "발" 동작 동사 범위는 "발" 동작 동사 정의에 의해 한정될 것이다. 한국어 "발" 동작 동사는『표준국어대사전』을 추출자료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먼저, 자세히 찾기 방법으로 뜻풀이에 "발"이 포함된 동사들을 모두 추출하였다. 다음, 용례에 "발"이 포함된 동사들을 모두 추출하였다. "북한어", "옛말", "방언"은 선정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발" 동작 동사 정의에 의해 선정 작업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결과 한국어 "발" 동작 동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발" 동작 동사

각답-하다(脚踏--), 개다 03「2」, 개다리질-하다「1」, 거종-하다(擧踵--)「1」, 건너짚다「1」, 걷다 02[1], 걷다 02[2]「1」, 걷어-지르다 [1]「2」, 걷어-차다「1」, 걸어-가다, 걸어-오다 01, 겻-디디다, 격파-되다(擊破--「1」, 격파-하다(擊破--)「1」, 고격-하다(敲擊--), 곧-차다, 곱-디디다「1」「2」, 구르다 02「1」, 구르다 02「2」, 국희-하다(鞠戱--), 권렴-하다(捲簾--), 기다 01[1]「2」, 기무-하다 01(起舞--)「1」,까치걸음-하다「1」「2」「3」「4」, 꼰지-서다「2」, 꽈당-거리다, 꽈당꽈당-하다, 꿍꽝-거리다「3」, 꿍꽝-이다「3」, 꿍꽝-하다「3」, 꿍꽝꿍꽝-하다「3」, 꿰-신다, 납리-하다(納履--)「1」「2」, 나아-오다「1」, 나-오다[1]「1」, 내-디디다「1」, 내리-제기다「1」, 내리-지르다「2」, 내-지르다[2][3], 내-짚다「2」, 답가-하다(踏歌--), 답무-하다(踏舞--), 도드-밟다, 도약-하다 01(跳躍--)「1」, 도파-하다 02(蹈破--)「1」, 돈족-하다(頓足--), 동동-거리다 02≒동동대다 02, 동작-하다(動作--)「1」, 뒷걸음-하다「1」, 뒷걸음질-하다「1」,뒷발길질-하다「1」「2」, 뒷발질-하다「1」「2」, 드리블-하다(dribble--), 들고-차다, 들여-디디다「1」, 들이-치다 01「1」, 디디다「1」, 또각-거리다,또각또각-하다, 또박-거리다, 또박-이다, 또박또박-하다, 뚜벅-거리다, 뚜벅-이다, 뚜벅뚜벅-하다, 뛰다 0[1]「1,뛰다 02 [1]「1, 뛈-뛰다, 말버둥질-하다, 모두-뛰다, 모두뛈-하다, 물구나무-서다「1」, 물똥싸움-하다, 물장구질-하다, 물장구-치

다「1」, 뭇발길질-하다, 밀기내기하다(북한어), 박아-디디다, 박-차다 「1」, 발가늠-하다, 발놀림-하다「1」「2」, 발돋움-하다「1」, 발돋움질-하다「1」, **발랑-거리다「1」「2」, 발랑-대다=발랑-거리다「1」,** 발렴-하다(撥簾--), **발록-거리다02, 발록-대다02,** 발맘발맘-하다 「1」「2」, 발밀이-하다 , **발발-거리다02 =≒발발대다02.,** **발정-하다02(發程--),** 발질-하다=발길질하다, 발짐작-하다(-斟酌--), 발짓-하다, 발짝-거리다「1」=발짝-대다「1」, 발헤엄-하다, 밟다「4」「5」, 밟다「1」「3」, 버둥질-하다 「1」=발버둥질하다「1」.., 벋-대다「2」, 벋-디디다「1」「2」, **보보행진-하다(步步行進--), 비사치기-하다 , 비사-치다02,** 비종-하다 01(比踵--, , **빨빨-거리다,** 뻗-대다「2」, 뻗-디디다「1」「2」, 사붓-거리다, 사붓사붓-하다, 사뿐-거리다「1」,=사뿐사뿐-하다, 사뿟-거리다≒사뿟대다.사뿟사뿟-하다, 사푼-거리다「1」「2」=사푼사푼-하다,
사풋-거리다=사풋사풋-하다, 서다 01[1]「1」서붓-거리다≒서붓대다.서뿐-거리다 「1」「2≒서뿐대다「1」「2」=서뿐서뿐-하다 「1」「2, 서뿟-거리다=서뿟서뿟-하다, 서푼-거리다 「1」「2」=서푼서푼-하다 「1」「2」, 서풋-거리다=서풋서풋-하다, 수렴-하다02(垂簾--) 「1」, 신다, 실각-되다(失脚--)「1」, 실각-하다02(失脚--「1」, 실족-하다(失足--)「1」, 앏-거티다 『옛말』, 앙감질-하다≒침탁하다, 앞걸음-하다, 앞발질-하다「1」「2」, **벅신벅신-하다「1」, 빨랑-거리다,** 약진-되다(躍進--「1」, 약진-하다(躍進--)「1」, 엇-놀리다,엉금엉금-하다「1」, **엎드려-뻗치다,** 역계-하다(歷階--), 옮-기다, 외알제기-하다「1」「2」, **용첨-하다(聳瞻--), 운동-하다(運動--, 일어-나다, 일어-서다 ,** 자박-거리다=자박-이다, 자박-하다01, 자박자박-하다01,자작-거리다01[1]「1」「2」=자작자작-하다 01, 자칫-거리다≒자칫대다=자칫자칫-하다, 잔달음질-하다, 저벅-거리다=≒저벅대다.저벅-이다 , 저벅-하다, 저벅저벅-하다01, 저적-거리다「1」「2」=저적저적-하다, **전이-하다 03(轉移--),** 접**족-하다(接足--,** 제겨-디디다=지르-디디다 , 제기다01「2」, 제기다04「1」, 조르르-하다「3」, 족답-하다(足踏--「1」, 족도-하다(足蹈--, 족**불리지-하다(足不履地--),**종부돋움-하다「2」=발돋움하다「1」. 종종-거리다01≒종종대다01, 주르르-하다「3」, **줄넘기-하다「1」「2, 지르-신다,** 집다01=[1]「1」, 짜박-거리다 ≒짜박대다, 짜박-이다, 짜박하다, 짜박짜박하다, 쩌벅거리다, 쩌벅대다, 저벅이다, 쩌벅하다, 쩌벅쩌벅하다, 쪼르르하다「3」, 쫑쫑-거리다01, 쭈르르하다「3」, 차다02「1」「2, 차-올리다 , 착족-하다(着足--), **착용하다, 착용되다,** 천답-하다(踐踏--, **체조하다,** 초요-하다01(招搖--)「1」, 총총-거리다, 축답-하다(蹴踏--), 충충-거리다≒충충대다01, 치-지르다=「2」킥-하다(kick--)「1」「2,, 타닥-거리다[1「1」=타닥타닥하다, 타달-거리다 [1]「1」=타달대다[1]「1」=타달타달하다, 타발-거리다「1」=≒타발

대다「1」.터덕거리다[1]「1」=터덕터덕하다, 터덜거리다[1]「1」=터덜대다[1]「1」=터덜터덜하다, 투족-하다(投足--)「1」, 투지-하다 01(投止--)「1」, **하렴-하다(下簾--**, 허덕-거리다「2」=허덕이다「2」=허덕허덕하다「2」, 허우적-거리다「1」=허우적대다「1」.=허우적이다「1」, 헛걸음질-하다「1」「2, 헛-디디다, 헛발질-하다「1」,휘-젓다「4」

<표 1>과 같이 추출된 한국어 "발" 동작 동사들의 단어 형성 특징과 의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단어 기원적 특성상 대부분이 고유어로 된 표현임을 관찰할 수 있다. 주로 합성어와 파생어로 된 어휘들이 많은데 단어 형성 특징을 관찰하면 합성어로 표현된 "발" 동작 동사의 단어 형성 특징을 관찰하면 주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후행요소는 문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부분으로 주로 이동 동사임을 관찰할 수 있고, 선행요소는 후행요소의 행위를 실현하는 방식이나 수단을 드러내주는 역할로 결합되었다. 예로 "걸어가다"에서 후행요소 "가다"는 "발" 동작 동사의 정의에 의해 배제되는 이동동사이나, 선행요소로 "발" 동작 동사 정의에 부합되는 "걷다"가 수식 성분으로 결합되면서 합성어 "걸어가다"는 "발" 동작 동사로 판정된 경우이다. 파생어로 표현된 "발" 동작 동사가 상당수를 차지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주로 접미사 "-거리다"나 "-대다" 또는 "-하-"에 의해 파생된 의성의태어들이 "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휘화된 것들이다. 의성의태어로 표현된 것들은 대개 걷는 동작을 할 때 힘 조절의 강약 정도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데 언어로 어휘화되면 의미의 동질성과 변별성에 따라 분류된다.

단어 의미 특성상 의미의 동질성과 변별성에 따라 하위분류된다. 위 동사들의 사전적 의미해석을 관찰하면 크게는 인간의 "발"동작이냐, 동물의 "발"동작이냐에 따라 상위 분류될 수 있다. 또는 "발" 동작을 완성하는 기관이 발끝부분이냐, 발뒤축이냐, 발가락이냐, 발이냐에 따라 동작의 초점이 다르고, 언어로 표현되면 의미 변별성을 갖게 된다. 하위로 의미의 동질성과 변별성에 따라 "차다", "디디다", "서다", "걷다", "구르다", "뛰다" 등 기초동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각자의 낱말밭을 이룰 수도 있다. 이들 낱말밭은 또 의미 동질성에서 따라 "발" 동작 동사 낱말밭으로 묶인다. "발"이 각종 동작의 수단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발" 동작 수단의 다양성은 "발" 동작동사 간의 변별성을 결정한다. 이런 변별성은 하위 부류의 근거가 된다.

중국어 "발" 동작 동사는『现代汉语词典(第 7 版)』을 추출자료로 하였다. 중국어 "발" 동작 동사는 사전 해석을 위주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중국어 "발" 동작 동사는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어 "발" 동작 동사
趵, 奔①③, 奔跑, 奔走, 蹦, 蹦跳, 踹, 踹开　踔①, 趿踔, 跐, 蹴, 蹴鞠, 蹿①, 蹈, **蹬,** 踶, **踮,** 踮脚, 蹐, 踱, **跺,** 踱步, 跺脚, 践①, 践踏, 跨①②, 跨进, 跨越, 蹓, 蹓弯儿, 蹑, 蹑足, 跑, 跑步, 跂, 跷①②, 蹂, 蹂躏, 趿拉, 踏①, 践踏, 踏步, 踏足, 蹋①, 跆①, 跆藉, 蹚①, 踢, 跳①, 徒①, 跌, 跌足, 踅, 立①, 跃①, 跳跃, 飞跃, 跃进, 越①, 站①, 站立, 跕③, 踯, 踯躅, 蹢, 踬, 踵③, 仁, 走.

<표 2>와 같이 추출된 중국어 "발" 동작 동사들의 단어 형성 특징과 의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어 "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형태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단음절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부수(部首) "足"와 결합된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단음절 "발" 동작 동사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경우인데 단어 결합에서 의미 중심이 선행 요소에 있는지, 후행 요소에 있는지는 개별 "발" 동작 동사에 따라 다르다. "跳跃"는 선행 동작을 나타내는 "跳"와 후행 동작을 나타내는 "跃"와의 결합으로 형성된 경우인데 선행 요소와 후행요소는 의미 평형을 이루지만 동작의 선후 순서를 나타낸다. 반면 "践踏"는 선행 동작 "践"과 후행 동작 "踏"가 의미 평형을 이루지만 동작의 병렬을 나타낸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서 중국어 "발" 동작 동사는 한국어에 비해 형태적 특징에서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하다. 의미적 특징에서는 공통성과 변별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문의 구조에서 통사적 특징 간의 공통성과 변별성으로 표현될 것이다. 즉 용법 상의 차이로 정리될 것이다.

2.2. 한·중 "발" 동작동사 분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발" 동작 동사들의 용법을 대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의미 공통성과 변별성에 따라 한·중 "발" 동작 동사 의미 분류를 할 것이다. 의미 특성에 의해 분류된 것들은 문의 구조에서 통사적 특징에서도 그 공통성과 변별성이 표현된다. 통사적 변별성은 용법상의 차이로 귀결될 수 있다.

한·중 "발" 동작동사는 분류는 주로『표준국어대사전』과『现代汉语词典(第 7 版)』에 제시된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공통성과 변별성을 찾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 넓게는 인간의 "발" 동작이냐, 동물의 "발" 동작이냐에 따라 상위 분류될 수 있고, 좁게는 구체 동작의 정도, 동작의 방식 차이에 따라 분류된다. 주로 "걷다"류, "뛰다"류, "차다"류, "디디다"류, "서다"류, "구르다"류 등 기초동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각자의 낱말밭을 이룬다. "발"이 동작의 수단으로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발" 동작 수단의 다양성은 "발" 동작 동사 간의 공통성과 변별성을 결정한다. 이런 특성은 하위분류의 근거가 된다.

"발" 동작을 완성하는 부위가 "발"의 끝부분이냐, "발"의 뒤축이냐, "발"의 가락이냐에 따라 동작이 초점이 다르게 되는데 본고는 이에 초점을 두고 먼저 상위 분류할 것이다. 다음, 동작 특성에 따라 하위 분류를 할 것이다. 표로 정리하면 <3>과 같다.

<표 3> 한·중 "발" 동작 동사 의미 분류

상위 공통 자질	하위 분류	한국어	의미 특성	중국어	의미 특성
[+발]	"걷다"류	걷다 02[1]		走	
				踱	慢步
				蹐	小步
				趋①	快走
		거닐다		蹓	慢慢走；散步
				蹚①	
				徒①	步行
		앞걸음-하다,			
		옮기다 [1]「2」			
		초요-하다 01(招摇--)「1」			
	"뛰다"류	까치걸음-하다「1」		趵	
		뛰다 02[1]「1」		奔③	
		모두-뛰다			
		모두뜀-하다			
		앙감질하다			
		약진-하다(躍進--)「1」			
		잔달음질-하다			
		족도-하다(足蹈--			
	"솟다"류	도약-하다 01(跳躍--)「1」		蹦	
		뛰다 01[1]「1」		趵，踔①	

		뜀-뛰다		蹿 ①	
	"디디다"류	건너짚다「1」		跐①	
		밟다「4」「5」			
		겻-디디다,		蹴②	踏
		곱-디디다「1」		**蹬**	
		곱-디디다「2」			
		내-디디다「1」			
		들여-디디다「1」,			
		디디다「1」			
		박아-디디다			
		밟다「3」			
		벋-디디다「1」「2」,			
		뻗-디디다「1」「2			
		실각-되다(失脚--)「1」, 실각-하다 02(失脚--「1」, 실족-하다(失足--)「1」			
		제겨-디디다=지르-디디다			
		족답-하다(足踏--「1」			
		종부돋움-하다「2」=발돋움하다「1」			
		투족-하다(投足--)「1」			
		헛걸음질-하다「1」「2			
		헛-디디다			
	"서다"류	착족-하다(着足--)			
		투지-하다 01(投止--)「1」			
[뒷발꿈치]	"디디다"	내리-제기다「1」,		-	
		제겨-디디다=지르-디디다	발꿈 , 발앞		
		제기다 01「2」	발끝		
		제기다 04「1」			

[앞발바닥]	"걷다"류	까치걸음-하다「2」		踮	
	"디디다"류	발돋움-하다「1」		跐②, "跂", " 跷①②"	
		발돋움질-하다「1」			

3. 한•중 "발" 동작 동사 용법 대조 연구

한·중 "발" 동작 동사 용법은 주로 문의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발" 동작 동사의 통사·의미 특성에 근거하여 투사된 논항들 간의 관계에 의해 표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논항이 서술어에 대해 갖는 의미 역할도 다르게 표현될 것인데 이는 주로 의미역 구조로 표현된다. 따라 본고에서 용법은 하위범주와 격틀 구조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한·중 "발" 동작 동사 논항구조

3.1.1. "발" 동작 대상 동사

"발"을 동작의 수단으로 하는 한·중 "발" 동작 동사 낱말밭으로는 "걷다"류, "뛰다"류, "솟다"류, "디디다"류, "구르다"류 등이 있다.

"걷다"류에서 한국어에는 "걷다"가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로는 "走"가 있다. 이 밖에 "踱", "蹓", "蹮", "趋①", "蹬①", "徒①" 등도 "걷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점이라면 걷는 방식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더 표현한다.

4 ㄱ. 그는 빨리 걷는다.
ㄱ′. 他走得快。

예(ㄱ)과 (ㄱ′)는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을 보여준 것이다.

5 ㄱ. 踱步。
ㄱ′. 큰 걸음으로 느릿느릿 걷다.
ㄴ. 갔다 왔다 하다=서성거리다.
ㄴ′. 踱来踱去。
ㄷ. 살금살금 걷다/종종걸음치다

ㄷ′. 踱步=종종걸음

ㄹ. 거리를 거닐다.

ㄹ′. 蹓大街。

예(ㄱ)에서 "踱"는『现』에서는 "慢步行走"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慢步]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걷다"로 이를 표현하려면 문의 구조에 반드시 늦은 걸음을 나타내는 부사성분이 (ㄱ′)와 같이 추가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어에는 "한곳에 서 있지 않고 자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의성의태어 "서성거리다"가 있는데 (ㄴ′)와 같이 중국어로는 "踱来踱去"로 표현된다. "蹓"는 서면어로『现』에서는 "小步行走"라는 의미로 한국어에는 "종종거리다" 등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걸음거리가 조금 빠른 것으로 해석이 된다. (ㄹ)과 같이 한국어 "거닐다"는 "가까운 거리를 이리저리 한가로이 걷다."라는 의미로 중국어 "蹓"의 용법과 유사한데『现』에서는 "慢慢走；散步"라는 의미로 유사하게 쓰인다.

이처럼, 한국어 "걷다"는 중국어 "走"의 기본 용법 차이를 논항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발”동작 동사

한·중 동사 / 통사특징	“발”동작 동사		
	걷다	走	踱
하위범주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
격틀구조	NP1 VP	NP1 VP	NP1 NP2-으로/ 느릿 느릿 VP

3.1.2. "뒷발꿈치" 동작 대상 동사

"뒷발꿈치"가 동작의 대상이 되어 이루어지는 "발" 동작 동사들을 말한다. "발 뒤꿈치"를 동작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동사로는 디디는 행위를 나타내는 "제기다01「2」"가 있는데 "발끝으로 다니다"라는 의미로, 이밖에 "제겨디디다"가 있는데 "발끝이나 발뒤꿈치만으로 땅을 디디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찾지 못했다.

6 ㄱ. 순보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발을 앞으로 제겨디디며 조심하여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한편 구석에 섰다.

한국어“발뒷꿈치”동작 동사

한중 동사 / 통사특징	“뒷발꿈치”동작 동사		
	제기다01「2」	-	-
하위범주	자동사	-	-
격틀구조	NP1 VP	-	-

3.1.3. "앞발바닥" 동작 대상 동사

"앞발바닥"가 동작의 대상이 되어 이루어지는 "발" 동작 동사들을 말한다. "앞발바닥" 동작 동사는 주로 "걷다"류와 "디디다"류에서 개별동사로 표현된다. "앞발꿈치"로 걷는 행위를 나타내는 한국어 동사로는 "까치걸음하다「2」"가 있는데 "까치걸음하다「2」"는 " 발뒤꿈치를 들고 살살 걷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에 대응될 만한 중국어로는 "踮"이 있는데 "抬起脚后跟用脚尖站着"라는 의미로 쓰인다. "踮"은 "站着"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 걷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쪽 발을 깨금발을 하고 걷는 모양"을 강조하기도 한다.

"앞발바닥"으로 디디고 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한국어 동사로는 "발돋움하다"가 있다. " 발돋움하다「1」"는 “키를 돋우려고 발밑을 괴고 서거나 발끝만 디디고 서다. ≒종부돋움하다「2」.”라는 의미로 쓰인다. 중국어에는 "跐"와 "踮"이 있다. "跐②"는 주로 " (脚尖着地) 抬起脚后跟"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밖에도 중국어에는 "跂", "跷①②"가 있다.

7 ㄱ. 저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고 <u>발돋움하는</u> 꼴이 가관이다.

ㄴ. <u>跐</u>着脚往前看。

ㄷ. 他人矮, 得<u>踮</u>着脚才能看见。

예에서 보듯 한국어 “발돋움하다”는 문의 구조에서 자동사의 용법으로 쓰이지만 한국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중국어 “”와 “”는 문의 구조에서 목적어 논항 “”을 필수논항으로 가져야만 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 “앞발바닥” 동작을 나타내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용법 상의 차이를 보인다.

한·중“앞발바닥”동작 동사

한·중 동사 / 통사특징	“앞발바닥”동작 동사		
	까치걸음하다「2」	踮	跐
하위범주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격틀구조	NP1 VP	NP1 VP NP2	NP1 VP NP2(발)

		(발)	

4. 결론

본 연구는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사전을 참고자료로 하여 그 용법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해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용법은 개별동사들의 하위범주 특징과, 문의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발”동작 동사의 통사·의미특성에 따라 투사된 논항구조에, 논항들이 문의 구조에서 하는 역할을 표시해주는 격틀구조를 관찰하는 데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해볼 수 있었다.

“발” 동작 동사는 “발” 동작이냐, “앞발바닥” 동작이냐, “뒷발꿈치” 동작이냐에 따라 크게 분류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의미의 동질성과 변별성에 따라 묶인 개별 낱말밭 부류는 문의 구조에서 용법 상의 다양한 특징으로 표현됨을 간략히 관찰해 보았다.

한중 이중목적어문 구문유형과 의미표현 대비

최지화

(통화사범대학교)

1. 서론

한 문장에 목적어가 한 개 있는것이 보통이지만, 목적어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오다가 시장에 들러서 사과를 두 상자를 배달해 달라고 했다.”, “小宋赢了我一盘棋。”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이러한 이중목적어 구문이 모두 있다. 한국어 이중목적어에 대해 양재석(1987 년)、성광수(1974 년)、Shibatani(1976 년)、김영희(1986 년)와 김경학(1984 년)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해서는 陈建民 (1986 년) 、马庆株 (2005 년) 、박춘범 (1988 년) 에서 많이 연구 되었으나 한중 이중목적어 구문을 대비분석한 것은 아직 별로 없다. 본 고에서는 연구 범위를 한중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제한하고 한중 이중목적어 구문의 의미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나타나는 의미표현을 분석하여 그들의 공동점과 부동한 점을 밝히고자 한다.

2. 한국어 이중목적어문 구문

2.1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정의

한국어에는 한 문장에 목적어가 한 개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목적어가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 문장에 목적어 하나 이상 나타나는 것을 이중목적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1) 그가 활을 쏘아 과녁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2) 왜 지나가는 사람을 팔을 건드리느냐?

(3) 아저씨는 시계를 회중시계를 사셨다.

(4) 오다가 시장에 들러서 사과를 두 상자를 배달해 달라고 했다.

목적어가 하나 이상 나타날 때는 두 번째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의 한 부분이거나, 그것의 한 종류, 또는 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일 때가 보통이다.[1] (1), (2)에서는 ‘한가운데,

[1] 서정주 《국어문법》,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2006。

팔'이 각각 '과녁, 사람'의 한 부분이며, (3)의 '회중시계'는 '시계'의 한 종류이고, (4)의 '두 상자'는 사과의 수량이다. 그런데 (4)에서처럼 목적어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목적어로 나타날 때에는 두 목적어 조사 중의 하나가 생략될 수 있다.

예: (5) 그가 사과 두 상자를 보냈다.

그가 사과를 두 상자 보냈다.

2.2 한국어 이중목적어문 구문의 유형

본 절에서는 이중목적어 유형을 양정석(1987)의 겹목적격 문장 분석을 기준으로 삼는데 아래와 같은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주어+ 목적어+ 동안의 부가어+ 동사>

예: (7) 낚시군이 고기를 세시간을 잡고 있다.

이 유형은 {를}이 두번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일종의 이중목적어 문장으로 여겨지나, 첫째 것만이 목적어로 인정되고 둘째 것은 '동안(기간)'을 나타내어 서술 동사를 보조하는 구실을 한다고 본다. 곧 이 경우의 '세 시간"은 후행 동사의 지속됨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런 구문은 다음과 같은데서도 볼 수 있다.

예: (8) 손님이 문을 세번을 두드렸다.

(8)에서의 "세 번을"은 뒤 동작이 반복성이 됨을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고 본다.

2)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기능 동사>

예: (9) 찬수가 수학을 공부를 한다.

(10) 경애가 여류 비행사를 꿈을 꾸었다.

예문(9), (10)로 대표되는 이 유형은 우선 첫째 {를}명사구가 목적어의 구실을 하고 둘째 것은 목적어가 아닌 서술적 보어 기능을 한다고 본다.

3) <주어+ 목적어+ 목적어 한정의 부가어+ 동사>

예:(11) 경애가 찬수를 등을 후려갈렸다.

(12) 찬수가 고기를 열 마리를 잡았다.

이 유형은 (11), (12)와 같은 문장으로 대표되는데 첫째{를} 명사구가 목적어이고 둘째 것은 이 목적어를 한정하는 부가어라고 하였다. 둘째{를} 명사구인 "등"이나 "열 마리"가 첫째{를}명사구인 목적어를 한정하는 부가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이는 둘째 명사구 그 자체는 목적어가 되지 못하고 다만 앞의 목적어를 수식 한정하는 구실을 한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은 "찬수"의 어느 부분임을 명시하여 한정하고, "열 마리"는 "고기"를 수량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4) <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

예:(13)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주었다.

이 유형은 곧 예문(13)과 같은 이중목적어 문장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문장의 둘째 명사구 “아이에게”의 “에게”가 “를”로 바뀐 것이라 본다.
곧 본시 “에게”가 될 자리에 “를”이 쓰인 경우라는 것이다. 이 유형의 이중목적어 현상은 “주다”라는 동사의 고유 특성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본다. 이 동사는 세자리의 논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젖을”의 경우는 “주다”라는 타동사로 인한 것이고, “아이를”의 경우는 “주다”와 “아이”와의 관계 기능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에게”임이 정상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유형의 이중목적어 현상은 단순히 “에게”와 “를”의 임의 교체 현상에서 빚어진 것으로 본다.

3. 중국어 이중목적어문 구문

3.1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정의

이중목적어 구문은 중국어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문법형식으로, 고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의 문법 논저에서 많이 다루었다. 하지만 이중목적어 구문은 통사적 분석이 비교적 힘든 문형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내부적인 분류나 문장 구조의 층차분석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지 않다. 이처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연구자들이 단지 이중목적어의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여 연구하거나, 혹은 이중목적어 구조의 의미관계에만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중목적어 구문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의 형식관계와 의미관계를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이중목적어 구문은 형식적으로 보면, 한 개의 동사가 동시에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진 구조로서, 두 개의 목적어 사이에는 서로 직접적인 통사적 구조관계를 갖지 않는다. 또한 의미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법구조를 가진 동사는 반드시 세 가지 측면에서 사물 혹은 사람을 언급해야 한다.[2]
3.2 중국어 이중목적어문 구문의 유형
1) < 주어+ V+ NP1+ NP2>
(1) V는 “주다”의 뜻을 표시한다. NP1은 동작에 의하여 취득된다는 뜻이다 . 예를 들면 “他送我一支钢笔。” 에서 “주다”의 뜻을 표시하는 동사에는 “给、递、让、还、赔、赏、托、退、奖、教、管、短、欠、该” 등이 있다. 이런 동사는 “我管你饭”의 “管”하고 “他欠你多少钱”의 “欠”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给”를 붙일 수 있다. “递给、让给、还给、奖给…”로 말할 수 있다. 단음절 단어에 “给”를 붙인 후 결합은 여전히 긴밀하고 어간에는 한 단어와 같다.

[2] 박춘범《현대한어실용문법》, 연변인민출판, 1988。

예: (1) 我们递给他一根香烟。

(2) 工会奖给食堂一面红旗。

(3) 校领导交给课题组一项任务。

2 음절 동사 뒤에 있는"给"는 탈락될 수 있다.

예: (4) 福利委员会补助李晓燕一件棉衣。

(5) 单位发还他两个月工资。

(2) V 는 "취득"의 뜻을 표시하고 NP1 은 동작에 의하여 불리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동사 뒤에는 "给"를 절대 붙이지 못한다.

예: (6) 我费了您好多时间。

(7) 小宋赢了我一盘棋。

(8) 妈妈打小玲一巴掌。

이런 동사에는 "骗、偷、抢、讹、唾、抹、耽误、请教"등이 있다.

(3) V 는 "주다"의 뜻을 표시할 수도 있고 "취득"의 뜻을 표시할 수도 있다. 즉 따로 a 와 b 로 구성한다. "주다"의 뜻을 표시할 때 뒤에는 반드시 "给"를 붙여야 된다.

a. (9) 我借给他两本书

(10) 我拿给他一包糖

(11) 我租给老王一间房子

b. (12) 我借 (借入) 他两本书

(13) 我拿他一包糖

(14) 我租老王一间房子

a 에서 V 는 "주다"의 뜻을 표시하고 NP1 은 (사람을 가리키는 목적어)동작에 의하여 "취득"의 뜻으로 된다. b 에서 V 는 "취득"의 뜻으로 표시되고 NP1 은 동작에 의하여 불리를 당하게 된다.

(4) V 는 동작의 착락점(着落点)을 표시한다. "V"는 "V 在"의 탈락형식이다. NP1 은 장소목적어이고 NP2 는 수량사를 가지는 수사목적어이다.

예: (15) 我放桌上一本书。

(16) 姐姐存银行一笔钱。

(17) 那个人扔河里一个石头。

2) <주어+ V+ NP1+ VP/S>

어떤 동사는 예를 들면 "问、告诉、通知、请教"등은 단독적으로 명사목적어 NP 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중목적어 "NP+ VP/S"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VP/S 는 사물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V 什么"로 질문할 수 있다.

예: (18) 你问我他什么时候回来。 (问我什么事)

(19) 老王告诉你他明天去上海。(告诉你什么消息)

(20) 我请教主任这个问题该如何解决。(请教主任什么)

3) <주어+ V+ NP1+ NP/VP>

여기에서 NP1 은 "他 (它) "를 허지 (虚指) 한다.

예: (21) 我买他两斤猪肉。

(22) 这两天赶紧写他一篇文章。

(23) 明天你上它半天班。

(24) 你骂它一个痛快。

(25) 小明今天玩它一个够。

여기에서 "他 (它) "는 모두 허무소지 (虚无所指) 이다. "我买他两斤猪肉"는 "我买他的两斤猪肉" 가 아니고 "我买两斤猪肉"의 중간에 "他"를 삽입한 것이다.

4. 한중 이중목적어문 구문유형 대비

4.1 중국어 <주어+ V+ NP1+ NP2> 구문유형과 한국어<주어+ 목적어+ 목적어+ 동사>구문유형

예: (1)我给他钱。--- 나는 그에게(를) 돈을 주었다.

"주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 한국어나 중국어의 구문은 모두 이중목적어 구문이다. 동사는 "주다"의 뜻을 표시하는 동사인데 중국어에 이런 형식이 더 많다.

4.2 한국어 <주어+ 목적어+ 동안의 부가어+ 동사>의 구문유형이 중국어에서의 표현형식

예: (2) 손님이 문을 세번을 두드렸다. --- 客人敲了三次门。

(3) 낚시꾼이 고기를 세 시간을 잡고 있다.--- 钓鱼者钓了三小时鱼。

이런 경우에 한국어는 이중목적어 구문이지만 중국어는 이중목적어 구문이 아니다. 즉 수량단어결합은 문장의 상황어로 된다. 주어의 동작의 주파수나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다.

4.3 한국어 <주어+ 목적어+ 목적어 한정의 부가어+ 동사>의 구문유형이 중국어에서의 표현형식

예: (4) 빌리가 고기를 열 마리를 잡았다.--- 比利抓了十条鱼。

(5) 그는 달걀을 한 근을 샀다.--- 他买了一斤鸡蛋。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될 수 없다. 한국어에서의 목적어 한정의 부가어는 중국어에서 규정어로 되는데 "鱼" 와 "鸡蛋" 을 수식한다.

4.4 한국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기능 동사>의 구문유형이 중국어에서의 표현형식

예: (6) 빌리가 디스코를 춤추었다.--- 比利跳了迪斯科。

(7)빌리는 영어를 공부를 한다.---比利学习英语。

이런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이 아

니고 목적어 구문이다. 중국어에서의 서술어는 다시는 세분할 수 없다.

4.5 중국어 <주어+V+NP1+NP2>의 구문유형이 한국어에서의 표현형식

(1) V 가 “주다”의 뜻을 표시한다면 두 언어에서 모두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의 뜻을 표시할 때에는 한국어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8) 我借 (借入) 他两本书.---저는 그에게서 책 두 권을 빌려왔다.

4.6 중국어 <주어+V+NP1+NP/VP>의 구문유형이 한국어에서의 표현형식

이럴 때 중국어에는 부가(附加) 허지성분 (虚指成分) 이 있어서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되지 않는다.

예: (9) 我买他两斤猪肉。--- 나는 돼지고기 두 근을 사겠다.

5. 한중 이중목적어문 구문의 의미표현 대비

5.1 중국어 이중목적어문의 의미표현

현대중국어에서 이중목적어에 대한 분석은 의미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사 본체는 이중목적어를 가질 수 있거나 없는 성질을 홀시하게 된다.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1)“주다”의 뜻을 표시한다.

예: (1) 这次省里又奖了她三万元。

(2) 告诉你一件好事。

“주다”의 뜻을 표시하는 동사(대부분 중국어문법책에서는 “予义”를 부른다.)는 : “给、送、教、许、输、交、还、赔、赏、通知、警告”등이 있다. 이런 동사들은 다 이중목적어 결구로 될 수 있다.

“취득”의 뜻을 표시한다.

<현대한어구법분석>에 의하면 중국어에서 “취득”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동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拿、取、赚、骗、占、抢、偷、赢、罚、收” 등 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赢”만 이중목적어 결구로 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인 술빈 (述宾) 구로 된다. (吴竟存&侯学超 1982)

예: (3) 中国队赢了日本队两个球。

3) “주다”와 “취득” 의 뜻을 다 표시한다.

이런 동사는 “취득”의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다”의 뜻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동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借、捐、租、欠、差、缺、问” 등 이다.

예: (4) 借图书馆三本书。

(5) 差我一本书。(吴竟存&侯学超 1982)

예(4)는 두 가지 이해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 다른 하나는

“도서관에 책을 빌려준다” 이다. 두번째의 뜻을 이해할 때만 이중목적어 구문이다. 예(5)도 마찬가지다.

4) 교류, 교담을 표시한다.

예: (6) 我正要请教你几个问题呢。

(7) 询问他一件事儿。(吴竟存&侯学超 1982)

이런 동사는 중국어에 많지 않다.

5)표칭 이중목적어 구문

(1) 표칭 이중목적어 구문의 특점은 O1 와 O2 는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S 눈에 “O1 은 O2 이다”의 뜻을 표시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1 被 V 为 O2”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8)人家称他呆霸王 他是呆霸王 他被称为呆霸王

(9)夸他好孩子 他是好孩子 他被夸为好孩子

(10)骂他坏蛋 他是坏蛋 他被骂作坏蛋

O1 은 표칭대상목적어이고 O2 는 표칭목적어이다.

자주 보는 표칭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选、封、定、安排、称、称呼、认、评、算、污蔑、叫、喊、说、骂、夸、以、为、当”

(2) 이런 구조에는 O2 앞에 어느 때 “为”“作"当"是”등 자를 붙일 수 있다.

예: (11)称他 (为/作/是) 呆霸王 (12)夸他 (为/是) 好孩子

이런 단어를 붙이면 구문 성질이 변하는데 이때는 이중목적어 구문이 아니다.

(3) 표칭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O2 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때에는 수량사 기능도 담당할수 있다.

예: (13) 可以算我一个, 别把我调开呀！

O2 는 때로는 “个”란 용언성 성분을 붙일 수 있다.

예: (14) 算你个好手。

(15) 骂他个糊涂。

6)결과 이중목적어 구문

결과 이중목적어 구문에서는 O1 은 수사객체를 표시하고 O2 는 동작결과의 목적어를 표시한다. O2 는 “수. 량(명)” 결구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구조의 뜻은 대개 “V 的 结果使 O1 成了/起了 O2 로 표현할 수 있다.

예: (16) 开水烫了他好几个泡,, 烫的结果使他起了好几个泡。

(17) 雨水浇了他个落汤鸡, 浇的结果使他成了个落汤鸡。

7) 원인, 시기, 교환 이중목적어 구문

(1) 원인 이중목적어 구문

이런 격식의 O1 은 수사객체를 표시하는데 대부분은 인칭대사이고 O2 는 원인을 표시한

다.

예: (18) 喜欢那个人大眼睛, 因为大眼睛而喜欢那个人。

(19) 可怜他一只眼, 因为一只眼而可怜他。

(2) 시기 이중목적어 구문

O1 은 대부분 인칭대사이고 O2 는 "个"는 용어성 성분을 붙여서 시기를 표시한다.

예: (20) 吃它个脆。

(21) 考你个没准备。

(3) 교환 이중목적어 구문

예: (22) (这些杂志我可以) 换它两本书 。

사동 이중목적어 구문

사동 이중목적어 격식에서 O1 은 사동목적어이고 "使、叫、让"를 그의 앞에 놓일 수 있다.

예: (23) 急了我一身汗, (使) 我急了一身汗。

(24) 出了我一次丑, (让) 我出了一次丑。

5.2 한국어의 이중목적어문의 의미표현

"주다"의 뜻을 표현한다.

예: (25) 나는 빌리에게 책을 줬다.

"취득"의 뜻을 표시한다.

예: (26) 중국팀은 일본팀을 두 꼴을 이겼다.

교류, 교담을 표시한다.

예: (27) 그를 한국어를 물었다.

소속관계를 표시한다.

예: (28) 영자가 남편을(의) 코를 깨물었다.

결과를 표시한다.

예: (29) 기완은 영자를 아내를 삼았다.

(30) 그는 포도를 술을 만들었다.

부분, 종류를 표시한다.

예: (31) 그가 활을 쏘아 과녁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32) 아저씨는 시계를 회중시계를 사셨다.

수량을 표시한다.

예: (33) 오다가 시장에 들러서 사과를 두 상자를 배달해 달라고 했다.

5.3 한중 이중목적어문 구문의 의미표현 대비

한국어와 중국어는 이중목적어 구문의 의미표현에서 모두 “주다”의 뜻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34) 나는 빌리에게 책을 줬다. (35) 我给妹妹礼物; “취득”의 뜻, 예를 들면 (36) 중국팀은 일본팀을 두 꼴을 이겼다. (37)小偷偷了他一百元; 교류, 교담의 뜻, 예를 들면 (38) 询问他一件事儿。(39) 그를 문제를 물었다; 결과를 표시하는 뜻, 예를 들면 (40) 雨水浇了他个落汤鸡. (41) 그는 포도를 술을 만들었다.의 뜻이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표칭, 예를 들면 (42)人家称他呆霸王; 원인, 시기, 교환, 예를 들면 (43) 可怜他一只眼 (44) 吃它个脆 (45) 换它一块钱; 사동, 예를 들면 (46) 吓了我一大跳의 의미표현이 있다. 한국어에는 중국어에 없는 소속관계, 예를 들면 (47) 철수가 책상의 다리를 고쳤다; 부분과 종류, 예를 들면 (48) 아저씨는 시계를 회중시계를 사셨다; 수량, 예를 들면 (49) 그는 옷을 한 벌을 사왔다.의 이중목적어 의미표현이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한중 두 언어에 있는 이중목적어 구문과 의미표현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귀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다”의 뜻을 나타날 때에 한국어에서나 중국어에서 모두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된다. 동사는 주로 “주다”의 뜻을 표시하는 동사이고 중국어에는 이런 구문로 될 수 있는 형식이 한국어에 보다 더 많다.

2. 한국어 <주어+ 목적어+ 동안의 부가어+ 동사> 구문, <주어+ 목적어+ 목적어한정의 부가어+ 동사> 구문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기능 동사> 구문은 중국어에 대응되는 것이 없다.

3. 중국어 <주어+ V+ NP1+ NP2> 구문, <주어+ V+ NP1+ NP/VP> 구문은 한국어에 대응되는 구문이 없다.

4. 한국어와 중국어에 다 있는 이중목적어 구문의 의미표현에는 모두 “주다”, “취득”, “교류, 교담”, “결과” 등의 뜻이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표칭과 원인, 시기, 교환, 사동의 이중목적어 의미표현이 있다. 한국어에는 중국어에 없는 소속관계, 부분과 종류, 수량을 표시하는 이중목적어 의미표현이 있다.

<참고문헌>

[1]. 《새국어사전》, 이기문, 듁산동아, 1999.11

[2]. 《中韩词典》, 康实镇, 南德铉, 李相度, 张皓得,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1997.12

[3]. 《현대한어실용문법》, 박춘범, 연변인민출판, 1988.3

[4]. 《표준국어문법론》,남기심.고영근, 탑출판사, 1998.1

[5]. 《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马庆株, 北京大学出版社, 2005.1

[6]. 《汉语语法学》, 邢福义, 东北师范大学出版社, 1996.11

[7]. 《现代汉语句型论》, 陈建民, 语文出版社, 1986.11

[8]. 《국어문법》, 서정수,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2006.2

[9]. 《국어의 이중주어 및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고찰》, 김경학 , 1982.10

[10]. 《汉英双宾语句的类型差异》, 曾莉, 2008.11

인적사항:

이름:최지화

소속:통화사범대학교

주소:길림성 통화시 동창구

우편번호:134000

전화:15904350129

전자우편:45464874@qq.com

중•한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

闫超
(湖南师范大学外国语学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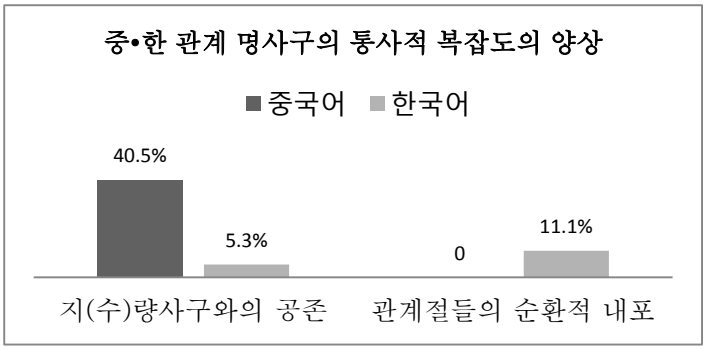
1. 들어가기

관계 명사구는 관계절을 가지고 있는 명사구를 가리킨다. 본고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를 간단•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어 관계 명사구가 겹침형이고 한국어 관계 명사구가 내포형임을 증명하고 양자가 언어 처리에서의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2. 중•한 관계 명사구의 복잡도 유형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를 따져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서로 다른 수식 성분으로 이루어진 겹침형이고(stacking)(Dik,1997:32-38;Rijkhoff, 2002) 다른 하나는 관계절을 비롯한 여러 관형절로 이루어진 내포형이다(recursing)(Ross,1967;Givón, 2001:211-219). 겹침형의 경우에는 관계 명사구에서 핵심명사를 수식하는 성분은 관계절 이외에 지시사, 수사, 량사(분류사)와 같은 성분들이 또 있으며 문법적 범주가 서로 다른 수식 성분들이 겹치는 것은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내포형의 경우에는 관계절이나 관형절의 핵심명사는 주절이 아닌 다른 관계절에서의 논항이 되며 관계절들의 이러한 순환적 내포는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화를 일으킬 수 있다.

중•한 관계 명사구는 통사적 복잡도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 중국어는 겹침형이고 한국어는 내포형이다.



<표 1>

실제적 텍스트에 대한 조사 결과, 즉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에 대해서는 중국어와 한국어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는 관계절이 지량사구나 수량사구와의 공존으로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한국어는 관계절들의 순환적 내포로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1a) 这个失声惊叫的男人就是宋钢的父亲宋凡平。(余华, 兄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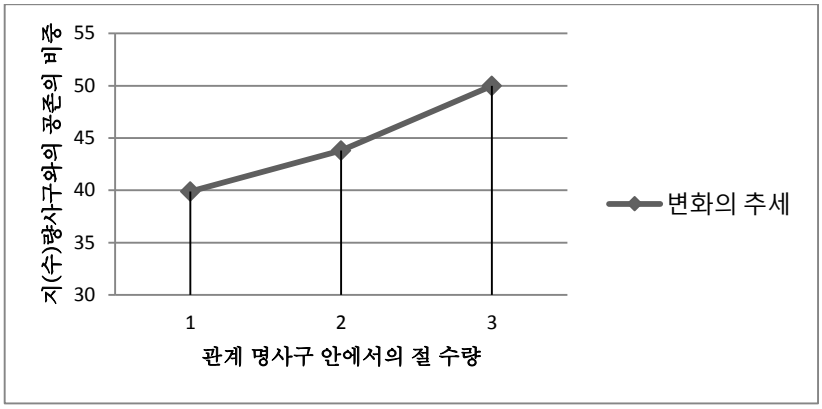
(1b) 失声惊叫的男人就是宋钢的父亲宋凡平。

(2a) 언젠가 엄마를 따라 들어간 극장에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어른거리기도 했다. (천명관, 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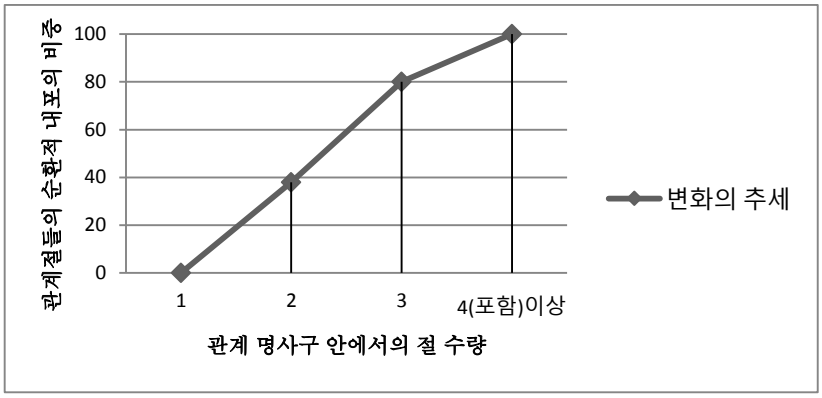
(2b) 극장에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어른거리기도 했다. (천명관, 고래)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예문 (1a)과 (2a)의 관계 명사구가 (1b)과 (2b)의 관계 명사구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는 관계절 '失声惊叫'과 지량사구 '这个'가 겹침으로써 수식 성분의 다양화를 이뤄 관계 명사구의 내적 복잡도를 높이게 한다. 한국어는 관계절 '언젠가 엄마를 따라 들어간'을 관계절 '극장에서 보았던'에 삽입시킴으로써 관계절들의 순환적인 내포를 이뤄 관계 명사구의 내적 복잡도를 높이게 한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 두 가지 복잡도 유형은 관계 명사구 안에서의 절의 수량과 정비례를 이룬다.



<표 2>



<표 3>

중국어의 경우에는 명사구 안에서의 절 수량이 각 하나, 둘, 셋일 때 관계절이 지(수)량사구와 같이 나타나는 비중이 각 39.9%, 43.8%, 50%이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구 안에서의 절 수량이 각 하나, 둘, 셋, 넷일 때 관계절이 순환적 내포로 나타나는 비중이 각 0, 37.9%, 80%, 100%이다. 정비례를 나타내는 이런 변화 추세는 중·한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와 겹침/내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 관계 명사구가 포함하는 절이 많을 수록 관계절과 지(수)량수가 겹치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며 한국어 관계 명사구가 포함하는 절이 많을 수록 관계절들 자체가 순환적으로 내포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3. 중국어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화의 동기

중국어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화는 언어 처리상의 간이를 위해서이다. 언어 처리의 효율을 고려하면 Hawkins(1994:57)는 '직접 성분의 빠른 확인 (Early Immediate

Constituents)’ 원칙을 제안했다. 즉, 문장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주성분들을 되도록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수)량사구가 관계절과 같이 나타날 때 관계절의 밭쪽에(좌측) 자리잡는 것은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순 경향성이다. 본고가 수집하는 데이터에 의하면 지(수)량사구와 관계절이 공존하는 문장들에서는 지(수)량사구가 관계절의 밭쪽 자리에 위치하는 어순은 85.7%이 되지만 지(수)량사구가 관계절의 내쪽(우측) 자리에 위치하는 어순은 14.3% 밖에 안 된다[1].

지(수)량사구가 관계절의 밭쪽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직접 성분을 되도록 빨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수)량사구를 미리 보면 그 뒤에 바로 나타나는 용언적 성분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이 문법단위가 관계절을 포함하는 명사구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王力(1980/2008:54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주 긴 수식어 앞에 ‘一个, 一种’과 같은 수량사가 놓인다는 것은 이어서 나타나는 성분이 명사적 단위인 것을 앞당겨 명시함으로써 언어의 명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3a) 戴帽翅、后脑勺垂一根辫子 // 的小个子男人蹦起来说, …

(3b) 一个 // 戴帽翅、后脑勺垂一根辫子的小个子男人蹦起来说, …(冯骥才,三寸金莲)

(4a) 祖宗耕种过二百年、父亲耕种过二十年 // 的土地, 已经分给了地主吴家的后人。

(4b) 那块 // 祖宗耕种过二百年、父亲耕种过二十年 // 的土地, 已经分给了地主吴家的后人。(周同宾, 土地梦)

이상 예문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관계절 외측에 자리잡는 지(수)량사구는 언어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량사구가 없는 예문 (3a)를 읽으면 구조 조사 (结构助词) ‘的’가 나타날 때까지 앞에서 이미 처리한 부분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독립된 문장이 의존적인 수식어로 바뀌는 재처리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예문 (3b)에서는 수량사 ‘一个’가 제일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 성분의 명사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구체적인 핵심명사가 기대된다. 예문 (4a)와 (4b)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지량사구 ‘那块’의 첨가 여부는 언어 처리의 효율에 직접적으로 양향을 끼친다. ‘那块’가 먼저 나오면 언어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 이는 한국어의 경우와 정반대이다. 수량사구가 명사구 밖에위치하는 경우(즉, 수량사구가 핵심명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어 관계 명사구 내부에서는 지(수)량사구가 관계절의 밭쪽 자리에 위치하는 어순은 20% 밖에 안 되지만 지(수)량사구가 관계절의 내쪽 자리 위치하는 어순은 80%에 달한다.

그리고 문법화의 입장에서 보면 관계절의 밭자리에 위치하는 지(수)량사구는 명사구 표지 쪽으로 문법화되는 경향이 있다(陈玉洁, 2010:282). 다시 말하면, 관계절의 밭자리에 위치하는 지(수)량사구는 단순한 문장성분이 아닌 문법적 기능소로 문법화되고 복잡 명사구의 명사성 확인을 뒷받침한다. 관계 명사구의 순차적 순서를 따져 보면 지(수)량사구는 명사성 표지로써 맨 앞에 위치하고 핵심명사는 맨 끝에 위치하며 관계절은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 따라서 관계절이 지(수)량사구와 핵심명사에 묶임으로써 중국어 관계 명사구가 하나의 전체로서의 통합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4. 한국어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화의 동기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화는 언어 처리상의 간이를 위해서이다.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핵심 인근 원칙(The Priciple of Head Proximity)' (Dik, 1997: 402)에 의하면 문장에서의 각 성분 핵심들이 가능한 한 서로 가까이 가야 하는데 관계절로 인하여 인근이 안 되는 경우 적당한 통사적 조절을 하여 그들 학심 사이의 거리를 줄이게 하는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a) **그 사람은** 일부러 마음먹고 나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나 일부러 찾아갈 마음을 굳이 먹을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산꼭대기를 **마음먹고 찾아갔다**. 그 사람은 외국계 회사에서 10 년째 일하고 있는 마흔여덟 살의 강상호였다.

예문 (5a)에서는 밑줄 그은 긴 관계절로 인하여 문장 주성분의 핵심인 '그 사람'(주어)과 '마음먹고 찾아갔다'(서술부=종속절+주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언어 처리의 편리를 위하여 그 핵심들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조정될 수 있다.

(5b) 일부러 마음먹고 나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나 일부러 찾아갈 마음을 굳이 먹을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산꼭대기를] [그 사람은] [마음먹고 찾아갔다]**. 그 사람은 외국계 회사에서 10 년째 일하고 있는 마흔여덟 살의 강상호였다.

목적어 핵심 '산꼭대기', 주어 핵심 '사람'과 서술어 핵심 '마음먹고 찾아갔다'가 서로

가까워짐으로서 언어 처리는 쉬워진다. 그런데 텍스트가 벌어지면서 화제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된다. 이는 아래와 같이 논항 생략으로 조정될 수 있다.

(5c) 일부러 마음먹고 나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나 일부러 찾아갈 마음을 굳이 먹을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산꼭대기를 그 사람은 마음먹고 찾아갔다. ø 외국계 회사에서 10 년째 일하고 있는 마흔여덟 살의 강상호였다.

논항의 비실현이 비교적 자유로움이 한국어의 특성이기 때문에(남기심, 고영근 2003: 408) 예문 (5c)에서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인 '그 사람'이 생략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필요 없는 화제(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처리 방식이 아니다. 같은 화제를 가지고 있는 서술부들이 아직도 서로 독립된 두 문장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핵심 인근 원칙을 고려하는 동시에 보다 더 적은 언어 단위로 같은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관계절의 순환적 내표를 이용해야 한다.

(5d) 일부러 마음먹고 나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나 일부러 찾아갈 마음을 굳이 먹을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산꼭대기**를 마음먹고 찾아간 **사람**은 외국계 회사에서 10 년째 일하고 있는 마흔여덟 살의 강상호였다. (이승우, 지상의 노래)

예문 (5d)는 소설 원문이 취한 표현 방식이다. 목적어 관계문이 주어 관계문에 삽입됨으로써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서로 가까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화제를 가지고 있는 서술부들을 치밀하게 하나의 문장에 조직하여 언어 처리의 효율을 높였다.

그리고 한국어는 관계절들의 순환적 내포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적 수단이 있다. 관계절이 전치(前置)하는 한국어는 관계절 둘 이상이 순환적 내포로 나타나면 아주 복잡한 명사구에서 핵심명사 둘 이상이 차례대로 보이게 된다. 인지의 혼란을 피하는 목적으로 그들 핵심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택스트에서의 화제성이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것이 주된 화제인지 어느 것이 부차적인 화제인지를 똑똑히 표시하는 것이다.

한국어는 발달한 조사 체계를 이용해서 화제성의 강약을 겉으로(형태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데 '은/는'은 강한 화제성을, '이/가, 을/를, 에서, 로'는 보다 약한 화제성을 각 나

타낸다(임홍빈, 2007). 그러니까 복잡 명사구의 선형 문단에서 '은/는'이 아닌 형태적 수단으로 표시된 핵심명사가 먼저 나오면 그것이 주요 화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복잡 명사구가 벌어지면서 강한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화제가 기대된다. 이처럼 다른 화제성을 표시하는 조사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핵심명사들이 선형 문단에서 사람 인지에 미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문 (5d)의 순환적 내포 표현에서는 문단이 선형적으로 벌어지면서 핵심명사 '산꼭대기'가 제일 먼저 나왔지만 조사 '를'로 약한 화제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은'으로 표시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산꼭대기'보다 더 강한 화제성을 가지는 화제가 기대된다. 이처럼 조사 '를'과 '은'은 복잡 관계명사구 중의 두 핵심명사가 나타내는 다른 화제성을 명시함으로써 독자가 언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관계절들의 순환 내포로 통사적 복잡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사로 핵심명사들의 화제성의 강약을 명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어 관계 명사구가 하나로서의 전체성을 낮추게 된다. 내포가 많을 수록 관계 명사구에서 다른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핵심명사가 많아질 것이다. 관계절이 지(수)량사구와 핵심명사에 묶인다는 중국어 관계 명사구와 달리 한국어는 화세성 정도를 명시하는 조사로 관계 명사구를 분할하는 것이다. 이래서 한국어의 관계 명사구는 복잡할 수록 한 명사구로서의 내부 구조가 더 느슨해질 것이다.

5. 마무리

통사적 복잡도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어 관계 명사구는 겹침형이고 한국어 관계 명사구는 내포형이다.

겹침형인 중국어는 관계절과 다른 수식 성분(지량사구/수량사구)의 중첩으로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를 높인다는 경향이 있다. 통사상의 복잡은 언어 처리상의 간이를 위해서이다. 관계절 앞에 위치하는 지량사구나 수량사구가 명사구를 식별해 주는 기능 요소 쪽으로 문법화됨으로써 핵심명사가 관계절에서의 연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계 명사구가 하나로서의 전체성을 높이게 한다.

내포형인 한국어는 다른 수식 성분과의 중첩이 아닌 관계절들 자체의 내포로 관계 명사구의 통사적 복잡도를 높인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관계 명사구가 통사상의 복잡은 언어 처리상의 간이를 위해서이다. 관계절들 사이의 내포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같은 문장 주성분들을 서로 가까이 하게 함으로써 언어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관계 명사구가 하나로서의 전체성 낮추게 한다.

<참고문헌>

Dik, Simon C.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2&part2)* [M]. Berlin: Mouton de Gruyter, 1997.

Givón, Tamly. *Syntax: An intruduction (Vol.2)* [M].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1.

Hawkins, J. A. *A performance theory of order and constituency* [M].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Ross, John Robert.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 MIT, 1967.

Rijkhoff, J. The Noun Phrase [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M]. 탑출판사, 2003.

임홍빈.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M].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陈玉洁. 汉语指示词的类型学研究 [M].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0.

王力. 汉语史稿 [M]. 北京: 中华书局, 2008.

인적사항

이름: 闫超

소속: 湖南师范大学外国语学院

주소: 湖南省长沙市岳麓区麓山路 36 号

우편번호: 410081

전화: 18684915579

전자우편: yanchao@hunnu.edu.cn

번역을 통한 문화융합 현상 고찰

--음역과 직역을 중심으로

김경선

(북경외국어대학교)

논문요약: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화나 문화질료(matter) 간의 상호 결합 및 흡수 과정을 가리킨다. 문화적 상호 감응과 융합과정을 거쳐 상대방을 재형성시키면서 서로 다른 질료들이 상호 침투하고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뜻한다. 간문화적 교류에서 번역은 소통과 교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류문화를 풍부히 하고 문화융합을 추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점차 시간,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경제글로벌화와 문화융합의 객관적 조건은 더욱더 성숙되어 가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나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가주권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하면서 문화융합 현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음역과 직역은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역 또는 주관적 해석에 의한 원본의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런 장점으로 인해 타국이나 타민족의 문화가 번역어 문화로 쉽게 융화되어 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음역과 직역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이국문화 중에서 공통된 묵시적 사항들을 증가시키고 이를 수용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화장벽을 극복하는 문화융합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다.

키워드: 번역, 문화융합, 음역, 직역, 문화 장벽

1.들어 가기

문화의 세계화와 동일화의 발전 추세로 글로벌적인 문화 공동체 의식이 보편화 되면서 문화 창조에 대해 과학적이고 개방적 의식을 낳았다. 더욱이 문화가 산업화 되고 시장화 되면서 문화 운반체와 문화 형식의 동일화, 문화미학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문화의 향유자들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글로벌적인 문화융합 Cultural Integration 文化融合, 현상을 낳고 있다.

경제 글로벌화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이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 있다. 경제 글로벌화는 여러 관련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뿐 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위한 기회도 창조해 주고 있으며 서로 다른 민족이나 언어

간 문화융합의 조건과 계기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 글로벌화는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 뿐 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글로벌화는 나라 간의 경제적인 교류과정일 뿐 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제 글로벌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문화융합의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점차 시간,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면서 경제글로벌화와 문화융합의 객관적 조건은 더욱더 성숙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그룹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적 경제조직 역할의 강화, 투자의 국제화 등은 주권국가를 초월하는 경제시스템을 형성시켜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점차 가속화되어 가는 경제글로벌화는 나라와 나라 사이, 그리고 민족문화 간의 교류를 전에 없이 활성화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와 융화가 편리해지게 하고 있다. 즉 경제의 글로벌화는 나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가주권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하면서 문화융합 현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융합은 서로 다른 형태의 문화나 문화질료(matter) 간의 상호 결합 및 흡수 과정을 가리킨다. 문화적 상호 감응과 융합과정을 거쳐 상대방을 재형성시키면서 서로 다른 질료들이 상호 침투하고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뜻한다. 언어적 차원에서 보면 서로 다른 언어지만 같은 사물이나 표현에 대한 동일한 형식의 지칭이나 표현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언어 간의 공동분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주로 음역이나 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음역이나 직역에 대해서는 번역 방법이나 전략적 차원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적인 환경에서 음역이나 직역이 멀티언어적인 현상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미나 효과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음역, 직역 등 방법을 통한 문화융합 현상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번역과 언어의 동질화 및 문화융합

모든 민족문화는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오늘날 경제, 과학, 기술, 정보, 환경, 안전 등은 점점 더 긴밀한 세계적인 공조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일한 메커니즘 속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 이런 글로벌적인 환경에서 많은 분야에서 국제적 관례들이 보다 더 많은 나라들에서 수용되고 있고 인터넷을 비롯한 발달된 매스미디어는 시류나 유행 등에 대한 동시성 범위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일부 가치관, 행동기준, 사고방식도 동일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류의 공통된 이익과 보편적인 가치를 더 많이 지향하게 되었다. 이럼으로 인해 상호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도 보다 절실해지고 사람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의존도도 날로 높아지면서 문화융합 현상은 보다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이 생겨나고 문화융합을 위한 편리한 공간이 제공되면서 수없이 많은 독립된 문화적인 개체들을 연결시켜 다양한 문화성과들을 쉽게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오래된 고전문화나 가장 최근에 생겨난 유행문화, 가장 주변적인 문화나 가장 주류적인 문화도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참고할 수 있는 장을 제공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융합의 추세를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문화융합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어 글로벌적인 문화 대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리하여 문화융합은 21세기의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1) 음역과 문화융합 현상

언어는 문화의 운반체이며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하는 도구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와 융합은 언어 융합으로 반영되며 언어의 융합은 먼저 어휘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번역이란 매개를 통해 새로운 어휘는 다른 민족에게 소개되며 이런 새로운 어휘가 널리 유행되고 오랫동안 사용되다 보면 해당 민족언어의 어휘 속으로 융화되고 해당 민족 주류문화의 한 부분이 된다. 주목되는 것은 오늘날 미디어 문화의 발달과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이런 문화 융합은 멀티 언어적 특징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어떤 문화 현상은 단순히 두 언어 사이의 교류만이 아닌 여러 언어와 동시에 교류하는 동시성을 가지면서 다 언어적 번역으로 나타나며 이러면서 멀티적 언어문화 융합현상을 보인다. 번역을 통한 언어의 문화융합 현상은 주로 직역이나 음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역은 발음이 비슷한 번역어 문자로 원어의 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음역법은 주로 해당 번역어에는 없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 전문부서 등 고유명사 번역에 많이 쓰인다. 예:

- William Shakespeare, 莎士比亞, 셰익스피어, シェイクスピア
- twitter, 推特, 트위터, ツイッター,
- New York, 紐約, 뉴욕, ニューヨーク

축약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경향은 세계 대부분 언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PEC(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같은 단어들이다. 이런 번역을 학계에서는 縮約語原形移譯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번역의 등가 원칙과 언어의 경제성 원칙이 잘 반영되어 업계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상품들의 브랜드 이름 특히 유명상품들의 이름, 그리고 글로벌적인 기업의 이

름은 거의 대부분 음역 방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예:

- Adidas, 阿迪達斯, 아디다스, アディダス,
- MacDonald, 麦当劳, 맥도널드, マクドナルド,
- Carrefour, 家樂福, 까르프, カルフール
- Wal-Mart, 沃爾瑪, 월마트, ウォルマート

역자가 음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번역어에 해당 단어나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브랜드의 기본 개념이 원어와 번역어의 문화와 완전히 일치할 때는 브랜드 본래의 개념과 뉘앙스를 그대로 보존하기에 편리한 음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음역에서 두 언어 사이에 설정된 동일 대상을 가리키는 대응관계는 각자 텍스트들에서도 대부분 유효하며 대부분의 상품들은 특별한 지역이나 민족 문화적 색채를 띠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나 술어의 번역은 민족심리를 잘 파악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마다 생태 환경, 역사, 종교 신앙, 정치 경제 등 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민족심리도 각기 다르며 가치관과 소비심리도 다르다. 이런 다양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예로 일부 목표 언어에 원어와 대응되는 단어나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역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특별한 용도나 특별한 의미색채를 띠는 경우들이다.

중국어에서 '歐巴'라는 단어의 유행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예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의 '우리'는 중국어에서 'WuLi' 또는 'wuli'로 쓰이면서 동년배, 연인 사이에서나 스타 연예인 앞에 'WuLi' 또는 'wuli'를 붙여 쓰고 있다. '체리'란 단어는 최근에 중국 과일시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인데 특별한 상품을 지칭하고 있다. 중국어에 '樱桃앵두'라는 단어가 이미 있고 중국에서 재배 판매되는 앵두를 모두 '앵두'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한 앵두는 영어의 음'cherry'을 그대로 따서 '車厘子'로 부르고 있다. 같은 예로 중국 본국에서 나는 키위는 '猕猴桃'라고 부르고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키위는 '奇異果'라고 부른다. 영어 'kiwifruit'를 'kiwi'는 '奇異'로 음역하고 'fruit'는 '果'의역해서 '奇異果'로본국 산과 수입 산을 구분해 지칭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트리'는 한국어에 '나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특별히 '크리스마스트리'를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음력 1 월 1 일은 중국도 한국도 같은 날 지내는 중요한 전통명절로 각자 이날을 지칭하는 춘절과 설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지만 서로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이 전통명절을 지내는 방식이나 풍습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춘제'라는 중국어의 음을 그대로 따서 특별히 중국의 설 명절을 지칭하고 있다. 같은 예로 한국어에는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관광객, 유람객' 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년에는 중국어의 관광객을 이르는 '遊客'의 음을 그대로 옮겨다 중국인 관광객을

따로 부르는 '유커'라는 단어가 새로 생겨났다.

이렇게 번역어 언어에 고유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름대로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어휘를 번역하는 방식은 기존에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20 세기에 중국에서 번역된 한자 문화권 나라의 정부 부서 등도 이와 같은 문화맥락에서 번역된 것이다. 중국어에서 한국 주요 부서들에 대한 명칭은 '한국문화관광부, 韓國文化觀光部'등과 같이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도 중국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부서나 관직을 외무성, 외상과 같이 조선의 호칭법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요 부서를 나타내는 어휘들,'もんぶしょう, 文部省, 문부성', 'こうせいろうどうしょう, 厚生劳动省, 후생노동성', 'おおくらしょう, 大藏省, 대장성', 'けいしちょう, 警视厅, 경시청'과 같은 예도 이에 속한다. 역시 한자 문화권인 베트남에 대한 번역도 같은 번역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베트남 국가주석 쩐 다이 꽝 Trần Đại Quang 은 陳大光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은 중국과 한국에 그 부서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어 자국의 부서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 범위와 기능이 조금 씩 다르기 때문에 음역을 기본으로 하는 번역방식을 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음역과 좀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한자로 쓰이는 이름이나 지명들을 해당 언어의 한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중국 한자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이렇게 해당 나라에서 쓰고 있는 한자어를 그대로 옮겨와 원어의 서사형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을 형태번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借形譯의 번역방식이다.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한자들에만 한해 번역되는 명사들은 한자 문화권의 언어들과 소통하는 데 장애를 많이 없애주고 있다.

민족심리는 한 민족이 오랫동안의 발전과정에서 민족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성격, 감정 가치관념 종교 신앙 등 심리 패턴적인 특징을 가리킨다. 서로 다른 민족문화는 반드시 서로 다른 민족심리가 형성되는데 이런 심리적 차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은연 중 사람들의 사유, 감정, 언어, 행위 등에 영향을 주어 간문화적 교제에 장벽이 생기고 언어 번역에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회제도, 자연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 사고방식과 언어표현 등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휘의 의미도 민족문화의 낙인이 찍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같은 음역을 할 때도 해당 민족의 언어습관 문화심리가 다름에 따라 번역 방식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띠기도 한다.

대부분 음역이 원음 그대로 번역하여 쓰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번역은 원어의 약자와 번역어의 表意문자를 결합시켜 번역한 예들도 있다. 더 예를 들면 USB(Universal Serial Bus)는 중국어로 'U 盤(優盤)'으로 불리는데 이렇게 일부는 원어의 음을 차용하고 일부는 번역어의 뜻으로 재현하는 번역을 半形半意번역이라 정의한다. 이 단어는 영문 약자와 중국 한자가 결합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구조 자체가 특이할 뿐 만 아니라 그 유래 또한

특이하다. Disk 는 동글납작한 판, 원반을 뜻하며 중국어에서 '盤'은 "납작하고 낮은 그릇, 모양이나 기능이 접시와 같은 것"이라는 뜻하므로 盤의 기능이나 모양적 특징을 disk 의 특징과 연결시켜 '광디스크, 光盤, '플로피디스크, A 盤, 軟盤(floppy disk)', '하드디스크, 硬盤, hard disk'등 '盤'으로 번역하여 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USB 는 'Universal Serial Bus'의 약자 중 'U'를 따고 '盤'을 붙여 U 盤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예이다.

또 하나 흔히 시용되는 번역방식은 음역+의역식의 번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는 데 앞에서 예로 들었던 '奇異果'가 이에 속한다. 이런 번역 방법은 20 세기에 번역된 단어들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중국어, 한국어나 일본어에서도 똑 같이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 Maginot line, 馬奇诺防線, 마지노선, マジノ線',
- 'Engel's coefficient, 恩格爾係數, 엥겔 지수, エンゲル係数'

음역은 이외에도, 한 민족 고유의 음식, 악기, 무용, 도량형 단위 등 번역어에 대응하는 어휘나 표현이 없는 문화를 번역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번역 방식은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융합을 이루어 내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역과 문화융합 현상

언어의 함의는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민족 문화적인 뜻을 말한다. 문화적인 근원이 다르면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도 당연히 다르다. 특정된 언어 환경에서 언어의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는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사물일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배경에서 독자들이 일으키는 의미적 연상은 각자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민족의 전통이나 관습,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모르고 함부로 번역을 할 수 없다. 문화소는 번역의 핵심 요인으로 타문화권의 문화소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번역의 가장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상황문맥 즉 사회, 문화적 문맥까지 가세한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너 아직도 콩쥐야?"는 중국어로 "你還是豆鼠?"로 번역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말에서 연상하는 --고약한 계모 밑에서 혹독한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불쌍한 처지의 젊은 아가씨--라는 이미지를 중국인 독자나 시청자들도 똑 같이 연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 있던 내면적 의미는 사라져 버렸다. 역자가 한국의 전통 설화 『콩쥐팥쥐』를 모른다면 이 두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면적 의미를 살려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글로벌적인 정보 네트워크는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정치, 경제, 무역, 문화, 과학기술 등 영역에서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관광, 비즈니스 등 직접적인 교류나 체험을 통해, 다른 나라나 타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

면서 보다 개방된 마음으로 자신의 문화구조와 심리를 조절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도 언어사용과 표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규범적이고 긍정적인 가치취향을 가지고 있는 직번역어의 사용은 간문화적 교류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융합현상, 나아가서 문화의 융합현상으로, 글로벌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발전추세이다.

직역은 원어의 텍스트를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번역어 텍스트로 옮기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통사론적 구문론적 구분과 배열을 가능한 한 그대로 옮기는 것 즉 언어의 형태적 구조에 집착하는 번역이다. 직역은 번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역 또는 주관적 해석에 의한 원본의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런 장점으로 인해 타국이나 타민족의 문화가 번역어 문화로 쉽게 융화되어 들어 갈 수 있다. 예:

- Witch Hunt, 獵巫(行動), 마녀사냥, 魔女狩り,
-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活着還还是死去, 這是一個問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生（い）きるべきか 死（し）ぬべきか それが問題だ,
- dark horse, 黑馬, 다크 호스, ダークホース,
- a poker face, 撲克臉, 포커페이스, ポーカーフェース,
- hot potato, 燙手的山芋, 뜨거운 감자, ホット・ポテト
- Trouble Maker, 麻煩製造者, 트러블 메이커, トラブルメーカー
- share house, 合租, 셰어하우스, シェア ハウス
- cost performance, 性價比, 가성비, 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
- spend money like water, 花钱如流水, 돈을 물쓰듯 하다, お金かねを 湯水ゆみずの ように 使つかう.

법학 용어인 “money laundering, 洗錢; 洗黑錢, 자금세탁(돈세탁), マネーロンダリング”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조직적인 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수입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한 데서 유래하였으며 처음에는 법집행기관의 실무자나 학계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다가 1986 년 미국에서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제정되면서 공식용어로 등장하였다. 그 후 UN, FATF, EU 등 국제기구와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용어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원문지향적인 번역 방법은 원어가 내포하는 함의까지도 정확하게 해석하여 원어의 뉘앙스까지도 보태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즉 직역을 통한 번역은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모두 같아 이로 인해 전달되는 문화정보까지도 모두 동일하다. 번역가는 직역을 통해서 원어 텍스트의 구조를 어떠한 간섭현상에 의해서도 흐리게 하거나 굴절시킴이 없이 그대로 번역어의 구조 속에 투영시킬 수가 있다. 즉 직역

에서는 텍스트라는 존재를 존재 그대로 옮겨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질적이고 낯선 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다 보면 원어의 문화를 반영할 뿐 만 아니라 원어의 참신한 표현을 받아들임으로써 번역어를 살찌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언어는 사유의 직접적인 실현 형태이며 특히 어휘는 사회생활과 사회사상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사회 집단의 문화적 아이콘이다. 따라서 번역에서 어떤 번역 방식을 취하느냐는 해당 시기의 가치 취향을 나타낸다. 문화융합 과정에서 문화 교류는 언제나 상호적이지만 두 문화의 각 분야들의 영향범위는 그 강약에서 불균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어느 한 쪽이 주도적이고 강세적인 위치에 있다. 앞에서 논의된 예들은 대부분 영어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에 확산된 예들이다. 이런 번역은 여러 언어들의 공동 분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멀티적인 언어융합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언어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고 문화에 의해서 규정된 표현형식이며 하나의 언어문화를 다른 언어문화로 재현할 때 두 언어 문화적 특징을 동시에 띠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은 언어적 융합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언어의 융합은 문화융합의 추세를 반영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지간의 교류와 수렴은 다양한 문화사이의 침투와 융합으로 나타나며 문화교류의 매개물로서 언어 번역의 역할과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번역은 문화교류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있다. 음역과 직역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이국문화 중에서 공통된 묵시적 사항들을 증가시키고 이를 수용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화장벽을 극복하는 문화융합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다. 한 문화권의 구성원들은 그들에 의해서 창조된 문화의 창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또한 해석하기 마련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가 깊어질수록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문화의 창은 유사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수렴(cultural convergence 文化汇合)과 융합 현상은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자료

㉠『도깨비』, 제 6 부.

㉡ 『아저씨』 제 11 회.

· 단행본

㉢ 김효중,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 사상, 2004.

㉣ 이석규ㅡ 허재영 등 공저,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역락 출판사, 1999.

㉤ 包惠南, 『文化語境與言語飜譯』, 中國對外飜譯出版公司, 2001.

㉥ 黃忠廉 등 저, 『應用飜譯學』, 國防工業出版社, 2013.

㉦ 譚載喜, 『飜譯學』, 湖北教育出版社, 2005.

㉧ 游英慧, 『外語飜譯與文化融合』, 光明日報出版社, 2016.

㉨ 辛紅娟 主編, 『文化飜譯讀本』南京大學出版社, 2012.

· 논문

㉩ 김경선, 「문화 번역과 탈 언어적 요소」, 『한중인문학연구』제 48 집, 2015, pp.87-102.

· 인터넷 자료

㉪ http://www.docin.com/

㉫ http://search.daum.net/search

㉬ http://baike.baidu.com/link

㉭ http://wiki.mbalib.com/wiki

㉮ http://baike.baidu.com/item/

㉯ http://terms.naver.com/entry

'인간관계'의 개념화 양상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 '연줄'을 중심으로

장뢰

(복단대 박사과정)

(추가 보완)

인지구조학습이론 아래 마이크로 수업과 위챗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 거꾸로교실의 탐구

단청총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초록: 본고는 브루너의 인지구조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한국어수업에서 멀티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겠다. 한국어 수업에서 마이크로 수업(Microlecture)과 위챗을 바탕으로 하는 거꾸로교실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시도이다. 거꾸로교실의 시행은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끌 수 있으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교사와 학습자들에게도 더 많은, 더 좋은 학습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키워드: 거꾸로교실; 인지구조학습이론; 한국어 교육; 마이크로 수업; 위챗

1.이론 배경

브루너는 학습은 사람의 자발적인 인지 과정, 즉 인지 구조의 조직과 재편성, 지식의 학습은 학습자들 머리 속에 형성하는 다양한 학문 지식의 기본 구조라고 주장한다. 또한 브루너는 발견 학습은 지식 학습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발견 학습은 탐구적인 사유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학습자가 재료나 교사가 제공하는 조건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사고 및 발견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학습 방법은 이론 및 규칙을 파악하는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지구조학습이론의 이런 역동적, 자주적, 탐구적 인지 과정은 마이크로 수업과 위챗을 바탕으로 하는 거꾸로교실의 자주적 발견 학습과 일치한다.

2. 멀티미디어 한국어 수업의 문제점

2.1 수업 목적과 방법의 전도

어떤 한국어 멀티미디어 코스웨어(courseware)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맞추기 위해 분별없이 표면적인 참신과 생동감을 추구하며 강렬한 컬러, 사진, 애니메이션을 남용된다. 학습자가 이런 종합적 자극에 끌리기 쉽다.[1] 이런 자극은 학습자들에게 쉽게 오해 및 착

[1] 龚乐宁(2012). 多媒体外语教学现状分析[J].科教文汇, (6), p127-128.

각을 일으킨다. 그들의 주의력은 다양한 기법 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쉽게 간과된다. 따라서 교육 목적과 기법이 전도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학습자가 정신적 기쁨을 학습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 수업 효과에 영향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2 효능과 대가의 불일치

멀티미디어 교수법의 가장 큰 장점은 컴퓨터의 교호성과 사진, 문자, 소리가 어울리는 생동감을 이용함으로써 추상적 개념 및 이론을 생동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감관의 자극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적극성을 돋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맹목적으로 코스웨어의 흐름을 따라 모든 것을 멀티미디어로 활용한다면 예상된 교육 효과를 반드시 거둘 수 없을 것이다.

2.3 학생의 주체성 간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이 인지 활동의 주체이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서로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그리고 인지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 환경이 형성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전통적 멀티미디어 교수법은 풍부한 멀티미디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의 신속성 면에서도 전통적 교수법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데 감정적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없고 전통적 수업 교육을 대치할 수 없다.

2.4 전통 멀티미디어의 응용 노화

전통적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수업에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불어일으킨다. 그런데 이 모델은 몇 년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혁신도 없다. 학습자가 이런 수년 동안 변함없는 멀티미디어의 응용에 대해 점차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습 효율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수업에서 마이크로 수업과 위챗을 바탕으로 하는 거꾸로교실의 교육 개혁 시도이 필요하다.

3. 한국어 거꾸로교실 시행 방안

거꾸로교실은 무크(MOOC)등을 활용해 온라인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에선 토론식 강의 등을 하는 '역진행 수업'. 전통적 수업 방식과는 반대로 학생들이 미리 내용을 학습한 뒤 실제 강의에서 교수와 토론이나 과제 풀이 등을 하는 혁신적 수업 방식이다.[2] 거꾸로교실

[2] 네이버 지식백과(2015-10-15). 거꾸로 교실[EB/O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215&cid=42107&categoryId=42107.

은 전통 교육 과정을 뒤집고 지식의 가르침은 수업 전에 인터넷에서 완성되고 학생들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제의 해답과 지식 구축이 완성되어야 한다. 지식의 내재화는 수업 중에 교사의 가르침, 그룹 토론, 협력 탐구를 통해 완성된다 (Bergmann&Sams, 2012:40) . 또한 위챗, 마이크로 수업 등 멀티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거꾸로교실 한층의 규범화,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

마이크로 수업 (Microlecture) 이란 정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인지 규칙에 따라 수업의 어느 주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보여 줌으로써 구조화, 주제식 자원 응용 환경을 영위한다. 그 주제가 선명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업 시간이 짧고 흥미로워서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끌어일으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주의력도 높일 수 있다.

위챗은 스마트 단말기을 위해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모멘트(moment), 위챗 플랫폼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위챗 플랫폼은 거업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 업계에도 많은 학습 자원을 제공한다. 위챗의 플랫폼 기능, 통신 기능 등 사교 기능 등은 한국어 수업에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 수업과 위챗의 유기적 결합은 거꾸로교실의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디자인이 더 효율적이고 풍부하다.

3.1 수업 전

교사가 한국어 수업의 중요한 지식, 예를 들면 중요 문법, 중요 단어, 중요 문형 등 관련된 내용 PPT 업로드한다. 이번 수업의 어느 한 중점에 둘러싸여 시간이 짧은 마이크로 수업을 제작한 다음 그룹 채팅에 업로드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의 요구 및 내용, 수업 전에 완성되어 야하는 임무, 수업 중에 완성되어 야할 임무를 알려주어 학생들의 자학을 지도한다.

3.2 수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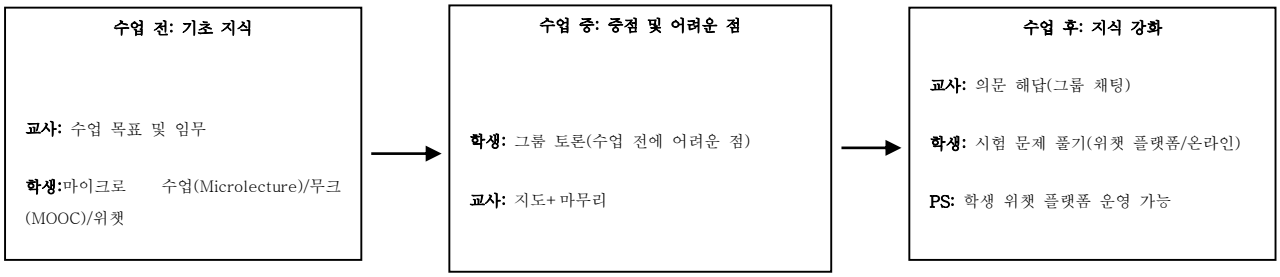
수업 중에 '배우는 다음에 가르치다'는 거꾸로교실의 수업 방식을 실행한다. 브루너의 인지구조학습이론에 의해 발견 학습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탐구적인 사유 방법과 독립 사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 전의 관련 지식의 문제점을 사고 및 토론하도록 한다. 교사가 수업 중에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가 이 부분에 여전히 전통적 멀티미디어의 수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이 거꾸로교실에 도입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짧고 세련해야 한다. 마이크로 수업과 위챗의 특징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토론이 마친 후에 교사가 수업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수업 효과가 좋지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수업 주요 내용, 주요 문제를 정리 및 마무리해야 한다.

어떤 교수법을 이용하든지 교사는 학습 효과가 수업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형식이 효과보다 더 치중하는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3.3 수업 후

수업 중에 학생들이 제출한 문제에 대해 교사가 그룹 채팅을 이용함으로써 해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관련 시험 문제를 위챗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옛 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수업 지식을 효과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4-5 팀으로 나누고, 각 팀은 4-5 명씩이 있다. 학생들을 하여금 정기적으로 번갈아 이 한국어 위챗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련된 한국어 듣기, 읽기 등 내용을 업데이트하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한두 편 글을 골라서 평론을 쓰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진실한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 읽기, 쓰기 그리고 번역 능력을 향상시킨다.



4. 한국어 거꾸로교실의 논의

한국어 거꾸로교실 모델은 전통 한국어 수업 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4.1 수용성 모순 해결 가능

마이크로 수업은 한생의 수용성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마이크로 수업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수업 전에 비슷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3]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확장적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더욱 심도 있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4.2 적극성과 효과성의 높임

학생들의 적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어 거꾸로교실은 “학습(學習) 연습(練

[3] 边玮玮·孔雨佳·郑爱丽等(2018).基于微课和微信的翻转课堂模式在医学实验课程中的应用探索[J]. 中国高等医学教育,(1), p25.

習) 연구(研究)" 세 가지 부분이 나뉠 수 있다.[4] 이 세 부분에 모두 학생의 참여성과 적극성이 강조된다. 학습(學習) 부분에 학습자가 교사의 지도에 따라 마이크로 교육을 통해 학습 리듬을 파악한다. 연습(練習) 부분에 학생들은 일정한 지식 비축 아래 이미 배웠던 단어, 문형, 문법을 연습한다. 교사가 이 과정에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연구(研究) 부분에 에서 토론을 통해 학생의 사유를 넓힐 수 있으며 창의적인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

4.3 교류 경로 넓힘

교사와 학생들 간의 교류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다. 학생들은 어떤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위챗으로 제기할 수 있고 교사가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지도에 따라 그룹 채팅에서 토론이 펼쳐질 수 있다.

4.4 "짧기, 빠르기, 평면화"의 실현

마이크로 수업, 위챗으로 기존 인터넷 수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짧기, 빠르기, 평면화"가 이루어진다.[5] 짧고 효율적인 마이크로 수업은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배우게 한다. 위챗 플랫폼을 통해 교사가 학습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더 쉬워져서 경로의 평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거꾸로교실 중에 교사와 학생의 역할의 변화

5.1 교사 역할의 재정의

전통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교사가 구두로 체계적으로 책에 있는 지식을 학생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교사가 능동적인 교육자이며 학생은 수동적인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반면에 "비디오—수업—교사" 형식의 거꾸로교실에 학생들을 강한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로 간주하고 교사가 비디오 제작, 수업 조직, 과외 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교수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교육에 대한 다른 이해와 교육 방식의 변화는 교사의 역할을 다시 재구축하게 한다.[6]

5.2 교사가 제작자이며 구축자이다

한국어 거꾸로교실의 구축은 교사가 비디오의 재발자이며 제작자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우수한 교육 비디오는 수업에 도움이 되고 지식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의 학

[4] Ibid.
[5] Ibid.
[6] 李春明(2017). 翻转课堂的基本流程及师生角色的定位[J].文理导航,(262), p92.

습 흥미를 끌어일으킬 수 있으니까 거꾸로교실 완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물질 조건이다.[7] 교사가 일정한 비디오 제작 기술을 가져야 한다.

5.3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변화

비디오가 거꾸로교실의 전제와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교류가 전통적 수업 방식을 뒤엎을 수 있는 관건이다. 거꾸로교실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을 위해 충분한 교류 시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한데 학생의 능동적 참여, 탐구를 효과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교실은 탐구, 토론에서 사상교류, 지식 내재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제어”, “대립”에서 “교류”, “대화”로 발전해야 한다.[8]

6. 결론

강한 교호성 및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는 마이크로 수업과 위챗을 바탕으로 하는 거꾸로교실은 한국어 수업의 개방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교류 및 신분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 외에 뉴미디어의 응용은 교육자들에게 다양한 자원 수집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학습자의 학습 능동성, 창조력 및 응용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 수업 개혁에 대해 일정한 참고 및 지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7] Ibid.
[8] Ibid.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2015-10-15). 거꾸로교실
[EB/OL].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215&cid=42107&categoryId=42107.
边玮玮·孔雨佳·郑爱丽等(2018).基于微课和微信的翻转课堂模式在医学实验课程中的应用探索[J].
中国高等医学教育, (1).
龚乐宁(2012). 多媒体外语教学现状分析[J].科教文汇, (6).
李春明(2017). 翻转课堂的基本流程及师生角色的定位[J].文理导航, (262).
Bergmann, J. &A. Sams. 2012. Flipping the Classroom [M]. SanBrunl: Tech&Learning.

이름: 단청총
소속: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주소: 요녕성 대련시 여순구구 대련외국어대학교
우편번호: 116044
전화: 15269292617
전자우편: shanqingcong@163.co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위로화행 연구

- 청자를 중심으로 -

박향춘

(한국 중앙대학교)

목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위로화행 사용 양상 조사 및 결과

4.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실제 상황에서 청자에게 위로가 되는 화자의 효과적인 화행 유형을 조사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육에서 화행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중에는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규범과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교실 밖에서 마주치는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이끌어 가지 못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한 언어를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감정의 자극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대화 참여자 간에 부정인 감정이 발생하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의사소통의 본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도 동시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 단절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Wolfson(1989)은 원어민 화자들은 외국인과 대화할 때 형태 오류 즉, 발음이나 문법의 오류에 해서는 하지만 공손 규칙을 반했을 때에는 무례한 사람으로 단해서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외국어 학습자들의 부족한 발화 능력은 의도치 않은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특히 위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적절성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으로 정의하고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위로를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피로가 풀어지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위로 화행은 청자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로는 화자가 청자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소통하는 과정인 것이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을 청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한국인 화자가 선호하는 위로화행을 조사하거나 한국인 화자와 중국인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을 비교분석 및 교육 방안 제시하였는데, 즉 화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결국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들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청자의 입장에서 들을 때 위로가 되는 적합한 화행인지에 대해 그 유형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자로서 사용한 위로 표현 유형이 청자일 때도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모두 세 번의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위로하는 것이 힘든 지에 대한 상황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다음은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혹은 직장인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위로화행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조사한 위로 화행을 참고로 하여 청자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실제로 각 위로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위로화행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모든 조사의 나이는 20, 30 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나이가 주로 20, 30 대이기 때문이다. 본 설문 조사는 대학(원)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메일 및 직접 배부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고에서는 상황 선정 조사 및 청자 중심 위로 화행 조사는 객관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두 번째 조사인 실제 위로화행 양상과 청자 입장에서의 선호 화행 조사는 위의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화행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담화완성형테스트 DCT(Discourse Completion Test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2.2 분석 기준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위로 화행 전략의 분석 기준 참고 및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혜진(2014)의 19 가지 전략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존 다른 연구에서는 전략 중 하나로 다루었던 '농담하기'와 실제 설문 조사에서 많이 나타난 '편들어 주기'를 포함하여 총 2 가지를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침묵하기'를 '침묵 및 회피하기'로 변경하였다. 이에 본고는 총 21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본고에서 분석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위로 유형과 그 특징 및 예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예시는 실제 설문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 한 것에서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위로 유형 분석 틀

번호	유형	특징 및 예시
1	관심 표현하기	청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 괜찮아?, 어디서 잃어버린거야?
2	격려하기	청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화자가 용기와 격려를 주는 표현: 기운 내, 잘할 수 있어
3	안심시키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청자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 걱정하지마, 괜찮을 거야
4	공감하기	청자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 정말 힘들겠다. 속상하겠네
5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표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다음에는 꼭 합격 할거야
6	충고 및 조언하기	청자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일러 주거나 충고해 주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표현: 조심했어야지, 이번을 경험으로 삼아

7	대안 제시하기	청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화자가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표현: 분신물 센터에 가봐, 따뜻한 물 많이 마셔
8	도움 제시하기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청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표현: 같이 가서 찾아보자, 병원에 같이 가자
9	의례적 표현하기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례적 인사 표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	청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표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세상에 더 좋은 남자 많아
11	책임 돌리기	청자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청자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거나 다름 사람에 탓이라고 강조하는 표현: 시험이 어려웠나 보다, 그 애가 이상해
12	기분 전환시켜 주기	청자가 현재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분이 전환되도록 해주는 표현: 술 한잔 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13	자신의 경험과 비교	청자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표현: 나도 몇 번이나 떨어졌어, 나는 더 심했어
14	걱정하기	청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표현: 빨리 찾아야 할텐데..,, 얼른 나아야 할텐데...
15	일반화하기	청자가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표현: 다들 그러고 살아, 다른 사람들도 그래
16	단념시키기	이미 지나간 상황이므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라고 하는 표현: 그냥 잊어버려,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17	관습적 표현으로 빗	어려운 상황을 관습적으로 굳어진 관용 표현 등을 빗대

	대기	어 하는 표현: 시간이 약이야
18	바람 표현하기	화자가 청자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표현: 빨리 찾길 바라,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19	농담하기	농담을 함으로써 잠시 속상한 감정을 잊을 수 있도록 상황의 심각성을 낮추는 표현: 그렇게 놀더니만 잘됐다, 바보냐?
20	편들기	화자가 이유 없이 무조건 청자의 편을 드는 표현: 난 무조건 널 믿어, 이리로 데려와 내가 혼내줄게
21	침묵 및 회피하기	뭐라고 위로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

3.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로 화행 사용 양상 설문 조사 결과

3.1 조사 목적 및 내용

본 조사의 설문지는 기존 연구에서의 갈등, 손실, 실패, 이별, 병고, 죽음 6개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작성한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위로 상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가 애인이랑 싸웠을 때, 친한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등으로 위로 상대는 대부분 친구로 되어있었다. 이는 조사 대상이 아직 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학습자들로 아직은 인간관계가 좁은 상태로 주위에서 접하는 한국인들이 주로 친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각 상황에서의 위로 대상을 친한 친구[1]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구체적인 상황 설정은 각 상황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선정한다. 실패 상황은 시험(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별 상황은 남자(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병고 상황은 많이 아플 때, 갈등 상황은 친구와 싸웠을 때, 죽음 상황은 할아버지(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손실 상황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로 각 상황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한다[2].

[1] 화자로서의 선호 위로화행 설문 예비 조사에서 많은 모어 화자들이 친소관계에서 소원한 관계인 경우 위로르 하지 않은 다는 경우가 많이 나왔으므로 본고에서는 위로 대상은 친한 친구로 설정하였다.

[2] 본 연구는 먼저 국내에 거주 중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갈등, 손실, 실패, 이별, 병고, 죽음 각 상황에서 '누가 어떤 위로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어로 표현(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3가지를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의 예시를 주었고 '누가 어떤 상황일 때'로 작성을 요구하였다. 53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위로 상황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유효하지 않은 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50부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3.2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 상황에서 선호 위로 화행

본고에서는 먼저 화자로서의 선호 위로 화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청자로서의 선호 위로 화행 유형을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본 설문 조사는 각 설정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화자로서와 청자로서의 선호하는 위로 화행을 선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거쳐 조사를 진행하여 각각 131 명과 120 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3]. 두 가지 설문지 모두 '인적 정보'와 '각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에 관한 질문' 두 가지 내용 범주로 작성하였다. 6 개의 상황 설정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의 < 표 2 >와 같다.

< 표 2 > 각 상황 설정의 질문 내용

상황	질문
갈등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와 싸워서 속상해 하는 상황, 이때 당신은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실패	**친한 친구**가 열심히 준비한 시험(팀 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 이때 당신은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손실	**친한 친구**가 중요한 물건(핸드폰, 지갑 등)을 잃어버린 상황, 이때 당신은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이별	**친한 친구**가 연인과 헤어져서 슬퍼하는 상황, 이때 당신은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병고	**친한 친구**가 감기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이때 당신은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죽음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 이때 당신은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청자로서의 선호 위로 화행 설문지 상황 설정은 화자로서의 선호 위로 화행 설문과 동일하며 위로 대상이 친한 친구에서 자신으로 바뀌어 '자신이 위로 상황에 처했을 때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는 지로 질문을 작성하였다[4]. 각 질문 문항의 1~10 번 보기는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 결과의 각 상황에서 나타난 위로 화행 유형 중 빈도순으로 10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였고 11 번 보기는 '기타'로 하여 원하는 위로 화행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11 개의 보기를 주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131명의 조사 대상의 성별은 남자가 55명(42.0%), 여자가 76명(58.0%), 나이는 20대가 85명(64.9%), 30대가 46명(35.1%), 직업은 대학(원)생이 79명(60.3%), 직장인이 53명(39.7%)을 차지했다
120명의 조사 대상의 직업은 대학(원)생 68명(56%), 직장인 52명(44%)이 나왔다. 성별은 남자가 42명(35%), 여자가 78명(65%) 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나이는 20대가 86명(72%), 30대가 34명(28%)로 2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 예: 실패 상황 설정- 당신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 이 때 친구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갈등 상황에서의 청자가 위로가 된다고 하는 위로 화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친구와 싸워서 속상한 상황,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십니까?'의 질문에 관한 결과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 위까지 유형은 '공감하기' > '편 들어주기' > '대안 제시하기' > '관심 표현하기' > '충고 및 조언하기'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갈등 상황에서 청자들은 화자가 자신의 현재 심정을 공감해주기를 제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 갈등 상황에서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 순위를 보면 '공감하기'는 '충고 및 조언하기'의 다음인 2 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공감하기'가 23%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충고 및 조언하기'가 오히려 5 위에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 화행 유형과 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위로화행 유형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상황에서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26.2%로 '공감하기'였고 남성은 32.9%로 '대안 제시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상황에서의 청자로서 위로가 된다고 하는 위로 화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중요한 물건(핸드폰, 지갑 등)을 잃어버렸을 때, 이 때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십니까?'의 질문에 관한 결과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 위까지 유형은 '도움 제시하기' > '대안 제시하기' >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 '관심 표현하기' > '공감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손실 상황에서 청자들은 화자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의 손실 상황에서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 유형 순위를 보면 '도움 제시하기'는 6 위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는 '도움 제시하기'가 45%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4 위인 '관심 표현하기'는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에서 1 위로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 화행 유형과 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위로 화행 유형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상황에서 각각 61.9%, 51.3%로 남자는 '대안 제시하기', 여자는 '도움 제시하기'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상황에서의 청자로서 위로가 된다고 하는 위로 화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십니까?'의 질문에 관한 결과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 위까지 유형은 '안심시키기' > '충고 및 조언하기' > '관심 표현하기' >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 '격려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자들은 실패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가 안정되도록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주기를 제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의 실패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 순위를 보면 '안심시키기'는 4 위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는 32%로 매우 높은 비율인 1 위로 나타났다. 또한 4 위인 '격려하기'는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

에서 1 위로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또한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 화행 유형과 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위로 화행 전략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상황에서 각각 28.6%, 24.6%로 남, 여 모두 '안심시키기'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 상황에서의 청자로서 위로가 된다고 하는 위로 화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남자(여자) 친구와 헤어진 상황,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십니까?'의 질문에 관한 결과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 위까지 유형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 '관심 표현하기' >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 > '단념시키기' > '기분 전환시켜 주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자들은 화자가 이미 헤어진 상황이므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로 위로해주기를 가장 원함을 알 수 있다.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의 이별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 순위를 보면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는 3 위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는 31%를 차지하여 1 위로 나타났다. 또한 2 위인 '관심 표현하기'는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에서 1 위로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 화행 유형과 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위로 화행 유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 22.6%, 31.3%로 남. 여 모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고 상황에서의 청자로서 위로가 된다고 하는 위로 화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독감에 걸려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십니까?'의 질문에 관한 결과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 위까지 유형은 '대안 제시하기' > '도움 제시하기' > '안심시키기' > '걱정하기' > '관심 표현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자들은 화자가 아픈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위로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의 병고 상황에서의 한국인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 순위를 보면 '대안 제시하기'는 4 위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에서는 35%로 상당히 높은 비율인 1위로 나타났다. 또한 5위인 '관심 표현하기'는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에서 1위로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또한 '관심 표현하기'는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 화행 유형과 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위로 화행 유형은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각각 26.2%, 32.9%로 남자는 '대안 제시하기', 여자는 '도움 제시하기'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 상황에서의 청자로서 위로가 된다고 하는 위로 화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할아버지(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십니까?'의 질문에 관한 결과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 위까지 유형은 '도움 제시하기' > '기타' > '공감하기' > '관심표현하기' > '격려하기' >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 위인 '도움 제시하기'는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설문조사'의 죽음 상황에서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선호하는 위로화행 순위에서 5 위로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화자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유형이 아니지만 청자는 위로가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 위인 '기타'에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조용히 안아 주기, 아무 말 없

이 다독여 주기, 곁에 있는다, 같이 울어준다, 조용히 손 잡아준다. 등'인 '비언어적 행동을 동반한 침묵하기'가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청자들은 화자가 이 상황에서 말보다는 비언어적 행동이 더욱 위로가 자신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각각 26.7%, 32.4%로 남자는 '도움 제시하기', 여자는 '공감하기'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화자와 청자 선호 위로화행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화자, 청자 모두 선호하는 유형은 '관심 표현하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자 선호 위로 화행 중 1위와 3위로 나타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와 '도움 제시하기'는 화자 선호 위로 화행에서 각각 6, 7 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자로서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지만 청자로서는 이 유형이 위로가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 선호 위로 화행 중 2 위로 나타난 '충고 및 조언하기'는 청자 선호 위로화행에서 8위로 나타났는데 청자 입장에서는 위로 상황에서 충고나 조언이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표 3> 전체적인 화자와 청자 선호 위로화행 유형 양상 비교

순위	화자	청자
1	관심표현하기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2	충고 및 조언하기	관심표현하기
3	대안 제시하기	도움 제시하기
4	안심시키기	대안 제시하기
5	격려하기	공감하기
6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안심시키기
7	도움 제시하기	격려하기
8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	충고 및 조언하기
9	기분 전환시키기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
10	공감하기	단념시키기

이상으로 본고는 먼저 화자로서의 선호 화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자를 중심으로 한 위로 화행 유형에 대해 그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위로 화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때 각 위로 상황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청자가 선호하는 위로 화행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기존 화자를 중심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각 상황에서 화자가 아닌 청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위로 화행을 알아보는 걸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인 모어화자들이 청자 입장에서 원하는 위로화행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갈등, 손실, 실패, 이별, 병고, 죽음 6개의 각 상황에서 제시한 화자가 선호하는 위로화행 유형과 본고의 청자가 원하는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이별 상황에서 남, 여가 선호하는 위로화행 유형은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 개 상황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고의 설문 조사 결과 화자, 청자 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달랐고 '관심 표현하기'는 각각 2 위, 1 위로 모두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와 '도움 제시하기'는 청자 입장에서는 상위권, 화자 입장에서는 하위권으로 나타났고 '충고 및 조언하기'는 청자 입장에는 하위권, 화자 입장에서는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상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했듯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위로화행은 반드시 교육해야 할 화행으로, 위로 화행은 청자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화행인 만큼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청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유형을 상황과 사회적 변인에 맞는 적절한 위로 화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때 실제 한국인 화자가 사용하는 위로화행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 조사는 6개의 상황별로 각각 한가지 씩만 설정하고 화자를 친한 친구에만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한 것이 다소 아쉬운 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실제성이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사회적 변인에 따른 위로화행 양상 조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가 주로 대학(원)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좀 더 다양한 직업군으로 하지 못한 것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방법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만큼 자료의 신뢰성이나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표본과 더욱 다양한 조사를 통한 설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김선지(2007), 일본어권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위로 화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숙(2001), 현대 일본어의 인사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은숙(2006), 韓日 言語行動의 對照社會言語學的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금현(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인사표현의 교육방안, 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199-226.

(2009), 한국어 인사 표현의 유형과 특징, 세계한국어문학 1, 세계한국어문학회, 93-122.

박햇님(2012),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위로 화행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혜진(2014), 중국인 학습자의 위로 화행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수정(2008), 중국어 인사말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이은주(2010), 한국어 학습자들 위한 위로 표현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금숙(2016), 영어 공손 능력 향상을 한 공손 기반 의사소통 기능 교육, 강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전지원(2010), 한• 중 위로 화행 대조 연구, 한국어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애리(2005), 고등학교 일본어 I 교과서의 인사표현에 관한 고찰: 제 7 차 교육과정 12 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학논집 19, 경희대학교, 96-111.

황병순(1999), 국어 인사말 연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1-25.

황유진(2011), 한국어 학습자의 위로 화행 실현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Wolfson, N(1989), *Perspectives, sociolinguistics and TESOL*. New York: NewburyHouse.

박향춘

한국 중앙대학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우편번호 - 06979

+82-10-2180-1226

gidcnsl@gmail.com

이중 피동 표현에서 ‘-어지다’의 양태 연구

최란

(전남대학교)

1. 서론

피동문이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Ridel(1881), Underwood(1890) 등에 의해 비롯되었다. 이후 국내에서 주시경(1910), 유길준(1909) 등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어지다’[1]의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다가 피동 접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타동사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피동사로 동원[2]되었다.

점차 ‘-어지다’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피동 접미사 뒤에 결합하여 이중 피동을 이루었다. 그러나 임홍빈(1982)을 비롯한 일부 논의에서는 이중 피동의 사용을 예외적인 경우 또는 ‘잉여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피동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반면에 이중 피동을 인정하는 논의에는 주로 피동을 허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배희임(1998), 이상억(1999) 등 논의에서는 이중 피동을 피동의 강조로 파악하였고, 임홍빈(1978), 우인혜(1997), 전영철(2008)은 이중 피동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피동에 대한 중첩 현상이 많아지면서 이중 피동을 불필요하고 비문법적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의들은 이익섭·채완(1999), 최규수(2005) 등에 의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전통 문법에서 피동으로 다루어 왔던 ‘-어지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지다’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중 피동 표현에서 접사에 의해 피동적 의미가 도입되고, ‘-어지다’는 상태 변화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점은 ‘-어지다’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환유-은유 모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어지다’의 피동 의미와 문제 제기

2.1. ‘-어지다’의 피동 의미

1 본고에서는 보조 용언 ‘-아/어 지다’, 접미 피동사 ‘-어 지-’, 화석화된 ‘-어지다’ 등 형태들은 기술의 편의를 위해 ‘-어지다’로 통일하여 기술하려 한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익섭(2005: 270)을 참고.

피동에 대해 최현배(1982: 420)는 ‘월의 임자가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것’으로, 남기심·고영근(1985)에서는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학교문법에서 이관규(2005: 315), 권재일(2012: 377), 박덕유(2017: 243) 등 에 의해 ‘주어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으로 통일하였다.

남수경(2007: 21)은 Siewierska(1984: 265), Shibatani(1985: 837), Haspelmath(1990: 27), Lazard(1995: 192) 등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피동에 대한 원형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1) 피동의 원형적 특성

ㄱ.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한다.
ㄴ. 능동문의 주어, 즉 행위자의 피동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사격어로 나타난다.
ㄷ. 능동문의 목적어, 즉 피동자는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난다.
ㄹ. 형태론적 표지를 지닌다.

남수경(2007)에 따르면 피동은 예문 (1)에서 제시한 원형적 특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현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외를 보이는 주변적인 현상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어지다’는 통사적 구성에 의한 방법으로 피동을 실현한다.

(2) ㄱ. 김 박사가 어렵던 수학 문제를 풀었다.
ㄱ′. 어렵던 수학 문제가 김 박사에 의해서 풀어졌다(풀-어 지-었-다).
ㄴ. 소위원회가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었다.
ㄴ′. 새로운 법률안이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만들-어 지-었-다).

권재일(2012: 383)이 제시한 예문 (2)에서는 ‘-어지다’가 능동 표현과 대응되면서 피동을 나타낸다. 이외에 ‘-어지다’는 다음 예문과 같이 타동사와 결합하여 피동 접미사와 같은 피동을 나타내거나 혹은 피동 접미사가 취하지 못하는 타동사들과 결합하여 피동사와 대등한 구실을 하게 된다.

(3) ㄱ. 어렵던 수학 문제가 김 박사에 의해서 풀렸다.
ㄴ. 어렵던 수학 문제가 김 박사에 의해서 풀어졌다.
(4) ㄱ. 이 해시계를 언제 만들었을까?
ㄴ. 이 해시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위의 (2)의 예문을 재인용한 (3)을 보면 ‘풀렸다’와 ‘풀어졌다’는 모두 피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지다'는 피동 접미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익섭(2005: 270)에서 제시된 예문 (4)의 경우는 '만들다'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인데, 이때 '-어지다'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피동 접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타동사들은 '-어지다'를 동원하여 피동을 실현한다[3].

그러나 '-어지다'가 결합한 어형은 피동 접미사에 비해 국어사전에 오른 경우가 적다. 다시 말하면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붙잡히다', '갈리다', '빼앗기다', '쓰이다'의 경우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자주 사용되는 '만들어지다', '느껴지다' 따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이루어지다'는 '이루다'와 연관시키지 않은 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지다'의 일부는 이미 화석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조오현(1995)는 '-어지다'가 용언에 결합되어 피동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조오현(1995: 743)에서 제시한 예문들을 통해 화석화된 '-어지다'의 피동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

(5) ㄱ. 철수가 밤을 떤다. ㄴ. 아기가 엄마의 머리를 푼다.
ㄱ′. *철수가 밤을 떨어진다. ㄴ′. *아기가 엄마의 머리를 풀어진다.
ㄱ″. 밤이 철수에 의해 떨어진다. ㄴ″. 엄마의 머리가 아기에 의해 풀어진다.

위의 예문 (5)는 화석화된 '-어지다'가 사용된 경우이다. 예문 (5 ㄱ″,5 ㄴ″)는 피동 변형을 거쳤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이 되나, 반면에 피동변형을 거치지 않은 (5 ㄱ′,5 ㄴ′)은 비문이 된다. '-어지다'의 화석화[4]를 조오현(1995)은 피동 변형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고 남수경(2011: 213-214)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의외적인 경우라고 여기면서 피동문의 구성에서 의미가 확대되어 쓰인 것으로 여겼다.

이상과 같이 최현배(1982), 이관규(2005), 남수경(2007, 2011) 등 논의에서 '-어지다'를 피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외의 많은 논의에서 '-어지다'를 편법 절차에 의해 피동 동사에 넣지 않고 다만 '준피동동사(準被動動詞)'로 부른다. 따라서 '-어지다'는 순수히 피동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 '-어지다'의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

3 이정택(2004: 137)은 '-어지다'가 피동 양상을 드러내는 환경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사동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사동사에 '-어지다'가 연결됨으로써 피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둘째는 사동 접미사에 의한 파생 사동사는 아니지만, 사동의 의미를 갖고 대응되는 주동사가 있을 때에 피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셋째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양상이 강한 용언과 결합할 경우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4 이성하(1998: 153-154)에서 화석화는 '한 언어 형태가 원래의 기능이나 화용적 힘을 잃어버리고 형태상으로나 의미기능상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지적하였다.

‘-어지다’는 피동 접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타동사들과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학교문법에서도 피동 표현을 구성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다. 즉,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여 파생된 피동사를 사용하는 경우, 능동사에 ‘-어지다’를 붙인 보조 용언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어근에 접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을 붙인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5].

그러나 피동은 타동사를 가진 능동문의 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지다’를 피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익섭(2005: 272-273)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어지다’가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에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피동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6) ㄱ. 그렇게 마음에도 없이 울려고 하니 울어지겠니?
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네요.
ㄷ. 학교가 달라지니 그 친구하고도 점점 멀어지는구나.

예문 (6)에서의 ‘-어지다’ 자체는 ‘피동’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이외에 최경봉 외(2017: 222)에서도 형용사나 자동사에 ‘-어지다’가 붙는 것은 타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가 붙어 파생되는 피동사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어지다’ 구성의 동사를 모두 피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상에서 피동법을 두 번 겹쳐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즉 피동 접미사에 다시 ‘-어지다’ 피동이 붙어 쓰이는 경우인데 다음 예문 (7)과 같다.

(7) ㄱ. 신발 끈이 {끊겼다/ 끊어졌다/ 끊겨졌다}.
ㄴ.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들어졌다/ 들려졌다}.
ㄷ.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잡아졌다/ 잡혀졌다}.

예문 (7)은 각각 접미 피동사, ‘-어지다’의 피동, 이중 피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 (7ㄴ,ㄷ)에서 ‘-어지다’와 직접 결합한 ‘들어졌다, 잡아졌다’는 어색하고 이중 피동인 ‘들려졌다, 잡혀졌다’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국어 교육에서는 하나의 문법적 동기를 위하여 둘 이상의 기제를 동원하는 것은 체계상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중 피동은 의미가 중복된 오류로 취급되고 있고 피동사 연구에서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중 피동은 의미론적 및 문장론적 차원에서는 모두 가능한 것[6]이고 고영근·구본관(2008: 351)에서는 ‘?잊힌 계절’보다 ‘잊혀진 계절’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지다’에 타동사가 결합하면 피동의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

5 최경봉 외(2017: 220)에서 피동 표현의 형식을 참고.
6 전영철(2008: 90)에서도 이중 피동 표현을 문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어지다'가 자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하거나 또는 접미 피동사 뒤에서 이중 피동을 나타날 때에 '피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피동'이라는 적은 기능을 부각하여 '-어지다'의 기본 의미로 주장하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는 '-어지다'의 문법화와 의미 변화를 살피면서 그 기본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려 한다.

3. 이중 피동 '-어지다' 의 문법화와 양태 의미 재분석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언어의 모습과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방향은 단일방향성을 띠는데 즉 구체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으로, 자립적인 것이 의존적인 것으로, 어휘적인 것이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어지다'도 마찬가지로 15 세기에 '상태 변화'를 나타내던 것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면서 상이나 양태 등 문법소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문법소는 기능적 요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사용되었던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1. '-어지다'의 문법화

'-어지다'의 문법화는 '-디->-지->-어 지(디)->-어지다'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하면 15 세기에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던 '-디-'는 '상태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디'는 구개음화의 음운 변화를 거쳐 '-지-'에 이르렀고, 다시 의미 범위가 확대되면서 태, 상, 양태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정택(2001)의 논의를 통해 15 세기 '-디-'의 용법에 대해 알아보련다.

(8) ㄱ. 이베 들면 노가디ᄂᆞ、니라 (월석 7 42:1)
ㄴ. 내 心肝이 ᄡᅴ야디여 더ᄫᅳᆼᄂᆞ 피ᄅᆞ、ᄅᆞ 吐ᄒᆞ、며 (월석 10 24:2)

이정택(2001: 120)에 의하면, 예문 (8)의 '-디-'는 '상태 변화'를 의미하면서 자동사 및 타동사와 결합하였다. 그러나 이정택(2001)에 의해 '-디'가 자동사와의 결합이 극히 적다는 것이 밝혀졌다[7].

7 이정택(2001: 121)에서 '-디-'는 자동사 및 타동사와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었다. 이는 15세기 이전 먼 과거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분류가 엄격하지 않아 두루 어울릴 수 있었고 그 결과로 15세기의 '-디-'도 자타동사와 어울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태 의미'를 뜻할 경우 자동사 범주와는 잘 어울렸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범주와 제약이 많았다. 16세기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으나 16세기 말 문헌에는 '-디-'와 형용사와의 결합이 나타났고 17세기 이후에는 생산성이 확대되어 타동사, 자동사 및 형용사와도 두루 결합이 가능하다.

‘-디-’는 구개음화를 거쳐 ‘-지-’로 변화였으며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 -거(어), -가(아)’와 결합할 수 있었다. 즉 ‘지다’는 연결 어미에 의해 보조 용언으로 실현되었다.

(9) ㄱ. 太子 ㅣ 門 밧글 보아 지라 ᄒᆞ야시ᄂᆞᄅᆞ (석상 3:16)
ㄴ. 아비 보라 니거 지라 (월석 8:101)
ㄷ. ᄒᆞᄂᆞ 말 니ᄅᆞ고 죽가 지라 니ᄅᆞ라 ᄒᆞ니 닐오ᄃᆡ (삼행 忠 15)
ㄹ. 태자 ㅣ ᄌᆞ조 王ᄭᅴ 出家ᄒᆞ야 지ᅀᅵ다 ᄉᆞᄅᆡ거시ᄂᆞᄅᆞ (석상 3:23)

허웅(1975: 430)에서 인용한 예문 (9)는 본용언에 ‘-아 지다, -어 지다, -거 지다, -야 지다’가 붙어서 보조 용언이 된 경우인데, 이는 현재까지도 보조 용언으로 다루고 있다. 나찬연(2016: 91-92)의 논의에 의하면 ‘지다’와 결합한 연결 어미 ‘-아/어’는 15 세기에 확인법[8]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어지다’에 상태 변화와 확인의 어원적 의미가 남아 있다고 본다.

‘-어지다’를 기동상으로 보는 대표적인 논의에는 서정수(1994), 우인혜(1997)가 있다.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자동사가 ‘-어지다’와 결합할 경우에 능동문과 피동문을 모두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어지다’를 피동으로 보면 능동문도 피동문으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기동성’을 ‘-어지다’의 자체 특성으로 규정하여 자동문이 피동성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였다.

(10) ㄱ. 감이 익고 있다.
ㄴ. 감이 익어 지고 있다.
(11) ㄱ. 나는 요즈음 친정에 잘 가지 않는다.
ㄴ. 나는 요즈음 친정에 잘 가지지 않는다.

서정수(1994: 647)에 따르면, 예문 (10)에서 ‘-어지다’가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에 자동사 자체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어지다’를 피동으로 규정하면 (10 ㄴ)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어지다’를 ‘기동상’으로 보면 예문 (11 ㄴ)과 같이 주어 자체가 능동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어지다’의 첨가로 피동성이 두드러진다[9]. 따라서 피동성은 기동성 자체의 특성으로 말미

8 나찬연(2016: 92)에서 15세기 확인법 선어말 어미의 다양한 형태와 변이 형태를 제시하였다.

실현 환경	확인법 선어말 어미의 형태
타동사, ᄒᆞ-	-아-/-어-, -야-
비타동사, 오-	-거-, -나-
화자 주어	-가-

9 서정수(1994: 645-647)에서 기동상은 ‘상태 변화의 시작’에 초점이 놓인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태성이

암은 것이지 피동문 변형이 아니라고 보고, '-어지다'를 피동 기능 요소보다 기동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상태 변화'로 주장한 논의에는 박성종(1984), 손세모돌(1996), 이정택(2004), 전영철(2008) 등이 있다.

(12) ㄱ. 몸이 점점 {a.*가볍다 / b.가벼워진다}.
ㄴ. 일이 갈수록 {a.*놀랍다 / b.놀라워진다}.
ㄷ. 하늘이 점차로 {a.*시커멓다 / b.시커매진다}

예문 (12)에서 손세모돌(1996: 253)은 형용사가 고정된 상태나 속성을 의미하기에 [+점진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사어 '점점, 갈수록, 점차로'와 충돌하기에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상태 변화'라고 주장하였다[10]. 이는 예문 (12 ㄱ,ㄴ,ㄷ)의 a 와 b 의 비교에서 보아 낼 수 있다. 즉 형용사에 '상태 변화'의 의미 자질이 첨가되는 것은 '-어지다' 때문이다. 전영철(2008: 85)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어지다'가 상태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같은 문맥을 취하였다.

'-어지다'를 인식 양태에서 다룬 논의에는 박재연(2007)이 있다. 즉, 양태 의미를 '능력'과 '무의도'로 규정하면서 최현배(1937/1961)에서의 '할 수 있음'과 '절로 됨'의 의미와 대응된다고 제시하였다.

(13) ㄱ. 보조 기구를 쓰고부터 그녀는 걸어졌다.
ㄴ. ?한약을 끊었으니 이제 양약이 먹어진다.
(14) ㄱ. 나도 모르게 비아냥거려지더라.
ㄴ. 느린 걸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걸음이 빠르게 걸어졌다.

박재연(2007: 279-287)에 의하면 예문 (13)은 '외부, 내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하고 (14)는 부사어 '나도 모르게, 저절로'와 잘 호응하여 주어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어지다'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완성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능력' 의미로, '행위자에게 행위의 완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무의도'로 주장하였다.

과정성으로 막 바뀌는 점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경우에 사용됨으로 기동상적 변화는 일종의 과정성 변화에 해당한다. 이런 과정성 변화는 주어를 수동자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내는데, 특히 주어가 사람일 경우 능동성을 잃게 하고 피동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피동적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10 손세모돌(1996: 251-252)은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해석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태 변화'를 기본 의미로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타동사 외에 '-어지다'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용사에는 근본적으로 '피동'의 뜻이 없으므로 피동'이라는 적은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은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기본 의미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태 변화'를 '-어지다'의 기본 의미로 보는 근거는 '피동'과 '기동' 그리고 심리적인 태도 등을 '상태 변화'로부터 설명될 수 있고 그 사용범위도 더 넓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들을 검토하면, '-어지다'는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는 본질적인 의미나 기본 기능을 설정함이 없이 표면적 용법에 의해 분류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어지다'의 여러 용법에서 기저가 되는 의미를 추출해야만 타당성 있는 논의를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도 손세모돌(1996), 전영철(2008)의 입장과 같이 하여 '상태 변화'를 '-어지다'의 기본 의미로 보고자 한다. '상태 변화'는 전체 과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작점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면 '기동상' 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의도가 있으면 '능력', 의도가 없으면 '무의도'를 나타낸다. 또한 기동상적 변화도 결국은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데, 이런 과정성 변화는 주어를 수동자로 만드는 효과에서 결과적으로 피동문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11].

이상의 논의를 거쳐, '-어지다'는 '피동'을 나타내는 태, '기동'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상, '능력', '무의도'를 나타내는 양태의 범위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어지다'는 기능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원어인 '-디-'의 영향을 받아 '상태 변화'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5 세기 확인법으로 사용되던 연결 어미 '-아/어'의 영향을 받아 '-어지다'는 화자의 확신[12]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이중 피동 표현에 나타나는 '-어지다'의 양태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환유-은유 모형에 의해 설명하고자 한다.

3.2. '-어지다'의 양태 의미와 재분석

문법화 과정을 통해서 '-어지다'는 '상태 변화'라는 어원적 의미가 양태 의미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을 앞서 확인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중 피동 표현에서 '-어지다'가 과연 '능력'이나 '무의도'를 나타내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박재연(1999)의 인식 양태의 범주의 영역을 근거로, '-어지다'가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그 양태 의미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 예문 (15)와 같다.

(15)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ㄱ. 정보의 확실성 정도: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ㄴ. 정보의 출처: [지각], [추론], [인용]

ㄷ.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ㄹ.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기지가정], [미지가정]

박재연(1999: 203)의 논의에 따르면, 이는 전통적인 인식 양태의 범주 의미 영역, 즉

11 기동상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자세한 원인은 서정수(1994: 647)를 참고하기 바람.

12 최란·조경순(2017: 48-49)에서 화자의 강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신'으로 규정하고자 함을 자세히 논의한 바가 있다.

화자가 자신의 정보를 말하고자 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외에 화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 정보의 성격,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 요소가 고려되었다. ‘-어지다’의 양태 의미는 예문 (15)에 근거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6) ㄱ. 커튼을 걷으니 방이 환해졌다.
[환하지 않음] → [환함]
ㄱ′. 방이 환해졌다.
[결과적 변화]

ㄴ. 운동을 하다더니 영희는 날씬해졌다.
[날씬하지 않음] → [날씬함]
ㄴ′. 영희는 날씬해졌다.
[결과적 변화]

이중 피동 표현에서 ‘-어지다’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즉 (16 ㄱ)에서는 [환하지 않음]에서 [환함]으로의 변화, (16 ㄴ)에서는 [날씬하지 않음]에서 [날씬함]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변화 이전과 이후의 경험 비교에서 화자의 확신을 의미한다. (16 ㄱ′, 16 ㄴ′)과의 비교에서,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커튼을 걷다, 운동을 하다’와 같은 전제가 있으면 확신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어지다’는 정보의 확실성에서 [확실성], 정보의 출처에서 [지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17) ㄱ. ?첫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야.
ㄱ′.첫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야.
ㄴ. 철수가 난리여서 잔치는 발칵 뒤집혔다.
ㄴ′. 철수가 난리여서 잔치는 발칵 뒤집혀졌다.

예문 (17 ㄱ′,ㄴ′)는 ‘-히-’계 접미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문장이다.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동의 의미는 ‘-히-’계 접미사에 의해 나타난다. 이에 ‘-어지다’가 결합되면 화자는 잊혀지는 상태와 뒤집혀지는 상태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확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청자의 인지 상황은 파악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어지다’는 정보의 확실성에서 [확실성], 화자의 내면화 정도에서 [이미 앎]을 나타내지만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은 알 수 없다.

예문 (18)에서는 ‘분명히, 훨씬, 잘’과 같은 부사어와 결합하여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

(18) ㄱ. 머리를 자르더니 순이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졌다.
ㄴ. 안경을 쓰니 무등산이 훨씬 잘 보여진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지다’의 양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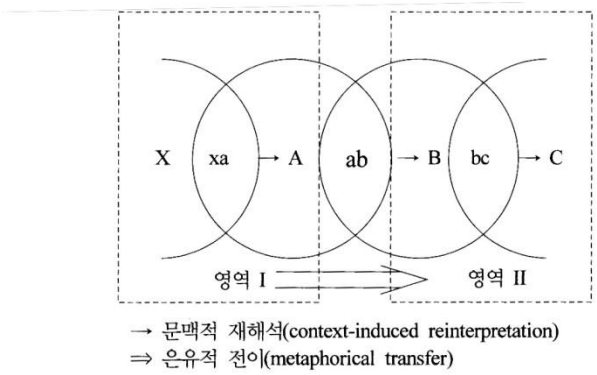
(19) **'-어지다'의 양태 의미 영역**

ㄱ. 정보의 확실성 정도: [확실성]

ㄴ. 정보의 출처: [지각]

ㄷ.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이로부터 [확실성], [지각], [이미 앎]의 의미 영역을 통해 '-어지다'가 '확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확신'의 의미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 더 분명하다. 아래에는 환유-은유 모형으로 '-어지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림 1> 환유-은유 모형

이성하(1998: 299)에서 제시한 환유-은유 모형은 작은 원의 점진적인 이동과 사각형 간의 이동으로 나뉜다. 원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는 환유적 과정으로서 연속적으로 의미 중복을 발생시켜 연쇄 구조를 갖는 것이고, 사각형에 의한 이동은 은유적 과정으로서 하나의 인지적 영역에서 다른 인지적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유-은유 모형은 미시와 거시의 구조가 잘 조화되어 문법화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어지다'의 문법화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의미 변화: 상태 변화 > 기동, 상태 변화 > 확신

범주 변화: 보조 용언 > 태 > 상 > 양태

'-어지다'의 어원어인 '-디-'는 보조 용언으로 '상태 변화'를 나타내던 것이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피동을 나타내는 태, 기동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어지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중 피동을 나타내게 되면서 '확신'의 의미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다만 '-어지다'에 '-디-'의 기능적 요소가 남아있기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전제가 있을 경우 '확신'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결 론

본고에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졌던 '-어지다'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점차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던 보조 용언 '-어지다'는 피동 접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타동사들을 강구하기 위하여 피동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피동'으로 설정하**료**면 자동사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능동문도 피동으로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지다'의 기본 의미를 '상태 변화'로 보았다.

'상태 변화'에 대한 '-어지다'의 기본 의미는 문법화 과정을 통하여 거시적으로, 범언어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15 세기에 '상태 변화'를 나타내던 어원어인 '-디-'는 변화 과정에 태, 상,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소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다'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소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태를 나타내는 '-어지다'에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전제가 존재할 경우에 화자의 '확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지다'의 '확신'은 [확실성], [지각], [이미 앎]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는 환유-은유 모형으로 규명하였다.

<참고문헌>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박이정.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나찬연(2016), 「15 세기 국어에 쓰인 '-아 지다'의 문법적 성격」, 우리말연구(47), 우리말학회, pp.85-109.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박이정.

박덕유(2017), 『이해하기 쉬운 문법교육론』, 역락.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34), 국어학회, pp.199-225.

박재연(2007), 「보조용언 구성 '-어지-'의 양태 의미에 대하여」, 국어학(50), 국어학회, pp.269-293.

서정수(1994), 『국어 문법』, 집문당.

성광수(1976), 『국어 간접 피동에 대하여』, 문법연구(3), 탑출판사.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유연(2015), 「한국어 '[X]ADJ+어지다'의 의미 연구」, 국어학(74), 국어학회, pp.339-365.

이관규(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역락.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정택(2001), 「'-지(디)-'의 통시적 변천에 관한 연구」, 국어학(38), 국어학회, pp.117-134.

이정택(2004), 『현대 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임홍빈(1982), 선어말 「'-더-'와 단절의 양상」, 관악어문연구(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433-475.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전영철(2008), 「소위 이중피동에 대하여」, 언어학(5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pp.79-101.

최경봉·김윤신·이동석·주세형(2017), 『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육론』, (주)창비교육.

최란·조경순(2017), 「'-었$_1$ 었$_2$ -'에서 '-었$_2$ -'의 양태 의미에 대한 연구」, 어문론집(72), 중앙어문학회, pp.35-69.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fe, W. & J. Nichols eds. 1996.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ewierska, A. 1984. The Passive: a Comparative Linguistic Analysis. Dover, N. H.: Croom Helm.

품사분류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개화기이후의 연구서를 중심으로

안해련

(중앙민족대학교)

초록: 한국어의 문법체계는 크게 종합적체계, 준종합적체게, 분석적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주요하게 품사를 분류에 있다. 한국어 품사분류에 대한 연구는 우리말 문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문법이 연구된 시기를 강신항(1988)을 참고하여 편의상 초기문법학자의 연구시기(1908~1929), 규범문법의 확립과 역사문법의 연구시기(1930~1945), 과학문법의 토대 확립시기(1945~1960)로 나누어 각 시기에 활동했던 학자들의 연구서를 살펴보면서 한국어 문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각 시기 학자들이 주장하는 품사분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품사분류, 문법, 문법체계

1. 들어가며

개화기 이후 우리 민족에 의해 진행된 한국어문법의 연구시기를 대체로 초기문법학자의 연구시기(1908~1929), 규범문법의 확립과 역사문법의 연구시기(1930~1945), 과학문법의 토대 확립시기(1945~1960)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갑오경장이 시작된 후 최광옥, 유길준 등에 의하여 한국어는 문법체계가 서기 시작하였고, 주시경에 와서 근대 과학적인 말본 체계가 거의 확립되었다.[1] 주시경 이후 1950 년 이전(신 언어학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를 보면, 김희상, 최현배, 김윤경, 김두봉, 안확, 이상춘, 박승빈, 정열모, 정인승, 심의린, 이희승을 비롯하여, 그 밖에 수많은 말본 학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본체계는 모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품사의 분류가 다름에 따라 문법체계를 크게 종합적 체계, 준종합적 체계, 분석적 체계의 세 가지 말본체계로 분류할 수

1 김석득, 「우리말 연구사 – 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 태학사, 2009, 437쪽

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연구시기에 따라 각 문법 연구시기에 활동했던 학자들의 연구서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어 문법의 발전과 각 시기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국어의 품사분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초기 문법학자들의 연구(1908~1929)

근세 이전에도 종종 문법적 서술이 있었지만, 그것은 거의 서구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종래에 그러한 문법이 없었던 까닭이다. 1897 년 서양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 이봉운의 초기 문법 저서「국문정리」가 출현하긴 하였으나 그 책에 제시된 동사 '하다'의 활용법을 설명한 '어토명목' 21 종은 비록 문법적 항목하에 용례가 나열되었으나, 그 책의 내용은 너무 빈약하였다.[2] 1900 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어 문법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안으로는 선교사들의 업적을 참조하고, 밖으로는 주로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서양의 전통문법을 발판으로 삼아 정서법 제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했다. 따라서 규범문법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문법체계에는 음성론, 품사론, 문장론 외에 문자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연구 경향은 한국어의 형태적 구조를 해명하여 품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치고, 조사와 어미를 독립된 단어로 인정하는 분석적 체계(제 1 유형)에 있었는데 대표적 문법가들은 유길준, 김희상, 주시경 등이었다.

2.1. 유길준의 연구

구당 유길준은 우리말 문법연구를 1881 년 동경유학 때부터 시작했다. 일본에서 집필하여 간행한 유인본「조선문전」은 최초의 우리말 문법서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조선문전」은 고유한 언어문자가 있음에도 이를 응용한 문전이 없음을 한탄하고, 객관성을 띤 세계사적 언어관에서 서구처럼 문법을 세워서 우리말을 확립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리하여, 라틴문법의 체계에 따라 우리말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조사), 접속사(조사, 어미), 감탄사의 8 품사로 나누고, 구문요소를 주어, 설명어, 객어, 수식어 4 종으로 구분하였다. 이 문법서의 특징은 초기문법이 흔히 범하기 쉬운 서구문법의 모방에 빠지지 않고,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1909 년에 출판된「대한문전」도 같은 특징을 가고 있으나, 내용이 증보되고 훨씬 조직화 되었다. 종전의 후사를 접속사에 합치고, 부사의 명칭을 첨부사로 고치고, 조동사를 새로 독립시켰으며, 객어에서 표준객어를 떼어 보조어를 세운 점 등이 큰 수정이다.[3]

[2] 강신항,「國語學史」, 보성문화사, 1988, 223쪽
[3] 김민수,「新國語學史」, 일조각, 1985,2, 215쪽

2.2 주시경의 연구

한힌샘 주시경은 초창기 3대 문법가 가운데서 우리말 문법에 대한 이론이 가장 뛰어났으며, 그 뒤의 문법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민족주의적 언어관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우리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독특한 문법수립에 정성을 다하였다.

현존하는 저술을 종합하면, 그의 저서「국어문법」(1910)에서는 품사체계를 9품사로 정하였으나 그 후 상당한 변천을 거쳐서 「말의 소리」(1914)에서는 최종 6 품사로 줄이게 되었다. '엇'과 '놀'을 '임'에 통합시키고 '언'은 없앴다. 주시경의 품사체계의 경위를 표로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

周時經의 品詞分類發展表[4]

國語文法 (1905)	言分	名號	警覺	(形名)	(形動)	形容	動作	引接	開接	助成	7
말(1908)	言體	名號		(形名)	(形動)	形容	動作	引接	開接	助成	7
高等國語文典 (1909)	語體	名號	感動	形名	形動	形容	動作	開聯	接續	完句	9
國語文法 (1910)	기난	임	놀	언	억	엇	움	겻	잇	끗	9
말의 소리 (1914)	씨난	임				엇	움	겻	잇	끗	6

주시경의 문법의 특색은 순 우리말로 문법용어를 쓰고 품사분류의 단위로 '기'을 설정한 것이다. 우리말이 근대 언어학의 방법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주시경(1910)부터이다. 물론 앞에서 논의한 유길준(1909)도 있으나 이는 아직 그 연구 방법이 자리를 잡지 못하여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하였다.[5]

2.3 김희상의 연구

한빗 김희상은 학교에서 공부한 영어문법을 1901 년 방학에 복습삼아 번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유길준의 대한문전과 같은 해에 초등교육용 「초등국어어전」3 권을 저술하였고, 다음 해에는 그 재판이 나왔다. 이 책은 뒤에「조선어전」(1911)과「울이틀글」(1972)로 다시 정리되어 나왔다. 그는 품사분류에서 토를 통합하여 줄곧 7 개(명사, 대명사, 동

[4] 김민수, 앞의 책, 217쪽
[5] 허웅,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1995. 107쪽

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토)로 하였는데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토로서, 이것이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며 쓰이는 환경이나 관계에 말미암아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아래와 같다.

吐의종류	助吐	格位吐	主位吐 - 이, 가; 客位吐 - 을, 를
		轉成吐	의, 인, 에, 의, 에게; 는, 게, ㄴ, ㄹ, 도록
		意味吐	갯, 지, 고십흐, 시, 엇, 드
	接續吐		과, 와, 고, 니, 면, 서, 거니와, 나, ㄹ지언정, 지만
	終止吐	評述吐	다, 네, 아, 오, 압니다, 으이, ㄹ세
		疑問吐	느냐, 니, 나, 아, 오, 압니가, 냐, ㄴ가
		共動吐	자, 세, 아, 압시다, 시지오
		命令吐	나라, 게, 아, 오, 압시오
	感歎吐		아, 그려, 랑, 구나, 아말노, 야
	變動吐		는, 은, 만, 도, 나, 까지, 라도, 인들

이 중에서 도움토의 '가, 이, 을, 의, 는, 에, 과' 등은 학교문법에서도 조사로 다루어지면서 하나의 품사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움토에서 조사로 다루어지는 '는, 게 …' 등이나 종결토, 감탄토 등은 조사로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도움토에서 다루어진 '는, 을'은 관형사형 어미로, '게, 고,'는 부사형 어미, '는, 었, 드, 겠, 시, 오'등은 보조어간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이며, 종결토나 감탄토는 모두 종결어미로 다루어지는 것들이다. [6]

이렇게 보면 김희상의 토는 학교문법의 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어간과 종결어미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4 주시경 이후의 연구

주시경 이후 주시경 문법을 계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법가들은 김두봉:「조선말본」(1916, 1922 년, 수정판), 이규영:「現今朝鮮文典」(1920), 이상춘:「朝鮮語文法」(1925), 김원우:「朝鮮正音文典」(1922), 이규방:「新撰朝鮮語法」(1923), 강매・김진호: 「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1925) 등이고, 계통을 달리한 문법가들은, 안확:「조선문법」(1917), 이필수:「鮮文通解」(1922), 이완응:「中等教科朝鮮語文典」(1922) 등이 있다.[7]

주시경 문법에 대한 전승과정도 단순치 않아, 김두봉, 이규영 등은 '겻, 잇, 끗'등과

[6] 김동현, "국어 품사 분류 연구", 「論文集 (PYONGTAEK REVIEW), 10(1998)
[7] 강신항,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1988, 231쪽

‘언’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상춘, 김원우, 이규방은 ‘언’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강매, 김진호는 우리말 용어만 계승한 듯 하고 내용은 이전의 문법서를 다 참고한 듯한 면이 농후하다.

안확(1917)은 주시경 계열의 문법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문법용어를 한자어로 바꾸고 대명사, 수사를 독립 품사로 인정하고 있다. 또 ‘잇, 겻, 끗’을 한데 묶어 조사로 처리했다. 1929 년에 출판된 이완응의「중등교과 조선어문전」은 처음으로 당국의 검정을 받은 고등보통학교용 교과서로 널리 쓰인 책인데, 일본학자의 체계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주시경 이후의 학자들의 품사체계를 정리한 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8]

주시경 이후 국어문법의 품사분류표

김두봉 1916	임씨	(임씨)	움씨	얻씨 언씨	억씨	늑씨	겻씨	잇씨	맺씨	9
이규영 1919	임	(임)	움	얻, 언	억	늑	만, 금	잇, 금	만	9
이규영 1920	임씨	(임씨)	움씨	얻씨 언씨	억씨	늑씨	겻씨	잇씨	맺씨	9
이상춘 1925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冠詞	副詞	感歎詞	助詞	接續詞	終止詞	10
김원우 1922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感歎詞	關係詞	接續詞	完結詞	9
이규방 1923	名詞	(名詞)	動詞 禁止詞	形容詞	副詞 不定詞	感歎詞 呼應詞	助辭	接續詞	助動詞	11
강매 1925	이름말	(이름)	움즉임말	꼴말	꿈임말 잇	늒임말	도음말	(잇음)	(도음)	7
안확	名詞	代名	動詞	形容	副詞	感動	助詞	(助詞)	(助詞)	10

[8] 김민수, 「新國語學史」, 일조각, 1985, 224쪽, 263쪽

1917		詞 數詞	助動詞	詞	接續詞	詞				
이필수 1922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副詞	感嘆詞	助詞	接續詞	完結詞	9
이완응 1929	名詞	代名詞 數詞	數詞 存在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詞	助用詞	(助詞)	11

초기 문법가들의 주된 관심이 국어정리에 있기는 하였지만, 국어의 구조해명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이 세운 문법체계는 품사론 중심의 규범문법체계였으나, 주시경 학파에 의하여 조사와 어말어미가 분간되고, 보조어간으로 불리는 선어말어미가 식별되었으며, 근원형태소까지도 분석해냈다.

주시경 이후에는 그의 문법을 계승한 문법가들과 계통을 달리 하는 문법가들이 수많은 문법서를 내었으나, 공통된 목표가 규범문법의 확립과 표기방법의 해결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주로 주시경 학파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이를 응용하여 1933 년 10 월 29 일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발표되었다.[9]

3. 규범문법의 확립과 역사문법의 연구시기(1930~1945)

이 시기는 규범문법이 확립된 시기로서, 문법체계에서 문자론이 제외되어 음성론, 품사론, 문장론의 3 부체계가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도 외국문법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비판적인 안목에서 수용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초기와는 달리 조사만 독립단어로 인정하고 활용어미는 단어의 한 부분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준종합적체계(제2유형)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법가들로는 박승빈과 최현배가 있고 서양인으로는 람스테트(G.J. Ramstedt)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민족의 학자들의 연구를 주요하게 다루기에 서양인의 연구는 취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3.1 박승빈의 연구

박승빈(1884~1941)은 「조선어학강의요지」(보성전문학교 1931), 「조선어학」(조선어학연구회,1935), 「간이조선문법」(1937)을 저술하였는데, 이들은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대립하여, 조선어학연구회가 주장한 표기법을 뒷받침하는 이론서이기도 했다. 앞에서 이미 주시경의 문법이론과 다른 입장에 있었던 문법가들이 있었음을 보았는데, 조선어학연구회를 주도해 온 박승빈도 주시경과 그 후계학자들의 문법이론과 다른 입장

[9] 강신항,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1988, 233쪽

을 취하였다. 그의 문법은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용할만한 것이 많은 내용이었다.

그의 문법서 가운데 그의 이론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조선어학」을 중심으로 그의 학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문법학과 음운론의 영역이 서로 다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음운에 관한 부분을 문법에 앞세운 것은, 규범문법의 확립과 표기방법의 해결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의 구성단위를 단어와 문으로 정하고 단어의 종류인 품사를 다음과 같이 12 갈래로 나누고 있다. 그들은 명사, 대명사, 존재사, 지정사, 형용사, 동사, 조용사, 조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이다.

박승빈의 품사 체계는 도저한 분석적 체계이다. 그 이유는

(1) 용언의 이른바 보조용언(도움줄기)이 조용사라는 독립된 낱말이 되었다.

(2) 이른바 토씨나 씨끝이 모두 조사라는 낱말이 되었다.

(3) 따라서 이른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이 독립된 낱말로 인정되었다.

이상으로 보아, 이는 종래의 분석 체계보다 더 철저한 분석주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존재사는 이미 일본인들에게 주목되어 이미 이완응(1929)에 의하여 한 품사로 정립된 것인데 저자에 의해 다시 강조된 것이다. 지정사의 설정은 국어문법 연구사상 처음 보는 일이었다.

3.2 최현배의 연구

최현배의 국어문법연구의 동기는 20 세기 이전 주시경으로부터 국어문법을 배운 데 있다. 그때부터 20 여년에 걸쳐 국어음성학, 국어국문연구에 정진하여 1929 년에 「우리말본」첫째매를 발표하고,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기반이 된 「조선어품사분류론」(1930)을 내었다. 그의 품사분류론은 주시경의 문법이론을 크게 수정한 것이었고 박승빈까지 유지해 오던 전대의 분석적 설명법에서 독립품사로 인정하던 어미를 독립시키지 않고 새로운 준종합적 체계(제 2 유형)를 창설했다. 품사분류도 내외문헌을 널리 참조하여 스승과 다른 10 품사를 설정하였다. 그는 한글 맞춤법통일안에 기준한 「중등조선말본」(1934)을 내어 한국어문법 전반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였고 연구업적을 집대성하여 1937 년에 「우리말본」을 공간하였다. 1972 년까지 총 4 차에 걸친 수정이 있었으나 문법체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최현배의 10 품사에는 이름씨, 대이름씨, 셈씨, 움직씨, 어떻씨, 잡음씨, 어떤씨, 어찌씨, 느낌씨, 토씨가 있다. 최현배의 품사 분류는 단어의 구실, 꼴, 뜻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학교문법의 분류와 일치하다. 오히려 학교문법이 최현배에서의 분류에 의지한 것이어서 학교문법의 분류가 최현배의 분류와 거의 일치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잡음씨의 설정이 학교문법과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문법에서는 잡음씨를 인정하지 않고 최현배에서의 잡음씨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아 조사에 포함시키고 '아니다'는 형용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4. 과학문법의 토대 확립시기(1945~1960)

이 시기에는 전대의 규범적 연구방법을 반성하고 과학문법의 토대를 쌓아 왔다. 문법 체계에서는 음성론이 제외되어 품사론과 문장론의 2 부체계가 수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조사마저도 독립된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종합적 체계(제3유형)에 대한 논의가 비등했던 데 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문법가로는 정열모, 이희승, 이숭녕, 김민수를 꼽을 수 있다.

4.1 정열모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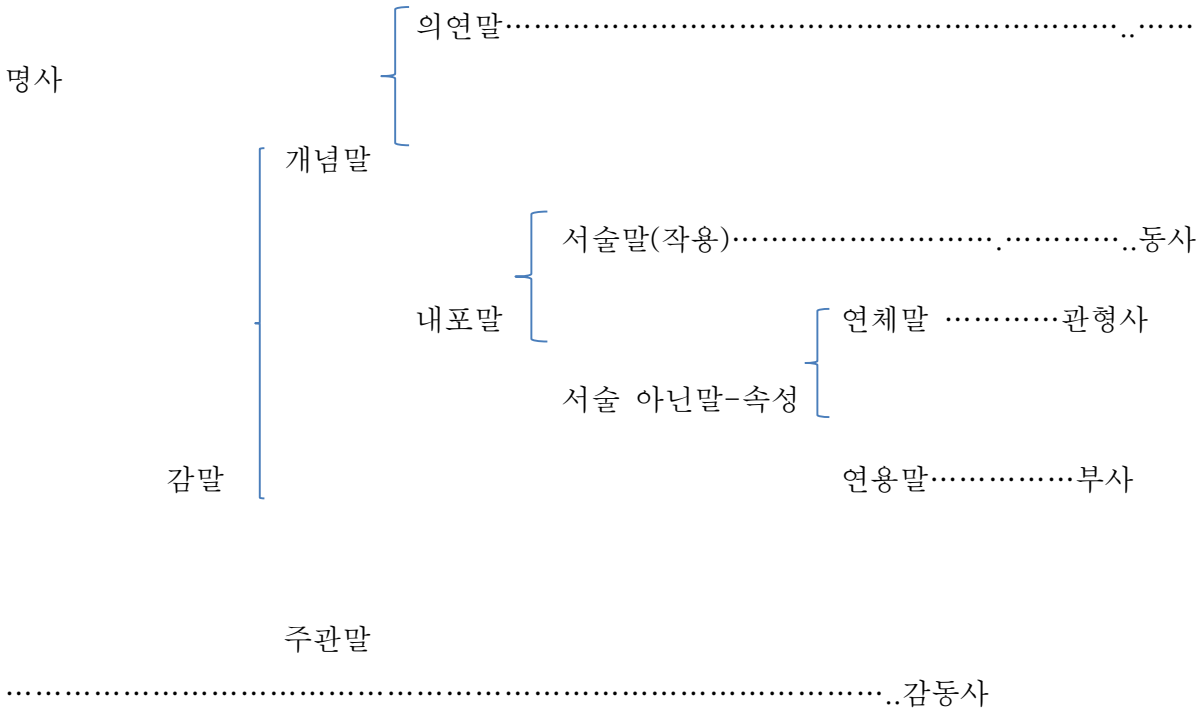
정열모는 1927 년「조선어문법론」(미완성)이란 논문을 통해서 그의 문법관을 밝힌 바 있는데 그의 한국어문법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1949 년에 나온「신편 고등국어문법」을 주목해야 한다. 이 책의 "머리에 두는 말"에는

"일본 대학원 대학 교수 마쓰시다 씨의 표준 일본문법이란 책을 읽어, …… 이 책의 조직은 전적으로 그를 모방한 것이다."
"나는 국어연구의 벽은 한힌샘 스승으로 말미암아 싹이 트고 ……"[10]

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보아 정열모는 주시경의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일본의 마쓰시다의 문법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현배의「우리말본」에서는 "말의 법칙으로서의 어법"이라고 했는데 정열모의「신편 고등문법」에서는 "말씀의 됨됨이에 매인 말의 법칙"이 문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규범문법에서 과학적 기술문법의 체계로 넘어가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러한 규범문법의 성격의 탈피는 음성론을 문법에서 제외시키는 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정열모 문법의 특징은 '낱뜻(辭)'와 '감말(詞)'의 구분, 그 갈말을 자재로 품사를 5 품사로 분류하여 최초로 종합주의 문법체계(제 3 유형)을 개척하였다. 여기서 낱뜻은 최소의미단위인 어소에 해당하고 감말은 최소자립형태소인 단어에 해당하며 낱뜻은 자립형인 으뜸낱뜻과 의존형인 도움낱뜻으로 구분이 된다. 그의 품사 분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10] 정열모, 「신편 고등 국어문법」, 한글문화사, 1946, 머리에 두는 말.



정열모의 품사 분류는 단어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하위 분류가 있으므로 다섯 개의 독립품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최현배에 의해 용언의 어미부가 단어의 한 부분으로 처리된 데 이어 정열모에 와서는 조사까지도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주시경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분석적 체계는 완전히 종합적 체계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4.2 이숭녕의 연구

이숭녕의 연구는 말본과 음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의 저서들로는「고어의 음운과 문법」(1949), 「고전문법」(1954), 「중등 국어문법」(1956), 「고등 국어문법」(1956), 그리고 15 세기 말본인「중세 국어문법」(1961)이 있다. 그의「고어의 음운과 문법」에서는 준종합적 체계에 의존하여 중세국어의 기술을 시도하고 있음에 대해 「고전문법」(1954)에서부터는 정열모로 소급할 수 있는 극단적 종합주의 설명법에 따르고 있다.

이숭녕은 품사를 '뜻', '구실', '형태 구조 및 어미 변화' 세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품사를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8 품사로 나누었다. 토와 어미는 품사로 정립되지 못하고, 말본의 체계 형성과 큰 관계가 있는 '존재사', '지정사', 그리고 '접속사'등이 부인되었다. '토씨'를 강력히 부인한 원인은 '명사'에 기본형이 있다고 보고 토나 어미가 붙는 것은 격변화와 어미활용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른바 종합주의 말본 체계의 특질을 이루는 것이다. '토'가 낱말이 아니다 함은 분석 체계, 준종합 체계와의 대립이고, 어미가 낱말이 아니라 함은 분석적 체계와의 대립이다.

'존재사'와 '지정사'의 부인은 박승빈, 이희승의 '존재사'설에 대립하고, '지정사'의 부인

은 최현배의 '잡음씨'설에 대립한다. 그 후 「중세 국어문법」(1961)에 가서 '지정사'는 '존재사'와 함께 '형용사'에 넣었다고 고쳐서 밝혔다.

4.3 김민수의 연구

김민수는 1954 년 「국어문법의 유형」이란 논문을 통하여 토(조사)와 어미에 대한 역대 문법가들의 처리를 개괄함으로써 국어 문법 연구의 3 유형(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을 설정한 일이 있으며, 이곳에서 앞의 정열모, 이숭녕과 같이 토와 어미를 다 같이 품사로 인정하지 않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어문법이 일반 문법적인 토대 위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수의 저술에서는 이전까지의 모든 업적을 일반문법적 관점에서 종합 비판함으로써 한국어문법을 과거와 같은 모방이나 국수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연구할 수 없음을 보였고, 뒤의 저술에서는 그 때까지 난맥상을 드러내 왔던 학교문법의 체계를 가급적 공정한 입장에서 정리해 보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그는 문법을 의미를 가진 언어단위인 문장이나 단어에 관한 구성법칙으로 정의하고, 문법의 영역도 품사론과 문장론으로 좁혔다, 김민수는 주시경과 같이 품사분류에 앞서서 문장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품사는 항상 문장을 전제로 하고 논의되는 것이므로 종합적인 문장을 다루고 분석적인 품사론을 뒤에 다룬다는 것이다.

김민수는 품사 분류는 단어의 문법적 기능을 중시하여 4 언 7 품사로 세웠는데 아래와 같다.

- 用言
  - 客語와의 호응으로 態를 가지는 것……動詞 (움직씨)
  - 客語와의 호응으로 態를 가지지 않는 것……形容詞 (그림씨)
- 體言 ……名詞 (이름씨)
- 副司言
  - 用言을 限定하는 것……副詞 (어찌씨)
  - 體言을 修飾하는 것……冠形詞 (매김씨)
- 相言
  - 接續하는 것 ……接續詞 (이음씨)
  - 獨立하는 것 ……喚投詞 (느낌씨)

김민수의 품사 분류는 학교 문법에서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는 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토로 다루면서 품사를 문법적 직능을 중심으로 나누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부동한 한국어문법연구의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문법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각 학자들의 품사분류를 중심으로 다뤘다. 그리고 각 학자들의 문법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문법체계간의 연결과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모든 학자들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내용이 많아,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만 뽑아 될수록 간단하면서도 그 중점을 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각 연구시기에 나타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각자의 특징을 보아낼 수 있고, 서로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모방으로부터 응용, 계승으로부터 발전을 거쳐서 오늘날의 우리말이 형성되었다.

<참고문헌>

강신항.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1988.

김민수. 『국어문법론』,일조각, 1974.

김민수. 『신국어학사』 일조각, 1997.

김석득. 『우리말 연구사 – 언어관과 사조로 본 발전사』,태학사, 2009.

이숭녕. 『고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1950.

이숭녕. 『중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1956.

정열모. 『신편 고등 국어문법』, 한글문화사, 1946.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

허웅. 『20 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1995.

김동현. “국어 품사 분류 연구”, 「論文集」(PYONGTAEK RERIEW),1998

김민수. “國語文法의 類型”, 「국어국문학」, 1954

오이 히데아키, “20 세기 초 한국어 문법 형성사 연구: 일본 문법과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양근용, “근대국어학 형성기의 언어의식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실험 연구

-중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유미

(전남대학교)

1. 서론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단어들이 무작위로 얽혀 있지 않고 어떤 체계 속에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머릿속 사전(mental lexicon)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의 가정이다(Aitchison, 2012; Read, 2004).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단어들 속에서 특정 단어를 그토록 빠르게 인출해내는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단어들이 저장된 추상적 공간으로 상정하는 머릿속 사전은 인간의 언어 능력을 설명해줄 대상으로 이론언어학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과 언어 처리 등을 연구하는 심리언어학, 신경언어학 등의 분야에서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제 2 언어 교육에서는 L1 과 L2 머릿속 사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Jiang, 2002; Kroll&Stewart, 1994; Pavlenko, 2009), L1 화자와 L2 화자의 어휘 조직을 비교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왔다(Nissen&Henriksen, 2006; Namei, 2004; Sökman, 1993; Wolter, 2001). 최근에는 L2 화자의 머릿속 사전이 L1 화자의 머릿속 사전과 같은 모습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달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Hahn, 2014:28). 다만 그 대상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단서나 인위적 도구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Aitchison(2012)에서는 머릿속 사전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 뒤지기(word search), 말실수(slips of the tongue), 언어 장애, 뇌 검사, 전자 데이터베이스, 심리언어학적 실험, 언어학에서의 연구 등을 들었다. 이처럼 머릿속 사전은 여러 단서와 방법들을 통해 어휘 발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어휘 교육 연구에서는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강현화, 2012:8-9), 인지심리학과 의미 연구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임지룡, 2014:92).

머릿속 사전의 어휘 조직, 즉 단어들의 연결망에 관한 연구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 변화하는 L2 화자의 어휘 조직을 분석하거나 L1 화자와 L2 화자의 어휘 조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단어들의 연결망[1]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1] 단어 연상 연구에서는 ‘network’나 ‘web’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머릿속 사전의 구조를 묘사하기도 한다(Aitchison, 2012; Meara, 2006). 단어들의 연결망 속에 단어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전

방법이 심리언어학적 실험의 하나인 단어 연상 실험(word association test)이다. 단어 연상 실험은 자극어를 제시하고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연상어를 수집하여 자극어와 연상어의 관계를 근거로 머릿속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추론하는 실험 도구이다. 따라서 이 실험은 자극어와 연상어가 머릿속에서 강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며, 그 관계는 주로 통합적(syntagmatic), 계열적(paradigmatic), 음운적(phonological/clang) 관계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L2 화자의 어휘 조직 연구는 L2 습득 과정에서의 중간언어(interlanguage)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L2 화자의 어휘 습득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주로 어휘 능력 발달에 있어서 어휘 지식의 양과 깊이에 관심을 두었고(Schmitt&Meara, 1997; Wesche&Paribakht, 1996), L2 화자의 어휘 조직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Cui, 2009:57). 하지만 최근 20 년 간 여러 연구들을 통해 머릿속 사전의 어휘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어교육에서는 여전히 오류 분석을 통한 오류 유형 범주화와 빈도 분석에 의존한 어휘 습득 연구를 보여 주고 있다(강현화, 2013).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를 파악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간언어에서 보이는 어휘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조직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단어 연상 실험을 사용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기억하는 단어들이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제 2 언어 습득에서 단어 연상 실험을 활용한 연구는 1960 년대부터 이루어진 L1 화자의 언어 발달 연구에서 파생하였다(Fitzpatrick&Munby, 2014:95). L1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통합적 연상, 계열적 연상, 음운적 연상의 전통적 분류를 사용하여 각 연상 반응의 빈도를 통해 L1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어휘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rvin(1961)에서는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 있는 유치원생과 1 학년, 3 학년, 6 학년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상 반응을 비교하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열적 연상 반응이 높아지고 음운적 연상은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였고(Brown&Berko, 1960; Entwisle, 1966), 모어 화자들에게서 계열적 연상어는 줄어들고 통합적 연상어가 늘어나는 경향을 s-p 이동(syntagmatic-paradigmatic shift)이라고 부르며 이를 언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었다[2].

시켜 최근에는 머릿속 사전을 복잡계(complex system)로 설명하기도 한다(최형용, 2013).

[2] s-p 이동은 일반적으로 5~10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며(Brown&Berko, 1960; Enrvin, 1961),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6~10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Namei, 2004).

L1 화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L2 화자 연구에 적용되었다. L2 화자 역시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 모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s-p 이동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를 숙달도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Namei, 2004; Söderman, 1993; Orita, 2002). Söderman(1993)에서는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어 연상 실험을 진행하여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계열적 연상은 증가하고 음운적 연상과 통합적 연상은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되었고, Namei(2004)에서도 마찬가지로 L1 화자와 L2 화자의 어휘 조직이 비슷한 패턴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3]. 하지만 Namei(2004:382)는 이와 같은 결과가 머릿속 사전 전체의 어휘 조직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기보다는 개별 어휘의 지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후 연구에서는 L1 화자와의 유사성보다는 개별 단어(자극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머릿속 단어들의 연결이 어떤 관련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개별 단어에 대한 지식(Namei, 2004; Wolter, 2001), 빈도(Söderman, 1993; Wolter, 2001), 품사(Nissen&Henrikson, 2006; Sökmen, 1993) 등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것이다.

Namei(2004)와 Wolter(2001)는 L1 과 L2 화자를 대상으로 한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해 단어 지식(친숙도) 수준이 높은 자극어에는 통합적, 계열적 연상이 높게 나타나고, 지식 수준이 낮은 자극어에는 음운적 연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Wolter(2001)은 추가적으로 L1 화자에게 저빈도의 자극어로 단어 연상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고빈도 자극어보다 저빈도 자극어에 음운적 연상이 3.8 배 높게 나타나서 자극어의 빈도가 연상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Nissen&Henriksen(2006)은 자극어의 품사에 따른 연상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덴마크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L1(덴마크어)과 L2(영어)로 단어 연상 실험을 진행하였고, 품사에 따른 L1 과 L2 의 연상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1 과 L2 의 연상어 모두 명사 자극어에는 계열적 연상 반응이 많았고, 동사와 형용사 자극어에는 통합적 연상 반응이 많았다. 그리고 L1 에서의 통합적 연상(54%)이 계열적 연상(32.8%)보다 높게 나와 s-p 이동 개념이 재고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정리하자면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한 어휘 조직에 관한 연구는 L1 화자의 나이, L2 화자의 숙달도 뿐만 아니라 개별 단어의 특성 또한 연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러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하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나 한국어 학습자의 연상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많지 않은데, 최근 한국어교육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이 있다.

신재윤(2012)에서는 구체 명사 10 개, 추상 명사 10 개를 자극어로 선정하여 자극어의 의미 속성(구체, 추상)이 연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의미 속성이 연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3] Wolter(2001:73)에서는 Söderman(1993)에 나타난 통합적 연상의 감소가 무시해도 될 만큼의 정도라고 설명하며 s-p 이동이라는 개념보다 '의미론적으로 무의미한 반응(음운적 연상, 기타 연상)'에서 '의미론적으로 유의미한 반응(계열적, 통합적 연상)으로의 이동'이 L2 화자의 연상 반응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결론을 제시하였지만 20 개의 자극어 숫자는 선행연구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며[4], 숙달도의 분류 기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 절차에서의 보완점이 발견되었다.

Kim(2011)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반응을 연어를 중심으로 비교하였고,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이 한국어 학습자 집단보다 연어를 연상하는 빈도가 2 배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실에서의 연어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0 개의 적은 숫자의 자극어만을 선정한 점과 분석 방법에 있어 단순 빈도만을 사용하여 통계적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김은혜(2012)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국적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해 품사별, 공통 연상어의 빈도별, 연상 관계별 차이를 비교한 후 연상을 활용한 어휘 의미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실험 집단이 16 개국 국적의 다양한 모어 배경을 가진 학습자라는 점과 함께 Kim(2011)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 통계적 차이를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5].

선행연구에 나타난 방법론적 문제를 보면 연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논의된 모어, 숙달도, 자극어의 숫자 등이 통제되지 않았거나 고려되지 않은 채로 연구되었고, 실험 결과를 단순 빈도만으로 비교하여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 내용을 보면 L1 과 L2 의 비교, L2 의 숙달도에 따른 비교 등을 통해 어휘 조직의 유사성과 차이를 규명하려는 여러 논의가 있었음에도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단어 연상 실험의 방법론적 문제들과 내용상의 보완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연상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2)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연상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3) 자극어의 품사에 따라 연상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

[4] Sökman(1993)에서 50개, Wolter(2001)에서 45개, Namei(2004)에서 100개, Fitzpatrick(2006)에서 60개, Fitzpatrick(2015)에서 100개의 자극어를 선정한 것과 비교하면 신재윤(2012)의 20개, Kim(2011)의 10개의 자극어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이다.

[5] Sökmen(1993)에서는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어 연상 실험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의 모어가 연상 반응에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어 모어 화자, 중국어 모어 화자, 아랍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연상 반응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모어를 가진 집단 간 연상 반응에 차이가 나타났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상위어와 하위어 연상 반응이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어 모어 화자의 경우 s-p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Hahn, 2012:30), 단어 연상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의 모어는 통제하는 것이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의 K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어 연수생, 대학생, 대학원생이었으며, 중국인 학습자 39 명(남: 6 명, 여: 33 명), 한국어 모어 화자 21 명(남: 5 명, 여: 16 명)이 참여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39 명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과 언어교육기관의 수강 단계를 기준으로 TOPIK 3 급 1 명, TOPIK 4 급 10 명, TOPIK 5 급 2 명, TOPIK 6 급 21 명, 언어교육원 3 단계 3 명, 언어교육원 4 단계 2 명으로 조사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과 언어교육기관의 수강 단계에 따라 3, 4 급(단계)은 중급(16 명, 남: 3 명, 여: 13 명), 5, 6 급(단계)은 고급(23 명, 남: 3 명, 여: 20 명)으로 구분하였다.

3.2. 실험 도구 및 절차

3.2.1. 단어 연상 실험지

단어 연상 실험은 연상어의 제약에 따라 자유 연상과 통제된 연상으로 구분한다. 자유 연상은 자극어에 대해 떠오르는 연상어를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이고, 통제된 연상은 자극어에 대해 유의어나 반의어만을 연상하게 하는 등의 제약을 두는 것이다. 또한 연상어 수에 따라 하나의 연상어만을 반응하는 단답형과 복수의 연상어를 반응하는 다답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응에 제약을 두지 않는 자유 연상과 하나의 연상어만을 반응하는 단답형으로 진행하였다[6].

자극어는 '2017 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 등급화한 한국어교육 초급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7]. 그리고 조남호 외(2003)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명사 24 개, 동사 24 개, 형용사 24 개를 선정하였다.

---

[6] Schmitt(2010:251)에서는 실험 참여자에게 복수의 연상어를 반응하게 할 경우 본래 자극어가 아닌 이미 반응한 연상어가 후행하는 연상어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snow→cold, winter, ski, white, black'). 본 연구는 Schmitt(2010)의 지적처럼 연상어가 연쇄(chain)되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의 연상어만을 요구하였다.

[7] 초급에 포함된 1급 어휘 735개 중 명사 409개, 동사 90개, 형용사 59개, 2급 어휘 1100개 중 명사 700개, 동사 193개, 형용사 79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 참여자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고려하여 1급, 2급 어휘만을 자극어로 선정하였다. 다만, 빈도수 800 이상의 형용사에 제시된 '중요하다'의 경우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어휘 목록에는 없지만 조남호 외(2003)에 제시된 빈도를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표 1] 자극어 목록

빈도	명사	동사	형용사
1~200	휴가, 생일, 동물, 교통, 열쇠, 날짜, 구경, 거울	외우다, 싫어하다, 만지다, 건너다, 고치다, 물어보다, 빌리다, 자르다	맵다, 느리다, 귀엽다, 조용하다, 슬프다, 깨끗하다, 복잡하다, 따뜻하다
300~600	환자, 능력, 회사, 전화, 마을, 나이, 사랑, 하늘	팔다, 모으다, 잘하다, 배우다, 믿다, 놀다, 마시다, 웃다	재미있다, 가깝다, 아프다, 강하다, 젊다, 힘들다, 길다, 아름답다
800<	예술, 방법, 학교, 문화, 나라, 돈, 생각, 사람	잡다, 찾다, 앉다, 만나다, 만들다, 모르다, 살다, 받다	어렵다, 중요하다, 새롭다, 다르다, 좋다, 많다, 같다, 없다

3.2.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실험은 자극어를 읽고 연상어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 대상 설문지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중국어로 제시하였다. 자극어는 한국어만 제시하였고 연상어 역시 한국어로만 쓰게 하였다. 자극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임의의 순서로 배열하여 제시하였다.

연상어의 분류는 머릿속 단어들의 관계를 유추하기 위한 틀로서 연결 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초기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통합적, 계열적, 음운적 연상의 전통적인 세 분류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한 연상어와 자극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에 따라, Fitzpatrick(2006)을 축소한 Fitzpatrick(2007)과 Kim(2011)을 참조하여 <표 5>와 같은 분류 기준을 세웠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양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SPSS 21.0 이 사용되었다[8].

[8] Fitzpatrick(2006)에서는 Nation(2001)의 논의를 참고하여 자극어와 연상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Nation(2001)에서는 단어의 수용과 생산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단어를 안다는 것'에는 형식(form), 의미(meaning), 사용(use)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고, Fitzpatrick(2006)은 이를 참고하여 의미 기반(meaning-based), 위치 기반(position-based), 형태 기반(form-based)의 대분류와 17개의 하위분류를 제안하였다. Fitzpatrick(2014:41)에서는 세 가지 대분류가 전통적인 분류법인 계열적,

[표 2] 연상어 분류 기준

분류	하위분류	예시
의미-기반 연상	유의어	고치다→수리하다
	반의어	길다→짧다
	어휘 세트/문맥적 관계 (등위어, 전체/부분어, 상위/하위어)	동물→개
	개념적 연상	같다→평등
위치-기반 연상	SV 결합	마시다→커피
	OV 결합	사람→많다
	기타 결합 관계	놀다→놀이터
	합성어	교통→사고
형태-기반 연상	접사의 변화	예술→예술가
	유사 형태	아프다→고프다
불규칙 연상	관계없음/공란	

4. 연구 결과

4.1.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연상 반응 비교

[표 3]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전체 연상 반응 결과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집단 내 연상 반응은 의미-기반 연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위치-기반 연상의 비율이 높았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위

통합적, 음운적 연상과 겹쳐지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대분류에 하위분류를 추가하면서 연상어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immigration→politics'와 같은 개념적(conceptual) 연상의 경우 통합적, 계열적, 음운적 연상의 전통적 분류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Fitzpatrick(2006)이 제안한 분류의 의미 기반 연상에 개념적 연상이 포함되면서 연상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치-기반 연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의미-기반 연상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응에서 의미-기반 연상이 위치-기반 연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신재윤, 2012; Kim, 2011; Wolter, 2001).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신재윤(2012)과 Kim(2011)의 일본인 학습자와 미국 내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의미-기반 연상이 위치-기반 연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위치-기반 연상이 의미-기반 연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L1 화자의 s-p 이동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통계적 분석으로 확인하기 위한 대응표본 T 검정(Paired-Samples T-Test) 결과 L1 화자의 의미-기반 연상과 위치-기반 연상의 평균 차이(12.85)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671, p<.05). 비록 한국어 모어 화자의 연상 반응을 연령대별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s-p 이동의 결과로 기대되는 위치-기반 연상의 우세가 성인 모어 화자에게서 확인되었다.

[표 3]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전체 연상 반응

	한국어 모어 화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의미-기반 연상	878 (58.07%)	1217 (43.34%)
위치-기반 연상	608 (40.21%)	1384 (49.29%)
형태-기반 연상	17 (1.12%)	143 (5.09%)
불규칙 연상	9 (0.6%)	64 (2.28%)
합계	1512 (100%)	2808 (100%)

[표 4]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연상 반응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연상 반응별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의 결과 의미-기반 연상, 위치-기반 연상, 형태-기반 연상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위치-기반 연상에서의 평균 차이(6.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t=-1.828, p=.073).

[표 4]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의미-기반 연상	L1	41.81	10.97	3.359	.001**
	L2	31.21	12.01		
위치-기반 연상	L1	28.95	11.12	-1.828	.073
	L2	35.49	14.18		
형태-기반 연상	L1	.81	.98	-4.229	.000**
	L2	3.67	4.00		
불규칙 연상	L1	.43	.59	-3.914	.000**
	L2	1.64	1.75		

** $p < .01$, * $p < .05$

4.2. 숙달도에 따른 연상 반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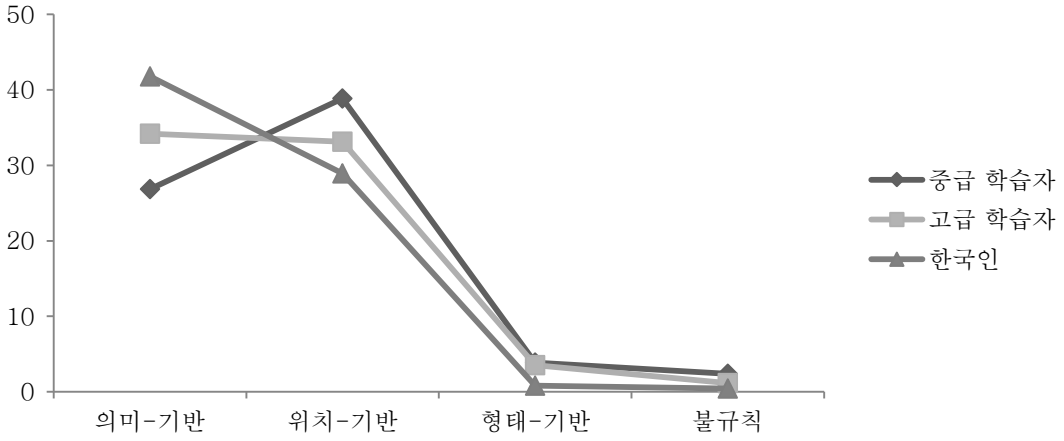
[표 5]는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연상 반응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연상 반응별 평균의 차이를 보면 불규칙 연상에서만 차이가 나타나고(t=-2.299, p<.05), 다른 연상 반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중급에서 고급으로의 학습자의 숙달도 변화가 의미-기반 연상, 위치-기반 연상, 형태-기반 연상 반응에 있어 통계적 차이로 나타날 만큼 연상 반응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함께 비교하였을 때는 다른 분석이 가능해진다.

[표 5] 중급,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의미-기반 연상	고급	34.21	13.10	1.945	.059
	중급	26.88	8.96		
위치-기반 연상	고급	33.13	14.99	-1.253	.218
	중급	38.87	12.63		
형태-기반 연상	고급	3.52	3.42	-.268	.790
	중급	3.88	4.82		
불규칙 연상	고급	1.13	1.25	-2.299	.027*
	중급	2.38	2.12		

$^{**}p < .01$,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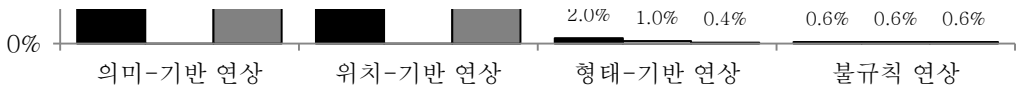
중급, 고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연상 반응을 함께 비교하기 위해 3 개 이상의 표본의 평균 차이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네 개의 연상 반응 중에서 위치-기반 연상(F=2.598, p=.083)을 제외한 의미-기반 연상(F=7.891, p<.01), 형태 기반 연상(F=5.121, p<.01), 불규칙 연상(F=9.027, p<.0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구체적인 집단 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LSD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기반 연상의 사후분석 결과 중급 중국인 학습자(p<.001)와 고급 중국인 학습자(p<.05)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형태-기반 연상에서도 중급 중국인 학습자(p<.01)와 고급 중국인 학습자(p<.01)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치-기반 연상에서는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만 차이가 나타났고(p<.05), 불규칙 연상에서는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고급 중국인 학습자(p<.01),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그림 1]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연상 반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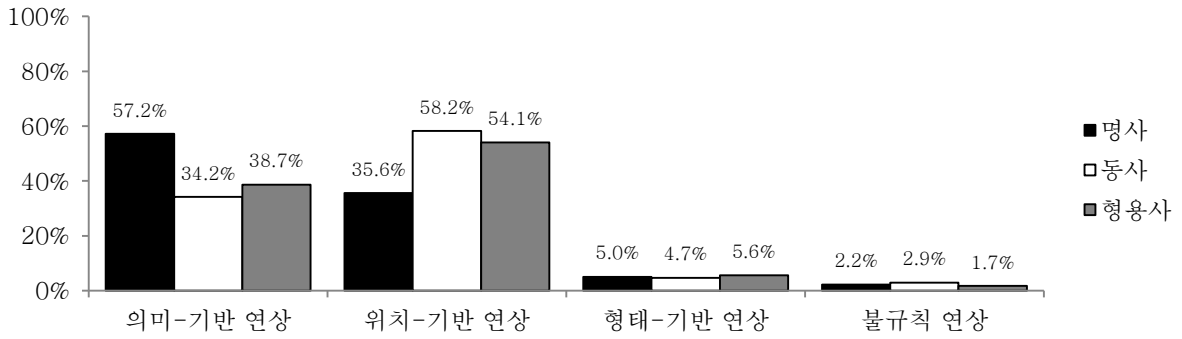
[그림 1]을 통해 중급, 고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평균 연상 반응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 숙달도가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때 한국어 모어 화자의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급에서 고급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통합적 연상 감소와 계열적 연상 증가로 나타나는 s-p 이동이 L2 화자인 중국인 학습자에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품사별 연상 반응 비교



[그림 2] 한국어 모어 화자의 품사별 연상 반응

[그림 2]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극어 품사별 연상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연상 반응에 나타난 품사별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품사는 의미-기반 연상(F=9.075, p<.001)과, 위치-기반 연상(F=9.93, 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의미-기반 연상과 위치-기반 연상에 나타난 개별 품사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의미-기반 연상은 명사와 동사(p<.01), 명사와 형용사(p<.001)에서 차이를 보였고, 위치-기반 연상 역시 명사와 동사(p<.01), 명사와 형용사(p<.001)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연상 반응 모두 동사와 형용사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 중국인 학습자의 품사별 연상 반응

[그림 3]은 중국인 학습자의 품사별 연상 반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품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의미-기반 연상(F=11.011, p<.001)과, 위치-기반 연상(F=9.888, p<.001)에서만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 차이를 보인 연상 반응들의 LSD 와 Dunnett T3 의 사후검정을 보면 의미-기반 연상의 경우 명사와 동사(p<.001), 명사와 형용사(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위치-기반 연상에서도 명사와 동사(p<.01), 명사와 형용사(p<.01)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지만, 동사와 형용사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용사와 동사 간 연상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Nissen&Henriksen(2006)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동사와 형용사가 통합적 연상과 계열적 연상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인 것과는 대조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연결망을 특정 단어들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통해 탐구하고, 연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숙달도와 자극어의 품사를 독립변수, 연상 반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빈도를 고려한 자극어를 선정한 후 중·고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단어 연상 실험을 하였고, 연상 반응을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일원분산분석의 통계적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어휘 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어휘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L1 화자와 L2 화자의 어휘 조직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증하고 비교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연상 반응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어휘 조직의 발달은 몇몇 논의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고, s-p 이동과 같은 선형적 변화만을 보인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여러 단어들의 품사, 의미, 형태 등의 특징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 지식, 숙달도 등의 요인들을 단서로 단어

들의 연결망에 접근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의 어휘 조직이 어휘 교육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확장을 위해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조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학습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제시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추후 과제를 남긴다. 첫째, 네 가지의 분류법으로 다양한 연상 반응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Fitzpatrick(2006)에서 제안한 소분류 등을 활용하여 연상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급 학습자를 포함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어 연상 실험의 양적 분석 연구가 부족하여 다양한 교차 검증이 부족하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단어 연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현화(2013),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의 이론과 실제, 언어와 문화,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9(3), 1-38.

김은혜(2012),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중섭 외(2017), 2017 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신재윤(201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의미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룡(2014), 한국어의미론과 인지심리학의 접점 및 전망, 『語文硏究』, 어문연구학회, 79, 81-115.

조남호 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Aitchinsion, J.(2012). *Words in the Mind*(4th ed.). Oxford: Wiley-Blackwell. 홍우평 역(2014). 『언어와 마음』. 진샘미디어.

Brown, R., & Berko, J.(1960). Word association and the acquisition of grammar. *Child Development* 31. 1-14.

Cui, Y.(2009). The Development of Lexical Organization in Chinese EFL learners at Tertiary Level. *Arizona Working Papers in SLA & Teaching* 16. 57-73.

Entwisle, D. R.(1966). *Word associations of young children*. Baltimore: John Hopkins Press.

Ervin, S. M.(1961). Changes with Ages in the Verbal Determinants of Word-Associ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74(3). 361-372.

Fitzpatrick, T.(2006). Habits and rabbits: word associations and the L2 lexicon. *EUROSLA Yearbook* 6. 121-46.

Fitzpatrick. T.(2007). Word association patterns: unpacking the assum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7(3). 319-331.

Fitzpatrick. T.(2015). Establishing the Reliability of Word Association Data for Investigating Individual and Group Differences. *Applied Linguistics* 36(1). 23-50.

Fitzpatrick, T., & Munby, I.(2014). Knowledge of word associations. In Milton, J., & Fizpatrick, T.(eds.). *Dimensions of vocabulary knowledge*. UK: Palgrave Macmillan. 92-105.

Hahn, Hye-ryeong(2014). Korean EFL Learners' Lexical Development: Evidence from a Word Association Test. *Modern English Education* 15(1). 27-48.

Jiang, N.(2002). Form-meaning mapping in vocabulary acquisition in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 617-637.

Kim, M. S.(2010). Korean language learners' collocational word associ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classroom teaching,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35. 1-21.

Kroll, J., & Stewart, E.(1994). Category interference in translation bilingual memory naming: Evidence for asymmetric connections between bilingual memory representation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149-174.

Meara, P.(2006). Emergent properties of multilingual lexicons. *Applied Linguistics* 27. 620-44.

Namei, S.(2004). Bilingual lexical development: A Persian-Swedish word associ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4(3). 363-388.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issen, H., & Henriksen, B.(2006). Word class influence on word association test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6(3). 389-408.
Orita, M.(2002). Word Associations of Japanese EFL Learners and Native Speakers: Shifts in Response Type Distribution and the Associative Development of Individual Words. ***Annual Review**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Japan*** 13. 111-120.
Pavlenko, A.(2009). Conceptual representation in the bilingual lexicon and second language vocabulary learning. In A. Pavlenko (eds.). *The Bilingual Mental Lexicon: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125-160.
Read, J.(2004). Plumbing the depths: how should the construct of vocabulary knowledge be defined?. In Bogaards, P., & Laufer, B.(eds.). *Vocabulary in a Second Language: Selection, Acquisition and Tes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209-227.
Schmitt, N.(2010). *Researching Vocabulary: A vocabulary research manua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Schmitt, N., & Meara, P.(1997). Researching vocabulary through a word knowledge framework: word associations and verbal suffix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 17-35.
Söderman, T.(1993). Word association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and native speakers: Different response types and their relevance to lexical development. In Hammerberg, B.(eds.). *Problems, process and product in language learning*. Finland: Abo Academic. 157-169.
Sökmen, A. J.(1993). Word association results: A window to the lexicons of ESL students, *JALTJournal*, 15(2). 135-150.
Wesche, M., & Paribakht, T. S.(1996). Assessing vocabulary knowledge: depth vs. breadth.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3. 13-40.
Wolter, B.(2001). Comparing the L1 and L2 mental lexicon: A depth of individual work knowledge model.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 41-69.

이름: 이유미
소속: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gjhuym@naver.com

개념적 혼성 리론에 기초한 합성명사의 의미 구성 연구
-'N+밥'형 합성명사를 중심으로-

동초연

(복단대학교)

1.문제의 제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의미는 형태의 이면에서만 존재하며, 체계라는 닫힌 구조속에서만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합성명사 연구는 합성명사의 의미 구조 또는 의미 관계 규명에 주력, 그 안에서 합성의 보편적인 조건이나 일반적인 규칙을 찾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구조주의 시각에서 합성명사는 의미 구조적으로는 종속, 병렬, 융합으로 나뉘고, 통사 구조적으로는 내심적 합성명사와 외심적 합성명사로 나뉘며, N1 과 N2 의 자질 분석을 통하여서는 위치, 모양, 시간, 빛깔, 목적 등 최대 24 가지 의미관계로 나뉜다.이러한 분류는 합성명사의 연구에 일정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고 연구의 방향을 시사해주는 등

① 분류기준에 관한 문제

서정수(1980)등에서 지적하다시피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속, 병렬, 융합으로의 분류는 그 분류기준이 일관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종속과 병렬은 의미 구조에 따른 분류이고, 융합은 의미 결합의 정도성에 따른 분류로서, 목전의 기준에 따르면 (1a)는 종속 합성명사이면서 동시에 융합 합성명사이고, (1b)는 병렬 합성명사이면서 동시에 융합 합성명사이다.

(1) a, 가시덤불, 종이호랑이, 쑥대밭
    b. 강산, 밤낮, 피땀

이는'인간은 남성,여성,어른으로 나뉜다'와 같은 론리로서,'의미 구조'와'결합의 정도성'이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뭉뚱그려 전체 합성명사를 삼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② 융합 합성명사의 설정 문제

융합 합성명사 설정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융합 합성명사로 분류되는 (1a)와 (1b)의 합성명사들이 언제나 융합 합성명사로서의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부를 생각해보기

로 한다.

(2) a. 우리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다 온몸을 긁혔다.(고려대학한국어사전)
b. 지나간 시절은 그야말로 첩첩이 쌓인 가시덤불이었다. (고려대학한국어사전)

(3) a. 며칠 밤을 내리 새운 뒤 이틀 밤낮을 잠만 잤다.(표준국어대사전)
b. 그는 밤낮 술타령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례문 (2a)와 (3a)에서 보다시피, 융합 합성명사로 분류되는‘가시덤불’이나‘밤낮’이 절대적으로 한 덩어리의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며, 항상 완전히 융합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③‘종속’에 관한 문제

‘종속’이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매이는 관계를 가리키는데, 종속 합성명사에서의‘종속’은 일반적으로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수식하는 어근은 수식어로, 수식을 받는 어근은 핵어로 칭하고, 수식어는 핵어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책가방, 돌다리, 소고기

(4)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책’은‘가방’을, ‘돌’은 ‘다리’를, ‘소’는 ‘고기’를 수식하면서 그에 종속되는데, 이와 같은 단어들은 핵어와 합성명사가 동일한 문법 범주에 속하며, 둘 사이에는 뚜렷한 하의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내심적 합성어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합성명사 연구는 그 연구대상을 이들 내심적 합성명사로 제한한다. 그러나 한국어 합성명사에는 (5)와 같이 수식어의 일정한 특성이 핵어에 투사되어 이루어지는 합성명사가 아닌 합성명사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5) a. 책벌레, 자식농사, 이야기꽃
b. 어깨깡패, 얼굴천재, 영혼탈곡

(5a)는 오랜 세월 언중의 입에 오르내리던 단어들이나 핵어와 합성명사와의 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연구의 선상에서 배제되어 온 합성명사들이며, (5b)는 최근 인터넷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신어들로서 그 단어 구성이나 의미 구성에서 (5a)와 동일한 맥락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5)의 합성명사들과 같은 경우, 병렬관계로 만들어진 합성명사가 아니며, 의미적으로 융합된 합성명사로 볼 수 없다는 견지에서 결론적으로 종속 합성명사에 귀속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성명사들은 그 수식어가 핵어를 수식한다고

보기에는 억지스럽고, 수식어와 핵어가 종속관계에 놓인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론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개념적 혼성 리론에 기초하여 의미구성이라는 동적인 시각에서 합성명사의 분류기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의미구성의 본질: 개념적 혼성

Fauconnier&Turner 에 의해 창안된 개념적 혼성 리론에 따르면, 의미 구성은 전형적으로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을 발생시키는 구조의 통합을 수반한다. 개념적 혼성은 입력공간의 구축, 입력공간들 사이의 공간횡단 사상 및 혼성공간으로의 투사 등 과정을 포함하는데, 의미 구성은 크게 단순 연결망, 거울 연결망, 단일범위 연결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①단순 연결망

단순 연결망은 하나의 입력공간에만 조직 프레임이 있고 다른 입력공간에는 특정한 요소들만 있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이다.

(6) 미자는 철수의 어머니이다.

이 문장은 단순 연결망을 통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첫 번째 입력공간에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역할이 들어있는데, 이 입력공간은 친족관계 프레임으로 구조화된다. 두 번째 입력공간에는 미자와 철수라는 개별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다. 입력공간들은 '프레임(역할)-값'이라는 외부공간 중추적 관계에 의해 공간횡단 사상을 달성하고 '철수-아들', '미자-어머니' 는 혼성공간으로 투사되며, 혼성공간에서는 친족관계 프레임에 따라 '미자는 철수의 어머니'라는 발현구조가 창조된다. 이 관계는 입력공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정보이다.

②거울연결망

거울 연결망은 모든 정신공간들이 하나의 조직 프레임을 공유하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이다. 즉 두 개의 입력공간은 동일한 조직 프레임을 가진다. 총칭공간 역시 동일한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된다.

(7) 메시가 326 경기 만에 300 골을 달성한 반면, 호날두는 불과 285 경기만에 300 골 고지를 밟았기 때문이다. (2018.2.25 inter football)

(7)은 호날두의 라 리가 300 골 달성 소식을 답은 기사문이다. 이 기사문의 의미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개의 입력공간은'골 달성'이라는 동일한 조직 프레임을 공유하는데 조직 프레임은 적절한 활동, 사건, 참여자의 본질에 좇아 정신공간을 구조화

한다. 이에 따라 입력공간 1 에는 [호날두],[285 경기],[300 골],[2018] 등 요소들이 포함되고 입력공간 2 에는 [메시],[326 경기],[300 골],[2016] 등 요소들이 포함된다. 두 개의 입력공간이 동일한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될 때, 입력공간들 사이의 공간 횡단 사상도 훨씬 간단하게 달성된다.‘호날두’입력공간과 ‘메시’입력공간의 요소들은 각각 시간, 유사, 동일성이라는 중추적 관계에 의해 일치를 달성하고 혼성공간에 선택적으로 투사된다.혼성공간 역시‘골 달성’프레임에 의해 꾸려지면서, 입력공간의 프레임에‘경쟁’이라는 혼성공간만의 정교한 프레임이 더해진다.

③단일범위 연결망

단일범위 연결망은 입력공간들이 서로 다른 조직 프레임을 가지며 그가운데 한 조직 프레임만 투사되어 혼성공간을 구조화하는 개념적 통합 연결망이다. 단일범위 연결망은 매우 전형적인 근원-목표 은유의 원형이다.혼성공간에 조직 프레임을 제공하는 입력공간은 구체적인 입력공간으로서 전통적인 개념적 은유 이론의 모형에서 말하는 근원영역에 해당하고, 다른 입력공간은 초점 입력공간으로서 목표 영역에 해당한다.

(8)심장이, 태엽이 멈추었다.

이 문장은 『신체는 기계』라는 개념적 은유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기계의 영역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신체의 영역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다. 기계는 신체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압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렬하고 간결한 프레임이다. 우리는‘머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말하고,‘마음이 고장났다’라고 말한다. 신체 상황에 대한 이런 해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 연결망의 구축을 촉진한다.‘시계’입력공간에는【태엽,시계,멈추다】 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심장’입력공간에는【심장, 신체, 멈추다】 등 요소가 들어있다. 두 입력공간은 『심장은 태엽』이라는 은유적 관계를 통하여 공간횡단 사상을 달성하고 혼성공간으로 투사된다. 혼성공간을 구조화하는 조직 프레임은 근원영역의 조직 프레임의 확장으로서 여기에서는‘시계’프레임이 혼성공간으로 투사된다. 혼성공간으로 선택적 투사된 【태엽-심장,시계-신체, 멈추다-멈추다】는 합성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완성을 통하여‘시계의 태엽이 멈추다’라는 패턴을 완성한다. 이 패턴은 혼성공간의 운용을 통하여 이 패턴에 대응되는 역할을 대입하여 ‘(신체의) 심장이 멈추다’라는 의미를 생성한다.

이상의 론의를 살펴보면, 의미의 구성은 크게 혼성공간에서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는 관계 결합형, 동일한 프레임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병렬 결합형, 한 입력공간이 다른 입력공간에 의해 이해되는 은유 결합형으로 나눌수 있다.

3. ‘N+밥’ 형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개념적 혼성 이론에 따르면, 의미 자체는 그 복잡성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개념적 혼성의 산물이다. 전체 문맥이나 의미 표상의 결여로 인해 합성명사의 의미 구성은 문장의의미 구성보다 그 과정이 풍부하지 못하지만 의미 구성의 방식은 문장의 의미 구성 방식과 동일하다. 먼저 관계 결합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쌀밥’과 ‘을 살펴보자.

‘쌀밥’의 입력공간1에는 ‘밥’조직 프레임이 들어 있고, 입력공간2에는 구조화 되지 않은, ‘밥’의 속성을 만족시킬수 있는 요소인 ‘쌀’이 들어있다. 혼성공간은 ‘밥’입력공간의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 되며, 혼성공간에서 ‘쌀’ 과 ‘밥’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두 입력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쌀밥’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

‘김밥’은 본질적으로 ‘쌀밥’과 동일시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밥’의 의미가 전체 의미에서 차지하는 지위, 곧 연결망에서 프레임 입력공간이 가지는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프레임 입력공간의 위상은 곧 특정 요소 입력공간에 대한 지배력으로 이어진다. ‘쌀밥’에서 ‘밥’은 ‘쌀’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반면, ‘김밥’에서 ‘밥’과 ‘김’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김밥’과 공기하는 단어들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김밥’은‘쌀밥’과 달리, ‘짓다’가 아닌 ‘말다, 싸다’와 같은 동사들과 이어지며, ‘한 줄, 두줄’과 같은 량사와 어울린다. 이는 ‘쌀밥’의 의미 중심이 ‘밥’에 놓여 있는 것과 달리, ‘김밥’의 의미 중심은 ‘밥’이 아닌 ‘김과 밥, 그리고 그 속에 들어 가는 반찬소’를 포함하는 ‘김밥’이라는 음식에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프레임을 가지는 입력공간의 지배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쌀밥’이나 ‘김밥’은 모두 혼성공간에서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다음은 동일한 프레임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병렬 결합형 합성명사를 살펴보자.

(9)옷밥: 옷과 밥을 아울러 이르는 말. 흔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이른다.

¶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옷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국어대사전)

의 문장에서‘옷밥’은 네 개의 입력공간이 모두 동일한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되는 거울 연결망의 구축을 촉진한다.‘옷’과 ‘밥’은 ‘의식주’라는 조직 프레임에 의해 구조화되어 각각【생활에 필요함, 천, 입다】 ,【생활에 필요함, 쌀, 먹다】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입력공간을 구축한다. 유추에 의한 사상을 통해 대응요소들은 혼성공간에 투사되고, 합성과 완성을 거쳐‘생활에 필요한 입고 먹는 일’이라는 새로운 발현구조를 생성한다.

거울 연결망을 통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병렬 결합형 합성명사들은 그 의미가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일차적인 혼성을 완성하고 상황과 문맥에 따라 2 차적인 혼성이 진행되어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주식으로 충분한 돈을 벌었으니 이제 옷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10)과 같은 경우, 문맥의 의미에 따라 '옷밥'은 단순히 '옷'과 '밥'을 어우르는 의미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임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먹밥','머슴밥'과'개밥'을 통하여 은유 결합형 합성명사들의 의미 구성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는 '주먹, 백옥, 감투'의 형태와 '밥'모양 사이의 사상을 통하여 '밥'의 형태를 이해한다. 근원영역의 형태로 목표영역의 형태를 이해하는 영상은유는 단순 연결망에서 단일범위 연결망으로 들어서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형태로 형태를 이해하는 은유가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근원영역 '주먹', '백옥', '감투'가 목표영역 '밥'의 이해에 제공하는 직관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의 개념적 구조는 감각 경험과 내성적 경험을 포함한 지각 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주먹과 감투에 대한 경험적 표상의 차이는 근원영역에 대한 이해와 바로 연결되고, 따라서'주먹'이 '밥'의 이해에 제공하는 직관성은 '감투'에 비해 훨씬 선명하고 풍부하다.

(11) 머슴밥: 수북하게 많이 담은 밥.

¶ 꾹꾹 눌러 담은 머슴밥과 맛깔나는 된장찌개를 내주던 할머니 백반집도 사라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머슴'은 농업노동뿐만 아니라 연료채취와 같은 가사로동에도 사역되었다고 한다. 하루 노동시간을 10 시간으로 계산하면 머슴은 연평균 225 일을 노동한 것으로 나타나 그 노동의 강도가 매우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하루 5,6 차례나 했는데 그 밥을 '머슴밥'이라고 한다. '머슴밥'은 비록 밥을 눌러 담은 형태를 나태내는 낱말이기는 하나 '머슴'의 모양이 아닌,'머슴은 밥을 많이 먹는다'는 속성이 환기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먹밥'의 경우와 다르다. 근원영역의 속성으로 목표영역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추리를 동반한다.

'인간척도를 달성하는 것'이 개념적 혼성의 상위 목표인 것을 감안하면,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속성을 부여하여 의인화하려는 시도나, 그 역으로 특별히 부각되는 동물의 속성으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책벌레'나'술고래'와 같은 단어들이 그리 놀라 운 것은 아니다. '개밥'이라는 표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의 척도로 동물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4. 마무리

본 론문은 전통적인 합성명사의 분류의 문제점을 출발점으로, 개념적 혼성의 시각에서 합성명사의 분류에 새로운 의미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의미론적 시각에서의 분류기준 제시를 위하여 2장에서는 개념적 혼성 이론의 의미구성

방식을 살펴보았다. Fauconnier&Turner 에 의해 창안된 개념적 혼성 리론에 따르면,‘의미의 구성은 전형적으로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을 발생시키는 구조의 통합을 수반한다.’ 이는 합성명사에 대한 기존의 정적인 의미 구조 연구에 의미 구성이라는 동적인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합성명사의 의미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개념적 혼성 이론에서는 단순 연결망, 거울 연결망, 단일범위 연결망을 통하여 의미의 구성을 설명하는데 곧, 의미의 구성은 크게 혼성공간에서 새로운 관계가 확립되는 관계 결합형, 동일한 프레임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병렬 결합형, 한 입력공간이 다른입력공간에 의해 이해되는 은유 결합형으로 나눌수 있다.

3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의 구성 방식을 합성명사의 분류 기준에 수렴하여 ‘N+ 밥’합성명사를 ‘쌀밥’, ‘김밥’과 같은 관계 결합형 합성명사, ‘옷밥’과 같은 병렬 결합형 합성명사, ‘주먹밥’, ‘머슴밥’, ‘개밥’과 같은 은유 결합형 합성명사로 분류하여 그 의미 구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1].강병창, “은유적 합성명사의 의미구성 유형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고찰”, ≪인문연구≫, 2013 년, 68 호.

[2].김동환(2013),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3].이종열(2002), ‘혼성에 의한 은유적 의미의 인지과정’, ≪담화와 인지≫ 제 9 권 1 호,담화인지언어학회.

[4].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5].Gilles Fauconnier&Mark Turner, 2002, The Way We Think, Basic Book. (김동환·최영호 옮김(2009),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호.

[6].Vyvyan Evans&Melanie Green 2006, Cognitive Linguistics: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임지룡·김동환 옮김(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동초연
복단대학교
18521707389
choyean@163.com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우진

(한국 중앙대학교)

1. 서론

많은 유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중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문의 내용과 깊이는 학부 과정과 분명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들이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과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학술 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 하지만 대학원생들의 요구 조사 결과와 실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학술 보고서 작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생들은 매 학기마다 많은 양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논문을 제출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특히 논문은 고도의 논리성을 요구하고 그 구조와 체계가 엄격하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작성하기에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어려운 쓰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서 대학교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 학기 여러 차례 보고서와 논문 작성에 관한 특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강은 배경지식이 서로 다른 내국인과 외국인, 학부 과정 학생과 대학원생, 계열과 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한다는 점, 내용도 글쓰기 윤리와 표절 피하기에만 많은 비중을 두고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2]

또한 그간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다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쓰기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고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보고서 쓰기에 대한 연

[1] 송현주(2014)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공 교과의 교수들은 학습자에게 전공 지식 전달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강의를 해 왔으며, 학습자가 과제물로 제출한 글이 갖는 내용과 구조, 형식에 대한 피드백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글이 갖는 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 2017년 국내 4개 대학의 논문 관련 특강을 조사하였는데 주로 각 대학의 도서관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 C대학의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과 '학술적 글쓰기' 특강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하였고 학교에서는 따로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보고서 쓰기 수업이나 논문 작성 관련 수업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현진(2011), 정다운(2011, 2014 ㄱ, 2014 ㄴ, 2016), 박은선(2014), 박미숙·방현희(2014), 정다운(2016), 전미화·황설운(2017), 김정온(2017)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학위 논문 작성에 초점을 두어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방안이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공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겠다.

이를 통해 본고는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보고서 쓰기 수업 개설의 필요성과 학위 과정에 따라 작성하는 보고서 및 논문의 구조, 형식,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국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국어국문학과 중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술 보고서 쓰기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학습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과 특징을 살린 효과적인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학술 보고서 쓰기에 대한 요구 조사

본 조사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17 년 9 월부터 11 월까지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 학습자 80 명을 대상으로 총 3 차에 걸쳐 수정 보완하였다.[3] 설문지는 직접 배부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총 18 개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설문 내용은 인적 사항,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학업과 학습자 한국어 쓰기 실력의 관계,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유형[4],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한국어 쓰기와 보고서 관련 글쓰기 교육 경험, 보고서 쓰기 관련 교재 사용 유무, 한국어 쓰기와 보고서 쓰기 관련 수업 개설의 필요성이라는 총 6 개 영역[5]으로 나누어졌고 세부적인 문항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3] 1차는 2017년 9월에 진행하였으며 '가장 많이 과제로 부과되는 보고서의 유형'과 '가장 어려운 보고서 유형'을 설문지 문항으로 보충하였다. 2차는 2017년 10월 초에 진행하였고 '학과 및 전공 특징을 살린 보고서 쓰기 수업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을 보충하였다. 3차는 학습자들이 쓰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쓰기 교재 사용 여부'와 '쓰기 교재에서 얻은 도움'에 대한 질문을 보충하였다.

[4] 기존 연구에서 학술 보고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4] 최선미(2008), 김정남(2008), 김연심(2011)에서는 보고서를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였고 최은지(2009)에서는 서술 대상 및 연구 방법에 따라 보고서를 분류하였다. 강금만(2010)에서는 대상, 목적과 방법, 기술 형식에 따라 보고서를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따르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보고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명 보고서, 논증 보고서, 조사 보고서, 감상 보고서, 요약 보고서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목적에 따른 분류'를 따르는 것이 학술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본 논의의 성격에 적절하다고 본다.

[5] 정다운(2014)에서 제시한 4개의 영역(개인 정보, 대학원 학업과 한국어 능력의 관계, 대학원에서 한국어와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경험, 한국어와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토대로 본 조사에서는 총 6개 영역으로 나눠서 설문을 진행한다.

<표 1> 설문지 문항 내용

영역	문항 번호	내용
인적 사항	1	TOPIK(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대학원 학업과 학습자 한국어 쓰기 실력의 관계	2	한국어 쓰기 실력에 대한 자기 평가
	3	보고서 쓰기의 어려움 정도
	7	보고서 작성 시 가장 어려운 부분
보고서 유형 및 작성 횟수에 관한 질문	4	과제로 가장 많이 부과되는 보고서 유형
	5	가장 어려운 보고서 유형
	6	보고서 작성 횟수(한 학기)
대학원에서 한국어 쓰기와 보고서 관련 글쓰기 교육 경험	8	한국어 쓰기 공부 유무
	9	한국어 쓰기 공부 방법
	10	보고서 쓰기 관련 수업의 경험 유무
	11	보고서 쓰기 수업에서의 학습 내용
보고서 쓰기 관련 질문	12	보고서 쓰기 교재 사용 유무
	13	보고서 쓰기 교재에서 얻은 도움 유무
한국어 쓰기와 보고서 쓰기 관련 수업 개설의 필요성	14	보고서 쓰기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15	보고서 쓰기 관련 수업 개설의 필요성
	16	개설 시 수업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17	학과와 전공 특징을 살린 보고서 쓰기 수업 개설의 필요성
	18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도움

다음 학술 보고서 쓰기와 관련하여 어렵거나 배우고 싶은 내용에 대한 세부 항목 설정에 대해서도 정다운(2014)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6]

1.1. 조사 분석 결과

위에서 제시한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 학습자들의 TOPIK 급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5, 6 급이었고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한국어 및 한국어 쓰기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7] 그러나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대학원에서 학술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한국어 쓰기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보고서 쓰기에 대해 어려워하고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습자들이 보고서 작성 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1 위부터 5 위까지 정리해보았는데 1 위로 '정확한 표현으로 글쓰기', 2 위로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펼쳐 나가기', 그 뒤로 '연구 주제 선정하기'와 '선행 연구 비판적 고찰 및 요약 정리하기'가 각각 3, 4 위를 차지했고 5 위는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익히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면 정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중국어와 문장구조가 다른 한국어로 논리성 있게 정확한 표현을 써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도 논리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결과는 학술 보고서 쓰기를 교육함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력, 논리성. 정확한 표현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다수 학습자들은 '요약 보고서'를 가장 많이 작성하고 '논증 보고서' 작성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위에서 응답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 펼치기'에 대한 결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들 대부분이 학술 보고서 쓰기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쓰기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면 주로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알

[6] 정다운(2014)에서는 18가지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본고에서는 11가지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글쓰기 윤리 이해하기', '정확한 표현으로 글쓰기', '보고서 쓰기의 형식 및 구조 익히기', '보고서에 사용되는 표현 익히기', '연구 주제 선정하기', '제목과 목차 작성하기', '선행 연구 비판적 고찰 및 요약 정리하기',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결정하기',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익히기',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펼쳐 나가기', '참고문헌 정리하기'로 나누었다.

[7] 김선정 외(2016)의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 중 5, 6급의 쓰기 평가 기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급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적은 사회적·추상적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고 업무적, 학문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어휘, 문체 등에서 격식에 맞게 글을 쓸 수 있고 다양한 표현법 중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설명문, 감상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쓸 수 있다. 6급 학습자들은 설명문, 감상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요약해서 쓸 수 있고 자신의 업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으며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논문, 연설문, 공식적인 문서 등을 쓸 수 있다.

아서 해결하기에는 한국어가 너무 미숙하고 전공에 따라, 보고서 유형에 따라 글의 흐름과 형식 및 구조, 내용 지식이 다르기에 일방적으로 혼자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체계적인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 째, 소수의 학습자들이 쓰기 교재로 보고서 쓰기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보고서 관련 쓰기 수업을 개설하여 교육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보고서 쓰기 수업을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수업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부분 중국인 대학원생들은 한국어 공부보다는 연구를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러므로 평소 수업 내용이 어렵고 부과되는 과제도 많다. 이에 따라 다른 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매 주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특강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8]

여섯째, 과반수의 학습자들은 보고서 쓰기 관련 수업은 각 계열, 각 학과 및 전공 특징을 살려서 그에 맞는 수업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학과마다 작성하는 보고서 유형과 구조 및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중국인 학습자의 학술 보고서 쓰기 자료 분석

3.1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이 한국어로 학술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두 TOPIK 5 급 이상 고급 학습자들이다. 2 장에서 제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학술 보고서의 유형은 논증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학기 초(4 주차)에 교수님이 부과한 주제로 논증 보고서를 A4 용지 5 장 이상을 작성하게 하였고 3 주 동안의 시간[9]을 주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에 맞게 수업을 듣는 신입생 중 중국인 석사 1 차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총 20 편의 논증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논증 보고서 주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TOPIK 이나 교재에서 제시한 논설문 주제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말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였다. 논증 보고서 주제는 '결정적 시기 가설'이다.

2) 분석 방법

[8] 특강은 학습자들의 다른 교과목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주말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제4장에서 제시한다.

[9] 학습자들이 준비 단계에서의 자료 검색 및 수집, 초고 작성 단계, 수정 단계를 고려하여 시간을 정하였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논증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학문 목적 글쓰기 교재에서 학술적 글쓰기의 논증 텍스트 분석 기준[10]을 바탕으로 구성 영역을 보고서의 기본 양식과 기본 구조로 나누어 분석하고 내용 영역, 표현 영역 외에 자료 인용하기를 분석 항목에 넣어 총 4 개의 범주[11]로 아래와 같이 분석 기준을 제시해 본다.

<표 2>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 논증 보고서 분석 기준

구성 영역	기본 형식	▲표지에 과제명, 교과명, 담당 교수, 학생의 소속과 성명, 학번, 제출 일자가 있는가? ▲목차를 제시하고 규약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참고문헌>을 제시하는가?
	기본 구조	▲서론, 본론, 결론 3 단 구획이 분명한가? ▲서론, 본론, 결론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서론에서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포함 여부) ▲각 단락의 흐름이 유기적이면서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구조를 이루는가? (응집성)
내용 영역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글을 작성하였는가? ▲주장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적절하면서 타당한가?
표현 영역		▲사용한 어휘가 논증 보고서에 적합한가? ▲논증 보고서에 적합한 문체인가?
자료 인용하기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할 때 '인용하기' 윤리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주석 포함) ▲<참고문헌> 작성 규약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내어 쓰기 포함)

위에서 제시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이 작성한 논증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분석 결과 및 논의

[10] 논증 텍스트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정리한 연구로는 최종수(1999), 남주혜(2011), 이지민(2011), 우해영(2012), 박영화(2016) 등이 있는데 내용 영역, 구성 영역, 표현 영역,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논증 텍스트의 평가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자료 인용하기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실제를 반영하여 '자료 인용하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총 4가지 범주로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11] 대학원생들은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양식에 맞게 글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분석 결과, 표지 및 목차 등이 규범에 맞지 않거나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참고문헌 정리, 자료의 인용에서도 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였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학원생이라 하여도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하지 않으면 보고서 쓰기 형식 규약 및 윤리에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들이 4 주차에 걸쳐 작성한 논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어느 정도 보고서 구성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이라 여겼던 대학원 학습자들이 보고서 형식 및 구조에서 가장 취약함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중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 즉 격식의 오류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서론-본론-결론' 3 단 구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락과 단락 간의 유기성, 단락 내 응집성이 떨어지는 텍스트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둘째, 내용 영역에서는 대다수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와 짜깁기하여 글을 작성했다는 점, 이러한 짜깁기 문제로 인해 글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견해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설득력이 부족하여 학습자들의 독창성과 논리성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은 텍스트 분석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셋째, 표현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이 서술형 종결 어미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양상을 발견했고 '나이 큰', '과양하게'와 같은 한자어와 중국식 표현을 많이 사용했으며 자신의 견해를 서술할 때 '나는', '저의 생각에서는', '내 개인적 관점일 뿐'과 같은 주관적인 표현, 개인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료 인용 부분에서는 표절 및 각주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고서 5 장을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줄 간격을 늘렸다거나 글씨체 및 크기가 다양하다는 점,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쓰고도 수정하지 않아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의외로 조사의 오류 등 문법적인 오류가 많았다는 점이 있다.

이처럼 대학원 학습자라도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개념 및 내용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보고서의 형식 및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여 보고서의 논리성, 단락 간의 유기성, 문장과 문장 간의 응집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에서 제일 먼저 초점을 두고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 보고서 쓰기 수업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중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 내용

본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들을 위한 학술 보고서 쓰기에서 필요한 단계별 활동과 내용을 제시하겠다.

4.1 선정 기준

먼저 각 단계별에서의 교육 내용은 실제 교육 방안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첫째, 교육 대상은 모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들로서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이지만 이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실제성을 반영하여 이론 부분부터 상세하게 다룬 다음 보고서 쓰기 전략에 대해서 다룬다.

둘째, 모든 읽기 자료와 연습 문제는 학과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제공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실제 쓰기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 기존 교재를 참고하고 본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다음의 <표 3>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학술 보고서 쓰기 단계별 활동

준비 단계	보고서에 대해 알기	▲개념 및 유형 알기 ▲형식 및 구조 알기 ▲보고서 문체 알기
	보고서 계획하기	▲주제 정하기 ▲참고 자료 검색하기 ▲연구 방법 및 대상 결정하기 ▲표지 및 목차 작성하기
연습 단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올바르게 인용하기 ▲선행 연구 비판적 고찰하기 ▲효과적으로 논증하기 ▲정확한 표현으로 쓰기
집필 단계	실제 보고서 작성하기	▲서론 쓰기 ▲이론적 배경 쓰기 ▲연구 방법 및 결과 쓰기 ▲논의하기 ▲결론 쓰기 ▲참고 문헌 작성하기
정리하기 단계	피드백 하기	▲발표하기 ▲동료 피드백 ▲교사 피드백

4.2 교육 내용

학술 보고서 쓰기 단계를 준비 단계, 연습 단계, 집필 단계, 정리하기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활동을 제시하고 각 단계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보고서에 대해 알기’와 ‘보고서 쓰기 계획하기’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은 보고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들은 설문 조사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이 ‘논리적으로 내 생각 펼쳐 나가기’라고 했지만 실제 작성한 논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의 형식과 구조조차도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체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여 중국식 한자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한다거나 서술형 종결 어미가 일관성을 이루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보고서의 구조와 형식, 문체에 대해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본인이 쓰고 있는 보고서 유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체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이러한 이론 교육은 학습자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에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 ‘주제 정하기’, ‘참고 자료 검색하기’, ‘연구 방법 및 대상 결정하기’, ‘표지 및 목차 작성하기’에 대해서 교육할 것이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의 설문 결과와 텍스트 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주제 정하기’는 보고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에서 3 위, 배우고 싶은 내용에서 5 위를 차지하였고 ‘연구 방법 및 대상 결정하기’는 보고서 작성 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우고 싶은 내용에서 5 위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검색하기’는 학습자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선택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학기 초에 한 번도 보고서를 작성해 보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는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그림 예시를 통해 <참고문헌> 검색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2) 연습 단계

연습 단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주장하기에 대해서 교육할 것이다. 2 장의 설문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펼쳐 나가기’는 보고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으로 2 위를 차지하였고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는 1 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먼저 ‘올바르게 인용하기’에 대해 교육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 분석 결과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각주 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옮겨 쓰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는 스스로 보고서의 서론부터 결론까지 자기 생각만으로 작성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글쓰기 윤리에 대해 교육해야 하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활동은 실제 같은 학과, 전공의 연구자가 작성한 글을 사례로 제시하고 연습하게 한다. 다음으로 설문 조사와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정확한 표현으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데에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실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읽어보고 평가해보도록 하고 논증 표현을 배워보면서 실제 단락 쓰기 연습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으로 고쳐보기 활동을 진행하는데 오류가 있는 보고서 중 문장 몇 개를 직접 고쳐 써보도록 한다.

(3) 집필 단계

집필 단계에서는 실제로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활동이다.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 학습자들이 3단 구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론 쓰기', '이론적 배경 쓰기', '연구 방법 및 결과 쓰기', '논의하기', '결론 쓰기', '참고 문헌 작성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학과 특성에 맞는 읽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제공할 것이고 이러한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는 '서론-본론-결론'을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각 단계에 필요한 표현들을 직접 배움으로써 실제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작성하기'는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텍스트 분석 결과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오류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참고문헌> 작성하기'는 집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하겠다.

4) 정리하기 단계

정리하기 단계에서 '발표하기'와 '피드백'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것은 학습자들이 학기 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미리 발표를 하고 동료 및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및 고쳐 쓰기를 한다는 실제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 한 편의 보고서를 완성하고 동료와 교사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쳐 쓰기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겠다.

5.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이 학술 보고서 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신입생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로 학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르쳐야 하는 활동을 단계별로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모색하였다.

앞서 연구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학원에서 학술 보고서는 필수적인 쓰기 과제이고 작성하는 양도 적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학부 과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그 수가 적고 지속적으로 간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대학원생들에게는 쓰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교육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반수의 학습자들이 학술 보고서 쓰기 수업을 개설하기를 원했고 계열, 학과 및 전공에 맞게 수업을 진행해달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수업 내용 중에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신입생들이 작성한 실제 보고서를 구조, 내용, 표현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학습자들이 요구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보고서 형식 및 구조에서 가장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내용들이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썼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글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인용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에 나타난 문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들을 위해 단계별 활동에 따라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을 위한 학술 보고서 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계열, 학과 및 전공에 맞는 학술 보고서 쓰기 수업을 개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중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제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는 것과 그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적용의 예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정 외(2016), 『한국어 표현교육론』, 형성출판사.

김정남(2008), 「텍스트 유형과 담화 표지의 상관관계: 유학생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제 24 권 0 호. pp.1-26.

김정숙(2007), 「읽기·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술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제 33 권 0 호. pp.73-99.

김정온(2017),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텍스트 쓰기 교육 실행 연구-학술논문 서론의 장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진(2011), 「학위논문 작성 교과목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외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2 권 제 1 호. pp.47-73.

박미숙·황현희(2014),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 해결과정」, <문화교류연구> 제 3 권 제 1 호. pp.389-420.

박은선(2014), 「장르 중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수의 실행 연구-대학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미화(2012), 「한국어 학습자의 보고서 쓰기를 위한 내용 지식 구성 방안 연구」, 배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미화·황설운(2017),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내용 구조 분석 연구-'선행연구 검토'부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 14 권 제 1 호, pp.197-221.

정다운(2011), 「外國人 大學院生의 韓國語 要約文 分析을 통한 要約하기 敎育 方法 硏究」, <어문연구>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421-448.

_____(2014 ㄱ),「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쓰기 수업 사례 연구」, <어문론집>58, 중앙어문학회, pp.487~516.

_____(2014 ㄴ),「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분석」, <어문론집>60, 중앙어문학회, pp.389-420.

_____(2016),「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 담화표지 교육 연구」, <어문론집>68, 중앙어문학회, pp.67-84.

최선미(200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술 보고서 쓰기 교재의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우진

한국 중앙대학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82-10-8120-3656

yanyuzhen0105@naver.com